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련된 내용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의 회의록 공개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3. 12. 14.(목),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참석위원 : 박은경(위원장), 김규호, 김순희, 김태영,
박은순, 이완우, 이한상, 임영애, 최영호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6건		비 고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1	부안 내소사 동종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	공 개
3	경주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	공 개
4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	공 개
5	복재선생집	공 개
6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공 개
【검토사항】 14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7	북원수회첩	공 개
8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	공 개
9	석가여래성도기주	공 개
10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	공 개
11	사천 백천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공 개
12	‘천수원’명 청동북	공 개
13	청동북	공 개
14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공 개
15	불조삼경	공 개
16	금강반야바라밀경	공 개
17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공 개
18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공 개
19	여지도서	공 개
20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2	공 개

심 의 사 항

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안건번호 등산 2023-06-001

1. 부안 내소사 동종 (扶安 來蘇寺 銅鍾)

가. 심의사항

‘부안 내소사 동종’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부안 내소사 동종’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16.12.27.)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8.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10.31.~'23.11.29.)하고,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1963.1.21. 지정)
- 명 칭 : 부안 내소사 동종(扶安 來蘇寺 銅鍾)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내소사
-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내소사
- 수 량 : 1구
- 규 격 : 전체 높이 104.8cm, 구경 67.2cm
- 재 질 : 청동
- 형 식 : 단룡의 종뉴를 가진 동종(불교의식구)
- 조성연대 : 1222년(고려 고종 9)
- 제작자 : 한중서(韓冲紱)



<부안 내소사 동종>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내소사 동종은 명문에 의해 1222년(貞祐 10)에 장인 한중서(韓冲敍)가 전남 부안(邊山)에 제작한 것이 확인되어 제작 시기와 제작 장인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13세기 초 고려시대 범종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내소사 동종은 통일신라 범종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시대 범종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장식 요소들을 다수 엿볼 수 있다. 첫째 천판 위 건부를 장식하는 입상화문대가 발견된다. 고려시대 범종의 주조 방식의 변화에서 유추되는 것으로 용뉴와 종신을 따로 주조하여 접합하게 되면서 생기는 주물 접합선을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 기술적인 성취를 엿볼 수도 있다. 둘째 범종의 상대와 하대 및 유곽에는 모란당초문대가 배치되는데 활짝 핀 모란과 측면의 모란이 당초문과 어우러져 있다. 셋째 부조상은 통일신라 범종의 천인상에서 고려시대 범종의 불보살상으로 이행되었는데 특히 내소사 동종에서는 다른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삼존상을 배치한 점이다. 연화좌와 구름좌 위에 본존상의 좌상에 선정인의 자세를 하고 있고 좌우 협시상은 입상의 보살상을 배치하여 고려불화에서 보이는 아미타내영도와 친연성도 간취된다. 더욱이 삼존상 위로 배치된 천개는 다른 어떠한 범종

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유려한 곡선과 장식적인 유소로 예술적인 기교가 탁월하다. 넷째 당좌에 부조된 연화문은 화형(花形)의 자방(子房)과 중판(重瓣) 연화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방은 중앙에 하나의 연과자(蓮課子)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연과자를 두르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연화문은 1213년부터 1252년까지 활동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장인 한중서가 제작한 금고와 범종의 문양과 동일하여 장인의 개인 양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형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

게다가 이러한 내소사 동종에 표현된 장식 요소는 장인 한중서의 개인 양식일 뿐만 아니라 범종의 조형성에서 전통적인 미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다른 범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이 범종만의 예술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내소사 동종은 통일신라 범종의 전통 위에 1222년 한중서라는 당대 최고의 주종 장인이 입상화문대를 돌출시키거나 불보살을 부조하거나 상하대에 모란당초문과 같은 장식 요소를 가미하여 제작한 불교 금속공예품으로, 제작년도와 제작자가 확실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고, 같은 시기의 다른 범종들보다 기술적 성취가 우수하며 예술적으로나 조형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현재의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총 높이 104.8cm에 이르는 고려 후기 종 가운데 가장 큰 크기로 현재 내소사의 보종각에 걸려 단절 없이 종 본연의 기능을 이어오고 있는 종이다. 현재 고려시대 동종은 160여 점 정도 파악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년을 정확히 알려주는 종은 많지 않다. 종신에 음각된 주종기를 통해 1222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연대와 棟梁道人 虛白이라는 주관자, 한중서라는 장인을 알 수 있는 13세기 동종의 기준작으로, 우리나라 범종사에서 귀중한 작품이다. 더불어 처음 청림사에 봉안할 때의 주종기와 1853년 은사 김성규와 완암 정우에 의해 내소사로 이안될 때의 移安記를 동시에 남기고 있어, 종의 역사적 변천사를 더듬는 데도 유익하다.

이 동종을 제작한 한중서는 이 작품 외 동종과 금고 등 다른 작품도 남기고 있어 생애사적 연구가 가능한 고려시대 유일한 장인이기도 하다. 그는 관청수공업에 종사한 관장으로서, 39년간 사원의 종과 금고 등 여러 가지 범음구 제작에 참여한 13세기의 대표적인 예술가였다. 그는 壽寧宮主房의 시위군 말단 군사(고령사 반자)에서 시작하여 무산계 정7품 별정동정까지 승진할 정도로 고려사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장인이었다. 한중서라는 인물의 작품을 통해 고려시대 장인의 사회적 인식과 위치, 관장의 역할과 활동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역사적 사료로도 가치가 크다.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수많은 범종 가운데 종뉴에서 천판, 입상화문대, 상대와 하대의 문양, 연곽과 연뢰의 조화, 종복의 감각적인 삼존불의 표현

등 종이 갖고 있는 종교적 기능의 표현이나 조형적으로 우수하며, 기술적으로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와 더불어 고려 후기 제작된 종 중에서는 규모면에서 가장 크다. 고려 전기 종과 달리 이 종은 천판과 종견이 마주대하는 부분에 구름모양의 입상화문대를 둘러 장엄하였고, 종복에는 보관 장식을 한 불삼존이 구름을 타고 중생구제를 위해 내영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종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불삼존은 천개와 여래삼존, 연화대좌와 구름 등이 어우러진 회화성이 짙은 모습에서, 13세기 불화 작품이 전무한 시점에서 고려불화의 복원적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작품이다.

주종기를 통해 제작시기, 제작자, 주관자를 알 수 있고, 移安記를 통해 이안내력까지 파악할 수 있다. 고려 후기 동종 중에서 규모와 조형, 제작기술 면에서 단연 뛰어나므로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주종장 한중서(韓冲叙)가 제작한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수많은 범종 가운데 가장 양식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다. 용뉴부터 종신에 표현된 세부 문양의 화려함과 독창적인 삼존불의 표현, 종의 구조상태까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범종으로 손색이 없다. 특히 내소사 동종은 대체로 2구씩 표현되던 합장형의 보살좌상이 본존과 함께 배치되며 보살입상으로 변화한 점과 당좌도 4개로 늘어나는 등 내소사 종의 장식성과 예술성은 이후 고려 범종의 모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조 기술면에서도 상부 천판과 용뉴의 안정적인 결합, 종신으로 말끔히 관통된 음통, 섬세한 문양 표현, 화려하면서도 정제된 조각 수법, 종신 문양의 적절한 구성력 등에서 한중서의 숙련된 기술력과 예술성을 엿볼 수 있다. 이 범종은 전체적인 형태, 조각, 구조 기술 및 설계 등에서 한국범종사와 제작기술을 연구하는데 학술적, 기술적, 예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주성기에 봉안처와 조성연대, 조성목적, 발원자 및 제작 장인 등 주성 내력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 한국 범종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며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지금까지 언급한 가치들을 종합해 볼 때 1963년 이미 보물로 지정된 <내소사 동종>은 신속히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되어 적극적인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형 식

<내소사 동종>은 고려시대 1222년에 한중서(韓冲敍)라는 장인이 제작한 높이 104.8cm, 입지름 67.2cm의 중형 종으로 한국 종의 전통을 잘 계승하면서 정교한 표현과 사실적인 조각으로 고려 후기 걸작으로 손꼽힌다. 종의 정상부에는 소리의 울림을 돕는 음통에 무늬가 정교하고,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뉴는 사실적이고 조형적인 용머리를 지닌 모습으로 위치하고 있다. 종의 어깨 위에는 고려시대 범종의 특징인 입상화문대(立狀花紋帶)가 불룩 솟아올라 있으며, 그 바로 아래쪽 상대(上帶)와 종 아래쪽의 하대(下帶) 부분에는 활짝 핀 모란꽃과 덩굴무늬 띠로 장식되어 있다. 종의 위쪽 네 면에는 사각형의 유곽대에 연주문과 당초문을 각각 배치하고 그 안에 9개의 돌출된 유두는 작은 연꽃봉오리처럼 솟아 있다. 종을 치는 부분인 당좌는 활짝 핀 연꽃으로 부조되어 있고, 종의 몸통 부분에는 구름 위에 삼존상이 새겨져 있다. 삼존상의 가운데 본존불은 활짝 핀 연꽃 위에 선정인의 자세로 앉아 있고, 좌·우 양쪽의 협시불은 입상으로 서 있는 모습이다. 삼존상 위로는 구름의 꼬리가 날아오르고 삼존상 위로 천개가 휘날리는 배치가 인상적이다. 연꽃 당좌와 당좌 사이에 긴 명문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고려 고종 9년(1222)에 한중서(韓冲敍)가 청림사 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부조로 새겨져 있어 제작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철종 원년(1850)에 내소사로 옮겼다.



<한중서 작, 내소사 동종, 1222>

○ 조성연대와 제작장인

내소사 동종에 부조된 명문에 의하면 이 종에는 ‘청림사’라는 명문이 있고, 청림사는 변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절은 삼한시대부터 오래된 사찰임을 밝히고 있다.¹⁾



아울러 동종에 음각되어 있는 명문을 보면 “...貞祐十年六月日社主禪師湛默記 貞祐壬午六月初七日 邊山靑林寺金鍾 鑄成入重七百斤 棟梁道人虛白 道人宗益 匠韓仲敍...”이라고 새겨져 있다. 이 내용을 통해 금나라의 연호인 정우(貞祐) 10년(1222) 6월 초7일 변산(邊山)에 위치한 청림사(靑林寺)의 동종[金鐘]을 무게 700근으로 주성하였는데, 동량도인 허백(虛白)과 도인 종익(宗益)이 발원하여 장인 한중서(韓仲敍)가 제작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²⁾



<내소사 동종에 새겨져 있는 명문 부분>

1) “靑林寺銘/ 扶寧邊山中有靑林/三韓前寺華古鼎今/...”.

2) <靑林寺鍾銘> 『韓國金石全文』 中世下篇, 아세아문화사, 1984.

이와 같이 고려시대 범종 중에서 정확한 제작시기를 명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종은 총 22점이다. 곧 10세기 1점, 11세기 4점, 12세기 3점, 13세기 11점, 14세기 3점이다. 그런데 내소사 동종처럼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고려 동종 중에서도 발원자나 주종장인까지 병기되어 있는 것은 매우 희소한 사례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고려 범종 중에서 명문을 통해 제작양상과 장인에 대한 시기별 분석이 가능하다.³⁾

한편 고려 범종을 발원한 주체는 명문에 의해 사원, 승려 개인, 향리, 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 내소사 범종과 비슷한 사례로는 <계지사명종(戒持寺銘鍾), 1065년 명), 안수사명종(安水寺銘鍾, 1197년 명)이 있다.



<戒持寺銘鍾, 1065년,
日本福岡縣福岡市承天寺 소장>

<安水寺銘鍾, 1197년,
부산박물관 소장>

<靑林寺銘來蘇寺鍾, 1222년,
내소사 소장>

무엇보다도 내소사 동종에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금속 장인이라 할 수 있는 ‘한중서(韓仲敍)’의 존재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한중서는 1222년 <청림사명(靑林寺銘) 내소사 동종>과 1238년 <무술년 신훈사명(神龍寺銘)종>을 만든 장인이다. 그가 만든 범종은 두 점이며 그중에서 내소사 동종은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편 한중서는 고려시대 금속 장인 중에서 범종 뿐 아니라 반자 등 다양한 작품을 제작한 것이 확인된다. 범종 이외에 한중서가 제작한 작품으로는 <崇慶2年高嶺寺銘飯子>(1213년), <戊戌年福泉寺銘飯子>(1238년), <壬子年安養社銘飯子>(1252년) 등이 현존하고 있다. 이러한 명문을 통해 그가 범종이나 반자 등의 금속공예품을 1213년부터 1252년까지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

3) 서성호, 「高麗時代 金屬 佛具 造成과 願主」, 『丹豪文化研究』 10, 2006, p.93.

4) 박敬源, 「高麗 鑄金匠考: 韓仲敍와 그의 작품」, 『考古美術』 149, 1981, pp.6~22.

<표1. 韓仲敍가 제작한 각종 불교 유물>

	유물명	제작시기	지위
1	高嶺寺 飯子	康宗 2년(1213)	侍衛軍 仲敍
2	來蘇寺 鍾	高宗 9년(1222)	匠 韓沖敍
3	戊戌銘 神龍寺 小鍾	高宗 25년(1238) 4月	大匠 韓仲敍
4	戊戌銘 福泉寺 飯子	高宗 25년(1238)	別將同正 韓仲敍
5	壬子銘 安養社 飯子	高宗 39년(1252)	別將同正 韓仲敍

이러한 각종 유물에 새겨져 있는 명문에 의해 韓仲敍는 오랜 기간 동안 범종과 금고를 제작한 당대 뛰어난 장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명문을 통해 그의 지위가 侍衛軍士→匠→大匠→別將同正으로 승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이른 시기에는 청녕궁주방(壽寧宮主房)의 시위군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가 1222년 내소사 동종을 제작할 때부터 우수한 동종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자로 성장하여 장인이라는 명칭을 새겨 넣을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특히 한중서가 제작한 범종과 금고의 당좌에 표현된 연화문을 보면 같은 장인에 의해 표현된 개인적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른 시기의 고령사명 반자는 당좌구의 중심에 연과자만 원형으로 둘렀고 나머지 6개의 연과자를 둥글게 배치한 뒤 전체를 화형의 테두리로 장식하였고 바깥으로 12중엽의 중판과 간엽을 시문하였다. 고령사 반자는 이후에도 계속 복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222년 내소사 동종의 당좌는 원권으로 싸여 있지 않으며 가늘고 긴 중판의 12엽 연화문으로 중판 내에 엽맥문을 시문하였다. 판단은 날카로운 편이며 삼중으로 둘러진 花形의 자방과 그 안에는 삼중으로 구성된 1+5의 연과자가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한중서가 제작한 금고와 범종의 당좌 문양은 화형의 자방(子房)과 중판(重瓣) 연화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방은 중앙에 하나의 연과자(蓮課子)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연과자를 두르는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한중서가 활동한 13세기는 당시 범종과 금고에서 중판 연화문의 형식이 유행한 시기와 일치하며 그의 작품에는 동일한 당좌의 문양이 계속 사용되었고 기타 부속 문양만을 조금씩 변형시켜 표현하였다. 이처럼 한 장인에 의해 동일 문양이 꾸준히 유존되었다는

사실은 한중서가 수차례에 걸쳐 제작한 금고와 범종들을 통해 독특한 문양의 표현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

뿐만 아니라 그는 1236년부터 1251년까지 제작된 <高麗大藏經> 즉 팔만대장경의 經板에도 글씨를 새겼던 刻手 중에 동일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각수로 한중서가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판은 『放光般若波羅蜜經』 권20, 『摩訶般若波羅蜜經』 권4, 『道行般若經』 권6 등이다. 이 경전들의 많은 경판 중 대략 26판 정도의 경판에 ‘冲敍’ 혹은 ‘中敍’의 이름이 기록된 각수가 확인된다. 이러한 대장경의 판각 연대가 대략 1238년에서 1240년 사이로 한중서의 활동 시기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당시 최대의 국가사업인 대장경 제작에 각수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韓仲敍의 40년이 넘는 활동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가 비록 일반인이자 개인 사장(私匠)에서 출발하였지만 이후에는 ‘별장동정(別將同正)’이라는 관직을 받고 관장(官匠)으로 활동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가 제작한 작품들의 명문을 통해 파악되는데 <숭경2년 고령사명 반자(崇慶2年高嶺寺銘飯子)> (1214)에서 그는 시위군(侍衛軍)의 지위로 병역을 지는 동안 공역으로 반자를 제작하는 데 참여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청림사명(靑林寺銘) 내소사종> (1222년)을 제작할 때에는 일반 사장의 의미인 ‘장인(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이 시기까진 관장의 직위는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238년에 이르면 한중서는 장인 중의 우두머리로 성장한 것이 확인된다. <무술년 신룡사명 동종(戊戌年神龍寺銘鍾)>(1238)의 명문에 의하면 그는 ‘대장(大匠)’의 명칭을 쓰고 있어, 장인으로 내소사 동종을 만든 이후 16년이 지나 대장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⁶⁾ 같은 해 제작한 <무술년 복천사명 반자(戊戌年福泉寺銘飯子)>(1238)의 명문에서는 ‘별장동정(別將同正)’이라는 관직명이 확인된다. 이로 미루어 1238년부터 기술적으로 숙련되어 장인의 우두머리인 대장의 지위에 올랐으면서 한편으로는 관에 소속된 관장으로서 관직까지 사여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252년까지 계속 활동하면서 <임자년 안양사명 반자(壬子年安養社銘飯子)>(1252)의 명문에 의하면 이때에도 ‘별장동정(別將同正)’이라는 관직을 쓰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임자년 안양사명 반자(壬子年安養社銘飯子)>(1252)의 명문에 의하면 ‘경사공인지가중주성(京師工人之家中鑄成…)’이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이를 통해 개경에 있는 장인 집안에서 반자(飯子)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이 반자를 만든 장인이 바로 ‘별장동정 한중서(別將同正 韓仲敍)’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한중서는 장인가문으로 가업을 이은 것을 알 수 있다.⁷⁾

5) 고명지, 「高麗 梵鍾의 裝飾 要素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p.117~118.

6) <神龍寺鍾銘> 『韓國金石全文』 中世下篇, 아세아문화사, 1984. “戊戌四月日 鑄成 橫川地神 龍小鍾 大匠 韓仲敍.”

이처럼 내소사 동종을 만든 한중서는 1214년부터 1252까지 38년간 장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처음 반자를 제작할 당시에는 장인이면서 사장이었으며, 1222년 내소사 동종을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그의 금속 제작 기술은 숙련되었으며 1238년에는 장인 중 우두머리인 대장으로 승진하였다. 그러면서 이 때 그는 ‘별장동정’이라는 관직에도 올라 있어 관장으로서 국가의 공역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1252년까지 꾸준히 범종이나 반자의 주물작업 뿐 아니라 대장경의 각수로도 활동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장인이었다. 1222년 내소사 동종은 고려 금속공예 장인을 대표하는 한중서의 초기 작품으로 그의 기술과 명성을 엿볼 수 있는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 현 상

고려 범종은 국내에 100여 점과 국외에 60여 점이 있고 현재 160점이 소장되어 있다. 이 중 명문이 있는 것은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하며, 그중 절대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년명 범종은 26점이고 대체적인 상대연대가 파악 가능한 간지명 범종은 23점이다.⁸⁾

고려 범종은 1146년을 전후하여 전기와 후기로 구분된다. 전기는 신라종의 형태와 양식을 그대로 이어오고, 12세기 중엽 이후 고려 후기에는 고려시대 특유의 형태를 갖게 된다. 내소사 동종은 고려(高麗) 고종(高宗) 9년(1222)에 변산에 위치한 청림사(靑林寺)의 종으로 제작되었으나 조선(朝鮮) 철종(哲宗) 원년(元年)(1850) 내소사에 옮겨진 것으로 전해지는 전형적인 13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고려 후기 동종이다.

내소사의 범종은 전형적인 신라 범종의 토대 위에 고려적 미의식이 절충된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범종이다.

여의주를 입에 문 사실적인 단룡으로 고리를 만든 종뉴(鐘紐)가 위쪽에 위치하고, 종신(鐘身)의 어깨 위에는 이중여의두문(二重如意頭紋)의 입상화문대(立狀花紋帶)가 볼록 솟아있으며, 범종 몸체의 상대(上帶)와 아래쪽으로 약간 벌어진 하대(下帶)에는 화려한 모란당초문(牡丹唐草紋)의 배치되어 있고, 유려한 당초문대로 구성된 유곽(乳廓) 안에는 4개의 중판연화문(重瓣蓮華紋)이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매우 균형 있는 모습이다. 또한 유곽과 유곽 사이에는 양각으로 천개(天蓋)가 휘날리는 아래에 삼존상(三尊像)이 배치되어 있는데, 두 뺨이 볼록한 선정인(禪定印)의 본존은 연화좌(蓮華座) 위에 앉아 있고, 좌·우협시상(左右脇侍像)은 입상(立像)이면서 각 면에 총 4좌가 배치되어 있다. 이들 위에는 운미(雲尾)가 길게 솟아 있

7) 최웅천,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장인」, 『美術史學研究』 241, 2004, pp.174~175 ; 이광배, 「고려시대 범종의 발원계층과 주종장인」, 『東岳美術史學』 13, 2012, pp.132~133.

8) 송민아, 「고려시대 범종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9, p.30.

고, 그 위에는 장식을 훔날리는 보개(寶蓋)가 있어 한층 장엄한 느낌을 자아낸다. 당좌는 중판연화(重瓣蓮花)로 된 당좌가 4곳에 배치되어 있고, 당좌와 당좌 사이에는 3종류의 명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이처럼 내소사 종은 종신형(鐘身形)은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신라(新羅)의 종형(鐘形)을 따르나 고려 후기 종의 특징인 입상화문대가 볼록하게 튀어 나오게 되어 있다. 표면에 부조된 각종 도상이나 문양의 묘사수법은 정교하고 사실적이어서 고려 후기의 동종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이다.

종신 상하에 유대와 연대를 돌리고 그 안에 유려한 당초문이 긴명하게 양주되어 있으며 유대 위에는 여의두문과 유사한 입화형 장식이 솟아 있어 고려 종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유대 밑에는 4개소의 연주문과 모란당초문으로 구획된 유곽이 있고 그 안에는 각각 돌기된 9개와 연꽃 봉오리형 유두(乳頭)를 배치하고 있다. 정상에는 위에 주형이 달린 음통이 있고 머리가 큰 용뉴가 있는 바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예로부터 한국 범종의 독창성은 통일신라시대 <상원사종(725)>과 <성덕대왕신종(771년)>에서 간취되는 향아리형 종신과 한 마리의 용뉴, 음통, 여백을 강조한 종신의 아름다운 장엄과 함께 은은하고 멀리 울려 퍼지는 깊은 울림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우리나라 범종의 전형적인 양식인 통일신라의 범종 양식을 충실하게 계승한 고려시대 종은 전승된 바탕 위에 고려 만의 특징이 나난다.

용뉴는 신라범종에서 볼 수 있는 단룡으로 구성되고 용두에서 용의 입술은 삼각형으로 끝이 뾰족하여 옆에서 보면 마치 파도가 치듯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독자적인 표현이 된다.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에 보이는 세련된 장식미가 돋보이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용뉴 및 입상연판문대(立狀蓮板文帶) 등 새로운 표현이 등장하면서 한국 범종의 장엄 요소는 더욱 다채로워진다.

1) 용뉴(龍鈕)

내소사 동종의 용뉴는 용의 입 안에 표현되었던 보주를 발 위에 잡고 있고 가늘고 길어진 음통 위에는 작은 보주가 여러 개 장식되었다. 이전 시기의 고려 동종보다 훨씬 더 박진감 있고 사실적인 조각수법으로 생동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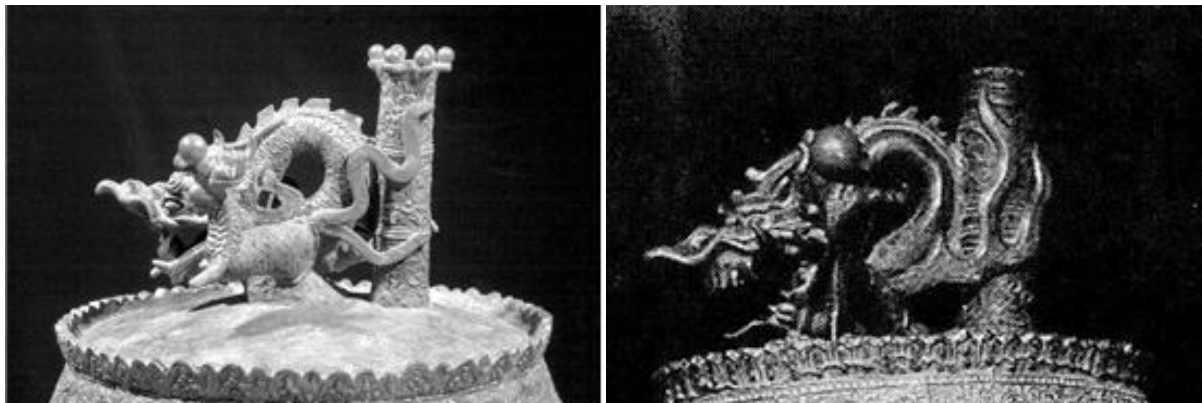
이러한 내소사 동종의 용뉴는 탑산사 동종과 무척 닮아 있어 같은 장인이거나 동일 계열의 장인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용두 앞으로 뻗은 왼발로 여의주를 잡고 있고 그 주위에 있는 2개의 불꽃 무늬가 음통을 감싸고 있다. 이러한 용은 머리에 커다란 뿔을 단 용이 뾰족하고 긴 이빨을 드러내 입을 크게 벌려 벼락같은 소리를 지르는 듯한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부릅뜬 두 눈 뒤로 활짝 편 귀가 있고 그 뒤로 잔뜩 치켜 든 허리에는 지느러미가 불끈불끈 솟아있는데 발톱을 세운 다리로 힘차게 발길질을 하고 있어 대단한 역동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용의 입술은 삼각형인데 끝이 뾰족하며 옆에서 보면 마치 파도가 치듯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다. 사실적인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용의 모습을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인 느낌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제작자의 의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용은 평소에는 연못이나 바다 속에 살다가 때가 되면 물을 박차고 나와 하늘로 올라가 지상과 초월적인 하늘을 연결해주는 영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내소사 동종은 탑신사 동종과 마찬가지로 웅혼한 용의 기운을 보는 사람이 인지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한중서, 내소사 동종의 용머리, 1222>



<내소사 동종의 용머리, 1222>

<탑산사 동종의 용머리, 1233>



<내소사 동종의 용과 음통>



<내소사 동종의 음통>



<내소사 동종의 용뉴와 음통>



<내소사 동종의 음통 위 모습>

2) 입상화문대(立狀花紋帶)

입상화문대는 천판의 견대(肩帶) 외연(外緣) 부분에서 연화가 양연처럼 위를 향해 높게 돌출되어 있으며 곧추선 상태로 서로 이어져 천판(天板) 둘레를 싸고 있는 부분이다. 돌출된 각 연판 안에는 꽃술 장식이 첨가되어 있다.

대개 연화형을 하고 있으며 간혹 산형이나 여의두형으로 된 것도 있다. 고려 범종 중에는 1058년 창녕 4년명 범종에서 입상대가 처음으로 나타나고 총 88점의 고려 동종에서 입상대가 표현되는데, 기년명의 것은 총 24점에서 나타난다.⁹⁾ 그중 내소사 동종보다 앞서는 것으로는 1057년 정풍 2년명 동종, 1185년 을사명 동종(국립부여박물관 소장), 1197년 정사 안수사명 동종(부산시립박물관 소장), 1217년 정우 4년명(국립광주박물관 소장) 등 4점에 불과하고, 1222년 내소사 동종이 고려 후기의 범종 중에서도 입상대가 표현된 이른 시기의 것에 해당된다.

이처럼 고려 범종에 입상화문대가 등장하는 것은 이전 시기와 주조방식의 변화가 유추된다. 용뉴와 종신을 따로 주조하여 접합하면서 생기는 주물 접합선을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의 기능과 함께 장식성이 더해져 하나의 문양대로 정착된 것

9) 최원정, 「高麗 梵鍾 樣式 小考」, 『文化史學』 17, 1999, pp.266~269, <표 1> 입상대가 장식된 고려 범종.

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내소사의 입상대는 이중여의두문(二重如意頭紋)으로 구성된 입상화문대(立狀花紋帶)인 점이 특징이다.



<내소사 동종의 천판 위 입상화문대>

	명칭	시대 ¹⁾	全高 (cm)	특징 및 소장처	銘文 有無
1	淸寧四年銘	1058년(文宗 12)	85.4		銘文
2	正豐二年銘	1157년(毅宗 11)	22.5		
3	乙巳銘	1185년(明宗 15)	62.5	국립부여박물관	
4	丁巳 安水寺銘	1197년(明宗 27)	48.7	부산시립박물관	
5	貞祐四年銘	1217년(高宗 4)	21.6	국립광주박물관	
6	來蘇寺鍾	1222년(高宗 9)	105.3	三尊佛 4位	
7	貞祐十一年銘	1223년(高宗 10)	37.2	飛天像 2位, 국립중앙박물관	
8	癸未 大惠院銘	1223년(高宗 10)	73.5	飛天像 2位	
9	己丑 竹丈寺銘	1229년(高宗 16)	33.1	湖巖美術館	
10	塔山寺鍾	1233년(高宗 20)	77.8	大興寺 유물전시관 소장, 菩薩立像 4位	
11	戊戌銘	1238년(高宗 25)	29.8	菩薩立像 4位, 국립중앙박물관	
12	戊戌銘	1238년(高宗 25)	45.3	국립부여박물관	
13	戊戌銘	1238년(高宗 25)	21.8	菩薩坐像 4位, 부산시립박물관	
14	己亥 頭正寺銘	1239년(高宗 26)	39.0	菩薩坐像 2位, 고려대학교박물관	
15	甲辰銘	1244년(高宗 31)	20.0	菩薩坐像 2位, 飛天像 4위, 金信權	
16	乙酉 水國寺銘	1369년(恭愍王 18)	24.5	僧像 4위, 康津 출토, 국립광주박물관	
17	戊寅 修淵院銘	13세기	24.5	菩薩坐像 2位, 湖林博物館	
18	甲申 善法院銘	1284년(忠惠王 5)	58.7	菩薩坐像 4위, 飛揚樂器, 宋成文	
19	五聖寺銘	1309년(忠宣王 1)	16.7	如意頭紋形 입상대, 국립경주박물관	
20	辛亥 正方寺銘	1311년(忠宣王 3)	23.0	如意頭紋形 입상대, 菩薩坐像 2位, 洪性夏	
21	甲寅 天生寺銘	1314년(忠肅王 1)	20.1	菩薩立像 4位, 국립청주박물관	
22	乙丑 寶巖寺銘	1325년(忠肅王 12)	35.7	菩薩坐像 4位, 국립중앙박물관	
23	弘武25년 長興寺銘	1392년(조선太祖 1) ²⁾	60.2	菩薩立像 4位, 서울 奉恩寺	
24	至大四年銘	1311년(忠宣王 3)	31.5	合掌飛天像 4位, 佛 세르느시박물관	

3) 상대와 하대 및 유곽

내소사 동종은 정상에 있는 입상대 아래쪽의 상대(上帶)와 아래쪽의 하대(下帶)에는 모두 화려한 모란당초문을 새기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모란당초가 범종의 문양으로 사용되는 것은 <청녕 4년명 종>(1058년)의 상대와 하대 및 유곽에서 보이는데, 꽃맥과 잎맥까지 확실하게 시문되어 있다.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된 모란당초문은 이후 11세기 보상당초에서도 보이지만 내소사 동종에서 보인다. 특히 내소사 동종의 모란당초문은 활짝 핀 정면과 측면의 모란이 보이고 모란이 피기 전 봉우리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¹⁰⁾



<내소사 동종의 상대-모란당초문, 1222>



<내소사 동종의 하대-모란당초문, 1222>



<‘清寧 4年銘 鍾’ 상대의 모란당초문, 1058>



<‘清寧 4年銘 鍾’ 하대의 모란당초문, 1058>



<‘清寧 4年銘 鍾’ 상대의 모란당초문, 1058>



<‘清寧 4年銘 鍾’ 하대의 모란당초문, 1058>



<내소사 동종의 상대>



<내소사 동종의 유곽>



<내소사 동종의 하대>

상대 아래 유곽(乳廓)은 통상적으로 네 곳에 배치되는데, 4개의 중관연화문(重瓣蓮華紋)이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매우 균형 있는 모습이다. 외연을 구획하여 인

10) 고명지, 「高麗 梵鍾의 裝飾 要素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p.94~95.

동문으로 장식하였으며, 9개의 유두(乳頭)는 각기 화문을 돌려 배치하고 있다. 유곽의 사다리꼴은 안정적이며 유두의 배치 역시 잘 정돈되어 있다.

4) 유곽 사이의 부조상

내소사 동종에는 삼존형식의 불상이 부조되어 있다. 이렇게 범종에 불보살상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 범종이 통일신라의 범종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고려시대 범종에는 다양한 종류의 부조상이 등장하는데,¹¹⁾ 천인상이나 여래상, 보살상, 장군상, 위패형 등이 나타난다. 이것은 고려 불화와 마찬가지로 아미타삼존이 유행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범종의 부조로 표현된 삼존상이 아미타삼존인지, 석가삼존인지 도상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내소사 동종의 삼존상과 천개, 1222>

<波上宮鍾>

<淸寧 4年銘 鍾, 1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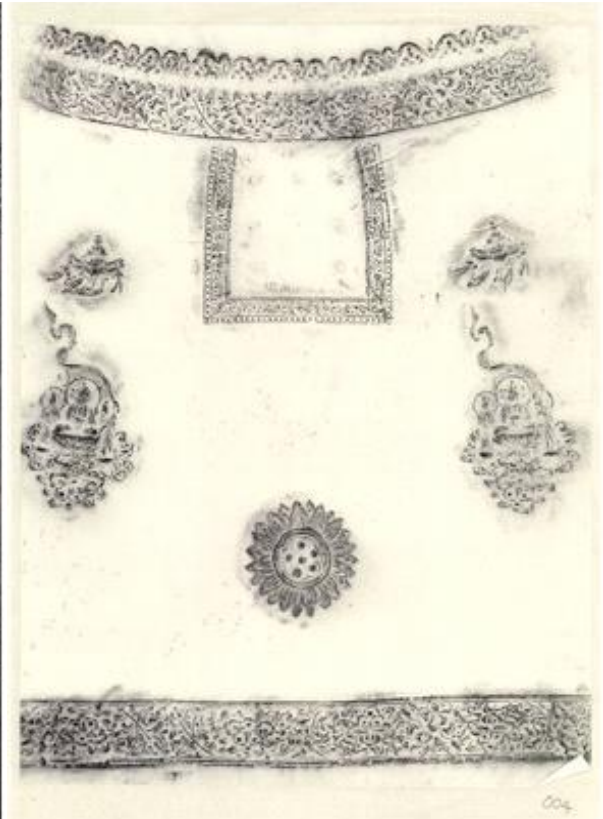
<연복사 동종의 삼존상, 1346>

11) 전경미, 「고려 범종 부조상의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p.6 ; 이호관, 「韓國 梵鍾에 나타난 飛天과 菩薩, 如來像」, 『古美術』 27, 1990, pp.16~19 ; 황유정, 「고려 범종의 佛像, 菩薩像 出現에 대한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내소사 동종의 유곽과 유곽 사이에는 양각된 삼존불상(三尊佛像)이 구름 위에 앉아 위를 향해 꼬리가 구불구불하게 천의가 휘날리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삼존상이 표현된 것은 고려 범종 중 연복사 종과 함께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아울러 불상과 천개의 표현은 1222년의 내소사 동종의 삼존상이 고려시대 범종 중에서도 가장 유려하게 표현되어 있다.



<내소사 동종 - 삼존상과 천개>



<내소사 동종 - 탁본>

중앙의 본존상은 동적인 모습으로 얼굴이 신체에 비하여 매우 크고 둥글며 온화하고 부드러워 고려 불상의 특징적인 인상을 풍긴다. 2條의 두광이 있으며 머리 카락은 나발로 목에는 짧은 삼도가 보이고 통견의 범의는 길게 U자형으로 파여 있다. 가슴에는 ‘卍’자가 표현되어 있는데 비록 현재 범종에 표현된 삼존상의 부조 자체가 적은 탓도 있겠지만 이러한 예는 범종에서는 극히 드문 경우이다. 불상 위의 천개는 <波上宮 鍾>에서 좌상의 불상은 2구의 天人像과 함께 배치되어 있는데 천인에 비해 작게 부조되어 천인상을 강조한 통일신라시대 범종의 전통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연화좌 위에 선정인의 자세로 앉아 있는 불상 위에는 천개(天蓋)가 있고 두광과 신광을 갖추었으며 통견과 범의를 걸치고 합장인을 걸하며 운좌(雲座)와 연화좌(蓮華座)에 앉아 있다.¹²⁾

내소사 동종의 삼존상 중 본존은 연화대좌(蓮華臺座) 위에 앉아 있는데 두 뺨이

12) 고명지, 「高麗 梵鍾의 裝飾 要素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72.

불룩한 상호에 선정인(禪定印)을 하고 있으며, 본존의 좌우에는 입상의 협시상(脇侍像)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내소사 동종 본존상의 가슴에는 ‘卍’자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존하는 범종에 표현된 삼존상 중에는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고려 불화에는 1286년(지원 23) 아미타내영도를 비롯하여 일본에 소장된 아미타내영도에는 여러 점의 유례가 있다. 이처럼 내소사 동종의 삼존상은 음각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양각된 선 위주의 윤곽이나 표정이 표현되어 있어서 본존의 보관 장식과 두광을 이중으로 강조하는 효과를 엿볼 수 있다.



<내소사 동종 - 삼존상의 ‘卍’자>

<내소사 동종 - 천개와 유소>

내소사 동종의 경우 좌우 협시는 입상인데, 용주사 범종의 경우 좌우 협시가 좌상이고 천의가 투명하여 반측면에서 바라보는 구도를 지닌다. 내소사 범종의 경우 천의 대신 삼존상 뒤로 한 가닥의 운문이 마치 피비우스의 띠처럼 표현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내소사 범종의 삼존상 위에는 천개(天蓋)를 배치하고 있는데, 천개는 위쪽이 연봉형에 연꽃잎이 있으며 여덟 면 옆의 가장자리에 매달려 늘어뜨린 유소 장식들이 바람에 흔들리듯 표현되어 동세(動勢)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천개가 나타나는 종은 내소사 동종을 비롯하여 정우사 종(1019년), 승천사 종(1085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환 1800종 등에 천개가 표현되어 있다. 그 중 가장 우수한 표현을 보이는 것이 내소사 동종의 천개이다.¹³⁾



<내소사 종 천개, 1222> <正祐寺 鍾 천개, 1019> <承天寺 鍾 천개, 1065> <동원 1800 鍾, 천개>

13) 고명지, 앞의 논문, p.74.

이러한 천개는 불상 위에 놓여져 보화(寶華) 또는 광명이 변해 개(蓋)가 되어 불상의 위를 덮는다는 것을 말한다. 천개의 모습도 다양하여 사각형이나 원형 등에 운연과 화염 등을 중첩시키고 장식도 네 변에 번을 늘어뜨리거나 영락을 베푸는 등 다양하다. 이렇게 삼존상 위에 천개가 배치된 형식은 신라 범종에서는 볼 수 없는 고려 범종만의 특징으로 매우 중요하다. 불상이 범종 위에 표현된 것은 종소리를 범음(梵音)으로 인식하여 중생의 깨달음과 구제를 염원하기 위함이다.



<내소사 범종 삼존상> <내소사 범종 삼존상> <내소사 범종 삼존상> <내소사 범종 삼존상>



<吾魚寺鍾(1216년)>

<來蘇寺鍾(1222년)>

<乙巳銘鍾(1245년)>

○ 참고문헌

- 고명지, 「高麗 梵鍾의 裝飾 要素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朴敬源, 「高麗 鑄金匠考: 韓仲敍와 그의 작품」, 『考古美術』 149, 1981.
- 서성호, 「高麗時代 金屬 佛具 造成과 願主」, 『丹豪文化研究』 10, 2006.
- 송민아, 「고려시대 범종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광배, 「고려시대 범종의 발원계층과 주종장인」, 『東岳美術史學』 13, 2012.
- 이호관, 「韓國 梵鍾에 나타난 飛天과 菩薩, 如來像」, 『古美術』 27, 1990.
- 전경미, 「고려 범종 부조상의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최원정, 「高麗 梵鍾 樣式 小考」, 『文化史學』 17, 1999.
- 최응천,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장인」, 『美術史學研究』 241, 2004.
- 황유정, 「고려 범종의 佛像, 菩薩像 出現에 대한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조사내용

사찰에서 사용하는 종은 소리를 통해 梵音, 즉 불음을 전파하는 범고, 운판, 목어와 더불어 범구사물 중 가장 대표적인 범음구이다. 동종은 소리를 통해 대중들에게 시간을 알리는 단순한 기능과 지옥이나 현실의 생로병사의 윤회의 굴레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종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내소사 보종각에 걸려 있는 고려시대 동종이다. 보종각은 내소사 대웅전으로 올라가기 전에 건립되어 있는 봉래루 향좌측 편에 위치한다. 동종은 높이가 104.8cm, 구경이 67.2cm로 고려 후기 제작된 동종 중에서 규모가 크다.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수많은 동종 가운데 조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가장 우수한 종으로 평가받고 있는 종이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범종은 크고 작은 종을 모두 합쳐 약 160여 점으로 추정하고 있고, 기년명 종은 약 49구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간지명만 있는 종을 제외하고 시대별 그 수를 헤아려 보면, 10세기 2구, 11세기 10구, 12세기 7구, 13세기 7구, 14세기 3구로 파악되며,¹⁴⁾ 그중 국내에 100여 점, 국외에 60여 점이 유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⁵⁾

내소사 동종은 신라시대 동종의 기본형을 계승하고, 여기에 고려 후기의 새로운 양식과 미의식을 가미하였다. 종의 구성은 종뉴와 종신으로 구분된다. 종뉴는 우리나라 동종 중 가장 오래된 상원사 동종과 같이 단룡과 대나무 모양의 음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사 동종과 달리 천판과 종건의 경계부분에 입상화문대를 돌려 천판과 종신을 구획하였고, 종신에는 어깨와 종의 입부분에 문양대를 돌려 상응하게 하였고, 상대에 연해서 연곽대를 네 곳에 배치하였다. 종신에는 불삼존과 주종 관련 명문, 그리고 당좌를 배치하였다.

내소사 동종은 신라 종과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천판과 종건의

14) 宋旻娥, 「고려시대 범종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예술전공 석사학위논문, 2000, p.36.

15) 최원정, 「고려 범종 양식 소고 : 전기 양식 중심으로」, 『문화사학』 17, 한국문화사학회, 2000, p.258.

경계부에 둘러진 입상화문대이고, 다른 하나는 종신에 새겨진 불삼존의 표현이다. 입상화문대는 천판의 주물흔적을 가리고 종을 보다 화려하게 꾸며주는 기능을 맡고 있다. 고려시대 등장하는 입상화문대는 꽃의 형태에 따라 연꽃형, 山形, 여의두형, 복합형 등으로 할 수 있는데, 내소사 동종의 입상화문대는 여의두형에 가까운 구름무늬로 연출하였다. 이와 같은 입상화문대는 고려 전기 종과 후기 종으로 시기를 나누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입상화문대는 1115년 작인 <정풍 2년명 동종>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입상화문대가 등장하지만, 그 시작은 청령 4년명 동종(1058)에서부터 인 것으로 보인다. 청령 4년명 동종에서는 낮은 구름모양의 초보적인 입상화문대가 등장하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모양의 입상화문대가 출현하여, 고려 후기 범종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입상화문대의 출현은 천홍사명 동종(1010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판에 꽃잎을 새겨 넣어 구조결함이나 지지부한 주물 흔적 같은 보기 흉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⁶⁾ 이러한 기능이 원래의 기능을 뛰어 넘어 또 다른 매력과 효과를 주는 장엄장치로 발전해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입상화문대는 더욱 발전하여 1192년의 <大慈寺 銅鍾>이나 <承安 6년 天井寺 銅鍾>(1201년) 동종에 이르러는 완전히 정착된 모습이며,¹⁷⁾ 1222년 작인 내소사 동종에 이르러서는 가장 발전된 양상을 띤다.



<내소사 동종 전면>

<종뉴>

<연곽과 연뢰>

<당좌와 하대>

내소사 동종의 특징 중 입상화문대 외 또 다른 특징은 종신에 표현된 불삼존이다. 종신에 표현된 불삼존의 경우, 통일신라 범종의 종신에는 주악천인이 주로 등장하지만, 고려 범종에서는 무용, 비행, 합장 천인 등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러다가 천인상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여 불·보살상이 종신의 주요 문양으로 대체된다. 고려 범종에서 佛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종은 <波上宮 銅鍾>(956년)이다. 보살은 11세기 동종에서부터 종신에 부조되기 시작하여 고려 후

16) 최웅천, 「한국 범종의 특징과 변천」, 『하늘 꽃으로 내리는 깨달음의 소리』, 직지사성보박물관, 2003 참조.

17) 최웅천, 『한국의 범종』, 미진사, 2022, pp.240~245; 高明志, 「高麗 梵鍾의 裝飾 要素 研究」,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p.26. 고명지는 논문에서 이와 같은 사실은 최웅천 교수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기 동종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며, 급기야 용주사 동종과 내소사 동종의 초기적인 삼존모습이 내소사 동종에 이르러 완전한 불보살 삼존으로 구성되어 신앙적으로 한층 완성된 모습을 보인다.

종뉴는 한 마리 용과 음통으로 구성하였다. 음통은 용의 등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이어 붙였고, 용과는 별도로 틀을 사용하였다. 용은 앞으로 늘어진 입술, 뿔과 갈퀴와 비늘 등 세부 묘사가 사실적으로 모델링되었다. 특히 종의 규모 적당하게 종신과 비례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당당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다. 용은 전신을 표현하지 않고 상반신만 표현하였고, 두 발은 천판에 두지 않고 공중에 떠워 하늘을 비행하는 용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왼발은 하늘 위로 들어 여의주를 받쳐 들었고, 오른발은 천판 위에서 나래 치듯 역동적인 자세를 연출하고 있다. 용의 발꿈치와 입술 주위에는 갈퀴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으며, 등쪽에는 두 줄기 焰翼이 뻗어 나와 s자형의 곡선을 그리며 음통을 스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발을 천판에서 띄운 용의 모습은 1216년 오어사 동종을 비롯한 13세기 동종의 종뉴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적 특징이다. 음통은 세 마디로 구성된 竹節形 음통으로, 마디와 마디 사이는 여백을 두지 않고 상·하대와 같은 모란문 입체감 있게 새겨 넣었다. 그리고 음통의 상단부는 평면을 六稜形으로 디자인하고 그 위에 6개의 구슬을 올려놓았다. 아마도 육도윤회로 고통 받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닌가 한다.



<천개>

<불삼존>

<종뉴와 천판>

<음통>

천판은 彎曲을 이루고 있으며, 4~5곳에 장방형 주물구의 흔적이 남아 있다. 종의 어깨부와 경계를 이루는 곳에 입상화문대가 톱니모양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입상화문대는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천판의 주물 결함이나 거친 주물 흔적을 가리기 위한 미적 장치이다. 입상화문대의 입면은 능을 준 구름무늬에 가까우며, 두 겹으로 처리하였다. 내면에는 꽃 수술을 표현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입상화문대 아래, 즉 종의 어깨부분에 해당하는 곳에는 문양대를 돌렸다. 문양의 구성은 꽃과 넝쿨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란당초문을 베꼈다. 종의 입(口)에 둘러진 하대에도 상대와 같은 모란당초문으로 함을 맞추었다. 모란 당초문은

앞맥까지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상·하대에 시문된 모란당초문은 <청녕 4년명 동종>(1058년)에서 처음 확인되며, 이후 <善慶院 銅鍾>(1201년)의 하대, <北禪院寺銘 鈸子>(1218년) 등에서 내소사 동종의 선례를 찾을 수 있다.¹⁸⁾

연곽대 상대 문양대에 붙어 동서남북 네 곳에 동일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연곽대는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사다리꼴 모양이며, 상대와 맞붙은 상단의 연곽대는 생략하였다. 연곽대는 가는 선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획하고 가장자리에는 연주문을, 안쪽 면에는 연꽃 넝쿨문을 시문하였다. 연곽 내에는 3단3열(3×3)로 연꽃봉우리인 연뢰를 배치하였다. 연뢰는 꽃받침이 봉우리를 받치는 모습이며, 전체적인 모습은 연지에서 연꽃이 피는 형상이다. 이는 곧 극락 九品蓮池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한국 종만이 가지는 특징이다.

鍾腹에는 불삼존이 구름을 타고 하강하는 모습으로 연출되었다. 불삼존의 상단에는 영락장식과 번이 드리워진 화려한 天蓋가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표현은 이른 시기 불교미술에서부터 등장하는 무대 장치로, 특히 1294년 작 京都 妙滿寺 <彌勒下生經變相圖>의 천개, 14세기 작 京都 淨教寺 <阿彌陀如來 八代菩薩圖> 등 고려 불화와 사경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삼존 모두 원형의 두광을 갖추었다. 본존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 하였다. 연꽃은 당좌의 연꽃과 마찬가지로 끝이 날카롭고 세장한 형태이다. 둥근 얼굴에 이목구비는 단정하며, 이마에는 백호가, 가슴에는 만자가 양각되어 있다. 통견의 대의를 걸쳤으며 두 손은 복부에 두어 선정인을 결한 것으로 보이나 대의로 덮어 확인되지 않는다. 좌우 협시는 입상으로 표현되었다. 원반모양의 대좌위에 서서 본존을 향해 합장하였다. 불삼존 주변으로 뭉게구름이 삼존을 떠받치고 있으며, 불삼존의 등 뒤로는 구름의 꼬리가 꺾적을 그리며 펼쳐져 있다. 내소사 동종의 불삼존의 표현은 고려시대 정서와 미감을 반영한 것이며, 13세기 고려불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13세기 전반 고려 불화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통일신라 동종에서는 종신에 공양 비천상이나 주악비천상이 등장하여 불법을 찬탄하거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천인상은 고려 전기까지 보이다가 점차 불·보살상으로 대체된다. 불보살상으로 대체되는 이유는 정확하지 않으나, 불보살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범음을 듣고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고, 행여 지옥에 떨어져 있는 중생들은 극락정토로 왕생시키기 위한 불교의 근본적인 정신이 적극적으로 표출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불·보살을 표현하여 직접 중생제도의 의지를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내소사 동종의 주성기와 이 보다 시대는 떨어지지만 연복사 종의 명문에 종 제작 공덕과 목적이 잘 표출되어 있다. 내소사 동종과 연복사 종(1346년)의 명문 중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주목된다.

18) 고명지, 앞의 글, pp.95~96.

<내소사 동종 명문 중>

백공(白公) 등에게 명하여 종을 만들도록 하였다.[鑄發鯨音]
윤회(輪回)의 고통에서 벗어나 어지럽고 막힌 것을 깨우치게 하리니
무릇 귀가 있는 이들은, (듣고서) 본심(本心)을 열고 깨달으라

<연복사 동종 명문 중>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듣게 하지면 金소리를 울려야 한다. 三軍을 整齊하게 하고
八音を 조화하게 한다. 부처님 말씀이 너무나 깊은데 땅 밑에 獄이 있어 얼마나
어두울고, 萬生萬死의 고통을 견디기 어렵고 술 취한 듯 꿈꾸는 듯 귀먹고 말 못
하다가 한 번 종소리를 들으면 모두 마음이 깨치게 된다.¹⁹⁾

위의 두 동종 명문 기록을 통해, 동종을 제작하는 공덕은 현실에 닮은 어려움을
구제하고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을 소리로써 깨우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을 분명히 알 수 있다.²⁰⁾ 이러한 신앙적 목적이 구체화되면서 동종 표면의 의장도
그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내소사 동종은 종의 명문
기록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시각언어로 잘 구현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당좌는 네 곳에 마련되었다. 당좌는 연육부와 연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圓圈
의 테두리는 표현하지 않았다. 연육부는 육능 3겹으로 멋내어 처리하였고, 연자는
중양에 1과 그것을 둘러싸고 4과를 배치하였다. 연잎은 2겹의 重瓣으로 처리하였
는데, 잎이 세장하고 잎의 끝을 펜촉모양으로 날카롭게 표현하였다. 연자의 배치
와 구성, 육능형의 연육부, 뾰족한 2중의 연꽃 형태는 대자사 동종의 당좌나 善慶
院(日本 岩手縣 盛岡市 北山 소재, 1201년) 동종의 당좌 유사하며, 1311년 작인 藥
師庵銘 동종(프랑스 파리시 체르누스키박물관 소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내소사 동종에 표현된 여러 가지 조형적 요소, 즉 종뉴에서 종구에 이르는 종의
형태와 용과 음통, 六稜 음통 위의 6개의 구슬, 상·하대의 문양, 연곽과 연뢰, 세
장한 겹잎의 당좌 등 세부표현과 조형 감각은 기본적으로 1192년 작인 大慈寺銘
동종²¹⁾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으면서, 13세기 초반의 시대적 분위기와 작자(한중
서)의 예술 감각을 첨가해 전대보다 훨씬 세련되고 뛰어난 조형미를 갖춘 동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중복에는 두 군데에 걸쳐 명문이 음각 명문이 남아 있다. 하나는 조성 당시의
명문이며, 다른 하나는 이 종을 청림사에서 내소사로 이운하며 작성한 명문이다.

19) 『演福寺新鐘銘』, 『國譯 東文選』 제49권, p.45.

20) 고명지, 앞의 논문, p.37.

21) 최응천, 앞의 책, pp.240~245쪽 참조.

<명문>22)

靑林寺銘」

扶寧邊山中有靑林」

三韓前寺革古鼎今」

堂宇宏麗禪侶盍簪」

命白公等鑄發鯨音」

停離輪苦警悟昏沉」

凡有耳者開覺本心」

壬午六月日社主禪師湛默誌」

貞祐十年六月日社主禪師湛默記」

貞祐壬午六」

月初七日邊山」

靑林寺金鍾」

鑄成入重七百」

斤 棟梁」

道人 虛白」

道人宗益」

匠 韓冲叙(以上原銘)」

余己酉九月七日卜居」

靑林翌年九月七日鑿」

此金鐘移懸于來蘇寺」

銘曰性保金剛體法轉」

輪聞聲悟心花開實新」

崇禎紀元後四癸丑九月」

二十七日隱士金性圭記」

而施焉 持殿完岩正宇(以上追銘)」

청림사(靑林寺)의 명(銘)

부녕(扶寧)의 변산(邊山)에 청림사(靑林寺)가 있으니

삼한(三韓)의 옛 절은 없어지고 지금 다시 세워졌다

건물[堂宇]는 크고 화려하며, 선승(禪僧)들이 많이 모이니

백공(白公) 등에게 명하여 종을 만들도록 하였다.[鑄發鯨音]

윤회(輪回)의 고통에서 벗어나 어지럽고 막힌 것을 깨우치게 하리니

22) 명문과 해석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지식e음(<https://portal.go.kr>) 재인용.

무릇 귀가 있는 이들은, (듣고서) 본심(本心)을 열고 깨달으라
 임오년(壬午年: 1222년, 고종 9) 6월 일 사주(社主) 선사(禪師) 담묵(湛默)이 짓다.
 정우(貞祐) 10년 6월 일 사주(社主) 선사(禪師) 담묵(湛默)이 쓴다.
 정우(貞祐) 임오년(壬午年) 6월 초7일에 변산의 청림사에서 금종(金鐘)을 주조하
 여 이루니, 무게가 700斤이다.
 동량(棟梁)은 도인(道人) 허백(虛白), 도인 종익(宗益)이며,
 장인(匠人)은 한중서(韓冲叙)이다. (以上 原銘)

(추가 명문)

내가 기유년(己酉年: 1849년, 현종 15) 9월 7일에 청림사에 머물면서 이듬해 9월 7
 일에 이 금종을 뜯어 내소사(來蘇寺)에 옮겨 매달았다. 명(銘)에 이르기를 “본성
 (本性)은 금강(金剛)을 보전하고 몸은 전륜(轉輪)을 본받는다. 소리를 들으면 마음
 을 깨닫고, 꽃이 피면 과실이 맺히리라”라고 하였다.
 숭정 기원후(崇禎紀元後) 네 번째 계축년[四癸丑] 9월 27일에 은사(隱士) 김성규
 (金性圭)가 쓰고 시주하다. 지전완암정우(持殿完岩正宇) (以上 追銘)



<명문 탁본1, 원명문(1222)>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지식e을 제공)



<명문 탁본2, 이안기(1853년)>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지식e을 제공)



<주종기(1222년)>



<이안기(1853년)>

이 종 제작에 참여한 주요 인물은 社主 禪師 湛默과 이 일을 주관한 棟梁道人

虛白과 道人 宗益, 그리고 종을 제작한 장인은 韓冲叙이다. 한중서는 고려 후기 장인 중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다. 그의 작품은 금고 3점과 범종 2점이 알려져 있고, 작품에 기록된 명문을 통해 그의 활동 시기는 13세기 전반에서 중엽까지로 확인된다. 그는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1218년 高嶺寺 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펼친다. 이 금고에는 ‘侍衛軍 仲叙’라고 기록되어 있어 시위군에 소속된 하급 군직 신분으로 장인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따라서 그는 시위군에 소속된 관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보다 4년 뒤에 제작된 1222년에 제작된 청림사명(내소사) 동종에는 아무런 직급이나 직위 없이 장인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한참 뒤에 제작된 1238년에 제작된 神龍寺銘 小鐘에도 청림사 동종처럼 단순히 大匠으로만 기록되어 있다.²⁴⁾ 그런데 신흥사명 소종과 같은 해 만들어진 福泉寺 금고에서는 ‘別將同正’이라는 직위가 기록되어 있다.²⁵⁾ 이 무렵에 武散階의 동정직을 제수 받아 관장으로서 그 실력을 입증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²⁶⁾ 고려시대 관장은 대장이나 부장 같이 직명을 이름 앞에 일반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별장 동정으로 제수받기 이전부터 그는 관장에 속했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⁷⁾ 이후 1252년에 제작된 고성 옥천사명(安養寺銘) 반자까지 직위의 큰 변동 없이 ‘별정동정 한중서’로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된다.²⁸⁾ 특히 그의 출신과 관련하여 옥천사 금고에는 중요한 문구가 확인된다. 즉 옥천사 금고에는 ‘京師工人之家’라는 문구가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그가 대를 이어 개경에서 활동한 工人집안 출신임을 알 수 있다. 그는 고려사명 반자에서 옥천사 반자에 이르기까지 약 30여 년 간 공사장으로 활동을 해

23) 고려사 반자의 명문은 다음과 같다. 崇慶二年甲戌三月五日壽寧宮主房侍衛軍公節亦 聖壽天長國泰民安兩主各「保千秋兼及亡妻聰明女離苦得樂聞聲悟」道之願 鑄成飯子一隻重三十斤懸於高嶺寺永充功德者同願(同時住持惠成 同房侍衛軍 仲叙). 명문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지식e음에서 인용(<https://portal.nrich.go.kr>).

24) 신흥사명 동종의 명문은 다음과 같다. 戊戌四月日鑄成「橫川地神龍小鍾」大匠韓仲叙. 명문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지식e음에서 인용(<https://portal.nrich.go.kr>).

25) 복천사 반자의 명문은 다음과 같다. 今上寶位天長晉陽公福壽延長天水相國趙康卿速「離苦海受生淨土留沙寺住持禪師學淵今生無病後」世離三界之愿以茂代四月日鑄成橫川縣地福泉寺「飯子重二十斤 鑄成者別將同正韓 仲叙」명문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지식e음에서 인용(<https://portal.nrich.go.kr>).

26) 여기에 기록된 고려시대의 ‘별장(別將)’은 경군(京軍)이나 주진군(州鎭軍) 및 각 령(領)에 소속된 군관(軍官)의 직명으로 정7품의 하급 장교를 칭한다. 직명 아래 함께 사용된 ‘동정(同正)’은 정직에 준하여 설정된 산직(散職)의 하나로 대체로 한직(閑職) 및 초임 임직의 성격을 띠어 대기하였다가 규정에 따라 실직으로 진출하였고 17~25결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중서는 관장으로서 무산계 정7품인 별장으로 진급하였으나 장인이라는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정직이 아닌 일종의 별정직인 동정직(同正職)을 수여받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웅천, 『한국의 범종』, 미진사, 2022, p.268.

27) 官匠은 官廳手工業에 소속된 장인으로 각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전문 기술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국가가 工匠案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며, 1년에 300일 이상 복무하는 조건으로 工匠別賜를 지급받는 職役層 工匠이었다. 徐聖鎬, 「高麗前期 支配體制와 工匠」, 『韓國史論』 27, pp.96~106. 대장이나 부장의 직함은 『高麗史』 食貨志의 기록을 통해 관장을 지칭하는 명칭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기사에는 대장, 부장, 잡장 이 세 가지가 官匠의 직급이며, 이들은 武散階 속해 있으면서 국가로부터 田十七結의 녹봉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홍승기, 「高麗時代의 工匠」, 『震壇學報』 40, 1975, pp.70~75쪽.

28) 고성 옥천사 금고 명문은 다음과 같다. 高麗二十三王環甲之年壬子四月十二日在於京師工人家中鑄成智異山安養社之飯子入重六十餘斤同願施主者「樞密院右副承宣孫挺烈尙書皇甫琦檢校尙書俞承錫華嚴業三重勝壽大選景興知識正之故上將軍奇弼宣之嘉偶珍原郡夫人吳氏 郎將金伯龍之嘉偶樂浪郡夫人崔氏同丈院錄事鄭常之嘉偶海陽郡君金氏學錄朱埴之嘉偶金氏比丘尼清惠等此根幹外錙銖之單甚多故不具錄工人別將同正韓 仲叙 棟梁道人宗一 負擔人上座善心 使用長存. 명문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지식e음에서 인용(<https://portal.nrich.go.kr>).

지속해 온 고려시대 가장 걸출한 장인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²⁹⁾ 이 내소사 동종은 그가 만든 작품 중에서 최고의 예술적 성과물이다. 한편 1236부터 1251년까지 제작된 <고려대장경>의 刻手 이름에서 그와 동일한 이름이 등장한다. 활동 시기로 보아 동일인물로 추정하고 있다.³⁰⁾

한중서 외 고려시대 관장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園城寺 所藏 銅鍾>의 ‘大匠位 金慶則’, <承天寺 銅鍾>(1065년)의 ‘大匠 金水’, 副大匠 保只, 未亭 정도에 불과하며, 한중서 같이 여러 작품을 남기고 있는 官·私匠을 통틀어 한중서가 유일하다.

부기한 기록에는 청림사에서 내소사로 종이 이안된 내력을 적고 있다. 즉 이 종은 원래 변산(邊山)의 청림사(靑林寺) 종으로 1222년에 만들어져 오랜 기간 내려오다가 조선시대 1853년에 지금의 내소사로 그 거처가 옮겨졌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현 상

현재 부안 내소사 대웅전 앞 종각 안에 안치되어있는 <내소사 동종>은 1963년 1월 보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 종에는 제작 당시의 원명과 추각 명문이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임오년(壬午年: 1222년, 고종 9) 6월 변산(邊山)에 청림사(靑林寺) 종으로 만든 것을 기유년(己酉年: 1850년, 철종 원년) 9월 지금의 내소사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범종 중 가장 완벽한 양식과 정밀한 주조 기술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총높이는 104.8cm로 고려 후기 종 가운데 가장 큰 크기이다.

현재 용뉴 부분은 단용의 용뉴가 음통을 염익(焰翼)으로 감싸고 있다. 용은 크게 입을 벌리고 있으며 혀와 이빨로 여의주를 물고 있다. 턱 아래쪽 송곳니 사이로 혀바닥이 길게 나와 있으나 앞부분은 잘려있다. 음통을 감싸고 있는 염익 부분도 아래쪽 염익은 끝부분 일부가 잘려나간 것으로 보아 동종을 이동하던 중 얇고 길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손상된 것으로 보여진다.

연곽은 용뉴의 얼굴 방향을 기준으로 좌측 연곽 안에 하단 중앙 연뢰가 손실되었으나 다른 방향의 연뢰는 모두 손상된 부분 없이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하대에는 용 얼굴 정면에서 우측 당좌 아래 하대 부분에 문양대의 높낮이가 다르고 문양이 표현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현상은 주조할 때 쇳물 주입 시 외형틀이 손상되면서 주물이 덧대어 나오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종신은 전체적으로 부식이 많이 진행되어 있고 종각과 종틀에 칠한 안료가 종신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종을 걸고 있는 현가(縣架)쇠도 부식이 많이 진행되어

29) 최응천, 『한국의 범종』, 미진사, 2022.

30) 이광배, 「高麗時代梵鍾의發願階層과鑄鍾匠人」, 『동악미술사학』 13, 동악미술사학회, 2012, p.132.

용뉴의 오른쪽 발에 쇠녹이 묻어있어 교체가 시급해 보인다.



<현가 쇠 부식으로 인한 용뉴 발 쇠녹자국>



<단청 안료 착색 부분>



<청동 부식이 심하게 진행된 종신 당좌부분>

○ 내용 및 특징

뛰어난 주조 기술이 돋보이는 부안 내소사 동종은 한중서(韓冲叙)라는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다. 한중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청동북 3점과 범종 2점을 토대로 13세기 전반부터 중엽까지 활동한 장인으로 보고 있다. 현존하는 작품 수는 적지만 그의 활동영역으로 보았을 때 더 많은 양의 작품을 제작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중서가 제작한 동종은 <靑林寺銘 來蘇寺 銅鐘>(1222년)과 <戊戌年 神龍寺 銘 小鍾>(1238년)이다. 한중서의 활동은 처음 <高嶺寺 靑동북>(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을 만들 당시 수녕궁주방 시위군의 일개 군사로 출발하여, 이후 한동안 관직 없이 匠, 大匠으로 활동하다가, <福泉寺銘 靑동북>에서 ‘別將同正’이라는 官匠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중서는 私匠 출신으로 병역의 의무기간 동안 관에 소속되어 작품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이후 사장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어느 시기 관직을 수여 받고 관장으로 활발히 활동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범종 이외에 한중서가 만든 작품으로는 <高嶺寺 靑동북>(1214년), <福泉寺銘 靑동북>(1238년), <安養寺銘 靑동북>(1252년) 등의 명문에서 장인으로서 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수많은 범종 가운데 가장 양식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다. 한중서의 작품 활동 시기를 통해 볼 때 그가 내소사 동종을 제작할 때 이미 대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장으로 활동하던 그의 실력을 관에서 인정하면서 관직을 수여하며 다양한 주종 활동을 펼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만큼 이 종은 용뉴부터 종신에 표현된 세부 문양의 화려함과 독창적인 삼존불의 표현, 종의 주조상태까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범종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문양 표현을 살펴보면 용의 입모양은 통일신라 범종의 용뉴와 달리 정면을 향해 있으며 새부리와 같이 윗입술이 돌출되어 있고 아랫입술보다 길게 뺄어 나와 과장되게 표현되었다. 입천장이 다 보일 정도로 크게 입을 벌리고 있어

윗입술이 눈을 가릴 정도이다. 입안에는 여의주를 이빨로 꼭 깨물고 긴 혀로 받치고 있다. 눈썹은 엽전모양처럼 쌍인 동그란 문양이 반복되어 표현되었고 귀로 연결되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동경이나 범종의 용의 모습은 대부분 이렇게 윗입술이 뾰족하게 표현되었다. 용의 오른발은 힘차게 뒤로 뻗어 마치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듯하다. 왼발은 머리 위로 들린 채 4개의 발톱을 활짝 편 상태이며 발바닥 위에 보주가 놓여 있다. S자로 굴곡지게 표현된 목은 비늘과 갈기가 섬세하게 묘사되었고, 염익은 3단으로 나눈 원통형 음통을 감싸며 휘날리고 있다. 음통에는 화려한 연당초문을 조각하였으며 원통 윗부분에 6개의 보주를 크게 장식하였다. 음통 내부는 종신까지 관통되어 있다.



<내소사 동종, 1222년(고종 9)>

고려 후기 범종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천관 외연에 둘러진 입상연판문대는 높게 돌출되고 각 연판 사이에 꽃술 장식이 첨가되며 화려함을 더했다. 고려시대 범종에 표현된 입상연판문대는 아주 낮거나 높게 솟거나 연판문대 간격이 넓은 경우 주조 시 쇳물이 주입되지 않거나 틀 해체 시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중서는 이런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입상연판문대 조각을 적당한 높이와 간격으로 제작할 정도로 주조 기술에 대한 경험이 많았던 장인으로 생각된다.

상대와 하대에는 비슷한 높이로 같은 문양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유려한 연당초문으로 장식하였다. 상대 아래로 4개의 연곽을 상대와 접하여 배치하였다. 폭이 좁아진 연곽대에도 외연에 연주문대를 첨가하고 섬세한 연당초문으로 장식하였다. 각 연곽 안에는 꽃봉우리가 막 피기 시작한 것과 같은 작은 연뢰를 9개씩 표현하였다.

연곽과 연곽 사이에 해당 되는 종신 중단에는 훔날리는 천개 아래로 연화와 구름의 화려한 대좌 위에 표현된 삼존상이 4면에 높게 부조되었다. 삼존상은 중심에 결가부좌한 여래상이 가장 높게 부조되었고 그 뒤로 양옆에 합장한 보살입상이 조금 더 낮게 부조되면서 얼굴 등 세부 표현이 안 나온 부분들이 있다. 여래상 왼쪽 보살입상의 두광 위에서부터 길게 말아 올라간 천의는 삼존상을 감싸듯 표현되었다. 명문은 용뉴의 음통 부분 아래쪽 당좌와 삼존상 사이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크게 원명과 추각명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 문헌자료

한국 범종에서는 전통적으로 종신을 활용하여 새긴 명문을 통해 범종의 내력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 범종의 경우도 명문의 내용을 통해 범종의 제작 연대와 발원자, 장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자료적 가치가 크다.

<내소사 동종>의 명문을 보면 종은 원래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에 있던 청림사(靑林寺)의 범종으로 1222년(고종 9)에 제작되었으나, 청림사가 어떤 사유에선지 폐허가 되고 범종 또한 땅속에 묻힌 것을, 1850년(철종 1) 청림사가 있던 청림리에 머물던 은사(隱士) 김성규(金性圭)가 발견하고 이듬해 내소사에 시주하였다고 한다. 이 종의 명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사라진 사찰을 다시 지으면서 범종을 제작하였다는 내용과 당시 범종을 제작한 한중서(韓冲叙)라는 장인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고려시대 범종의 경우 명문이 소략화 되고 장인에 대한 기록도 흔치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명문부분 原銘 일부>



<명문부분 追銘>

<허흥식 판독문>

靑林寺銘」

扶寧邊山中有靑林」三韓前寺革古鼎今」堂宇宏麗禪侶盍簪」命白公等鑄發鯨音」停離輪苦警悟昏沉」凡有耳者開覺本心」

壬午六月日社主禪師湛默誌」貞祐十年六月日社主禪師湛默記」

貞祐壬午六」月初七日邊山」靑林寺金鍾」鑄成入重七百」斤 棟梁」道人 虛白」道人宗益」匠 韓冲叙(以上原銘)」

余己酉九月七日卜居」靑林翌年九月七日鑿」此金鐘移懸于來蘇寺」

銘曰性保金剛體法轉」輪聞聲悟心花開實新」崇禎紀元後四癸丑九月」

二十七日隱士金性圭記」而施焉持殿完岩正宇(以上追銘)」

<오영선 해석문>

靑林寺(靑林寺)의 명(銘)

부녕(扶寧)의 변산(邊山)에靑林寺(靑林寺)가 있으니

삼한(三韓)의 옛 절은 없어지고 지금 다시 세워졌다.

건물[堂宇]는 크고 화려하며, 선승(禪僧)들이 많이 모이니

백공(白公) 등에게 명하여 종을 만들도록 하였다.[鑄發鯨音]

윤회(輪回)의 고통에서 벗어나 어지럽고 막힌 것을 깨우치게 하리니

무릇 귀가 있는 이들은, (듣고서) 본심(本心)을 열고 깨달으라

임오년(壬午年: 1222년, 고종 9) 6월 일 사주(社主) 선사(禪師) 담묵(湛默)이 짓다.

정우(貞祐) 10년 6월 일 사주(社主) 선사(禪師) 담묵(湛默)이 쓴다.

정우(貞祐) 임오년(壬午年) 6월 초7일에 변산의靑林寺에서 금종(金鐘)을 주조하여 이루니, 무게가 700斤이다.

동량(棟梁)은 도인(道人) 허백(虛白), 도인 종익(宗益)이며,

장인(匠人)은 한중서(韓冲叙)이다. (以上 原銘)

(추가 명문)

내가 기유년(己酉年: 1849년, 헌종 15) 9월 7일에靑林寺에 머물면서 이듬해 9월 7일에 이 금종을 뚫어 내소사(來蘇寺)에 옮겨 매달았다. 명(銘)에 이르기를 “본성(本性)은 금강(金剛)을 보전하고 몸은 전륜(轉輪)을 본받는다. 소리를 들으면 마음을 깨닫고, 꽃이 피면 과실이 맺히리라”라고 하였다.

숭정 기원후(崇禎紀元後) 네 번째 계축년[四癸丑] 9월 27일에 은사(隱士) 김성규(金性圭)가 쓰고 시주하다. 지전완암정우(持殿完岩正宇) (以上 追銘)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최응천, 『한국의 범종』, 미진사, 2022.
- 崔應天, 「高麗時代 金屬工藝의 匠人」, 『미술사학연구』 24, 한국미술사학회, 2004.
- 이광배, 「高麗時代梵鍾의發願階層과鑄鍾匠人」, 『동악미술사학』 13, 동악미술사학회, 2012.
- 국립문화재연구원: <https://portal.nrich.go.kr>

○ 사진자료



<내소사 동종 전체>



<내소사 동종 삼존상과 천개 부분>



<내소사 동종 용뉴>



<내소사 동종 상부>



<내소사 동종 입상연관문대 세부>



<내소사 동종 상대와 입상연판문대>



<내소사 동종 하대>



<내소사 동종 당좌>



<내소사 동종 원명문>



<내소사 동종 삼존상 세부>



<내소사 동종 삼존상 위 천개>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등산 2023-06-002

2.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 (靑磁 陰刻鸚鵡文 淨瓶)

가. 심의사항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로부터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4.12.)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8.1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10.31.~'23.11.29.)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2020.2.13. 지정)
- 명 칭 :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靑磁 陰刻鸚鵡文 淨瓶)
- 소유자(관리자) : 이OO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길 14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39.0cm, 주구 지름 3.2cm, 저경 9.5cm
- 재 질 : 도자(청자)
- 형 식 : 주구(注口), 환대(環帶), 첨대(尖臺)로 구성된 고려시대 청자 정병
- 조성연대 : 고려시대(12세기)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조사 대상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은 고려 12세기 전반 경에 강진 일대 요지에서 제작된 품질과 조형성이 우수한 작품이다. 크기, 품질, 조형성, 희소성, 학술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판단한다.

<근거지준>

가. 학술적 가치

『고려사』 의종 11년(1157)이나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의 기록에 의하면 12세기 고려 왕실에서 앵무새는 말을 잘하는 새로 진상품이었으며, 궁중에서 기르는 서조(瑞鳥)로 인식되었다.³¹⁾ 고려청자에서 앵무문이 문양 소재로 사용되는 시기도 12세기 이후에 시작된다는 점에서 고려의 왕실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 대상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과 같은 높은 품질의 정병에 앵무문이 음각되는 예는 왕실용 청자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31) 『고려사』 卷 18 世家 卷第 18 毅宗 11年 7월 “秋七月 戊子 宋商, 獻鸚鵡·孔雀·異花.”;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卷 3 古律詩 奇尙書宅 賦美人鸚鵡 “粲彼能言鳥, 誇於解語花, 與君來貴宅, 受嬖孰爲多.”

나. 희소성

앵무문이 시문된 고려 청자의 기종은 주로 발, 접시류이며, 이외에 합, 주자류, 매병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정병에 앵무문이 음각된 사례는 현재 두 점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어서, 조사 대상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이 매우 희소한 사례임을 알 수 있다. 12세기에 청자의 문양으로 앵무문이 유행했지만 정병에 시문된 사례는 매우 희소하다는 점에서도 지정 가치가 있다.

다. 조형성

조사 대상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은 수리되거나 보수된 부분이 없이 보존 상태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유색, 유면 등의 상태가 좋아서 조형적으로 수준이 높다. 현재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두 점의 정병보다 39cm로 높이가 크고, 12세기 전반에 제작되는 정병의 형태와 유색, 빙렬이 없는 유면, 앵무문 등에서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는 조형성을 가지고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 대상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은 동체에 별다른 수리 흔적 없이 원래의 상태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굽 외부와 동체 일부에 황갈색 태질이 약간 드러나는 곳이 있으나 전반적인 유약의 용융 상태는 준수한 편이다. 유물의 표면에 빙렬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특별하게 유약이 뭉쳐 흐른 곳도 드러나지 않는다.

고려청자 앵무문은 고려 12세기 이후 발이나 접시에 주로 장식되는 문양이며, 조사 대상 청자처럼 정병의 문양으로 활용된 사례는 매우 희소하다. 조사 대상 청자를 통해 고려 중기 주로 발과 접시의 문양으로 활용되었던 앵무문이 정병에 장식된 실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제작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해저 출수 앵무문 청자들과 세부 문양 비교를 통해 조사 대상 정병이 주로 12세기에 제작된 앵무문 청자와 유사하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태(釉胎)의 수준이 준수하고, 청자의 유색 또한 맑은 녹청색을 갖추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조사 대상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처럼 앵무문이 음각된 고려청자 정병이 매우 희소하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조사 대상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청자음각앵무문정병>은 제작 당시의 원형을 간직한 고급 청자로, 특히 희소성이 월등히 높아 보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근거기준>

1.

청자 정병에 앵무문이 장식된 사례는 미국 클리블랜드박물관 소장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정병은 아니지만 국가지정문화재 중에 리움미술관 소장 보물 제1036호 <청자 상감 앵무문 표형주자>(참고1)이 상감기법으로 앵무문이 표현되었다.

현재까지의 조사로는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 강진 용운리 10호 요지, 부안 유천리 12호 요지 등에서 음각 기법으로 초화문과 연판문을 장식한 청자 정병의 제작 사례가 확인되었지만, 앵무문은 아직까지 발견된 바 없다. 고려 청자의 앵무문은 주로 발, 접시, 합, 매병 등에 장식되었으며, 이처럼 정병에 음각 기법으로 장식된 경우는 매우 드물어 희소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참고1. 보물 제1036호, 청자상감앵무문주자, 리움미술관 소장>

2.

1124년에 편찬된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 권31에는 ‘긴 목에 볼록한 배 모양인데, 곁에는 (물을) 따를 수 있는 주둥이가 하나 있다. 가운데에 두 마디가 있는데, 줄을 맬 수 있는 고리 역할을 한다. 뚜껑의 목 중간에는 턱이 있고, 턱 위에는 다시 작은 목이 있어 잠필의 형상을 띤다. 귀인과 국관, 관사와 민가에서 모두 사용하는데, 물만을 담을 수 있을 뿐이라’라고 고려 정병의 특징과 생활 속 용도를 언급한 기록이 있다. 이에 따르면 12세기 전반 경 고려 정병은 볼록한 배 모양 몸체

에 두 마디로 된 주구가 붙어 있고, 긴 목과 작은 첩대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이런 형태의 물병을 정병(淨瓶)이라고 불렀던 정황을 알 수 있다. 조사 대상 <청자 양각 위노문 정병>의 특징이 이 문헌 기록의 내용과도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어, 그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3.

비교 대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중에 보물 제344호 <청자 양각 위노문 정병>과 국보 제66호 <청자 상감 연지원양문 정병>가 있다. 두 점의 문화재는 고려 청자의 최고 전성기인 12~13세기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목과 첩대가 가늘고 길쭉하여 전체적으로 우아한 느낌이다. 특히 국보 제92호 <청동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과의 영향 관계를 살필 수 있다. 반면에 조사 대상인 청자양무문정병은 몸과 첩대가 짧아 둔한 느낌은 있지만 양감이 풍만하다는 조형적 차이점이 크게 주목된다. 향후 고려 청자 정병의 변천을 연구하는 데 중요 학술적 자료라 할 수 있다.



<보물 제344호,
청자 양각 위노문 정병,
높이 34.3cm,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제66호,
청자 상감 연지원양문 정병,
높이 37cm, 간송미술관>



<국보 제92호,
청동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
높이 37.5cm, 국립중앙박물관>

4.

따라서 조사 대상 유물은 양무문의 양식적 특징, 기형의 비례, 백색 내화토 받침의 제작 수법 등을 종합했을 때 12세기 전반 경 전남 강진, 전북 부안 등에서 왕실과 귀족으로 대상으로 제작한 고급 청자로 판단된다. 12세기 전반 경 청자 매병을 대표하는 유물로 그 학술적 가치가 월등히 높아, 향후 국가지정문화재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조사 대상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은 주구(注口)와 뚜껑, 환대(環帶), 첨대(尖臺)로 구성된 정병이다. 몸체는 풍만한 어깨에서 저부로 가면서 점차 좁아지고 굽다리에서 다시 외반하는 안정적인 형태이다. 몸체의 어깨에는 따로 만들어 부착한 주구부가 위치하고, 주구를 덮는 뚜껑이 남아 있다. 물레로 만든 몸체와 경부(頸部) 위쪽에 환대와 첨대를 따로 만들어서 차례로 접합하였다. 환대는 지름 8.5cm로 윗면을 이단으로 깎았으며, 첨대는 6.8cm의 길이로 팔각으로 모깎기를 하였다(도1).



<도1.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전면, 측면, 후면)>

조사 대상 정병의 문양은 가는 음각 선을 사용하여 장식된 운초문(雲草文), 앵무문(鸚鵡文)이다. 운초문은 어깨 윗면에 가는 선을 두르고 초문을 같은 간격으로 다섯 군데에 배치하였다. 앵무문은 정병의 주문양으로 몸체 세 곳에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모양으로 음각되어 있다. 앵무를 음각한 선이 거칠게 보이는 것은 성형 후에 태토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음각을 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도2).



<도2. 정병의 문양(초문, 앵무문, 앵무문 세부)>

조사 대상 정병은 유면과 유색이 고르며, 투명한 담청록색의 유약이 전면에서 시유되어 있다. 유면에 광택이 풍부하고 빙렬은 거의 없어서 유색이 풍부하고 느껴지고 문양이 선명하게 보인다. 유약이 일부 뭉치거나 두껍게 시유된 부분에는 기포가 육안으로 확인된다. 유약은 침대, 몸체, 저부, 주구부 등에 벗겨진 부분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균일하게 시유되었다(도3).



<도3. 정병의 유약이 벗겨진 부분(침대, 몸체, 저부, 주구부)>

정병의 굽은 바닥의 테두리의 제외한 안쪽을 얇게 깎아낸 안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훑어내고 회백색의 내화토 빗음을 11군데 받쳐 번조하였다. 몸체 어깨 부분에 부착된 주구에는 뚜껑과 연결되는 원형의 작은 고리가 달려있다. 주구의 뚜껑은 지름 3.2cm의 원형으로 주구와 같은 크기이다. 뚜껑에도 주구와 연결하기 위해 끈을 넣는 원형 고리가 있다. 원래는 금속기처럼 주구의 고리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맞닿는 두 개의 원형 고리였지만 제작단계에서 한쪽을 제거하고 거칠게 다듬은 흔적이 남아 있다. 청자 정병에서 원형의 주구 뚜껑이 남아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문 귀한 사례이다. 뚜껑 안쪽 면에도 백색 내화토 빗음을 5군데에 받치고 번조한 흔적을 볼 수 있다(도4).



<도4. 정병의 굽바닥, 주구부와 뚜껑 바닥>

정병은 파손되거나 수리된 곳이 거의 없는 완벽한 보존 상태를 가지고 있다. 다만 굽바닥의 유면에 미세하게 금이 간 상태이며, 환대의 일부가 파손된 상태이지만 극히 적은 부분이어서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도5).



<도5. 정병의 굽바닥과 주구 뚜껑의 바닥>

○ 내용 및 특징

가. 제작지와 편년추정

조사 대상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은 정병이라는 특수한 기종으로 제작된 점,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몸체 음각된 앵무새 무늬 등으로 제작지와 편년을 추정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정병과 같이 우수한 품질의 특수 기종 청자가 제작된 요지는 강진 일대로 좁혀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에서 강진 용운리 10호와 사당리 요지에서 앵무문이 시문된 청자들이 확인되었다. 다만 요지에서 출토된 앵무문 청자는 대부분 발(鉢), 접시의 종류이고 정병, 주자, 매병 등의 기종이 확인된 예는 없다.

조사 대상 정병의 제작 시기는 앵무문이 청자의 문양으로 사용된 시기에 비정하여 추정할 수 있다. 앵무문은 12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문양 소재로, 12세기 청자의 편년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 정병에 음각된 앵무문과 유사한 양식의 앵무문이 강진 용운리요지의 10-II층에서 출토되는 점과 태안 대섬 출수품에서 다량 확인된 점을 근거로 12세기 전반 경으로 비정할 수 있다.³²⁾

또한 정병의 번조 받침으로 사용된 백색 또는 회백색의 내화토빛음이 사용된 하한도 12세기 중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용도와 유사사례

정병은 범어로 कुण्डिका(Kundika)라고 하며, 음역하여 군지(君持, 軍遲), 군치가(君稚迦)라고 하여 깨끗한 물을 담는 수병(水瓶)으로 불교에서 사용된 기물이다. 고려시대는 금속기, 백자, 청자, 도기 등 다양한 재질로 제작되었고, 청자로 제작되는 것은 12세기 이후로 추정되고 있다. 1123년에 고려에 왔던 서공은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정병의 형태를 자세히 묘사하고, 고려에서는 귀족과 관원, 도관(道觀), 사원(寺院), 민간에서 모두 사용하고 오직 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 정병은 왕실, 귀족부터 민간인까지 여러 계층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도교 사원, 불교 사원, 관청 등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재질과 품질이 다양하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대상 정병은 청자의 조형성과 품질로 볼 때, 왕실용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제작 수준이 높다.

고려청자에서 앵무문이 많이 시문된 기종은 발, 접시이며, 전세품 중에 합, 호, 주자 등이 있다. 조사 대상 정병과 같은 사례는 매우 희귀하며, 가장 유사한 사례는 미국 클리브랜드미술관에 소장된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이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도6). 조사 대상 정병은 클리브랜드미술관 소장품보다 크기도 크고 앵무문의 조각적인 표현도 더 섬세하고 수준이 높다. 이외에 12세기 고려 청자에 앵무문이 음각된 예는 경기도박물관 소장 <청자 음각 앵무문 표형주자>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음각 앵무모란당초문 매병> 등이 있다(도7,8).



<도6. 청자음각앵무문정병, 고려 12세기, 높이 35.3cm, 클리브랜드미술관>



<도7. 청자음각앵무문표형주자, 고려 12세기, 경기도박물관>



<도8. 청자음각앵무모란당초문 매병, 고려 12세기, 높이 30.3cm, 국립중앙박물관(덕수2926)>

32) 태안 대섬 출수 청자와 함께 출수된 목간에 표기된 간지를 ‘辛亥’ 또는 ‘辛未’로 판독하는데, ‘辛亥’의 경우 1131년과 1191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辛未’는 1151년으로 파악하고 있다. 목간의 간지 외에 출수된 청자의 양식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을 때 대섬 출수 청자는 12세기 전반 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지정사례

현재 조사 대상과 동일 조건으로 정병에 앵무문이 시문된 청자가 지정된 사례는 없다. 문양 소재는 다르지만 간송미술관 소장 <청자 양각 유로문 정병>이 국보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양각 유로문 정병>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도 9,10). 정병은 아니지만 앵무문이 상감된 표형주자가 보물로 지정된 사례가 한 건이 있다(도11). 조사 대상 정병은 보물로 지정된 <청자 양각 유로문 정병>보다 높이가 39cm로 크고, 문양의 공예의장적인 측면에서 미흡하지만 12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앵무문이 시문된 예로 희소성이 있다.



<도9. 청자양각유로문정병, 고려 12세기, 높이 37cm, 간송미술관(국보 제66호)>



<도10. 청자양각유로문정병, 고려 12세기, 높이 34.4cm, 국립중앙박물관(보물 제344호)>



<도11. 청자상감앵무문표형주자, 12세기 후반~13세기 초, 높이 26cm, 삼성미술관 리움(보물 제1036호)>

○ 참고문헌

- 『高麗史』.
-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 이희관, 「泰安 대섬 出水 高麗靑瓷의 製作時期 專論」, 『한국학연구』 6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 임진아, 「태안 대섬 출토 음각앵무문·양각연관문 대접·접시의 특징과 제작시기 고찰」, 『해양문화재』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 최명지, 「泰安 대섬 海底 出水 高麗靑磁의 양상과 제작시기 연구」, 『美術史學研究』 279·280, 한국미술사학회, 2013.
- 국립중앙박물관, 『康津 龍雲里 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1997.
- 국립중앙박물관,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5.
-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高麗靑磁寶物船-태안 대섬 수중발굴 보고서-』, 2009.

□

○ 현 상

조사 대상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59호)는 높이가 39cm인 정병(淨瓶)이다. 조사 대상 정병은 이단을 이룬 지름 8.5cm의 얇은 환대(環臺) 위에 6.8cm 높이로 솟아오른 첨대(尖臺) 부분과 그 아래 잘록하고 긴 목으로 연결된 동체부(胴體部)로 구성되어 있다. 첨대는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동체의 최대 지름이 자리하는 곳의 한쪽에 주구(注口)가 부착되어 있다. 동체 아래로 이어진 기축선은 완만하게 좁아들어 낮은 단을 이루는 저부로 연결된다(도 1,2).



<도1. 조사 대상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1>



<도2. 조사 대상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2>



<도3. 조사 대상
굽 모습>

조사 대상 정병은 저부가 사선으로 벌어지는 낮은 단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조형 특징은 고려시대 금속제 정병에서도 자주 확인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청자의 굽은 저면의 테두리를 제외한 안쪽을 얇게 깎아내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굽 접지면의 폭은 0.8~1cm 정도이다. 조사 대상 청자는 동체 전체를 시유한 다음 접지면의 유약을 걷어내고 번조되었다. 접지면 여러 곳에 백회색의 내화토빛음을 받쳤던 흔적이 남아있다(도3).

조사 대상 정병의 표면에는 별다른 잡물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유색은 담녹색으로 일부 유약이 두껍게 시유된 곳은 녹색이 짙고, 얇게 시유된 곳은 옅은 회색이 감돈다. 유약이 상대적으로 두껍게 시유된 부분에는 미세한 기포가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조사 대상 청자는 시유 상태가 비교적 고른 편이며, 첨대 위쪽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기면에 병렬이 거의 없으므로 문양의 가시성이 높다.



<도4. 조사 대상 앵무문 모습1> <도5. 조사 대상 앵무문 모습2> <도6. 조사 대상 앵무문 모습3>

조사 대상 정병의 동체 중상부 세 곳에 앵무문(鸚鵡文)이 비슷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도4,5,6). 음각으로 장식된 각 앵무문은 대체로 유사한 형태이다. 앵무새는 좌측 하향으로 꼬리 날개를 길게 드리우고 있으며, 양쪽 날개를 활짝 펼친 모양이다. 양쪽 날개의 끝부분에는 깃털이 길게 묘사되어 있다. 앵무문은 동체와 날개 및 꼬리 날개까지 모두 가는 음각선으로 묘사되었다.

조사 대상 정병의 목과 연결되는 어깨 상면에는 한 줄의 음각선으로 문양대를 구획한 다음 그 안쪽 다섯 곳에 초문(草文)을 배치했다. 초문은 중앙에 잎사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단의 잎사귀가 대칭으로 벌어지는 모습이다(도7).

조사 대상 정병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외면이 팔각인 첨대 부분이 유사한 종류의 유물들에 비해 약간 낮은 감이 있고 한쪽으로 약간 기운 모습이다. 환대의 일부에 미세한 결실 흔적을 제외하면, 동체에 특별한 파손 흔적은 없다(도8).



<도7. 조사 대상 보조문양> <도8. 조사 대상 환대 상세> <도9. 조사 대상 뚜껑 내부>

조사 대상 정병의 주구에는 동체 방향으로 원형이 작은 고리가 달려있다. 주구의 지름은 3.2cm이고, 주구 뚜껑의 지름 역시 3.2cm로 주구와 같은 크기이다. 주구 뚜껑은 정병의 동체보다 회색이 다소 짙은 편이며, 별다른 문양이 없다. 뚜껑은 동체 한쪽을 ‘U’자형으로 잘라내고 중앙에 작은 구멍이 있는 두 개의 고리를 달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작 단계에서 고리 한쪽이 사라져서 현재는 고리가 한

개만 달려있다. 뚜껑에는 동체 전체를 유약으로 시유한 다음 뚜껑 안쪽에 백색 내화토빛음을 받쳐 번조된 흔적이 남아있다(도9).

○ 내용 및 특징

정병은 물을 담는 그릇으로 원래 승려의 지물(持物) 가운데 하나였으나 이후 불전에 맑은 물[清水]를 바치는 용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12세기 고려에서는 정병이 사찰 이외의 장소에서도 사용되었던 정황을 살펴볼 수 있다. 1123년(인종 1) 고려를 방문했던 송나라 사신 서궁(徐兢)이 작성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정병은) 귀인(貴人)과 나라의 관리, 도관과 사찰 및 민가에서 모두 오직 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한다.”라는 대목이 있다. 정병은 고려시대 종교적인 목적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된 만큼 금속기, 도자기 등 다양한 재질로 다수 제작되었다(도10,11). 현재 금속으로 제작된 고려시대 정병도 여러 점 남아있으며, 청자 정병 가운데는 금속제 정병의 외형을 충실하게 모방한 사례가 많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정병은 몸체의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 대상처럼 일반적인 형태의 정병 이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상감연당초유문 정병(靑磁 象嵌蓮唐草柳文 淨瓶)>처럼 동체에 주구 없이 작은 구멍을 마련하고 그 아래 어깨 부분에 띠를 두른 형식의 정병도 간혹 확인할 수 있다(도12).



<도10. 청동 은입사포류수금문 정병(국보), 높이 37.5cm, 국립중앙박물관(본관2426)>



<도11. 도기 정병, 높이 35.6cm, 국립중앙박물관(증749)>



<도12. 청자 상감연당초유문 정병, 높이 26.7cm, 국립중앙박물관(동원1220)>

고려시대 청자 정병의 문양을 장식한 기법은 음각, 철화, 상감 등이 대표적이며, 철백화 기법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문양 소재는 포류수금문(蒲柳水禽紋)과 유로

수금문(柳蘆水禽文)을 비롯하여 국화, 연화, 모란 등 여러 화훼(花卉) 소재를 이용한 문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조사 대상처럼 앵무문이 장식된 정병의 사례는 매우 희소하며, 현재 미국 클리브랜드 미술관 소장의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도13). 앵무문은 주로 발과 접시 등에 음각기법으로 장식되지만 상감기법으로 문양이 장식된 <청자 상감앵무문 표형주자> 같은 유물도 남아있으나 사례가 드문 편이다(도14).



<도13.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 높이 35.3cm, 미국 클리브랜드 미술관>



<도14. 청자 상감앵무문 표형주자(보물 제1036호), 높이 26cm, 삼성미술관 리움>

조사 대상 청자의 제작 시기는 앵무문의 세부 묘사 방식과 번조 반침 등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조사 대상 청자의 앵무문은 동체와 날개 및 꼬리까지 모두 각기 다른 가는 선으로 묘사되었다. 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태안 대섬 출수 <청자 음각앵무문 발> 등의 앵무문 청자들은 조사 대상 정병과 마찬가지로 앵무새의 윤곽선과 깃털을 모두 별도로 한 줄씩 음각했다. 또한 조사 대상 정병 어깨에 배치된 초문과 동일한 문양이 대섬 출수 <청자 음각앵무문 발>에도 자리한다(도15). 대섬 출수 청자들은 대체로 조사 대상 정병과 유사한 백색에 가까운 내화토 빛음을 받쳐 번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섬 출수 청자들은 함께 보고된 목간에 묵서된 '辛亥'명을 통해 대체로 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³⁾

33) 연구자들에 따라 대섬 출수 청자의 제작 시기는 12세기 전반, 중반, 후반 등으로 차이가 있다. 최명지는 '辛亥'명을 1131년으로 파악하였고(「泰安 대섬 海底 出水 高麗靑磁의 양상과 제작시기 연구」, 『美術史學研究』 279·280, 한국미술



<도15. 청자 음각앵무문 발, 태안 대섬 출수, >도16. 청자 음각앵무문 발, 태안 마도 1호 출수, 높이 7.9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도16. 청자 음각앵무문 발, 태안 마도 1호 출수, 높이 7.4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반면 출수된 목간의 간지를 통해 1207년에서 1208년을 하한으로 만든 것으로 파악되는 마도 1호선 출수의 앵무문 청자들은 대체로 앵무새의 날개 깃털과 꼬리 날개가 포크처럼 생긴 다치구(多齒具)로 조각되어 있다(도16). 해당 앵무문 청자들은 대부분 점토와 모래가 섞인 암갈색의 내화토 빚음을 받쳐 번조한 특징이 나타난다. 마도 1호선 출수 유물들에서는 조사 대상 정병이나 대섬 출수 청자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한다면, 조사 대상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의 제작 시기는 12세기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이희관, 「泰安 대섬 出水 高麗靑瓷의 製作時期 專論」, 『한국학연구』 6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 임진아, 「태안 대섬 출토 음각앵무문·양각연판문 대접·접시의 특징과 제작시기 고찰」, 『해양문화재』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 정지훈, 「태안 대섬 출토 고려청자의 특징과 제작시기」,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 최명지, 「泰安 대섬 海底 出水 高麗靑磁의 양상과 제작시기 연구」, 『美術史學研究』 279·280, 한국미술사학회, 2013.

사학회, 2013, pp.35~65), 정지훈은 ‘辛亥’명을 1191년으로 이해하고 대섬 출수 청자의 제작 하한으로 설정하였다(「태안 대섬 출토 고려청자의 특징과 제작시기」,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pp.95~102). 동일한 명문을 ‘辛未’로 파악한 선행연구는 대섬 출수 청자의 제작시기를 1151년 또는 그 이전으로 이해하고 있다(이희관, 「泰安 대섬 出水 高麗靑瓷의 製作時期 專論」, 『한국학연구』 6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pp.165~201). 그 외 대섬 출수 앵무문 청자에 대한 연구는 대섬 출수 청자가 12세기 전기 혹은 중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구분했다(임진아, 「태안 대섬 출토 음각앵무문·양각연판문 대접·접시의 특징과 제작시기 고찰」, 『해양문화재』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pp.123~178).

□

○ 현 상

<청자음각앵무문정병>은 이○○이 개인 소장가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흠결과 손상이 없는 12세기 전반 경 고급 청자로 제작 당시의 원형이 현재까지 안전하게 보존되었다. 2020년 2월 13일 서울시유형문화재 제459호로 지정되었다.

○ 내용 및 특징



높이 39cm의 청자 정병이다. 몸체는 어깨가 풍만한 참외형이며 원통형의 긴 목 위로 환대(環臺)와 팔각으로 모깎기 한 첨대(尖臺)가 있다. 몸체의 어깨 부분에 주구(注口)와 뚜껑이 있으며, 굽이 살짝 외반되었다. 가늘고 섬세한 음각선으로 몸체의 어깨 부분에 횡선문대를 따라 5개의 초문(草文)을 새겨 넣었고, 몸체의 가운데에는 앵무새 3마리를 표현했다. 반투명 담청록색 유약이 일부 벗겨졌으나, 전반적으로 유색이 고르고 빙열이 없으며 광택이 풍부하다. 뚜껑의 안쪽에는 내화토빛음을 받쳐 구웠던 자국이 있다. 굽 접지면에는 번조 수법 흔적이 명확치 않으나,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빛음을 받쳐 구운 것으로 추정된다. 굽 안바닥 유면의 기다란 균열을 제외하면 손상, 수리, 파손된 곳이 없다. 이 정병은 제작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조사 대상의 특징>



<1. 굽 접지면과 유면의 균열>



<2. 뚜껑의 내화토 받침>



<3. 앵무문>



<4. 앵무문>



<5. 앵무문>



<6. 초화문>



<7. 외반된 굽다리>



<8. 침대의 모깍기>



<9. 침대>

3. 경주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 (慶州 金鈴塚 出土 金製 鎡帶)

가. 심의사항

‘경주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협약」(’13.8.9.)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경주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5.5.4.)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7.7.11.)를 실시하고 2019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19.12.12.)에서 검토하였으나,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와 비교조사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었음
- 비교조사 대상인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23.6.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에 재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10.31.~’23.11.29.)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경주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慶州 金鈴塚 出土 金製 鎡帶)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길이 74.1cm, 너비 43.8cm
- 재 질 : 금
- 조성연대 : 신라시대(5세기 말~6세기 초)



<경주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

라. 1차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금령총 금제 허리띠는 금관총이나 황남대총, 천마총 출토 금제 허리띠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요패는 규범대로 13줄로 구성되었으며 대소 타원형 수식(垂飾)과 곡옥, 연필형 수식만 달아서 간략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곡옥과 연필형 수식에 장식된 금모나 그 위에 입혀진 보석 같은 난집칠보기법은 매우 화려하고 정교한 편이다.

국보로 지정된 다른 허리띠에서는 볼 수 없는 연필형 수식이 특징인 이 금제 허리띠는 출토지가 명확하고, 과대의 기원과 구성을 고찰할 수 있으며, 신라 고분 금속공예품으로의 조형적, 기법적 우수성, 자료적 가치는 물론 고분의 규모로 볼 때 금관과 더불어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따라서 이미 국보로 지정된 금관에 걸맞게 허리띠 역시 국보로 지정,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백제 무령왕릉 출토품들 중 왕과 왕비의 관식,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이 모두 각각의 국보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 (지정 가치 있음)

금령총 금허리띠는 신라의 최상층이 사용한 허리띠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면서도 다른 유물과 비교되는 고유한 특징도 지니고 있다. 먼저, 허리띠 전체 길이와 드리개의 크기는 고분의 주인공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드리개의 종류와 장식에서도 주목할 점이 많았다. 수정과 백옥, 유리 등으로 구성된 곡옥의 수량이 네 점에 이르며, 유리제 곡옥은 쌍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곡옥의 모자 부분은 난집을 두르고 유리를 채워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러한 장식은 두 점의 연필형 장식에서도 발견되었다. 연필형 장식은 다른 허리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드리개로, 특별한 상징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쌍으로 구성된 유리제 모자곡옥, 두 줄의 연필형 장식, 두 점의 금방울 등 구성과 세부 장식에서 공통되는 특징이 관찰된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향후 금령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허리띠 가운데, 금관총 유물은 국보 제88호, 천마총은 국보 제190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황남대총 북분과 남분의 금제 허리띠는 국보 제192호와 보물 제629호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과 금관총 금허리띠의 위상을 고려하면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지정된 허리띠의 경우, 모두 ‘금제 허리띠’로 명명되었기 때문에 전례를 따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반면, 현재 박물관에서는 대부분 ‘금허리띠’로 부르고, 재료에 ‘製’를 붙이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 (보류)

1. 금령총 금제 허리띠는 출토지가 분명한 문화재로 지금까지 발견된 5점의 신라 금제 허리띠와 비교하면 나이 어린 피장자의 시체에 맞게 크기가 축소 제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더불어 간략화 된 요패장식과 과판의 양식변화를 통해 신라 금제 허리띠의 전개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서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문화재이다.
2. 금령총 금제 허리띠는 희소성이 높은 금제 장신구로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특히 원뿔형 드리개는 신라 금제 허리띠에는 초유의 사례이며, 과판에 달렸던 곡옥의 금모장식은 신라 장식기법 가운데 가장 화려한 장식으로 평가되어 예술적 가치 또한 우수한 문화재이다.
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금령총 금제 허리띠의 문화재적 가치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2점의 과판이 유물과 분리된 채 따로 보관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원형이 완전하지 않으며, 특히 요패와 원뿔형 드리개, 곡옥의 위치가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4.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 금제 허리띠의 문화재 지정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국

보 3점, 보물 1점이고 서봉총과 금령총 금제 허리띠는 비지정 상태이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금령총과 서봉총 금제 허리띠와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서봉총 금제 허리띠의 예술적 가치와 완전성이 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금령총 금제 허리띠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경우 서봉총 금제 허리띠 문화재 지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가 있다.

연번	문화재명	지정유무	지정일자
1	금관총 금제 허리띠	국보 제88호	1962.12.20.
2	천마총 금제 허리띠	국보 제190호	1978.12.07.
3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	국보 제192호	1978.12.07.
4	황남대총 남분 금제 허리띠	보물 제629호	1978.12.07.
5	서봉총 금제 허리띠	비지정	
6	금령총 금제 허리띠	비지정	

5. 결론적으로 금령총 금제 허리띠는 학술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형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한편, 금령총 금제 허리띠에 비해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서봉총 금제 허리띠가 비지정 상태이므로 지정을 보류하고, 서봉총 금제 허리띠와 함께 재논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2차 조사자 검토 의견 (지정 가치 있음)

경주 금령총 금제 허리띠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보류의 사유로 지적이 됐던 경주 서봉총 금제 허리띠를 조사한 결과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금령총 금제 허리띠에 비해 보존 상태나 장식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금령총 금제 허리띠는 나이가 어린 피장자의 신체에 맞게 크기가 축소 제작되었다는 특징과 더불어 간략화 된 요패장식과 과판문양은 신라 금제 허리띠의 양식변화를 반영하여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평가된다. 또한 금실이 감긴 원뿔형 드리개장식은 신라 금제 허리띠 중에는 초유의 사례이며, 과판에 달렸던 곡옥의 금모장식은 신라 장식기법 가운데 가장 화려한 장식으로 평가되어 예술적 가치 또한 우수한 문화재이다. 따라서 경주 금령총 금제 허리띠는 서봉총 금제 허리띠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고유의 예술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가 탁월한 문화재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경상북도 경주시 노동동 264번지에 있는 금령총(金鈴塚)은 1924년에 일본인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에 의해 식리총(飾履塚)과 함께 발굴된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이다. 금제 허리띠는 길이 74.1cm, 너비 4.3cm의 작은 규모로 길이 1.5m×폭 0.6m의 목관 내에서 피장자가 착용한 상태로 출토되었다.(도1,3) 동반출토 유물로는 보물 제338호인 금관, 경식(頸飾), 금방울, 금귀걸이, 금반지, 금제수식, 금제팔찌, 수정목걸이, 삼환형 환두대도(三環形環頭大刀), 유리잔, 국보 제91호인 기마인물형토기 등 신라 고분공예품을 대표할 만한 유물들이 있다. 그중 곡옥이 달리지 않은 중첩4산형 금관은 높이 27cm, 지름 15cm로 천마총 출토 금관과 비교하면 크기가 작고 곡옥의 유무만 다를 뿐 같은 형식을 보이고 있어 피장자가 나이 어린 왕족으로 추정되고 있다.(도2) 또한 금제 장신구들에는 다른 고분 금속공예품에 비해 월등하게 청색유리가 감장(嵌裝)되어 있어 삼국시대 칠보기법(七寶技法)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도1. 금제 허리띠, 길이 74.1cm, 너비 4.3cm, 금령총 출토>



금관, 높이 27cm, 지름 15cm
보물 제338호(1963.1.21.지정)



금방울(좌), 지름 1.4cm, 본관9689
금드리개(우), 지름 2.8cm, 본관9687



금반지, 지름 1.5cm, 본관9686
<도2. 동반 출토 유물>



<도3. 금제과대 출토 상황(『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 도23)>

이 금령총은 최근 90년 만에 재발굴을 시작하여 2019년에 높이 56cm인 말 모양 토기가 출토되어 고분의 규모 및 성격이 재평가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허리띠(鎊帶)는 과판(鎊板)과 교구(鉸具), 요패(腰佩)로 구성되며, 수식(垂飾)으로는 곡옥, 소도(粧刀), 부싯돌, 송곳, 숫돌, 물고기, 침통 등이 달린다. 그 근원은 『예

기(禮記)』에 자식이 부모를 봉양할 때 칼, 부식돌, 송곳, 바늘 등 일상용품을 차고 다녀야 한다는 내용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예기(禮記)』, 「內則 第十二」, “子事父母, 雞初鳴, 咸盥, 漱, 櫛, 緝, 笄總, 拂髦, 冠, 綏, 纓, 端, 鞞, 紳, 搢笏, 左右佩用. 左佩紛帨, 刀, 礪, 小觿, 金燧. 右佩玦, 捍, 管, 遘, 大觿, 木燧, 偁, 屨著綦.”). 요패에 관해서는 당대에 ‘어대금점첩칠사(魚袋及鞞鞞七事)’를 문무관의 패물로 정하였는데 칠사는 긴칼, 단검, 숫돌, 환약, 송곳, 침통, 부식돌 등이다(『唐書』, 「輿服志」, “七事謂 佩刀, 刀子, 礪石, 契苾真, 噦厥, 針筒, 火石袋等也.”). 이렇게 허리띠에 요패를 다는 것은 본래 기마 유목민들의 풍속이었던 것이 중국으로 유입, 과대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분에서도 금제, 은제로 출토되고 있다.

금령총 허리띠는 4.3cm 크기의 과관 23장과 인동문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6개의 큰 타원형 수식으로 연결된 큰 요패 1개, 이보다 작은 3개의 타원형으로 연결된 요패 6개, 연필형 수식 2개, 곡옥 4개인 총 13줄로 구성된 것이다.(도 4, 5)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금관총, 천마총, 황남대총에서 출토한 금제 허리띠와 비교해 보면 황남대총 허리띠에 비해 간략하고 천마총 허리띠에 비해서는 50cm 정도 작다. 이는 작은 목관(木棺: 내면에 투조금동관 장식)과 금관이 말해주듯이 피장자가 어리기 때문이다. 금관총 허리띠의 요패만 17개이고 금령총, 천마총, 황남대총의 허리띠 요패는 모두 13개인 점은 신분상의 규정일 것이다.[표1 참조] 후대의 기록이지만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 「사물기원(事物紀原)」조에 요패의 기원 및 내용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데, 당 고조 상원원년(674)에 3품부터 서민의 등급에 따라 금, 은, 옥, 물소뿔 등 재료와 13과(줄)부터 6과까지 수식 수의 제한을 두었다. 또한 몽계필담(夢溪筆談)에 북제 때부터 호북의 첩첩(鞞鞞)을 수용, 낭도(주머니 칼)나 숫돌 등을 달았고 천자는 반드시 13환을 쓴다고 했다.³⁴⁾



<도4. 연필형 수식>



<도5. 곡옥, 길이 3cm>

34) 『欽定四庫全書』, 「事物紀原」卷3, 〈腰帶〉, “實錄曰. 自古皆有革帶及挿垂頭至秦二世始名腰帶. 唐高祖令向下挿垂頭取順下之義名金宅尾. 上元元年自三品官至庶人各有等制以金玉犀銀鍮石銅鐵爲飾. 自十三鈔至六鈔. 筆談曰. 自北齊全用胡服鞞革變所垂蓋欲以佩帶弓劍巾分帨笄囊刀礪之類. 後去鞞革變猶存其環環所銜以鞞革變如馬鞞根即今帶鈔也. 天子必以十三環爲節. 唐開元之後帶鈎尚穿帶本爲孔. 本朝加順折也.”

<표1. 금제 허리띠의 구성 비교>

문화재명	크기	구성	문화재 지정
금관총 금제 허리띠	길이 109cm 요패 54.4cm	-과관 39장, 요패 17개 -곡옥, 장도, 숫돌, 부싯돌, 침통	국보 제88호 (1962.12.20.)
천마총 금제 허리띠	길이 125cm 요패 73.5cm	-과관 44장, 요패 13개 -곡옥, 부싯돌, 물고기	국보 제190호 (1978.12.07.)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	길이 120cm 요패 77.5cm	-과관 28장, 요패 13개 -곡옥, 장도, 물고기	국보 제192호 (1978.12.07.)
금령총 금제 허리띠	길이 74.1cm 요패 43.8cm	-과관 23장, 요패 13개 -곡옥, 연필형	비지정

금령총 허리띠는 금관을 사각형으로 절금(切金)하여 네 모서리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작은 못으로 직물에 고정시켰고, 내면의 투조한 부분에 끈사로 영락을 달았다. 그 아래에 경첩으로 인동문을 연결했는데, 인동문은 윤곽은 살짝 접어서 사면(斜面)지게 만들었고 교구는 유자형(ㄷ꼴)과 장사각형 판으로 구성되었다.(도6,7) 이 허리띠는 비록 규모가 작아도 연필형 수식과 곡옥에 장식된 관모가 화려하고 섬세한 점이 특징이다. 연필형 수식은 목재를 긴 원추 형태로 다듬어서 위에는 금제관모를 씌웠고 중간에는 2줄의 새김눈(刻目) 금선을 나선형으로 돌렸으며 아래에는 금관으로 감쌌다. 이렇게 금선을 감은 수법은 동반출토한 3점의 소도(小刀)에서도 확인된다. 이 수식은 아마도 『예기』에서 말한 뿔송곳(小觿, 大觿), 당대 문무관의 7사 중 해궐 즉 추(錐)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 연필형 수식과 곡옥에 씌워진 관모에는 굵은 금선에 조각정을 써서 [|||||]꼴로 일정한 홈을 낸 각목선(刻目線)이 윤곽이나 청색 유리의 난집으로 장식되었는데, 선을 세워서 원형 난집을 만든거나 선을 눕혀서 물방울형 난집을 만든 것이다.(도8,9) 이런 수법은 누금세공기법의 효과를 낸 것으로 경주 노서동 금제귀걸이나 양산 금조총 금제귀갑문태환이식에도 보이는 세공기법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청색유리를 보석처럼 감장한 고대 칠보기법의 전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도6. 과대 앞면>



<도7. 과대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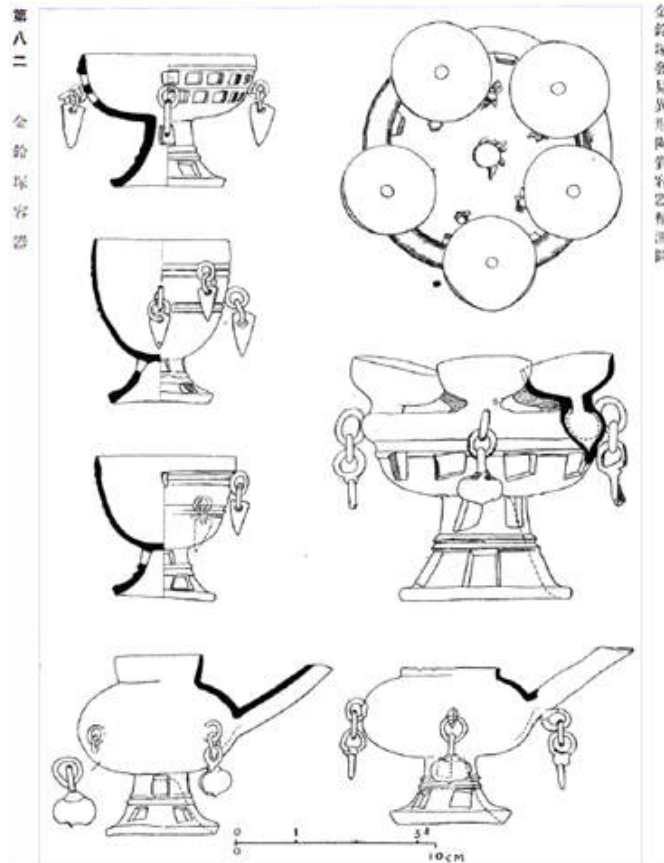
<도8. 曲玉金帽 난집(세운 선)>



<도9. 曲玉金帽 난집(높힌 선)>

이 허리띠는 금판을 사각, 작은 원형, 대소 타원으로 절금 후 경첩으로 성형하고 끈사로 영락 달기, 각목선 장식, 칠보기법 같은 전형적인 고분금속공예품의 정수를 보여준다. 제작년대는 금관, 환두대도, 경식, 금제 장신구, 토기, 칠기 등 동반출토 유물의 규모 및 유형, 제작기법, 자료적 가치의 우수함을 볼 때 천마총 출토품들과 매우 흡사해서 5세기 말~6세기 초로 생각된다. 또한 등잔이나 완, 고배, 토기들도 영락이 달린 것들이 있어서 이를 뒷받침해 주는데, 김원룡 선생의 신라 토기 양식적 분류에 의하면 3기의 특징과 부합된다.³⁵⁾ [참고자료]

35) 김원룡선생은 신라토기를 양식적으로 1기(250년~350년), 2기(350년~450년), 3기(450년~550년), 4기(550년~650년)로 분류하였고, 3기의 특징을 영락이 달린 것으로 보았다.



<참고자료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도82>

○ 참고문헌

- 朝鮮總督府,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1932.
- 文永熙, 「三國時代 銙帶에 관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盧仁姬, 「三國時代 帶金具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 현 상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금허리띠로, 길이 74.1cm, 너비 4.3cm이다. 버클에 해당하는 띠고리[鉸具], 띠꾸미개[銙板], 띠끝꾸미개[帶端金具], 드리개[腰佩]로 구성된다(도1). 얇은 금판을 도려내 만든 띠꾸미개는 모두 23매이고 추가로 2매가 확인되어 복원중이다. 드리개는 13줄로, 여러 개의 금판을 이어서 만든 7줄과 곡옥 4줄, 연필 모양 장식 2줄로 구분된다.



<도1. 금령총 금허리띠>



<도2. 금령총 금허리띠 일괄>

띠고리는 단순한 방형이고 연결할 때 사용하는 핀은 결실되었다. 띠꾸미개도 간략한 인동문이 장식되었고 아래에 연결된 심엽형 장식도 하트 모양과 그 안의 두 개의 원문이 있는 단순한 모양이다. 띠꾸미개에는 달개가 장식되어 있다. 하나의 금판에 2개, 3개 혹은 4개씩 달려, 일정한 규칙성은 보이지 않는다. 드리개 중에서 가장 크고 긴 것에도 금판을 연결하고 달개를 매달아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상단의 연결 부위도 세심하게 마무리했다. 6줄의 드리개는 비슷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었다. 타원형과 방형 금판을 번갈아 연결하였으며, 아래에는 좁고 긴 사다리꼴 모양의 금판을 달아 마무리했다.

곡옥은 모두 4점이며, 백옥과 수정, 그리고 유리로 추정된다(도2). 모두 모자곡옥의 형태로 만들었다. 수정곡옥만 모자부분에 부식된 고리와 같은 흔적이 있는데, 은으로 추정된다. 백옥 모자에는 원형 난집을 만들고 유리를 감입하였다. 장식이 뚜렷하고 현존 상태도 양호하다. 유리로 만든 곡옥은 2점이 묶인 채로 있다. 모자 부분에 물방울 모양의 난집을 만들고 유리를 감입하였다. 세부는 백옥에 비해, 정교하지 않다. 연결 고리처럼 보이는 끝부분에도 유리가 채워져 있어, 어느 부분에 고리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연필형 장식 2줄은 가운데 부분이 복원된 모습이고 윗부분 끝에 고리가 있다. 고리 바로 아래는 원형 난집에 유리를 채웠고 그 아래에는 물방울 모양의 난집을 만들었다. 이러한 드리개의 형태는 독특하고 다른 허리띠에도 보이지 않는 장식물이다. 허리띠의 각 부분을 연결하는 고리나 못의 일부는 결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허리띠의 전형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대체로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금령총 금허리띠는 띠고리, 띠꾸미개, 띠끝꾸미개, 드리개로 구성되어, 전형적인 신라 허리띠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 현재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허리띠는 황남대총 북분과 남분, 금관총, 서봉총, 천마총 등이며, 금령총을 포함하여, 6점이 알려

져 있다. 모두 허리에 착용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황남대총 북분과 서봉총, 천마총 등의 금허리띠 길이가 120cm 전후이고 황남대총 남분과 금관총도 100cm 전후로 확인된다. 금령총 허리띠는 74.1cm로 길이가 비교적 짧아, 기존에 15세를 전후하는 왕실 인물의 무덤으로 추정되어 왔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인이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재질의 허리띠를 사용한다고 전하며, 재료는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다고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고분 출토품은 유기물이 부식되고 표면에 부착된 금속 재질만 남아 있다. 금제 허리띠는 최상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다. 금제 허리띠가 발견되는 고분에서는 금관이 동반 출토 되어,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또한 허리띠의 드리개는 곡옥, 물고기, 향낭, 약통, 족집게, 손칼, 숫돌 등으로 추정되는 장식이 확인된다. 모두 권능과 권위, 생명 등에 관련된 장식으로, 착용자의 위상을 가늠하게 한다.

금령총 금허리띠는 다른 출토품에 비해 길이가 작는데, 드리개의 길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금허리띠의 드리개 중에는 가장 길고 화려한 한 줄의 드리개가 매달려 있다. 황남대총 남분 출토 금허리띠의 긴 드리개는 79.5cm이고 다른 유물도 70cm가 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해 금령총의 드리개는 43.8cm로 짧게 확인된다. 허리띠를 착용했을 때의 모습을 고려하면, 착용자의 키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분의 주인공에 대한 단서가 된다.

금령총 금허리띠는 장식에서도 다른 유물과 비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먼저 세부 장식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띠꾸미개 아래에 연결된 심엽형 장식은 하트 모양 안에 두 개의 원을 만든 구성이다(도3). 다른 금허리띠는 꽃잎 모양처럼 곡선으로 장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도4). 금령총 허리띠는 오히려 간결하고 깔끔한 인상을 준다. 또한 띠고리도 꾸밈없이 방형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특징이 황남대총 남분의 금허리띠에도 보이지만 대부분 곡선으로 장식이 있는 모양이다.



<도3. 금령총 금허리띠 세부>



<도4. 금관총 금허리띠 세부>

반면 드리개의 곡옥 장식은 특별하다. 금허리띠에 4점의 곡옥이 있는 드리개는 유일하다. 서봉총 금허리띠는 1점만 발견되었고, 많은 경우에도 황남대총 남분 허리띠처럼 3점이 달려 있다. 뿐만 아니라, 곡옥의 모자 부분에 난집을 두르고 유리를 채워 넣어 장식한 점도 관심을 끈다(도5). 난집을 이루는 테두리 선도 단순하지 않고 일정하게 늘려서 가다듬었다. 좀 더 정성을 기울인 표현이고 마치 누금세공의 알갱이를 연결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다른 금허리띠의 모자곡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색이다. 금령총 금관에는 다른 금관에 모두 장식된 곡옥이 보이지 않아,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고분의 주인이 자손을 얻지 못한 어린 나이일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금허리띠에 많이 보이는 곡옥과 화려한 장식을 어떻게 해석할 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금령총 금허리띠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독특한 드리개 장식이다. 두 줄의 연필형 장식 드리개는 비교할 만한 다른 유물을 찾기 어렵다(도5,6). 끝이 뾰족하고 가운데 몸체에는 금은선이 나선으로 감겨 있다. 몸체는 복원된 모습이고 내부는 유기물로 추정되는 재질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윗부분은 유리제 모자곡옥의 모양이나 세부 장식과 비슷하다. 금으로 만든 모자를 싹뚫고 표면에는 원형과 물방울 모양의 난집을 만들어 유리를 채워 넣었다. 흔히 연필형 장식으로 부르는 바와 같이, 끝이 뾰족해서 도필(刀筆)이 연상된다. 도필은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대나무에 문자를 새기는 데에 사용하던 칼이다. 그렇지만 몸체가 단단하지 않아, 그러한 추정에도 한계는 있다. 주술적인 내용인 담긴 유물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유리제 모자곡옥과 연필형 장식을 연계하여, 상징 의미를 해석할 필요도 있다. 유리로 만든 모자곡옥과 세부 장식이 유사한 점, 그리고 모두 한 쌍으로 구성된 점에서 유사하다. 이는 함께 출토된 금방울[金鈴]의 구성과 세부 장식과도 연결되어(도7),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5. 금령총 금허리띠 세부>



<도6. 금령총 연필형 장식>



<도7. 금령총 금방울>

○ 출토 및 소장 경위

금령총은 경주시 노동동 고분군에 위치한 적석목곽분이다. 일제강점기였던 1924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20여 일 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의해 발굴되었다. 당시 금관(보물 제338호)과 기마인물형도기(국보 제91호), 금령 등과 함께 금허리띠가 발견되었다. 금허리띠는 허리에 착용된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다른 허리띠는 머리쪽 부장물이 있는 부분, 석단, 목곽 상부, 목곽 하부 등에서도 확인되었다. 소유자의 위세가 높을수록 여러 점의 허리띠가 부장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금허리띠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금령총 발굴은 짧은 시간에 진행되었고 부장품이 많은 중심부 일부만을 조사하여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출토 유물을 선별하여 보고하였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지난 2018년부터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보고서를 통해 금령총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현 상

경주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는 원래 가죽이나 천과 결합된 허리띠였으나 오랜 시간을 거치며 유기물은 삭아 없어지고 현재 금제 장식만 남아있다. 금제 허리띠는 가죽에 부착됐던 과판과 과판에 달리는 장식인 요패, 곡옥, 원뿔형 드리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삼엽문이 투각된 사각형 금판에 심엽형 투각장식이 달린 과판은 현재 23매로 복원되었지만 2매의 과판이 박물관에 따로 보관되어 있어 원래 25매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판의 네 모서리에는 가죽에 연결하기 위한 못구멍이 뚫려있다. 일부는 금제 못이 남아있으나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다. 각각의 과판에는 금실을 꼬아서 연결한 영락을 2~4개씩 불규칙하게 장식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한 결과 과판의 배열순서가 서로 달라 출토이후 과판의 순서는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과판의 양끝에 허리띠를 고정하는 금제 교구와 띠끝장식(帶端金具)을 배치하였다. 띠끝장식의 형태는 양쪽 가장자리를 둥글게 처리한 판형으로 뒷면에 짧은 금판을 덧대고 허리띠에 연결했던 3개의 못이 남아있다. 교구는 고리만 남아있고 걸쇠 부속은 분리되어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요패는 대형요패 1점과 소형요패 6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형요패는 오목한 형태의 타원형 장식과 작은 타원형 금판을 교대로 연결하고, 끝장식은 밑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넓어지는 길쭉한 사다리꼴의 금판으로 마감하였다. 대형요패에는 영락장식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를 비롯하여 이후에 제작되는 신라 금제 허리띠와 공통점을 보인다. 소형요패는 타원형 금판과 소형 방형금판을 번갈아가며 연결하고, 끝장식은 길쭉한 사다리꼴의 금판으로 마감하였다. 표면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고, 6점 모두 크기와 형태가 동일하다.

요패와 더불어 허리띠를 장식했던 유물로는 수정, 유리, 옥 등으로 제작된 4점의 곡옥과 한 쌍의 원뿔형 드리개가 있다. 곡옥은 모두 금모를 씌워 장식되었으며, 그 가운데 청색유리로 제작된 곡옥 2점은 한 쌍을 이루도록 금실로 묶여있다. 4점의 곡옥에는 모두 매달 수 있도록 고리가 마련되어 있다. 각목을 새긴 2줄의 금실이 감긴 원뿔형 드리개는 현재 합성수지로 복원된 상태이다. 상부에는 금모를 씌워 장식했으며, 하단 끝에는 원뿔형 금제장식으로 마감했다. 출토당시 2줄의 금실 내에는 부식된 목재가 남아 있었다.

○ 내용 및 특징

금령총 금제 허리띠의 구성과 형태는 지금까지 발견된 5점의 신라 적석목곽분 출

토 금제 허리띠와 대체로 유사하다. 나머지 5점의 신라 금제 허리띠와 비교했을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금령총 금제 허리띠의 가장 큰 특징은 유독 길이가 짧다는 것이다. 5점의 금제 허리띠의 길이가 110~125cm인 것에 비해 금령총 금제 허리띠의 길이는 74.1cm이고, 과판의 수도 25매로 가장 적다. 이러한 원인은 함께 출토된 금관의 크기 분석을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금령총의 피장자는 15세 미만의 어린이로 피장자의 신체 크기에 맞춘 결과로 판단된다.

금령총 금제 허리띠의 또 다른 특징은 요패장식이 단순하고 간략하게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황남대총 남분 금제 허리띠를 비롯한 5점의 신라 금제 허리띠의 요패 끝에 곡옥, 향낭, 손칼, 숫돌, 족집게 등의 기물을 본뜬 장식이 부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달리 금령총 금제 허리띠의 요패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고, 별도로 허리띠에 부착했던 기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과 더불어 금령총 금제 허리띠는 신라 금제 허리띠의 전개과정을 보여준다. 신라 금제 허리띠는 가장 이른 사례로 알려진 황남대총 남분 금제 허리띠 이후 과판의 중심문양은 투각 삼엽문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금령총 금제 허리띠 과판의 삼엽문은 중심엽이 직선으로 변화했으며, 좌우엽은 원공을 뚫는 방식으로 형식화 되었다. 그리고 이전 시기 금제 허리띠의 과판에는 가죽에 연결하는 못구멍이 공통적으로 9개인 것에 비해 금령총 금제 허리띠의 경우 5개만 구멍을 뚫어 못으로 고정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위치에는 못머리 형태로 금판을 타출시켜 시각적으로 못이 박힌 것처럼 보이도록 변화하였다.

요패와 별도로 허리띠에 부착됐던 한 쌍의 원뿔형 드리개는 신라 금제 허리띠 중에는 유일한 사례이다. 그리고 3점의 곡옥에 썩은 금모의 누금된 금태에 유리를 감입하는 방식은 신라 장식기법 가운데 가장 화려한 장식으로 평가된다.

○ 소장 경위

금령총 금제 허리띠는 일제강점기인 1924년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실시한 금령총 발굴 당시 목관 안에서 피장자가 패용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소장되었다가 1945년 현 소장처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4.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 (慶州 瑞鳳塚 出土 金製 鎡帶)

가. 심의사항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9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19.12.12.)에서 ‘경주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에 대한 비교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관계전문가 조사('23.6.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10.31.~'23.11.29.)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慶州 瑞鳳塚 出土 金製 鎡帶)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길이 120.0cm
- 재 질 : 금
- 조성연대 : 신라시대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지정 가치>

보물로의 지정 가치가 있음.

<근거 기준>

이 문화재는 금관과 더불어 ‘황금의 나라’ 신라를 상징하는 대표적 유물이다. 그간 5~6세기 신라 고분에서 5점의 금관과 6점의 금제 허리띠가 출토된 바 있다. 금관과 금제 허리띠의 소유자는 신라 왕과 그의 직계 가족으로 보이며, 이 유물들은 당대 최고의 장인이 시대 미감을 반영하여 만든 수준 높은 걸작이다.

금제 허리띠의 경우 신라 황금문화의 전성기에 제작된 것이며 주변국 금속 허리띠와 구별되는 신라적인 특징을 갖추었는데, 특히 요패에는 상징성이 강한 다양한 장식물이 매달려 있다.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의 경우 신라의 금제 허리띠 가운데 전형적 사례이며 장식성이 강한 원래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어 심미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문화재청에서는 신라 금제 허리띠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이미 6점의 금제 허리띠 가운데 금관총, 천마총, 황남대총 북분 출토품은 국보로, 황남대총 남분 출토품은 보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황남대총 남분 출토품보다 화려한 편이고 국보인 금관총 출토품에도 견줄 수 있는 바,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금제 허리띠 현황표>

유구명	문양	각부 수량				착장 여부	착장유물 동반관계		
		교구	과관	요패	대단금구		금관	금동관	대도
황남대총 남분	삼엽문	2	34	7	1	착장	×	○	○
황남대총 북분	삼엽문	1	28	13	1	착장	○	×	×
금관총	삼엽문	1	40	17	1	착장	○	×	○
서봉총	삼엽문	1	34	8	1	착장	○	×	×
금령총	삼엽문	1	23	12	1	착장	○	×	○
천마총	삼엽문	1	44	13	1	착장	○	×	○

○ (지정 가치 있음)

1926년에 발굴 조사를 통해 출토된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그동안 금관총이나 황남대총 북분과 남분, 천마총 및 금령총에서 출토된 5점의 금제 허리띠와 마찬가지로 발굴 조사에 의해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에 해당되는 신라의 적석목곽분에서 금관 등 최상층 지배계층이 사용하는 다종다양한 유물과 함께 공반 출토된 유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 금관총, 천마총 및 금령총과 마찬가지로 신라 최상층의 계층에서 사용한 금제 허리띠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나머지 고분에서 출토된 금허리띠와 비슷하게 104.5cm 정도의 길이에 요패의 길이도 85.3cm이다. 서봉총 금제 허리띠의 과관은 34개로 천마총의 44개보다 작고 황남대총 북분의 28개보다 많아 다른 고분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다르다. 드리개의 숫자는 금관총이 17개, 나머지의 것들이 13개인데 비해 10개로 적은 편이다. 드리개의 종류에 있어 금관총을 비롯한 나머지 무덤에서 발견되는 곡옥, 장도, 숫돌, 부싯돌, 침통 등이 발견되어 전형적인 신라의 금제 허리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처럼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발굴조사에 의해 출토지가 명확하고 적석목곽분에 의해 5세기 말 6세기 초에 최상위층의 여성이 착용한 것이 분명하며, 기왕에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황남대총 북분이나 금관총 및 천마총의 금제 허리띠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가치나 학술적 가치 및 신라 고분금속 공예품으로 조형적 예술

적 가치 또한 뛰어나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1. 경주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출토지가 분명한 문화재로 지금까지 발견된 5점의 신라 금제 허리띠와 비교하면 황남대총 북분의 금제 허리띠와 더불어 여성 피장자가 착용했던 허리띠라는 특징이 있다. 더불어 장식성이 강한 투각 요패장식과 과판의 양식변화를 통해 신라 금제 허리띠의 전개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서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문화재이다.
2.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희소성이 강한 금제 장신구로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특히 제작시기를 달리하는 유리나 옥 등의 재질을 혼용하는 여타 신라의 금제 허리띠와 달리 대부분 금제장식으로 구성하여 제작 당시 허리띠 고유의 의상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예술적 가치 또한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된다.
3. 결론적으로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신라 최상위 계층이 사용했던 허리띠의 전형을 보여주는 문화재로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탁월한 문화재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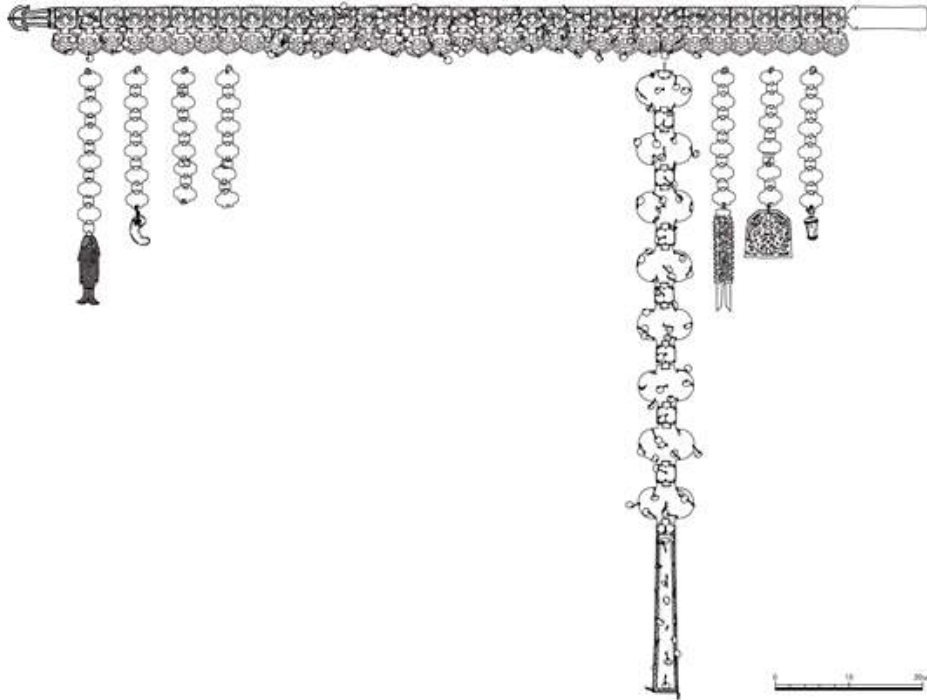
순도 높은 순금제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현재 국립청주박물관 상설전시실 내 4면 유리장에 세로로 펼쳐진 모습으로 전시 중에 있다.

○ 내용 및 특징

서봉총(북분) 주인공의 허리 부위에서 출토된 금제 허리띠이다. 교구(띠고리) 1개, 과판(띠꾸미개) 34개, 대단금구(띠끝장식) 1개, 요패 7개(줄)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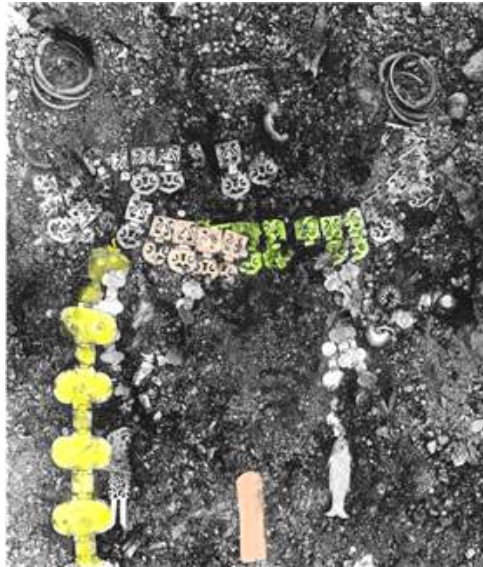
교구는 황남대총 북분 이래 신라 금제 허리띠의 전형적 형식을 따른 것으로, 왼쪽이 횡치한 삼엽형이며 전체적으로는 좌원우제형(左圓右梯形)에 가깝다.

과판은 띠에 부착하는 방형판과 그 아래에 걸리는 삼엽형 장식으로 구성된다.



<도1.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 실측 도면>

신라의 전형적 삼엽문 투조 과판이다. 문양의 형태는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 천마총 출토품과 다소 다르다. 과판에는 둥근 영락이 많이 달려 있다. 대단금구는 횡으로 길쭉하며 띠연결부에 3개의 고정용 못이 박혀 있다. 발굴 당시 대단금구는 여타 금제 허리띠의 경우처럼 무덤 주인공 가랑이 아래쪽으로 현수된 모습으로 출토되었다.



<도2. 서봉총 금제 허리띠 출토 모습 세부>

요패 가운데 큰 것은 옆으로 길쭉한 타원형판과 방형판이 교대로 연결되었는데 끝에 길쭉한 홀[圭] 모양 장식이 달려 있다. 작은 것도 형태는 비슷하다. 끝에는 금으로 만든 곡옥과 물고기 모양 장식, 대칭구조의 용문 투조 장식, 속빈 추 모양 장식 등이 매달려 있다.

○ 지정사례

그간 신라 고분 출토 금제 허리띠 6식 가운데 3식이 국보, 1식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비지정 금제 허리띠로는 서봉총과 금령총 출토품이 있다.

지정구분	지정일	문화재명 및 수량
국보	1962.12.20.	금관총 금제 허리띠 1식
국보	1978.12.7.	천마총 금제 허리띠 1식
국보	1978.12.7.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 1식
보물	1978.12.7.	황남대총 남분 금제 허리띠 1식

○ 참고문헌

- 穴澤和光·馬目順一, 「慶州瑞鳳塚の調査」, 『석심 정영화교수 정년퇴임기념 천마고고학논총』, 논총간행회, 2007.
- 국립중앙박물관, 『경주 서봉총 I (유물편)』, 2014.
- 국립중앙박물관, 『경주 서봉총 II (재발굴 보고)』, 2020.

○ 기 타

- 1926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발굴하였으며 광복 후 국립박물관(후에 국립중앙 박물관으로 개칭)이 관리해 오고 있다.
- 유물번호는 본관14321(허리띠 본체), 본관14322(요패)이다.
- 2022년 국립청주박물관으로 임시 이관되어 현재 상설전시 중에 있다.

□

○ 출토 현황

서봉총(瑞鳳塚)은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05-1번지에 위치한 고분 중 하나이다. 이곳에 위치한 고분군(128-141호분)에는 14기의 무덤이 지표에 드러나 있었고, 금관총(128호분), 호우총과 은령총(140호분) 등이 있다. 1921년 금관총 발굴 이후 후지타 료사쿠가 사이트 총독을 움직여 서봉총을 발굴하려고 노력하였고,³⁶⁾ 1926년 7월 24일부터 11월까지 북분인 서봉총, 그리고 1929년에 다시 남분(데이비드총)을 발굴하였으나,³⁷⁾ 보고서를 간행하지 않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4년에, 2016~2017년 재발굴한 성과를 담아 2020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³⁸⁾



<서봉총의 발굴, 1926(건관 007785)>



<서봉총의 발굴, 1926(건관 007786)>

36) 김대환,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사업에서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의 역할」, 『韓國上古史學報』 91, 2016, pp.133~134 ; 차순철, 「일제강점기의 신라고분조사연구에 대한 검토」, 『문화재』 39, 2006, pp.118~119.

37) 『경주 대릉원 일원 고분 자료집성 및 분포조사 종합보고서』 제2권, 2018, p.359.

38) 박진일·심수연, 『慶州 瑞鳳塚 I (遺物編)』, 국립중앙박물관, 2014 ; 윤온식·김대환, 『慶州 瑞鳳塚 II (재발굴 보고)』, 국립중앙박물관, 2020, p.10.



<서봉총 재발굴, 2016>



<서봉총과 주변 모습>

1926년 당시 서봉총은 봉분의 규모는 직경 약 36m, 높이는 약 9.6m이다. 적석 부는 동서 3.75m, 남북 10.2m, 높이 4.7m로 지상화 된 형태이다. 무덤 내부의 목곽은 동서 3.75m, 남북 1.95m로 적석의 둘레 공간에 잔 자갈을 채우고 천석을 쌓았는데 그 주변의 천석에 주철흔이 남아 있다.³⁹⁾ 유물의 출토 상태는 목곽의 상부에서 철기류와 토기류가 출토되었고, 목곽 내부에서 칠기, 청동기, 금은용기, 유리용기, 마구류가, 착장유물은 금관, 태환수하식, 목걸이, 금제허리띠, 금은유리제 팔찌, 금제 지환, 금제 이식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⁴⁰⁾ 서봉총 금관과 수하식(보물 제339호)을 비롯하여 금공품과 쇠술과 토기 위로 칠기, 청동초두, 금은제품, 유리배, 마구, 옥류 등을 포개듯이 두었다고 기술하였다. 피장자의 착장품으로는 머리 부분에 경옥제 및 유리제 곡옥이 달린 금관이 있었고 그 좌우에는 금제 수식과 이식을 두었다. 또 금관의 동북쪽에서도 한 쌍의 이식이 출토되었다. 금관과 과대 사이에는 금, 은, 유리제 소옥을 연결한 5조와 수정, 마노, 곡옥 등을 연결한 경식 등이 위치한다.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피장자의 허리 부분에서 금제 과대와 수하용 패식이 확인되었다. 패식의 끝에서는 금제 곡옥, 물고기 장식, 투조판 등 여러 장식이 붙은 것이다.⁴¹⁾ 발굴된 서봉총 금허리띠는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소장되었다가 1945년 현 소장처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한편, 서봉총은 일제강점기에 발굴한 이후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아 체계적인 연구나 전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봉총은 2018년부터 재발굴하여 2020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⁴²⁾

39) 박광열, 「新羅 瑞鳳塚과 壺衿塚의 絶對年代考」, 『韓國考古學報』 41, 1999, pp.75~76.

40) 박진일·심수연, 『慶州 瑞鳳塚 I (遺物編)』, 국립중앙박물관, 2014, p.6.

41) 『경주 대릉원 일원 고분 자료집성 및 분포조사 종합보고서』 4-2, 2018, p.100.

42) 윤은식, 「瑞鳳塚 再發掘 調査 概要」, 『연구논문』,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금관총과 서봉총 및 금령총의 위치(2016.4.)>

○ 금제 허리띠의 현황

경주 서봉총에서 피장자는 금관, 금제드리개, 태환식 귀걸이, 팔찌, 반지, 허리띠를 착용한 상태였다. 이 중 금제 허리띠는 교구, 34매의 과판, 대단금구, 대형드리개, 8점의 소형드리개로 구성된다. 수하식의 종류는 귀얄, 물고기, 가위, 끌, 곡옥, 향냥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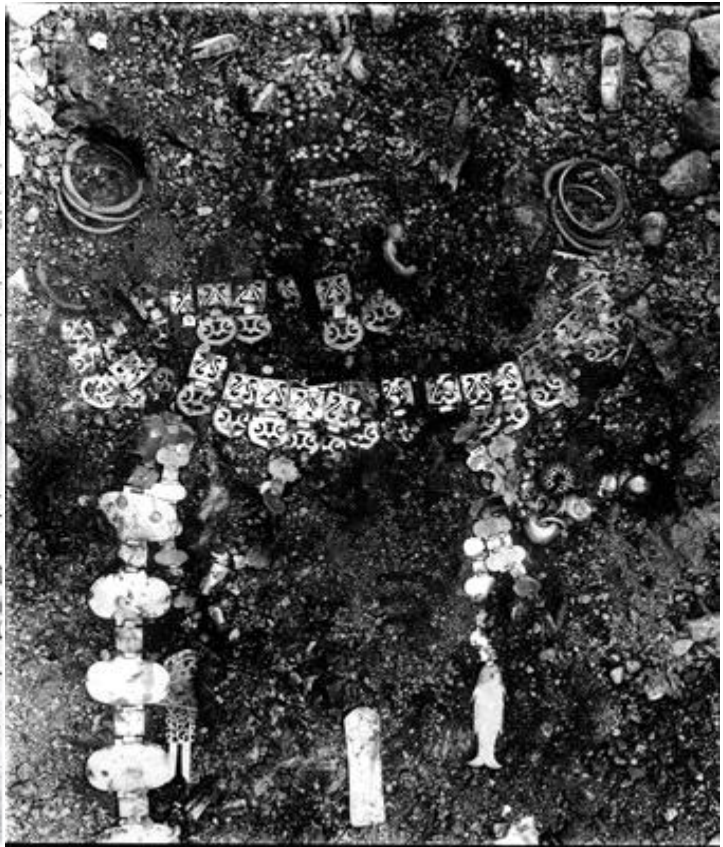
<서봉총 발굴 시 착장 현황(건판 016126)>



<서봉총 금제 허리띠(건판 007747)>



<서봉총 유물배치도면(건관 27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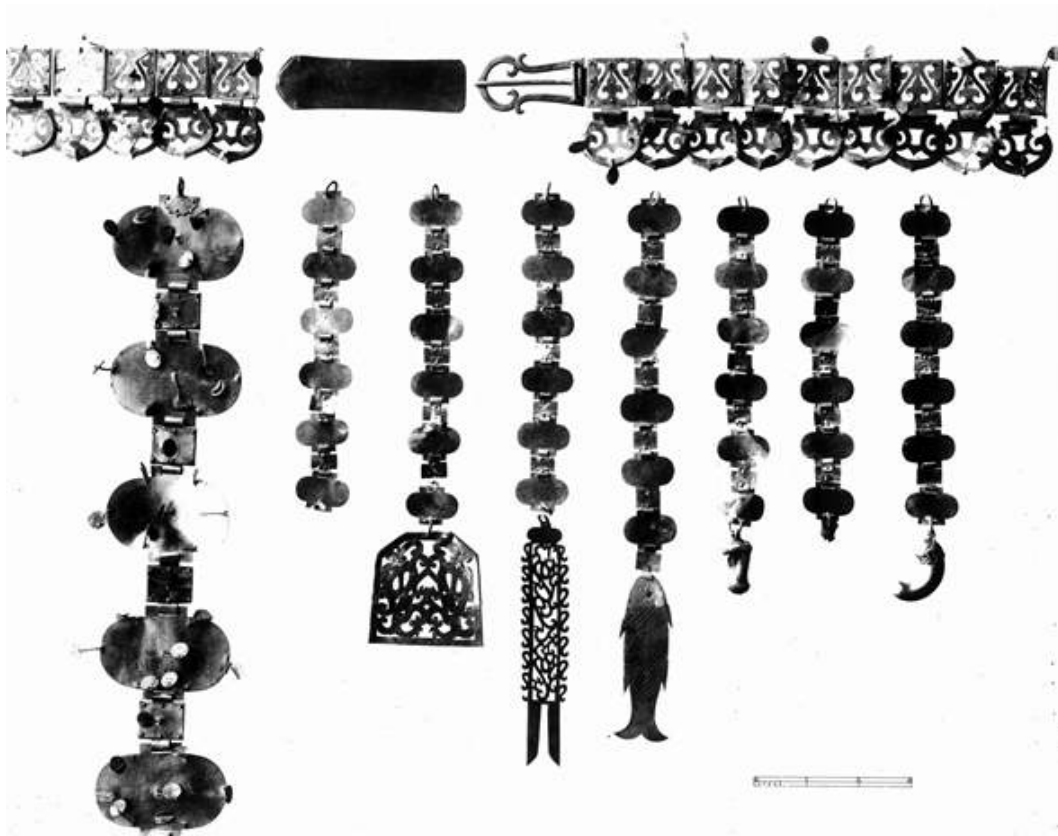


<서봉총 금제 허리띠 출토 상태(건관 16121)>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금관총과 유사하게 버클에 해당하는 띠고리[鉸具], 띠꾸미개[鑄板], 띠끝꾸미개[帶端金具], 드리개[腰佩]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신라의 허리띠이다. 특히 발굴할 때부터 드리개의 수식으로 곡옥, 소도(粧刀), 부싯돌, 송곳, 숫돌, 물고기, 침통 등이 매달려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형식의 금제 허리띠는 5세기 말 6세기 초로 편년되었는데, 최근 동반 출토된 ‘십자뉴은합’에 의해 6세기 1/4분기로 편년하기도 했다.⁴³⁾

43) 박광열, 앞 논문, p.83. 서봉총에서 출토된 <延壽元年> ‘십자뉴은합’에 의해 지증왕 12년(511)에 신라에서 제작되어 동왕 15년(514) 사망 후 매납되었을 것으로 여겨 515년 전후, 6세기 1/4분기로 추정하였다.

신정훈, 「新羅 瑞鳳塚의 銀盒年代와 그 築造時期에 대한 신검토」, 『국학연구논총』 13, 2014. 391년으로 여성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서봉총의 발굴 당시 금제 허리띠, 건관016133>

○ 내용 및 특징

신라시대 금제 허리띠(鍔帶)는 띠고리[鉸具], 띠꾸미개[鍔板], 띠끝꾸미개[帶端金具], 드리개[腰佩]로 구성되는데, 특히 금제로 13개 이상의 드리개가 장식된 허리띠는 최상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다. 이러한 금제 허리띠가 발견되는 고분에서는 금관이 동반 출토되는 것에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허리띠의 드리개는 곡옥, 물고기, 향낭, 약통, 족집게, 손칼, 숫돌 등으로 추정되는 장식이 확인된다. 이것들은 지배층의 권위와 권력, 생명체 등에 관련된 장식으로, 착장자의 위상을 가늠하게 한다. 현존하는 대형고분에서 금관과 함께 출토된 신라 금제 허리띠는 총 6점이다. 금관총, 서봉총, 천마총, 황남대총남분과 북분, 금령총이다. 이러한 삼국시대 금제 허리띠 중 금관총은 1962년에, 천마총은 1978년에, 황남대총도 1978년에 출토된 금제 허리띠 유품 3점은 이미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⁴⁴⁾

44) 김소라, 「신라 허리띠의 조형성과 상징성에 관한 분석연구」, 『한국공예논총』, 2008, pp.13~14.

<표1. 신라고분 출토 금제 허리띠의 구성>

고분명	크기	드리개[요패]의 구성	지정 여부
금관총 금제 허리띠	길이 109cm 요패 54.4cm	- 과판 39장, 요패 17개 - 곡옥, 장도, 숫돌, 부싯돌, 침통	국보 제88호 (1962.12.20.)
천마총 금제 허리띠	길이 125cm 요패 73.5cm	- 과판 44장, 요패 13개 - 곡옥, 부싯돌, 물고기	국보 제190호 (1978.12.07.)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	길이 120cm 요패 77.5cm	- 과판 28장, 요패 13개 - 곡옥, 장도, 물고기	국보 제192호 (1978.12.07.)
금령총 금제 허리띠	길이 74.1cm 요패 51.9cm	- 과판 23장, 요패 13개 - 곡옥, 연필형	비지정
서봉총 금제 허리띠	길이 104.9cm 요패 85.3cm	- 과판 34장, 요패 10매 - 곡옥, 도자, 향낭, 물고기	비지정



<금관총 금제 허리띠, 국보 제8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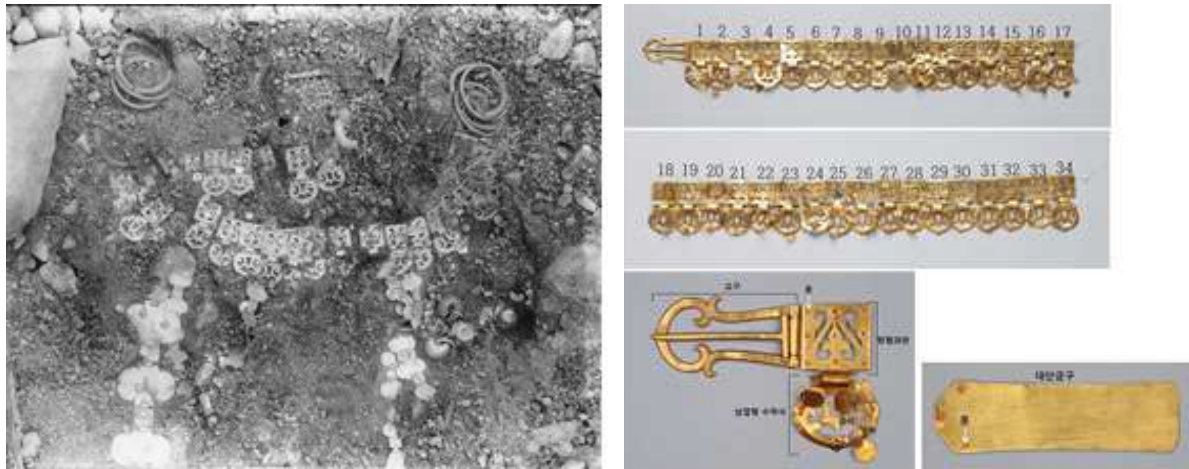
<천마총 금제 허리띠, 국보 제190호>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 국보 제192호>



<금령총 금제 허리띠>



<출토 당시 서봉총의 금제 허리띠, 유리원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처럼 신라의 대형 적석목관분에서 출토된 금제 허리띠 중 길이는 천마총의 것이 가장 길어 길이 125cm이고, 황남대총의 것은 120cm, 금관총의 것은 109cm, 서봉총은 104.9cm인데 비해 금령총의 허리띠는 길이 74.1cm로 이전의 것들에 비해 50cm 정도 짧다. 또한 드리개[요패]의 길이에 있어 서봉총은 85.3cm로 가장 길고 황남대총의 것은 77.5cm, 천마총의 것은 73.5cm, 금관총의 것은 69.7cm이며 금령총은 51.3cm로 가장 짧은 편이다.

과판과 드리개의 개수를 보면 금관총은 과판 40매에 드리개가 17개이고 천마총은 과판 44매에 드리개는 13개이다. 황남대총은 과판 28매에 드리개가 13장이다. 이에 비해 금령총은 과판은 23매로 가장 숫자가 작은데 비해 드리개는 천마총이나 황남대총과 마찬가지로 13개로 구성되어 있다. 서봉총의 경우 과판은 34매에 요패는 10매이며, 드리개는 곡옥, 도자, 향낭, 물고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판의 숫자와 드리개의 숫자로 미루어볼 때 서봉총의 피장자는 금관총이나 천마총 및 황남대총 등과 신분상 착장자의 위상이 같다고 여겨진다. 서봉총의 금제 허리띠는 부분적으로 영락과 금제 못이 결실되었지만 형태는 완형이다. 교구 1개, 과판 34매, 대단금구(帶端金具)로 구성된다.

1) 띠고리[교구]

서봉총의 교구는 금관총이나 천마총, 서봉총 및 황남대총 북분의 것에서 교침이 모두 ‘T’자형이다. 교구의 형태는 ‘D’자형과 심엽형으로 구분되어 착장자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⁴⁵⁾ D자형은 황남대총 남분과 금령총에 속하며, 심엽형은 황남대총 북분과 금관총, 서봉총 및 천마총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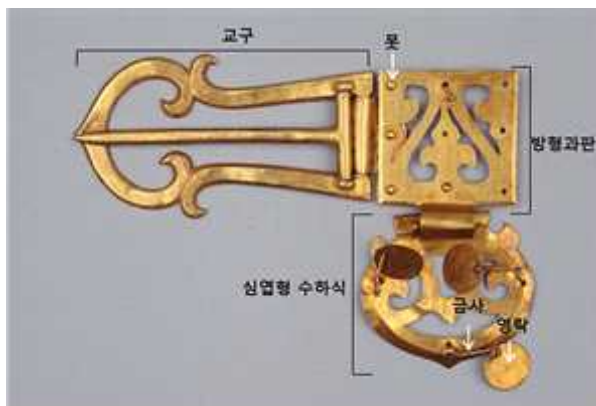
서봉총은 완형의 금제 교구이며 너비는 6.4cm이다. 외륜의 왼쪽은 심엽형으로 대칭의 엽문(葉文) 장식이 있고, 오른쪽은 과판과 고정되는 부분이다. 바닥부분에

45) 손민혁, 앞 논문, p.101.

해당하는 뒷면은 편평하고 앞면은 굴곡져서 단면형태는 반원형이다. ‘ㄱ’자 모양의 교침은 끝이 뾰족하고 단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운 반원형이다. 전체적으로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천마총 출토품과 유사하다. 횡축은 단면형태가 원형으로, 외륜에 굽은 금제 못을 양쪽에 끼워서 고정시키고, 못의 안쪽을 오목하게 만들어서 횡축의 양단을 끼워서 고정하였다. 뒷면에는 튀어나온 못을 뺀 흔적이 있다. ‘ㅊ’자 모양의 금판을 외륜 오른쪽에 걸고 반으로 접어서 방형판과 겹쳐 못으로 고정하였다.



<심엽형 교구 비교-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서봉총, 천마총>



<서봉총의 교구와 과판 및 수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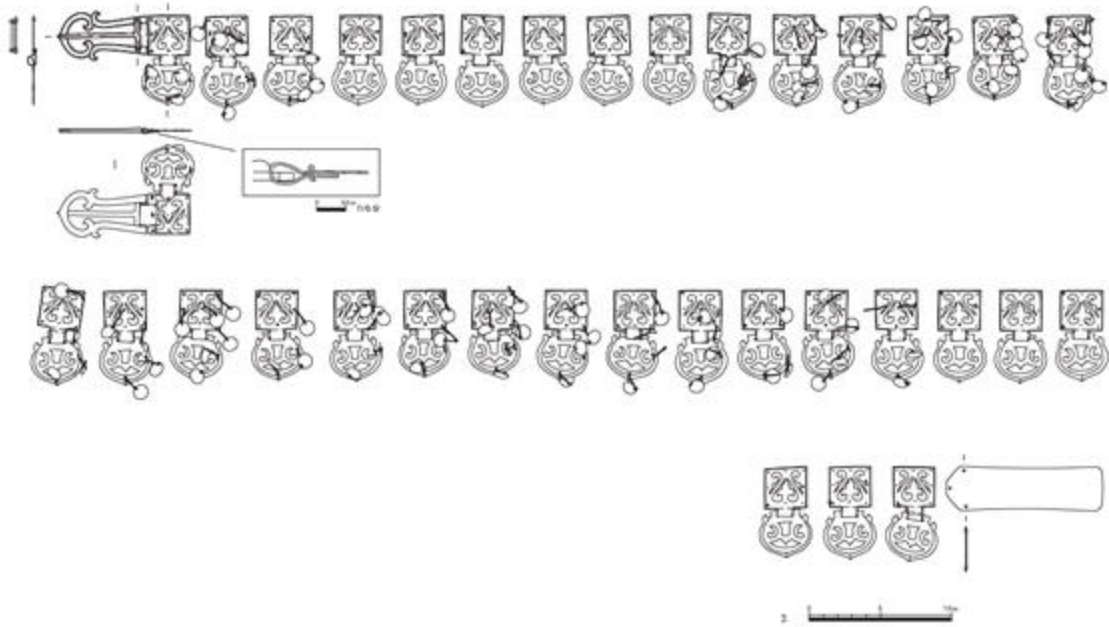
<서봉총 교구 측면>

2) 띠꾸미개[과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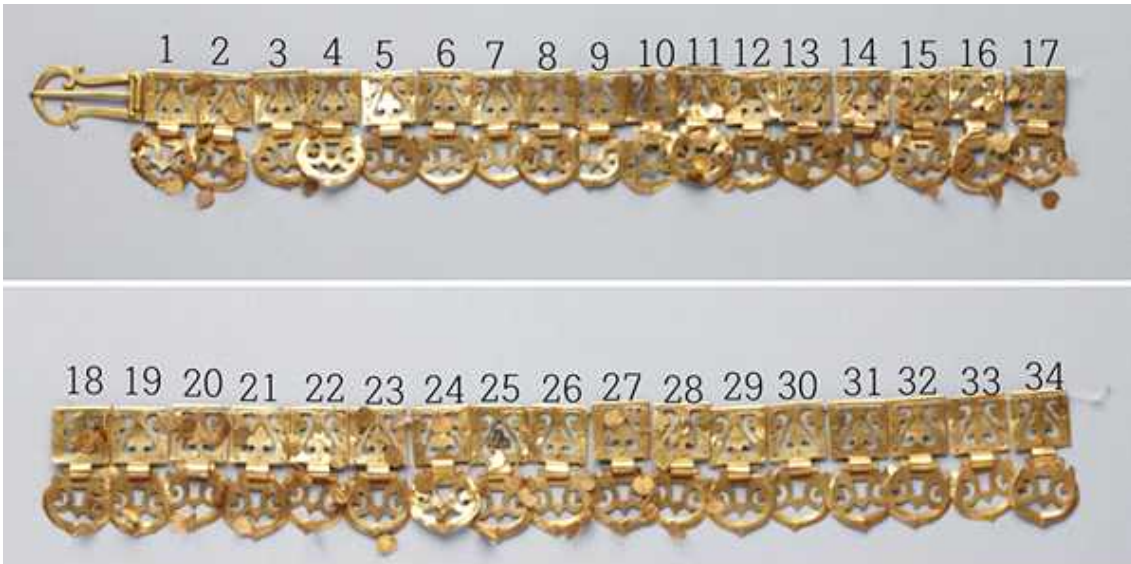
과판은 방형의 과판과 심엽형의 수하식으로 구성된다.

서봉총의 과판의 숫자는 총 34매이다. 과판은 가로 2.8~3.0cm, 세로 2.8~2.9cm이다. 과판은 방형판과 수식부로 이뤄져 있다. 방형판의 네 면은 끝단을 안쪽으로 살짝 접었으며, 아래쪽은 구부러져 수식부에 걸어 못으로 고정하였다.

이러한 과판의 개수는 천마총이 가장 많아 44매, 금관총의 과판 39매, 황남대총은 과판이 28매, 서봉총은 34매인데 비해 금령총은 과판은 23매이다. 과판의 숫자와 드리개의 숫자로 미루어볼 때 서봉총의 피장자는 금관총이나 천마총 및 황남대총보다 신분상 착장자의 위상이 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서봉총 금제 허리띠 띠고리[교구]와 띠꾸미개[과판] 및 띠드리개 도면>



<서봉총 교구와 방형 과판과 삼엽형 수하식>

서봉총 과판은 연결부의 뒷면은 양옆을 잘라내어 삼각형으로 만들었다. 방형판 중앙에는 삼엽문을 투조하여 장식하였는데, 투조된 부분은 좌우 대칭이다. 삼엽문의 가운데 앞에는 직경 0.05cm의 투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투공이 있는 일부에는 금판 영락이 달렸다. 방형판의 네 면 가장자리에 있는 8개 투공은 직경 0.1cm로 못이 잔존하는 것, 영락을 매단 것,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있다. 각각의 위치나 개수는 일정하지 않다. 또한 잔존하는 못이 헐겁기 때문에 본래 존재했으나 결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못들은 과판 뒤에 직물[布]이나 가죽과 부착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식부의 평면 형태는 심엽형이고, 윗부분에 옆문을 대칭으로 장식하였다. 방형판과 마찬가지로 끝단은 안쪽으로 살짝 접었다. 일부는 투공을 하고 영락을 달았는데, 투공은 주로 아래쪽과 오른쪽에 하였다. 방형판과 다르게 1쌍을 나란히 중방향으로 뚫었다. 영락을 매다는 방법은 방형판과 수식부가 상이하다. 즉 방형판은 영락을 걸고 끈 금사의 두 갈래 중 한 갈래만 하나의 구멍에 넣어서 마무리한 반면, 수식부는 두 갈래를 각각의 구멍에 넣어서 달았다.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 및 천마총의 대형드리개 상단 고리의 화문장식>

삼엽문의 과판은 황남대총 남분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황남대총 북분, 그리고 이후 금관총과 서봉총, 금령총으로 이어져 지속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서봉총의 띠꾸미개는 신라의 고유한 양식인 투조식 삼엽문 계열이며, 띠판과 드림 엽문이 몸체에 붙은 투공식(透孔式)이다.

과판 수하식의 경우 황남대총 북분과 금관총의 것은 보요장식이 있으나 서봉총이나 천마총 및 금령총은 보요장식이 없다. 대개 수하식은 심엽형인데, 서봉총은 황남대총이나 천마총의 것과 유사하나 금령총의 수하식은 단순해진다.



<황남대총 과판>

<천마총 과판>

<서봉총 과판>

<금령총 과판>

3) 드리개

신라의 금제 허리띠 6점의 대형 드리개는 고리+연결금판+횡타원형이다. 연결금판의 형태는 방형에서 원형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적인 흐름보다 지역색이 강하다는

주장이 있다.⁴⁶⁾ 서봉총의 드리개는 10매에 곡옥, 장도, 숫돌, 부싯돌, 침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⁷⁾ 드리개의 개수는 6개 대형 고분마다 달라 금관총은 17매, 천마총은 13매,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은 13매, 금령총은 13매이다.

드리개는 앞선 시기에 제작된 황남대총 남북분이나 금관총, 서봉총, 천마총의 것은 과관 내부의 문양이 사실적으로 투각되어 있으나,⁴⁸⁾ 금령총의 것은 중앙의 삼엽형 좌우가 도식적이다.

금제 허리띠의 드리개에 대한 근원은 『예기(禮記)』에서 찾는다. 여기에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할 때 칼, 부싯돌, 송곳, 바늘 등 일상용품을 차고 다녀야 한다는 내용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⁴⁹⁾

드리개와 관련해서는 당서(唐書) 여복지에 의하면 어대(魚袋)와 긴 칼, 단검, 숫돌, 환약, 송곳, 침통, 부싯돌과 같은 일곱 가지 사물[鞬鞞七事]은 문무관의 패물로 정하였다.⁵⁰⁾ 중국에서 이러한 요패의 기원과 관련해서 몽계필담(夢溪筆談)에 의해 북제 때부터 흉노들의 호복(胡服)에 착장하는 첩섭(鞬鞞)의 풍속을 수용하여 주머니 칼(囊刀)이나 숫부싯돌 등을 다는 것이 유행하여 천자도 13환을 썼다고 한다. 이에 당나라 고조 때인 674년에 3품부터 서민까지 등급을 나눠 금, 은, 옥, 물소뿔 등 재료와 13과부터 6과까지 수식 수의 제한을 두었다고 한다.⁵¹⁾ 이렇게 허리띠에 드리개를 다는 기마민족의 풍속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인의 허리띠 재료는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다고 기록하였다. 그 위에 금은제 재질이 장식되지만 대부분의 고분 출토품은 유기물이 부식되고 표면에 부착된 금속 재질만 남아 있다.

서봉총의 경우 소형 7條와 대형 1條가 출토되었다. 소형 요패는 기본적으로 소형 타원형관 6매, ‘+’모양의 금관 5매를 번갈아가며 연결하고 ‘+’자형 금관에 2개의 못으로 고정하였다. 타원형관과 ‘+’자형 금관 아래에는 물고기(魚形) 장식, 곡옥(曲玉) 장식, 용문투조(龍文透彫)된 작은 칼[刀子] 장식, 용문투조(龍文透彫)된 금관 장식, 원통형(圓筒形) 장식 등이 달려있다. 장식이 없는 것은 본래 있던 것이 결실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들의 일부는 금사를 감거나 은지 금동판을 뒤에 덧대서 보수하였는데 후대에 이루어진 작업으로 추정된다.

요패의 위치와 순서는 발굴 당시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건판16121)의 유물 출토

46) 박보현, 「요패 연결금구의 제작기법과 지역차이」, 『과기고고연구』 2, 1997, pp.57~59.

47) 박진일·심수연, 일제강점기 자료조사보고 13집 『慶州 瑞鳳塚 I (遺物編)』, 국립중앙박물관, 2014, p.23/p.203.

48) 손민혁, 앞 논문, p.101/p.117 도76 <삼엽형 교구비교>/p.118 도80 <A형 과관 비교>/p.119 도83 <대형드리개 끝장식 연결방식>.

49) 『禮記』, 「內則 第十二」, “子事父母, 雞初鳴, 咸盥漱, 櫛, 緝, 笄總, 拂髦, 冠, 紕, 纓, 端, 鞞, 紳, 摺笏, 左右佩用. 左佩紛帨, 刀, 礪, 小觿, 金燧. 右佩玦, 捍, 管, 遯, 大觿, 木燧, 倂, 屨著綦.”

50) 『唐書』, 「輿服志」, “七事謂 佩刀, 刀子, 礪石, 契苾真, 噦厥, 針筒, 火石袋等也.”

51) 『欽定四庫全書』, 「事物紀原」 卷3, 〈腰帶〉, “實錄曰. 自古皆有革帶及挿垂頭至秦二世始名腰帶. 唐高祖令向下挿垂頭取順下之義名金宅尾. 上元元年自三品官至庶人各有等制以金玉犀銀鍮石銅鐵爲飾. 自十三鈔至六鈔. 筆談曰. 自北齊全用胡服鞞革變所垂蓋欲以佩帶弓劍巾帨笄囊刀礪之類. 後去鞞革變猶存其環所銜以鞞革變如馬鞞根即今帶鈔也. 天子必以十三環爲節. 唐開元之後帶鈔尚穿帶本爲孔. 本朝加順折也.”

상태를 토대로 추정한 것이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피장자를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4條씩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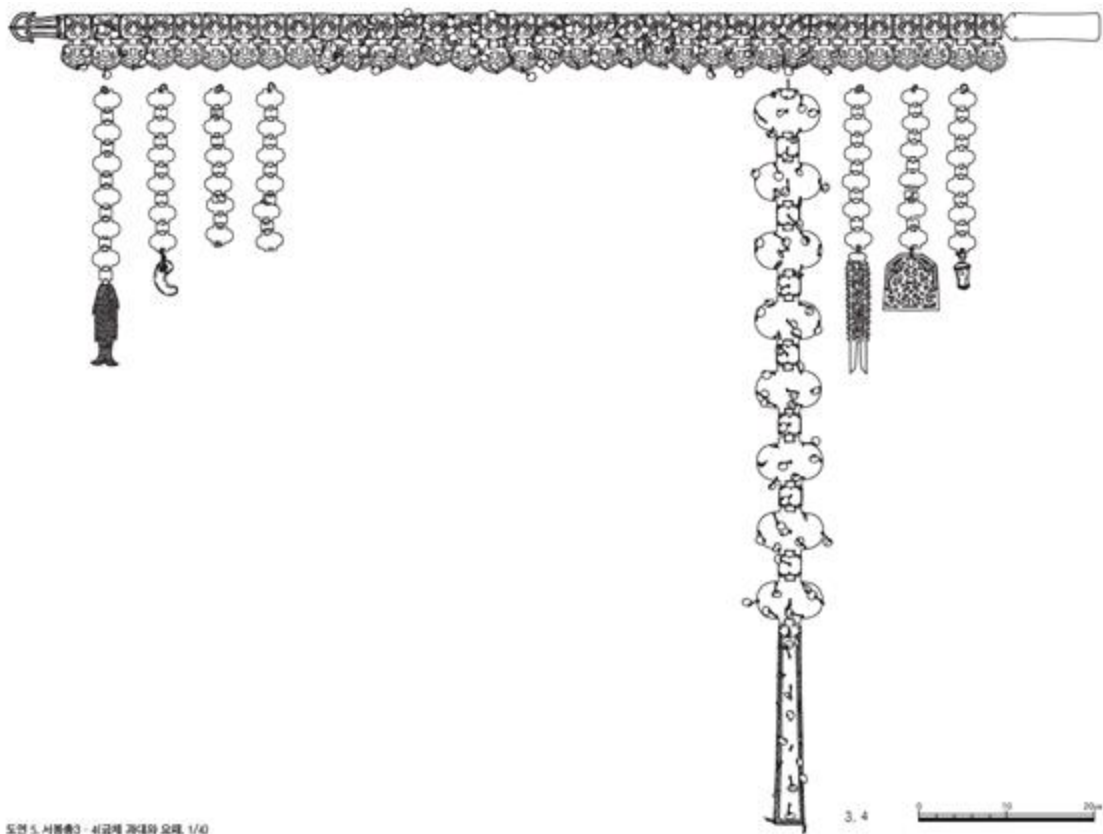
각각 요패는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1) 4-1은 타원형판 6매, ‘十’자형 금판 6매, 물고기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에서 다섯 번째 ‘十’자형 금판의 연결부는 일부가 결실되었다. 위에서 첫 번째 ‘十’자형 금판의 위쪽 연결부는 2개의 금제 못을 나란하게 고정하였는데, 다른 6점의 소형 요패와는 다른 점이다. 가장 아래쪽의 ‘十’자형 판은 위의 5매와는 달리 앞뒤 방향이 반대이다. 물고기 장식은 금판을 오려서 형태를 만들고 문양을 시문하였다. 머리와 꼬리 부분에 축조점렬문(蹴彫點列文)을 우→좌로 시문하고 몸통부분에 상→하로 시문하여 구획하였다. 그런 다음 머리와 꼬리를 비롯한 지느러미에는 상→하로 점렬문을 시문하고, 몸통에는 어린문을 시문하였다. 물고기의 입부분에 장방형 구멍을 뚫어 ‘十’자형 금판과 연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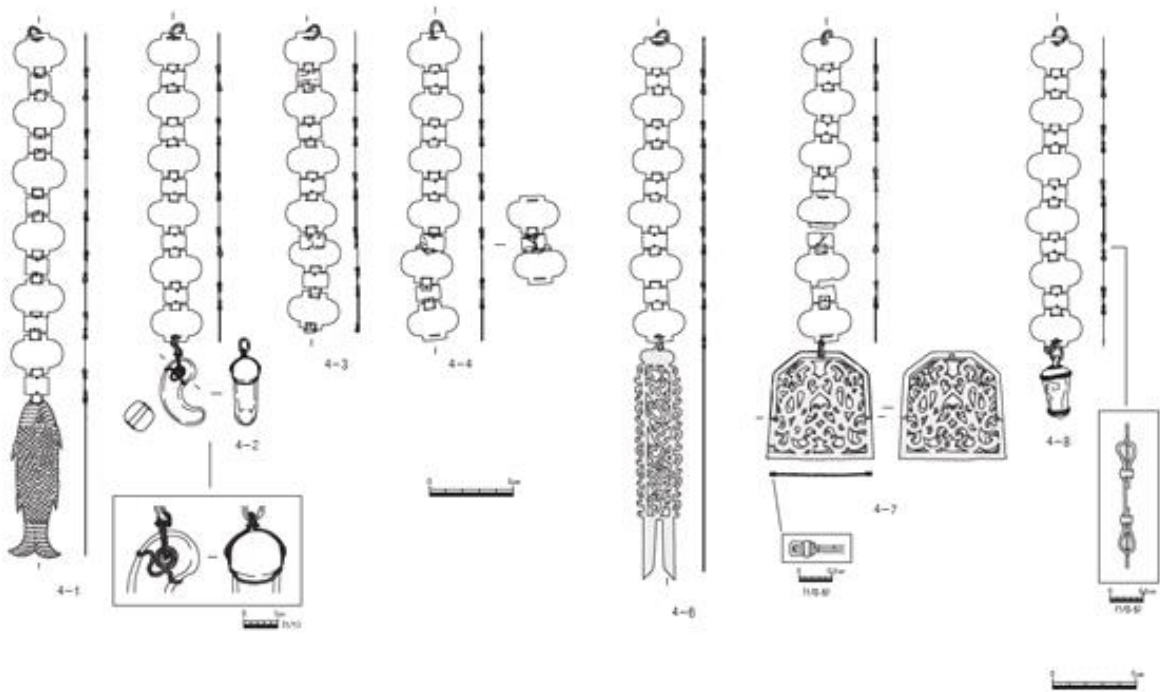
(2) 4-2는 타원형판 6매, ‘十’자형 금판 5매, 곡옥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에서 두 번째 ‘十’자형 판은 못 1개가 결실되었다. 곡옥 장식은 구멍이 뚫린 금제 곡옥의 양쪽 구멍과 머리 부분에 각목을 새긴 금띠를 들렀다. 각목을 새긴 금사에 곡옥을 걸어서 환 2개로 타원형판과 연결하였다.

(3) 4-3은 타원형판 6매, ‘十’자형 금판 5매가 잔존하고, 장식은 결실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아래 부분에 ‘十’자형 금판의 연결부가 일부 잔존하는데 본래의 위치 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위에서 네 번째 ‘十’자형 금판은 못 1개와 연결부 한 쪽이 결실되었다. 아래의 타원형판 연결구멍에 걸지 않고 단순하게 겹쳐서 고정시켜 놓은 상태이다.

(4) 4-4는 타원형판 6매, ‘十’자형 금판 5매가 잔존하고 장식은 결실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네 번째 ‘十’자형 금판은 표면이 찌그러지고 못 1개와 연결부 한 쪽이 결실되었다. 금사를 감아서 아래의 타원형판과 고정시켜놓은 상태이다. 가장 아래쪽의 ‘十’자형 판은 위의 4매와는 달리 앞뒤 방향이 반대이다.



도판 5. 서봉총 4-4 금제 과대자 요래, 1/40



도판 7. 서봉총 4-1-4-4 금제 요래, 1/20

도판 8. 서봉총 4-6-4-6 금제 요래, 1/20

<서봉총 금제 허리띠 드리개 4-1,2,3,4>

<서봉총 금제 허리띠 드리개 4-6,7,8>



<서봉총 드리개 1>



<서봉총 드리개 2>



<서봉총 드리개 3>



<서봉총 드리개 4>

(5) 4-5는 대형 요패로 대형의 타원형판 8매, ‘凸’자형 금판 7쌍을 번갈아가며 연결하고 ‘凸’자형 금판에 6개의 못으로 고정하였다. 가장 아래에는 긴 세장방향 금판을 달았다. 가장 위쪽의 타원형판은 연결구멍이 있는 소형 요패와는 달리, 환을 접합한 가지모양의 금판장식을 타원형판의 앞뒤로 덧댄 후 3개의 못으로 고정하였다. 타원형판의 상·하·좌·우·중앙에는 총 7쌍의 투공이 있는데, 영락을 매단 금사의 두 갈래를 각각의 구멍에 넣어서 달았다. 금사의 양 갈래는 살짝 접어서 구멍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마무리하였다. ‘凸’자형 금판은 2매를 겹친 것으로, 정 가운데에 1쌍의 구멍을 뚫고 영락을 달았다. 타원형판과의 연결방법은 소형 요패와 다르다. 그 방법은 우선, ‘凸’자형 금판 1매를 타원형판 연결구멍에 건다. 다른 1매는 그 다음의 타원형판을 걸고 뒤집어서 뒤쪽에 겹친다. 그리고 6개의 못으로 고정시킨다. 즉 ‘凸’자형 금판을 상하 교차로 내려가면서 연결하는 방식이다. 구멍이 뒷판까지 뚫려 있고 영락 달린 금사가 빠져나온 것으로 보아 투공과 영락을 매다는 것이 가장 마지막 공정이었던 듯하다. 가장 아래의 세장방향판 장식은 가장자리를 따라서 2條의 축조점렬문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시문하였다. 그 안에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축조과상문을, 과상문 안쪽에는 점문을 두었다. 또한 세장방향 금판에는 7쌍씩 3줄로 거의 등 간격으로 영락을 달았는데, 영락과 금사가 결실된 것이 일부 있다. 세장방향 금판 장식과 타원형 금판의 연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결부가 있는 가지모양 금판을 세장방형판과 겹쳐서 타원형판의 연결구멍에 걸고, 뒷면에 연결구가 없는 가지모양 판을 겹쳐서 4개의 못으로 고정하였다. 따라서 앞쪽의 세장방형 금판을 가지모양 금판 사이에 끼운 형상이다.

(6) 4-6은 타원형판 6매, ‘十’자형 금판 5매, 용문투조 도자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아래쪽의 ‘十’자형 금판은 한쪽 연결부의 못이 없다. 투공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아래에는 투조된 용문과 도자의 형태를 띠는 금판을 장식하였다. 용문은 형식화된 모습이고, 도자형 금판은 좌우 대칭으로 위치한다. 용문투조판의 위쪽 타원형에 원형 구멍을 투공하여 환으로 타원형 금판과 연결하였다.

(7) 4-7은 타원형판 6매, ‘十’자형 금판 5매, 용문투조 금판을 2매 겹친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에서 다섯 번째 타원형판은 한쪽 연결구멍이 결실되었다.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十’자형 금판은 모두 한쪽 연결부와 못이 결실되었는데 뒷면에 은지금동판을 덧대서 고정하여 보수하였다. 또한 네 번째 타원형판의 아래쪽 연결구멍에 금사를 묶어서 네 번째 ‘十’자형 판에 감아서 고정하였다. 네 번째 ‘十’자형 금판의 연결부는 앞뒷면이 형태가 똑같아 본래의 위치인지 확실하지 않다. 가장 아래쪽의 ‘十’자형 판은 앞뒤 방향이 반대이다. 용문투조 장식의 평면형태는 방형 투조판 양쪽 위 모서리를 잘라낸 형태이다. 뾰족한 부분 일부는 결실되었고 아래쪽 일부는 구겨졌다. 용문을 투조한 금판 2매를 겹친 것으로 2매의 문양이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약 절반 지점까지 금판을 접어서 끼우고 양쪽에 못으로 고정하였다. 투조된 2매의 금판과 바깥에 썩은 금판에 투공하여 환을 걸고 금사를 묶어서 소형 타원형판과 연결하였다. 환에 묶인 금사는 후대의 보수흔일 가능성이 있다.

(8) 4-8은 타원형판 6매, ‘十’자형 금판 5매, 원통형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통형 장식은 표면 일부가 눌렸고, 각목문(刻目文)을 새긴 금띠 3개를 위쪽과 아래쪽에 둘러서 붙였다. 아래쪽에는 은(銀)이 부식되어 수착되었다. 꼭대기에 단면 장방형의 금제 연결구를 고정시키고 환 2개로 소형 타원형판과 연결하였다.



<서봉총 드리개 5>



<서봉총 드리개 6>



<서봉총 드리개 7>



<서봉총 드리개 8>

서봉총의 경우 드리개는 소형 7條와 대형 1條가 출토되었다. 소형 요패는 기본적으로 소형 타원형판 6매, ‘十’모양의 금판 5매를 번갈아가며 연결하고 ‘十’자형 금판에 2개의 못으로 고정하였다. 고리와 연결판을 고정시키는 못의 개수는 황남대총 북분→금관총→서봉총→금령총의 순서로 줄어들고 있다.

서봉총의 경우 타원형판과 ‘十’자형 금판 아래에는 물고기(魚形) 장식, 곡옥(曲玉) 장식, 용문투조(龍文透彫)된 작은 칼[刀子] 장식, 용문투조(龍文透彫)된 금판 장식, 원통형(圓筒形) 장식 등이 달려있다.

수하식에 곡옥이나 연필형 장식 등은 금관이 출토된 대형 6개 고분에서 공통되며, 여기에는 금모장식이 동반된다. 그중 감옥금모로 장식된 것은 서봉총과 천마총 및 금령총이다. 가위나 도자형 수하식은 금령총을 제외한 5개 고분에서 공통된다. 서봉총의 경우 내부에 기하학문이 아닌 용 두 마리가 상단을 향해 올라가는 형상이 투조되어 천마총의 것과 유사하다. 물고기 수하식은 금령총을 제외한 5개 고분에서 공통된다. 다만 문양의 표현을 달라 서봉총의 것은 꼬리 부분이 두 갈래로 나뉘며 이것은 천마총과 공통된다.

끌장식을 연결하는 방식은 제작방식을 통해 공정과정이 줄어들어 가는 것과 동시에
 못의 개수 또한 줄어들어 이 또한 황남대총 남분→황남대총 북분→금관총→서봉
 총→천마총→금령총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처럼 금제 허리띠의 구성요소를 종합해보면 교구의 구성이나 과판의 내부 문
 양이나 제작공정의 단순화나 대형 드리개나 소형 드리개 및 수하식에서 곡옥장식
 이 소멸이나 문양의 단순화 그리고 제작기법 등에 의해 대체적으로 황남대총 남
 분→황남대총 북분→[금관총, 서봉총, 천마총]→금령총의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경주 대릉원 일원 고분 자료집성 및 분포조사 종합보고서』 제2권, 2018.
- 『慶州 瑞鳳塚 I (遺物編)』, 국립중앙박물관, 2014.
- 『慶州 瑞鳳塚 II (재발굴 보고)』, 국립중앙박물관, 2020.
- 김대환,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사업에서 후지다 료사쿠(藤田亮策)의 역할」, 『韓
 國上古史學報』 91, 2016.
- 김소라, 「신라 허리띠의 조형성과 상징성에 관한 분석연구」, 『한국공예논총』,
 2008.
- 盧仁姬, 「三國時代 帶金具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文永熙, 「三國時代 鈎帶에 관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박광열, 「新羅 瑞鳳塚과 壺冢의 絶對年代考」, 『韓國考古學報』 41, 1999.
- 박보현, 「요패 연결금구의 제작기법과 지역차이」, 『과기고고연구』 2, 1997.
- 박진일·심수연, 일제강점기 자료조사보고 13집 『慶州 瑞鳳塚 I (遺物編)』, 국립
 중앙박물관, 2014.
- 신광철, 「재발굴을 통해 본 금령총의 구조와 성격」, 『한국학연구』 77, 2021.
- 윤온식, 「瑞鳳塚 再發掘 調査 概要」, 『연구논문』, 국립중앙박물관.
- 윤온식·김대환, 『慶州 瑞鳳塚 II (재발굴 보고)』, 국립중앙박물관, 2020.
- 차순철, 「일제강점기의 신라고분조사연구에 대한 검토」, 『문화재』 39, 2006.
- 김재열, 「신라 금령총의 장신구 그리고 사람들」, 『중앙고고연구』 40, 2023.
- 손민혁, 「신라 금제 허리띠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 현 상

서봉총은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05-1번지에 위치한다. 1926년 조선총독부박물
 관에 의해 발굴조사 되었으며, 2016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재조사가 있었다. 보고
 서에 따르면 서봉총의 피장자는 금관, 금제드리개, 굽은고리 귀걸이, 팔지, 허리띠

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대도가 없고 굵은고리 귀걸이를 착용하였기 때문에 성별은 여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는 허리띠를 결속하는 교구(띠고리), 가죽에 부착됐던 34매의 과판(띠꾸미개), 교구와 결속하여 허리띠 끝을 장식하는 대단금구(띠끝장식), 대형드리개, 7점의 소형드리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소형드리개의 끝장식은 일부 결실되었으나 현재 물고기, 곡옥, 끝 또는 가위 형태의 투각장식이 달려있다.

삼엽문이 투각된 사각형 금판에 심엽형 투각장식이 달린 과판은 총 34매가 출토되었다. 과판의 4면 가장자리에는 8개의 작은 구멍이 뚫려있다. 이 구멍에는 가죽에 연결했던 못 또는 장식에 사용됐던 영락이 일부 남아있다. 일제강점기 출토 당시 촬영된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한 결과 과판의 배열순서가 서로 달라 출토 이후 과판의 순서는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락이 달린 과판은 좌우 측면과 전면에만 배치되어 피장자의 허리 뒷면에 해당하는 위치의 과판에는 영락장식을 생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복원전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과판의 양끝에는 허리띠를 고정하는 금제 교구와 띠끝장식(帶端金具)을 배치하였다. 띠끝장식의 형태는 끝 가장자리를 둥글게 처리한 판형으로 가죽에 연결하는 앞쪽은 삼각형으로 처리하고 허리띠에 연결했던 3개의 못이 남아있다. 심엽형 교구의 형태는 황남대총, 금관총, 천마총 출토 금제 허리띠 교구의 형태와 유사하다. 다만 교구의 단면은 판형인 것에 비해 결쇠의 단면은 원형에 가깝게 처리하여 차이를 보인다.

드리개(요패)는 대형드리개 1점과 소형드리개 7점으로 구성되어있다. 대형요패는 판형의 타원형 장식과 소형 방형의 금판을 교대로 연결하고, 끝장식은 밑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넓어지는 길쭉한 사다리꼴의 금판으로 마감하였다. 대형요패에는 영락장식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를 비롯하여 이후에 제작되는 신라 금제 허리띠와 공통점을 보인다. 소형요패는 대형요패를 축소한 형태로 드리개 끝에는 물고기, 곡옥, 투각장식 등이 달려있으나 일부는 결실되었다.

○ 내용 및 특징

경주 서봉총 금제 허리띠의 구성과 형태는 지금까지 발견된 5점의 신라 적석목곽분 출토 금제 허리띠와 대체로 유사하다. 나머지 5점의 신라 금제 허리띠와 비교했을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서봉총 금제 허리띠의 특징은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와 더불어 여성 피장자가 착용한 허리띠라는 특징이 있다. 여성과 남성 피장자가 착용한 금제 허리띠의 장식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출토 당시의 현상은 남성 피장자의 허리띠가 대체로 U자형으로 앞뒤가 겹쳐서 출토되는 것에 비해 여성 피장자의 허리띠는 타원형으로 앞뒤가 겹치지

않은 상태로 출토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피장자의 복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봉총 금제 허리띠의 장식적인 특징은 여타 신라의 금제 허리띠의 요패장식이 유리나 옥 등의 재질이 혼용되는 것과 달리 대부분 금제로 구성되어 허리띠 제작 당시의 의장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끝장식 일부가 결실된 부분은 있지만 재료의 특성상 결실된 부분은 유리나 옥류 보다는 유기물 재료일 가능성이 크다.

서봉총 금제 허리띠의 또 다른 특징은 과판에 부착된 영락장식이다. 34개의 과판 중에는 4면 가장자리에 8개의 투공이 있는 것(도1)과 중앙에 배치된 삼엽문의 중앙에도 투공을 뚫어 총 9개의 투공이 있는 것(도2)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피장자의 배면에 배치되는 과판과 전면에 배치되는 과판의 차이로, 매장 당시 바닥에 닿는 배면의 과판에는 영락장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신라 금제 허리띠 과판 배열의 원형을 복원하는 단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분 출토 금제 허리띠가 장송용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도1. 서봉총 금제 허리띠 과판 1>



<도2. 서봉총 금제 허리띠 과판 2>

이상의 내용과 더불어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신라 금제 허리띠의 전개과정이 잘 반영되어 있다. 신라 금제 허리띠는 가장 이른 사례로 알려진 황남대총 남분 금제 허리띠 이후 과판의 중심문양은 투각 삼엽문이 유지되었다. 투각 삼엽문의

형태는 중심엽의 형태에 따라 직선형과 침엽형으로 구분되는데 서봉총 금제 허리띠의 과판은 침엽형으로 금관총 금제 허리띠의 과판과 더불어 가장 화려한 장식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전 시기 금제 허리띠의 과판에는 가죽에 연결하는 투공이 공통적으로 9개인 것에 비해 서봉총 금제 허리띠의 경우 8개와 9개를 혼용하는 특징이 있다. 이후 천마총과 금령총 단계에서는 6개 또는 5개만 구멍을 뚫어 못으로 고정하고, 나머지 4개의 위치에는 못 머리 형태로 금판을 타출시켜 시각적으로 못이 박힌 것처럼 보이도록 변화한다.

그밖에 일부 자료에는 금제 태환투조이식과 금제 태환영락부이식, 금제 태환감옥이식 등이 금제 허리띠의 부속유물로 소개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출토 당시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도3)에는 이들 유물이 소형 요패장식 주변에서 수습된 것은 맞지만 태환이식 주위에 여러 점의 반지와 곡옥, 구슬 등이 함께 노출되어 있어서 금제 허리띠의 부속유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명확한 근거자료가 추가되지 않는 한 태환이식들은 금제 허리띠와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3. 서봉총 발굴 당시 유물 노출상태>

○ 지정사례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 금제 허리띠의 문화재 지정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국보 3점, 보물 1점이고 서봉총과 금령총 금제 허리띠는 비지정 상태이다.

명 칭	지정유무	지정일시
금관총 금제 허리띠	국보 제88호	1962. 12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	국보 제192호	1978. 12
천마총 금제 허리띠	국보 제190호	1978. 12
황남대총 남분 금제 허리띠	보물 제629호	1978. 12
서봉총 금제 허리띠	비지정	
금령총 금제 허리띠	비지정	

○ 참고문헌

- 『경주 서봉총 1-일제강점기자료조사보고서 13집』, 국립중앙박물관, 2014.
- 『경주의 황금문화재』, 국립경주박물관, 2015.
-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 국립경주박물관, 2015.
- 손민혁, 「신라 금제허리띠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기 타

경주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일제강점기인 1926년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실시한 서봉총 발굴 당시 목관 안에서 피장자가 패용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소장되었다가 1945년 현 소장처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현재는 국립청주박물관에 대여 전시하고 있다.

5. 복재선생집 (復齋先生集)

가. 심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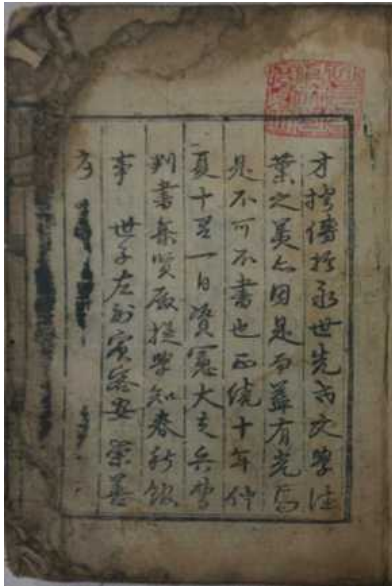
‘복재선생집’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복재선생집’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 1.22.)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6.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10.31.~’23.11.29.)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복재선생집(復齋先生集)
- 소유자(관리자) : 국유(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
- 수 량 : 2권 1책
- 규 격 : 세로 30.5cm, 가로 19.5cm
- 재 질 : 한지
- 판 종 : 목판본(初刊本)
- 형 식 : 선장(線裝, 改裝)
- 조성연대 : 1446년(조선 세종 28) 판각 및 인출
- 제작자 : 정충(鄭攄)



<복재선생집>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조사 대상의 경상국립대학교 소장 『복재선생시고』 2권 1책은 서문 제1장의 앞면이 탈락된 영본이며, 본문의 일부도 훼손·마모되어 있는 등 완전성에서 제한적인 상태이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인출·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더구나 초판본이며, 현재까지 동일 판본은 확인되지 않는 유일본으로 자료적인 희소가치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판본과 동일 시기 및 그 이후 간행된 문인지식인의 시문집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사례가 보이며, 역사·문화적인 보편적 가치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정 가치·근거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해당 판본에 편입된 내용은 『고려사』·『고려사절요』 및 『태조실록』 등의 관찬 사서를 보완할 수 있는 동시에, 여말선초의 정치적인 변동과정에서 역사현실도 이해하고, 복재 정충의 문학 성격과 함께 인적 연계망 등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세종 때 양양도호부의 출판·인쇄문화의 실체와 조성조직체계 등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때문에 조사 대상의 경상국립대학교 소장 『복재선생시고』 2권 1책은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정 명칭에서 『복재선생집(復齋先生集)』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指定 價値>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은 저자의 仲子인 鄭孝忠이 蒐集·編次하고 손자인 鄭沃卿이 편집하여, 강원도 관찰사 李先齊와 都事 鄭浩然 및 襄陽府使 皇甫良의 도움으로 세종 28년(1446)에 강원도 양양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상·하 2卷 1冊의 초간본이다.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의 저자인 復齋 鄭摠(1358~1397)이 여말선초의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은 麗末鮮初의 역사적·정치적 사실을 비롯하여 문학과 서지학 등의 연구에는 물론 조선조 초기의 印刷出版文化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이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의 文化偏重의 현상을 벗어나 국민에게 普遍的 文化享有權을 보장하고 나아가 學術的·文化財的 價値와 국가지정문화재 種類의 均衡을 고려할 때,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은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根據 基準>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지정신청본의 저자인 復齋 鄭摠(1358~1397)이 麗末鮮初의 인물임을 고려할 때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은 당시의 역사적·정치적 사실을 비롯하여 문학과 서지학 등의 연구에 귀중한 기록유산이며, 나아가 국민의 普遍的 文化享有權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고려할 때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은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국립중앙도서관 귀중본으로 소장되어 있는 목활자본 『복재집』은 저자의 동생인 鄭擢의 『春谷集』과 아들인 鄭孝文의 『判牧公集』, 曾孫인 鄭永通의 『寺正公集』과 附集하여 후손 鄭岷壽가 1585년 原州에서 木板으로 간행한 중간본이다. 경상대 도서관 소장의 본서는 중간본보다 100년 이상 앞서 간행된 고문집으로 유일본으로 그 가치가 높다. 그러나 본문의 훼손이 일부 심하고 일부 개장 및 수리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기록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면서 적절한 보존처리 및 수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현 상

조사 대상의 『복재선생집』 2권 1책은 복재(復齋) 정충(鄭攄)이 지은 시문을 그의 둘째 아들 정효충(鄭孝忠)이 수집·편찬한 다음, 그의 손자 성균관 생원 정옥경(鄭沃卿)이 편집하여 1446년(세종 28)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 지금의 강원도 양양군)에서 조성된 목판으로 후대 찍은 인출본이다. 2007년 12월 경상남도 하동군 거주의 최○○(崔○○)씨가 경상국립대학교에 기증한 고서 848점 가운데 한 종류로,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사 대상의 판본은 서문 제1장의 앞면이 탈락되어 있으며, 서문의 나머지 부분과 연보 및 권상의 제1~2장 가운데 본문의 일부 내용도 마모·훼손되어 있다. 표지·표제는 후대 수리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습기 흔적도 보인다. 그리고 권상 제21장 및 권하 제5장 등 일부의 장차에서는 본문의 글자가 마모된 상태에서 인출되어 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인출·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서지사항>

목판본(木板本 : 1446년 강원도 襄陽都護府 판각, 후대 인출본)

2권 1책 : 사주쌍변(四周雙邊)/ 반곽 21.3(세로)×14.6(가로)cm/ 유계(有界)/ 반곽 10행16자/ 주소자단행(註小字單行)/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중흑구(中黑口)/ 30.5(세로)×19.5(가로)cm/ 전체 88.5장(서문 2.5장+연보 4장+권상 37장+권하 39장+복재기 3장+교서 2장+발문·간행정보 1장 : 서문 제1장 앞면 탈락)

표지제목 : 復齋先生詩藁 單(후대 목서).

권 수 제 : 復齋先生詩藁(권상)/ 復齋先生遺藁(권하).

편집정보 : 孫成均生員鄭沃卿編輯謹書(권하 제39장).

판 심 제 : 序/ 年譜·譜年(연보)/ 詩(권상)/ 文(권하)/ 記(복재기)/ 敎(교서)/ 尾(발문·간행정보).

권 미 제 : 復齋先生詩藁(권상)/ 復齋先生遺藁(권하).

구성 체계 : 서문([復齋先生遺藁序])-연보(復齋先生年譜)-권수제-본문내용-권미제-
편집정보-복재기(復齋記：李陶隱作)-교서(鄭摠開國功臣教書)-발문(皇甫
良謹跋)-간행정보.

서 문 : [復齋先生遺藁序]

.....

是不可不書也正統十年(1445년 : 세종 27)仲
夏十有一日資憲大夫兵曹
判書集賢殿提學知春秋館
事 世子左副賓客安 崇善
序

발 문 :

傳曰君子之思必成文觀其復齋集
誠君子所蘊之思所著之文而醞郁
咀華閑中肆外可謂儒林之師範也
歲在丙寅春其子上將孝忠欲以是
集刊行于世將送奉道監司李公先
齊都事鄭浩然以遂厥志不賴民力
鳩梓募工俾予監督予以不才方其
農隙勸課鋟手不闕月而告訖嘻孝
忠爲親敬慕之志既切而李鄭兩公
右文之意亦至垂萬世而不朽也必
矣正統十一年丙寅(1446년 : 세종 28)秋八月日[奉正]
大夫守襄陽都護府使兼勸農兵馬
團鍊使皇甫良 謹跋

간행정보 :

僧 惠環

記官 自平

刻手記官 李根

校正成均進士金 從知(尾 제1장)

○ 내용 및 특징

『복재집』 등으로도 부르는 『복재선생집(復齋先生集)』은 공민왕 때 과거시험에 합격하였다가 우왕 때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낸 청주(淸州) 정씨 원재(圓齋) 정공권(鄭公權·鄭樞)의 아들로, 고려 우왕 2년(1376) 음력 5월 지공거 홍중선(洪仲宣) 및 동지공거 한수(韓脩)가 주도한 과거시험에 합격한 다음 조선 태조 때 개국공신

(開國功臣)으로 책봉되고 정당문학을 역임한 문신관료 복재(復齋) 정충(鄭摠)이 지은 시문집이다. 복재의 둘째 아들 정효충(鄭孝忠)이 유고를 수집·편차하였다가 그의 손자 성균관 생원 정옥경(鄭沃卿)이 2권으로 편집하여 1446년(세종 28)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 지금의 강원도 양양군)에서 목판으로 조성된 초판본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간행 미상의 중간본·필사본 등이 확인된다.

조사 대상의 『복재선생집』 2권 1책은 복재의 손자 성균관 생원 정옥경이 편집하여 1446년 양양도호부에서 조성된 목판을 후대 찍은 인출본으로, 서문 제1장의 앞면이 탈락된 영본(零本)이다. 조사 대상의 판본은 광곽이 사주쌍변(四周雙邊)이며, 본문과 본문 사이에는 계선(界線)이 있는 유계이다. 반곽의 행자수는 10행16자이며, 주소자단행(註小字單行)의 형태이다. 판심은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중흑구(中黑口)의 형태이며, 상하의 어미 사이에는 판심제·장차가 표기되어 있다. 두 종류의 표지 안에 권상·하 2권의 전체 88.5장이 오침안정법의 형태로 제작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서문([復齋先生遺藁序])·연보(復齋先生年譜)·권수제·본문내용·권미제·편집정보·복재기(李陶隱作)·교서(鄭摠開國功臣教書)·발문(皇甫良謹跋)·간행정보의 순서로 구성·배열되어 있다. 밖의 앞표지에는 표지제목이 후대에 復齋先生詩藁 單이라는 내용으로 묵서되어 있으며, 안의 앞 앞표지에는 오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권수제는 권상이 復齋先生詩藁이며, 권하가 復齋先生遺藁이다. 권수제의 아래에는 卷之上·卷之下와 같이 권차의 상·하가 표기되어 있다. 권하 제39장의 권미제 다음에는 편집정보가 孫成均生員鄭沃卿編輯謹書처럼 복재 정충의 손자 성균관 생원 정옥경이 편집하였다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판심제는 1445년(세종 27) 음력 5월 안송선(安崇善)이 지은 「복재선생유고서(復齋先生遺藁序)」가 序이며, 「복재선생연보(復齋先生年譜)」가 年譜·譜年이다. 권상의 판심제는 詩이며, 권하는 文이다. 도은(陶隱) 이승인(李崇仁)이 지은 「복재기(復齋記)」의 판심제가 記이고, 정충이 받은 개국공신교서는 教이며, 1446년 음력 8월 황보량(皇甫良)이 지은 발문과 간행정보의 판심제가 尾이다. 서문·연보·권상·권하·복재기·교지·발문의 아래에는 一 등의 장차가 표기되어 있으며, 각각 개별 장차가 분리되어 있다. 권미제는 권상이 復齋先生詩藁이며, 권하가 復齋先生遺藁이다. 권미제의 아래에는 卷之上·卷之下 終과 같이 권차가 연이어 표시되어 있으며, 권하에는 끝(終)도 표기되어 있다.

1446년 음력 8월 수양양도호부사(守襄陽都護府使)·권농병마단련사(勸農兵馬團鍊使) 황보량이 지은 발문에는 『복재선생집』 2권의 간행 경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복재의 아들 상장군 정효충(鄭孝忠)이 1446년 봄 강원도의 감사(監司) 이선제(李先齊) 및 도사(都事) 정호연(鄭浩然)에게 『복재선생집』 2권의 간행을 부탁하였다가 수양양도호부사 황보량의 감독으로 목판의 완성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황보량의 발문 다음에는 간행사업의 실무를 맡은 교·속의 분담 업무와 범명·

성명 등이 표기되어 있다. 승려 혜환(惠環)과 함께 기관(記官) 자평(自平), 각수를 맡은 기관 이근(李根), 교정을 전담한 성균진사(成均進士) 출신의 김종지(金從知) 등이 새겨져 있다.

『복재선생집』 권상에는 150제(題) 172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하권에는 「서(序)」 4편, 「기(記)」 2편, 「교서(敎書)」 8편, 「비답(批答)」 2편, 「책문(冊文)」 3편, 「비명(碑銘)」 1편, 「표전(表箋)」 14편, 「제문(祭文)」 4편, 「악장(樂章)」 2편, 「소(疏)」 5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는 『고려사』·『고려사절요』 및 『태조실록』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있으므로, 이들 관찬 사서를 보완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내용은 여말선초 정치적인 변동과정에서 역사현실도 이해할 수 있는 원천자료이며, 복재 정충의 문학 성격과 함께 인적 연계망 등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정보이기도 하다.



복재선생집 제1장 앞면 권수제(권상 제1장 앞면) 권미제(권하 제93장 뒷면) 발문(황보량)·간행정보(발문 제1장 뒷면)

<경상국립대학교 소장 「복재선생집」>

○ 지정사례

조사 대상의 경상국립대학교 소장 『복재선생시고』 2권 1책은 1446년(세종 28) 음력 8월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목판을 찍어 만든 인출본으로, 서문 제1장의 앞면이 탈락된 영본(零本)이다. 해당 초간 목판을 찍은 판본은 현재까지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고려 후기~조선 전기 문인지식인으로 활동한 인물들의 개인 시문집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제한적이다.

<표1. 우리나라 詩文集의 문화재 지정 사례>

번호	저·편자	서명	판본	간행시기	지정현황	비고
01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목판본	1251	경북유형	
02	崔 瀧	東人之文四六	목판본	1355	보물	

번호	저·편자	서명	판본	간행시기	지정현황	비고
03	李承休	帝王韻紀	목판본	1360 1413	보물 보물	
04	閔思平	及菴先生詩集	목판본	1370	보물	
05	呂祖謙	近思錄	목판본 금속활자본	1370 1436	보물 보물	
06	鄭 誦	雪谷詩藁	목판본	1376	보물	후쇄본
07	金九容	惕若齋先生學吟集	목판본	1400	보물	후쇄본
08	李崇仁	陶隱先生集	목판본	1406	보물 광주유형	
09	李崇仁	陶隱先生詩集	금속활자본	1407	보물	
10	李 集	遁村雜詠	목판본	1410	보물	
11	權 近	書淺見錄	목판본	1430 이후	보물	
12	權 近	詩淺見錄	목판본	1430 이후	보물	
13	李齊賢	櫟翁稗說	목판본	1432	보물	
14	李奎報	益齋亂藁	목판본	1432	보물	
15	鄭夢周	圃隱詩藁	목판본	1439	보물	초간본
16	權 近	應製詩註	목판본	1446	보물	
17	鄭 摠	復齋先生集	목판본	1446	비지정	초간본 경상대학교 간송미술관
18	權 遇	梅軒先生文集	목판본	1452	비지정	초간본 간송미술관
19	[不明]	夾注名賢十抄詩	목판본	1452	보물	
20	成石璘	獨谷集	목판본	1456	서울유형	
21	鄭道傳	三峯先生集	목판본	1465	보물	후쇄본(1487)
22	成 侃	眞逸遺稿	목판본	1467	보물	
23	徐居正	筆苑雜記	목판본	1469~1494	보물	
24	姜希孟	晉山世稿	목판본	1476	보물	
25	鄭道傳	三峯先生集	목판본	1487	보물	
26	鄭夢周	圃隱詩藁	목판본	1575	비지정	開城本 국학진흥원
27	鄭夢周	圃隱先生集	활자본	1575~1584	비지정	校書館本
28	金時習	梅月堂集	활자본	1583	보물	
29	金時習	梅月堂詩集	활자본	1583	보물	
30	鄭夢周	圃隱先生文集	목판본	1585	비지정	西厓校正本
31	鄭夢周	圃隱先生文集	목판본	1607	비지정	永川本
32	鄭夢周	圃隱詩藁	목판본	1608	비지정	黃州兵營本

번호	저·편자	서명	판본	간행시기	지정현황	비고
						국학진흥원
33	鄭夢周	圃隱先生文集	목판본	1662	비지정	奉化本
34	鄭夢周	圃隱先生文集	목판본	1677	비지정	丁巳重刊本
35	鄭夢周	圃隱先生集	목판본	1769	비지정	崧陽本
36	鄭夢周	圃隱先生續集	목판본	1769	비지정	續集本
37	鄭夢周	圃隱先生文集	목판본	1866	비지정	丁巳重刊本

고려 후기~조선 전기 활동한 문인지식인의 시문집 가운데 현재까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사례는 25건 정도로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역사·문화적인 보편적인 가치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1446년이나 그 이후 간행된 개인의 시문집 가운데 9건이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1446년 음력 8월 양양도호부에서 간행된 『복재선생시고』 2권 1책도 학술적·역사적·문화적인 가치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조사 대상의 『복재선생시고』 2권 1책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유일본으로, 자료적인 희소가치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고려사절요』 권30, 우왕 2년 5월.
-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기사 및 권7, 태조 4년 정월 경신.
- 이색(李穡), 「한문경공묘지명병서(韓文敬公墓誌銘并序)」, 『목은문고』 권15, 비명(碑銘).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

○ 현 상

慶尙大學校 소장의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의 書誌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書誌 記述>

復齋先生集 / 鄭摠(1358~1397, 高麗朝~朝鮮朝) 著, 鄭沃卿(?~?, 朝鮮朝) 編輯.
 -- 木版本(初刊). -- [江原道 襄陽]: [皇甫良], [世宗 28(1446) 跋].
 2卷1冊(88張): 四周雙邊, 半郭 21.3×14.6cm, 有界, 半葉 10行16字 註單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30.5×19.5cm. 韓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標目]: 卷上의 卷首題는 ‘復齋先生詩藁’로 기록되고 卷下의 卷首題는 ‘復齋先生遺藁’로 기록되어 있으나, 書誌記述法에 따라 統一書名 ‘復齋先生集’으로 標目함.

表 題: 復齋詩藁. (墨書)

卷首題: 復齋先生詩藁(卷上), 復齋先生遺藁(卷下).

版心題: 序, 年譜, 詩, 文, 記, 教, 跋.

卷尾題: 復齋先生詩藁(卷上), 復齋先生遺藁(卷下).

編 輯: ‘孫成均生員沃卿編輯’. (卷下 末尾)

印 文: ‘崔增」秀印’. (朱印)

內 容: -序(3張, 第1張前面 缺落, 上端一部 毀損), 復齋先生年譜(4張, 上端一部 毀損), 復齋先生詩藁卷之上(36張, 上端一部 毀損), 復齋先生遺藁卷之下(39張, 上端一部 毀損), 復齋記(李陶隱, 3張), 純忠佐命開國功臣教書(2張), 跋(皇甫良) 및 刊行記錄(1張).

序 文: 復齋先生遺藁序: 文辭所以吟咏性情以達所」蘊故和順積中而後英華發」外其雄深雅健之辭實根於」元氣則文辭之不可僞爲也」審矣吾舅氏西原君復齋鄭」公生於麗季天資精敏學文」該博早捷魁科遍揚清選贊」我」太祖爲國元勳功在」社稷凡」國家辭命制教事」大之文皆出其手文章道德師」範一時歲在乙亥奉使不還」使經綸之器雄偉之才終不」得大施嗚呼惜哉公仲男上」將孝忠來諗於予曰欲刊先」君遺藁請兄序之仍授一帙」予雖文拙義不敢辭焚香靜」坐披覽數日其辭和而不浮」質而不俚清新出於要妙浩」澣發於深邃愛」君憂國之意藹然溢於俊逸雅」談之間有非詞人韻士所可」髣髴其萬一而誠罕世特達」之奇才也先祖雪谷圓齋父」子之集盛行于世而吾舅氏」夙承庭訓謹守家法著詩若」文又如吾東方文學之士」世不乏人而父子及孫相繼」有集則未之聞也上將拳拳」以圖不朽非唯先君之德之」才控傳於永世先世文學德」業之美亦因是而益有光焉」是不可不書也正統十年仲」夏十有一日資憲大夫兵曹」判書集賢殿提學知春秋館」事 世子左副賓客安崇善(1392~1452)」序. (卷頭)

跋 文: 傳曰君子之思必成文觀其復齋集」誠君子所蘊之思所著之文而醞郁」咀華閑中肆外可謂儒林之師範也」歲在丙寅春其子上將孝忠欲以是」集刊行于世將送本道監司李公先」齊都事鄭浩然以遂厥志不賴民力」鳩材募工俾予監督予以不才方其」農隙勸課鋟手不闕月而告訖嘻孝」忠爲親敬慕之志既切而李鄭兩公」右文之意亦至垂萬世而不朽也必」矣正統十一年丙寅秋八月日奉正」大夫守襄陽都護府使兼勸農兵馬」團鍊使皇甫良 謹跋. (卷尾)

刊行記: 僧 惠環」記官 自平」刻手記官 李根」校正 成均進士 金從知. (卷尾)

現 狀: 表紙는 後代에 改裝되었으며, 本文의 內紙는 第1張 前面이 缺落되고 여타의 내지도 일부의 張次에는 上端의 一部에 毀損이 있다. 印出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차후 지류문화재 보존 처리가 요망된다.

所藏歷: 2007년 12월 26일에 경상남도 하동 거주의 崔增秀가 기증한 고서 848점 중의 하나라 한다. (소장경위서 참간)

既指定: 동일한 版本이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된 사례는 없다.

<現狀>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의 표지는 後代에 改裝되었으며, 본문의 내지는 第1張 前面이 缺落되고 여타의 내지에도 일부의 장차에는 上端一部에 毀損이 있다. 印出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차후에 반드시 地류문화재 보존을 위한 처리와 수리가 요망되는 문화재이다.

○ 내용 및 특징

『復齋先生集』은 復齋 鄭摠(1358~1397)의 遺稿 詩文集이다.

『復齋先生集』의 저자인 復齋 鄭摠의 본관은 淸州이고 자는 ‘曼碩’이며, 호는 ‘復齋’이고 시호는 ‘文愍’이다 부친은 政堂文學 鄭樞(鄭公權, 1333~1382)이며, 아우는 朝鮮의 開國功臣 鄭擢(1363~1423)이다. 復齋는 고려 우왕 2년(1376)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19세로 春秋館檢閱이 된 이래 臺諫·應教·司藝 등을 거쳐 大護軍에 이르렀으며, 공양왕 원년(1389)에 병조판서로 승진되고 공양왕 3년(1391)에 이조판서를 거쳐 정당문학에 올랐다. 당시 중국으로 보낸 表箋文은 대부분은 그의 손에서 지어졌다. 조선이 개국되자 開國功臣 1등에 녹훈되고 簽書中樞院事로서 西原君에 봉하여졌다. 태조 3년(1394)에 政堂文學이 되고 다시 藝文春秋館太學士가 되어 三峯 鄭道傳(1342~1398)과 함께 『高麗史』를 撰進하고 그 序文을 썼다. 태조 4년(1395)에 李成桂(1335~1408)의 誥命과 印信을 요청하러 明朝에 사신으로 파견되었으나, 明朝에서 내린 옷을 입지 않은 데에 대한 鞫問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大理衛에 유배되던 도중에 卒去하였다. 글씨에 조예가 있었으며 遺稿集을 남겼다.

復齋 鄭摠의 유고집인 『復齋先生集』은 그의 仲子인 鄭孝忠(?~?)이 蒐集·編次하고 손자인 鄭沃卿이 편집하여, 강원도 관찰사 李先齊(1390~1453)와 都事 鄭浩然(?~?) 및 襄陽府使 皇甫良(?~?)의 도움으로 세종 28년(1446)에 강원도 양양에서 목판으로 初刊되었다. 현재 이 초간본은 澗松미술관과 慶尙大學校에 소장되어 있다. 초간본이 간행된 이후로 저자의 아우인 鄭擢(1363~1423)의 『春谷集』과 아들인 鄭孝文(?~?)의 『判牧公集』, 曾孫인 鄭永通(?~?)의 『寺正公集』을 함께 附集하여 후손 鄭崐壽(1538~1602)가 선조 18년(1585)에 原州에서 木板으로 重刊하였다.

이 중간본은 현재 국내에 전하지 않으며 日本 內閣文庫(10738-78)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선조 40년(1607)에 8대손 鄭述(1543~1620)가 鄭誦(1309~1345)의 『雪谷集』과 鄭樞(1333~1382)의 『圓齋集』과 合集하여 『西原世稿』로 간행하였는데, 권6~7에 본 『復齋先生集』이 각각 上·下の 편차로 수록되어 있다. 이 『西原世稿』에 수록된 『復齋先生集』의 판본은 현재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은 저자의 仲子인 鄭孝忠이 蒐集·編次하고 손자인 鄭沃卿이 편집하여, 강원도 관찰사 李先齊와 都事 鄭浩然 및 襄陽府使 皇甫良의 도움으로 세종 28년(1446)에 강원도 양양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상·하 2卷 1冊의 초간본이다.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의 表題는 ‘復齋詩藁’이며, 卷首題와 卷尾題는 상권의 경우 ‘復齋先生詩藁’이고 하권의 경우 ‘復齋先生遺藁’이다. 版心題는 ‘序’, ‘年譜’, ‘詩’, ‘文’, ‘記’, ‘教’, ‘跋’ 등으로 다양하다. 版式의 邊欄은 四周雙邊이며 半郭의 크기는 세로 21.3cm, 가로 14.6cm 내외이며 계선이 있다. 본문의 자수는 10행 16자이고 註文은 單行이다. 版心의 版口는 上下黑口이며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0.5cm, 가로 19.5cm 내외이다. 지질은 韓紙이며 장정은 五針眼訂法의 線裝이며, 表紙는 改裝되었다.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은 2007년 12월 26일에 경상남도 하동 거주의 崔○○가 기증한 고서 848점 중의 하나라 하며, 권두에 날인된 ‘崔增」秀印’의 朱印은 본서를 慶尙大學校에 기증한 舊藏者 ‘崔○○’의 所藏印이다.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의 初刊 당시의 雍齋 安崇善(1392~1452)의 「復齋先生遺藁序」는 다음과 같다.

글이란 性情을 읊조려 마음속 쌓인 것을 펴는 것이므로, 和順이 안으로 쌓인 뒤에라야 英華가 밖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그 웅장하고 健雅한 말은 본래 元氣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글이란 거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나의 외숙이신 西原君 復齋 鄭公이 고려 말엽에 태어나서, 타고난 바탕이 정밀·민첩하고 학문이 해박하여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두루 좋은 자리에 뽑혔으며, 조선 태조를 도와 큰 공을 세워 그 공로가 社稷에 미치었으니, 나라의 모든 辭命과 制敎와 事大交隣의 글이 모두 공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문장과 도덕이 당시의 모범이었는데, 을해년(1395)에 사신길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셨다. 세상을 다스릴 기국과 크고 거룩한 재질로 끝내 크게 펴지 못하였으니 아, 애석하도다.

공의 둘째 아들인 上將 [鄭]孝忠이 나에게 “아버지의 유고를 간행하고자 하니 형께서 서문을 써 주시지요.”라고 의논하면서 한 질의 책을 주었다. 내 비록 글은 짧으나 의리상 사양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향을 피우고 가만히 앉아서 며칠 동안을 계속 훑어보았는데, 문장의 표현이 부드러우면서도 가볍지 않고 소박하여도 속되지 않으며, 청신한 품은 오묘한 속에서 나오고 드넓은 것은 깊은 곳에서 피어났으며,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뜻이 가득히 辭氣에 넘쳐흘러 다른 작가나 시인들이 그 만분의 일이라도 비슷할 수 없을 수준이었다.

선조이신 雪谷(鄭誦)과 圓齋(鄭樞) 父子의 문집이 널리 세상에 알려졌는데, 나의 외숙께서 일찍이 가정의 훈계를 이어받아 삼가 법도를 지키면서 시와 문을 저술한 것이 또한 이러하니, 우리나라에 문학을 하는 선비가 대대로 끊이지 않았으나, 부자와 손자의 삼대가 서로 이어 문집이 있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하였다.

上將이 부지런히 선대의 업적을 드날려 영원토록 전하려고 함이 이러하니, 이것이 내가 서문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기도 하다.⁵²⁾

또한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의 初刊 당시의 皇甫良(?~?)의 「跋文」은 다음과 같다.

전하는 말에 “군자의 사고는 반드시 문장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복재집』을 살펴보니 진실로 군자의 온축된 생각이 드러난 문장이고, 아름다움에 젖어서 그 묘미를 머금고 씹으며 내용이 넓고 형식이 자유로워, 유럽의 모범이라 할 수 있겠다. 병인년(1446) 봄에 아들 상장군 [鄭]孝忠이 이 문집을 세상에 간행하고자 본도 감사 李先齊와 도사 鄭浩然을 나에게 보내어 그 뜻을 이루고자 하면서, 백성의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材木과 功力을 모집하여 나에게 감독하게 하였다. 나는 재주가 없으나 바야흐로 농사철의 틈을 빌어 간행하니, 한 달도 안 되어 간행을 마칠 수 있었다. 아! 孝忠은 부친을 공경하고 사모하는 뜻이 간절하고 李先齊와 鄭浩然 두 분은 문장 또한 지극하니 만세토록 썩지 않을 것임은 필연일 것이다.

정통 11년 병인(1446, 세종 28) 가을 8월 일 봉정대부 守襄陽都護府使 겸 권농병사단련사 황보량이 삼가 발문을 쓰다.⁵³⁾

또한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의 권말에는 “僧 惠環」記官 自平」刻手記官 李根」校正 成均進士 金從知”의 初刊 당시의 刊行記錄이 있다.

이상의 初刊 당시의 安崇善의 「復齋先生遺藁序」와 皇甫良의 「跋文」 및 권말의 刊行記錄을 통하여 볼 때,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은 저자의 仲子인 鄭孝忠이 蒐集·編次하고 손자인 鄭沃卿이 편집하여, 강원도 관찰사 李先齊와 都事 鄭浩然 및 襄陽府使 皇甫良의 도움으로 세종 28년(1446)에 강원도 양양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상·하 2卷 1冊의 초간본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간행을 위하여 승려 惠環(?~?)과 記官 自平(?~?)이 참여하였으며, 판각은 刻手記官 李根(?~?)이 담당하고 校正은 成均進士 金從知(?~?)가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52) 復齋先生遺藁序: 文辭 所以吟咏性情 以達所蘊 故和順積中而後 英華發外 其雄深雅健之辭 實根於元氣 則文辭之不可偽爲也審矣 吾舅氏西原君復齋鄭公 生於麗季 天資精敏 學文該博 早捷魁科 遍揚清選 贊我太祖 爲國元勳 功在社稷 凡國家辭命·制教·事大之文 皆出其手 文章道德 師範一時 歲在乙亥 奉使不還 使經綸之器 雄偉之才 終不得大施 嗚呼惜哉 公仲男上將孝忠 來諗於予曰 欲刊先君遺藁 請兄序之 仍授一帙 予雖文拙 義不敢辭 焚香靜坐 披覽數日 其辭和而不浮 質而不俚 清新出於要妙 浩漭發於深邃 愛君憂國之意 藹然溢於俊逸雅談之間 有非詞人韻士 所可髣髴 其萬一而誠罕世特達之奇才也 先祖雪谷·圓齋父子之集 盛行于世 而吾舅氏夙承庭訓 謹守家法 著詩若文 又如是 吾東方文學之士 世不乏人 而父子及孫 相繼有集 則未之聞也 上將拳拳以圖不朽 非唯先君之德之才 控傳於永世 先世文學德業之美亦因是而益有光焉 是不可不書也 正統十年仲夏十有一日 資憲大夫兵曹判書集賢殿提學知春秋館事世子左副賓客安崇善(1392~1452)序. (卷頭)

53) 跋文: 傳曰 君子之思必成文 觀其復齋集 誠君子所蘊之思 所著之文 而醞郁咀華 閑中肆外 可謂儒林之師範也 歲在丙寅春 其子上將孝忠欲以是集刊行于世 將送本道監司李公先齊·都事鄭浩然 以遂厥志 不賴民力 鳩材募工 俾予監督 予以不才 方其農隙 勸課鋟手 不闕月而告訖 嘻 孝忠爲親敬慕之志既切 而李鄭兩公右文之意亦至 垂萬世而不朽也必矣 正統十一年丙寅秋八月日 奉正大夫守襄陽都護府使兼勸農兵馬團鍊使皇甫良 謹跋. (卷尾)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은 上·下 2권 1책으로 編次되어 있으며, 상권에는 詩가 수록되어 있고 하권에는 文이 수록되어 있다.

『復齋先生集』의 초간본과 초간본의 필사본 및 중간본의 편차와 수록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復齋先生集』의 版本別 編次 內容 比較>

番號	卷次	文體	題名	題號	初刊本 (신청본)	筆寫本 (국립본)	重刊本 (국립본)	備考
001	卷頭	序	[復齋先生遺藁序]	001	001	001	無	初3張
002	々	年譜	復齋先生年譜	002	002	002	無	初4張
003	卷上	詩	己巳春正月二十四日臣摠等立待書延	003	003	003	003 [應製]	初36張 重異
004	々	々	集毛句送陰竹勸農閔司藝	004	004	004	004	
005	々	々	次陽村學士自松京之平壤途中所賦詩韻	005	005	005	005	
006	々	々	正月十三日風雨終日至十五日天開景明偶書所見戲贈同年金待制瞻	006	006	006	006	
007	々	々	八口歌示陽村求和	007	007	007	007	重異(音)
008	々	々	早行途中有作	008	008	008	008	
009	々	々	送桑麟還遼東	009	009	009	009	
010	々	々	自鹽之平鶴嶺途中	010	010	010	010	
011	々	々	二十八日到漢陽矮屋甚窄纔可容膝感而有作	011	011	011	011	
012	々	々	月夜獨坐有感呈陽村	012	012	012	012	
013	々	々	送靖安君赴京師	013	013	013	013	
014	々	々	送龍頭道生僧統	014	014	014	014	
015	々	々	冬夜	015	015	015	015	
016	々	々	碩鼠	016	016	016	016	
017	々	々	谿堂李茂芳贈宗伯李誠中詩卷占老字	017	017	017	017	
018	々	々	閣、井底蛙	018	018	018	018	
019	々	々	啞、城上烏	019	019	019	019	
020	々	々	戊辰年元日	020	020	020	020	
021	々	々	重九	021	021	021	021	
022	々	々	聞倭賊侵楊廣道州郡	022	022	022	022	
023	々	々	書懷示李待制(詹)演雅體	023	023	023	023	重異
024	々	々	贈鄭少年欽之(廣明寺僧義敦請予故云)	024	024	024	024	筆異 重異
025	々	々	露宿興義野	025	025	025	025	
026	々	々	李侍中子松挽章	026	026	026	026	

番號	卷次	文體	題名	題號	初刊本 (신청본)	筆寫本 (국립본)	重刊本 (국립본)	備考
027	々	々	十八日到大同江(二首)	027	027	027	027	
028	々	々	鐵谷村中早春	028	028	028	028	
039	々	々	自鐵谷還京江陰縣卽事(是日立春也)	039	039	039	039	
030	々	々	十一月二十七日到峯城遇雨入官舍偶吟	030	030	030	030	
031	々	々	鹽州聚景樓次板上韻(二首)	031	031	031	031	
032	々	々	庚午七夕龍頭會會柳判書亮家鄭圃隱有詩卽次其韻(二首)	032	032	032	032	
033	々	々	訪李裔摠郎寓舍作	033	033	033	033	
034	々	々	閔右尹宅次祭酒詩韻	034	034	034	034	
035	々	々	韓正言寓舍玫瑰盛開與權陽村李待制同賦	035	035	035	035	
036	々	々	次金狀元詩韻(子粹 二首)	036	036	036	036	重異
037	々	々	日本使人以梅竹畫扇進獻卽賜知申事李仲文李待制作詩詠其事次韻寫呈	037	037	037	037	
038	々	々	經筵後歸家偶詠	038	038	038	038	
039	々	々	偶吟	039	039	039	039	
040	々	々	丙寅十二月二十日書事	040	040	040	040	
041	々	々	春雨	041	041	041	041	
042	々	々	晚晴	042	042	042	042	
043	々	々	病後寓居桐房	043	043	043	043	
044	々	々	李陶隱夫人洪氏挽詞	044	044	044	044	
045	々	々	九日索酒術	045	045	045	045	
046	々	々	宿九龍山觀音窟	046	046	046	046	
047	々	々	昌陵寺	047	047	047	047	
048	々	々	禪岩寺	048	048	048	048	
049	々	々	遊天磨山善賢菴	049	049	049	049	
050	々	々	與金待制(瞻)遊金身菴	050	050	050	050	重異
051	々	々	無題(二首)	051	051	051	051	
052	々	々	送平壤教授官閔先生(安仁)	052	052	052	052	重異
053	々	々	贈藏義寺主都大師聰公	053	053	053	053	
054	々	々	訪安和寺天澤上人不遇題壁	054	054	054	054	
055	々	々	以詩邀雙梅李先生(詹)	055	055	055	055	
056	々	々	木州途中	056	056	056	056	

番號	卷次	文體	題名	題號	初刊本 (신청본)	筆寫本 (국립본)	重刊本 (국립본)	備考
057	ㄴ	ㄴ	訪崔通甫同年咸	057	057	057	057	
058	ㄴ	ㄴ	病起	058	058	058	058	
059	ㄴ	ㄴ	霖雨思賢佐	059	059	059	059	
060	ㄴ	ㄴ	贈慈恩宗祐世君(宗林)公與先君同庚	060	060	060	060	
061	ㄴ	ㄴ	辛未正旦侍宴殿上	061	061	061	061	
062	ㄴ	ㄴ	壽寧宮受朝賀訖金判官(瞻)有詩次韻寫呈李申事種學	062	062	062	062	筆缺
063	ㄴ	ㄴ	次金判官入直壽寧宮韻	063	063	063	063	筆缺
064	ㄴ	ㄴ	箕子墓	064	064	064	064	筆缺
065	ㄴ	ㄴ	九梯宮	065	065	065	065	筆缺
066	ㄴ	ㄴ	麒麟窟(在永明寺之前)	066	066	066	066	
067	ㄴ	ㄴ	朝天石	067	067	067	067	
068	ㄴ	ㄴ	觀風殿	068	068	068	068	
069	ㄴ	ㄴ	聖容殿	069	069	069	069	
070	ㄴ	ㄴ	華藏山證覺寺	070	070	070	070	
071	ㄴ	ㄴ	題華嚴宗師友雲詩卷	071	071	071	071	
072	ㄴ	ㄴ	江陰途中	072	072	072	072	
073	ㄴ	ㄴ	送鄭三峯赴任南陽	073	073	073	073	重異
074	ㄴ	ㄴ	贈呈獨谷	074	074	074	074	重異
075	ㄴ	ㄴ	次遼東使人桑麟韻贈之	075	075	075	075	
076	ㄴ	ㄴ	次李判事兄韻(贊) [4寸]	076	076	076	076	
077	ㄴ	ㄴ	陋巷	077	077	077	077	
078	ㄴ	ㄴ	六月十五日三司席上口占閔右尹呼韻	078	078	078	078	
079	ㄴ	ㄴ	權元靖公挽辭	079	079	079	079	
080	ㄴ	ㄴ	題尹二相樓	080	080	080	080	
081	ㄴ	ㄴ	送行人段公使還	081	081	081	081	
082	ㄴ	ㄴ	贈國子學錄張先生(溥)使還	082	082	082	082	
083	ㄴ	ㄴ	旅舍卽事	083	083	083	083	
084	ㄴ	ㄴ	乙亥年親幸大廟還駕時教坊歌謠	084	084	084	084	
085	ㄴ	ㄴ	樓題(南行所作)	085	085	085	085	
086	ㄴ	ㄴ	遼東途中	086	086	086	086	筆缺
087	ㄴ	ㄴ	送金純仲狀元赴任密城(二首)	087	087	087	087	筆缺

番號	卷次	文體	題名	題號	初刊本 (신정본)	筆寫本 (국립본)	重刊本 (국립본)	備考
088	ㄴ	ㄴ	次金狀元韻(子粹 二首)	088	088	088	088	重異
089	ㄴ	ㄴ	次權陽村詩韻	089	089	089	089	
090	ㄴ	ㄴ	冬至日次鄭三峯韻	090	090	090	090	
091	ㄴ	ㄴ	丙寅八關誥院席上次三峯韻	091	091	091	091	
092	ㄴ	ㄴ	吏曹重九席上次趙令韻	092	092	092	092	
093	ㄴ	ㄴ	辛未八月十五日壽昌宮赴內宴同僚 金判書(稹醉)中吟詠被憲司劾安中 書(魯生)作詩以慰予次其韻	093	093	093	093	
094	ㄴ	ㄴ	安和寺次諸公韻	094	094	094	094	
095	ㄴ	ㄴ	春日獨坐偶吟寄雙梅李吏部	095	095	095	095	
096	ㄴ	ㄴ	書筵偶吟示趙令等諸公	096	096	096	096	
097	ㄴ	ㄴ	吏曹廳事偶吟	097	097	097	097	
098	ㄴ	ㄴ	漢陽旅舍庚申日獨坐有作	098	098	098	098	
099	ㄴ	ㄴ	正月十三日雨中戲贈金待制	099	099	099	099	
100	ㄴ	ㄴ	丙寅十一月二十日書事	100	100	100	100	
101	ㄴ	ㄴ	己巳二月二十五日即事	101	101	101	101	
102	ㄴ	ㄴ	又以詩邀典理李摠郎(詹)	102	102	102	102	
103	ㄴ	ㄴ	戊辰四月十四日赴西都行在金郊驛 途中作	103	103	103	103	
104	ㄴ	ㄴ	庚午九月十七日大駕移御漢陽僕以 婦翁服在平州村莊未獲扈從	104	104	104	104	
105	ㄴ	ㄴ	到龜山寺寺主戒天集生徒三十餘童 教誨刻燭賦詩宛有九齋之風喜而有 作贈天師	105	105	105	105	
106	ㄴ	ㄴ	永興君夫人李氏挽章	106	106	106	106	
107	ㄴ	ㄴ	僕密直延壽挽詞	107	107	107	107	
108	ㄴ	ㄴ	雨夜聞雞	108	108	108	108	
109	ㄴ	ㄴ	聞蟬	109	109	109	109	
110	ㄴ	ㄴ	聽歌	110	110	110	110	
111	ㄴ	ㄴ	白州登岩寺途中	111	111	111	111	
112	ㄴ	ㄴ	宿鹽州觀音寺見張副令(躋)	112	112	112	112	
113	ㄴ	ㄴ	過壺串樓	113	113	113	113	
114	ㄴ	ㄴ	憶日月寺天澤上人	114	114	114	114	
115	ㄴ	ㄴ	與閔密直(開)金大司成(子粹)金待 制(瞻)遊日月醉後令待制呼韻走筆 謾成	115	115	115	115	月
116	ㄴ	ㄴ	辛未七月七日夜	116	116	116	116	

番號	卷次	文體	題名	題號	初刊本 (신청본)	筆寫本 (국립본)	重刊本 (국립본)	備考
117	ㄴ	ㄴ	旅舍卽事	117	117	117	117	
118	ㄴ	ㄴ	旅舍有感	118	118	118	118	
119	ㄴ	ㄴ	登山有感	119	119	119	119	
120	ㄴ	ㄴ	有感	120	120	120	120	
121	ㄴ	ㄴ	摘杏贈李代言(詹)	121	121	121	121	
122	ㄴ	ㄴ	盆池	122	122	122	122	
123	ㄴ	ㄴ	宮詞集句想奉天殿作	123	123	123	123	
124	ㄴ	ㄴ	送曹士德往日本	124	124	124	124	
125	ㄴ	ㄴ	乙丑十二月望夜入直國子監與崔同年通甫達曉談論	125	125	125	125	
126	ㄴ	ㄴ	次定州樓上韻	126	126	126	126	
127	ㄴ	ㄴ	無題	127	127	127	127	
128	ㄴ	ㄴ	過楊子江	128	128	128	128	
139	ㄴ	ㄴ	金陵卽事	139	139	139	139	
130	ㄴ	ㄴ	春日城南卽事	130	130	130	130	
131	ㄴ	ㄴ	風雨騎牛圖(太祖潛邸時命題以賦之) [2寸]	131	131	131	131	
132	ㄴ	ㄴ	題朴岩遁詩卷(名免)	132	132	132	132	
133	ㄴ	ㄴ	與閔諫議李摠郎(詹)看梅摠郎有詩卽次其韻 [2寸]	133	133	133	133	
134	ㄴ	ㄴ	書筵記事	134	134	134	134	
135	ㄴ	ㄴ	秋夕夜坐集句	135	135	135	135	
136	ㄴ	ㄴ	暇日偶作	136	136	136	136	
137	ㄴ	ㄴ	成歡驛途中	137	137	137	137	
138	ㄴ	ㄴ	樂生驛途中	138	138	138	138	
139	ㄴ	ㄴ	扈從出獵長湍	139	139	139	139	
140	ㄴ	ㄴ	次金狀元韻(子粹)	140	140	140	140	重異
141	ㄴ	ㄴ	丙寅年除夜	141	141	141	141	
142	ㄴ	ㄴ	題舍弟(拯)家壁	142	142	142	142	
143	ㄴ	ㄴ	送孔伯共(俯)奉使西都次鄭三峯韻	143	143	143	143	
144	ㄴ	ㄴ	哭金密直(光厚)	144	144	144	144	
145	ㄴ	ㄴ	次書筵權陽村詩韻 [3寸]	145	145	145	145	
146	ㄴ	ㄴ	金陵卽事	146	146	146	146	
147	ㄴ	ㄴ	題定州樓	147	147	147	147	

番號	卷次	文體	題名	題號	初刊本 (신정본)	筆寫本 (국립본)	重刊本 (국립본)	備考
148	ゝ	ゝ	無題[7个]	148	148	148	148	
149	ゝ	ゝ	贈雲峰衲	149	149	149	149	
150	ゝ	ゝ	碧瀾渡樓上次柳思菴韻(二首)	150	150	150	150	
151	ゝ	ゝ	送陳奉翊之任京山府(義貴)	151	151	151	151	
152	ゝ	ゝ	感興詩(二首)	152	152	152	152	
153	卷下	序	朝鮮經國典序	153	153	154	153	初39張
154	ゝ	ゝ	高麗國史序	154	154	155	154	
155	ゝ	ゝ	經濟文鑑序	155	155	156	155	
156	ゝ	ゝ	送行人雜公使還序	156	156	157	156	
157	ゝ	記	信城鄉校記	157	157	158	157	
158	ゝ	ゝ	江華立寶記	158	158	159	158	
159	ゝ	教書	教全羅道都觀察三司右使金(士安)書	159	159	160	159	
160	ゝ	ゝ	教前門下評理李元紘書	160	160	161	160	
161	ゝ	ゝ	立儲教書	161	161	162	161	
162	ゝ	ゝ	教卒門下侍中貞烈公慶復興書	162	162	163	162	
163	ゝ	ゝ	追封王順妃三代教書	163	163	164	163	
164	ゝ	ゝ	親幸告廟教功臣書	164	164	164	164	重異
165	ゝ	ゝ	教門下贊成事鄭夢周書	165	165	166	165	
166	ゝ	ゝ	恭讓王三年辛未四月求言教	166	166	167	166	
167	ゝ	ゝ	侍中李某辭職不允批答	167	167	168	167	
168	ゝ	ゝ	同前	168	168	169	168	重異
169	ゝ	冊文	太祖室加上尊諡冊文	169	169	170	169	
170	ゝ	ゝ	惠宗室加上尊諡冊文	170	170	171	170	
171	ゝ	ゝ	忠惠王禧妃竹冊文	171	171	172	171	
172	ゝ	碑銘	有明朝解國桓王定陵碑銘	172	172	173	172	
173	ゝ	表箋	賀聖節表	173	173	174	173	
174	ゝ	ゝ	方物	174	174	175	174	
175	ゝ	ゝ	賀聖節表	175	175	176	175	
176	ゝ	ゝ	方物	176	176	177	176	
177	ゝ	ゝ	東宮節日箋	177	177	178	177	
178	ゝ	ゝ	賀正旦表	178	178	179	178	
179	ゝ	ゝ	方物	179	179	180	179	

番號	卷次	文體	題名	題號	初刊本 (신청본)	筆寫本 (국립본)	重刊本 (국립본)	備考
180	ㄱ	ㄱ	賀正表	180	180	181	180	
181	ㄱ	ㄱ	方物	181	181	182	181	
182	ㄱ	ㄱ	賀正表	182	182	183	182	
183	ㄱ	ㄱ	方物	183	183	184	183	
184	ㄱ	ㄱ	賀平定胡人獲寶璽表	184	184	185	184	
185	ㄱ	ㄱ	謝藥材表	185	185	186	185	
186	ㄱ	ㄱ	進高麗國史箋	186	186	187	186	
187	ㄱ	祭文	北斗醮祭文	187	187	188	187	
188	ㄱ	ㄱ	本命星醮祭文	188	188	189	188	
189	ㄱ	ㄱ	祭尹判三司事虎文	189	189	190	189	
190	ㄱ	ㄱ	北斗星醮禮文	190	190	191	190	
191	ㄱ	樂章	王大妃封崇豐安樂章	191	191	192	191	
192	ㄱ	ㄱ	國大妃封崇豐安樂章	192	192	193	192	
193	ㄱ	歌謠	乙亥年親行大廟還駕時教坊歌謠 (并序)	193	193	194	193	重異
194	ㄱ	疏	天變地怪消災道場疏	194	194	195	194	
195	ㄱ	ㄱ	乙亥年王和寺行水陸齋	195	195	196	195	
196	ㄱ	ㄱ	見岩寺行水陸齋	196	196	197	196	
197	ㄱ	ㄱ	土星入軒轅中消災道場疏	197	197	198	197	
198	ㄱ	ㄱ	楊廣道鎮江瀑布寺太一祈禳法華法 席疏 [孫成均生員沃卿編輯]	198	198	199	198	
199	ㄱ	附錄	復齋記(李陶隱作)	199	199	200	無	初3張
200	ㄱ	ㄱ	教書[純忠佐命開國功臣教書鄭摠]	200	200	153	無	初2張
201	ㄱ	跋	跋[皇甫良]·刊行記錄	201	201	無	無	初1張

『복재선생집』의 상권에는 150題 172首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시는 四言의 應製詩를 시작으로 하여 대체로 詩體別로 편차하고 있다. 詩體別로는 七言絶句가 60餘題로 가장 많으며, 七言律詩와 五言律詩가 각각 30~40首이고 그 외로는 약간의 五言絶句·七言排律·四言詩로 이루어져 있다. 저작의 시기는 주로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한 뒤부터 태조 4년(1395)에 印信과 誥命을 청하러 明朝에 가기 직전까지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복재선생집』의 하권에는 「序」 4편, 「記」 2편, 「教書」 8편, 「批答」 2편, 「冊文」 3편, 「碑銘」 1편, 「表箋」 14편, 「祭文」 4편, 「樂章」 2편, 「疏」 5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序」에는 三峯 鄭道傳(1342~1398)이 지은 『朝鮮經國典』과 『經濟文鑑』에 대한 序 및 왕명을 받아 정도전 등과 함께 수찬한 『高麗史』에 대한 序가 실려 있다.

「記文」에는 信州守와 宋居中(?~?)의 부탁으로 지어 준 「信州鄉校記」와 朴子安(?~1408)이 강화도에 부임하여 이룬 치적을 기록한 「江華立寶記」가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는 江華에서 營衛와 司倉을 짓고 立寶하여 軍糧과 生徒들의 비용을 삼은 내력을 밝히고 있다. 「教書」 중에는 金方慶(1212~1300)의 공을 기려서 후손 金士安(?~1391)에게 내리는 교서를 비롯하여 圃隱 鄭夢周(1337~1392)가 排佛崇儒하여 王道를 실현하려 했던 공로를 치하하는 「教門下贊成事鄭夢周書」, 공양왕 3년 천재지변으로 인해 의견을 구하는 「求言教」 등이 있다. 「碑銘」은 태조의 父인 桓祖 李子春(1315~1360)의 「定陵碑」이며, 「本命星醮祭文」 등 3편의 제문은 醮祭文으로 고려시대 도교 풍속에 관련된 문장이다. 이 밖에도 고려시대 음악을 보여주는 「王大妃封崇豐安樂章」·「國大妃封崇豐安樂章」과 태조 4년(1395, 乙亥)의 親行太廟 당시의 教坊歌謠가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復齋先生集』의 초간본은 그 뒤에 간행되는 중간본 등의 편차에 母本이 되었음도 알 수 있다.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은 저자의 仲子인 鄭孝忠이 蒐集·編次하고 손자인 鄭沃卿이 편집하여, 강원도 관찰사 李先齊와 都事 鄭浩然 및 襄陽府使 皇甫良의 도움으로 세종 28년(1446)에 江原道 襄陽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상·하 2卷 1冊의 초간본인 만큼, 麗末鮮初의 역사적·정치적 사실을 비롯하여 문학과 서지학 등의 연구에는 물론 조선조 초기의 印刷出版文化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이다.

한편, 종래에 典籍文化財(貴重書) 指定의 時期的 下限을 壬辰倭亂(1592)과 관련하여 宣祖年間(1567~1607) 以前으로 基準하여 왔으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丙子胡亂(1636)과 관련된 仁祖年間(1623~1649) 이전까지로 基準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⁵⁴⁾

현재 우리나라의 儒學書 및 詩文集類 등의 문화재 지정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韓國 儒學書 및 詩文集의 指定文化財 現況 比較(2023년 09월, 刊行時代順)>

番號	著·編者	書名[文化財名]	版本	刊行時代	指定名	備考
001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木版本	1251	慶北有形	
002	崔 漚	東人之文四六	木版本	1355	寶物	
003	李承休	帝王韻紀	木版本	1360 1413	寶物 寶物	
004	閔思平	及菴先生詩集	木版本	1370	寶物	
005	呂祖謙	近思錄	木版本 金屬活字本	1370 1436	寶物 寶物	
006	朱 子	中庸朱子或問	木版本	1371	寶物	
007	鄭 誦	雪谷詩藁	木版本	1376	寶物	後刷本

54) 國立中央圖書館 編, 『國內 古文獻 所藏實態 基礎調查 및 蒐集方案에 관한 研究』, 서울, 國立中央圖書館, 2013.

番號	著・編者	書名[文化財名]	版本	刊行時代	指定名	備考
008	太祖(明)	大明律	木版本	1389	寶物	
009	陳 澹	禮記集說	木版本	1391	非指定	初刊本 個人
010	一 然	三國遺事	木版本	1394 14世紀末 1512	國寶 國寶 國寶	
011	王廣謀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	木版本	1400	寶物	
012	金九容	楊若齋先生學吟集	木版本	1400	寶物	後刷本
013	呂祖謙	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	金屬活字本	1403~1418	國寶	
014	[不明]	宋朝表箋總類	金屬活字本	1403~1418	國寶 寶物	
015	李崇仁	陶隱先生集	木版本	1406	寶物 光州有形	
016	李崇仁	陶隱先生詩集	金屬活字本	1407	寶物	
017	李 集	遁村雜詠	木版本	1410	寶物	
018	胡庭芳	十七史纂古今通要	金屬活字本	1412	寶物	
019	春秋館	朝鮮王朝實錄	筆寫・活字	1392~1863	國寶	
020	陳 攄	通鑑續編	金屬活字本	1422	國寶	
021	權 近	入學圖說	木版本	1425	寶物	
022	權 近	周易淺見錄	木版本	1429~1430	寶物	
023	權 近	書淺見錄	木版本	1430以後	寶物	
024	權 近	詩淺見錄	木版本	1430以後	寶物	
025	林堯叟	春秋經左氏傳句解	木版本	1431	寶物	
026	林堯叟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木版本	1431	寶物	
027	李齊賢	櫟翁稗說	木版本	1432	寶物	
028	李奎報	益齋亂藁	木版本	1432	寶物	
029	世 宗	三綱行實孝子圖	木版本	1434	寶物	
030	態 忠	古今韻會舉要	木版本	1434	寶物	
031	司馬光	資治通鑑	金屬活字本	1436	寶物	
032	朱 子	資治通鑑綱目	金屬活字本	1438 1493	寶物 寶物	
033	鄭夢周	圃隱詩藁	木版本	1439	寶物	初刊本
034	柳宗元	唐柳先生集	金屬活字本	1439	非指定	指定申請本
035	張本鎮	周易參同契	金屬活字本	1441	寶物	
036	劉辰翁	須溪先生批點孟浩然集	木版本	1445	寶物	
037	世 宗	訓民正音	木版本	1446	國寶	

番號	著・編者	書名[文化財名]	版本	刊行時代	指定名	備考
038	權 近	應製詩註	木版本	1446	寶物	
039	鄭 摠	復齋先生集	木版本	1446	非指定	初刊本 慶尙大學校 澗松美術館
040	世 宗	月印千江之曲	金屬活字本	1447	國寶	
041	世 宗	龍飛御天歌	木版本	1447	寶物	
042	申叔舟	東國正韻	金屬活字本	1448	國寶	
043	權 遇	梅軒先生文集	木版本	1452	非指定	初刊本 澗松美術館
044	[不明]	夾注名賢十抄詩	木版本	1452	寶物	
045	世 宗	洪武正韻譯訓	金屬活字本	1455	寶物	
046	成石璘	獨谷集	木版本	1456	서울有形	
047	鄭道傳	三峯先生集	木版本	1465	寶物	後刷本(1487)
048	成 侃	眞逸遺稿	木版本	1467	寶物	
049	虞 集	虞註杜律	木版本	1470	寶物	
050	徐居正	筆苑雜記	木版本	1469~1494	寶物	
051	[不明]	時用鄉樂譜	木版本	1470~1494	寶物	
052	成 宗	經國大典	金屬活字本	1471 1485	寶物 寶物	
053	太祖(明)	洪武禮制	木版本	1474	寶物	
054	姜希孟	晉山世稿	木版本	1476	寶物	
055	鄭麟趾	高麗史	金屬活字本	1482	寶物	
056	杜 甫	分類杜工部詩(諺解)	金屬活字本	1482	寶物	
057	鄭道傳	三峯先生集	木版本	1487	寶物	
058	鄭希良	虛庵遺藁	木版本	1511	大邱有形	
059	金宗直	佔畢齋集	木版本	1520	寶物	後刷本
060	鄭夢周	圃隱詩藁	木版本	1533	寶物	新溪本
061	金正國	性理大全書節要	木活字本	1538	寶物	
062	李承召	三灘集	木版本	1538	忠北有形	
063	柳希齡	新編類聚大東詩林	金屬活字本	1542	寶物	
064	[不明]	朝鮮方域之圖	筆寫本	1557	國寶	
065	金富軾	三國史記	木版本	1512 1573	國寶 國寶	
066	李彥迪	晦齋先生集	木版本	1574 1575	寶物 慶北有形	
067	鄭夢周	圃隱詩藁	木版本	1575	非指定	開城本 國學振興院

番號	著・編者	書名[文化財名]	版本	刊行時代	指定名	備考
068	鄭夢周	圃隱先生集	活字本	1575~1584	非指定	校書館本
069	金時習	梅月堂集	活字本	1583	寶物	
070	金時習	梅月堂詩集	活字本	1583	寶物	
071	韓 濩	千字文	木版本	1583	寶物	
072	鄭夢周	圃隱先生文集	木版本	1585	非指定	西厓校正本
073	李舜臣	亂中日記	筆寫本	1592	國寶	
074	柳成龍	懲愆錄	筆寫本	1592~1598	國寶	
075	李 滉	退溪先生文集	木版本	1600	寶物	
076	鄭夢周	圃隱先生文集	木版本	1607	非指定	永川本
077	鄭夢周	圃隱詩藁	木版本	1608	非指定	黃州兵營本 國學振興院
078	許蘭雪軒	蘭雪軒詩集	木版本	1608	江原有形	
079	許 浚	東醫寶鑑	木活字本	1613	國寶	
080	盧守愼	蘇齋文集	木版本	1615	慶北有形	
081	備邊司	備邊司謄錄	筆寫本	1617~1892	國寶	
082	承政院	承政院日記	筆寫本	1623~1910	國寶	
083	李惟泰	草廬李惟泰遺稿	筆寫本	1626~1676	大田有形	
084	柳成龍	芹曝集	木版本	1633	寶物	
085	鄭夢周	圃隱先生文集	木版本	1662	非指定	奉化本
086	鄭夢周	圃隱先生文集	木版本	1677	非指定	丁巳重刊本
087	肅 宗	二十功臣會盟軸	筆寫本	1680	國寶	
088	李元翼	梧里先生集・續集	木版本	1691	京畿文資	
089	權 遇	梅軒先生集	木版本	1722	非指定	重刊本
090	李衡祥	瓶窩遺稿	筆寫本	1677~1733	寶物	
091	奎章閣	日省錄	筆寫本	1760~1910	國寶	
092	鄭夢周	圃隱先生集	木版本	1769	非指定	崧陽本
093	鄭夢周	圃隱先生續集	木版本	1769	非指定	續集本
094	宋濟民	海狂集	木版本	1783	光州有形	
095	蔡濟恭	樊巖先生集	筆寫本	1799	京畿有形	
096	正 祖	弘齋全書	活字本	1814	서울有形 京畿有形	
097	[不明]	東闕圖	筆寫本	1830	國寶	
098	朴 翊	松隱文集	木版本	1837	慶南有形	
099	金正喜	金正喜筆歲寒圖	筆寫本	1844	國寶	

番號	著·編者	書名[文化財名]	版本	刊行時代	指定名	備考
100	鄭夢周	圃隱先生文集	木版本	1866	非指定	丁巳重刊本
101	鄭 琢	樂圃遺稿	筆寫本	-	寶物	
102	李賢輔	龔巖遺稿草	筆寫本	-	寶物	
103	金漢薰	梅軒亂稿	筆寫本	-	寶物	
104	安鍾和	約齋集	筆寫本	-	京畿有形	
105	蔡濟恭	樊巖稿	筆寫本	-	京畿有形	
106	任 屹	龍潭遺稿	筆寫本	-	慶南文資	
107	趙泰億	趙泰億遺稿	筆寫本	-	慶南有形	
108	南秉模	家稿	筆寫本	-	慶北文資	
109	金富倫	雪月堂遺稿	筆寫本	-	慶北有形	
110	李萬敷	息山集	筆寫本	-	慶北有形	
111	柳 汀	松壕遺集	筆寫本	-	蔚山有形	
112	李惟泰	草廬手稿	筆寫本	-	忠南文資	
113	權 燮	玉所稿	筆寫本	-	忠北有形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20종, 보물 58종						

이상의 <표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儒學書 및 文人·學者들의 詩·文集 등이 문화재로 지정된 종수는 100餘 種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20종과 보물 58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佛書類의 종수와 수량에 비하면 儒學書類와 詩·文集類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비중은 鳥足之血에 지나지 않은 편이라, 문화적인 편중의 현상이 매우 심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儒學書類 및 詩·文集類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을 확충하여 文化偏重의 현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동시에 국민에게 普遍的 文化享有權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學術的·文化財的 價値와 국가지정문화재 種類의 均衡을 고려한다면, 지정신청의 초간본 『復齋先生集』 1책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유지·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현재 『復齋先生集』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鄭摠(1358~1397) 著, 『復齋先生集』. 木版本(初刊本). [江原道 襄陽] : [皇甫良],

[世宗 28(1446) 跋]. 慶尙大學校 所藏本.

- 경상남도지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경상남도 창원, 경상남도청, 2021.
- 경상남도, 「『복재선생시고』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자료」, 경상남도 창원, 경상남도청, 2021.
- 진주시장, 「검토의견서」, 경상남도 진주, (작성시기 불명).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경상남도 창원, 2019.
- 경상대학교, 「경상대 소장 『복재선생시고』 설명자료」, 경상남도 진주, 경상대학교, 2018.
- 尹炳泰 編, 『韓國古書整理法研究』, 서울, 利久出版社, 1983.
-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기 타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은 2007년 12월 26일에 경상남도 하동 거주의 崔○○가 기증한 고서 848점 중의 하나라 한다. (소장경위서 참간)



○ 현 상

신청본인 『복재선생집』은 정충의 문집 초간본이다. 표지와 본문의 하단부분 중 일부 훼손이 된 것은 새로 개장하고 수리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면에서 훼손이 발견된다. 그러나 신청본인 『복재선생집』은 1446년 간행된 흔하지 않은 고려 말~조선 초기 인물의 문집으로 ‘정충(鄭攄)’이라는 인물에 대한 연구자료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칭도서관에도 전하지만 미간본의 고본의 형태로 확인되며 1585년 강원도 원주에서 간행된 중간본이 있다. 1607년 8대손인 정구가 간행한 『西原世稿』 간행본의 기초가 된 문집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내용 및 특징

『復齋先生集』은 강원도 관찰사 이선재(李先齋)·도사(都事) 정호연(鄭浩然)·양양부

사 황보량(皇甫良)의 도움을 받아 정효충(鄭孝忠)이 1446년(世宗28) 강원도 양양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정충(鄭攄)의 문집이다.

정충(鄭攄, 1358~1397)은 고려 말 조선 초기의 정치가이자 학자로 자는 만석(曼碩), 호는 복재(復齋), 시호는 문민(文愍),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1376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춘추관 검열·사예·대호군을 지내고, 1389년 병조판서, 1391년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조선 초기 개국공신 1등으로 서원군(西原君)에 봉해졌고, 1395년 춘추관대학사(春秋館大學師)로 정도전(鄭道傳)과 함께 『고려사』를 편찬하고 서문을 썼다.

이 책은 상, 하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권(上下) 1책의 목판본(木板本)이다. 표지에 ‘復齋詩藁’가 묵서(墨書)로 책제를 썼다. 권수제는 ‘復齋先生詩藁’로 확인된다.

제책(製冊)의 형태는 선장본(線裝本)으로 되어 있으며, 오침안(五針眼)으로 제책하였다. 판식(版式)은 사주쌍변(四周雙邊), 광곽(匡郭) 21.3×14.6cm, 계선이 있고 반엽(半葉)은 10행(行)16자(字), 규격(책크기) : 30.5×19.5cm이다.

상권에는 시가, 하권에는 문이 실려 전한다. 1445년 안승선(安崇善)이 지은 서문이 있고, 1446년 황보량이 지은 발문이 있다.

본문에 먹번짐과 충식(蟲食)으로 인해 훼손된 부분이 확인되고 된다. 서문과 연보, 본문 일부에 심한 결실이 있다. 권말에 ‘正通十一年丙寅...皇甫良 謹跋’이라는 내용이 있어 1446년에 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경상남도지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경상남도 창원, 경상남도청, 2021.
- 경상남도, 「「복재선생시고」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자료」, 경상남도 창원, 경상남도청, 2021.
- 진주시장, 「검토의견서」, 경상남도 진주, (작성시기 불명).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경상남도 창원, 2019.
- 경상대학교, 「경상대 소장 『복재선생시고』 설명자료」, 경상남도 진주, 경상대학교, 2018.

○ 기 타

2007년 12월에 경남 하동 최○○씨로부터 고서 848점을 기증받았는데, 그중 1446

년에 간행된 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경상국립대 도서관은 100만 번째 장서로 2008년에 등록하였다.

6.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安東 仙刹寺 木造釋迦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가. 심의사항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 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5.20./’23.8.3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4.10./’23.5.23.)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10.31.~’23.11.29.)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2016.10.6. 지정)
- 명 칭 :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安東 仙刹寺 木造釋迦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① 불 상 : 대한불교조계종 선찰사
② 복장유물 : 대한불교조계종 선찰사(안동시립박물관)
- 소재지 : ① 불 상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옷장터길 91-17, 선찰사
② 복장유물 : 경상북도 안동시 민속촌길 13, 안동시립박물관
- 수 량 : 불상 1구, 조성발원문 1점, 목서편 1점, 저고리 1점, 후령통 일괄 5점
- 규 격 : 표 참조
- 재 질 : 표 참조
- 형 식 : 독존상(불상)
- 조성연대 : 1622년(조선 광해군 14)
- 제작자 : 현진(玄眞), 옥명(玉明), 수연(守衍), 응원(應元), 법령(法玲), 명은(明崙), 청허(淸虛), 성인(性仁), 보희(寶熙), 인균(印均), 경현(敬玄), 지수(志守), 태감(太鑑), 밀연(密衍), 의인(義仁) 등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지정 대상 현황>

연번	명칭	사진	수량	재질	크기(cm)	비고
1	목조 석가여래좌상		1구	나무에 도금	높이 42.0cm 어깨 너비 23.0cm 무릎 너비 27.0cm 바닥 너비 28.0×22.8cm	
2	조성발원문		1점	靑綃 紅書	33.5×70.0	
3	묵서편		1점	紙 (墨書)	32.8×5.6	
4	저고리		1점	絹	뒷길이 49.0 앞길이 50.0 화장 72.0 뒷폭 51.0	
5	후령통 일괄		1점	혼합 (직물, 금속 등)	미개봉	황초폭자에 싸여 있음
			2점	紙 (朱印)	15.8×13.8 (바깥 원지름 12.8×11.6) (안 원지름 3.0×2.7)	후령통 상부 마감
			2점	紙 (朱印)	가장 긴 면 23.0 (광폭 8.9×17.0)	후령통 외곽 마감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1622년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가 발원하여 제작한 자수사·인수사 11존의 불상 중 하나로 역사적 의의가 크다. 11존의 구성은 <비로자나불-석가여래-노사나불>로 구성된 삼신불 2세트, <아미타여래-관음보살-대세지보살>로 구성된 아미타여래삼존상 1세트, 그리고 석가여래와 아미타여래 독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불상은 각각 자수사와 인수사에 나뉘서 봉안했을 터인데, 독존으로 조성된 석가여래와 아미타여래는 발원자의 특별한 염원을 담아 제작된 원불로 제작되었음을 선찰사 석가여래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불사에는 왜란을 겪는 과정에서 새롭게 재편된 도총섭체제의 최고 수장인 선교도총섭을 비롯하여, 벽암각성, 고한희언 같은 왕실과 돈독한 친분을 유지하며 불교 중흥에 이바지 했던 승려가 불사를 이끌었고, 당시 최고의 승장들이 대거 참여하여 11존의 불상을 제작하였다. 왕실과 불교계에서 합심하여 제작한 당시 최고의 기념비적인 불사로 평가된다.

<丙子生王妃柳氏命衣> 목서명 저고리와 <박상궁원불 던의디흐나> 목서편 등을 통해 이 불상은 왕비 유씨와 박상궁의 원불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1존의 불상 중 규모가 큰 불상은 자수사·인수사의 주불전에 봉안하고, 소형의 불상은 자신들의 원당에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왕실 원당에 봉안된 원불의 실체를 알 수 있어 중요하다. 더불어 왕비 유씨는 이곳 외 해인사 장경판전 중수 불사 때에도 자신과 남편, 그리고 자신을 모시던 상궁의 옷을 봉납하고 있다. 자신이 아끼던 복식과 귀한 직물 편을 복장에 납입하는 경우는 고려시대 불상에서부터 종종 확인되고 있는데, 이 불상 역시 이러한 불복장 납입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당시 왕실 인물들이 행했던 불사태도를 엿볼 수 있어 주목된다.

불상은 조형적으로 3등신의 포동포동한 아기 같은 미감을 간직하고 있다.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는 불상을 조성하기 전 세자 이질을 위하여 청계사에서 불교계의 합심하여 재회를 개설하고, 이어서 묘법연화경을 개관하였다. 이 불사가 끝나자 곧장 자수사·인수사에 먼저 돌아가신 부모와 공주와 대군, 그리고 생존해 있는 직계 가족의 수명장수를 빌기 위해 이 불상을 조성하고 왕실의 원당에 봉안하였다. 특히 이 불상은 왕비 자신의 저고리가 납입된 원불이라는 점에서, 자신보다 먼저 죽은 왕자와 공주의 명복을 빌며 생전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 불상을 조성하였을 것이다. 자신의 죽은 자녀들이 극락왕생하고, 또 다시 자신의 품으로 환생하기를 염원하며 아기 같은 불상을 조각승에게 주문했을 것이다. 이는 인목대비가 발원하고 성인이 만든 남양주 수종사 금동불상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미감이다. 이 불상을 통해서 당시 왕실에서 추구했던 왕실미술의 미의식을 엿볼 수 있어 중요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양감이 느껴지는 상반신의 당당함과 이와 조화를 이루는 하반신의 신체비례, 차분하면서도 강한 인상이 드러나는 네모진 얼굴, 오른쪽 어깨에 드리운 U자형의 층을 이루는 한 개의 옷주름과 ‘人’형의 하반신 옷 표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 석가상은 광해군 집권 말인 1622년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가 왕실과 그와 관련된 가족들을 위해 발원하여 현진, 수연, 응원 등 17세기 전반에 활약한 여러 유파의 조각승이 참여해 조성한 11구의 불상 중 한 구이다. 현재 확인된 자수·인수사의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이 있으며 이어 이 상이 세 번째이다. 이 존상은 현진의 불상 특징이 잘 드러나 있어 기초사된 상들과는 차별화되며, 이는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의 개인 물품이 납입된 점으로 미루어 이 불사에 수화승인 현진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이 석가상은 현진을 비롯하여 그의 계보를 잇는 조각승 즉 유파 조각승의 양식적 특징에 원형이 되는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점을 미루어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기에 충분하다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은 1622년에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가 발원하여 조성한 11구의 불상 중에 하나로, 당시에 활약했던 뛰어난 조각승들이 연합하여 제작한 것이다. 특히 조각승들의 우두머리(수화승)인 현진의 작품 특징들이 간취된다. 즉 다부진 체구, 진중함이 드러나는 이목구비의 표현, 왼쪽 어깨와 하반신의 옷주름 표현 등에서 현진의 불상양식이 드러난다.
- 이 불상과 함께 발원, 조성된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상과,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불좌상에 비해서 크기가 작지만, 현진 특유의 불상양식이 더욱 잘 드러나고 있어서 현진의 대표작품으로 거론하기에 손색이 없다.
- 불상뿐만 아니라, 복장물로 봉안되었던 묵서발원문, 저고리, 후령통, 다라니 등도 조선 17세기 불교문화를 연구하는데 매우 가치가 있다. 또 불상과 복장물 일괄은 조선왕실의 불상 후원을 말해주는 보기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의의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복장, 지정 가치 있음)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木造釋迦如來坐像)은 높이 42cm의 결가부좌한 소형 불상으로, 발원문을 통해 제작연대와 발원자 등이 확인됨에 따라 1622년에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 1576~1623]가 발원하여 조성한 왕실 발원 佛事에 의한 것임이 명확하다. 현진을 비롯한 17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조각승 17명이 참여하여 조성한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불교미술사적 가치가 크다. 아울러 복장유물에 포함된 저고리에는 章烈王妃라는 목서가 있어 17세기 전기 조선 왕실 복식의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복식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라고 하겠다. 따라서 불상을 비롯하여 복장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寶物)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복장, 지정 가치 있음)

1622년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16건 81점이다. 이중 조성발원문은 당시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가 왕실과 그와 관련된 가족들을 위해 발원하여 11구의 불상을 제작, 17명의 조각승들이 참여하였음을 밝히고 있어 불상의 이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저고리는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의 장수를 기원하는 목서를 기록한 단저고리로, 구성상 회장저고리에 해당한다.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 관련 복식은 <광해군비당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홍색토주겹장저고리>(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가 있으며,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저고리는 장저고리 안에 입는 저고리로 추정된다. 이 복식들은 조선시대 복식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후령통은 미개봉 상태로 정확한 물목 구성과 안립형식은 알 수 없지만 근봉지, 오색사, +형의 매듭, 황초폭자에 방위색을 적용하여 각각에 방위에 해당하는 범자를 기록한 점 등으로 보아 청초홍서의 형식을 지닌 조성발원문과 함께 『조상경』의 범식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복장유물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라니는 모두 3종류로 확인되었으며, 조선시대 복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형식이다.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함께 조성된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칠보사 목조석가불좌상이 보물로 지정되어 불교미술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왕비와 관련된 <광해군 내외 및 상궁 복식>(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과 <광해군비당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에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함께 복장유물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다만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경우 더 다양한 다라니가 안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원문만이 불상과 함께 지정되었다. 따라서 지정 대상을 조성발원문, 저고리, 후령통(NO.17-5 원지원상다라니, NO.17-6의

방지방형다라니(대불정수능엄신주) 포함)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조사내용

안동 선찰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기 전에는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에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사찰이 피해를 입으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永嘉誌』佛宇에 “선찰사는 臨河縣 남쪽 17리쯤의 藥山 동쪽의 물길이 휘돌아가는 길목에 있다. 왼쪽은 절벽으로 막혀 있고 앞에는 산과 마주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절 주변으로 선유정이 자리하고, 절 앞으로는 반변천이 흐르고 있다. 또한 도연폭포(또는 落淵이라 부름)와 선유정 등이 구곡원림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을 만큼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그래서 大山 李象靖의 『大山集』에서 볼 수 있듯 여러 문인들의 遊覽詩文에도 선찰사가 자주 등장하고 만큼 시인묵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⁵⁵⁾

불상은 규모가 42cm 정도 되는 작은 불상으로 선찰사의 주불전인 대웅전의 주불로 봉안하고 있다. 2015년 12월 28일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에서 복장조사가 실시되었다. 복장에서 확인된 복장발원문을 통해 이 불상은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가 1622년 왕실의 원당인 자수사·인수사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한 불상임을 발원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1622년 왕실의 비빈이 출가하던 자수사·인수사 兩寺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된 불상은 모두 11존이며, 이 불상

55) <答金景潤聖文 光憲 乙酉(1765)>, 『大山集』 제14권 書 병을 앓으며 쓸렁한 서재에서 서글피 앉아 무료히 지내다가 문득 “성 가득한 풍우에 중앙절 다가오네”라는 구절이 생각나서 그리워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낙연과 선찰에 말에 몸을 맡긴 채 한번 들렀는데 마침 주인이 일이 있을 때를 만나 마음껏 유람하지 못했으니, 또한 제 자신이 산수에 노닐 분수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 (抱痾寒齋。悄坐無聊。輒思滿城風雨近重陽之句。不禁慕徒之懷。意外雙韻瓊投。諷玩數回。恍若對面抵掌之爲樂也。然區區糶點。只是養拙就溫之計。來詩。意寄高遠。太不著題。豈故以是相戲邪。令人生愧。象靖偶患寒感。似是勞動致然。落淵仙刹。信馬一過。而適值主人有故。不能恣意遊覽。亦是自家無分於山水耳。令胤果願。意思儘好。愧無以相發。只成閒往來。他日恐見訟於座下也。). 번역과 원문은 한국 고전종합DB 참조(<https://db.itkc.or.kr>).

은 그중 1존이다. 현재 11존의 불상 중 서울 지장암(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서울 칠보사에서 2존이 선찰사 불상 발견 이전에 확인된 바 있다.⁵⁶⁾ 11존의 불상의 종류는 비로자나불상 2존, 석가불상 3존, 노사나불상 2존, 아미타불상 2존, 관음보살상 1존, 대세지보살상 1존이다. 이를 토대로 존상을 구성해 보면, 비로자나삼신불상 2세트, 아미타여래삼존상 1세트, 석가여래 독존, 아미타여래 독존으로 구성되어 각 전각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불상은 그중 독존의 석가여래로 자수사·인수사의 주불전에 봉안된 불상은 아니며, 별도로 마련된 왕실의 願堂에 봉안되었던 불상으로 여겨진다.



<선찰사 대웅전>

<정면>

<측면>

<배면>

선찰사 불상 외 현재까지 발견된 2구의 불상은 1665년 현종의 폐불 정책으로 자수사·인수사가 폐지되고, 여기에 봉안되었던 불상들은 인근 왕실의 원당인 광주 법륜사(영창대군 원당)에 재 봉안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 다시 서울 인근 사찰로 이안되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안동 선찰사 불상은 중수기나 사적기에 이안 관련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어떤 경위와 경로로 선찰사까지 이안되었는지 그 내력을 알 수 없다.

발원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대작 불사를 발원한 사람은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이고, 이 불사를 주도한 인물은 당시 왕실과 두터운 친분을 쌓고 있던 孤閑熙彦(1561~1647)과 碧巖覺性(1573~1660)이다. 참여한 조각승은 현진, 수연, 응원, 청허 등 당시 활약하던 최고의 조선 팔도를 대표하는 조각승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조상화원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玄眞, 玉明, 守衍, 應元, 法玲, 明晙, 淸虛, 性仁, 宝熙, 印均, 敬玄, 志守, 太鑑, 密衍, 義仁, 勝一 등 모두 15명이다. 이 불사의 증명을 맡은 벽암각성과 고향회언은 부휴선수의 법맥을 잇는 사형사제 지간으로, 왕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이었다. 이들은 자수사·인수사 불사가 일어나기 전, 먼저 世子 李祿

56) 문명대, 「17세기 전반기 조각승 玄眞派의 성립과 지장암 목비로자나불좌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29,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7과 同著, 「칠보사 대웅전 1622년작 왕실발원 木 석가불좌상과 복장품의 연구」, 『강좌미술사』 43,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4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1598~1623)의 원찰인 청계사에서 그를 위한 齋會를 먼저 개설하고, 바로 이어서 『묘법연화경』을 개관하였다. 청계사 재회와 경관 불사(3월)가 끝나자마자 바로 자수사·인수사 불사(5월)가 진행되었다. 특히 청계사 『묘법연화경』 각판 작업에는 禪敎都摠攝 熙運, 曹溪宗大禪師 覺性, 曹溪直傳 熙彦, 華嚴講士 靈眞, 龍華講士 靈圭, 傳法寺住持 智軒을 비롯하여, 玉明, 玄眞, 修衍, 應元, 宝熙, 希顔, 宗遍와 刻字眞默, 曇成, 勝均, 勝一, 玄坦, 令牛 등이 참여한다.⁵⁷⁾ 경관 각판 작업에 자수사·인수사 불상 제작을 주도했던 각성과 희언은 물론 조각승인 현진, 옥명, 수연, 응원, 승일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점이 크게 눈에 띈다. 경관 작업에 조각승들이 명단을 올리고 있는 것은, 자수사·인수사 불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왜란 이후 새롭게 재편된 <도총섭>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당시 왕실에서 주도했던 불사의 진행순서는 우선 왕실의 불사도감이 도총섭에게 명하고, 도총섭은 예하 승장들을 소집하여 왕실불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계사 재회와 묘법연화경 각판, 자수사·인수사 불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속된 왕실 불사에서 당시 성립된 도총섭체제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사 시스템의 작동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불사에 참여한 僧匠들은 임진왜란 과정에서 재편된 선교도총섭 체제에서 체계적으로 육성된 승장들로 판단되며, 도총섭의 명에 의해 왕실불사와 국가 공역, 그리고 불교의 재건불사에 조직적으로 움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조각승 현진은 1604년 전주 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시작으로, 1607년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불상, 1614년 구례 천은사 목조관음·대세지보살좌상, 1617년 공주 갑사(시주), 1622년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가 주도한 자수사·인수사 11존 조성에 수화승으로 참여하였고, 뒤이어 보은 법주사(1626), 창녕 관룡사(1629), 대구 동화사(1629), 부여 무량사(1633), 성주 명적암(1637년) 등 1604부터 1637년까지 수많은 불상을 제작한 17세기 가장 걸출한 승려 조각가이다.

<표.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조각승의 주요 활동>

조각승	주요 활동	비고
현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 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04년, 1위 -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07년, 1위 - 함양 상련대 목조보살좌상, 1612년, 1위, 上員 - 구례 천은사 목조관음세지보살좌상, 1614년, 1위 - 자수사·인수사 11존(서울 지장암, 칠보사, 안동 선찰사), 1622, 1위 - 보은 법주사 소조삼신불좌상, 1626년, 1위 - 대구 동화사 금당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29년, 1위 -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29년, 1위 -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33년, 1위 - 적천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3년, 1위 - 성주 명적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37년, 1위(현 영남대학교) 	

57) 1622년 청계사 개관 『묘법연화경』 권7 간기 참조.

옥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4위(현진) - 경남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영규, 시주질 	
수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상, 1615년, 3위(태전) - 충남 서천 봉서사 소조아미타삼존불, 1618년, 1위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 3위(현진) - 강화 전등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1623년, 1위 - 나주 다보사 영산전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16나한상, 1625년(1위), 원영암 쌍계사) - 익산 승림사 영원전 목조지장시왕상, 1634년, 1위 - 전등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1636년, 1위 - 예산 수덕사 대웅전 목삼세불좌상, 1639년, 1위 	
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은 법주사 팔상전 재건공사, 1605년, 緣化秩 -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14년, 2위(각심) -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상, 1615년, 2위(태전) - 공주 갑사 대웅전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1617년, 시주(행사)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 2위(현진) - 순천 송광사 광원암 목아미타불, 1624년, 1위 - 순천 송광사 응진당 소조석가삼존 및 16나한상, 1624년, 1위(송광사사적기) -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1628년, 1위, 비파명문 -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삼신불상, 1634~36년, 1위/2위 -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50년, 시주질(응매) 應元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상, 1615년, 4위(태전) -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629년, 1위 - 익산 승림사 성불암 불상, 1640년, 1위(홍양) -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41년, 2위(청헌) - 청양 정혜사 목조삼세불좌상, 1640년대, 법령추정 	
명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양 상린대 목조보살좌상, 1612년, 2위(현진), 次員 - 구례 천은사 목관음세지보살좌상, 1614년, 2위(현진) -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1617년, 시주(행사)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6위(현진), 明唄 	
청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 선지사 목조아미타불좌상, 1605년, 3위(원오) - 익산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입상, 1605년, 3위(원오) - 순천 송광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 1614년, 3위(각민), 소실 -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7위(현진), - 경남 김해 거창포교원 목조아미타불좌상, 1640년, 1위, 덕유산 연수사 봉안 - 경북 경산 경흥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44, 1위 - 경북 상주 남장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45년, 1위(海東畵名)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8위(현진) - 남양주 수종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1628년, 1위 	
보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 봉서사 극락전 소조아미타삼존불, 1618년, 5위(수연)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9위(현진), 普熙 	
인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14년, 6위(각심) -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상, 1615년, 5위(태전)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10위(현진) - 순천 송광사 광원암 목조아미타불상, 1624년, 5위 - 김제 귀신사 영산전 석가삼존 및 16나한상, 1633년, 1위 -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삼신불상, 1634~36년, 3위, 화엄사사적기/발원문 - 광양 백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43년, 1위, 발원문 - 청도 장연사 목조보살좌상, 1643년, 1위 - 여수 흥국사 무사전 지장시왕상, 1648년, 1위 - 순천 송광사 부도암 목조보살좌상, 1654년, 1위(印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 흥국사 응진당 목석가삼존 및 16나한상, 1655년, 1위 - 전주 학소암 자음전 약사여래좌상, 1662년, 1위 - 구례 화엄사 벽암국일도대선사비, 1663년, 비음 總攝 	
경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11위(현진)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12위(현진), 志修 - 보은 범주사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좌상, 1655년, 2위(혜희) - 완주 송광사 나한전 석가삼존 및 16나한상, 1656년, 26위(무염) 	
태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13위(현진) -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1629년, 2위(법령), 太甘 - 경남 함양 법인사 목조지장보살좌상, 1657년, 영규, 시주질 	
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治匠3위(성옥/현진) 	
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治匠4위(성옥/현진) -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영규, 시주질 	
승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1617년, 시주(행사), 勝日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治匠2위(성옥/현진), 勝一 - 대구 동화사 금당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29년, 2위(현진) - 창령 관룡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상, 1629년, 2위(현진) - 밀양 표충사 삼전패, 1634년, 1위 - 영광 불갑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5년, 2위(무염) - 하동 쌍계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1639년, 2위(청현) 勝日 - 성주 명적암 영남대 박물관소장 목아미타불좌상, 1637년, 2위(현진) - 구례 천은사수도암 목아미타불 및 대세지보살상, 1646년, 1위, 勝日. -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조좌상, 1648년, 1위 - 서울 봉은사 대웅전 목삼세불좌상, 1651년, 1위(勝一) - 무주 북고사 목아미타불좌상, 1657년, 1위(勝一) - 문경 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58년, 1위(勝一) - 서울 청룡사 명부전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일괄, 1660, 1위, 원경북 - 칠곡 송림사 명부전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1665년, 1위 - 김천 직지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68년, 1위(勝一) - 김천 직지사 비로전 목조보살좌상, 1688년, 1위(勝一) - 경북 김천 고방사 목조아미타삼존불, 1670년, 1위(勝日) 	

2015년 복장조사에서 발견된 복장물은 다음과 같다. <청초홍서 조성발원문> 1점, <박상궁원불 년의디흐나> 목서편 1점, <병자생왕비유시명의> 저고리 1점, 황초폭자에 쌓인 후령통 1점, 다리니 등이 발견되었다. 작은 불상임에도 복장 安立物目은 매우 알찬 편이다. 후령통은 황초폭자에 넉넉하게 싸여 있으며 상단부에 오색사를 감고, 謹封紙帶를 돌려 마무리하였다. 남쪽에만 사방주를 적었다. 특히 주목되는 안립물목은 불상 조성내력을 담은 <청초홍서 발원문>과 발원자가 염원을 담아 직접 납입한 저고리 1점, 그리고 목서편이다. 발원문은 기존에 발견된 지장암 비로자나불상의 조성발원문과 대동소이하며, 저고리와 목서편은 지장암과 칠보사 불상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우선 저고리에는 “丙子生王妃柳氏命衣”라는 명문이 적혀 있다. 즉 이 저고리의 주인공은 왕비 유씨다. 그는 자수사·인수사 불사를 기획하고 발원했던 당사자이다. 현재까지 광해군비 유씨는 해인사 판전을 중수할 때 夫君인 광해군의 옷과 함께 자신의 옷(국가민속자료 제3호, 광해군 내외 및 상궁옷)을 봉납하였고, 이외에도 석주선기념박물관에 <광해군비 당의(국가

민속문화재 제215호)>가 전한다.



<청초홍서 발원문>



<후령통>



<丙子生王妃柳氏命衣>



<묵서편>

이와 더불어 복장물 중 ‘박상궁원불 던의디흐나’는 묵서 종이 조각(32.5×5.5cm)이 발견되었다. 이 墨書紙片을 통해 이 불상이 모두를 위해 조성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불상이라기 보다 개인적인 염원을 담은 원불로의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규모가 있는 주 불전에는 비로자나삼신불상과 아미타여래삼존상이 봉안되고, 이와 같은 작은 불상은 규모가 작은 원당에 봉안되었을 것이다.

청초홍서 발원문은 불복장 의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조상경』의 내용대로 푸른 바탕의 명주에 붉은색 글씨로 제작시기, 발원목적, 불사내용, 시주자, 제작자, 소임자 등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하고 있다. 특히 내명부의 최고품계에 있는 왕비가 직접 발원한 불상인 만큼 당연히 많은 비용의 내당금이 시납되었던 탓으로, 시주자 중에서 일반 시주자를 찾을 수 없는 점도 특징이다.











발원문에 축원대상이 되는 인물은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⁵⁸⁾, 광해군 李瑄, 세자 李倓, 세자빈 박씨의 수명장수를 발원하고, 이어서 돌아가신 왕비의 부모(유자신, 정씨)와 壬辰生(1592)·丙申生(1596) 두 공주와 庚子生(1600) 왕자, 세자빈 박씨 소생의 甲寅生(1614) 왕손, 柳希鏗, 柳希聃 등 세상을 떠난 친정 형제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즉 왕비와 가까운 일가를 위해 발원한 지극히 개인적인 불사에 가깝다.

<표. 복장유물 목록>

연번	지정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사진
----	------	----	----	--------	----

58) 光海君의 정비인 章烈貞聖王妃柳氏(1576. 7. 21~1623. 10. 8)이다. 『大東野乘』 권44에 수록되어 있는 『凝川日錄』 권1 병진년(광해군 8, 1616) 10월조에 “十六日禮曹. 闕前上尊號體天興運浚德弘功. 今上神聖英肅欽文仁武. 中殿殿上章烈. 今上貞聖.”(16일 예조에서 임금께 전에 體天興運浚德弘功이라는 존호를 올렸고, 이제 神聖英肅欽文仁武라는 존호를 다시 올렸다. 중전께는 전에 章烈이라는 존호를 올렸는데, 이제 다시 貞聖이라는 존호를 새로 올렸다.)라는 내용이 있다(석미춘잉 편, 『대동야승』 8, 경성, 조선고서간행회, 1910, p.683 ; 정봉화 역, 『국역대동야승』 X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68, p.176).

연번	지정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사진
1	목조석가여래좌상	나무	1	높이 40.3 무릎 폭 28.0	
2	복장공 마감 다라니 (文殊菩薩法印能消定業呪)	紙 (朱書)	1	22.0×17.4	
3	박상궁원불 던의디흐나	紙 (墨書)	1	5.6×32.8	
4-1	覺天比丘信洁比丘	紙 (朱書)	1	5.5×16.1	
4-2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墨印)	15	18.9×24.2 (광곽 8.9×17.0)	
5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墨印)	3	17.1×23.2 (광곽 8.9×17.0)	
6	方紙圓形다라니	紙 (朱印)	2	18.2×22.5 (바깥 원지름 12.8×11.6) (안 원지름 3.0×2.7)	
7-1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1	17.5×22.4 (광곽 8.9×17.0)	
7-2	方紙圓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7	18.6×23.9 (바깥 원지름 12.7×11.5) (안 원지름 3.0×2.7)	
8-1	方紙圓形다라니	紙 (朱印)	2	18.2×22.7 (바깥 원지름 12.7×11.7) (안 원지름 3.0×2.7)	

연번	지정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사진
8-2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1	18.5×24.2 (광곽 8.9×17.0)	
8-3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腹藏眞言)	紙 (墨印)	6	28.8×22.0 (광곽 22.4×12.5)	
9-1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墨印)	1	17.8×24.2 (광곽 8.9×17.0)	
9-2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腹藏眞言)	紙 (墨印)	2	26.3×21.1 (광곽 22.6×12.5)	
10	저고리	絹	1	화장(가로 최대) 143.0 높이(세로 최대) 59.5	
11	造成發願文	靑絹 紅書	1	33.5×70.0	
12	方紙圓形다라니	紙 (朱印)	5	18.8×23.4 (바깥 원지름 12.8×11.6) (안 원지름 3.0×2.7)	
13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4	19.0×22.0 (광곽 8.9×17.2)	
14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5	19.0×25.2 (광곽 8.9×17.1)	
15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2	18.2×22.9 (광곽 8.9×17.2)	

연번	지정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사진
16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墨印)	1	19.2×24.6 (광곽 8.9×17.0)	
17-1	喉鈴筒 및 黃絹幅子	혼합 (직물, 금속 등)	1	미개봉	
17-2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5	18.8×21.09 (광곽 8.9×17.1)	
17-3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墨印)	3	19.4×24.5 (광곽 8.8×17.0)	
17-4	方紙圓形다라니	紙 (朱印)	6	17.5×21.3 (바깥 원지름 12.1×12.1) (안 원지름 2.9×2.9)	
17-5	圓紙圓形다라니 (후령통 상부 마감)	紙 (朱印)	2	15.8×13.8 (바깥 원지름 12.8×11.6) (안 원지름 3.0×2.7)	
17-6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후령통 외곽 마감	紙 (朱印)	2	가장 긴 면 23.0 (광곽 8.9×17.0)	

불상은 큰 머리에 짧고 두툼한 허리를 갖고 있다. 얼굴에는 포동포동 살이 올라 통통한 아기를 연상시킨다. 반개한 눈은 눈꼬리가 길지 않은 편이며, 코는 도톰하고 인중도 짧다. 턱이 짧고 볼과 양악에 살집이 풍성하게 잡혀 있다. 목은 짧고 열게 삼도가 표현되어 있다. 대의는 변형 편단우견으로 걸쳤으며, 양 어깨에는 삼각형으로 짧게 접은 주름이 형성되어 있고,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 자락은 새깃처럼 표현되었다. 얼굴과 마찬가지로 복부에도 볼록하게 살집이 올라 있고, 노출된 오른팔도 짧고 통통하다. 무릎 앞으로는 넓은 역y형 주름과 호선의 주름이 부채살을 이루며 드리워져 있다. 발목 아래로 내려진 2개의 넓은 띠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로 호선 주름을 펼치는 칠보사와 지장암 상과는 약간 다른 주름표현이며, 수연의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23년)과 응원의 송광사 응진당 목조석

가여래좌상(1624) 등과도 유사점이 보인다. 이는 자수사·인수사 불상이 여러 조각승들이 함께 참여하여 협업과 분업을 통하여 11존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른 조각승의 조각양식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귀의 표현은 삼각좌가 짧고 이공이 완두콩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귀 표현은 1614년 구례 천은사 목조관음대세지보살상과 1615년경 현진 추정 작 진주 청곡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의 귀의 세부표현과 비슷하다. 왼쪽 어깨 측면으로 드리운 주름의 경우 현진은 대개 정면과 측면으로 흘러내린 주름이 쌍Ω형태, 즉 M자형으로 마무리 짓는데 반해, 수연은 단 Ω형으로 표현된다. 무릎 앞쪽으로 사선으로 펼쳐진 짧고 간결한 주름은 1614년 천은사 대세지보살상에서 그 선구적 연원을 찾을 수 있고, 이후로는 1636년에 제작된 적천사 약사불상으로까지 나타난다.

불상은 전반적으로 아기 같은 비례감을 갖고 있다. 머리가 크고 무릎이 좁고, 뺨에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 양감이 있으며, 무릎은 낮고 좁아 전체적으로 귀여운 인상을 준다. 이러한 불상양식은 1628년 소성정의대왕대비, 즉 인목대비가 발원하고 성인이 주성한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에 봉납한 일군의 금동불상들과 양식은 물론 미감을 공유한다. 수종사 금동불상을 조성한 성인 역시 자수사·인수사 불상 조성에 참여한 바 있다. 즉 이 시기 왕실 비빈들이 자신의 원당이나 자신의 원을 담아 발원한 불상에는 대체로 아기 같은 3~4등신의 비례에 포동포동 살이 올라있는 얼굴을 가진 불상들이 출연하고 있다. 자수사·인수사 11구의 불상 조성이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의 돌아가신 부모와 자신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간 금쪽같은 공주와 대군의 명복을 비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원당에 봉안되었을 이 작은 불상의 경우 자신의 자식의 생전 모습으로 환치시켜 놓은 것으로 이해 할 수 있고, 나아가 그들의 극락왕생과 다시 자신에게로 환생하기를 기원했을 것이다. 특히 선찰사 불상보다 먼저 발견된 지장암과 칠보사 불상의 중후한 미감과 달리 아기 같은 조형성을 가진 선찰사 불상은, 망자가 된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의 어린 왕자와 공주를 연상시킨다. 그 애절한 마음이 이 불상에 담겨 있다.

○ 문헌자료

<조성발원문> 1622년 5월 26일, 靑綃紅書, 33.5×70cm.

恭聞

覺皇功成億劫位著義天三身之德相周圓四智之慧明眞淨分身刹土實萬善之莊嚴一坐蓮宮乃群心之欽慕慈深苦海悲極含生是故一聞號而衆罪悉除一念歸而萬福畢集今我章烈殿下益信 佛乘爰發 聖願特爲

主上殿下陰陽泠釋年月厄消二曜並明休光隻於千古兩儀齊壽盛業
邁於百王天人交慶日月貞光
王世子邸下壽星獻彩如來座福辰呈輝 世尊前順從民心荷天地之休
命傳授
寶明宣
祖宗之重光
世子嬪朴氏邸下壽命千秋敬奉慈圍之德仰致怡愉之禮密符徽音之恩克
勤敬戒之規速誕元孫纘承 聖嗣亦爲
己身章烈殿下德並大術道同宣仁增壽筭於靈椿著徽音於盛世身輕氣順
頓消諸病之根食穩寢安永享萬年之快抑願
先王先后祖宗列位仙駕
文陽府院君柳自新仙駕
蓬源府夫人鄭氏仙駕
壬辰生公主李氏仙駕
丙申生公主李氏仙駕
庚子生大君李氏仙駕
甲寅生郡主李氏仙駕
贈文陵君進士柳希鏗靈駕
贈文源君 柳希聃 靈駕
先亡上世宗祖親姻眷屬之靈脫此三有生彼九蓮以此大願恭捐寶帑虔
募良工敬造
尊像毘盧遮那佛二尊
釋迦如來三尊
盧舍那如來二尊
彌陀如來二尊
觀音菩薩
大勢至菩薩兼圖畫像
三身大靈山會幀二 龍華會幀二 五十三佛幀一 中壇幀一
下壇幀一工手已畢奉安于慈仁壽兩寺仰表卞(丹)慄靡懈初心克成勝
妙以此大功德伏願
諸聖垂慈嘉應時格洪休使成前願必獲後果悔吝頓消吉祥荐至動資
佛力永享不老之春秋尋符 天恩長見太平之風月群臣協睦百神護
祐東溟乏賊倭之舟舟(舂)北地絕兇狄之弓弩天災自滅地變自弭雨暘和而百
穀登場干戈息而四方莫枕
瑤圖地久寶曆天長 佛日與舜日恒明禪風共堯遐扇然後願惠流
澤及含咸脫苦波同遊覺海伏惟
諸聖慧眼遙觀作此功德 時維

大明天啓二年壬戌五月二十六日謹記

	造像畫員	咽導 飯頭 淨桶
證明大德熙彦	玄眞 淸虛 太鑑	雲牛 竺熙 道彦
證明大德覺性	玉明 性仁 密衍	書記 濟一 助役
	守衍 宝熙 義仁	宗遍 戒淳 可英
持任智軒	應元 印均 性玉	寫經 熟頭 宗印
	法玲 敬玄 勝一	熙安 雙衍 性眞
	明晝 志守 看香	別座 應和 雙淳
	坦宗	熙祥 妙安 宗式
		敬禪

○ 참고문헌

- 문명대, 「17세기 전반기 조각승 현진파의 성립과 지장암 木 비로자나불좌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29, 2007.
- 문명대, 「칠보사 대웅전 1622년작 왕실발원 木 석가불좌상과 복장품 연구」, 『강좌미술사』 43,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4.
- 김미경, 「조선 光海君代의 佛事 연구-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상 造成發願文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6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7.
- 송은석, 「1622년 慈壽寺·仁壽寺의 章烈王后 發願 불사와 안동 선찰사 목조 석가불좌상」, 『석당논총』 6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7.
- 이은주·박윤미,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 직물과 유씨 저고리 고찰」, 『석당논총』 6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7.
- 손영문, 「조선 후기 조각승의 활약과 印均」, 『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총서』 54, 사단법인 한국미술사연구소, 2023.

□









○ 현 상


지금의 선찰사는 안동 길안면 천지리 길안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해 있는데 북쪽으로는 길안천이 흐르고, 주변으로 넓은 사과밭이 펼쳐져 있다. 이 절이 언제 누구에 의해 창건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원래의 선찰사는 『영가지(永嘉誌)』 기록에 의하면 임하면 남쪽 17리쯤 되는 약산(藥山) 동쪽의 물길이 휘돌아 돌고 왼쪽은 절벽으로 막혀 있으며 앞으로는 독산이 마주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전한다. 하

지만 1949년 화재와 6·25전쟁으로 건물 전체가 소실되었고 1989년 임하담 건설로 인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조사 대상인 불상과 복장물은 조선 후기(17세기) 왕실 발원 불사와 관련한 중요 자료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2016.10.6. 제497호)로 지정되었다. 상의 전반적인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전면(前面) 왼쪽 목덜미 선을 따라 균열이 있고 도금의 박리·박락도 확인되며 왼쪽 2번째 손가락은 부러져 접합해 놓았다. 상의 복장에서 후령통, 저고리, 다라니 등 81점의 복장물이 확인되었는데 현재 안동시립박물관에 위탁 보관되어 있다.

<표1. 복장유물>

연번	물목	규격(cm)	재질	수량	사진	비고
1	문수보살법인능소정업주 (文殊菩薩法印能消定業呪)	17.0×20.5	종이(朱書)	1		
2	박상궁원불목서지편 (朴尙宮願佛墨書紙片)	32.5×5.5	종이(墨書)	1		
3	각천비구신호비구주서지편 (覺天比丘信浩比丘朱書紙片)	16.0×5.5	종이(朱書)	1		
4	대불정수능엄신주 (大佛頂首楞嚴神呪)	전체 24.2×20.5 광곽 17.0×8.9	종이(墨印)	23		
5	대불정수능엄신주 (大佛頂首楞嚴神呪)	전체 24.2×20.5 광곽 17.0×8.9	종이(朱印)	18		
6	다라니	전체 22.6×18.6 외경 13.7	종이(朱印)	26		
7	복장진언	전체 21.1×26.5 광곽 12.3×22.3	종이(墨印)	8		
8	저고리	화장 143.0 길이 59.5	비단	1		‘丙子生 王妃柳氏 命衣’
9	후령통 및 황초폭자	전체길이 34.5 후령통 8.5×2.8	동(금속) 비단	1		

연번	물목	규격(cm)	재질	수량	사진	비고
10	조성발원문	33.5×70.5	靑絹紅書	1		
계				81		

○ 내용 및 특징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이하 석가상)은 42cm에 아담한 크기의 작은 상이다. 결가부좌하여 앞으로 숙인 자세에 오른손은 손가락 끝이 땅을 향하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왼손은 다리 위에 둔 항마촉지인의 손 모습을 하고 있다.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큰 조선 후기 불상의 보편적 특징을 따르고 있다. 다부져 보이는 상반신은 목이 짧고 양감이 있으며 적당한 다리 너비는 신체의 안정감을 더한다. 머리에는 뽕족하고 작은 나발을 촘촘하게 붙였고, 머리와 육계의 경계에는 반원에 큼직한 중간계주, 정상에는 나지막한 정상계주를 각각 두었다. 얼굴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볼록하고 턱을 수평으로 깎은 네모진 형이다. 두툼한 눈꺼풀과 눈꼬리가 올라간 눈매, 콧날이 선 오뚝한 코, 짧고 선명한 인중선과 가볍게 다문 입술 등의 표현이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준다.



<도1.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옷은 오른쪽 어깨에 대의를 살짝 걸친 변형식 편단우견으로 입었으며, 목덜미의 두꺼운 옷깃과 오른쪽 어깨에 U자형으로 층을 이루는 옷주름, 가슴 아래 수평으로 입은 승각기와 그 가운데 도드라진 수평의 띠 등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이 상은 발원문에 적힌 바와 같이 현진이 조성한 것으로 그가 제작한 불상은 공통적으로 오른쪽 어깨에 옷주름 하나가 강조되어 있으며, 또 그의 계보를 따르는 조각승의 불상에서도 이를 계승한 특징들이 표현되기도 한다. 즉 이 석가상은 현진을 비롯하여 그 계보 조각승의 불상 특징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반신의 옷자락은 무릎에서 발목으로 올라가는 2개의 옷주름과 양다리 사이에 ‘人’자 형의 옷주름은 끝단이 삼각형의 물결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현진 불상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함양 상연대 목조관음보살좌상(1612)이나 창

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29) 등에서 이런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석가상의 복장에서는 조성발원문과 후령통 1개, 저고리 1착, 3종의 다라니 등 다수의 납입물이 발견되었다. 그중 조성발원문은 『조상경』(楡岾寺本, 1824)의 내용과 같은 푸른 비단 바탕에 붉은 글씨로 적혀 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이 상은 1622년 5월 26일에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가 임금과 자신의 아들 내외인 세자와 세자빈, 그리고 대군과 공주를 비롯하여 친가 가족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11구의 불보살상(비로자나불 2구, 석가여래 3구, 노사나불 2구, 아미타여래 2구, 관음보살 1구, 대세지보살 1구)과 불화 7점을 조성하여 자수사(慈壽寺)와 인수사(仁壽寺)에 봉안한다고 기록하였다. 존상의 내용으로 보아 석가-비로자나-노사나불의 삼신불의 구성 2벌과 대세지보살-아미타여래-관음보살의 아미타여래삼존상 1벌 그리고 각각 아미타여래와 석가여래 1구씩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현재까지 확인된 존상은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1621호)과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2004호)이며 선찰사의 석가상은 세 번째로 확인된 상이다. 규모면에서 기초사된 2구의 상은 각각 전자는 117.5cm, 후자는 117cm로 크기이며, 본 석가상은 42cm 것과는 비교된다. 존상의 크기로 보아 개인의 원불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삼존상 구성 외에 나머지 1구인 아미타여래상도 같은 용도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발원문에는 현진(玄眞)을 비롯해 옥명(玉明), 수연(守衍), 응원(應元), 법령(法玲), 명은(明崙), 청허(靑虛), 성인(性仁), 보희(寶熙), 인균(印均), 경현(敬玄), 지수(志守), 태감(太鑑), 밀연(密衍), 의인(義仁), 성옥(性玉), 승일(勝一)까지 뚜렷한 개성을 보이며 활약한 조각승 17명의 이름은 물론 간향(看香), 인도(咽導), 서기(書記) 등 조성과정에서의 조력자들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선찰사 석가상은 기초사된 다른 2구의 존상에서 여러 조각승들의 특징이 드러난 것과 다르게 얼굴이나 옷자락 등의 표현에서 현진의 양식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존상에서 ‘丙子生王妃柳氏命衣’라 적은 저고리(回粧赤古里)가 발견되었는데 유씨는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로 추정된다.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의 복식유물은 선찰사 외 해인사 소장 ‘中宮柳氏’ 목서명의 홍색 토주(吐紬) 겹장저고리(국가민속문화재 제3호)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광해군비 당의(국가민속문화재 제215호)가 있다. 선찰사의 저고리는 해인사 소장의 자색 솜 단저고리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오히려 더 좋은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비의 개인 저고리가 석가상에 납입된 것을 보면 개인을 위한 원불로 제작된 것이 분명하며 이 불사의 수화승인 현진이 석가상 조성에 오히려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러므로 석가상에서는 현진의 조각적 특징이 완연히 드러난다 할 수 있겠다.

○ 문헌자료

<조성발원문> 1622년 5월 26일, 靑綃紅書, 33.5×70cm.

恭聞

覺皇功成億劫位著義天三身之德相周圓四智之慧明眞淨分身刹土實萬
善之莊嚴一坐蓮宮乃群心之欽慕慈深苦海悲極含生是故一聞號而衆
罪悉除一念歸而萬福畢集今我

章烈殿下益信 佛乘爰發 聖願特爲

主上殿下陰陽泠釋年月厄消二曜並明休光隻於千古兩儀齊壽盛業

邁於百王天人交慶日月貞光

王世子邸下壽星獻彩如來座福辰呈輝 世尊前順從民心荷天地之休

命傳授

寶明宣

祖宗之重光

世子嬪朴氏邸下壽命千秋敬奉慈圍之德致怡愉之禮密符徽音之恩克

勤敬戒之規速誕元孫纘承 聖嗣亦爲

己身章烈殿下德並大術道同宣仁增壽筭於靈椿著徽音於盛世身輕氣順

頓消諸病之根食穩寢安永享萬年之快抑願

先王先后祖宗列位仙駕

文陽府院君柳自新仙駕

蓬源府夫人鄭氏仙駕

壬辰生公主李氏仙駕

丙申生公主李氏仙駕

庚子生大君李氏仙駕

甲寅生郡主李氏仙駕

贈文陵君進士柳希鏗靈駕

贈文源君 柳 希 聃 靈駕

先亡上世宗祖親姻眷屬之靈脫此三有生彼九蓮以此大願恭捐寶帑虔

募良工敬造

尊像毘盧遮那佛二尊

釋迦如來三尊

盧舍那如來二尊

彌陁如來二尊

觀音菩薩

大勢至菩薩兼圖畫像

三身大靈山會幀二 龍華會幀二 五十三佛幀一 中壇幀一

下壇幀一工手已畢奉安于慈仁壽兩寺仰表(丹)慄靡懈初心克成勝
妙以此大功德伏願

諸聖垂慈嘉應時格洪休使成前願必獲後果悔吝頓消吉祥荐至動資

佛力永享不老之春秋尋符 天恩長見太平之風月群臣協睦百神護

祐東溟乏賊倭之舟舟(耳)北地絕兇狄之弓弩天災自滅地變自弭雨暘和而百
穀登場干戈息而四方莫枕

瑤圖地久寶曆天長 佛日與舜日恒明禪風共堯遐扇然後願惠流

澤及含咸脫苦波同遊覺海伏惟

諸聖慧眼遙觀作此功德 時維

大明天啓二年壬戌五月二十六日謹記

	造像畫員			咽導	飯頭	淨桶
證明大德熙彦	玄眞	淸虛	太鑑	雲牛	竺熙	道彦
證明大德覺性	玉明	性仁	密衍	書記	濟一	助役
	守衍	宝熙	義仁	宗遍	戒淳	可英
持任智軒	應元	印均	性玉	寫經	熟頭	宗印
	法玲	敬玄	勝一	熙安	雙衍	性眞
	明嘗	志守	看香	別座	應和	雙淳
			坦宗	熙祥	妙安	宗式
					敬禪	

○ 참고문헌

- 김미경, 「조선 光海君代の 佛事 연구-안동 仙刹寺 목조석가불좌상 造成發願文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67, 2017.
- 송은석, 「1622년 慈壽寺·仁壽寺의 章烈王后 發願 佛事와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 『석당논총』 67, 2017.
- 이은주·박윤미,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 직물과 왕비 유씨 저고리 고찰」, 『석당논총』 67, 2017.
- 문명대, 「17세기 전반 조각승 玄眞派의 성립과 지장암 木 비로자나불좌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29, 2007.
- 문명대, 「칠보사 대웅전 1622년작 왕실발원 목(木) 석가불좌상과 복장품의 연구」, 『강좌미술사』 43, 2014.



○ 현 상

1622년에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가 자수사와 인수사에 봉안하기 위하여 조성한 11구의 불상 중에 1구로 현재는 경북 안동시 길안면의 선찰사 법당에 봉안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 『조상경(造像經)』의 불복장 법칙에 따라 청색 바탕의 직물에 홍색으로 글씨를 쓰고 불사에 참여한 인물들의 직책과 이름을 열거하였다.
- 조상기에 따르면, 이 불상은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가 발원한 것으로 현진(玄眞)을 수조각승으로 응원(應元), 수연(守衍), 법령(法玲), 청허(淸虛), 인균(印均), 승일(勝一) 등 당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조각승들이 대거 참여하였다고 한다.
- 당시 불사를 통해 모두 11구의 불상, 즉 비로자나불상 2구, 석가불상 3구, 노사나불상 2구, 아미타불상 2구, 관음보살상 1구, 대세지보살상 1구를 제작했는데 (석가, 비로자나, 노사나로 구성된 삼신불상(三身佛像) 2세트와 아미타, 관음, 세지로 구성된 아미타삼존불상(阿彌陀三尊佛像) 1세트로 추정), 이 불상은 3구의 석가불상 중에 1구로 생각된다.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상과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불상의 조사결과, 이 불상들도 선찰사 목조석가불상과 함께 발원,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은 높이 42cm에 불과한 작은 규모지만 어깨를 펴고 당당한 자세로 앉아있다. 두꺼운 상반신에 비해서 하체는 무릎이 낮아서 안정감이 없는데, 이런 체형의 표현은 조선후기 불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도1]. 넓적한 얼굴에 턱은 각져 있고 가느다란 눈은 아래를 응시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서 진중한 인상을 준다. 이런 얼굴의 표현은 진주 청곡사 대웅전의 목조석가삼존불상(1615년 제작 추정)과 흡사해서 현진과 불상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도1. 선찰사 목조불좌상>

- 내의를 입고 그 위에 편단우견 방식으로 대의를 걸쳤는데, 왼쪽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대의자락이 접혀진 방식과 옷주름 표현이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불좌상(1622년 제작) 등 현진 내지는 현진파의 불상들과 유사하다.
- 하반신의 왼쪽 대퇴부에는 두 줄의 용기선으로 옷주름을 표현하였고 발목이 교차하는 중앙부에는 대의자락이 부채살처럼 넓게 펼쳐져서 바닥까지 이어져 있다. 이런 대의의 표현도 구례 천은사 목조대세지보살상(1614년 제작)이나 청도 적천사의 목조약사불좌상(1636년 제작) 등 현진파 불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 불상의 바닥면에는 원형의 복장공이 뚫려있는데, 불상의 내부는 옷칠을 한 뒤 묵서발원문, 저고리, 후령통, 다라니 등의 복장물을 넣었다[도2]. 복장공 안에서는 묵서발원문, 저고리, 후령통, 다라니, 필사본 등이 발견되었다. 복장공을 막은 마개 위에는 붉은색으로 「문수보살법인능소정업다라니(文殊菩薩法印能消定業呪)」를 써 붙였다[도3].



<도2. 복장공>



<도3. 복장공 마개-문수보살법인능소정업다라니>

- 묵서발원문은 왕실에서 발원한 작품답게 치밀하게 직조한 양질의 명주에 썼는데, 『조상경(造像經)』의 불복장 법칙에 따라 청색 바탕의 직물에 홍색으로 글

씨를 쓰고 불사의 내용과 참여한 인물들의 직위와 직책, 이름을 격식에 맞게 열거하였다.

- 저고리는 뛰어난 직조기술을 보일 뿐 아니라, 네 종류(또는 사계절)의 꽃과 함께 봉황이 문양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문양의 표현은 17세기 복식의 특징으로 조상기에 기록된 불상의 제작시기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왕실 제작품의 품격을 잘 보여준다[도4].



<도4. 복장-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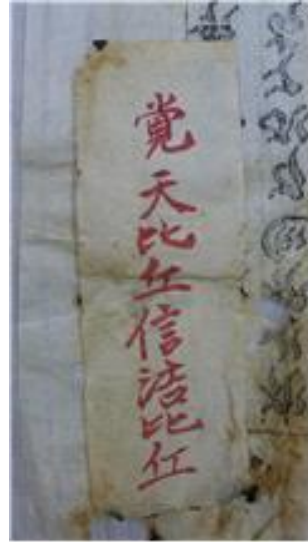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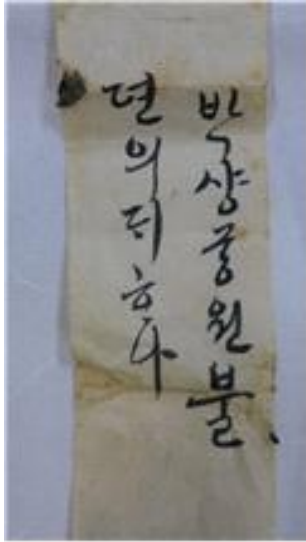
- 후령통을 감싼 황초폭자는 개봉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례를 볼 때 붉은 글씨로 방위를 상징하는 오륜종자와 불사의 참여자를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후령통의 후혈에는 붉은색으로 ‘謹封(근봉)’이라는 글씨를 쓴 봉서를 오색실과 함께 감았다. 이런 형식도 17세기에 나타나는 것이다[도5].



<도5. 후령통>

- 조상경 진언을 비롯하여 대불정수능엄신주, 문수보살법인능소정업주 등을 먹색과 주색으로 총 78매 찍어 복장물과 함께 매납하였다.

- 그 외 “박상궁원불단의디흐나”와 “각천비구신길비구(覺天比丘信洁比丘)”라는 필사가 발견되었다[도6]. 이 필사는 한글의 표기방식을 볼 때 불사가 이루어진 1622년 경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양질의 고급 종이에 필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박상궁과 각천, 신길은 불사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도6. 발원 필사본>

□

○ 현 상

보존 상태는 양호하지만 오랜 기간 복장 상태로 되어 있어서 구김이 있으며 일부 손상 부위가 있어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태임.

○ 내용 및 특징

경상북도 안동시 仙刹寺 木造釋迦佛坐像의 복장 발원문과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 1576~1623]의 저고리를 실견·조사한 결과, 발원문에 따르면 1622년 5월 26일에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복장되어 있던 저고리의 안깃 안감 쪽에 ‘丙子生王妃柳氏命衣’라는 9자의 목서가 있었기에 저고리의 주인이 왕비 유씨임을 알 수 있다.



<도1.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의 왕비 유씨 저고리 앞과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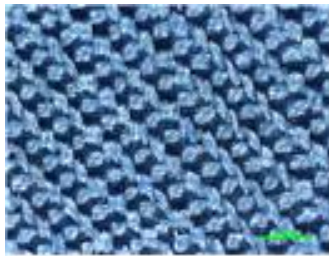
1. 저고리 소재와 색상

선찰사 복장 발원문과 저고리 한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물은 4종류로 분류되었다. 無紋綾(도2), 吐紬, 紬, 그리고 鳳花紋段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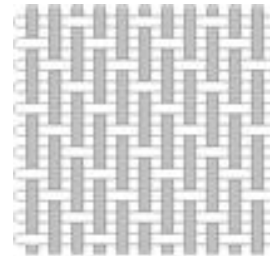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저고리의 길에는 청색 무문능(도2), 소매·무·깃·섶·겉고름에는 자색 토주(도3), 안고름에는 청록색 주, 끝동에는 청색 봉화문단(도4)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현재까지 조사·보고된 직물 유물 가운데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주는 몇 점에 불과하므로 저고리의 소매와 무에 사용된 자색 토주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직물이라고 할 수 있다. 상의의 안감과 동정에 素色의 주가 사용되었고 안고름에는 청록색의 주가 사용되었다(도5).



무문능



무문능 확대



3매능직 조직도

<도2. 저고리 길에 사용된 무문능과 조직도>



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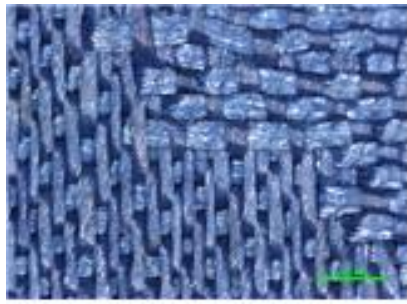


토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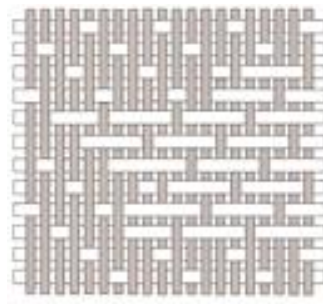
<도3. 소매와 회장에 사용된 토주>



끝동(왼쪽)



청봉화문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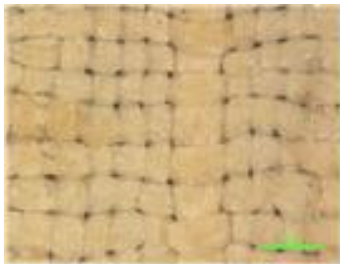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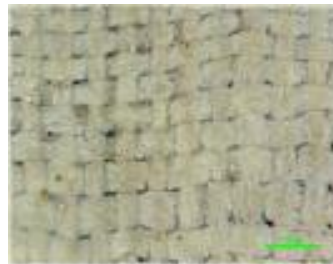


봉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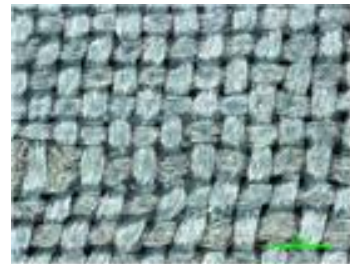
<도4. 끝동에 사용된 청봉화문단>



안감 확대



동정 확대



안고름 확대

<도5. 안감, 동정, 안고름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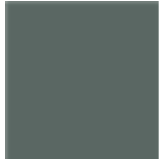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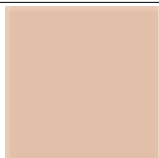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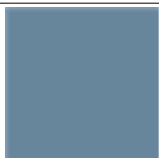
<표1. 선찰사 불복장 직물의 특성>

유물명	부분	직물 종류	직물 조직	실의 특성			밀도 (올/cm ²)	포폭 (cm)	두께
				구분	직경(mm)	꼬임			
발원문	전체	주	평직	경사	0.25-0.43	무연	32	70이상	0.10-0.12
				위사	0.53-0.58	무연	18		
저고리	길	무문능	3매 능직	경사	0.14-0.16	Z	68		0.15-0.16
				위사	0.15-0.17	무연	56		
	소매·무·깃· 셔·겉고름	토주	평직	경사	0.13-0.46	Z	30	37	0.19-0.21
				위사	0.19-0.43	Z	26-36		
	끝동	문단	5매2비 수자직	경사	0.19-0.21	Z	110		0.24-0.28
				위사	0.18-0.19	무연	48		
	안감	주	평직	경사	0.27-0.75	무연	29		0.14-0.17
				위사	0.33-0.54	무연	35		
	동정	주	평직	경사	0.16-0.26	무연	32		0.18-0.19
				위사	0.15-0.35	무연	36		
안고름	주	평직	경사	0.17-0.24	무연	28		0.15-0.16	
			위사	0.21-0.32	무연	28			

상의의 길은 밝은 청옥색으로 저명도, 저채도의 파란색 계열이며 소매, 겉마기, 깃에 사용된 토주는 검은색이 약간 가미된 자주색 계통으로 저명도와 저채도의

자주색 계열이다. 그리고 끝동은 회색을 띤 청색으로, 증명도와 중채도의 청색 계열이었다. 안감은 유백색에서도 탁한高明도, 저채도이며 연한 노란분홍색 계열이었으며 동정은 유백색을 띠었는데 高明도와 저채도의 연한 노란분홍색 계열로, 안감과 유사하였다. 안고름은 어두운 회녹색으로 증명도, 저채도의 청록색 계열이었다.

<표2. 선찰사 불복장 불복장 직물의 색차와 색상명>

유물명	구분	색						인지색	색상명
		L	a ⁺	b ⁺	H	V	C		
저고리	길	38.1	-9.9	-9.7	3.46B	3.7	3.07		청색
	소매 무	22.8	16.5	-0.8	8.91RP	2.22	3.33		자색
	끝동	48.5	-5.9	-14.6	9.55B	4.70	3.85		청색
	안감	78.2	6.3	16.0	6.45YR	7.68	2.95		소색
	안고름	36.7	-6.7	0.6	0.31BG	3.57	1.40		청록색
	동정	76.6	9	17.4	4.8YR	7.51	3.49		소색
발원문		49.1	-5.2	-16.1	0.39PB	4.76	4.18		남색

2. 저고리의 구체적 명칭

왕비 유씨 저고리는 새로 제작하여 복장한 것인데 길이로 보면 ‘短赤古里’라고 할 수 있고 색상 조합으로 보면 ‘回粧赤古里’라고 할 수 있다. 저고리 유물은 1차적으로 뒷길이와 품, 화장과 같은 크기에 의해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차적으로는

깃 형태와 옆트임의 유무, 그리고 그 길이, 겨드랑이 무의 구조, 그리고 소재와 색상 배열 등에 의해 분류되고 있다.

또한 단저고리형 상의는 ‘短赤古里’ 혹은 ‘回粧赤古里’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중저고리형 상의는 옆이 막힌 견마기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장저고리형은 옆이 겨드랑이 아래로 길게 트인 저고리인데, 장저고리, 당고의, 또는 당의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고리 유물에 적합한 명칭을 찾는 데에는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있다.

선찰사 복장 저고리[도1]는 단순히 ‘저고리’라고 명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명칭을 찾아본다면,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cm 전후의 ‘단저고리’에 해당된다. 또한 소재의 색상 조합 차원에서 본다면 청색 능직물 길에 자색 토주 깃과 썩, 무, 고름을 달고 소매 끝에 청색 봉화문단 끝동을 낸 ‘회장저고리’라고도 할 수 있다.

회장저고리는 흔히 길과 구별하여 깃과 썩, 무, 끝동에 길과 다른 색상의 소재를 사용한 것을 말하는데 이 유물은 색상 조합에 있어 일반적인 회장저고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장 유사한 배합의 저고리 유물은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진주류씨의 부인인 의인(宜人, 6품) 박씨 묘에서 출토된 저고리[도6②] 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에서 출토된 이 저고리는 왕실이나 반가 여성 저고리의 조형적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이다.



<도6. ①선찰사 왕비 유씨 저고리와 ②진주류씨 부인 박씨 묘 출토 저고리 색상 조합 비교>59)

3. 저고리의 조형적 특징

1) 목서

왕비 유씨 저고리의 안썩 쪽 깃 안쪽에는 깃 끝에서 6.8cm 위쪽으로 9자의 목서가 보인다. 전체 길이 9cm 가량의 ‘丙子生王妃柳氏命衣’라고 하는 목서이다[도7].

59) 경기도박물관, 『진주류씨 합장묘 출토 복식』, 2006, p.24.



<도7. 왕비 유씨 저고리의 목서 위치와 목서 정보>

동시대의 다른 상의류와 마찬가지로, 어깨솔기 없이 만든 저고리이다. 저고리의 뒷길이는 49cm이고, 앞길이는 50cm, 화장 72cm, 뒷폭은 51cm였다. 깃은 겹깃과 안깃 모두 내어 달린 목판깃으로, 깃 너비는 9.5cm이고 길이는 88.8cm이다. 그리고 겹으로 드러난 동정의 너비는 5cm이고 안감 쪽으로 넘어간 동정의 너비는 2cm이며 그 길이는 57.5cm인데 겹깃 끝에서 15cm 올라온 지점부터 동정이 달렸다. 겹섷은 너비 16.5cm, 길이 37.5cm, 안섷은 너비 12cm, 길이 32cm 정도의 크기로 달렸으며 남색 봉화문단 끝동 너비는 8.5cm이다. 좌우 겨드랑이에는 ‘ㄱ자형 무’가 달렸는데 너비는 7.8cm이고 길이는 18cm이다. 겹고름은 28.5cm 길이에 너비 2cm이고 안고름은 28cm 길이에 1.4cm 너비로, 겹고름보다 안고름이 작았다. 저고리의 세부적인 치수는 [표3]과 같고 도식화는 [도8]과 같다.

2) 저고리 제작방법

저고리의 제작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겹감 구성 : 좌우 앞길 겹감의 중심선에 섷을 단다. → 좌우 길 진동선에 끝동을 단 소매를 단다. → 좌우·앞뒤 겨드랑이 부분에 무를 각각 단다. → 뒷중심선을 박는다.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을 향하도록 한다. → 겹감 길에 깃을 단다. → 배래와 옆선을 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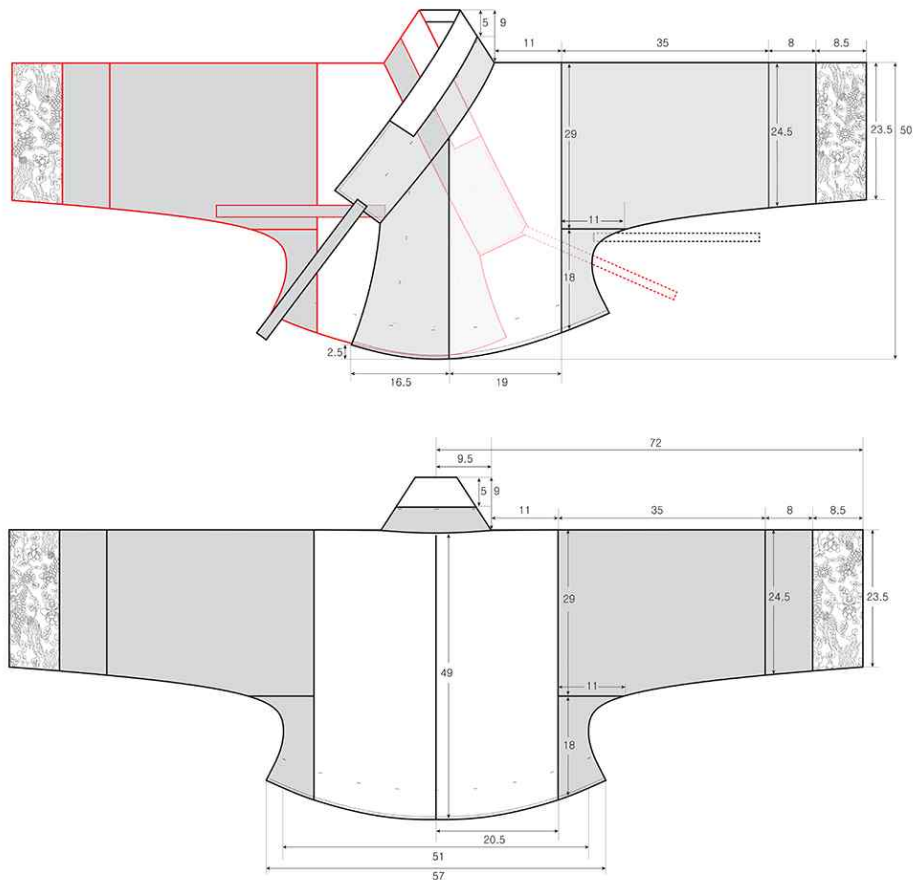
② 안감 구성 : 안감의 앞길 중심선에 섷을 단다. → 길의 섷 반대편에 끝동을 단 소매를 단다. → 좌우 저고리 겨드랑이 부분에 무를 각각 단다. → 뒷중심선을 박는다. 시접은 겹감처럼 입어서 오른쪽으로 둔다. → 안감 길에 깃을 단다. → 배래와 옆선을 박는다.

③ 안팎 끼워 완성하기 : 겹감과 안감이 모두 완성되면 안감의 거죽에 겹감의 거죽이 맞닿도록 안팎의 두 옷을 끼운다. → 좌우 수구를 흠질한다. → 겹깃 안쪽에 풀숨을 얇게 깎는다. → 고대부분을 제외한 겹깃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겹섷선, 앞도련, 뒷도련, 안섷선, 안깃까지 연속적으로 박아서 깃 중앙에 동정 길이보

다 짧은 창구멍을 남겨둔다. → 창구멍으로 뒤집은 후 창구멍을 막고 안감이 밀려 나오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상침을 한다. → 깃 가장자리에 고운 흡질로 솜을 고정 시키면서 장식선을 두른다. → 동정을 단다. → 겹·안고름을 단다.

<표3. 광해군 부인 유씨 저고리 세부 치수>

세부 명칭		치수(cm)
길	뒷길이/앞길이	49/50
	화장	72
	뒤폭	51
	고대	19
소매	진동	28.5
	소매너비(内/中/外)	28.5/25.5/23.5
	수구	23.5
섶	겉섶 너비(上/下)	11.6/16.5
	겉섶 길이(内/外)	37.5/21
	안섶 너비(上/下)	7.5/12
	안섶 길이(内/外)	32/14.5
목판깃	너비	9.5
	길이	88.8
동정	너비(内/外)	2/5
	길이	57.5
무	형태	ㄱ자형
	너비(上/中/下)	11/5/7.8
	길이	18
고름	겉고름(너비/길이)	2/28.5
	안고름(너비/길이)	1.4/28
묵서	너비/길이	1/9



<도8. 선찰사 복장 저고리 실측도(앞·뒤)>

겉감과 안감을 각각 완성하고 거죽이 맞닿도록 끼워 좌우 수구를 박고 겉깃 가장자리부터 겉섶, 도련, 안섶, 안깃 가장자리를 박되, 고대 부분에 창구멍을 남겨 두고 그 곳으로 뒤집어 완성하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저고리 제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깃에는 풀숨을 얇게 두었으며 고운 홉질로 0.5cm 너비로 가장자리 장식 선을 돌렸다. 저고리 가장자리에는 5~7cm 들어온 지점에 세뿔 상침을 하여 안팎이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시켰다. 특히 도련 부분의 시점은 2cm 내외의 너비로 균일하게 잘라낸 것이 특징이다.

3) 부위별 제작법

① 길 : 겉감 길의 뒷 중심선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시점이 되어 있고 저고리가 완성된 상태에서의 안감은 시점이 겉감 시점과 겹치지 않도록 바느질되어 있다. 도련은 1mm의 뿔으로 4~5mm 간격으로 홉질하였고 도련을 따라 시점을 2cm 정도로 모두 잘라 냈다. 겉감과 안감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쪽 도련과 뒤쪽 도련, 깃, 섶, 수구선 등, 가장자리의 5cm 안쪽으로 7cm 간격을 두고 세 뿔 상침[도 9]을 돌렸는데 상침의 크기는 0.5cm 내외이다.



<도9. 도련선 상침(안감쪽)>

② 셔츠 : 겹셔츠는 식서가 길에 달렸고 셔츠 쪽으로 시접 0.7cm를 셔츠 방향으로 시접을 보냈으며 길과 깃과 셔츠가 만나는 점에서 길이 37.5cm이고 바깥 셔츠선의 길이는 21.5cm이다. 셔츠와 길이 닿는 점에서 너비 11.6cm이고 밑 셔츠 도련의 너비는 16.5cm이다. 앞도련선 2.5cm 윗점에서 셔츠코를 따라 밑 곡선을 만들었다. 안셔츠는 길 쪽 길이 32cm이고 바깥쪽 길이 15.5cm이며 너비는 상 7.5cm, 하 12cm로 식서는 셔츠 쪽을 향하였으며 중심선에서 상 2.7cm, 하 1.7cm 안쪽으로 들여서 안셔츠를 달았다.

③ 소매 : 소매는 진동 28.5cm, 수구 23.5cm로, 수구 쪽으로 좁아지는 일자형이다. 자색 주 35cm 한 폭에 같은 옷감 8cm 폭을 덧이어 소매 길이를 맞추었고 그 끝에는 남색 봉화문단 끝동을 연결하였다. 끝동 연결 부위의 시접은 수구 쪽을 향하였으나 그 외의 소매 시접은 모두 길 쪽을 향했다. 소매 배래의 시접은 뒤쪽을 향하였다.

④ 무 : 진동 아래 ‘ㄱ자형 무’로 높이 18cm, 윗 너비 11cm, 아랫너비 7.8cm이며 무의 가장 잘록한 부분은 진동에서 3cm 내려온 부분의 너비는 5cm이다. 무 밑선 도련은 길과 닿은 부분에서 직선으로 3.5cm 올라간 점에서 곡선을 이루었다.

⑤ 깃 : 깃의 형태는 안팎 모두 내어 달은 목판깃으로, 깃 너비는 9.5cm이고 총길이는 88.8cm이다. 겹셔츠 끝에서 좌측 고대점까지는 33cm, 고대 19cm, 우측 고대점에서 안셔츠 끝에 36.8cm이다. 깃에 얇은 풀솜[도10]을 얇게 두었고 깃 가장자리 0.5cm 되는 곳을 돌아가면서 고운 홈질로 솜을 고정시키면서 장식선을 두었다[도11]. 깃너비 중간에도 7cm 간격을 두고 세 땀 상침을 하였다[도12].



<도10. 깃 폴숨(안감쪽)>



<도11. 깃 가장자리 장식선과
겉고름 바느질(안감쪽)>



<도12. 깃 중간
세뿔 상침(안감쪽)>

⑥ 동정 : 겉깃에서 보이는 동정 너비는 5cm이다. 겉깃 끝에서 15cm 위 지점에서 시작하여 고대점까지 20cm, 고대길이 19cm, 고대점에서 안깃으로 18.5cm로 총 57.5cm이다. 안감 깃에 시접 1cm를 두고 2cm 너비로 접어 달았으며 안감 쪽에서 깃 선을 따라 0.5cm 안쪽에 0.5cm 간격으로 2mm 뿔으로 솜뜨기 하였다.

⑦ 고름 : 겉고름은 소매와 섶과 같은 자색 토주로 만들었다. 겉깃의 끝부분의 너비중심에 시접 0.5cm로 이중 박음질로 부착되어 있으며 왼쪽 고름은 왼쪽 길과 겉깃의 닿는 부분에서 1cm 정도 떨어진 곳에 부착되어 있다. 너비 2cm, 길이 28.5cm로, 양쪽이 같은 크기이다. 안고름은 청록색 주로 만들었다[도13]. 오른쪽 안감 겨드랑이 부분에 일자형으로 달려 있으며 왼쪽 안깃에는 바깥 쪽 모서리 부분에 대각선으로 달려 있다[도14]. 너비 1.4cm, 길이 28cm로, 좌우 고름의 크기는 같으며 길에 0.5cm로 접어서 이중 온박음질로 부착하였다. 겉고름과 안고름의 봉재선은 모두 아래쪽을 향하였다.



<도13. 안고름바느질(좌측)>



<도14. 안고름 바느질(우측)>

4. 왕비 유씨와 관련된 상의류 유물들(참고)

선찰사 왕비 유씨 저고리와 관련 있는 유물로는 해인사 소장 ‘中宮柳氏’ 목서의 홍색 토주 겹장저고리(국가민속문화재)와 ‘권시을유심’ 목서의 자색 솜 단저고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광해군비 당의(국가민속문화재)> 세 점이 있다.

선찰사 왕비 유씨 저고리는 해인사 소장의 홍색 장저고리와 단국대학교 소장의

당의 안에 입는 상의이다. 선찰사 왕비 유씨의 저고리는 상궁의 저고리에 비해 좋은 소재를 사용하였다는 차이는 있으나 형태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당의형 저고리 두 점은 모두 당코목판것이었으나 왕비와 상궁의 단저고리는 모두 목판것이 달렸다. 따라서 곁에 입는 장저고리 또는 당의가 안에 입는 저고리에 비해 새로운 유행을 더 빨리 받아들여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이은주·박윤미,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 직물과 왕비 유씨 저고리 고찰」, 『석당논총』 67, 2017.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名選 下』, 2005.
- 문화재청,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② 복식·자수편』, 2006.
- 朴聖實, 「回粧赤古리와 肩尔只 再考」, 『美術資料』 54, 國立中央博物館, 1994.
- 정보문화재연구원,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1999.
- 심연옥, 『한국직물문양 이천년』, 고대직물연구소 출판부, 2006.



○ 현 상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1622년 조성한 상 11구 중 1구에 해당한다. 2015년 12월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 과정 중 복장이 발견되었으며, 조선 후기 왕실 관련 불사를 알려주는 자료로 그 가치가 인정되어 2016년 10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97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안동 선찰사에, 복장유물 일괄은 안동시립민속박물관에 보관중이다.




조사 대상 복장유물은 조성발원문, 후령통 관련 일괄, 저고리, 다라니류, 박상궁 원불 던의디흐나 묵서지편(墨書紙片), 각천비구신호비구주서지편(覺天比丘信浩比丘朱書紙片), 문수보살법인능소정업주(文殊菩薩法印能消定業呪) 등 총 83점으로 보고되었으나 전수 조사 결과 16건 81점으로 확인되었다.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목록은 다음 <표1>과 같다.⁶⁰⁾ <표1>에서 복장유물의 일련번호는 복장공 마개를 제외하고 복장 내에서 꺼낸 순서로 작성되었다.⁶¹⁾


60) <표 1> 문화재청 실사 조사 결과 및 안동시 자체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한불교조계종 선찰사 협의 후 최종 수량을 확인한 결과이다.

61) 박은경·한정호, 「安東 仙刹寺 木造釋迦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一括」, 『도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제2차 회의』, 경상북도, 2016.9.22. pp.32~33; 송은석, 「1622년 慈壽寺·仁壽寺의 章烈王后 發願 佛事와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 『石堂論叢』 6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7, pp.19~21.

<표1.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목록>

연번	지정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사진
1	목조석가여래좌상	나무	1	높이 40.3 무릎 폭 28.0	
2	복장공 마감 다라니 (文殊菩薩法印能消定業呪)	紙 (朱書)	1	22.0×17.4	
3	박상궁원불 던의더흐나	紙 (墨書)	1	5.6×32.8	
4-1	覺天比丘信洁比丘	紙 (朱書)	1	5.5×16.1	
4-2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墨印)	15	18.9×24.2 (광곽 8.9×17.0)	
5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墨印)	3	17.1×23.2 (광곽 8.9×17.0)	
6	方紙圓形다라니	紙 (朱印)	2	18.2×22.5 (바깥 원지름 12.8×11.6) (안 원지름 3.0×2.7)	

연번	지정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사진
7-1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1	17.5×22.4 (광곽 8.9×17.0)	
7-2	方紙圓形다라니	紙 (朱印)	7	18.6×23.9 (바깥 원지름 12.7×11.5) (안 원지름 3.0×2.7)	
8-1	方紙圓形다라니	紙 (朱印)	2	18.2×22.7 (바깥 원지름 12.7×11.7) (안 원지름 3.0×2.7)	
8-2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1	18.5×24.2 (광곽 8.9×17.0)	
8-3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腹藏眞言)	紙 (墨印)	6	28.8×22.0 (광곽 22.4×12.5)	
9-1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墨印)	1	17.8×24.2 (광곽 8.9×17.0)	
9-2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腹藏眞言)	紙 (墨印)	2	26.3×21.1 (광곽 22.6×12.5)	
10	저고리	絹	1	화장(가로 최대) 143.0 높이(세로 최대) 59.5	

연번	지정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사진
11	造成發願文	靑絹 紅書	1	33.5×70.0	
12	方紙圓形다라니	紙 (朱印)	5	18.8×23.4 (바깥 원지름 12.8×11.6) (안 원지름 3.0×2.7)	
13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4	19.0×22.0 (광곽 8.9×17.2)	
14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5	19.0×25.2 (광곽 8.9×17.1)	
15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2	18.2×22.9 (광곽 8.9×17.2)	
16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墨印)	1	19.2×24.6 (광곽 8.9×17.0)	
17-1	喉鈴筒 및 黃絹幅子	혼합 (직물, 금속 등)	1	미개봉	
17-2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5	18.8×21.09 (광곽 8.9×17.1)	

연번	지정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사진
17-3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墨印)	3	19.4×24.5 (광곽 8.8×17.0)	
17-4	方紙圓形다라니	紙 (朱印)	6	17.5×21.3 (바깥 원지름 12.1×12.1) (안 원지름 2.9×2.9)	
17-5	圓紙圓形다라니 (후령통 상부 마감)	紙 (朱印)	2	15.8×13.8 (바깥 원지름 12.8×11.6) (안 원지름 3.0×2.7)	
17-6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후령통 외곽 마감	紙 (朱印)	2	가장 긴 면 23.0 (광곽 8.9×17.0)	

○ 내용 및 특징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의 복장공(腹藏孔)은 불상의 저면(底面)에 마련하였다. 복장공은 직경 약 10.5cm 정도의 원형 마개로 마감되었으며, 복장공 겉면에는 문수보살법인능소정업주를 주서하여 부착하였다. 복장공 내부는 옷칠하여 복장유물을 안립하였다. 복장유물은 조성발원문, 후령통, 저고리, 박상궁원불 던의디흐나 묵서편, 각천비구신희비구주서지편이 있으며, 그 외에는 모두 다라니로 구성되었다<표 1>.

조성발원문은 청색주(靑色紬)에 주서(朱書)하였다. 이러한 형식을 『조상경(造像經)』에서 ‘靑綃紅書’라 하여 청색 비단에 홍색으로 글을 쓰는 법식과 동일하다.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1622년 5월 26일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가 광해군과 세자, 본인, 대군과 공주, 친가 가족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하여 비로자나불 2구, 석가여래 3구, 노사나여래 3구, 아미타여래 2구, 관음보살 1구, 대세지보살 1구 총 11구의 불상과 불화 7점을 조성하여 자수사(慈壽寺)와 인수사(仁壽寺)에 봉안하였고 조상이력을 밝히고 있다. 목조석가여래좌상의 조성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조각승인 현진(玄眞)을 비롯하여 옥명(玉明), 수연(守衍), 응원

(應元), 법령(法玲), 명은(明崙), 청허(靑虛), 성인(性仁), 보희(寶熙), 인균(印均), 경현(敬玄), 지수(志守), 태감(太鑑), 밀연(密衍), 의인(義仁), 성옥(性玉), 승일(勝一)까지 총 17명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그 외에 증명(證明), 화원(畫員), 서기(書記), 사경(寫經), 별좌(別座), 정통(淨桶), 조역(助役) 등 불상 조성에 참여한 소임자를 기록하였다.

저고리는 앞길 50cm(뒷길 49cm)의 단저고리(短赤古里)로 길, 끝동, 그리고 소매와 섶 등이 다른 색의 직물로 제작하여 색의 조합상 회장저고리(回粧赤古里)에 해당한다<표2>.62) 안쪽에 ‘丙子生王妃柳氏命衣’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데, 병자생 왕비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복장으로 안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왕비 유씨는 조성발원문에 기록된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로 추정된다.

<표2. 저고리 목서 및 세부 구성 직물>



저고리 부분	직물 종류	직물 조직
길	무문능	3매 경능직
소매, 무, 깃, 섶, 겹고름	자색토주	평직
끝동	청색화봉문단(靑色花鳳紋緞)	5매 주자직
안감	소색주(素色紬)	평직
동정	소색주(素色紬)	평직
안고름	녹색주(綠色紬)	평직

현재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와 관련된 복식 유물로는 장경관전(藏經板殿) 중수 시 남각 중앙 중도리 받침 아래쪽에서 상량문과 함께 발견된 <광해군 내외 및 상궁 복식>(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 중 <홍색토주겹장저고리>가 있으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광해군비당의>가 있다. <홍색토주겹장저고리>의 안깃 안감에는 ‘丙子生中宮柳氏命衣無病萬歲身如金剛千靈雪消萬福永昌所願如意心神安寧聖神孫繼繼承承’, <광해군비당의>는 동정 안쪽에 ‘丙子生王妃柳氏願命衣’라 목서되었다.63) 3점의 복식 모두 공통적으로 광해군의 정

62) <표2>의 저고리 부분별 직물의 종류와 조직은 이은주·박윤미,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 직물과 왕비 유씨 저고리 고찰」, 『石堂論叢』 6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7, p.52의 [표1]에서 발췌하였다.

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의 장수를 기원하고 있다.

박상궁원불 던의디흐나 묵서편은 ‘박상궁의 원불 전(前)에 의대(衣帶, 옷) 하나’를 시주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박상궁의 원불(願佛)이 선찰사 목조석가여래 좌상을, 의대가 ‘丙子生王妃柳氏命衣’라 묵서한 저고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 각천비구신호비구주서지편은 NO.4-2 方紙方形다라니(大佛頂首楞嚴神呪)를 감싸고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⁶⁴⁾ 박상궁, 각천비구(覺天比丘), 신호비구(信浩比丘)는 모두 조성발원문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다.

복장에 안립된 다라니는 총 3종으로 구분된다<표3>. 방지방형다라니는 주인(朱印), 묵인(墨印)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불정수능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이다. 대불정수능엄신주는 조선시대 복장에서 단독, 보협진언(寶篋眞言, 寶齒眞言)과 함께 인쇄되기도 하며, 다른 진언들과 함께 확인되기도 하는 등 널리 사용되었던 진언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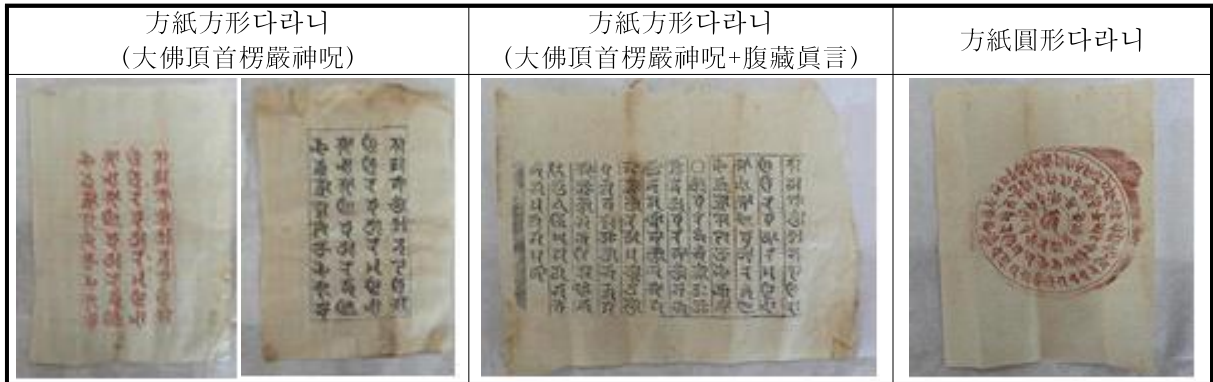
두 번째 방지방형다라니는 대불정수능엄경신주와 함께 『조상경』에 포함된 진언들로 원점을 두어 서로 구분하였다. 『조상경』 관련 진언은 「제불보살복장단의식(諸佛菩薩腹藏壇儀式)」 중 오륜종자(五輪種子, 암·밤·람·함·감), 진심종자(眞心種子, 흙·드락·허릭·악·밤), 사방주(四方呪, 아·마·라·하), 문수사리법인능소정업다라니(음·바·계·타·나·마·스바·하), 그리고 「묘길상대교왕경(妙吉祥大教王經)」의 서두에 있는 오보병 진언인 동방 마노보병의 금강바라밀보살진언(金剛波羅密菩薩眞言, 음·사·드바·바·으리·흙), 남방 마니보병의 보생바라밀보살진언(寶生波羅密菩薩眞言, 음·라·드나·바·으리·드랑), 서방 산호보병의 연화바라밀보살진언(蓮花波羅密菩薩眞言, 음·달·마·바·으리·허릭), 북방 유리보병의 갈마바라밀보살진언(羯磨波羅密菩薩眞言, 음·갈·마·바·으리·악), 중방 수정보병의 근본바라밀보살진언(根本波羅密菩薩眞言, 음·상·가·리·션·디·가·리·우·타·니·카·타·야·살·발·달·사·다·야·스·바·하)의 진언들을 경전의 순서대로 수록하였다.⁶⁵⁾ 형식에 차이는 있지만 『조상경』의 진언을 수록한 다라니는 조선시대 복장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된다. 세 번째 방지원형다라니는 진언을 원상(圓相)형으로 배치하였다. 전체 진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42수 진언 중 보협수진언(寶篋手眞言)을 포함하고 있다.

63) 이은주·박윤미, 앞의 논문, pp.66~70.

64) 송은석, 앞의 논문, p.22.

65) 이 진언들의 순서는 1824년 유점사 『조상경』을 제외한 모든 판본들이 동일하다. 또한 유점사판에는 중방 수정보병의 근본바라밀보살진언을 ‘음·상·가·리·션·디·가·리·우·타·니·가·타·야·살·발·달·다·사·다·야·스·바·하’로 표기하고 있어 다른 판본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3. 다라니 종류>



조성발원문에서 언급한 11구의 불상 가운데 하나로 확인된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1621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불좌상(보물 제2004호)의 복장에서 다라니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기존 연구 자료에서 언급은 생략되었다. 다만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경우 3종류의 다라니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다라니가 확인되어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의 복장 다라니가 간략하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4>.66) 조성발원문에 의거, 함께 조성된 불상이라는 점에서 복장도 유사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표4.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칠보사 목조석가불좌상 복장 다라니>



66) <표4>에서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불좌상 복장 사진은 문명대, 「칠보사 대웅전 1622년작 왕실발원 목 석가불좌상과 복장품의 연구」, 『강좌미술사』 43, 한국미술사연구소, 2014, p.354.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불좌상(보물 제2004호)의 복장



후령통은 <표1>의 목록 중 NO.17-5 원지원상다라니로 상부를 덮고 NO.17-6의 방지방형다라니(대불정수능엄신주) 2장을 이어 붙여 감싼 형태로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원지원상다라니는 방지원형다라니를 원형으로 잘라 만든 것으로 2매를 사용하였다. 17세기 복장 중 후령통은 황초폭자만으로 포장되거나 다라니, 또는 경전에 감싸인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에서 2종의 다라니 4매를 사용하여 후령통을 감싸고 있는 것도 유사 형식으로 추정된다.

근봉지(謹封紙)는 한지를 사용하였으며, 증명스님의 법명은 생략한 채 ‘謹封’으로만 주서하였다. 근봉지 안쪽에서 말아감은 오색사(청색·홍색·백색·아청색·황색)가 황초폭자를 길게 감고 있으며, 황초폭자의 끝부분은 +자형으로 교차하여 묶었다<표5>. 이러한 형식은 1824년 유점사 『조상경』 「황초폭자내안립차제(黃綃幅子內安立次第)」에서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다.⁶⁷⁾ 비록 복장의 안립 시기인 1622년과 1824년 유점사 『조상경』의 간행 시기가 서로 부합되지 않으나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후령통의 형식이 17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일반적인 후령통 안립 형식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67) 『造像經』, 「黃綃幅子內安立次第」條, 1824년 楡岾寺.

‘黃綃幅子內先安願文 次安寶篋呪 次安天圓地方所裏喉鈴筒 以黃綃幅子包裹 並以幅子頭及五色線合 而回之曲着於背後 因以五色線 半回堅裏半回橫裏 線盡然後 以准提呪堅封 以法印呪橫封 於南面書證明 稱臣謹封 後 奉安於壇上 誦呪法師 念不動尊眞言 加持一百八遍…既加持已 闍伽供養後 入於佛腹中 正當臍輪而正立 以眞言梵書充滿上下左右 使無欹斜偃仰之境 初入藏之時 徐徐當察南北面背也 奉安於香囊如之也.’

<표5. 1622년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후령통>



황초폭자는 황색주(黃色紬)를 사용하였으며, 식서가 없는 푸서 2면은 접어 바느질하였다. 황초폭자에는 청색·백색·주색 등으로 기록된 범자가 확인된다. 범자의 종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방위색을 적용하여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기록 방식은 조선 후기 황초폭자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당시 형식을 따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후령통은 현재 해체하지 않아 정확한 물목 구성과 안립 형식을 알 수 없다.

검 토 사 항

Ⅲ.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23-06-007

7. 복원수회첩 (北園壽會帖)

가. 검토사항

‘복원수회첩’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13.8.19.)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복원수회첩’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0.4.2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5.3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복원수회첩(北園壽會帖)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첩
- 규 격 : 41.4×30.2cm
- 재 질 : 견본채색, 종이
- 형 식 : 첩(帖)
- 조성연대 : 1716년(조선 숙종 42)
- 제작자 : 그림 정선(鄭敼), 발문 박창언(朴昌彦) 등



<북원수회첩>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 <북원수회도>는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산수화가로 잘 알려진 정선이 사가 기록화 및 풍속화적 표현에도 뛰어난 화가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회화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특히 정선은 수묵남종화 계통의 호방한 필치의 산수화로 화명을 떨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이 작품은 『신묘년풍악도첩』과 같은 금강산 그림과 함께 채색을 사용한 섬세하고 공교한 그림을 그리던 그의 1710년대 화풍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기지정 국가지정문화재들이 대부분 정선의 산수화이기에 숙종 후반기 서울 명가(名家)의 문화뿐 아니라 하층민에 이르는 다양한 인물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고 있는 풍속화적 기록화라는 점에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북원수회첩>에는 이러한 정선의 그림뿐 아니라 서울 북악산 아래 장의동에 거주하던 노론 명가들의 자부심이 깃든 모임의 정황과, 회방연과 관련된 이광적, 장동 김씨를 대표하는 김창집, 정선의 외숙인 박견성과 외사촌 박창언, 정선의 지우인 이병연 등 정선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들 등 숙종 후반기에 활동한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과 관련된 시문들이 함께 성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예술적 가치 뿐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학술 가치도 높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北園壽會帖은 1716년(숙종 42, 병신) 장의동 李光迪(1628~1717)의 집 북원에서 열린 기로회를 기념하여 제작된 서화첩이다. 주인공 이광적과 좌목에 적힌

15인의 인물들 주 다수가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란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 북원수회첩의 맨 앞 실린 정선의 <북원수회도>는 희귀한 정선의 초기작일 뿐 아니라, 흔한 진경산수화가 아닌 기록화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 북원수회첩은 그림과 발문, 참석자들의 시문 등이 빠지지 않고 잘 갖추어진 조선시대 민간 수회첩으로 희귀한 예이다. 또 이를 통해 18세기 초 백악, 인왕산 기슭에 살며 시서화를 즐기던 은퇴한 문인들의 면모와 생각이 시문 등에 잘 드러나 풍속사, 사회사적 자료로서도 중요하다.
- 이상의 여러 점에서 북원수회첩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북원수회첩》은 이광적(李光迪, 1628~1717)이 1716년 9월 16일 회방연을 치른 다음, 한양 장의동의 기로 15명을 10월 22일 다시 자신의 집에 초대했던 기로회를 기념하여 그린 사가기록화로서, 18세기 초반 한양 장의동 일대에 세거했던 문인들의 삶과 교유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 《북원수회첩》은 기로회 장면을 사진처럼 기록한 그림과 좌목의 인적 사항, 서문과 시 15수 및 발문을 통해 조선 후기의 기로연을 입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
- 《북원수회첩》은 17세기까지 축(軸)으로 제작되던 기로회도(耆老會圖)가 18세기 초반에 화첩 형식으로 바뀌었음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주목된다.
- 《북원수회첩》은 정선(鄭敼, 1676~1759)이 진경산수화뿐만 아니라 기록화 방면에도 탁월한 재능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기념작으로 회화사적 가치 또한 높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현 상

- 화첩은 총 20장이며, 비단에 채색으로 그려진 첫 장의 정선(鄭敼, 1676~1754) 그림에 이어 좌목(座目), 시전지(詩箋紙) 등 다양한 종이에 적힌 15인의 시문, 그리고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시문과 발문 사이에는 1장(2면)의 빈 면이 있고 발문은 3면에 걸쳐 있다.
- ‘북원수회좌목(北園壽會座目)’이라고 적힌 표제를 통해 정선의 그림이 <북원수회도(北園壽會圖)>임을 알 수 있다. 후대에 개장된 겉표지에는 ‘정겸재실사북원기회회전경도(鄭謙齋實寫北園耆老會全景圖)’라고 적힌 흰 종이가 붙어 있다.
- 그림 상단 가운데 충해를 입어 그림이 일부 탈락되었다. 또한 그림 좌우에 액체가 스며든 것 같은 둥근 오염 자국이 크게 나 있다. 이 오염은 첫 장의 그림 부분이 가장 심하고 이어 두 번째 장의 좌목에서 세 번째 장의 서문까지 동일한 오염 자국이 이어진다. 이렇게 첫 장에 좌우 대칭의 오염이 가장 심하게 생긴 것으로 보아 화첩이 접힌 상태로 표지 부분에서 얼룩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표지 앞장의 오염이 가장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연유로 표지 부분만 새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 접혀 있을 때의 화첩 크기는 41.4×30.2cm다. 그림의 크기는 39.1×54.4cm다. 그림 테두리는 18세기 전반에 많이 사용된 넝쿨 문양의 옥색 비단으로 얇게 장황되어 있다. 화면 좌우의 표장 비단 크기는 각각 2.9cm와 3.1cm이며, 하단의 비단은 0.7cm이다. 그림의 윗부분 테두리는 색이 다른 녹색 비단으로 덧대었는데, 하단 테두리의 약 2배 크기인 1.35cm다.
- 현 화첩은 김창집의 시문과 박창언의 발문이 지어진 1718년 무렵에 성첩된 후, 지금까지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겉표지 제외). 그림과 좌목에 이어 행사가 개최된 1716년 10월 22일 당일과 늦어도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에 쓰인 12수 및 행사에 참여 못했으나 1717년 12월에 뒤늦게 쓴 시한 편 등 좌목에 이름을 올린 총 13인의 시문들이 각 1장씩 실려 있다. 이어 1718년 1월에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이 시전지에 쓴 시가 한 장을 차지하고 있다. 1718년 4월의 박창언 발문 작성 이전에 이들 14장의 시문과 함께 좌목에 이름을 올렸으나 그때까지 시문을 쓰지 못했던 2인을 위해 두 장의 빈

지면을 남겨 놓고 발문이 적힐 마지막 장을 더해 성첩한 것으로 보인다. 시를 짓지 못한 김창국과 이항변은 행사 무렵부터 병중에 있다가 각기 1717년과 1718년에 사망했기에 이 두 장은 계속 빈 채로 남아 있다가 모임 38년 후인 1754년에 화첩 소유자의 요청으로 김이건(金履健)이 이 중 한 장에 시를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유로 마지막 시문과 박창언의 발문 사이에는 1장이 결국 빈 지면으로 남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박창언은 할애된 한 장을 넘겨 발문을 썼기에 발문의 3번째 면은 앞 장과 달리 화첩 뒤표지인 이면지에 적혀 있다.

- 좌목 상단에 적힌, 인찰 위의 참석자들에 대한 졸년(卒年) 병기는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 그림 우측 하단에 “北壯洞人鄭叡元伯敬寫”라는 관서와 ‘鄭叡’이라는 백문방인이 찍혀있다.

○ 내용 및 특징

- 이 작품은 1716년에 회방(回榜)을 맞은 은암(隱巖) 이광적(李光迪, 1628~1717)에게 숙종이 꽃과 쌀·고기·베·비단을 내리자 9월에 회방연 잔치를 연 것을 계기로 이해 10월 22일에 이광적의 집 사랑채에서 장의동(藏義洞)에 거주하던 노론계 원로들이 모인 기로회(耆老會)를 기념한 그림이다.
- 이광적은 1652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병신(丙申)년인 1656년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이광적의 회방연에는 동방급제자들이 모두 사망하여 그들의 아들과 손자들이 잔치에 참석했다고 한다. 이 작품은 이러한 이광적의 회방연과는 별개로 정선의 외숙인 박견성(1642~1728)이 실무적으로 주관한 동리의 70세 이상 노인들의 모임인 ‘북원수회(北園壽會)’의 장면을 그린 것이다.
- 장의동에 거주하던 노론계 명사들의 자부심이 담긴 그림답게 정선 역시 ‘장동인’임을 밝힌 “北壯洞人鄭叡元伯敬寫”라는 관서를 그림 우측 하단에 적었다. 관서 아래로 ‘鄭叡’이라는 백문방인이 찍혀있다. 이 관서의 글씨는 호림박물관 소장의 《기해년화첩》 중 <설경산수도>에 적힌 ‘元伯’이라는 관서와 매우 유사하다. 이 작품은 1719년 10월에 정선이 이하곤(李夏坤)을 위해 그려준 그림으로,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이 두 작품의 관서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정선 그림에 적힌 관서와 인문을 살피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 <북원수회도> 하단 전경의 수목 표현 역시 1719년에 제작된 《기해년화첩》 중 <춘경산수도>의 초가 주변 나무 표현법과 유사하다.
- 박견성은 행사 당일에 병으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대신 서문과 칠언절구 두 수를 지어 보내 참석자들이 연(筵), 선(仙), 연(然) 자를 운(韻)으로 그의 시에 차운하도록 하였다. 박견성의 서문과 절구 두 수는 다음과 같다.

- 奉呈耆老會席上并序

夫洪範五福之疇 壽居其一 鄒書三達之序 齒居德先 信乎 壽者人之所難得而福之所以基也 噫 俯仰今古人物何限而 能得遐耆者 十無一二 古人所謂 人生七十 古來稀者 非耶 通古今論之 尙且如此 況今生竝一世 居共一洞 七十以上之年者 至於十五六之多 此豈非人間稀貴事歟 茲涓吉辰 約會于尙書丈李公之第 竹輿藜筇 循次而至 童顏鶴髮 序齒而坐 舉盃相屬 怡然自樂 其聳動一時之觀瞻 夸耀後來之耳目 豈有過於此者乎 況主人丈以九袞之年 纔經回榜之宴 慶席甫罷 餘歡未已 繼有此今日之會 此又古今之所未聞也 不佞亦忝諸老之列 在於要束之中 而魔有所戲 身恙猝飢 不得廁於席末 此亦有數存於其間耶 病裡瞻望 不勝慨悵 茲構二絕 仰塵僉照

南極星光耀此筵，座中諸老洞中仙。
無端一疾違佳約，翹首東鄰倍悵然。

北山高設老翁筵，皓首厖眉十一仙。
洛社耆英今復見，風流宜若宋人然。

柔兆涓灘陽月下弦前一日 七十五歲老人 凝川朴見聖手書仰呈

- 서문에서 박견성은 한 동네에 함께 살며 나이가 70세 이상인 사람이 십오륙 명이나 된다고 하였는데, 좌목 첫머리의 ‘북원수회좌목(北園壽會座目)’ 글씨 아래로 이 모임의 성격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丙申十月二十二日 會于藏義洞隱巖李公之第 非洞中諸賢不得預 獨李富平丈 以此洞爲其外家 而又時居鄰洞 邀請入會 亦用洛社中王宣徽故例云.” 즉 이 모임에는 같은 동네의 제현(諸賢)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직 부평富平 이세유(李世瑜, 1642~1722)만이 그 외가가 장의동이며 또 당시 이웃 동네 살고 있어 초청하여 입회했다고 한다.
- 박견성은 서문에서 이 날 이광적 저택에 모인 이들이 나이순으로 앉아 술잔을 들어 서로 권하며 유쾌하게 즐긴다고 적었는데, 그림에 이은 좌목에도 89세 이광적부터 70세 김은(金澂)까지 나이순으로 적혀 있다.
- 좌목에 적힌 15인은 다음과 같다. 資憲大夫, 前工曹判書, 李公光迪(89세), 通政大夫, 僉知中樞府事, 崔公邦彥(83세), 通訓大夫, 前行寧陵參奉, 韓公載衡(82세), 通訓大夫, 前行漢城府庶尹, 成公至行(77세), 通訓大夫, 行司宰監僉正, 朴公見聖(75세), 通訓大夫 前行富平府使 李公世瑜(75세), 建功將軍, 行龍驤衛司勇, 朴公

震龜(74세), 通訓大夫, 前行司僕寺僉正, 成公至敏(74세), 通政大夫, 僉知中樞府事, 南公宅夏(74세), 通訓大夫, 行漢城府庶尹, 李公之星(74세), 通政大夫, 僉知中樞府事, 金公尙鉉(74세), 通訓大夫, 前行成川府使, 金公昌國(73세), 通德郎, 李公恒蕃(72세), 通訓大夫, 前行加平郡守, 李公涑(70세), 奉列大夫, 前行長寧殿參奉, 金公濼(70세).

- 좌목에 적힌 이들 중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은 4명이다. 박견성, 김창국, 이항번 옆에는 ‘病未赴席,’ 즉 병으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고, 성지행 옆에는 ‘退居坡州’라고 하여 그가 은퇴하여 과주에 거주해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준다.
- 정선의 그림에는 사랑채 북벽에 남면을 하고 이광적이 앉아 있으며 그 주변으로 참석한 11명의 기로들이 그려져 있다. 동쪽 편에는 자제들이 배석해 있는데, 좌목에 의하면 기로 자제 11명과 여항 시인 장응두(張應斗, 1670~1729)가 배석했다고 한다. 그림에 그려진 손주들인 동자 4명의 이름도 좌목에 보인다.
- 배석한 자제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李衡輔 韓璠 朴廷珪 金奎煥泰煥 李秉淵秉成 及李奎臣奎賓隱巖兩孫 崔普命崔僉知長孫 李恒重李加平長孫 童子 永得衡輔子 高壽秉淵子 晚熊秉成子尹鐵壽李加平外孫陪席 驪湖張詩人應斗亦參.”
- 좌목 말미에는 같은 동네의 김창집(金昌集, 69세), 선조(宣祖)의 3세손인 동원군(東原君) 이집(李滌, 66세), 김창흡(金昌翕, 64세) 등 세 사람도 모임에 가입시키자고 하였으나 모두 일이 있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洞中夢窩金相公昌集戊子生六十九 東原君滌 宣廟三世孫辛卯生六十六 三淵金先生昌翕癸巳生六十四 諸議亦欲用狄秘監司馬公例 邀三公入社 而適皆有故 未果 可見吾洞先輩之盛.”
- 그런데 정선의 <북원수회도>를 감상하며 1718년 4월에 발문을 쓴 박견성의 삼남 박창언(朴昌彦, 1674~?)은 이 모임의 좌차(座次)가 벼슬이나 나이순이 아닌, 도착한 순서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 이 화첩의 시문들 중에서 행사 장면을 그린 정선의 그림을 언급한 시문들은 1718년 김창집의 시와 1718년 박창언의 발문, 그리고 후대에 쓰인 김이건의 시다. 당일에 행사에 참여한 이들 중에서는 오직 박진구(朴震龜, 1643~1730)만이 그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好倩龍眠傳繪事, 莫教奇蹟竟寥然”이라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구절은 정선의 그림을 특정하기 보다는, “용면(龍眠), 곧 화가로 하여금 이 장면을 그려서 전하게 한다면 좋을테니, 그 기이한 자취가 다함이 없을 것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 정선 그림이 행사 당일에 제작되었음을 확실히 알려주는 근거로 들기는 어렵다.
- 정선은 이광적 저택 사랑채 안에 자리한 기로들과 자제들, 어린 동자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렸을 뿐 아니라, 마치 한 폭의 풍속화와 같이 섬들 아래 나

란히 앉아 있는 기로들의 겸종(僉從)들과 계단 위에 술과 올릴 음식을 놓은 상을 두고 앉아 있거나 또 중문에서 상을 이고 오는 각 기로들의 여노(女奴)들을 초록색, 분홍색 저고리 등을 입은 모습으로 화사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때로 이목구비가 그려지지 않은 정선 산수화 속 인물들과 달리 이 작품의 인물들의 이목구비는 모두 세밀히 그려져 있다. 현재 호분이 사용된 창문과 인물 등은 검게 변했는데, 이렇게 호분과 채색을 사용하며 정선은 각종 수목과 건물, 인물 등을 매우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 정선 그림의 풍속화적 표현은 박창언의 발문을 통해 강화된다. 박창언은 행사 당일 부친을 모시고 참석하지 못했으나 정선 그림을 통해 행사 당일의 일을 매우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그는 담밖에 푸른 옷을 입고 상을 든 한 여자는 주인집의 비자(婢子)라고 하였으며, 서쪽 섬돌 아래 비스듬히 놓인 가마는 한재형이 타는 대나무로 만든 남여(藍輿)고, 남여 아래 흩어져 앉은 다섯 사람은 교부(轎夫)와 청지기라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는 당일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 서운함이 오래도록 맺혀있었는데, 지난번에 내형(內兄) 정군(鄭君) 원백(元伯)이 모사한 그림을 보니 그 형용이 섬세하고 빠트린 것이 없어(形容纖悉不遺) 흡사 실제 모습(眞像)을 보는 듯했다고 칭송하였다. 박창언의 발문은 다음과 같다.

- 夫朝廷有饗食之禮 鄉黨有飲射之儀 而以爵以齒者 卽所以明尊卑序少長也 今此北園耆老之會 出於一時眞率之意 故不以爵不以齒 而但以至之先後爲坐次 尙書李丈以主人 爵最高年又最先 故於房內背北面南而爲首坐 其次韓丈先至 故自尙書座而稍西面東而坐 崔丈次之 自此而南面北而坐者 李富平丈而 成丈南丈次之 又於軒上設座 坐於南丈之右而向北者 僉知金丈 而其次庶尹李丈 又於軒北對僉知丈而坐者 金參奉丈 其次朴生員丈也 其次則李嘉平丈也 此其耆老之坐次 又於軒東隔一楹間一席 而別爲一座 凡十二人皆耆老家子弟也 雜坐無序 不能悉記其坐次 張生應斗 亦以詩人預焉 又有四童子參廁於其間 其立尙書丈之右者 卽其孫永得也 或坐或立於嘉平丈之側者 卽其孫高壽晚熊 及其外孫尹鐵壽也 於軒砌之下列坐散立者 皆各員之所事僉從也 於階上鋪列杯盤而坐 又於中門之內戴卓而來者 各員家女奴 以所進盤羞待候者也 墻外一女子 衣青而執卓者 主人家婢子 自內而出者也 西砌下橫輿 卽韓丈所乘藍輿也 輿下散坐五人 卽其轎夫及廳直也 中門外僕馬之散立者 皆諸公之所率所騎也 此皆繪素中所模寫 耆老之列坐 凡十一員 子弟之陪席 亦十二人 並四童子 合二十八人 老少齊集 相對怡然 舉杯交酬 終日同樂 豈非曠世之盛事 家君以耆老之一 實主張茲事而 疾作未赴 小子既未得親陪杖履 獲瞻盛舉心焉耿耿 久而靡弛 乃者內兄鄭君元伯模寫 形容纖悉不遺 一見 恍然如奉眞像 不勝瞻仰愛慕之意 釋其圖如此 以便後之覽茲帖者云爾 歲戊戌四月上澣 侍生 朴昌彦敬識

- 정선이 <북원수회도>에서 보여준 이렇게 생생한 풍속화적 표현은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이후)의 <기로세련계도(耆老世聯稷圖)>에 비견된다. 마치 그 현장을 직접 보게 하는 것과 같이 실감나게 묘사해 낸 ‘속화체’ 묘사법으로 개성 만월대(滿月臺)에서 열린 기로회를 그린 김홍도의 그림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정선의 풍속화가적 면모를 엿보게 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 문헌자료

- 『숙종실록(肅宗實錄)』.

○ 지정사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정선의 작품은 국보 2건을 포함한 모두 11건으로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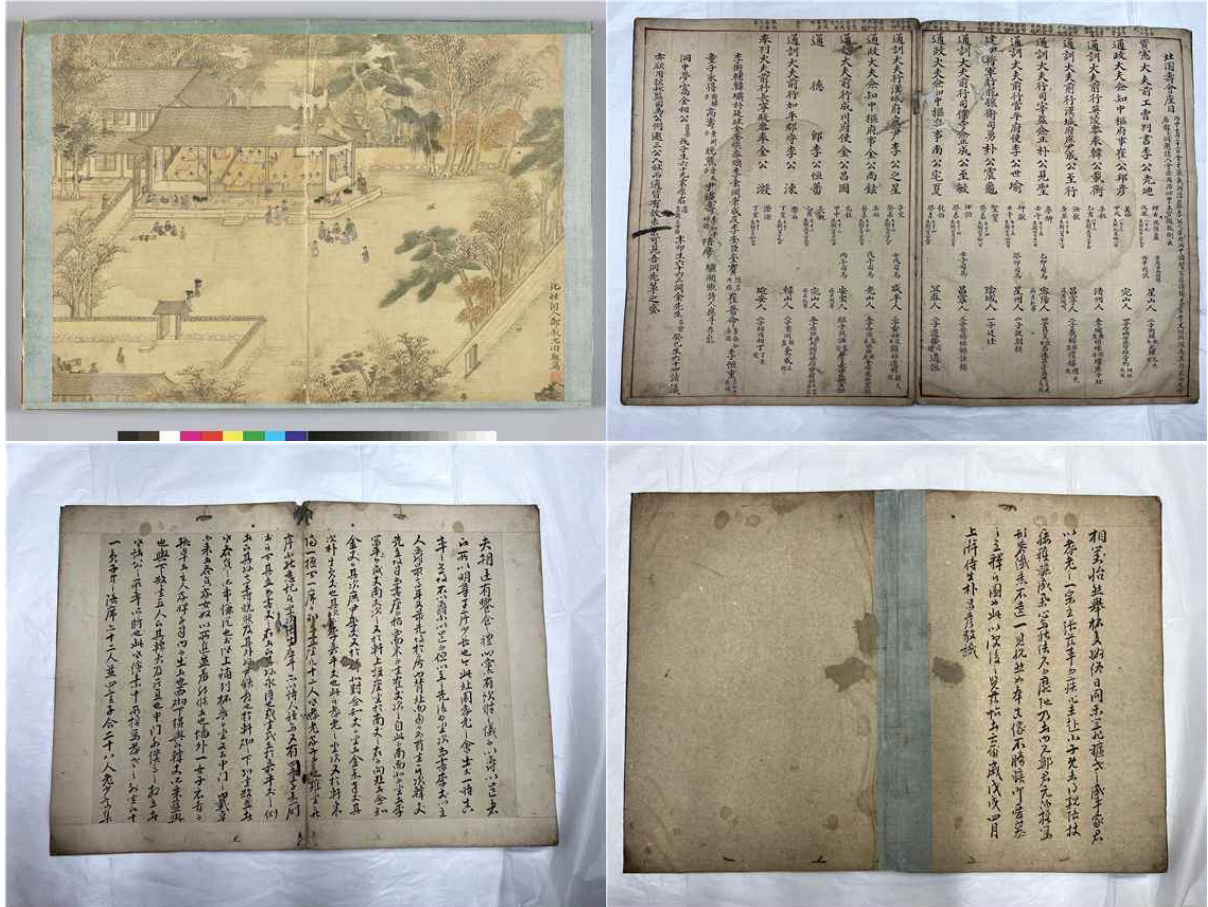
- 정선 필 인왕제색도(鄭敼 筆 仁王霽色圖)(국립중앙박물관) '84.08.06. 국보지정.
- 정선 필 금강전도(鄭敼 筆 金剛全圖)(삼성문화재단) '84.08.06. 국보지정.
- 정선 필 육상묘도(鄭敼 筆 毓祥廟圖)(개인소장) '86.10.15. 보물지정.
- 정선 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鄭敼 筆 海嶽八景 및 宋儒八賢圖 畫帖)(개인소장) '13.02.28. 보물지정.
- 정선 필 풍악도첩(鄭敼 筆 楓嶽圖帖)(국립중앙박물관) '15.04.22. 보물지정.
- 정선 필 해악전신첩(鄭敼 筆 海嶽傳神帖)(간송미술문화재단) '17.12.26. 보물지정.
- 정선 필 경교명승첩(鄭敼 筆 京郊名勝帖)(간송미술문화재단) '17.12.26. 보물지정.
- 정선 필 풍악내산총람도(鄭敼 筆 楓嶽內山總覽圖)(간송미술문화재단) '17.12.26. 보물지정.
- 정선 필 청풍계도(鄭敼 筆 淸風溪圖)(간송미술문화재단) '17.12.26. 보물지정.
- 정선 필 여산초당도(鄭敼 筆 廬山草堂圖)(간송미술문화재단) '17.12.26. 보물지정.
- 정선 필 청풍계지각(鄭敼 筆 淸風溪池閣)(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19.04.10.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 참고문헌

- 유홍준, 「회방연회도: 진경시대를 알리는 잔치 그림」, 『가나아트』 7·8월 호, 1990.
- 이해경·하영휘, 「鄭敼의 <北園壽會圖>와 《北園壽會帖》」, 『미술자료』 78, 2009.
- 조규희, 「김홍도 필 <기로세련계도>와 ‘풍속화’적 표현의 의미」, 『미술사와 시각문화』 24, 2019.
- 최완수, 『검재 정선』 1, 현암사, 2009.

○ 기 타

- 2009년 경제 테마 특별전에서 발굴 소개됨.
- 2018년 11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 손창근씨로부터 ‘손세기·손창근컬렉션’으로 기증됨.



□

○ 현 상

北園壽會帖은 짙은 하늘색 비단으로 앞뒤가 꾸며진 서화첩이다. 앞면에는 흰색 종이로 제첩을 붙였는데, 그 위에 ‘鄭謙齋實寫北園耆老會全景圖’라 墨書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는 ‘石圃’ 인장이 찍혀 있어 기증자 孫昌根 선생의 부친 孫世基 선생이 제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표지는 제첩을 한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앞뒤면 모두 약간의 변색 이외에는 보존상태가 양호한 형편이다. 전체적으로 북원수회첩은 총 20장 40면인데, 정선의 그림 1폭, 좌목, 시 15수,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40면이지만 전부 좌우 2면을 한 폭으로 삼아 그림이나 시가 적혀

있기 때문에 전체 20장면이 된다. 그림과 시 등 내용도 일부 벌레 먹은 자국이나 오염 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보존상태를 보여준다.

○ 내용 및 특징

北園壽會帖은 1716년(숙종 42, 병신) 10월 22일 장의동 李光迪(1628~1717)의 집 북원에서 열린 기로회를 기념하여 제작된 서화첩이다. 이 서화첩의 맨 앞에는 정선의 <북원수회도>가 수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북원수첩은 총 20장 40면인데, 정선의 그림 1폭, 좌목, 시 15수,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前記한 데로 전체 20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서화첩의 내용과 만들어진 경위 등은 가장 이 행사를 주도한 정선의 외삼촌 朴見聖의 시 「奉呈 耆老會 席上 并序」에 잘 드러나 있다. 또 정선이 그린 <북원수회도>의 묘사내용에 대해서는 이 서화첩의 마지막에 실린 정선의 외사촌형 朴昌彦(1674~?)의 발문에 잘 설명되어 있다. 박창언은 朴見聖의 아들이다. 이하 전체 20장면의 내용 및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제1장면 : 정선, <北園壽會圖>

俯瞰法으로 이광적의 저택에서 열린 기로회의 전경을 묘사하였다. 기로회도가 열린 큰 팔작지붕의 기와집을 약간 좌상단에 치우친 곳에 배치하고 그 아래와 옆을 넓은 뜰로 남겨 일반적 궁중행사도와 달리 자연스럽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 건물 내부에는 방석을 깔고 앉은 참석자 11명을 그렸고, 그 오른쪽에는 수행한 자제들을 그렸다. 건물 바깥에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나르는 여자들, 참석자를 모시고 온 가마와 가마꾼 등이 자유롭게 앉거나 선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이 그려진 1716년은 정선이 41세 때에 해당하며, 초기작이 드문 정선의 작품 중 귀중한 사례에 속한다. 건물을 묘사한 치밀하고 정확한 필선, 畫譜風이 농후한 樹枝法 등에서 정선의 초기작임이 잘 드러나 있다. 접힌 부분과 상단 일부에 박락이 있으나 그림의 중요 부분은 양호하다. 오른쪽 아래에 ‘北壯洞人鄭叡元伯敬寫’라고 墨書하고 ‘鄭叡’ 백문방인이 찍혀있다.

한편 정선이 그린 <回榜宴圖>가 소개된 적이 있는데, 이 작품과 거의 같은 내용을 지녀 주목된다. 화풍상 이 작품보다 후대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후일 참석자 중 누구의 부탁으로 묘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회방연도>의 경우 날장 그림과 글씨 한 폭만 전해진다 한다.

△ 제2장면 : 좌목

이광적부터 나이순으로 15인 이름이 적혀 있다. 참석 못한 4인의 본관 옆에 ‘病未赴席’, ‘退居坡州’ 등의 사유가 적혀 있다.

- | | |
|------------------------|---------------------|
| 1. 이광적(李光迪, 1628~1717) | 2. 최방언(崔邦彦) |
| 3. 한재형(韓載衡) | 4. 성지행(成至行) ‘退居坡州’ |
| 5. 박견성(朴見聖) ‘病未赴席’ | 6. 이세유(李世瑜) |
| 7. 박진귀(朴震龜) | 8. 성지민(成至敏)* |
| 9. 남택하(南宅夏) | 10. 이지성(李之星) |
| 11. 김상현(金尙鉉) | 12. 김창국(金昌國) ‘病未赴席’ |
| 13. 이항번(李恒番) ‘病未赴席’ | 14. 이속(李速) |
| 15. 김은(金澗) | |

* 성지민(成至敏)은 뒤에 적힌 시에서는 성지행(成至行)으로 표기되었음. 15인의 명단 뒤에는 호종한 후손들 명단이 열거되었다.

△ 제3장면 : 박견성의 시 「奉呈耆老會席上并序」

행사의 실제적 주도자였으나 당일 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이 글에 행사의 경위와 소감을 자세하게 적었다.

대저 홍범(洪範) 오복(五福)의 범주에 장수가 그 하나로 속한다. 「맹자」에 세상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세 가지 순서가 있는데, 나이가 덕(德)보다 앞이다. 진실로 장수는 사람이 얻기 어려우며 복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아! 고금을 살펴볼 때 어찌 인물에 한정되었는가. 그러나 장수하는 사람은 열에 한둘도 되지 않는다. 옛사람이 이른바 “인생 칠십이 예로부터 드물다.”고 한 것이 그렇지 않은가. 고금을 통틀어 논해도 이러한데, 하물며 지금 한 시대에 나란히 태어나 한 동(洞)에 함께 살며 나이가 70세 이상인 사람이 십오륙 명이나 된다. 이것이 어찌 세상에 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좋은 날을 잡아 약속하여 판서(判書) 어른 이공(李公) 자택에 모였다. 대나무 가마를 타고 명아주 지팡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차례차례 이르러 젊은이와 늙은이가 각각 무리지어 앉아 술잔을 들어 서로 권하며 유쾌하게 즐기니, 한때 보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앞날의 이목을 눈부시게 하는데, 어찌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 하물며 주인장은 구십 나이에 과거에 합격한 지 60주년에 회방연을 치렀는데, 잔치 자리가 끝나고 여흥이 식기도 전에 오늘 모임이 계속 있으니, 이것 또한 고금에 들어보지 못한 일이다. 나 또한 부끄럽게도 여러 노인의 대열에 끼어 모이기로 약속한 사람 중에 들었으나, 잡귀의 장난으로 신병(身病)이 갑자기 극심하여 말석에 참석하지 못하니, 이 또한 그 사이에 운수가 존재하는 것인가? 병중에 바라보며 서글픔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하여 절구 두 수를 지어 여러분께 바친다.

南極星光耀此筵 남극성이 자리를 빛내니
 座中諸老洞中仙 좌중의 여러 노인은 동네의 신선이네.
 無端一疾違佳約 까닭 없는 병으로 아름다운 약속을 어겨
 翹首東鄰倍悵然 머리 들어 동쪽 이웃 바라보니 갑절이나 서글프구나.

北山高設老翁筵 북산에 늙은이 잔치 높이 여니
 皓首顰眉十一仙 흰머리 희끗희끗한 눈썹의 열한 분 신선 모였네.
 洛社耆英今復見 낙사의 기영회를 이제 다시 보는 듯하여
 風流宜若宋人然 풍류가 마치 송나라 사람 같도다.

병신년(丙申年) 10월 22일 75세노인 응천 박현성이 써 올린다

△ 제4장면~제15장면 : 좌목에 있는 12인이 박견성의 시에 차운한 시들

- 4장면 이광적(李光迪)의 시
- 5장면 최방언(崔邦彦)의 시
- 6장면 한재형(韓載衡)의 시
- 7장면 이세유(李世瑜)의 시
- 8장면 박진귀(朴震龜)의 시
- 9장면 성여눌(成汝訥)의 시
- 10장면 남택하(南宅夏)의 시
- 11장면 이지성(李之星)의 시
- 12장면 김상현(金尙鉉)의 시
- 13장면 이속(李速)의 시
- 14장면 김은(金澗)의 시
- 15장면 성지행(成至行)의 시, 정유납월 1717년 설달
- 이상 12인과 박견성을 합해 축시를 지은 이는 모두 13인

△ 제16장면 : 모임 2년 후 김창집(金昌集)의 시

끝에 이광적이 막 세상을 떠났다고 씀. 무술 1718 맹춘.

△ 제17 장면 : 모임 38년 후 김이건(金履健)의 시

갑술 1754년 9월 동네 후생 안동 김이건 삼가 씀.

△ 제18장면 : 白面

△ 제19·20 장면 : 박창언(朴昌彦)의 발문

무술 1718 4월 상한. 그림에 그려진 참석자, 수행자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상 <북원수회첩>은 이광적의 回榜을 계기로 같은 동네 노인들이 모여 기로회를 연 것을 기념하여 제작된 서화첩이다. 기로회나 壽會 등은 조선시대 아주 흔한 행사이지만 이 서화첩처럼 그림과 발문, 참석자들의 시문 등이 빠지지 않고 잘 짜여진 서화첩은 민간의 예로서는 희귀하다. 또 18세기 초 백악·인왕산 기슭에 살며 시서화를 즐기던 은퇴한 문인들의 면모와 생각이 시문 등에 잘 드러나 있다. 더욱이 미술사적으로 초기작이 드문 겸재 정선이 41세 때에 그린 작품으로서 중요하다. 또 진경산수화가 아닌 기록화인 점에서 더욱 희귀하고 중요한 자료이다.

한편 이 모임이 정선의 외삼촌 박견성이 주도해 이루어진 점, 서화첩 말미에 외사촌 박창언의 자세한 발문이 있는 점도 앞으로 더 연구해 볼 만한 점으로 주목된다. 끝으로 마지막에 실린 박창언의 발문이 1718년 4월 상순이므로, 이 서화첩도 이때 성첩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첩의 한 계기는 바로 전해인 1717년 주인공 이광적이 졸한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이해경·하영휘, 「鄭澈의 〈北園壽會圖〉와 《北園壽會帖》」, 『미술자료』 78, 2009.
- 유흥준, 『화인열전』 I, 역사비평사, 2001, p.229.
- 유흥준, 「회방연회도: 진경시대를 알리는 잔치 그림」, 『가나아트』 7·8월 호, 1990.

○ 기 타

석포 손세기 소장, 아들 손창근 선생이 국립박물관에 기증.



○ 현 상

- 이 작품은 총 20장 40면의 서화첩으로 그림(북원수회도) 1점, 좌목(座目), 시문(詩文) 15수, 발문(跋文) 1수로 구성되어 있다. 짙은 옥색의 마름모꼴 무늬가 있는 비단 표지 위에 붙여진 종이 표제(標題)에는 “정겸재실사북원기회전경도(鄭謙齋實寫北園耆老會全景圖)”라는 글씨 다음 찍혀 있는 주문방인 “석포(石圃)”는, 개성 출신의 수장가 손세기(1903~1983)에 의해 개장되었음을 알려준다.
- 무늬가 있는 하늘색 비단으로 회장을 둘러 그린 그림(북원수회도), 종이에 붉은 계선(界線)을 긋고 인적 사항을 해서체로 적은 좌목, 종류와 크기가 다른 종이에 쓰인 시문 15수와 발문 1수는 모두 종이 회장을 둘러 크기를 일정하게 만들었는데,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것으로 보인다.
- 〈북원수회도〉 [도1]의 사랑채 지붕과 나무 주변에 보이는 충식은 바로 뒷면의 좌목, 박현성 시에서도 동일한 위치에 있으며, 뒷면으로부터 발문과 백면(白面)에서도 충식이 확인되는데, 아마도 충식의 진행을 막기 위해 보존처리를 하면서 표지만 개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 표지 개장을 제외하면 그림과 좌목·시문·발문은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관상태 역시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 조선시대에는 왕실과 사대부의 중요한 행사를 그림으로 남기는 기록화가 다수 제작되었다. 《북원수회첩》의 〈북원수회도〉는 한양 장의동에 살았던 이광적(李光迪, 1628~1717)이 회방연(回榜年: 과거급제한 지 60년 되는 해)을 치른 다음[참고도판1], 70세 이상의 노인 15명을 자신의 집(북원)으로 다시 초대하여 열었던 기로연을 그린 사가(私家)기록화이다.[도1]
- 회방은 61세 생일을 맞이한 회갑(回甲)이나 결혼한 지 60년이 지난 회혼(回婚)보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국왕이 술이나 음식 등을 하사하였다. 숙종은 9월 16일 이광적의 사저에서 열린 회방연에 어사화와 쌀·고기·배·비단 등을 하사하였으며, 이 연회 장면을 그린 정선의 〈회방연도〉가 현전하고 있다.[참고도판2]



<도1. 정선, 〈북원수회도〉, 《북원수회첩》> <참고도판1. 〈이광적초상〉, 《해동진신초상첩》> <참고도판2. 정선, 〈회방연도〉>
 1716년, 견본담채, 39.3×54.4cm, 18세기, 견본채색, 39.1×28.3cm, 1716년, 지본담채, 57×75cm,
 국립중앙박물관(손세기 컬렉션) 국립중앙박물관 개인소장

- 〈북원수회도〉의 오른쪽 하단에는 “북장동인정선원백경사(北壯洞人鄭叡元伯敬寫)”라 적은 다음 백문방인 “정선(鄭叡)”이 찍혀 있다. 〈북원수회도〉와 〈회방연도〉는 9월 16일과 10월 22일로 행사 날짜만 다를 뿐 장소와 참석자가 동일하였던 때문인지 구도나 경물을 포착한 시점이 거의 유사하다.
- 사랑채 안쪽에 두겹 방석 위에 앉은 인물은 모두 11명인데, 그 이유는 기로회에 초대하였지만 성지행, 박현성, 김창국, 이항번이 각각 이사와 병으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시대 기록화의 정확성을 확인시켜준다.
- 좌목은 붉은색 계선으로 20칸을 구획한 다음, 기로회가 개최된 배경과 참석 기준, 그리고 초대된 70세 이상의 기로 15명에 관한 인적 사항을 나이순으로 기록하였으며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北園壽會座目 丙申十月二十二日會于藏義洞隱巖李公之茅非洞中諸賢不得預獨李官平丈以此洞爲其外家而又時居鄰洞邀請入會亦用洛社中王宣徽故例云			
資憲大夫前工曹判書	李公光迪	輝古 號隱巖 戊辰 八十九 生朝九月二十九日	壬辰司馬兩場 星山人 二子衡輔縣元輔元先 丙申別試 令 歿
通政大夫僉知中樞府事	崔公邦彥	美伯 號隱巖 甲戌 八十三 生朝九月初一日	完山人 四子守綱守紀守經守約綱經 元歿
通政大夫前行英陵參奉	韓公載衡	平淑 乙亥 八十二 生朝正月二十日	清州人 五子璠縣璵郡璞庶子珏 監 守
通訓大夫前行漢城府庶尹	成公至行	汝敬 庚辰 七十七 生朝八月二十二日	昌寧人 二子義錫縣禮錫禮先 退去坡州 監 歿
通訓大夫行司宰監僉正	朴公見聖	夢卿 壬午 七十五 生朝四月十一日	密陽人 四子昌夏進昌遠昌彥昌迪夏迪 乙卯司馬 病未赴席 士 先歿
通訓大夫前行官平府使	李公世瑜	仲獻 壬午 七十五 生朝十月初六日	星州人 二子挺朝挺 癸卯司馬
建初將軍行龍驤衛司勇	朴公震龜	聖寶 癸未 七十四 生朝六月初八日	陰城人 一子廷珪
通訓大夫前行司僕寺僉正	成公至敏	汝訥 癸未 七十四 生朝七月二十日	昌寧人 三子晉錫恒錫謙錫 壬子司馬
通政大夫僉知中樞府事	南公宅夏	敬伯 癸未 七十四 生朝八月二十五日	宜春人 二子道揆司道振 諫
通訓大夫行漢城府庶尹	李公之星	子文 癸未 七十四 生朝九月二十九日	咸平人 三子寅相進顯相道相顯先 壬戌司馬 士 歿
通政大夫僉知中樞府事	金公尙鉉	玉而 癸未 七十四 生朝十一月二十四日	光山人 五子命煥參啓煥持奎煥泰煥雲煥 戊午司馬 奉 平
通訓大夫前行成川府使	金公昌國	元桂 甲申 七十三 生朝二月十七日	安東人 繼子致謙監朝庶子最謙益謙宜謙 丙午司馬 病未赴席 後
通 德 郎	李公恒蕃	長叔 乙酉 七十二 生朝正月二十五日	完山人 五子邦佐進邦翊邦協邦燮邦弼主翊協 病未赴席 士 簿先歿
通訓大夫前行加平郡守	李公 諫	樂而 丁亥 七十 生朝八月十九日	韓山人 二子秉淵縣秉成正 監 郎
奉列大夫前行長寧殿參奉	金公 澗	澄源 丁亥 七十 生朝十月初七日	延安人 二子相成相丁先 歿
李衡輔韓璠朴廷珪金奎煥泰煥李秉淵秉成及李奎臣奎賓隱巖兩孫崔普命崔僉知長孫李恒重李加平長孫童子永得衡輔子高壽秉淵子晚熊秉成子尹鐵壽李加平外孫陪席 驪湖張詩人應斗亦參 洞中夢窩金相公昌集戊子生六十九東原君濼宣廟三世孫辛卯生六十六三淵金先生昌翁癸巳生六十四諸議亦欲用狄秘監司馬公例邀三公入社而適皆有故未果可見吾洞先輩之盛			

- 좌목에는 기로연에 초대된 15명의 관직, 이름, 호, 본관, 자녀들에 관한 정보, 출생 연도와 과거급제 연도가 나이순으로 적혀 있다. 15명 가운데 4명이 불참하였는데, 성지행은 파주로 이사, 박현성·김창국·이항번은 신병으로 불참했다는 사유를 좌목에 명시한 것이 특이하다. 좌목에 적힌 15명의 인적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성명(생몰년)	당시 나이	자, 호	본관	과거급제 시기
1	이광적 (李光迪, 1628~1717)	89세	휘고(輝古), 은암(隱巖)	星山人	丙申別試(1656)
2	최방언 (崔邦彦, 1634~1724)	83세	미백(美伯), 양정당(養正堂)	完山人	
3	한재형 (韓載衡, 1635~1719)	82세	평숙(平淑)	淸州人	
4	성지행 (成至行, 1640~1722)	77세	여경(汝敬)	昌寧人	
5	박현성 (朴見成, 1642~1728)	75세	몽경(夢卿)	密陽人	乙卯司馬(1675)
6	이세유 (李世瑜, 1643~1722)	75세	중헌(仲獻)	星州人	癸卯司馬(1663)
7	박진귀(균) (朴震龜, 1643~1730)	74세	성보(聖寶)	陰城人	
8	성지민 (成至敏, 1643~?)	74세	여눌(汝訥)	昌寧人	壬子司馬(1672)
9	남하택 (南宅夏, 1643~1718)	74세	경백(敬伯)	宜春人	
10	이지성 (李之星, 1643~1722)	74세	자문(子文)	咸平人	壬戌司馬(1682)
11	김상현 (金尙鉉, 1643~1730)	74세	옥이(玉而)	光山人	戊午司馬(1678)
12	김창국 (金昌國, 1644~1717)	73세	원계(元桂)	安東人	丙午司馬(1666)
13	이항번 (李恒蕃, 1645~1718)	72세	장숙(長淑)	完山人	
14	이속 (李諫, 1647~1720)	70세	낙이(樂而)	韓山人	
15	김은 (金濼, 1647~1718)	70세	정원(澄源)	延安人	

- 《북원수회첩》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서문과 시 및 발문의 원문과 번역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이혜경·하영휘, 논문 참조).

쪽수	내용	작가	연대	쪽수	내용	작가	연대	
	표지(앞면)			21~22	시	이지성	1716	
1~2	북원수회도(그림)	정 선	1716	23~24		김상현	1716	
3~4	좌목		1716	25~26		이 속	1716	
5~6	서문 및 시	박현성	1716	27~28		김 은	1716	
7~8	시	이광적	1716	29~30		성지행	1717	
9~10		최방언	1716	31~32		김창집	1718	
11~12		한재형	1716	33~34		김리건	1754	
13~14		이세유	1716	35~36		백면		
15~16		박진귀(균)	1716	37~38		발문	박창언	1718
17~18		성여눌	1716	39~40				
19~20		남택하	1716		표지(뒷면)			

○ 5~6 박현성 서문과 시 :

奉呈 耆老會 席上 并序 기로회 석상에 서문을 올리다

夫洪範五福之壽 壽居其一. 鄒書三達之序 齒居德先. 信乎 壽者人之所難得而福之所以基也. 噫 俯仰今古人物何限而 能得遐壽者 十無一二. 古人所謂 人生七十 古來稀者非耶. 通且如此況今生茲一世 居共一洞 七十以上之年者 至於十五六之多. 此豈非人間稀貴事歟. 茲涓吉辰 約會于尙書丈李公之第. 竹輿藜筇 循次而至 童顏鶴髮 序齒而坐 舉盃上屬. 其聳動一時之觀瞻 夸耀後來之耳目 豈有過於此者乎. 況主人丈以九袞之年 纔經回榜之宴 慶席甫罷 餘歡未已 繼有此今日之會 此又古今之所未聞也. 不佞亦忝諸老之列 在於要束之中 而魔有所戲 身恙猝飢 不得廁語席末 此亦有數存於其間耶. 病裡瞻望 不勝慨悵. 茲構二絕 仰塵僉照

(대저 흥범오복의 범주에 오래 사는 것도 하나이다. 『맹자』에 세상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세 가지의 순서가 있는데 나이가 덕보다 앞이다. 진실로 수는 사람이 얻기 어려우며 복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아! 고금을 살펴볼 때 인물이 어찌 한이 있으며, 장수하는 사람은 열에 한둘도 되지 않는다. 옛사람이 이른바 ‘인생 칠십이 예로부터 드물다’고 한 것이 그렇지 않은가. 고금을 통틀어 논해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지금 한 시대에 나란히 태어나 한마을에 함께 살며 나이가 70세 이상인 사람이 십오륙 명이나 된다. 이것이 어찌 세상에 희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좋은 날을 잡아 약속하여 관서 어른 이공 저택에 모였다. 대나무 가마, 명아주 지팡이, 대나무 지팡이가 차례차례 이르러 젊은이와 늙은이가 나이순으로 앉아 술잔을 들어 서로 권한다. 이 유쾌한 즐거움이 한때 보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앞날의 이목을 눈부시게 하는데, 어찌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 하물며 주인장은 구십 나이에 회방연을 치렀는데, 잔치 자리가 과하자마자 여흥이 식기도 전에 오늘의 모임이 있으니, 이것 또한 고금에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나 또한 부끄럽게도 여러 노인의 열에 있어 모이기로 약속한 사람이었으나, 마귀의 장난으로 신병이 갑자기 극심하여 참석치 못하니, 이 또한 그 사이에 운수가 존재하는 것인가. 병중에 바라보며 서글픔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하여 절구 두 수를 지어 여러분께 바친다).

南極星光耀此筵 남극성이 이 자리를 빛내니
座中諸老洞中仙 좌중의 여러 노인은 마을 속 신선이라네.
無端一疾違佳約 까닭 없는 병으로 아름다운 약속 어기니
翹首東鄰倍悵然 머리 들어 동쪽 이웃 바라보니 갑절이나 슬프구나.

北山高設老翁筵 북산에 높은 늙은이 잔치 배푸니
皓首厖眉十一仙 흰머리 흰눈썹의 열한 명 신선이 모였네
洛社耆英今復見 낙사의 기영을 이제 다시 보니
風流宜若宋人然 풍류가 마치 송나라 사람 같구나.

柔兆涇灘陽月下弦前一日 七十五歲老人 凝川朴見聖書仰呈. 병신(1716)년 10월 22일 75세 노인 응천 박현성이 써서 드리다.

○ 7~8 이광적 시 :

敬次朴僉正夢卿韻. 삼가 침정 박몽경의 시에 차운하다.

壽星南極照華筵 노인의 별 남극성이 화려한 연회 비추니
鶴髮韶顏世擬仙 백발의 동안을 사람들이 신선에 비유하네.

靈杖鳩筇扶醉步 신령스런 구장에 취한 걸음 의지하니
香山故事尚依然 향산의 고사가 여전히 그대로 남았네.

丙申陽月晦日 八十九世老人 李光迪 書. 병신년 10월 그믐 89세 노인 이광적 쓰다.

○ 9~10 최방언 시 :

丙申陽月廿二日 隱巖老人會 次朴友夢卿韻. 병신년 10월 22일 은암 노인회에서 벗 박몽경의 시에 차운하다.

招邀洞老設華筵 동네 노인들 초대하여 화려한 잔치 베푸니
首席人稱地上仙 윗자리 노인들 더러 지상의 신선이라 칭하네.
一座遐籌餘九百 한 자리의 나이를 합하니 구백이 넘고
元豐故事正依然 원풍의 고사와 같구나.

扶携諸老赴嘉筵 여러 노인 모시고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니
鶴髮童顏摠是仙 모두 학발에 동안의 신선이로구나.
莫道香山專勝事 향산구로회만 좋은 모임었다고 말하지 마라
千秋遺跡愜依然 천년의 유적이 그대로 남았으니

睢陽當日敞高筵 당일 회양에 높은 자리 열었고
千載城西集老仙 천년 후 성서에 신선 같은 노인 모였네.
三度丙申眞可異 세 번의 병신년이 정말로 기이하니
卽今佳會豈徒然 지금의 아름다운 모임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宋時睢陽之會 我東城西之會 黔日隱巖之會 皆是丙申年 可謂奇哉. 完山 崔邦彦 美伯 拜稿. 송나라 때 회양의 모임, 우리나라 성서의 모임, 오늘 은암의 모임이 모두 병신년의 일이니 기이하다고 할 수 있다. 완산 최방언 미백 쓰다.

○ 11~12 한재형 시 :

隱岩老人會席上 敬次朴友夢卿韻. 은암 노인회 석상에서 벗 박몽경의 시에 차운하다.

蒼顏白髮集華筵 백발노인 화려한 자리에 모이니
觀者爭稱地上仙 보는 사람들 다투어 지상의 신선이라고 하네.
倘尙年齡移繪事 **고령의 노인들 그림으로 옮겨 그리니**
香山勝會此依然 향산의 좋은 모임이 이와 같구나.

隱岩重設社公筵 은암에 거듭 노인들 잔치를 여니
南洞仙隨北洞仙 남쪽 마을 신선이 북쪽 마을 신선을 따르네.
前後丙申三度會 앞뒤 병신년 세 번 모임이
古今奇事一般然 고금의 기이한 일임에는 한 가지로구나.

南極祥星曜一筵 상서로운 남극성이 한 연회를 비추니

座中皆是老神仙 좌중은 모두 늙은 신선이로다.
明年此會知誰健 내년 이 모임까지 누가 건강할 것인가
更把深杯醉凡然 다시 한 잔 가득 부어 모두 취해보세.

病廢筆硯 殆至二十餘年之久 而重違勤索 丙申孟冬下澣 八十二歲老人 清州 韓載衡 平叔 忘拙自書.
몸이 아파 글을 쓰지 않은 지 거의 20년이나 되어 은근한 요구를 거듭 어기다가 병신년 초겨울
하순 82세 노인 청주 한재형 평숙이 졸렬함을 무릅쓰고 적다.

○ 13~14 이세유 시 :

輿自唐之睢陽 泊乎我國城西 于今隱巖之洞 前後三丙申季 三設耆老之會. 蓋是不期然而然矣 豈不奇且異哉. 乃者庚友朴夢卿 實主張是事 而及其會也 病不能赴 作序文兼奇二絕于座中. 同步寫韻 奉呈諸老案下. 옛날 당나라 회양을 비롯해 우리나라 성서와 지금 은암동에 이르기까지 전후 세 병신년에 기로회가 세 번 열렸다. 아마 이것은 그렇게 기약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이니 어찌 기이하지 않은가. 지난번 나의 동갑 벗 박몽경이 실제로 이 일을 주관했으나, 모임이 열리게 되자 그는 병이 나서 참석하지 못하고, 서문과 두 절구의 시를 좌중에 부쳤다. 그 시를 차운하여 여러 노인께 드리다.

三丙申年三設筵 세 병신년에 세 번의 잔치를 여니
滿堂耆耄望如仙 당에 가득한 노인들을 바라보니 마치 신선 같구나.
奇遊寫出詩中畫 기이한 유람을 詩 속의 그림으로 그려내니
前輩風流正宛然 선배들의 풍류와 정말 흡사하구나.

隱巖暇日敞耆筵 은암에 한가한 날 기로연을 베풀니
五老睢陽添六仙 회양 다섯 노인에 여섯 신선을 더했네.
堪恨樽前人少一 술상 앞에 한 사람 부족한 것이 섭섭하여
把盃西望意悠然 술잔 들어 서쪽을 바라보며 생각하네.

歲赤猿陽月下澣 七十五歲 星山 李世瑜 仲獻 手書. 병신년 10월 하순 75세 성산 이세유 중헌 쓰다.

○ 15~16 박진귀(균) 시 :

次朴夢卿韻 呈同筵諸老案下. 박몽경 시에 차운해 함께 자리한 여러 노인께 드리다.

南躋壽曜映芳筵 남극성이 아름다운 자리 비추니
添一香山九老仙 향산구로보다 더욱 신선답네.
好倩龍眠傳繪事 용면(이공린)에게 그리게 한 그림이 전하니
莫教奇蹟竟寥然 아름다운 자취 공허하게 하지 마라.

睢陽勝事辦華筵 회양의 좋은 일로 화려한 잔치 마련하니
五老風流地上仙 다섯 노인의 풍류가 지상 신선 같구나.
千載續成眞率會 천년 후 이어 진솔한 모임 가졌으니
更逢申歲意端然 다시 병신년을 맞으니 뜻도 단정하구나.

丙申陽月下浣 雪城 朴震龜. 병신년 10월 하순 설성 박진귀(균).

○ 17~18 성지민 시 :

追步朴夢卿韻 仰呈諸老下. 박몽경 시에 차운하여 여러 노인께 드리다.

洞中諸老傲華筵 동네 여러 노인 화려한 자리 베푸니
白髮蒼顏望若仙 백발 동안이 마치 신선 같구나.
洛社耆英今又繼 낙양 기영회를 또한 이었으니
留傳千載尚依然 남겨 전하면 천년 후에도 변함이 없으리라.

夏山成汝訥稿. 本來拙筆 臂痛近又添劇 茲敢倩草 欠歎. 하산 성여늘 짓다. 본래 졸필인데 팔의 통증이 근래 더욱 심하여, 감히 대필시키는 실례를 범하니 안타깝구나.

○ 19~20 남택하 시 :

次朴夢卿韻. 박몽경의 시에 차운하다.

丙申前後三開筵 병신년 전후로 세 번 기로회를 베푸니
七八旬人宛若仙 칠순 팔순 노인들이 마치 신선 같구나.
清談相對終今夕 오늘 저녁 끝까지 마주 앉아 청담하며
杯酒團欒氣爽然 단란하게 술 마시니 기분이 좋구나.

丙申十月下浣 南宅夏走草. 병신년 10월 하순 남택하 급히 쓰다.

○ 21~22 이지성 시 :

敬步老人會韻. 노인회의 시에 삼가 차운하다.

禁城城北爲開筵 금성의 성북에서 잔치를 베푸니
隣里相邀摠老仙 이웃을 서로 초대하니 모두 신선 같구나.
眞率風流何處見 진솔한 풍류를 어디서 또 보리오
一場盃酒共驩然 한바탕 술자리에 모두 즐겁네.

隱巖深處秩初筵 은암 깊은 곳에 기영회가 처음 열리니
鳩杖相携集洞仙 구장 짚고 동네 신선들이 모였네.
滿座鬚眉皆皓白 자리한 사람들의 수염과 눈썹 모두 희니
商山勸酒政依然 상산사호의 권주와 같구나.

丙申至月下澣 李之星拜稿. 병신년 11월 하순 이지성 쓰다.

○ 23~24 김상현 시 :

次仙字韻. '선'자에 차운하다.

九百遐籌一勝筵 합하여 구백 세가 되는 노인들이 모인 아름다운 자리

龍鍾何幸齒羣仙 쇠약한 늙은이 선인들에 끼인 것이 얼마나 행운인가.
凍梨春色渾堪託 늙은이 얼굴에 봄기운도 자랑할 만하니
擊壤歌中醉兀然 격양가를 부르다가 홀로 취했네.

城西之會又茲筵 성서의 모임을 여기 또 펼치니
爭似睢陽五老仙 흡사 회양의 다섯 늙은 신선 같구나.
前後赤猿如有待 앞뒤 병신년을 마치 기다린 듯하니
倘非天地詎能然 하늘의 조화가 아니면 어찌 이럴 수 있으랴.

丙申陽月下浣 光山 金尙鉉玉而稿. 병신년 10월 광산 김상현 옥이 쓰다.

○ 25~26 이속 시 :

奉次七十老人會韻. 70세 이상 노인 모임에 차운하다.

纔經回榜又茲筵 회방연을 치르고 바로 이 자리를 마련하니
事傲靑山九老仙 청상의 아홉 늙은 선인을 효방한 것이라네.
請看太平佳氣像 태평성대의 아름다운 기상을 한 번 보라
童顏白髮醉陶然 백발 동안이 취하여 즐겁네.

會於隱庵公第 故首句云. 은암공 저택에 모였으므로 첫 구에서 언급했다.

宋代睢陽卽勝筵 송나라 때 회양은 아름다운 자리
吾東西郭又羣仙 우리나라 서쪽 성곽에서 또 선인들의 모임
丙申前後三奇事 병신년 전후로 세 기이한 일 있으니
千載茲遊不偶然 천년 후 이 모임도 우연이 아니구나.

丙申陽月 李涑 樂而. 병신년 10월 이속 낙이.

○ 27~28 김은 시 :

敬次筵字韻 呈諸耆英. '연'자에 차운하여 여러 기영께 드리다.

七旬吾亦忝高筵 칠순인 나 역시 높은 자리에 끼여
笑擲鳩筇揖衆仙 웃으며 지팡이 놓고 모인 선인께 인사하네.
共樂昇平躋壽域 함께 태평성대를 즐기며 수역에 올랐는데
御風何必學冷然 바람을 타고 날며 하필이면 표연함을 배우겠는가.

延安 金澗 연안 김은.

○ 29~30 성지행 시 :

順和坊諸公爲耆老之會 余以洞中之一老病臥山中 未參末席. 不堪悵然 述此意 爲賦一絕. 순화방의 여러 공들이 기로회를 열었다. 내가 같은 마을의 늙은이로 병들어 산중에 누웠는지라 말석에 참여치 못했다. 섭섭함을 강담치 못하고 이러한 마음을 한 절의 부(賦)를 짓는다.

壽星偏照老人筵 남극성이 노인들의 잔치를 밝게 비추고
賀客畢來喚醉仙 하객들도 모두 취한 신선이라 부르네.
想得諸翁爲欠事 생각하니 여러 노인께 섭섭하게 되었구려
樽前少我一幡然 술자리에 이 백발 늙은이가 없는 것이.

昔在宋朝 杜祈公爲五老之會 我東白軒諸公爲城西耆老之會 皆在丙申年. 今我諸老之會 亦同丙申. 千
百年之間 偶然相合 事甚奇異. 述此意 爲賦一絕 옛날 송나라 때 두기공은 다섯 노인의 모임을 열었
고, 우리나라 백헌공과 여러 공은 성서 기로의 모임을 열었는데 모두 병신년의 일이다. 지금 우리
노인들의 모임 또한 같은 병신년이다. 천년과 백년 사이에 우연히 서로 일치하니 아주 기이한 일
이다. 이 뜻을 서술하여 다시 절구 한 수를 짓는다.

白翁追設杜公筵 백옹이 두공의 잔치를 뒤따라 열었고
更繼風流爲地仙 그 풍류 다시 이어 지상의 선인이 되었네.
三丙申年前後會 앞뒤 세 병신년의 모임이
秋天好事不期然 그렇게 기약하지 않았는데 천추의 호사로다.

丁酉臘月日 梅谷七十八歲 成至行汝敬自書拜. 1717년 설달 모일 매곡 78세 성지행 여경 직접 쓰고
절하다.

○ 31~32 김창집 시 :

從古耆英盛此筵 예로부터 기영회가 이 자리에 성대하니
地仙皆是里中仙 지상의 선인은 모두 한 동네의 선인이라.
誰論涑水非常事 속수가 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누가 주장하는가
自視踈頑竟欲然 스스로 산만함과 완고함만 보아 끝내 만족하지 못하네.

畫圖憑識北山筵 그림 보면 북산의 잔치인 줄 알겠네
第一靑牛背上仙 첫 번째 청우를 탄 선인은
紫氣忽收遺墨在 붉은 기운이 홀연히 걸히어 유묵만 남고
百年乘化亦翛然 백년만의 승화 역시 초연하구나.

李尙書纔捐館. 戊戌孟春 安東 金昌集. 이 상서가 막 세상을 떠났다. 무술(1718)년 정월 안동 김창
집.

○ 33~34 김리건 시 :

敬次軸中韻. 축 중의 시를 삼가 차운하다.

盛事必稱五老筵 훌륭한 일 중에 반드시 다섯 노인의 모임을 칭송하더니
城西嶽北又耆仙 성서와 악북에 또 기로 신선들이 모였네.
德星應聚涑灘歲 덕성이 응당 원숭이 해에 모이니
今古三遊豈適然 고금에 그해 세 번의 기영회가 어찌 우연이겠는가.

畫圖省識丙申筵 그림을 보면 병신년 모임인 줄 알겠네.

座上誰非火食仙 좌상에 누군들 화식선이 아니라
 四十年來成一劫 사십년 후 한 겁이 되어
 摩挲遺帖涕潛然 남은 첩을 쓰다듬으니 눈물이 절로 나네.

甲戌季秋 洞中後生 安東 金履健謹題. 李友士常得此帖於舊篋中 要我追和 得側姓名亦幸矣. 갑술 (1754)년 9월 동네 후생 안동 김리건 삼가 쓰다. 벗 이사상이 옛 상자에서 이 첩을 찾아 나에게 와서 화답하기를 요구하니 옆에 성명을 쓴 것 또한 행운이구나.

○ 35~36 백면

○ 37~40 박창언 발문 :

夫朝廷有饗食之禮 鄉黨有飲射之儀 而以爵以齒者 卽所以明尊卑序少長也. 今此北園耆老之會 出於一時眞率之意 故不以爵不以齒 而但以至至先後爲坐次. 尙書李丈以主人 爵最老年又最先 故於房內背北面南而爲首坐. 其次韓丈先至 故自尙書座而稍西面東而坐 崔丈次之. 自此而南面北而坐者 李富平丈而成丈南丈次之. 又於軒上設座 坐於南丈之右而向北者 僉知金丈 而其次庶尹李丈. 又於軒北對僉知丈而坐者 金參奉丈 其次朴生員丈也 其次則李嘉平丈也. 此其耆老之坐次. 又於軒東隔一楹間一席 而別爲一座 凡十二人皆耆老家子弟也. 雜坐無序 不能悉記其坐次. 張生應斗 亦以詩人預焉. 又有四童子參廁於其間 其立尙書李丈之右者 卽其孫永得也 或坐或立於嘉平丈之側者 卽其孫高壽晚態 及其外孫尹鐵壽也. 於軒砌之下列坐散立者 皆各員之所事僉從也 於階上鋪列杯盤而坐 又於中門之內載卓而來者 各員家女奴 以所進盤羞待候者也. 墻外一女子 衣青而執卓者 主人家婢子 自內而出者也. 西砌下橫輿 卽韓丈所乘藍輿也 輿下散坐五人 卽其轎夫及廳直也. 中門外僕馬之散立者 皆諸公之所率所騎也. 此皆繪素中所模寫. 耆老之列坐 凡十一員 子弟之陪席 亦十二人 並四童子 合二十八人. 老少齊集 相對怡然 舉杯交酬 終日同樂 豈非曠世之盛事. 家君以耆老之一 實主張茲事而 疾作未赴. 小子卽未得親陪杖屨 獲瞻盛舉 心焉耿耿 久而靡弛. 乃者內兄鄭君元伯模寫 形容纖悉不遺一見 悅然如奉眞像 不勝瞻仰愛慕之意. 釋其圖如此 以便後之覽茲帖者云爾. 歲戊戌四月上澣 侍生 朴昌彦敬識

(대저 조정에 향식례가 있고 향당에 향음주례와 향사의 의식이 있어 벼슬로 순서를 정하거나 나이로 순서를 정하는 것은, 벼슬의 높음과 낮음을 밝히고 나이의 많음과 적음으로 서열을 매기는 것이다. 지금 이 북원 기로회는 한때의 진솔한 뜻에서 나왔으므로 벼슬과 나이에 따르지 않고 단지 도착한 순서에 따라 좌석의 차례를 정하였다. 상서 이장은 주인으로 벼슬이 가장 높고 나이도 가장 많았기 때문에 방안에서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하고 있어서 상석이 된다. 그 다음으로 한장이 먼저 이르렀기 때문에 판서 좌석의 약간 서쪽에 동쪽을 향하고 앉았고, 최장이 그 다음에 앉았다. 최장의 남쪽에 북을 향하고 앉은 사람이 이부평장이고, 성장과 남장이 그 다음에 차례로 앉았다. 또한軒 위에 좌석을 마련하였는데, 남장의 오른쪽에 앉아 북을 향한 사람이 첨지 김장이고, 그 다음이 서운 이장이다. 또 헌의 북에 첨지 장과 마주 앉은 사람이 김참봉장이고, 그 다음이 박생원장이고, 그 다음이 이가평장이다. 여기까지는 기로회 좌석의 차례이다. 또 헌의 동쪽에 기둥 하나 건너고 자리 하나 띄운 곳에 따로 한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열두 명은 모두 기로가의 자제들이다. 순서 없이 섞여 앉아 그 좌석의 차례를 다 기록할 수 없다. 장생응두도 시인으로서 참여했다. 또 네 동자가 사이에 끼여 있는데 상서이장의 오른쪽에 선 사람은 그 손자 영득이고, 가평장의 옆에 혹은 앉고 혹은 선 사람은 그 손자 고수와 만옹, 그리고 그 외손자 윤철수다. 헌의 섬돌 아래 나란히 앉거나 흩어져 선 사람들은 모두 각 회원이 부리는 겸종이다. 계단 위에 배반을 나란히 펼쳐 놓고 앉아 있거나 또 중문 안에 상을 이고 오는 사람들은 각 회원 집의 여노들인데, 올릴 음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다. 담 밖에 푸른 옷을 입고 상을 든 한 여자는 주인집의 비자인데,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서쪽 섬돌 아래 비스듬히 놓인 가마는 한장이 타는 남여이고, 남여 아래 흩어져 앉은 다섯 사람은 교부와 청지기다. 중문 밖 여기저기 서 있는 노복과 말은 모두 여러 공이 거느리거나 타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그림에 묘사된 것이다. 나란히 앉은 기로가 모두 11명, 배석한 자제가 12명, 그리고 동자가 4명, 합이 모두 28명이다. 노소가 함께 모여 마주 보며 기뻐하고 잔을 들어 권하며 종일 함께 즐겼으니 이것이 어찌 세상에 드문 성대한 일이 아니겠는가. 가군께서 기로의 한 사람으로 실제로 이 일을 주도하였으나, 병시 나서 참석하지 못하였다. 소자가 모시고 가서 성대한 행사를 구경하지 못하여 마음에 맺힌 서운함이 오래도록 풀리지 않았다. 지난번 내형 정군 원백이 모사했는데, 묘사가 자세하고 빠짐이 없어 한 번 보면 마치 실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우리러 애모하는 마음을 감당할 수 없다. 이 그림을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후에 이 화첩을 보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할 따름이다. 1718년 4월 상순 시생 박창언 삼가 기록하다.

- 각각 다른 종이에 쓴 15수의 시문은 불참한 박현성이 1716년 10월 22일 써서 보낸 시를 차운한 것으로 순서는 좌목(나이순)과 다르다. 14수의 시는 1716년 10월 하순부터 1718년 1월 사이에 쓴 것이지만, 김리건의 시는 후대에 추가된 것이다. 화첩의 완성된 것은 박현성의 아들 박창언이 발문을 쓴 1718년 4월 상순 무렵이라 추정된다.
- 박현성(5~6), 최방언(9~10), 한재형(11~12), 박진귀(균)(15~16), 이지성(21~22), 김은(27~28), 김창집(31~32)이 시문을 적은 종이의 앞쪽에 꽃이 꽃힌 화병이나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봉황이 오동나무 아래를 노니는 화조화나 연꽃 등을 목판에 새겨 찍은 시전지(詩箋紙)를 사용한 것에서 조선시대 사대부의 멋스러운 삶의 단면도 살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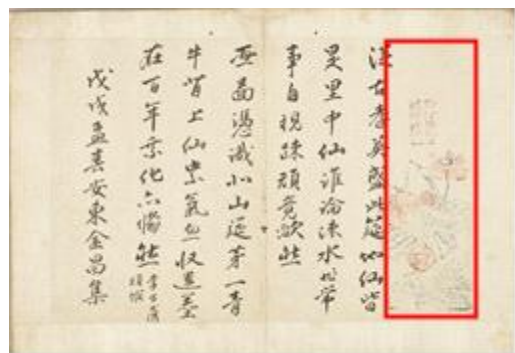
<5~6 박현성 서문과 시>



<11~12 한재형 시 >



<15~16 박진귀(균) 시 >



<31~32 김창집 시>

○ 참고문헌

- 박정혜, 『조선시대 사가기록화』, 혜화1117, 2022. 5, pp.215~223.
- 이해경·하영휘, 「鄭叡의 <北園壽會圖>와 《北園壽會帖》」, 『美術資料』 78, 2009. 12, pp.219~249.

○ 기 타

- 이 작품은 2018년 11월 손창근(孫昌根)이 부친 故 손세기(孫世基)와 대를 이어 수집한 문화재 202건 304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할 때 포함된 것이다.
- 《북원수회첩》에 포함된 정선의 <북원수회도>는 국립중앙박물관 주최 《손세기·손창근 기증 명품 서화전 2》(2019. 3. 26. ~ 7. 7. / 상설전시관 2층 서화실 202호)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었다.

8.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

가.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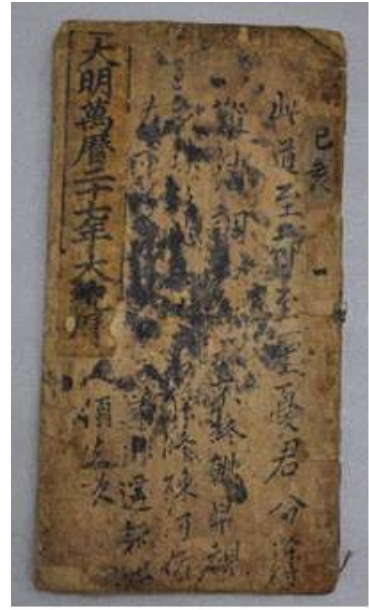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10.22.)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8.2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
- 소유자(관리자) : 노○○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유학10길 ○○
- 수 량 : 1책(8장)
- 규 격 : 40.4×21.0cm(半郭 28.1×14.9cm)
- 재 질 : 한지
- 판 종 : 목판본, 필사본
- 형 식 : 호접장(蝴蝶裝, 線裝에서 改裝)
- 조성연대 : 1599년(조선 선조 32)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指定 價値>

지정신청의 선조 32년(1599, 기해)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은 西厓 柳成龍(1542~1607)이 宣祖 32년(1599)의 『大統曆』에 날짜별로 墨書한 간략한 일기 형식의 비망록 1책 8장으로, 1월에는 9일, 2월에는 16일, 3월에는 28일, 4월에는 18일, 7월에는 14일, 12월에는 8일 등 총 6개월에 93일분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기록의 내용은 견문과 행동, 내방자의 이름, 가족과 노비의 왕래, 안부로 주고받은 편지, 京書·朝報·新曆 등의 도착, 화초 등을 심고 감상한 일 등의 일상을 간략하나마 비교적 꼼꼼하게 기록된 편이다.

그러나, 묵서된 필체에 최소한 서로 다른 3인 이상의 필체가 섞여 있는 듯하여 온전한 서예의 필체가 아니라는 점을 비롯하여, 현재 殘存하는 月分이 1月·2月·3月·4月·7月·12月 등 6개월분 8張에 지나지 않는데 비하여 缺落된 月分이 윤4월·5월·6월·8월·9월·10월·11월 등 7개월분이라는 점도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지정신청의 선조 32년(1599, 기해)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 1책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1963.01.21.)되어 있는 <柳成龍宗家文籍> 내의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 8책과의 대비를 통하여 서예의 필체로 묵서된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가 형태와 내용 등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의 여러 면에서의

대비가 필요할 듯하다.

따라서 지정신청의 선조 32년(1599, 기해)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 1책은 국가 지정문화재의 지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古文書와 관련된 학회의 학술대회를 통한 공정한 평가가 도출되고 그 결과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가치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권고될 때 再論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根據 基準>

현재 지정신청의 선조 32년(1599, 기해)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망록 甲午(1594)·丙申(1596)·丁酉(1597)·甲辰(1604)·丙午(1606) 등 5年分 5책과 戊戌(1598), 乙巳(1605), 丁未(1607) 등 3년분 3책 등 8책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 西厓宗家(忠孝堂, 한국국학진흥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 외에도 [乙未(1595)]·[己亥(1599)]·[庚子(1600)]·[辛丑(1601)]·[壬寅(1602)]·[癸卯(1603)] 등 6년분의 『대통력』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어 오다가, 지금 그 眞僞의 여부를 떠나서 [己亥(1599)]년분이 나타난 셈이다.

장래에 [乙未(1595)]·[庚子(1600)]·[辛丑(1601)]·[壬寅(1602)]·[癸卯(1603)] 등 5년분의 『大統曆』도 나타날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 (지정 가치 미흡)

조사본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은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선조 32년(1599)의 『대통력』에 날짜별로 목서한 간략한 일기 형식의 비망록이다. 다만 1년 12개월 전체는 남아 있지 않고, 현재 殘存하는 月分은 1月·2月·3月·4月·7月·12月 등 6개월분 8張에 해당한다.

내용은 1월에는 9일, 2월에는 16일, 3월에는 28일, 4월에는 18일, 7월에는 14일, 12월에는 8일 등 총 6개월에 93일분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기록의 내용은 견문과 행동, 내방자의 이름, 가족과 노비의 왕래, 안부로 주고받은 편지, 京書·朝報·新曆 등의 도착, 화초 등을 심고 감상한 일 등의 일상을 간략하나마 비교적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

조사본은 서애 유성룡과 관련된 자료로서 이미 지정된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목서된 필체에 최소한 서로 다른 3인 이상의 필체가 섞여 있다는 점, 현재 殘存하는 月分이 1月·2月·3月·4月·7月·12月 등 6개월분 8張 밖에 안된다는 점 등은 가치 판단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조사본은 조금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지정신청된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은 조선 중기의 학자·관료인 유성룡이 1599년(선조 32)의 『대통력』에 날짜별로 주요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일기 형식의 비망록이다. 책의 끝부분에는 『대통력』 편찬에 참여했던 명나라 관원 10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1599년은 윤4월을 포함하여 총 13개월이었는데, 지정신청본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은 1·2·3·4·7·12월 등 총 6개월분만 남아 있고, 나머지 7개월 치는 결락되어 있다.

지정신청된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에는 1599년 1월에 9일, 2월에 16일, 3월에 28일, 4월에 18일, 7월에 14일, 12월에 8일 등 총 93일분의 비망기(일기)가 묵서(墨書)로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유성룡의 비망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그의 생애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는 1963년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일괄 지정된 <유성룡종가문적(柳成龍宗家文籍)> 안에 1594·1596·1597·1604·1606년 등 5년분 5책과 1598·1605·1607년 등 3년분 3책 등 모두 8책의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지정신청된 1599년의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 1책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우선 지정신청된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 1책에 묵서된 필체를 보면, 여러 사람의 필체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유성룡의 기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유성룡종가문적> 내의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 8책과의 정밀한 비교·검토를 통해 지정신청된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 1책의 묵서 기록이 유성룡의 필체가 맞는지, 만약 유성룡 외에 다른 사람의 필체가 섞여 있다면 그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1599년 전체 13개월 중 6개월분만 남아 있다는 점도 기록의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정신청된 1599년의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 1책은 고문서 전공자들의 연구와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 등을 통해 기록물의 진위와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먼저 도출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본서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충분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지정신청의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의 書誌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書誌 記述>

柳成龍 備忘記入大統曆 / 李欽(明) 等編 ; 柳成龍(1542~1607, 朝鮮朝) 備忘記添錄.
-- 木版本(混入觀象監木活字本)·筆寫本(備忘記). -- [漢城] : [觀象監·柳成龍(備忘記)], 宣祖 32(1599).

1冊(8張) : 四周單邊, 半郭 28.1×14.9cm, 有界, 半葉 8行15字 小字雙行, 註雙行, 上下黑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40.4×21.0cm. 韓紙. 蝴蝶裝(線裝에서 改裝됨).

[標目]: 表題는 ‘大明萬曆二十七年(1599, 선조 32)大統曆’이고 卷首題는 ‘大明萬曆二十七年歲次己亥大統曆’이나 書誌記述法에 따라 ‘柳成龍 備忘記入大統曆’으로 標目함.

題簽題: 大明萬曆二十七年大統曆(題簽).

卷首題: 大明萬曆二十七年歲次己亥大統曆.

版心題: -

卷尾題: -

混入版: 1張(12月)은 觀象監活字本임.

內 容: 宣祖 32년(1599, 己亥) 1·2·3·4·7·12月の 6個月間 備忘記 8張.

現 狀: 표지는 後代에 改裝되었으며, 보존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일부 오염으로 차후에 지류문화재 보존 처리가 요구된다.

所藏歷: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유학10길 ○○의 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경상북도 유형문화재)이다. 소유자는 (사)영남유교문화진흥원을 설립하여 30여 년 동안 수집한 서화류 및 소유자 문중 선조의 묘소에서 출토된 유물 등 6만점 가량을 수집·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수장·전시·교육·열람·연구하기 위한 20여 동의 한옥 건물을 건립하는 중이라고 한다(소장경위서 참간).

既指定: 보물로 지정(1963.01.21.)되어 있는 <柳成龍宗家文籍> 내에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의 題名으로 甲午(1594)·丙申(1596)·丁酉(1597)·甲辰(1604)·丙午(1606) 등 5年分 5책과 戊戌(1598), 乙巳(1605), 丁未(1607) 등 3년분 3책

등 8책이 西厓宗家(忠孝堂, 한국국학진흥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注 意: 그 외에도 [乙未(1595)]·[己亥(1599)]·[庚子(1600)]·[辛丑(1601)]·[壬寅(1602)]·[癸卯(1603)] 등 6년분의 『대통력』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어 오다가, 지금 그 眞僞의 여부를 떠나서 [己亥(1599)]년분이 나타난 셈이다. 장래에 [乙未(1595)]·[庚子(1600)]·[辛丑(1601)]·[壬寅(1602)]·[癸卯(1603)] 등 5년분의 『大統曆』도 나타날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現狀>

지정신청의 선조 32년(1599, 기해)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 1책의 표지는 後代에 改裝되었으며, 보존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일부 오염으로 차후에 지류문화재 보존 처리가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大統曆』은 明朝의 曆法으로 元朝의 『授時曆』에 근거하여 편찬된 曆法이다. 명조에서 제작된 『大統曆』은 『授時曆』을 따라 至元 辛巳年(1281) 天正冬至(1280年 冬至)를 曆元으로 하는 劉基의 『大統曆』과 洪武 甲子年(1384) 天正冬至(1383年 冬至)를 曆元으로 하는 元統의 『大統曆法通軌』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劉基의 『大統曆』이 高麗朝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元統의 『大統曆法通軌』는 朝鮮朝 초기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 24년(1442)에 『授時曆』과 『大統曆法通軌』를 바탕으로 『七政算內篇』을 편찬하였으며, 효종 5년(1654)에 『時憲曆』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용된 冊曆이다.

지정신청의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은 西厓 柳成龍(1542~1607)이 宣祖 32년(1599)의 『大統曆』에 날짜별로 墨書한 간략한 일기 형식의 비망록이다.

『大統曆』 표지의 題簽題는 ‘大明萬曆二十七年大統曆’이며 卷首題는 ‘大明萬曆二十七年歲次己亥大統曆’이다. 『大統曆』의 卷末에는 『大統曆』의 편찬에 참여한 명조의 春官正 李欽·夏官正 朱守訓·中官正 薛承愛·監正管秋官正事 薛承惠·冬官正 周子愚·五官靈臺郎 徐江·五官保章正 戈謙亨·五官挈壺正 高曉·五官司曆 皇甫積慶·五官司曆 何文龍 등 10명의 관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판본은 木板本이나, 12월분의 1장은 觀象監活字本이 混入되어 있다. 목판본과 활자본의 글씨가 동일한 필체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완본의 책력을 구하지 못하였거나 활용하던 중에 낙장이 되어 보완한 것이 아닌가 한다.

宣祖 32년(1599)의 『大明萬曆二十七年歲次己亥大統曆』에 비망기를 墨書한 柳成龍의 본관은 豊山이고 자는 ‘而見’이며, 호는 ‘西厓’이고 시호는 ‘文忠’이다. 증조는 柳子濫이고 조부는 柳公綽이며, 부친은 黃海道觀察使 柳仲郢(1515~1573)이고 모친은 진사 松隱 金光粹(1468~1563)의 따님이다. 西厓는 退溪 李滉(1501~1570)의

문인이며, 鶴峯 金誠一(1538~1593)과 동문수학하여 서로 친분이 두터웠다. 명종 19년(1564)에 생원·진사가 되고 이듬해(1565) 성균관에 들어가 수학하여 명종 21년(1566)에 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承文院 權知副正字가 되었으며, 이듬해(1567) 正字를 거쳐 예문관검열로 春秋館記事官을 겸직하였다. 선조 원년(1568)에 待敎를 지내고 이듬해(1569) 典籍·工曹佐郎 등을 거쳐 司憲府 監察로서 聖節使의 書狀官이 되어 明朝에 갔다가 이듬해(1570)에 돌아왔다. 이어 副修撰·知製敎로 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을 겸하고 뒤에는 修撰에 제수되어 賜暇讀書를 하였다. 그 뒤 正言·兵曹佐郎·吏曹佐郎·副校理·吏曹正郎·敎理·典翰·掌令·副應敎·檢詳·舍人·應敎 등을 역임한 뒤 선조 11년(1578)에 司憲府 司諫이 되었다. 이듬해(1579) 直提學·同副承旨·知製敎로 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을 겸하고 이어서 吏曹參議를 거쳐 선조 13년(1580)에 副提學에 올랐다. 선조 15년(1582)에 大司諫·右副承旨·都承旨를 거쳐 大司憲에 승진하여 왕명을 받고 「皇華集序」를 지어 올렸다. 선조 16년(1583)에 다시 副提學이 되어 「備邊五策」을 지어 올렸으며, 咸鏡道 觀察使에 특별히 임명되었으나 모친의 병으로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이어 大司成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다가 慶尙道觀察使에 임명되었다. 이듬해(1584) 禮曹判書로 同知經筵春秋館事·提學을 겸하였으며, 선조 18년(1585)에 왕명으로 「精忠錄跋」을 製進하고 이듬해(1586) 鄭夢周의 『圃隱集』을 교정하였다. 선조 21년(1588)에 兩館의 大提學에 올랐으며, 이듬해(1589) 대사헌·병조판서·知中樞府事를 역임하고 왕명을 받아 「孝經大義跋」을 製進하였다. 당시 鄭汝立(1546~1589)의 모반사건으로 己丑獄事가 있자 여러 차례 벼슬을 사직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자 上疏하여 스스로 탄핵하였다. 선조 23년(1590)에 右議政에 승진하였으며, 光國功臣 3등에 녹훈되고 豊原府院君에 봉하여졌다. 또 鄭汝立의 모반사건에 관련되어 죽게 된 崔永慶(1529~1590)을 구제하려는 상소를 초안하였으나 올리지 못하였다. 선조 24년(1591)에 右議政으로 吏曹判書를 겸하고 이어서 左議政에 승진하여 吏曹判書를 겸하였다. 이 해에 建儲問題로 서인 鄭澈(1536~1593)의 처벌이 논의될 때 동인의 온건파인 南人에 속하여 같은 동인의 강경파인 北人의 李山海(1539~1609)와 대립하였다. 왜란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刑曹正郎 權慄(1537~1599)과 井邑縣監 李舜臣(1545~1598)을 각각 義州牧使와 全羅道左水使에 천거하였다. 그리고 慶尙右兵使 曹大坤을 李鎰(1538~1601)로 교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鎭管法을 예전대로 고칠 것을 주장하였다. 선조 25년(1592) 3월에 일본의 사신이 우리 境內에 이르자, 宣慰使를 보내도록 주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아 일본의 사신이 그대로 돌아갔다. 4월에 判尹 申砮(1545~1592)과 軍事에 관하여 논의하며 일본의 침입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였다. 4월 13일에 일본이 대거 침입하자, 兵曹判書를 겸하고 都體察使로 軍務를 총괄하였다. 이어 領議政이 되어 왕을扈從하여 平壤에 이르러 나라를 그르쳤다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고 면직되었다. 義州에 이르러 平安道都體

察使가 되고, 이듬해(1593) 명조 장수 李如松(1549~1598)과 함께 平壤城을 수복한 뒤 충청·경상·전라 3도의 都體察使가 되어 과주까지 진격하였다. 다시 領議政에 올라 4도의 都體察使를 겸하여 군사를 총지휘하였다. 李如松이 碧蹄館에서 대패하여 西路로 퇴각하는 것을 극구 만류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權慄과 李薺으로 하여금 坡州山城을 지키게 하고 諸將에게 方略을 주어 要害를 나누어 지키도록 하였다. 4월에 李如松이 일본과 和議하러 하자, 글을 보내 화의를 논한다는 것은 나쁜 계획임을 역설하였다. 또한 군대 양성과 함께 浙江器械를 본떠 화포 등 각종 무기의 제조 및 성곽의 수축을 건의하여 군비 확충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소금을 만들어 굶주리는 백성의 진휼을 요청하였다. 10월에 선조를 호위하고 漢城으로 돌아와서 訓練都監의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邊應星(1552~1616)을 京畿左防禦使로 삼아 龍津에 주둔시켜 叛賊들의 내통을 차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선조 27년(1594)에 훈련도감이 설치되자 提調가 되어 『紀效新書』를 講解하였다. 또한 湖西의 寺社位田을 훈련도감에 소속시켜 군량미를 보충하고 鳥嶺에 官屯田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등 명조와 일본과의 화의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군비 보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선조 31년(1598)에 명조의 經略 丁應泰가 조선이 일본과 연합하여 명조를 공격하려 한다고 본국에 무고한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사건의 진상을 변명하러 가지 않는다는 복인들의 탄핵으로 관작이 削奪되었다가 선조 33년(1600)에 復官되었으나 더 이상 벼슬을 하지 않고 은거하였다. 선조 37년(1604)에 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고 다시 豐原府院君에 봉해졌다. 道學·文章·德行·글씨로 이름을 떨치고 특히 영남 유생들에게 추앙되었다. 묘지는 안동시 풍산읍 수리 뒷산에 있으며, 안동의 屏山書院 등에 祭享되었다. 著書로는 『西厓集』·『懲毖錄』·『愼終錄』·『永慕錄』·『觀化錄』·『雲巖雜記』·『亂後雜錄』·『喪禮考證』·『戊午黨譜』·『鍼經要義』 등이 있으며, 편서로는 『大學衍義抄』·『皇華集』·『九經衍義』·『文山集』·『精忠錄』·『圃隱集』·『退溪集』·『孝經大義』·『退溪先生年譜』 등이 있다. 그러나 西厓의 문인인 愚伏 鄭經世(1563~1633)가 「西厓行狀」에서 “평생토록 지은 詩文이 壬辰兵火로 없어졌으며, 지금 文集 10권과 『愼終錄』·『永慕錄』·『懲毖錄』 등이 家藏되어 있다.”라고 한 것에서 대부분이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懲毖錄』과 『西厓集』은 壬辰倭亂史의 연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이다.

지정신청의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은 선조 32년(1599) 『大統曆』으로 본래 線裝이던 것을 蝴蝶裝 형식으로 改裝하여 1개월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후대로 오면서 상당한 부분이 缺落되고 현재는 假綴된 상태이다.

지정신청의 선조 32년(1599, 기해)의 『大統曆』은 正月(小)·2月(小)·3月(大)·4月(小)·閏4月(小)·5月(大)·6月(大)·7月(小)·8月(大)·9月(大)·10月(小)·11月(大)·12月(大)의 13개월이며 日數는 384일이다.

지정신청의 선조 32년(1599, 기해)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에서 缺落된 月分은

윤4월·5월·6월·8월·9월·10월·11월 등 7개월분이며, 현재 殘存하는 月分은 1月·2月·3月·4月·7月·12月 등 6개월분 8張이다.

지정신청의 선조 32년(1599, 기해)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에는 1월에는 9일, 2월에는 16일, 3월에는 28일, 4월에는 18일, 7월에는 14일, 12월에는 8일 등 총 6개월에 93일분의 墨書된 기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기록의 내용은 간략하나마 비교적 꼼꼼하게 기록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 목서 기록이 『西厓先生年譜』에 채택된 내용은 2월 16일(丙寅)의 “省墓于金溪 還至河隈”와 3월 4일(癸未)의 “出玉淵書堂謝客 (先生以火色日甚 不敢接賓客 時韓柳川爲嶺伯 欲來訪 先生以書辭焉 近邑士林欲爲先生陳疏訟冤 先生急貽書所親 使力止之 ○時精舍桃花盛開 先生愛玩良久 因忽念此物關我何事 心體澄虛 不可有偏著 仍書一絕)” 및 4월 8일(丁巳)의 “奉大夫人設酌于松亭(時大夫人新自道心還 爲設小酌 初大夫人聞先生削職 而禍焰猶未已 每夜鷄初鳴 必整衣服 酌水祝天曰 吾子在家爲孝子 在國爲忠臣 皇天在上 不敢虛誣 如是者凡數旬)” 등 3일간의 내용뿐이다. 다만 『大統曆』에 수록된 내용보다 『西厓先生年譜』에 수록된 내용이 더 상세한 편이다. 이 가운데 『大統曆』의 목서에서 날씨만 기록된 경우는 3일간이며, 印刷面の 裏面 餘白에는 『明心寶鑑』을 인용한 邵雍의 詩句인 “人知病後能服藥 不如病前能自防”을 포함하여 『東醫寶鑑』의 내용을 축약한 文句 등도 墨書되어 있다.

지정신청의 선조 32년(1599, 기해)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의 1月·2月·3月·4月·7月·12月的 『大統曆』에 墨書된 備忘記의 原文을 옮겨오면 [표1]과 같다.

<표1. 宣祖 32年(1599, 己亥) 『大統曆』에 墨書된 備忘記 原文>

番號	月次	日次	『大明萬曆二十七年大統曆』備望記(墨書)	備考
01	1~6	挿紙	大昊伏羲氏 蛇身人首 造書契制嫁娶 設網罟 教佃漁 養犧牲 女媧氏始作笙簧 炎帝神農氏 人身牛首 爲耒耜[耜]始教耕 嘗本草始有」醫藥 教人日中爲市 黃帝軒轅氏 貫大窞□□□ 樞□□以生帝 始用干戈 與蚩尤戰於涿鹿之野 命之作 甲子造曆 作算數 造律呂 作舟車	
02	ㄷ	裏面	春種甲辰(1604, 宣祖 37)二月十八日始書 十八初	
03	1	10	移寓具贊祿農舍 僧太雲從	
04	ㄷ	12	兵使軍官李安傑來見兵使書	
05	ㄷ	14	青松倅朴惟仁寄問	
06	ㄷ	16	遊西溪軫·立誠從 □□ …	
07	ㄷ	18	萊山自河廻來卽還	
08	ㄷ	19	大雪	
09	ㄷ	21	見金同知肅夫[字顛]書	
10	ㄷ	26	家屬自河廻來道心	

番號	月次	日次	『大明萬曆二十七年大統曆』備望記(墨書)	備考
11	ㄟ	29	允難如京	
12	2	5	琴司評聞遠[蘭秀]來訪	
13	ㄟ	10	青松 自京來	
14	ㄟ	11	黃惺來問 送木麥・大豆・青菜	
15	ㄟ	15	還河上 宿元堂 弘仲同行	
16	ㄟ	16	數輩 宿金溪寺 -省墓于金溪 還至河隈	16日(丙寅)
17	ㄟ	17	到河上	
18	ㄟ	18	金兌・金翌・金允思・金光曄・卞懷珍來見 金玄貞父子連日來見	
19	ㄟ	19	李廷生・鶴男來謁 遺山鳩・牛油	
20	ㄟ	20	李峻自慶州來訪贈魚物 府尹朴[毅長]亦相問	
21	ㄟ	21	李峻還	
22	ㄟ	22	金兵使應瑞寄問	
23	ㄟ	25	風年往盈德	
24	ㄟ	26	成精甫調度安義來過不接 是日諸生來訪不見	
25	ㄟ	27	城主來過未拜	
26	ㄟ	28	種麻	
27	ㄟ	29	鶴伊往丹陽 卜馬爲虎所傷	
28	ㄟ	裏面	□□□□□□ …	
29	3	1	李進士終綱來見 裴龍吉來訪 宿草堂	
30	ㄟ	2	權晤・嘻・裴得仁・權行可各日來見 龍吉還	
31	ㄟ	3	種麥 張生員世熙佩酒來見	
32	ㄟ	4	往書齋謝客	4日(癸未)
33	ㄟ	5	裴來訪 南自薰・安貴壽亦過見 邊兵使書	
34	ㄟ	6	日色赤憂旱徵 禮安倅金廷龍過見 尹監司書	
35	ㄟ	7	得韓方伯[浚謙]書 京書・朝報・新曆來 風年還	
36	ㄟ	8	韓伯來訪云 陳御史暴死 金復忻・金協之子英文來 長髻權倅有書	
37	ㄟ	9	衫往金溪安察訪聃壽見	
38	ㄟ	10	風 雌牛生犢而斃 庚守往丹陽	
39	ㄟ	11	袴往軍威	
40	ㄟ	12	行金溪拜掃	
41	ㄟ	13	見徐希信書 袴還 卜馬斃	
42	ㄟ	14	李光後・李屹・金希孟・金復忻來訪不見 朴珍來謁見天安書	

番號	月次	日次	『大明萬曆二十七年大統曆』備望記(墨書)	備考
43	ㄟ	15	元帥來過 柳晉慶同來 安察訪聃壽佩酒來訪	
44	ㄟ	16	朝小雨 金允安來訪 隣族以酒來慰 種菊 大丘有書	
45	ㄟ	17	杜鵑始開 午風 答天安書	
46	ㄟ	18	袵奉神主自道心來 權覺	
47	ㄟ	19	朝行奠拜 午往玉淵 種檜 梅始花 安潑來	
48	ㄟ	20	府伯遺饌 謝答 蔚山書亦來 孫太定亦來	
49	ㄟ	21	雨 種菊	
50	ㄟ	22	雨	
51	ㄟ	23	立草屋三間	
52	ㄟ	25	袴往道心 見金兵使書	
53	ㄟ	26	袵往道心 食後與弘仲來玉淵書堂觀梅 金遠振來宿	
54	ㄟ	27	送金遠振 步出松沙少話 種當歸	
55	ㄟ	28	梨花始開 金繼宗自禮安來訪 見根川書	
56	ㄟ	30	往玉淵書堂 紅桃·碧桃亂開	
57	ㄟ	裏面	□□□ …	
58	4	1	參家廟 龍宮送生獐·生雉	
59	ㄟ	2	伯氏陪母主到家 申寬一·金兌·金允思·金協子英文來 咸興校生李簪	
60	ㄟ	3	雨 狼川[柳禕]來 見克夫[徐仁元]書	
61	ㄟ	4	雨 李生員堧·李都事竣·大丘府使金九鼎來訪	
62	ㄟ	5	李炯來	
63	ㄟ	6	看山僧性智來 金建來訪	
64	ㄟ	7	張奉祖·白水漢·率婢自京來 見朝報及京書 鄭沂送竹糖	
65	ㄟ	8	奉慈氏 設酌松亭 金擘·權坦然來訪 府伯遺江魚	8日(丁巳)
66	ㄟ	13	薔薇始開	
67	ㄟ	14	禕設酌 權彥晦[春蘭]·權任來訪 金恕卿[忠男]自天安問書 月明步沙	
68	ㄟ	15	往玉淵 送彥晦 登後麓望大野 鯉入舟	
69	ㄟ	16	僧性澄來 成調慶來	
70	ㄟ	17	卞懷珍·尹涉來訪 有葉·漢守來 見京書·朝報	
71	ㄟ	18	雨	
72	ㄟ	21	盲人李忠卜來 服二黃元	
73	ㄟ	22	金復訢來見	
74	ㄟ	26	順男母暴病氣絕 用清心蘇合元 夜深始蘇	

番號	月次	日次	『大明萬曆二十七年大統曆』備望記(墨書)	備考
75	ㄴ	29	房內改塗修備	
76	ㄴ	裏面	人知病後能服藥 不如病前能自防 時 □□□□□□□□	
77	7	1	朴太古自京來訪京報	
78	ㄴ	2	金開寧守愚來訪	
79	ㄴ	3	安察訪來訪	
80	ㄴ	5	涼□出北林燔削雜木	
81	ㄴ	6	□城人來言書奇	
82	ㄴ	8	申剛立傳書信見後秋去廿八有恩命□□□□云	
83	ㄴ	9·10	見叔珍書 李俊有見	
84	ㄴ	12	李焯·李炯來	
85	ㄴ	13	哭先諱金遠振·權沄允□金頰來見 再見京報□□□	
86	ㄴ	23	□守千億來見京報 十金伊逃	
87	ㄴ	25	袴衫哭其母□□于書二道 午登□山仍往至門還	
88	ㄴ	26	夜大雨	
89	ㄴ	27	見□州□ 李□云論性□城	
90	ㄴ	28	金翌·申剛立來訪 鄭允倅來宿	
91	12	5	昔廷幹來訪 卞□□金□兄弟李屹來訪不見 府尹進□□	
92	ㄴ	7	見惟正書	
93	ㄴ	8	府伯□□報中洛中□□	
94	ㄴ	10	袴往府中	
95	ㄴ	11	袴三□見□報□□□□□金木□難詩	
96	ㄴ	12	小雨	
97	ㄴ	18	尹御史暉來訪 見海原海平平安監司書	
98	ㄴ	25	午眞希家失火 見允安而是京報中金叔珍計	
99	ㄴ	末尾	天一生水可驗人身 貪心動則津生 哀心動則淚生 愧心動則汗生 慾心動則精生 方其寂然不動之時則太極也 此心之動則太極動而生陽也	
100	ㄴ	裏面	仁者難進 人知病後能服藥 不如病前能自防 康節邵先生詩 寧爲百夫長 勝作一書生	

지정신청의 선조 32년(1599, 기해)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에 목서된 기록의 내용은 견문과 행동, 내방자의 이름, 가족과 노비의 왕래, 안부로 주고받은 편지, 京書·朝報·新曆 등의 도착, 화초 등을 심고 감상한 일 등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으나 특정 사실에 대한 주관적 심회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지정신청의 선조 32년(1599)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의 비망기에 나타나는 來訪者의 人名은 대부분이 實名이나, 官職이나 字로 墨書된 경우가 없지 않다. 내방

자로는 庚守·權覺·權倅(長鬢)·權晤·權沄允·權春蘭·權坦然·權行可·琴蘭秀(聞遠·司評)·金繼宗·金光擘·金九鼎(大丘府使)·金建·金復忻·金復訃·金頰·金守愚(開寧縣監)·金叔珍·金擘·金英文(金協子)·金字顛(肅夫·同知)·金遠振·金允思·金允安·金應瑞(兵使)·金翌·金忠男(怨卿)·金兌·金玄貞·金希孟·南自薰·朴惟仁(靑松倅)·朴珍·朴太古·裴得仁·裴龍吉·白水漢·伯兄·邊兵使·卞懷珍·徐仁元(克夫)·昔廷幹·徐希信·成精甫(調度·安義)·成調慶·城主·性智(僧)·性澄(僧)·率婢·孫太定·叔珍·順男·申剛立·申寬一·十金伊·安貴壽·安聘壽(察訪)·龍吉·蔚山·柳倚(狼川)·惟正·允難·尹涉·允安·尹暉(御史)·李□云·李光後·李焯·李膺(咸興校生)·李安傑(兵使軍官)·府伯·府尹·李堧(生員)·李廷生·李終綱(進士)·李竣(都事)·李忠卜·李炯·李屹·張奉祖·張世熙(生員)·鄭沂·鄭允(倅)·裨·裨·陳御史·眞希·天安·千億來(□守)·風年·太雲(僧)·鶴男·鶴伊·韓浚謙(方伯)·漢守·海原·海平·平安監司·弘仲·黃惺·黃廷幹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정신청의 선조 32년(1599, 기해)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에 목서된 기록 중 지금의 지명인 ‘河回’는 ‘河廻’로 기록되고 있으나, 『西厓先生年譜』에는 ‘河隈’로 기록되고 있다.

지정신청의 선조 32년(1599, 기해)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 1책은 曆書의 理論書라기보다는 실생활에 적용되는 冊曆으로 해가 지나면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인 정황이나, 서애 柳成龍의 備忘記가 목서로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미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 8책과의 대비를 통한다면 충분히 그 자료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西厓 柳成龍의 생애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1963.01.21.)되어 있는 <柳成龍宗家文籍> 내에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의 題名으로 甲午(1594)·丙申(1596)·丁酉(1597)·甲辰(1604)·丙午(1606) 등 5年分 5책과 戊戌(1598), 乙巳(1605), 丁未(1607) 등 3년분 3책 등 8책이 西厓宗家(忠孝堂, 한국국학진흥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 외에도 [乙未(1595)]·[己亥(1599)]·[庚子(1600)]·[辛丑(1601)]·[壬寅(1602)]·[癸卯(1603)] 등 6년분의 『대통력』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어 오다가, 지금 그 眞僞의 여부를 떠나서 [己亥(1599)]년분이 나타난 셈이다. 장래에 [乙未(1595)]·[庚子(1600)]·[辛丑(1601)]·[壬寅(1602)]·[癸卯(1603)] 등 5년분의 『大統曆』도 나타날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러나, 지정신청의 선조 32년(1599, 기해)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에 목서된 필체에 최소한 서로 다른 3인 이상의 필체가 섞여 있는 듯하여 온전한 서애의 필체가 아니라는 점을 비롯하여, 현재 殘存하는 月分이 1月·2月·3月·4月·7月·12月 등 6개월분 8張에 지나지 않는데 비하여 缺落된 月分이 윤4월·5월·6월·8월·9월·10월·11월 등 7개월분이라는 점도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지정신청의 선조 32년(1599, 기해)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 1책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1963.01.21.)되어 있는 <柳成龍宗家文籍> 내의 「柳成龍備忘

記入大統曆」8책과의 대비를 통하여 서예의 필체로 목서된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가 형태와 내용 등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의 여러 면에서의 對照와 對比가 필요할 듯하다.

따라서 지정신청의 선조 32년(1599, 기해)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 1책은 국가 지정문화재의 지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古文書와 관련된 학회의 학술대회를 통한 공정한 평가가 도출되고 그 결과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가치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권고될 때 再論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현재 지정신청의 선조 32년(1599, 기해)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망록 甲午(1594)·丙申(1596)·丁酉(1597)·甲辰(1604)·丙午(1606) 등 5年分 5책과 戊戌(1598), 乙巳(1605), 丁未(1607) 등 3년분 3책 등 8책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西厓宗家(忠孝堂, 한국국학진흥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 외에도 [乙未(1595)]·[己亥(1599)]·[庚子(1600)]·[辛丑(1601)]·[壬寅(1602)]·[癸卯(1603)] 등 6년분의 『대통력』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어 오다가, 지금 그 眞僞의 여부를 떠나서 [己亥(1599)]년분이 나타난 셈이다.

장래에 [乙未(1595)]·[庚子(1600)]·[辛丑(1601)]·[壬寅(1602)]·[癸卯(1603)] 등 5년분의 『大統曆』도 나타날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李欽 等編, 柳成龍 備忘記添錄,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 木版本(混入觀象監木活字本)·筆寫本(備忘記). [漢城], [觀象監·柳成龍(備忘記)], 宣祖 32(1599).
- 경상북도지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경상북도 안동시, 2021.
- 경상북도지사, 「검토의견서」, 경상북도 안동시, 2021.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지정조사보고서(장인진·이수환·정우락)」, 경상북도 안동시, (보고서 작성일자 불명).
- 尹炳泰 編, 『韓國古書整理法研究』, 서울특별시, 利久出版社, 1983.
-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특별시, 汎友社, 1990.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기 타

지정신청의 선조 32년(1599, 기해)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 1책은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유학10길 ○○의 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경상북도 유형문화재)이다. 소유자는 (사)영남유교문화진흥원을 설립하여 30여 년 동안 수집한 서화류 및 소유자 문중 선조의 묘소에서 출토된 유물 등 6만점 가량을 수집·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수장·전시·교육·열람·연구하기 위한 20여 동의 한옥 건물을 건립하는 중이라고 한다(소장경위서 참간).

□

○ 현 상

<書誌事項>

柳成龍 備忘記入大統曆 / 李欽(明) 等編 ; 柳成龍(1542~1607, 朝鮮朝) 備忘記添錄.
-- 木版本·筆寫本(備忘記). -- [漢城] : [觀象監·柳成龍(備忘記)], 宣祖 32(1599).

1冊(8張) : 四周單邊, 半郭 28.1×14.9cm, 有界, 半葉 8行15字 小字雙行, 註雙行, 上下黑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40.4×21.0cm. 韓紙. 蝴蝶裝(線裝에서 改裝됨).

[標目] : 表題는 ‘大明萬曆二十七年(1599, 선조 32)大統曆’이고 卷首題는 ‘大明萬曆二十七年歲次己亥大統曆’이나 書誌記述法에 따라 ‘柳成龍 備忘記入大統曆’으로 標目함.

題簽題: 大明萬曆二十七年大統曆(題簽).

卷首題: 大明萬曆二十七年歲次己亥大統曆.

<現狀>

소유자는 (사)영남유교문화진흥원을 설립하고, 30여 년 동안 수집한 서화류 및 유물 등 6만점 가량을 수장·전시·교육·열람·연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해당 유물 역시 수집 유물 가운데 하나로 판단됨.

조사본은 일반적인 지류 유물의 손상을 지니고 있다. 다만 1월~4월까지의 4개월, 7월과 12월만 남아 있어 원상을 많이 잃은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大統曆』은 중국 명의 曆法이다. 고려 말에 명나라에서 수입한 역법으로, 조선 효종 4년(1653) 「시헌력(時憲曆)」으로 교체할 때까지 283년간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오늘날의 달력에 해당하는 ‘책력(冊曆)’이 관의 주도로 제작·배포되어 농사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지침으로서 활용되어 왔다. 자연스럽게 ‘책력’은 소장자가 가까이 두고 그날 자신의 일정이나 감상을 적어 두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본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은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선조 32년(1599)의 『대통력』에 날짜별로 목서한 간략한 일기 형식의 비망록이다. 다만 1년 12개월 전체는 남아 있지 않고, 현재 殘存하는 月分은 1月·2月·3月·4月·7月·12月 등 6개월분 8張에 해당한다.

유성룡의 본관은 豊山이고 자는 ‘而見’이며, 호는 ‘西厓’이고 시호는 ‘文忠’이다. 증조는 유자온(柳子溫)이고 조부는 유송작(柳公緯)이며, 부친은 황해도관찰사 유중영(柳仲郢, 1515~1573)이고 모친은 진사 송은(松隱) 김광수(金光粹, 1468~1563)의 따님이다. 서애는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문인이며,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1538~1593)과 동문수학하여 서로 친분이 두터웠다. 명종 19년(1564)에 생원·진사가 되고 이듬해(1565) 성균관에 들어가 수학하여 명종 21년(1566)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가 되었으며, 이듬해(1567)에 예문관 검열로 춘추관 기사관을 겸직하였다. 이후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고 특히 임진왜란(1592~1598)기에 정치·군사 전략가로서 활약하였다. 1598년 파직된 이후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안동에 머무르며 일본과의 관계, 임진왜란의 원인과 진행 상황 등을 상세하게 다룬 『징비록(懲毖錄)』을 저술하였다.

조사본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의 표지 題簽題는 ‘大明萬曆二十七年大統曆’이며

卷首題는 ‘大明萬曆二十七年歲次己亥大統曆’이다. 권말에는 『대통력』의 편찬에 참여한 명조의 春官正 李欽·夏官正 朱守訓·中官正 薛承愛·監正管秋官正事 薛承惠·冬官正 周子愚·五官靈臺郎 徐江·五官保章正 戈謙亨·五官挈壺正 高曉·五官司曆 皇甫積慶·五官司曆 何文龍 등 10명의 관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판본은 木版本으로 보이나, 마지막 12월은 觀象監活字本이 混入된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본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에는 기해년의 각 달의 해당 날짜 아래로 비망(備忘)을 위하여 해당일의 중요한 사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我地投葉山自河迴來即還
親支入學堂
見全同知廟夫喜
不宣動土

兵使軍官子安保來見兵使書不宣出行
去青松伴朴惟仁寄問
不宣動土



조사본에는 1월에는 9일, 2월에는 16일, 3월에는 28일, 4월에는 18일, 7월에는 14일, 12월에는 8일 등 총 6개월에 93일분의 墨書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기록의 내용은 간략하나마 비교적 꼼꼼하게 기록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 목서 기록과 『西厓先生年譜』에 채택된 내용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2월 16(丙寅)일의 “省墓于金溪 還至河隈”와 3월 4(癸未)일의 “出玉淵書堂謝客(先生以火色日甚 不敢接賓客 時韓柳川爲嶺伯 欲來訪 先生以書辭焉 近邑士林欲爲先生陳疏訟冤 先生急貽書所親 使力止之 ○時精舍桃花盛開 先生愛玩良久 因忽念此物關我

何事 心體澄虛 不可有偏著 仍書一絕)” 및 4월 8(丁巳)일의 “奉大夫人設酌于松亭 (時大夫人新自道心還 爲設小酌 初大夫人聞先生削職 而禍焰猶未已 每夜鷄初鳴 必整衣服 酌水祝天曰 吾子在家爲孝子 在國爲忠臣 皇天在上 不敢虛誣 如是者凡數旬)” 등 3일간의 내용만 동일한 사정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조사본에 기록된 備忘記의 原文을 옮겨오면 [표]와 같다.

<표. 宣祖 32年(1599, 己亥) 『大統曆』에 墨書된 備忘記 原文>

番號	月次	日次	『大明萬曆二十七年大統曆』 備望記(墨書)	備考
01	1~6	插紙	大吳伏羲氏 蛇身人首 造書契制嫁娶 設網罟」 教佃漁 養犧牲 女媧氏始作笙簧 炎帝神農氏 人身牛首 爲耒耜[耜]始教耕 嘗本 草始有」醫藥 教人日中爲市 黃帝軒轅氏 貫大冤□□□ 樞□□以生帝」 始用干戈 與蚩尤戰於涿鹿之野 命之作」 甲子造曆 作算數 造律呂 作舟車	
02	ㄴ	裏面	春種甲辰(1604, 宣祖 37)二月十八日始書 十八初	
03	1	10	移寓具贊祿農舍 僧太雲從	
04	ㄴ	12	兵使軍官李安傑來見兵使書	
05	ㄴ	14	青松倅朴惟仁寄問	
06	ㄴ	16	遊西溪衿·立誠從 □□ …	
07	ㄴ	18	萊山自河廻來卽還	
08	ㄴ	19	大雪	
09	ㄴ	21	見金同知肅夫[字顯]書	
10	ㄴ	26	家屬自河廻來道心	
11	ㄴ	29	允難如京	
12	2	5	琴司評聞遠[蘭秀]來訪	
13	ㄴ	10	青松 自京來	
14	ㄴ	11	黃惺來問 送木麥·大豆·青菜	
15	ㄴ	15	還河上 宿元堂 弘仲同行	
16	ㄴ	16	數輩 宿金溪寺 -省墓于金溪 還至河隈	16日(丙寅)
17	ㄴ	17	到河上	
18	ㄴ	18	金兌·金翌·金允思·金光擘·卞懷珍來見 金玄貞父子連日來見	
19	ㄴ	19	李廷生·鶴男來謁 遺山鳩·牛油	
20	ㄴ	20	李竣自慶州來訪贈魚物 府尹朴[毅長]亦相問	
21	ㄴ	21	李竣還	
22	ㄴ	22	金兵使應瑞寄問	
23	ㄴ	25	風年往盈德	

番號	月次	日次	『大明萬曆二十七年大統曆』備望記(墨書)	備考
24	ㄟ	26	成精甫調度安義來過不接 是日諸生來訪不見	
25	ㄟ	27	城主來過未拜	
26	ㄟ	28	種麻	
27	ㄟ	29	鶴伊往丹陽 卜馬爲虎所傷	
28	ㄟ	裏面	□□□□□□ …	
29	3	1	李進士終綱來見 裴龍吉來訪 宿草堂	
30	ㄟ	2	權晤・嘻・裴得仁・權行可各日來見 龍吉還	
31	ㄟ	3	種麥 張生員世熙佩酒來見	
32	ㄟ	4	往書齋謝客	4日(癸未)
33	ㄟ	5	裴來訪 南自薰・安貴壽亦過見 邊兵使書	
34	ㄟ	6	日色赤憂早徵 禮安倅金廷龍過見 尹監司書	
35	ㄟ	7	得韓方伯[浚謙]書 京書・朝報・新曆來 風年還	
36	ㄟ	8	韓伯來訪云 陳御史暴死 金復忻・金協之子英文來 長髻權倅有書	
37	ㄟ	9	衫往金溪安察訪聘壽見	
38	ㄟ	10	風 雌牛生犢而斃 庚守往丹陽	
39	ㄟ	11	袴往軍威	
40	ㄟ	12	行金溪拜掃	
41	ㄟ	13	見徐希信書 袴還 卜馬斃	
42	ㄟ	14	李光後・李屹・金希孟・金復忻來訪不見 朴珍來謁見天安書	
43	ㄟ	15	元帥來過 柳晉慶同來 安察訪聘壽佩酒來訪	
44	ㄟ	16	朝小雨 金允安來訪 隣族以酒來慰 種菊 大丘有書	
45	ㄟ	17	杜鵑始開 午風 答天安書	
46	ㄟ	18	衫奉神主自道心來 權覺	
47	ㄟ	19	朝行奠拜 午往玉淵 種檜 梅始花 安潑來	
48	ㄟ	20	府伯遺饌 謝答 蔚山書亦來 孫太定亦來	
49	ㄟ	21	雨 種菊	
50	ㄟ	22	雨	
51	ㄟ	23	立草屋三間	
52	ㄟ	25	袴往道心 見金兵使書	
53	ㄟ	26	衫往道心 食後與弘仲來玉淵書堂觀梅 金遠振來宿	
54	ㄟ	27	送金遠振 步出松沙少話 種當歸	
55	ㄟ	28	梨花始開 金繼宗自禮安來訪 見根川書	

番號	月次	日次	『大明萬曆二十七年大統曆』備望記(墨書)	備考
56	ㄴ	30	往玉淵書堂 紅桃·碧桃亂開	
57	ㄴ	裏面	□□□ …	
58	4	1	參家廟 龍宮送生獐·生雉	
59	ㄴ	2	伯氏陪母主到家 申寬一·金兌·金允思·金協子英文來 咸興校生李膺	
60	ㄴ	3	雨 狼川[柳禕]來 見克夫[徐仁元]書	
61	ㄴ	4	雨 李生員堧·李都事竣·大丘府使金九鼎來訪	
62	ㄴ	5	李炯來	
63	ㄴ	6	看山僧性智來 金建來訪	
64	ㄴ	7	張奉祖·白水漢·率婢自京來 見朝報及京書 鄭沂送竹糖	
65	ㄴ	8	奉慈氏 設酌松亭 金嘩·權坦然來訪 府伯遺江魚	8日(丁巳)
66	ㄴ	13	薔薇始開	
67	ㄴ	14	禕設酌 權彥晦[春蘭]·權任來訪 金恕卿[忠男]自天安問書 月明步沙	
68	ㄴ	15	往玉淵 送彥晦 登後麓望大野 鯉入舟	
69	ㄴ	16	僧性澄來 成調慶來	
70	ㄴ	17	卞懷珍·尹涉來訪 有葉·漢守來 見京書·朝報	
71	ㄴ	18	雨	
72	ㄴ	21	盲人李忠卜來 服二黃元	
73	ㄴ	22	金復訢來見	
74	ㄴ	26	順男母暴病氣絕 用清心蘇合元 夜深始蘇	
75	ㄴ	29	房內改塗修備	
76	ㄴ	裏面	人知病後能服藥 不如病前能自防 時 □□□□□□	
77	7	1	朴太古自京來訪京報	
78	ㄴ	2	金開寧守愚來訪	
79	ㄴ	3	安察訪來訪	
80	ㄴ	5	涼□出北林燔削雜木	
81	ㄴ	6	□城人來言書奇	
82	ㄴ	8	申剛立傳書信見後秋去廿八有恩命□□□□云	
83	ㄴ	9·10	見叔珍書 李俊有見	
84	ㄴ	12	李焯·李炯來	
85	ㄴ	13	哭先諱金遠振·權沄允□金頰來見 再見京報□□□	
86	ㄴ	23	□守千億來見京報 十金伊逃	
87	ㄴ	25	裈衫哭其母□□于書二道 午登□山仍往至門還	

番號	月次	日次	『大明萬曆二十七年大統曆』備望記(墨書)	備考
88	ㄴ	26	夜大雨	
89	ㄴ	27	見□州□李□云論性□城	
90	ㄴ	28	金翌·申剛立來訪 鄭允倅來宿	
91	12	5	昔廷幹來訪 卞□□金□兄弟李屹來訪不見 府尹進□□	
92	ㄴ	7	見惟正書	
93	ㄴ	8	府伯□□報中洛中□□	
94	ㄴ	10	袴往府中	
95	ㄴ	11	袴三□見□報□□□□□金木□難詩	
96	ㄴ	12	小雨	
97	ㄴ	18	尹御史暉來訪 見海原海平平安監司書	
98	ㄴ	25	午眞希家失火 見允安而是京報中金叔珍計	
99	ㄴ	末尾	天一生水可驗人身 貪心動則津生 哀心動則淚生 愧心動則汗生 慾心動則精生 方其寂然不動之時則太極也 此心之動則太極動而生陽也	
100	ㄴ	裏面	仁者難進 人知病後能服藥 不如病前能自防 康節邵先生詩 寧爲百夫長 勝作一書生	

지정신청의 선조 32년(1599, 기해) 『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에 목서된 기록의 내용은 견문과 행동, 내방자의 이름, 가족과 노비의 왕래, 안부로 주고받은 편지, 京書·朝報·新曆 등의 도착, 화초 등을 심고 감상한 일 등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으나 특정 사실에 대한 주관적 심회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사본은 이미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서애 류성룡의 비망기가 기입된 대통력 가운데 하나였으나, 현재는 별도 유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전하는 유성룡의 비망기는 선조 27년(1594) 갑오년(甲午年)·선조 29년(1596) 병신년(丙申年)·선조 30년(1597) 정유년(丁酉年)·선조 37년(1604) 갑진년(甲辰年)·선조 39년(1606) 병오년(丙午年) 등이다.

조사본은 서애 유성룡과 관련된 자료라는 점에서 높은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목서된 필체에 서로 다른 필체가 섞여 있는 점은 조금 더 고찰이 필요하다.

○ 지정사례

- 보물(1963.01.21.지정) / 유성룡종가문적-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 [甲午(1594)·丙申(1596)·丁酉(1597)·甲辰(1604)·丙午(1606)·丁未(1607) 등 6책]

○ 참고문헌

- 경상북도지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경상북도 안동시, 2021.



○ 현 상

<서지사항>

- 서명: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
- 저자: 유성룡(柳成龍, 1542~1607)
- 판본: 목판본, 필사본
- 간사년: 1599년(선조 32)
- 1책(8장),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8.1×14.9cm, 유계(有界), 반엽(半葉) 8행15자 소자쌍행(小字雙行), 주쌍행(註雙行), 상하흑구(上下黑口), 상하내향삼엽화문어미(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40.4×21.0cm, 한지, 호접장(蝴蝶裝)
- 내용 구성: 1599년(선조 32) 1·2·3·4·7·12월 등 총 6개월분의 대통력 및 유성룡의 비망기
- 표제: 大明萬曆二十七年大統曆
- 권수제: 大明萬曆二十七年歲次己亥大統曆
- 기타: 원래는 선장(線裝)이었던 것을 호접장(蝴蝶裝)으로 개장

<현상>

표지는 후대에 개장되었으며, 1599년의 대통력 전체 중에서 1·2·3·4·7·12월 등 총 6개월분만 남아 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상태가 양호한 편이지만, 부분적으로 오염된 곳이 있다.

○ 내용 및 특징

『대통력(大統曆)』은 명(明)나라의 역법(曆法)으로 원(元)나라의 수시력(授時曆)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대통력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수시력을 따라 지원(至元) 신사년(1281) 천정동지(天正冬至, 1280년 동지)를 역원(曆元)으로 하는 유기(劉基)의 『대통력(大統曆)』이고, 다른 하나는 홍무(洪武) 갑자년(1384) 천정동지(1383년 동지)를 역원으로 하는 원통(元統)의 『대통력법통궤(大統曆法通軌)』이다. 유기(劉基)의 『대통력』은 고려시대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원통의 『대통력법통궤』는 조선 초기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정신청된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은 조선 중기의 학자·관료인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1599년(선조 32)의 『대통력』에 날짜별로 주요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일기 형식의 비망록이다. 책의 끝부분에는 『대통력』 편찬에 참여했던 명나라 관원 10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1599년은 윤4월을 포

함하여 총 13개월이었는데, 지정신청본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은 1·2·3·4·7·12월 등 총 6개월분만 남아 있고, 나머지 7개월 치는 결락되어 있다.

유성룡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 관료이자 이황(李滉)의 학맥을 계승한 남인 학자로, 본관은 풍산(豊山)이며, 자는 ‘이현(而見)’, 호는 ‘서애(西厓)’이다. 1542년(중종 37)에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류중영(柳仲郢)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외가인 경상도 의성현의 사리촌에서 출생한 그는 일생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생활하였다. 4세에 글을 읽고 6세에 『대학(大學)』을, 8세에 『맹자(孟子)』를 읽는 등 어릴 때부터 학문에 자질을 보였다고 한다. 21살에 예안의 도산서당으로 가서 이황을 방문하여 사제관계를 맺었고, 이때 조목(趙穆)·김성일(金誠一) 등과 교류했으며, 이로써 유성룡은 이들과 함께 영남학파의 3대 영수로 꼽히게 된다. 유성룡은 25세 때인 1566년(명종 21)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는 예문관·성균관·홍문관·사간원 등 학술·언론 기관의 관직과 6조의 낭관(郎官) 등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역임하였다. 40세 이후에는 홍문관 부제학, 사헌부 대사헌, 도승지,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고, 1590년대 이후에는 정승직을 담당하면서 붕당 간의 논쟁과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국외 정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자 유성룡은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이순신(李舜臣)과 권율(權慄) 등을 발탁하여 요직을 맡기고 군사 동원 체제를 개편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에는 전쟁 발발의 책임을 지고 정승직에서는 물러났지만, 평안도 도체찰사를 맡아 명나라 군대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또 1593년(선조 26) 한성을 수복한 후에는 유성룡은 충청·전라·경상도의 삼도도체찰사와 영의정에 차례로 역임하면서 전쟁 극복 활동에 전력을 다하였다. 유성룡은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발발을 계기로 다시 탄핵을 받고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하였다. 이후 유성룡은 1600년(선조 33) 스승 이황의 연보를 작성하였으며, 7년간 지속된 임진왜란의 실상을 기록한 『징비록(懲毖錄)』을 찬술하는 등 저술 활동에 전념하였다. 1604년(선조 37)에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었고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에 봉해졌으며, 1607년(선조 40) 5월 13일에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며, 안동의 병산서원(屏山書院) 등에 제향(祭享)되었다.

지정신청된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에는 1599년 1월에 9일, 2월에 16일, 3월에 28일, 4월에 18일, 7월에 14일, 12월에 8일 등 총 93일분의 비망기(일기)가 묵서(墨書)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93일분의 기록 중에서 『서애선생연보(西厓先生年譜)』에 반영된 내용은 2월 16일, 3월 4일, 4월 8일 등 3일에 불과하며, 『대통력』에 기록된 내용보다 『서애선생연보』에 수록된 내용이 더 상세하다.

『대통력』은 일상생활에 사용되던 책력(冊曆)이기 때문에 기간이 종료되면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정신청된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 1책은 유성룡의 비망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유성룡의 생애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그 자료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는 1963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일괄 지정된 <유성룡종가문적(柳成龍宗家文籍)> 안에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 8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보물로 지정된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은 1594·1596·1597·1604·1606년 등 5년분의 5책과 1598·1605·1607년 등 3년분의 3책 등 모두 8책이다.

하지만 지정신청된 1599년의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 1책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지정신청된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 1책에 묵서된 필체를 보면, 여러 사람의 필체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유성룡의 기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유성룡종가문적> 내의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 8책과의 정밀한 비교·검토를 통해 지정신청된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 1책의 묵서 기록이 유성룡의 필체가 맞는지, 만약 유성룡 외에 다른 사람의 필체가 섞여 있다면 그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1599년의 『대통력』 전체(13개월) 중에서 6개월분만 남아 있다는 점도 기록의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정신청된 1599년의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 1책은 고문서 전공자들의 연구와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 등을 통해 기록물의 진위와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먼저 도출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본서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충분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경상북도지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경상북도 안동시, 2021.
- 경상북도지사, 「검토의견서」, 경상북도 안동시, 2021.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지정조사보고서(장인진·이수환·정우락)」, 경상북도 안동시, (보고서 작성일자 불명).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 기 타

소장자 노○○이 지정신청본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을 소장하게 된 경위는 소장자가 제출한 소장경위서를 참조.

9. 석가여래성도기주 (釋迦如來成道記註)

가. 검토사항

‘석가여래성도기주’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석가여래성도기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9.7.)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7.3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석가여래성도기주(釋迦如來成道記註)
- 소유자(관리자) : 이○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 량 : 1권 1책
- 규 격 : 24.0×14.5cm(半郭 18.8×11.8cm 내외)
- 재 질 : 지(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책사 결락)
- 조성연대 : 1253년(고려 고종 40) 판각, 후인



<석가여래성도기주>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지정 가치>

조사 대상의 서울 개인 소장 『석가여래성도기주』 1권 1책은 1253년(고종 40) 분사대장도감에서 거듭 새긴 목판을 후대 찍어 만든 불교기록유산이다. 표지가 탈락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습기·얼룩 흔적과 함께 판심 부분의 마모 현상도 보이고 있다. 인출 상태도 후쇄본으로 고르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보존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며, 완질본으로 자료적인 완전성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해당 판본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므로, 자료적인 희소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 대상의 판본은 13세기 중엽 고려국 분사대장도감에서 조성된 불사의 실체와 성격을 추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가 함축되어 있는 등 역사·문화적인 가치와 학술적인 가치도 확보하고 있다.

때문에 조사 대상의 『석가여래성도기주』 1권 1책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근거 기준>

조사 대상의 『석가여래성도기주』 1권 1책은 완질본으로 자료적인 완전성과 함께 국내외에서 처음 발견된 판본으로 자료적인 희소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13세기 중엽 고려국 분사대장도감에서 조성된 판본의 종류도 새롭게 보완·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역사·문화적인 가치와 학술적인 가치도 가진다. 때문에 조사 대상 판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지정신청본인 『석가여래성도기주』는 “계축세분사대장도감중조”라는 간기와 같이 고려 고종 40년(1253)에 분사대장도감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재조대장경으로 불리는 해인사대장경은 고종 38년(1251)에 16년 만에 완성되었다. 그런데 완성되기 전 후에 보판(補板) 간행을 통해 완전한 대장경을 이루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장도감뿐 아니라 분사대장도감에서도 1245년 경부터 선 관계 문헌을 중심으로 대장경을 보완하였는데, 이 일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1254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 간행된 분사대장도감판 보판 불서는 드물게 확인되고 있는데, 지정신청본 역시 처음으로 공개된 판본이자 유일본이다.

이렇게 지정신청본은 고려본으로 분사대장도감의 존치와 역할변화 그리고 활동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석가여래성도기주』 1책은 1253년(고종 40)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에서 거듭 새긴 목판을 후대 찍어 만든 불교기록유산으로, 전체 1권 45장의 완질본이다.

이 책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세조 때 주조된 금속활자 을해자(乙亥字)의 인출본과 함께 효종 6년 여름 지리산의 연곡사(燕谷寺)에서 개판된 목판본 등이 확인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고려본은 확인된 바가 없다.

조사본은 13세기 중엽 고려국 분사대장도감에서 조성된 불사의 실체와 성격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비록 표지는 탈락되었으나, 결락장이 없는 완전한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명칭은 ‘협주석가여래성도기’로 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조사 대상의 『석가여래성도기(釋迦如來成道記)』는 당나라 때 왕발(王勃)이 지은 『석가여래성도기』에다가 송나라 혜오 대사(慧悟大師) 도성(道誠)이 주해를 붙인 주해서이다. 1253년(고종 40) 분사대장도감에서 거듭 새긴 목판을 후대 찍어 만든 1권의 완질본이다.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이○(李○)씨가 2016년 4월 합천 해인사의 율주를 지낸 고(故) ○○ 스님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현재까지 소장하고 있다.

조사 대상 판본은 앞뒤 표지가 탈락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습기·얼룩 흔적과 함께 판심 등의 부분에서 마모 현상도 보이고 있다. 인출 상태가 고르지 못한 사례도 발견된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일부에서 필사 부분도 보인다. 오침안정의 흔적도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원래의 목판이 1판 양면 4장의 형태로 구성된 흔적도 남아 있다.

<서지사항>

목판본(木板本 : 1253년).

선장본(오침안정)/ 사주단변/ 반곽 18.8×11.8cm 내외/ 무계(無界)/ 반곽 7행 14~15자/ 주소자쌍행(註小字雙行)/ 무어미(無魚尾)·백구(白口)/ 전체 45장(서문+본문 : 서문·본문은 장차 연결).

표지제목 : 탈락(표지 전체 탈락).

서문제목 : 註釋迦如來成道記序.

서문저술 : 朝奉郎守尙書屯田郎中分司南京柱國崔育才述.

주해정보 : 錢唐月輪山居慧悟大師賜紫道誠 註.

권 수 제 : 釋迦如來成道記.

판 심 제 : 成.

권 미 제 : 夾註成道記終.

구성체계 : 서문(서문제목-서문저술정보-서문내용-서문간기)-주해정보-권수제-본문내용-권미제-간행정보.

서문간기 : 時大宋景祐元年(1034년)仲春旣望序.

간행정보 : 癸丑歲(1253년 : 고종 40)分司大藏都監重彫(제45장 권미제 아래).

특이사항 : 서문·본문의 장차가 서로 연결. 주해정보가 권수제 앞 행에 위치. 간행정보가 권미제 아래 공란에 표기. 제1~4·30~32일부에서 1면 2장 구

성의 목판 흔적이 보이는 상태. 제31장은 우변이 쌍변.

○ 내용 및 특징

『석가여래성도기(釋迦如來成道記)』는 당나라 초기 대표적인 시인으로 초당사결(初唐四傑)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포함되는 왕발(王勃)이 석가모니의 탄생·성장부터 깨달음·열반에 이르는 일대기를 담은 불교 시문집이다. 왕발의 『석가여래성도기』는 송나라 때 전당현(錢塘縣: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의 전당강(錢塘江) 부근에 있는 월륜산(月輪山)의 혜오대사(慧悟大師) 도성(道誠)이 유·불교 등 다양한 기록유산을 참조·주해하였다. 주해된 책은 『협주석가여래성도기』·『주석가여래성도기』·『석가여래성도기주』 등으로 부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조 때 구조된 금속활자 을해자(乙亥字)의 인출본과 함께 효종 6년 여름 지리산의 연곡사(燕谷寺)에서 개판된 목판본이 확인되고 있다. 을해자와 연곡사의 판본은 『석가여래성도기』의 주해서이다. 해당 판본의 권수제·권미제는 모두 석가여래성도기(釋迦如來成道記)·협주성도기(夾註成道記)이라 표기되어 있다.



서문 제목 권수제 권미제 서문 제목 권수제 권미제
 <을해자 판본(선광사 소장)> <연곡사 판본(용화사 소장)>

그런데 『석가여래성도기』는 주해서와 구성체계·내용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는 『석가여래성도기』도 발견될 수 있으므로, 권수제의 명칭으로 해당 기록유산의 명칭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적절성 여부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조사 대상의 『석가여래성도기』 1권 1책을 『석가여래성도기주』로 잠정적인 명칭을 붙였다.

조사 대상의 『석가여래성도기주』 1권 1책은 1253년(고종 40)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에서 거듭 새긴 목판을 후대 찍어 만든 불교기록유산으로, 전체 1권 45장의 완질본이다. 조사 대상의 판본은 표지가 탈락되어 있으나, 오침안정의 선장본 형태로 장정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복장 전적으로 짐작된다.

광곽은 사주단변이며, 제31장의 경우는 상하좌단변·우쌍변의 형태이다. 반곽의 행자수는 대자 7행 14~15자이며, 주소자쌍행의 형태이다. 반곽의 규격은 18.8×11.8cm 내외로 개별 장마다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문과 본문 사이에서는 계선이 없는 무계이며, 판심은 무어미·백구의 형태로 판심제·장차가 작은 글자로 표

기되어 있다. 전체의 장수는 45장으로 서문과 본문의 장차가 연결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앞뒤의 임시적인 표지 안에 서문(서문제목-서문저술정보-서문내용-서문간기)-주해정보-권수제-본문내용-권미제-간행정보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이 가운데 주해정보가 권수제의 앞부분에 배치되어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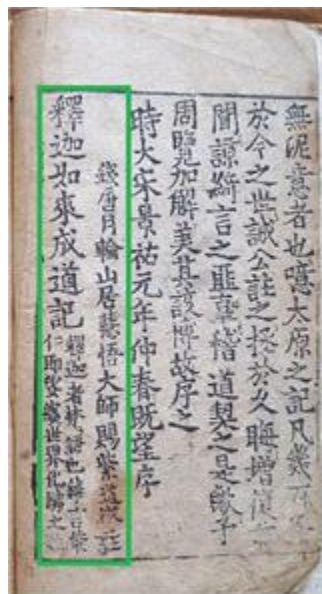
서문 제목은 주석가여래성도기서(註釋迦如來成道記序)이며, 그 다음의 제2행에는 조봉랑수상서둔전랑중분사남경주국최육재술(朝奉郎守尙書屯田郎中分司南京柱國崔育才述)이라는 서문의 저술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서문의 내용이 종결된 다음에는 ‘1034년 음력 2월 16일 서문을 지었다[時大宋景祐元年仲春旣望序]’라는 서문의 저술 시기가 표시되어 있다.

제2장의 서문을 지은 시기의 다음 행에는 ‘전당현의 월륜산에 거주하던 혜오대사 사자 도성이 『석가여래성도기』를 주해하였다[錢唐月輪山居慧悟大師賜紫道誠註]’라는 주해정보가 작은 글자로 표기되어 있다. 주해정보의 다음에는 석가여래성도기(釋迦如來成道記)라는 권수제가 배치되어 있다. 본문 내용이 끝난 다음 행에는 협주성도기(夾註成道記)라는 권미제가 표기되어 있으며, 권미제의 아래에는 끝[終]이라 표시되어 있다. 판심제는 성(成)이며, 판심제의 아래에는 일(一) 등의 장차가 작은 글자로 표기되어 있다.

제45장 권미제 아래의 공란 부분에는 ‘1253년(고종 40) 분사대장도감에서 『석가여래성도기주』의 목판을 거듭 새겼다[癸丑歲分司大藏都監重彫]’라는 간행정보가 양각되어 있다. 이로써 조사 대상의 판본은 1253년 고려국 분사대장도감에서 새긴 목판을 찍은 인출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문제목·저술정보(제1장 앞면)



권수제·주해정보(제2장 뒷면)



권미제·간행정보(제45장 뒷면)

<조사 대상 판본>

○ 지정사례

조사 대상본과 동일한 판본은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지역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해당 판본은 국내외에서 발견된 첫 사례로 자료적인 희소가치가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해당 판본보다 뒤 시기로 세조 때 주조된 금속활자 을해자의 인출본 2종류가 지역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2011년 12월 선광사 석가여래성도기의 명칭으로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에 지정된 사례, 2004년 10월 주석가여래성도기의 명칭으로 충청북도 유형문화재에 지정된 사례가 있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안휘섭·남권희, 「『註釋迦如來成道記』의 分司大藏都監 판본 연구」, 『南道文化研究』 44,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21.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 한국고전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 불교학술원 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



○ 현 상

표지는 결락되었으나 본문은 대체로 양호함.

<서지사항>

釋迦如來成道記註 / 王勃(唐) 撰 ; 道誠(宋) 註解.

木板本.

分司大藏都監: 高宗 40年(1253)刊, [後印].

不分卷1冊(45張): 四周單邊, 半郭 18.6×11.5cm, 無魚尾, 無界, 半葉 7行 13~15字; 23.8×14.5cm.

卷尾題: 夾註成道記.

○ 내용 및 특징

『석가여래성도기주(釋迦如來成道記註)』는 석가모니의 성도 과정을 기록한 시문집이다. 당나라의 왕발(王勃, 650~676)이 지은 『석가여래성도기』에다 송나라의 혜오대사(慧悟大師) 도성(道誠)이 주해하였다. 시인이자 찬자인 왕발의 자는 자안(子

安)으로 『왕자안집(王子安集)』(16권)이 있다. 주해를 한 도성의 법명은 혜오이며, 『석씨요람(釋氏要覽)』 등을 지은 승려이다. 『석가여래성도기주』의 주해는 매 구절에 대해 경론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방식이다.

『석가여래성도기주』의 서문은 송나라 경우(景祐) 원년(1034)에 최육재(崔育才)가 지었다. 본문은 석가여래의 생애, 가르침, 사적 등과 입멸 후의 유평 등을 설명하고 있다. 본문 끝에는 『협주성도기(夾註成道記)』라는 권미제가 있다.



첫째 장(서문)



앞표지(원 표지 결락)



마지막 장(권미제)



제2~3장(권수제)

<도1. 『석가여래성도기주』(지정신청본)>

지정신청본 『석가여래성도기주』는 고려의 분사대장도감에서 1253년에 간행한 판본이다. 인출기록이나 발문 등이 없어서 정확한 인출 시기는 확인하기가 어려우나 판각 이후 오래지 않은 시기의 후인본으로 추정된다. 본문에는 과거 소장자가 교정 또는 벽자(僻字)의 음을 표시하거나 조선 초기의 구결이 묵서되어 있다. 사주단변, 광곽은 18.6×11.5cm, 본문은 7행 13~15자, 주석은 쌍행으로 20~21자의 형식이다. 유물의 크기는 세로 24.0cm, 가로 14.5cm로 비교적 소형 판본이다.

불분권 1책으로 결락된 장은 없으며 모두 45장이다. 원 표지는 없으며,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얇은 한지를 앞뒤에 붙여 표지를 대신해 놓았다. 그런데 원래의 지념(紙捻)이 남아 있고, 5침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침 선장으로 장책되어 전하던 유물임을 알 수 있다. 책의 첫째 장 윗부분에는 「吨(?)藏山房」, 「鄭秉憲印」

(음각), 「정재경인」 등 방형의 주색 장서인이 3과가 있고, 「정재경인」은 마지막 장의 난외 좌측 아래에도 있다. 앞뒤의 여러 장은 모서리 부분이 손상되었으나 본문의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그런데 이 판본의 마지막 장 권미제 아래에는 “계축세분사대장도감중조(癸丑歲分司大藏都監重彫)”라는 간행과 관련된 중요한 표기가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이 판본은 고려 고종 때 대장경 조성이 끝난 뒤인 1253년에 분사대장도감에서 간행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간행된 분사대장도감본들을 통해, 대장경 간행이 완성된 이후에도 필요하거나 수요가 있었던 선종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완한 사실이 확인된다.

현재 대장도감이나 분사대장도감에서 간행된 문헌들 중에서 원 목록에 수용되지 못한 부류는 점차 밝혀지고 있다. 그중에서 분사대장도감에서 간행된 문헌들은 또 다른 가치를 가진다. 곧 이들을 통해 분사대장도감의 존치와 역할변화, 그리고 위치나 활동 범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사대장도감에서 간행한 보관류의 문헌들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다. 지정 신청본을 포함하여 분사대장도감에서 간행된 문헌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것을 시기순으로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에서 보듯이 지정신청본은 분사대장도감에서 간행된 11종 중의 하나라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13세기 중기 분사대장도감 간행 문헌>

연번	서명	간기	비고
1	天台三大部補注	乙巳歲(1245)分司大藏都監開板	
2	祖堂集	乙巳歲(1245)分司大藏都監雕造	
3	唐賢詩範	丙午歲(1246)開寧分司大藏都監開板	
4	宗鏡錄	丙午歲(1246)分司大藏都監開板 丁未歲(1247)高麗國分司南海大藏都監開板 戊申歲(1248)分司大藏都監開板	丁未歲(1247)分司大藏都監開板 丁未歲(1247)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彫造 丁未歲(1247)分司大藏都監彫造
5	禪宗唯心訣	辛亥歲(1251)分司大藏都監雕造	
6	東國李相國集	辛亥歲(1251)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雕造	
7	釋迦如來成道記註	癸丑歲(1253)分司大藏都監重彫	지정신청본
8	註心賦	甲寅歲(1254)分司大藏都監重彫	
9	宗門撫英集	甲寅歲(1254)分司大藏都監重刻	
10	重添足本禪苑清規	甲寅歲(1254)分司大藏都監重造	
11	天台隱士寒山拾得詩集	甲寅歲(1254)分司大藏都監雕造	

지정신청본은 최초로 공개되는 판본이지만 동일한 내용의 후대본 『석가여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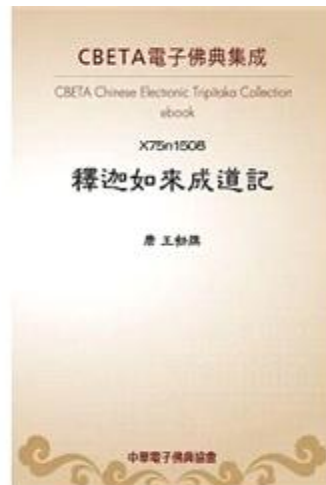
도기주』는 조선 전기의 을해자본과 효종 6년(1655)에 지리산 연곡사(燕谷寺)에서 간행된 목판본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을해자본 2건은 현재 부산, 충북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석가여래성도기주』의 권수제는 『석가여래성도기』로 되어 있어서 원문본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서제(序題)는 『주석가여래성도기(註釋迦如來成道記)』, 권미제 『협주성도기』이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한 서울특별시에서는 원문본의 서명과 동일한 『석가여래성도기』라는 명칭으로 신청하였다. 지정신청본은 왕발이 지은 『석가여래성도기』를 도성이 주석한 것이므로 구분을 위해서는 명칭에 주석본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협주성도기』라는 권미제는 주석본의 의미는 지나 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축약된 점이 없지 않고, 보편성도 없다. 현재 『석가여래성도기』는 [도2]에서 보듯이 중국의 『만속장경(卍續藏經)』이나 일본의 『대일본속장경(大日本續藏經)』에서 원문본은 『석가여래성도기』, 주석본은 『석가여래성도기주』로 일컫고 있다. 게다가 이 불서는 한국인 찬술이 아니므로 『석가여래성도기주』라고 하는 것이 보편성을 가진 합당한 명칭으로 판단된다.



No. 1509. 釋迦如來成道記註. 道誠註
<도2. 『CBETA전자불전집성』의 본문본(우: 『성도기』)과 주석본(좌: 『성도기주』)>



No. 1508. 釋迦如來成道記(1卷). 王勃撰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남권희, 「분사대장도감 간행 『석가여래성도기주』의 서지적 분석」, 『2020년도 불교학연구회 겨울 워크숍』, 2021.
- 박용진, 「고려후기 및 조선전기 불전류(佛傳類)의 간행과 유통」, 『석당논총』 80, 2021.
- 안휘섭·남권희, 「『註釋迦如來成道記』의 分司大藏都監 판본 연구」, 『남도문화연구』 44, 2021.

- 「2021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제5차 회의자료」.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 현 상

<書誌事項>

釋迦如來成道記註 / 王勃 撰, 慧悟道誠 註 -- 木版本. -- [分司大藏都監], [고려
고종 40(1253) 板刻].

1冊(45장) : 四周單邊, 半郭 18.8×11.8cm 내외, 無界, 半葉 7行 14字~15字 내외,
註小字雙行, 白口, 無魚尾, 24.0×14.5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表 題: 결락.

卷頭題: 釋迦如來成道記.

卷尾題: 夾註成道記.

版心題: 成.

序 文: 時大宋景祐元年(1034년)仲春既望序.

刊 記: 癸丑歲(1253년, 高宗 40)分司大藏都監重彫.

<현상>

조사본 『석가여래성도기주』는 현 소장자가 2016년 4월 합천 해인사의 울주를 지
낸 고(故) ○○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아 현재까지 소장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본은 앞뒤 표지가 탈락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습기·얼룩 흔적과 함께 관
심 등의 부분에서 마모 현상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 필사 부분도 보인다. 전체
적으로는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석가여래성도기(釋迦如來成道記)』는 당나라 초기 대표적인 시인으로 초당사걸(初唐四傑)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포함되는 왕발(王勃)이 석가모니의 탄생·성장부터 깨달음·열반에 이르는 일대기를 담은 불교 시문집이다. 이 책은 북송 초에 전당현(錢塘縣: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의 전당강(錢塘江) 부근에 있는 월륜산(月輪山)의 혜오 대사(慧悟大師) 도성(道誠)이 주해(註解)하였다. 주해진 책은 『협주석가여래성도기(夾註釋迦如來成道記)』·『주석가여래성도기(註釋迦如來成道記)』·『석가여래성도기주(註釋迦如來成道記註)』 등으로 부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조 때 주조된 금속활자 을해자(乙亥字)의 인출본과 함께 효종 6년 여름 지리산의 연곡사(燕谷寺)에서 개판된 목판본이 확인되고 있다.

조사본 『석가여래성도기주』 1책은 1253년(고종 40)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에서 거듭 새긴 목판을 후대 찍어 만든 불교기록유산으로, 전체 1권 45장의 완결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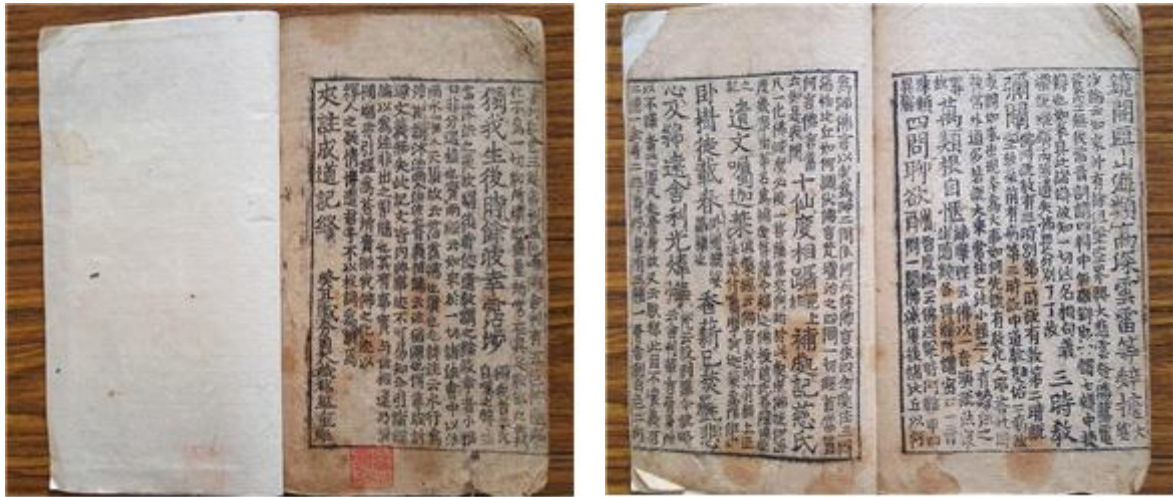
조사본의 서지적 특징을 보면 광곽은 사주단변이나, 제31장의 경우는 상하좌단변·우쌍변의 형태이다. 반곽의 행자수는 대자 7행 14~15자이며, 주소자쌍행의 형태이다. 반곽의 규격은 18.8×11.8cm 내외로 개별 장마다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문에는 계선이 없고, 판심은 무어미·백구의 형태로 판심제·장차가 작은 글자로 표기되어 있다. 전체의 장수는 45장으로 서문과 본문의 장차가 연결되어 있다.



朝奉郎守尙書屯田郎中分司南京柱國崔育才述
 時大宋景祐元年(1034년)仲春既望序
 錢唐月輪山居慧悟大師賜紫道誠 註

서문 제목은 주석가여래성도기서(註釋迦如來成道記序)이며, 그 다음의 제2행에는 조봉랑수상서둔전랑중분사남경주국최육재술(朝奉郎守尙書屯田郎中分司南京柱國崔育才述)이라는 서문의 저술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서문의 내용이 종결된 다음

에는 '1034년 음력 2월 16일 서문을 지었다[時大宋景祐元年仲春旣望序]'라는 서문의 저술 시기가 표시되어 있다.



夾註成道記終
 癸丑歲(1253년, 고종 40)分司大藏都監重彫

서문에 이어서 '전당현의 월륜산에 거주하던 혜오대사 사자 도성이 『석가여래성도기』를 주해하였다[錢唐月輪山居慧悟大師賜紫道誠 註]'라는 주해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석가여래성도기(釋迦如來成道記)라는 권수제가 배치되어 있다. 본문 내용이 끝난 다음 행에는 협주성도기(夾註成道記)라는 권미제가 표기되어 있으며, 권미제의 아래에는 끝[終]이라 표시되어 있다.

제45장 권미제 아래의 공란 부분에는 '1253년(고종 40) 분사대장도감에서 『석가여래성도기』의 목판을 거듭 새겼다[癸丑歲分司大藏都監重彫]'라는 간행정보가 양각되어 있다. 이로써 조사 대상의 판본은 1253년 고려국 분사대장도감에서 새긴 목판을 찍은 인출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지정사례

조사 대상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참고문헌

- 안희섭·남권희, 「『註釋迦如來成道記』의 分司大藏都監 판본 연구」, 『南道文化研究』 44,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21.
- 박용진, 「고려후기 분사대장도감 판각 전적의 규모와 그 내용」, 『한국문화』 9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10.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 (漆谷 松林寺 石造三藏菩薩坐像 및 木造十王像 一括)

가. 검토사항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5.2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 6.22./’23.9.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2004.10.14. 지정, 목조시왕상과 제상)
문화재자료(2004.10.14. 지정, 석조삼장보살좌상)
- 명 칭 :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
(漆谷 松林寺 石造三藏菩薩坐像 및 木造十王像 一括)
- 소유자(관리자) : ① 불 상 : 대한불교조계종 송림사
② 복장유물 : 대한불교조계종 송림사(동화사정보박물관)
- 소재지 : ① 불 상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 73, 송림사
② 복장유물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 동화사정보박물관
- 수 량 : 존상 24구, 발원문 3점, 후령통 5점
- 규 격 : 표 참조
- 재 질 : 표 참조
- 형 식 : 천장·지지·지장의 삼장보살과 시왕 권속
- 조성연대 : 1665년(조선 현종 6)
- 제작자 : 승일(勝一), 성조(性照), 자규(自圭) 등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



<지정 대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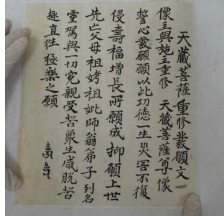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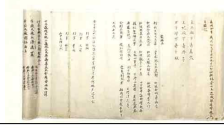

연번	명칭	사진	수량	재질	크기(cm)	비고
1	천장보살좌상		1구	석조	높이 138.0 무릎 너비 86.0 대좌 좌우 104.0 대좌 전후 95.0 대좌 높이 57.0	1665년 禪定印 양측 협시 신조성
2	지지보살좌상		1구	석조	높이 123.0 무릎 너비 77.5 대좌 좌우 104.0 대좌 전후 95.0 대좌 높이 57.0	1665년 복장구 26.0×20.5(내) 30.0×26.0(외) 내부 깊이 56.0

연번	명칭	사진	수량	재질	크기(cm)	비고
3	지지보살 우협시		1구	목조	전체 높이 217.1 어깨 너비 54.0	1665년 복장구 최대 15.0×20.0 복장 내부 높이 72.0 복장구막음판 (중×횡×고): 26.0×15.0×1.2 성형 흙 두께: 3.2~3.6cm 내외
4	지지보살 좌협시		1구	목조	전체 높이 220.5 어깨 너비 45.0	1665년 복장구 20.5×30.5
5	지장보살좌상		1구	석조	높이 123.0 무릎 너비 83.2 대좌 좌우 104.0 대좌 전후 95.0 대좌 높이 57.0	1665년 右手 說法 左手 觸地印
6	지장보살 우협시(무독귀왕)		1구	목조	전체 높이 217.0 어깨 너비 51.0	1665년 合掌印

연번	명칭	사진	수량	재질	크기(cm)	비고
7	지장보살 좌협시(도명존자)		1구	목조	전체 높이 201.0 어깨 너비 53.0	1665년 合掌印
8	제1진광대왕상		1구	목조	전체 높이 194.0 어깨 너비 50.5	1665년
9	제2초강대왕상		1구	목조	전체 높이 202.5 어깨 너비 55.3	1665년
10	제3송제대왕상		1구	목조	전체 높이 199.3 어깨 너비 48.4	1665년
11	제4오관대왕상		1구	목조	전체 높이 194.0 어깨 너비 53.0	1665년

연번	명칭	사진	수량	재질	크기(cm)	비고
12	제5엽라대왕상		1구	목조	전체 높이 200.5 어깨 너비 54.0	1665년
13	제6변성대왕상		1구	목조	전체 높이 199.5 어깨 너비 52.0	1665년
14	제7태산대왕상		1구	목조	전체 높이 196.5 어깨 너비 48.0	1665년
15	제8평등대왕상		1구	목조	전체 높이 198.0 어깨 너비 48.0	1665년
16	제9도시대왕상		1구	목조	전체 높이 208.5 어깨 너비 52.0	1665년

연번	명칭	사진	수량	재질	크기(cm)	비고
17	제10오도진륜대왕상		1구	목조	전체 높이 190.5 어깨 너비 55.0	1665년 복장구 막음판 (중×횡×고): 26.4×22.6×4.0
18	귀왕상(우)		1구	목조	전체 높이 195.5 어깨 너비 47.4	1665년 복장구(우) 막음판 (중×횡×고): 19.2×19.0×2.2
19	귀왕상(좌)		1구	목조	전체 높이 193.4 어깨 너비 44.0	1665년
20	관관상(우)		1구	목조	전체 높이 199.5 어깨 너비 46.5	1665년
21	관관상(좌)		1구	목조	전체 높이 208.5 어깨 너비 47.4	1665년

연번	명칭	사진	수량	재질	크기(cm)	비고
22	사자상(우)		1구	목조	전체 높이 117.5 어깨 너비 40.1	1665년 좌측 사자상 신조성
23	장군상(우)		1구	소조	전체 높이 212.0	
24	장군상(좌)		1구	소조	전체 높이 205.0	
25	친장보살 중수발원문		1점	종이	22.5×19.6	1753년 경
26	지장보살 좌협시(도명존자) 발원문		1점	종이	45.6×223.0	1665년 37.0×57.2 (1면, 4매 연결)
27	시왕 조성 발원문		1점	종이	36.3×140	1665년

연번	명칭	사진	수량	재질	크기(cm)	비고
28	지지보살 후령통		1점	철	전체: 높이 18.5×가로5.5 몸통: 9.0×5.5 (후혈 높이 제외)	1665년 황초폭자(黃紙) 표면에는 방위색에 맞게 사방주를 적음
29	귀왕상(우) 후령통		1점	철	높이 18.5	1665년 황초폭자(黃紙)
30	귀왕상(좌) 후령통		1점	철	높이 21.0	1665년 황초폭자(黃紙)
31	관관상(좌) 후령통		1점	철	전체높이 10.1 ·몸통 7.0×5.5(H×W) ·뚜껑 1.6×5.8(H×W) ·후혈 1.5×0.8(H×W)	1665년 황초폭자(絹) 황초폭자와 후령통 분리되어 있음
32	삼장보살도 후령통 일괄		1점	종이		1753년 경 중수 때 납입한 후 령통으로 현재 해포 되어 있음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칠곡 송림사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는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은 1665년 勝一을 수조각승으로 性照, 自圭 등 13명의 조각승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1753년 경 중수되었음이 복장물을 통해 확인된다. 삼장보살은 천상과 지상, 지옥을 나타내며 수륙제와 관련된 신앙으로 명부전의 주존불로 봉안된 사례로는 송림사 명부전이 유일하다. 재료의 경우, 삼장보살은 불석재이며 시왕상과 그 권속은 목조 그리고 장군상은 소조 등 각기 다른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된 점도 특이하다. 명부전 존상들은 다소 경직되고 단순화된 조형성을 보이지만 이는 불석이라는 재

질이 갖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승일은 17세기에 활동한 조각승으로 현진, 청헌, 무염을 스승으로 숙련기를 거쳤으며 주로 불석과 나무를 사용하여 불상을 만들었으며 1617년의 갑사 소조석가 여래삼불좌상에 참여하여 소조를 다루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불석과 나무, 흙 등을 잘 다루었던 조각승이었으며, 불석산지인 포항과 가까운 경상도의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는 등 익숙한 재료를 선택하여 제작한 것으로 이해된다. 승일은 17세기 불석과 나무를 활용하여 자신의 조각적 역량을 키운 장인으로 송림사 명부전 불상은 그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장보살을 본존으로 하는 일반적인 명부전에서 나아가 삼장보살을 배치함으로써 창의력과 강력한 지옥에서의 중생구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따라서 송림사 명부전 존상은 상태가 비교적 좋으며 봉안처와 제작시기, 조각승이 정확하게 밝혀진 점에서 자료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칠곡 송림사 명부전은 조각 작품으로는 국내 유일하게 삼장보살과 시왕상이 입체적으로 구현된 공간이다. 삼장보살은 천상, 지상, 지옥의 세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조선시대 사찰에서 행한 천도재의 하나인 수록재에서 공양을 드린 시방세계 성중들 가운데 일부를 형상화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불화작품으로 남아 있으나 송림사 삼장보살상은 조각 작품으로 구현된 유일한 사례로서 중요한 미술사적 의의가 있다.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1665년 승일을 비롯한 그의 조각유파 승려들이 협력하여 조성한 작품이며, 조성 이후 1753년 경에 한 차례 중수된 사실도 확인된다. 권속 중 일부가 결실되어 근래에 새롭게 조성되었으나, 삼장보살과 주요권속이 큰 손상과 결손 없이 제작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변형되지 않고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17세기 중엽 사회가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목재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에서는 부족한 목재의 수급을 위해 강력한 송금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에 따라 목조각을 하던 조각승은 가공이 쉬운 불석조각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사회경제사적 현상을 송림사 불상을 통해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조각승 승일은 17세기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활발하게 활약한 조각승으로, 처음에는 현진, 무염, 청헌 등 당대의 최고의 조각승을 보조하며 조각적 역량을 키워나갔으며, 1640년대부터는 자신만의 조각풍을 구현한 조각승이자 17세기를 대표하는 조각승 중 한 명이다. 송림사 명부전 조각은 수조각승 승일과 그의 유파의 대표적인 조각승인 성조, 자규 등과 함께 조각한 작품으로 그의 유파의 형성과 전

승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작품이며, 또한 그의 만년의 대표적 역작으로 평가된다. 특히 다른 조각승과 달리 명부전 도상에 천장, 지지보살을 도입하여 지옥중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하고자 의지를 드러낸 점이 돋보이고, 주존불은 석조로, 권속은 목조와 소조 기법을 두루 활용하여 제작하고 있는 점도 그가 모든 분야에 능숙한 역량을 갖춘 조각승이었음을 이 존상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송림사 명부전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은 1665년 승일을 비롯한 13명의 조각승에 의해 조성된 상이다. 석조의 삼장보살상은 승일이 1660년에 조성한 청룡사 석조지장보살상과 시왕상 일괄(1660)의 얼굴, 신체비례 등과는 다른 숙련된 기술의 조형적인 특징을 보이며, 목조시왕상 등 제상(諸像)도 목조와 흙을 활용하여 제작한 상으로 승일의 흙, 돌, 목조의 재료를 잘 다루는 조각적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명부전 삼장보살상은 16세기 이후 수륙재와 관련된 신앙의 대상이자 천상, 지상, 지하의 모든 세계를 아우르는 도상으로 조선 전기 불화로 제작된 사례는 있으나 실제 조각상으로 조성된 유일한 사례로 그 가치는 매우 높다 하겠다. 더욱이 송림사 명부전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은 봉안처, 제작자, 조성연대가 명확하며, 조선 후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은 물론 신앙적 양상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모두 충족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상 및 특징

송림사(松林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말사로서 사찰의 내력에 대해서는 사찰 경내에 남아 있는 1980년대의 《松林寺事蹟碑》에 소개되어 있다. 신라 눌지왕 때 묵호자가 처음 불법을 전하였고 소지왕 때 가람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고려시대 大覺國師 義天(1055~1101), 寶鑑國師 混丘(1250~1322)가 주석하면서 번성했지만 몽고의 침입과 임진왜란, 1650년 전후 복구되었다고 한다. 이후 조선 후기인 1686년 箕城대사가 중창하였다. 현재 통일신라시대의 오층전탑과 조선 후기의 대웅전과 명부전이 있다.

송림사 명부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전각으로 내부에 27구의 존상이 봉안되어 있다[도1]. 그러나 그 중 3구는 새로 조성된 것으로 원 존상은 모두 24구이다. 즉, 본존인 천장, 지지와 지장의 삼장보살 그리고 입상의 협시, 시왕상, 귀왕, 판관, 사자, 장군상 등이다. 존상의 재료는 삼장보살상은 불석이며 나머지 존상의 재료는 모두 나무이다.



<도1. 송림사 명부전 내부 모습>

존상의 구성은 중앙에 천장보살과 지장, 지지보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그 좌우에 협시입상을 둔 삼존 형식으로 봉안되어 있다. 삼장보살은 수륙제에서 중단에서 불러 모시는 세 구의 보살과 권속을 말한다. 천장보살은 천도 혹은 상계의 세계를 주관하고 천성과 천중을 거느리는 보살이다. 지지보살은 신도, 음부세계와 지신, 공중을 거느리며, 지장보살은 잘 알려져 있듯이 저승을 의미하는 명도의 세계와 시왕 등의 권속을 거느린다. 삼장보살은 조선 전기부터 그려졌으며, 1709년 <梵音刪補集>이 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크게 유행하면서 불화로 그려졌다.

송림사 명부전의 삼장보살은 중앙에 천장보살과 협시보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양측의 협시상은 근래에 다시 조성된 상이다. 그 오른쪽에는 지장보살이 도명

존자와 무독귀왕을 협시로 두었으며, 왼쪽에는 지지보살이 무독귀왕과 유사한 제왕의 형상을 한 협시입상이 배치되어 있다. 협시보살에 대해서는 『梵音集』(1739)에 지지보살의 儒童菩薩과 龍樹菩薩, 천장보살은 眞珠菩薩(혹은 小眞珠菩薩)과 大眞珠菩薩로 밝혀 놓았지만 정확한 존명을 도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송림사 명부전 존상에서는 2002년 천장보살좌상에서 1753년 경의 중수발원문과 경전, 다라니, 철제후령통 등의 복장물이 발견되었으며 지지보살과 도명존자에서는 발원문이 발견되었다. 복장물은 현재 동화사정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즉, 발원문은 지지보살좌상과 도명존자에서 발견되었으며 천장보살상에서는 1753년의 중수발원문(22.5×19.6cm)이[도2], 후령통은 지지보살, 도명존자, 판관상과 귀왕상에서 발견되었다.

발원문에는 康熙四年歲次乙巳인 1665년에 勝一을 수조각승으로 性照, 淨倫, 智秀, 三應, 處英, 寶悅, 行淨, 一熏, 處瓊, 尙明, 自主, 龍伊 등 13명에 의해 조성되었음을 밝혔다.



발원문(139.5×37.0)
시왕상, 1665년



시주목록기(356.0×223.0)
도명존자상, 1665년



중수발원문(22.5×19.6)
천장보살좌상, 1753년 경

<도2. 송림사 명부전 존상의 원문>

삼장보살상은 천장보살이 138.0cm, 지장과 지지보살이 123.0cm로 크기로 위계를 나타냈을 뿐 형태는 거의 비슷하다[도3]. 천장보살과 지지보살은 당초문과 모란문이 새겨진 보관에 천의를 입었으며, 지장보살은 승형에 대의를 걸쳤다. 공통적으로 머리가 신체에 비해 크고 무릎은 좁고 높으며 허리는 짧은 단구형의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불석의 재료적 특징으로도 볼 수 있다. 수인은 각기 다르게 표현하였다. 천장보살은 두 손을 배부분에 두고 포갠 다음 엄지손가락을 맞댄 선정인이며, 지지보살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다음 왼손을 무릎 밑으로 내려 축지인처럼 하였다. 지장보살은 한 손은 설법인을 한 손은 축지인을 하여 지지보살과 대칭을 이룬다. 세 구 모두 족반형의 굽은 다리를 가진 탁자형과 그 위의 연화좌로 구성된 대좌에 앉아 있는데, 현재 매우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다.



지장보살삼존상



천장보살좌상



지장보살삼존상

<도3. 송림사 명부전의 삼장보살좌상>

삼장보살의 협시상은 지장보살의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그리고 지지보살은 무독귀왕과 거의 비슷한 제왕형으로 모두 두 손을 앞으로 모아 합장을 하였다. 무독귀왕은 머리에 원류관을 쓰고 단령에 소매가 통이 넓은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도명존자는 젊은 사미승의 모습에 가사를 걸쳤다. 각각 머리가 크고 신체는 짧은 편이다.

삼장보살상의 좌우에는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시왕상이 배치되어 있고 그 옆으로 귀왕, 판관, 사자상과 문 옆으로 장군상이 배열되어 있다[도4]. 시왕상은 모두 2m 내외의 크기이며 머리부분과 팔부분의 용과 봉황머리가 장식된 의자에 앉아 있다. 자세는 의자좌나, 반가좌, 한쪽 다리를 올린 자세 등 자유로운 자세를 취하였다. 손에는 대부분 홀을 들었지만 펼친 책을 든 송제대왕, 붓과 책을 든 염라대왕 그리고 오관대왕은 수염을 만지는 다른 형태를 취하여 변화를 주었다.

귀왕은 입상에 관을 쓴 제왕형이며, 공수한 손을 옷으로 감싸고 그 위에 두루마리를 들었다. 판관은 사모를 쓰고 관복을 입은 관리의 모습에 공수한 손위로 역시 두루마리를 올려 놓았다. 사자는 2구이지만 한 구는 새로 만든 상이다. 머리에는 복두를 쓰고 관복을 입었으며 역시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명부전의 문을 지키는 장군상은 좌우에 서 있다. 이 장군상은 소조상으로 상투머리를 하였으며, 벗은 상체에 짧은 군의를 입고 다리 부분을 불룩하게 처리하여 근육과 힘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우측장군은 손에 보검을 들었으며, 좌측 장군상은 오른손은 주먹을 꼭 쥐고 한 손은 허리에 둔 상태로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힘이 느껴지지 않은 모습에 과장된 채색으로 해학적인 느낌을 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림사 명부전 존상들은 서로 다른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만든 조각승 승일은 1610년대부터 현진, 청헌, 무염 등 당대 최고의 여러 스승 밑에서 조각을 배웠으며 이 때 불석, 나무, 소조를 다루는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이해된다. 1640년대 경 부터 수조각승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 나갔으며 주요 불사를 담당하게 된다. 송림사 명부전 존상들은 삼장보살을 배치한 유일한 사례라는 창의성과 훼손 없이 좋은 상태로

잘 보존된 점 그리고 승일의 조각적 계보와 특징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제1태광대왕



제2초강대왕



제3송제대왕



제4오관대왕



제5염라대왕



제6변성대왕



제7태산대왕



제8평등대왕



제9도시대왕



제10오도전륜대왕



귀왕상(우)



귀왕상(좌)



판관상(우)



판관상(좌)



사자상(우)



장군상(우)



장군상(좌)

<도4. 칠곡 송림사 목조시왕상과 권속 일괄>

○ 문헌자료

<天藏菩薩重修發願文>

像主與施主重修 天藏菩薩尊像
誓心發願願以此功德一生災害不復 侵壽福增長所願成抑願上世
先亾父母祖妣祖妣師翁弟子列名
靈駕與一切冤親受苦衆生咸脫苦
趣直往極樂之願

<道明尊者發願文(十王造成施主目錄記)>

康熙四年歲次乙巳七月廿九日八公山松林寺十王造成畢造時施主目錄記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願我生生處處 常於般若不退轉 如彼本師勇猛志

如彼舍那大覺果 如彼文殊大智惠 如彼普賢廣德行

如彼地莊無過身 如彼觀音三十應 十方世界諸師檀越與

緣化比丘碩淡等 上報四重恩 下濟三途苦 若有見聞者

悉發菩提心 盡此一報身 同生極樂國 云何得長壽

金剛不壞身 腹以何因緣 究竟到彼岸 願我同會龍華會中

同成無上道 念十方三世一切諸 天諸菩薩摩訶薩摩訶般若波羅密

判事 坦湖 判事 天詳 判事 學明 判事 敏淳 山中太德祖熙 十王造成大施主通政大夫兼嘉善大夫金應守兩位保体 供養布施兼大施主張聖哲兩主 布施大施主法淨比丘 布施大施主潤化兩主 布施大施主陳山伊兩主 黃金大施主連臺兩主 黃金大施主圓印比丘 腹藏大施主學淨比丘 供養大施主比丘卓融保体

供養大施主朴春男靈駕 布施大施主張守兩主 布施大施主具勝文兩主 食鼎大施主金貴男兩主 布施大施主李宗日兩主 布施大施主南占孫兩主 供養大施主通政大夫朴山伊兩主 供養大施主孫今補兩主 腹藏大施主金信承兩主 黃密大施主禹後先兩主 布施大施主申右立兩主 供養施主金起男兩主 布施施主春月兩主 布施施主黃守吉兩主 布施施主定春兩主 布施施主李召吏兩主 布施施主金奉詳兩主 布施施主尹壁孝兩主 布施施主比丘普觀保体 布施施主安大云兩主 布施施主金洪日兩主 布施施主李聖元兩主 布施施主朴勝云兩主 布施施主朴士龍兩主 布施施主朴道男兩主 布施施主吳金伊兩主 布施施主方貴男兩主 布施施主比丘克性保体 布施施主徐彥宗兩主 布施施主崔士男兩主 布施施主李歲云兩主 布施施主郭日金兩主 布施施主朴已成兩主 布施施主覺明比丘 布施施主徐彥宗兩主 布施施主崔士男兩主 布施施主李士元兩主 布施施主張洪吉

兩主 布施施主徐是男兩主 布施施主池莫男兩主 布施施主金千龍兩主 布施施主金今
補兩主 布施施主徐定泉兩主 布施施主崔玉立兩主 布施施主苟男兩主 布施施主金難
金兩主 布施施主金春上兩主 布施施主尹壁孝兩主 布施施主吳彥立兩主 布施施主比
丘玉倫保体 布施施主李之敬兩主 布施施主白雲龍兩主 布施施主林勝立兩主 布施施
主白今伊兩主 布施施主李戒奉兩主 布施施主李夢承兩主 布施施主崔莫男兩主 布施
施主安大云兩主 布施施主車忞万兩主 布施施主崔永男兩主 布施施主陳難英兩主 布
施施主金命立兩主 布施施主郭礼男兩主 布施施主進弘兩主 布施施主金忞龍兩主 布
施施主奉日兩主 布施施主金莫男兩主 布施孫僅哲兩主 布施施主河同兩主 布施施主
李奉生兩主 布施施主鄭立伊兩主 布施施主姜貴日兩主 布施施主趙定生兩主 布施施
主黃永信兩主 腹藏施主貴仁介兩主保体 布施施主姜补兩主 布施施主金愛立兩主 布
施施主申男兩主 布施施主河允山兩主 布施施主韓弘善兩主 布施施主金利文兩主 布
施施主朴之惡兩主 布施施主李勝日兩主 布施施主崔日命兩主 布施施主比丘文哲保体
布施施主李千守兩主 布施施主金芻伊兩主 布施施主金己生兩主 布施施主鄭芻男兩主
布施施主徐乙男兩主 布施施主徐忞立兩主 布施施主曹一當兩主 布施施主裴男兩主
布施施主車三龍兩主 布施施主金大堯兩主 布施施主吳命良兩主 布施施主申太日兩主
布施施主李永詳兩主 布施施主金命生兩主 布施施主金莫生兩主 布施施主裴立兩主
布施施主吳生立兩主 布施施主梁愛云兩主 布施施主宋是哲兩主 布施施主沈世伊兩主
布施施主比丘英瓚保体 布施施主李政發兩主 布施施主比丘戒珪保体 布施施主李愛奉
兩主 布施施主比丘双熏保体 布施施主曹定补兩主 布施施主 金任金兩主 布施施主金
雷生兩主 布施施主裴命龍兩主 布施施主李芻連兩主 布施施主高成發兩主 布施施主
孫之男兩主 布施施主全介兩主 布施施主金礼信兩主 布施施主許勝男兩主 布施施主
金得男兩主 布施施主成貴日兩主 布施施主李舜日兩主 布施施主朴芻伊兩主 布施施
主金取生兩主 布施施主玄鶴兩主 布施施主柳生兩主 布施施主比丘卓明保体 布施施
主比丘大洽保体 布施施主梁山补兩主 布施施主崔秋日兩主 布施施主金忞明兩主 布
施施主白萬世兩主 布施施主比丘宏圓保体 布施施主崔出生兩主 布施施主朴春英兩主
布施施主梁命云兩主 布施施主鄭命云兩主 布施施主比丘太己保体 布施施主比丘戒修
保体 布施施主比丘雪行保体 布施施主比丘文侃保体 布施施主比丘智應保体 布施施
主比丘取淨保体 布施施主比丘國平保体 布施施主比丘坦元保体 布施施主比丘圓哲保
体 布施施主比丘秀宗保体 布施施主比丘印天保体 供養大施主李業仁兩主 布施施主
朴貞文兩主 供養施主梁玉兩主 供養燈燭兼大施主徐大日兩主 供養大施主劉俊生兩主
布施施主金得只兩主 布施施主李應泉兩主 布施施主具士里兩主 布施施主申秋堅兩主
供養施主唵眞兩主 布施施主金成立兩主 供養施主尹德龜保体 布施施主忞德只兩主
布施施主覺連比丘 供養大施主李英立兩主 腹藏施主性連比丘 腹藏施主楚印比丘 腹
藏施主信機比丘 腹藏施主双悅比丘

<十王造成發願文>

發願文

願我生生處 常於般若不退轉 如彼本師勇猛志
如彼舍那大覺果 如彼文殊大智惠 如彼普賢廣大行
如彼地莊無過身 如彼觀音三十應 十方世界諸師諸檀越
與緣化比丘碩淡等上報四重恩 下濟三途苦 若有見聞者
悉發菩提心 盡此一報身 同生極樂國 云何得長壽
金剛不壞身腹以何因緣究竟到彼岸願我同會龍華
會中同成無上道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康熙四年歲次乙巳七月二十九日十王造成畢造時八公山松林寺目錄記
時揚攝性旭 揚攝 天機 前判事坦湖 前判事德明 前判事天詳 前判事法印
前判事敏淳 前判事學明 時和尚卓蝠 前判事海安 山中太德祖熙
唯律 双淳 天主 法岑 信堅 雪澄 在安 尙元 大一 普揖 元湖 僅詳 秀英
應岑 竹律 廣洽 雪草 三遠雪敬 雪湜 雪梅 麗安 天敏 一澗 熙淡 默淡
眞淑 法清 尙均 雪允 杜岑 大振 寶悅 尙義 尙云 灵默 自信 道修 杜衍
自福 天己 智堅 灵祐 双悅 楚益 法蒼 禪印 性學
在謙 雪軒 雪峯 太田 尙運 覺淳 默談 眞淑 法清 尙均 三己 雪允 性岑
信淨 海根 信揮 禪俊 在憐 雪洽 雪雲 太悟 尙允 尙湜 尙澤 玉晶 學明 天詳 學
律 碩海 道衍 杜天 太雄 尙哲 學能 德明 三宗 一行 義閑 海根 而靖 卓圭 禪益 杜
瓊 尙彥 坦玄 戒熏 端屹 幸悅 尙揮 雪淳 雪淳 敬環
會忍 雪義 杜雲 雪玉 雪海 杜彥 思惠 妙信 楚鑑 信己 建遠 惠云 玉倫 在白 寶
眞 尙倫 覺明 楚印 太云 一摠 性天 信元 卓倫 玉熏 一閑 一閑 雪學 秀湖 法宗
寶文 雪環

緣化秩 畫圓 勝一 性照 淨倫 智秀 三應 處英 寶悅 行淨 一熏 處瓊 尙明 自主
龍伊 證明文熙

持殿端屹 見童萬吉 山伊 萬伊 石哲 守英 命伊 太江 龍安 命哲 貴生 戒生 英白
德立 順發 哲信

僅發 處先 好善 順必 是一僅信 白雲 興發 松柏 貴尙 表哲 戒宗 克信 勝業
別座尙倫 供養主雪軒 雪莊 雪義 尙獻 興發 幹善道人碩談

○ 참고문헌

- 김정희, 「송림사 명부전 삼장보살상과 시왕상 연구」, 『강좌미술사』 27, 2006.
- 이강근, 「송림사의 재건과 대웅전 건축의 역사」, 『강좌미술사』 27, 2006.
- 이용윤, 「조선후기 삼장보살도와 수록재의식집」, 『미술자료』 72·73, 국립중앙

박물관, 2005.

- 이희정,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佛石製 불상의 등장과 유행」, 『불교미술사학』 14, 불교미술사학회.
- 송은석, 「조각승 승일과 승일파의 조상 활동」, 『선문화연구』 8, 2010.
- 김광희, 「조선시대 소조불상의 제작기법과 조각승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 내용 및 특징

송림사는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송림길 73)의 팔공산 남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현재 경내에는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오층전탑과 조선 후기에 건립된 대웅전과 명부전, 최근에 건립된 응진전, 삼성각, 삼천불전, 설법전 등 신구의 건물들이 조화롭게 가람을 형성하고 있는 古刹이다.

송림사는 신라 눌지왕 때 목호자가 처음 불법을 전하면서 ‘松林寺’라 하고, 소지왕 때 본격적으로 가람이 성립되었다. 이후 고려시대 大覺國師 義天(1055~1101)의 중창하였으나 몽고병란으로 크게 피해를 입었고, 1322년 寶鑑國師 混丘(1250~1322)가 이곳에 주석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입적하였다. 정유재란 때 오층전탑의 금동상륜부를 훔치고자 밧줄을 매고 끌어내리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으며, 그 흔적으로 상륜부가 휘어져 있었다. 1686년 箕城大師가 크게 중창하였다. 숙종은 친히 ‘大雄殿’ 현판을 써서 내렸다. 1858년 영추스님이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개략적인 사적 내용은 1980년에 세워진 송림사 사적비에 기록된 바이다. 이외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의 조성발원문(1655년)과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의 조성발원문(1657년)을 비롯하여 사중에 보관 중인 <대웅전 중수기>(1775년), <건물상량문>(1850년) 등을 통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지속적으로 법등을 밝히기 위한 저간의 노력을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다.

송림사 명부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로 주불전인 대웅전 전방 향우측편에 자리하고 있다. 불전 내에는 입자가 곱고 무른 재료적 특성을 가진 경주 불석으로 제작된 여러 구의 존상들이 봉안되어 있다. 통상의 명부전 구성과 달리, 중앙 불단에는 천장보살삼존을 주존으로 지지보살 삼존과 지장보살 삼존이 좌우에 배치하고, 좌우로 ‘ㄱ’자와 逆‘ㄱ’字形 길게 펼치진 불단 위에는 지장보살의 권속인 10대왕과 판관, 귀왕, 장군 등 지장보살의 권속들이 배치한 매우 독특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명부전에 봉안된 존상은 모두 27구이며, 이 중 3구는 근년에

새로 조성된 것이며 24구는 1665년에 제작된 것이다.

삼장보살은 고려시대 조성된 사례는 알려진 바 없으며, 대체로 16세기대 불화에 서부터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16세기 제작된 삼장보살도는 일본과 미국 등 국외에서 10점이 알려져 있으며,⁶⁸⁾ 국내 전하는 삼장보살도는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들이다. 조각으로 제작된 것은 이 작품이 유일하다. 삼장보살은 천상, 지상, 지옥의 세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조선시대 사찰에서 행한 천도재의 하나인 수록재에서 공양을 드린 시방세계 성중들 가운데 일부를 형상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불화작품으로 남아 있으나 조각 작품으로 구현된 유일한 사례이다. 수록재는 본래 물과 육지를 떠도는 영혼과 아귀를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과 음식을 베푸는 종교의식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전국을 휩쓴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크게 성행하였다.⁶⁹⁾ 지옥중생만을 위한 공간인 명부전에 이러한 신앙적 개념을 도입한 것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된다.

2002년 조사 때 천장보살 복장에서 중수발원문과 함께 총 21종 34책의 경전, 다라니, 후령통 등이 발견되었다. 조성과 관련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전의 개관 연대를 바탕으로 1753년 경 이후에 한 차례 중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지장보살의 좌협시상인 도명존자와 지지보살의 협시 상에서는 초창과 관련된 조성발원문이 확인되었다. 발원문을 통해 1665년에 삼장보살을 비롯한 명부전의 제 존상이 함께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여한 조각승으로는 勝一, 性照, 淨倫, 智秀, 三應, 處英, 寶悅, 行淨, 一熏, 處瓊, 尙明, 自圭, 龍伊 등 14명이 참여하였다.⁷⁰⁾

68) 박은경, 『조선 전기 불화 연구』, SIGONGART, 2008, p.118.

69) 이윤운, 「조선후기 삼장보살도와 수록재의식집」, 『미술자료』 72-73, 국립중앙박물관, 2005, pp.102~103.

70) 수조각승 승일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1617년, 시주(행사), 勝日.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治匠2위(성옥, 현진), 勝一.
- 대구 동화사 금당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29년, 2위(현진).
- 창녕 관룡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29년, 2위(현진).
- 밀양 표충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634년 추정, 1위.
- 영광 불갑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5년, 2위(무명).
- 제천 경은사 목조보살좌상, 1636년, 1위.
- 하동 쌍계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9년, 2위(청헌) 勝日.
- 성주 명적암 영남대 박물관소장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37년, 2위(현진).
-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대세지보살상, 1646년, 1위(勝日).
-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48년, 1위.
- 서울 봉은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51년, 1위(勝一).
- 무주 북고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1위(勝一).
- 문경 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58년, 1위(勝一).
- 서울 청룡사 명부전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1660, 1위, 원 용필사.
- 칠곡 송림사 명부전 석조삼장보살 및 시왕상 일괄, 1665년, 1위.
- 김천 직지사 비로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68년, 1위(勝一).
- 김천 직지사 비로진 목조보살좌상, 1688년, 1위(勝一).
- 경북 김천 고방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70년, 1위(勝日).

송림사 명부전 존상은 석조와 목조, 소조로 제작된 상이 공존한다. 17세기 중엽 경 불상의 재료가 목조에서 석조로의 재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공존하는 공간이 바로 송림사 명부전인 것이다. 17세기 전반은 왜란과 호란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였고, 불상의 재료에 있어서도 흙과 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다 나무의 수급이 부족해지자 불상의 재료에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즉 전쟁 후 사회가 안정기로 접어들면서는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한 상공업의 발달과 물품의 운송하기 위한 私船建造의 성행 등 시중에 필요한 목재 수요에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⁷¹⁾ 조정에서는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부족한 국용목재를 보호하기 위해 벌채를 금지하는 松禁을 내리기도 했고, 국용목재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에 수목을 기르는 봉산을 지정해 수목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 당시 봉산과 금산이 가장 많았던 곳이 경상도 지역이며 이러한 조치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도 경상도 지역이었다.⁷²⁾ 이에 당시 木 조각승들은 입자가 곱고, 가공하기 쉬운 불석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불석은 지질학적 분포로 보면 포항, 장기, 감포 등 경상도 동부지역이 주 산출지이다. 17세기 불석제 불상 중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이 1648년에 제작된 양산 원효사 석조약사여래좌상과 양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1655년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상 등으로, 이들 불상의 출현은 국가의 송금령 시책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이후 불석은 불상조각에 있어서 나무와 더불어 핵심재료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사회사적 배경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송림사 불상이며, 불석산지와 지리적으로도 가깝다.

삼장보살상은 족대에 화염장식으로 꾸민 탁자모양의 대좌 위에 앉아 있다. 2006년도 불교문화재일제조사 당시 모두 호분과 채색으로 개채된 상태였으나 현재 삼장보살은 改金되었고, 대좌도 새롭게 개채하였다.

천장보살의 좌우협시는 대개 대진주보살과 소진주보살, 또는 대진주보살과 진주보살이 등장한다. 지지보살의 좌우협시는 『梵音刪補集』에 儒童菩薩과 龍樹菩薩, 또는 1766년 천은사 삼장보살도의 화기에는 左補 龍樹菩薩, 右補 陀羅尼菩薩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661년에 간행된 『오종범음집』에는 좌보천중과 우보천중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협시보살의 존명을 부여할 때는 표현된 도상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 명부전의 지지보살상의 좌우협시가 보살형이 아닌 제왕형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천장보살의 제작 당시의 존명도 이에 준해서 좌보·우보천중으로 제작되었고, 지지보살의 좌우협시 역시 좌보공중과 우보공중을

71) 황미숙, 「조선후기 목재수요의 증대와 국용목재의 조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대길, 「조선후기 송금정책에 관한 연구」, 『도시역사문화』 3, 2005, p.101.

72) 송금령은 목재를 몰래 베는 것을 막고 송목을 배양함으로써 송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송금정책의 구체적인 조치가 숙종 10년(1684)에 마련되기도 하였다.

오 성, 「조선후기 목재상인에 대한 일연구」, 『동아연구』 3, 1983. , pp.246~247.

이희정,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佛石製 불상의 등장과 유행」, 『불교미술사학』 14, 불교미술사학회, 2012, pp.40~41.

시각화한 것으로 일단 추정해 볼 수 있다. 지장보살은 무독귀왕과 좌측에 도명존자, 우측에 무독귀왕을 협시로 하고 있다.



<지장보살삼존상>



<천장보살좌상>



<지장보살삼존상>

삼장보살은 중앙에 선정인의 천장보살을 두고, 좌우측에 손의 위치만 달리하여 조성한 지지보살과 지장보살을 좌우대칭에 입각하여 배치하였다. 다만 삼장보살 중 천장보살과 지지보살은 보관과 천의를 걸친 모습이고, 지장보살은 체발한 승려형이다. 천장보살의 좌우협시는 최근에 새로 제작한 것이며, 지지보살의 좌우협시는 梁冠과 冠服을 착용한 제왕형의 합장한 모습이다. 지장보살의 좌우협시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으로, 두 상 역시 합장하였다. 세 구 모두 17세기 전반기 불상에 비해 머리는 크고, 무릎은 좁고 높아졌고, 전반적으로 단구적인 형태미를 보여준다. 불신에 표현된 주름은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48년),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51년) 등 승일의 대표작에 비해 단조롭게 도식화된 주름을 보이고 있지만, 측면으로 돌아간 천의자락에서는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각기법은 조각승 운혜, 혜희, 금문, 마일 등이 즐겨 구사한 표현방식인데, 승일 역시 동시기 조각승들의 표현 감각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상 전반에 흐르는 다소 경직되고 단순화된 조각기법은 木조각에서 石조각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기술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이와 같은 도식화된 조형감은 조선 후기 불석조각에서 큰 성과를 이룬 승호와 그의 유파 조각승들에 의해 가장 적극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중앙의 삼장보살단의 좌우로 ‘门’로 펼쳐진 불단에는 시왕상과 권속들이 배치되었다. 좌측에는 홀수 대왕이, 우측에는 짝수 대왕이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시왕들은 용머리로 장식된 등받이와 봉황의 머리로 장식된 팔걸이를 가진 의좌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연출되었다. 머리에는 양관을 쓰고 관복을 착용하였다. 가슴에는 혁대를 두르고, 광다회가 다리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다.



<제1진광대왕>



<제2초강대왕>



<제3송제대왕>



<제4오관대왕>



<제5염라대왕>



<제6변성대왕>



<제7태산대왕>



<제8평등대왕>



<제9도시대왕>



<제10전륜대왕>

좌측1 진광대왕(제3대왕)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홀을 받쳐 들었다. 좌측2 송제대왕(제3대왕)은 두 손으로 책을 펼쳐 들었다. 좌측3 염라대왕(제5대왕)은 붓과 책을 들었다. 좌측4 태산대왕(제7대왕)과 좌측5 도시대왕(제9대왕)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홀을 잡았다.

우측1 초강대왕(제2대왕)은 윤왕좌의 변형자세로 앉았는데, 오른쪽 다리를 세우고 왼쪽 다리는 편안히 내렸다. 우측2 오관대왕(제4대왕)은 오른손으로 수염을 매만지고 있다. 우측3 변성대왕(제6대왕)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홀을 잡았다. 우측4 평등대왕(제8대왕)은 반가좌로 앉았다. 우측5 오도전륜대왕(제10대왕)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홀을 잡았다.

좌우 귀왕은 선 자세로 조성되었다. 冠을 쓰고 관복을 입은 제왕형으로 표현되었으며,拱手한 두 손은 가리개로 덮고 그 위에 두루마리를 올려놓았다. 좌우 관관은 사모를 쓰고 관복을 입은 관리형으로 귀왕과 마찬가지로 공수한 손은 가리개로 가리고 그 위에 두루마리를 올려놓았다.

좌측 사자는 근래 새롭게 조성한 것이며, 우측 사자는 토끼 귀모양의 관을 쓰고 관복을 입었으며, 공수한 두 손위에는 두루마리를 올려놓았다.

좌우 장군은 소조로 제작되었다. 상체는 나체로, 하체는 짧은 치마를 입었다. 하체에는 울룩불룩 근육이 도드라져 인상적이다. 우 장군은 보검을 잡았고, 좌 장군은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시왕을 비롯한 권속들은 조선 후기 명부전에 봉안된 존상들의 일반적인 배치와 도상을 따르고 있다.



<관관상(우)>



<관관상(좌)>



<귀왕상(우)>



<귀왕상(좌)>



<사자상(우)>



<사자상(좌) 근작>



<장군상(우)>



<장군상(좌)>

○ 문헌자료

<천장보살 중수발원문>

天藏菩薩重修發願文
 像主與施主重修 天藏菩薩尊像
 誓心發願願以此功德一生災害不復
 侵壽福增長所願成抑願上世
 先亾父母祖妣祖妣師翁弟子列名
 靈駕與一切冤親受苦衆生咸脫苦
 趣直往極樂之願

<도명존자 발원문>

康熙四年歲次乙巳七月廿九日八公山松林寺十王造成畢造時施主」
 目錄記」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願我生生處 常於般若不退轉 如彼本師勇猛志」
 如彼舍那大覺果 如彼文殊大智惠 如彼普賢廣德行」
 如彼地藏無過身 如彼觀音三十應 十方世界諸師檀越與」

緣化比丘碩淡等 上報四重恩 下濟三途苦 君有見聞者」
悉發菩提心 盡此一報身 同生極樂國 云何得長壽」
金剛不壞身 腹此何因緣 究竟到彼岸 願我同會龍華會中」
同成無上道」

念十方三世一切諸佛諸菩薩摩訶薩摩訶般若波羅密」
判事 坦湖」
判事 天詳」
判事 學明」
山中大德 坦熙」

十王造成大施主通政大夫兼嘉善大夫金應守兩位保体
供養布施兼大施主張聖哲兩主
布施大施主淨法比丘
布施大施潤化兩主
布施大施主陳山伊兩主
黃金大施主連臺兩主
黃金大施主圓印比丘
腹藏大施主學淨比丘
供養大施主比丘卓融保体
供養大施主朴春男灵駕
布施大施主張守兩主
布施大施主具勝文兩主
食鼎大施主金貴男兩主
布施大施主李宗日兩主
布施大施主南占孫兩主
供養大施主通政大夫朴山伊兩主
供養大施主孫今补兩主
腹藏大施主金信承兩主
黃密大施主禹後先兩主
布施大施主申右立兩主
供養施主金起男兩主
布施施主春月兩主
布施施主黃守吉兩主
布施施主定春兩主

布施施主 李召吏兩主
布施施主金奉詳兩主
布施施主尹壁孝兩主
布施施主比丘普觀保体
布施施主安大云兩主
布施施主金洪日兩主
布施施主李聖元兩主
布施施主朴勝云兩主
布施施主朴士龍兩主
布施施主朴道男兩主
布施施主吳金伊兩主
布施施主方貴男兩主
布施施主比丘克性保体
布施施主徐彦宗兩主
布施施主崔士男兩主
布施施主李歲云兩主
布施施主郭日金兩主
布施施主朴己成兩主
布施施主覺明比丘
布施施主徐彦宗兩主
布施施主崔士男兩主
布施施主李士元兩主
布施施主張洪吉兩主
布施施主徐是男兩主
布施施主池莫男兩主

布施施主金千龍兩主
布施施主金今补兩主
布施施主徐定泉兩主
布施施主崔玉立兩主
布施施主苟男兩主
布施施主金難金兩主
布施施主金春上兩主
布施施主尹壁孝兩主
布施施主吳彦立兩主

布施施主比丘玉倫保体
布施施主李之敬兩主
布施施主白雲龍兩主
布施施主林勝立兩主
布施施主白介伊兩主
布施施主李戒奉兩主
布施施主李夢承兩主
布施施主崔莫男兩主
布施施主安大云兩主
布施施主車忞万兩主
布施施主崔永男兩主
布施施主陳難英兩主
布施施主金命立兩主
布施施主郭礼男兩主

布施施主進弘兩主
布施施主金忞龍兩主
布施施主奉日兩主
布施施主金莫男兩主
布施施主孫僅哲兩主
布施施主河同兩主
布施施主李奉生兩主
布施施主鄭立伊兩主
布施施主姜貴日兩主
布施施主趙定生兩主
布施施主黃永信兩主

(하단)

腹藏施主貴仁介兩主保体
布施施主姜补兩主
布施施主金愛立兩主
布施施主申男兩主
布施施主河允山兩主
布施施主韓弘善兩主
布施施主金利文兩主

布施施主朴之惠兩主
布施施主李勝日兩主
布施施主崔日命兩主
布施施主比丘文哲保体
布施施主李千守兩主
布施施主金芑伊兩主
布施施主金己生兩主
布施施主鄭芑男兩主
布施施主徐乙男兩主
布施施主徐忞立兩主
布施施主曹一當兩主
布施施主裴男兩主
布施施主車三龍兩主
布施施主金大堯兩主
布施施主吳命良兩主
布施施主申太日兩主
布施施主李永詳兩主
布施施主金命生兩主
布施施主金莫生兩主
布施施主裴立兩主
布施施主吳生立兩主
布施施主梁愛云兩主
布施施主宋是哲兩主
布施施主沈世伊兩主
布施施主比丘英瓚保体
布施施主李政發兩主
布施施主比丘戒珪保体
布施施主李愛奉兩主
布施施主比丘双熏保体

布施施主曹定补兩主
布施施主 金任金兩主
布施施主金雷生兩主
布施施主裴命龍兩主
布施施主李芑連兩主

布施施主高成發兩主
布施施主孫之男兩主
布施施主全介兩主
布施施主金礼信兩主
布施施主許勝男兩主
布施施主金得男兩主
布施施主成貴日兩主
布施施主李舜日兩主
布施施主朴芑伊兩主

布施施主金取生兩主
布施施主玄鶴兩主
布施施主柳生兩主
布施施主比丘卓明保体
布施施主比丘大洽保体
布施施主梁山补兩主
布施施主崔秋日兩主
布施施主金忞明兩主
布施施主白萬世兩主
布施施主比丘宏圓保体
布施施主崔出生兩主
布施施主朴春英兩主
布施施主梁命云兩主
布施施主鄭命云兩主

布施施主比丘太己保体
布施施主比丘戒修保体
布施施主比丘雪行保体
布施施主比丘文侃保体
布施施主比丘智應保体
布施施主比丘取淨保体
布施施主比丘國平保体
布施施主比丘坦元保体
布施施主比丘圓哲保体
布施施主比丘秀宗保体

布施施主比丘印天保体
供養大施主李業仁兩主
布施施主朴貞文兩主
供養施主梁玉兩主
供養燈燭兼大施主徐大日兩主
供養大施主劉俊生兩主
布施施主金得只兩主
布施施主李應泉兩主
布施施主具士里兩主
布施施主申秋堅兩主
供養施主龔眞兩主
布施施主金成立兩主
供養施主尹德龜保体
布施施主忞德只兩主
布施施主覺連比丘
供養大施主李英立兩主
腹藏施主性連比丘
腹藏施主楚印比丘
腹藏施主信機比丘
腹藏施主双悅比丘
(송광사 고경스님 명문 교열)

<시왕 조성 발원문>

發願文

願我生生處 常於般若不退轉 如彼本師勇猛志
如彼舍那大覺果 如彼文殊大智惠 如彼普賢廣大行
如彼地莊無過身 如彼觀音三十應 十方世界諸師諸檀越
與緣化比丘碩淡等上報四重恩 下濟三途苦 若有見聞者
悉發菩提心 盡此一報身 同生極樂國 云何得長壽

金剛不壞身腹以何因緣究竟到彼岸願我同會龍華
會中同成無上道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康熙四年歲次乙巳七月二十九日十王造成畢造時八公山松林寺目

錄記

時揚攝性旭

揚攝 天機

前判事坦湖

前判事德明

前判事天詳

前判事法印

前判事敏淳

前判事學明

時和尚卓蝠

前判事海安

山中太德祖熙

唯律 双淳 天主 法岑 信堅 雪澄 在安 尙元 大一 普揖 元湖 僅詳 秀英

應岑 竹律 廣洽 雪草 三遠雪敬 雪湜 雪梅 麗安 天敏 一澗 熙淡 默淡

眞淑 法清 尙均 雪允 杜岑 大振 寶悅 尙義 尙云 灵默 自信 道修 杜衍

自福 天己 智堅 灵祐 双悅 楚益 法贅 禪印 性學

在謙 雪軒 雪峯 太田 尙運 覺淳 默談 眞淑 法清 尙均 三己 雪允 性岑

信淨 海根 信揮 禪俊 在憐

雪洽 雪雲 太悟 尙允 尙湜 尙澤 玉晶 學明 天詳 學律 碩海 道衍 杜天

太雄 尙哲 學能 德明 三宗

一行 義閑 海根 而靖 卓圭 禪益 杜瓊 尙彥 坦玄 戒熏 端屹 幸悅 尙揮

雪淳 敬環

會忍 雪義 杜雲 雪玉 雪海 杜彥 思惠 妙信 楚鑑 信己 建遠 惠云 玉倫

在白 寶眞 尙倫 覺明 楚印太云 一揔 性天 信元 卓倫 玉熏 一閑 敬一

雪學

秀湖 法宗 寶文 雪環

緣化秩 畫圓勝一 性照 淨倫 智秀 三應 處英 寶悅 行淨 一熏 處瓊 尙明

自主 龍伊 證明文熙

持殿端屹 見童萬吉 山伊

萬伊 石哲 守英 命伊 太江 龍安 命哲 貴生 戒生 英白 德立 順發 哲信

仅發 處先 好善 順必 是一僅信 白雲 興發 松柏 貴尙 表哲 戒宗 克信

勝業

別座尙倫 供養主雪軒 雪莊 雪義 尙獻 興發 幹善道人碩談



○ 현 상

송림사(松林寺)는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소재의 오랜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말사이다. 경내의 《松林寺事蹟碑》에 따르면 눌지왕 때 묵호자가 처음 불법을 전하면서 사명을 지었고, 소지왕 때 본격적인 가람이 성립되었으며, 진(陳)의 사신과 유학승 명관(明觀)이 신라로 돌아오면서 불경 2,700권과 불사리를 가지고 와 이곳 송림사 탑에 일부 봉안했다 한다. 고려 때는 대각국사 의천, 보감국사가 주석할 정도로 비중 큰 사찰이었지만 몽고 침입, 조선 시대는 임진왜란의 전쟁 피해를 피할 수는 없었다. 임란 이후의 복구는 165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중흥기는 1686년 기성대사 때였다고 한다.

임란 이후에 세운 송림사 명부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로 조선 후기 일반적 명부전보다 큰 규모이다. 전각 가운데 불단에는 방형 대좌 위 낮은 연화좌에 천장·지지·지장의 삼장보살상과 입상의 협시, 시왕상, 귀왕, 판관, 사자, 장군상 등 일괄의 존상이 나열되어 있다. 총 27구가 봉안되어 있지만 그중 천장보살의 협시 2구와 사자상(좌) 1구는 근래의 제작된 것으로 17세기의 상은 모두 24구이다. 모두 하나의 재료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중앙의 주존인 삼장보살상은 불석의 석조상이고 나머지 상은 나무로 형태를 만든 후 그 위에 흙을 발라 성형한 목조상으로 추정된다.

모든 상의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다. 삼장보살상은 다리 위, 무릎 주변, 소매 등에 도금의 박리·박락이 생겨 옷칠층이 드러나 있으며, 목조상은 채색층의 균열, 습기 등으로 인한 변색과 오염, 안료의 들뜸 현상 등으로 상태가 좋지 못하다. 지지보살상의 양 협시는 뒷면에 장방형의 큰 복장공이 마련되어 있다. 한 통의 나무로 조각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에 3.6cm 내외로 흙을 발라 성형하였고, 얼굴도 얇은 호분층 위에 종이를 발라 채색한 것으로 추정된다.

호족반 모양의 굽은 다리를 가진 방형 대좌 위에 연화좌를 두고 그 위에 삼장보살상을 봉안했다. 대좌 상면은 작게 구멍이 뚫려 있고 불상의 바닥면 복장공과 연결되어 있다. 훼손되어 열려 있는 복장공은 방형으로 단을 이루고 있는데 원래 막음판이 있었을 것이다. 상의 내부는 무게로 생긴 균열을 보완하기 위해 합성수지 등을 도포한 것으로 보인다.



<도1. 석조삼장보살좌상-천장보살>



<도2. 석조삼장보살좌상-지장보살>



<도3. 석조삼장보살좌상-지지도보살>



<도4. 송림사 명부전 내부 전경>

○ 내용 및 특징

명부전 중앙 불단에는 가운데 천장보살을 두고 그 협시로 왼쪽에 지지도보살, 오른쪽에 지장보살의 삼장보살상이 봉안되어 있다. 각각의 보살상 좌우에는 협시를 거느리는 삼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삼장보살의 도상은 수륙재의식과 관련하여 신앙되어 16세기 불화로 제작된 사례는 있으나 조각상으로 협시와 함께 제작된 것은 전 시대를 통틀어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주존상인 삼장보살상은 신체비례, 얼굴, 착의법 등의 특징이 대동소이하여 같은 조각승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양측의 지지도보살과 지장보살상은 중앙의 천장보살보다 작게 조성해 본존과 격을 달리하는 보편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인상, 수인, 옷 등 세부적 표현은 존상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다.

공통적으로 머리는 신체에 비해 크고 허리는 짧으며, 다리 너비에 비해 무릎의 높이가 높아 하반신에 비중이 크다. 턱을 수평으로 깎은 각진 방형 얼굴에 가늘고

긴 눈, 둥근 눈썹 선에서 이어지는 편평한 콧대의 오뚝한 코, 힘을 주어 다문 입술은 양 끝을 움푹하게 파서 상대적으로 턱이 도드라져 보인다. 또 양측 두 귀도 높은 두꺼운 모양인데 불석 불상의 조각적 특징이다. 전체적인 인상은 천장보살상은 차분하면서도 근엄하게 표현했으나 양측의 두 보살상은 본존에 비해 이미지가 약하다.

천장보살과 지지보살은 머리에 보관은 쓰고 있으며, 정수리 중앙의 낮은 보계가 있고, 보발은 정면으로부터 귀 측면까지 일정하게 나눈 머리카락의 가닥 중 귀 앞으로 내려오는 두 가닥은 귓불을 지나 귀 뒤의 가닥과 어깨에서 합쳐져 세 개의 원형 고리를 만든 후 다시 3개의 가닥으로 나누어 흘러내린다. 보관은 고려 후기 겹보관 형식을 모방했는데 천장보살상은 하단은 연당초, 상단은 운문으로 장식하고, 지지보살상은 모란문당초, 연당초 등을 양각으로 빼곡하게 조각했다. 지장보살상은 민머리의 승형이다.

손 모습도 각 상이 다른데 천장보살상은 오른손 위에 왼손을 나란히 포개 후 엄지손가락을 맞대어 다리 위에 둔 선정인을 하고 있다. 고려 시대로 편년되는 강원도 고성출토 석조여래좌상의 손 모습과 닮아 석조불상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지지보살상은 왼손의 손끝이 땅을 향하고 다리 위에 둔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손 위치가 반대인 향마촉지인을 하고 있다. 반대편 협시인 지장보살상의 손 모습을 고려한 것이다.

천장·지지보살의 옷은 가슴 아래 균의를 입고 양어깨에는 천의를 솔처럼 걸치고 있다. 양어깨에서 겨드랑이로 아래로 빼낸 천의자락은 팔꿈치 뒤에서 U자형을 그리면서 다시 허리 쪽을 거쳐 양 손목 바깥으로 넘겼는데 천의 자락 끝이 바람에 날리듯 끝이 올라가 있으며, 왼편 지지보살상은 옷자락이 물결처럼 너울거리는 모습으로 두 보살상 모두 천의의 동감이 강조되어 있다. 천의 자락을 입체적으로 조각하려는 의도는 보이나 각지고 두껍게 조각된 것은 불석의 석재를 떼어내는 기법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가슴 아래 균의를 입고 끈으로 묶었는데 천장보살상은 나비 모양의 매듭을 만든 후 끈 자락을 양측으로 길게 내렸으며, 지지보살상은 간단한 매듭형으로 만든 후 가는 끈 자락을 허벅지 쪽으로 펼쳐 내렸다. 끈 위로 올라온 옷자락은 도톰한 연꽃 모양으로 양감 있게 조각했다. 옷의 표현에서는 부드러운 불석 재질은 활용한 섬세한 조각과 덩어리의 조각기법을 조화롭게 활용한 조각승의 숙련된 조각 솜씨가 돋보인다. 다리 앞으로는 양측으로 3개씩 간결한 옷주름으로 얇고 평면적으로 조각되어 있다. 지장보살상은 오른쪽 어깨에 편삼과 그 위에 대의로 두 어깨를 감싼 변형통견식으로 옷을 입었다. 오른쪽 어깨와 다리 앞에 얇게 접힌 옷주름, 배 앞에서 교차된 편삼과 대의 자락 등 간결하면서도 평면적인 불석 조각의 기법이 잘 드러나 있다.

지장보살의 양측에는 오른쪽에 무독귀왕과 왼쪽에 도명존자가 합장하여 서 있

다. 4등신의 입상으로 큰 머리에 비해 신체가 짧다. 가름한 얼굴에 가늘게 뜬 작은 눈, 오뚝한 코, 살포시 다문 작은 입의 표현으로 차분한 인상을 준다. 무독귀왕은 머리에 원류관을 쓰고 옷은 단령에 소매통이 넓은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젊은 사미승의 모습을 한 도명존자는 두루마기를 입고 편단우견으로 가사를 둘렀다. 지지보살의 양 협시는 무독귀왕과 같은 옷을 입고 합장하여 서 있다. 시기적인 차는 있으나 삼장보살의 협시에 대해 밝힌 『梵音集』(1739)에 의하면 지지보살의 협시는 유동보살(儒童菩薩), 용수보살(龍樹菩薩), 천장보살은 진주보살(眞珠菩薩) 혹은 소진주보살(小眞珠菩薩)과 대진주보살(大眞珠菩薩)로 되어 있다. 하지만 송림사 명부전 불상은 여러 구의 보살을 나열하기보다 시왕상과 같은 문관 모습으로 어느 정도 통일감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장보살의 협시는 원래 4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하동 쌍계사(1641)나 공주 갑사(1617)의 경우 삼존상과 4구의 협시로 구성되어 있고, 구례 화엄사 각황전(1703)도 역시 삼불상과 사보살상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삼장보살상의 양측으로 시왕이 배열해 있는데 좌측으로 제1·제3·제5·제7·제9 대왕, 우측으로 제2·제4·제6·제8·제10 대왕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도5]. 얼굴은 가름하며, 작고 가는 눈, 오뚝한 코, 작은 입 등을 특징으로 하며 침울해 보이는 인상이 삼장보살의 협시상과 대동소이하다. 자세는 봉황 혹은 용두가 장식된 의자에 앉은 의자상인데 두 다리를 내린 자세가 대부분이지만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 위에 올린 반가좌의 자세를 하거나 한쪽 다리를 의자에 걸터앉은 모습도 있다. 양손은 가슴 앞에 모아 홀을 쥐고 있거나 수염을 쓰다듬기도 하며, 홀을 권 손을 발 위에 얹어 두거나 머리를 숙여 펼쳐 든 명부를 보는 등 자유로운 모습이다. 보편적으로 제5염라대왕은 명부를 관 위에 얹고 있는데 송림사 상은 붓으로 생전의 내용을 명부에 기록하고 있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신체는 좁은 어깨에 허리가 짧은 왜소한 상반신과 이에 반해 하반신은 비해 길고 무릎이 이하가 비대하게 보인다.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는 신체 표현은 남원 선원사(원 완주 위봉사) 소조시왕상(1610), 완주 송광사 소조시왕상(1640) 등 흠을 활용한 시왕상의 특징과 유사하다.



제1태광대왕



제2초강대왕



제3송제대왕



제4오관대왕



제5염라대왕



제6변성대왕



제7태산대왕



제8평등대왕



제9도시대왕



제10오도전륜대왕



귀왕상(우)



귀왕상(좌)



판관상(우)



판관상(좌)



사자상(우)



장군상(우)



장군상(좌)

<도5. 칠곡 송림사 목조시왕상 등 일괄>

모두 머리에 원유관을 쓰고 단령에 소매가 넓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 무독귀왕이나 지지보살상의 협시의 모습과 유사하다.

시왕의 곁에는 귀왕, 판관, 사자상이 나란히 서 있다. 모두 공수한 양손에는 명부의 두루마기를 받쳐 들고 있다. 얼굴 모습과 인상은 삼장보살상 외의 상들과 닮았다. 귀왕은 시왕상과 같은 옷차림으로 단령에 포를 입고 있으며, 판관상은 사모

관대를 착용했고, 사자상은 귀왕이나 관관상에 비해 작게 제작되어 서로 격이 다름을 나타내었으며 머리에는 복두를 쓰고 가죽 장화를 신고 있다.

문 앞에 서 있는 장군상도 다른 여러 상과 마찬가지로 나무로 상을 만든 후 흙을 발라 성형하여 채색한 것이다. 두 상의 모습은 대체로 동일한데 4등신에 머리가 크고 옷을 입지 않은 상반신에 목에는 천의를 둘러 자락이 길게 발아래로 흘러내렸다. 허리에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바지를 입고 끈으로 묶어 바지 상단을 바깥으로 접었다. 장군상은 양발에 힘을 주어 땅을 딛고 서 있어 종아리의 울퉁불퉁한 근육이 드러나 있으며, 변발에 상투 모양으로 머리카락을 묶었다. 우측 장군상은 눈을 부릅뜨고 이빨을 모두 드러낸 인상 쓴 모습이며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들어 칼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은 허리춤에 두었다. 좌측 장군상은 두 이빨을 드러낸 얼굴에 주먹 쥔 오른손은 가슴 위로 들고 철퇴를 든 왼손은 허리춤에 들고 있다. 전각의 모든 존상을 외호하는 신장상의 역할이 잘 드러나는 협상곳은 인상과 몸집, 지물 등이 잘 표현되었지만 우리 특유의 해학적인 미도 잘 드러나 있다.

송림사 명부전의 불상은 지지보살상의 좌협사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면⁷³⁾ 1665년(康熙四年歲次乙巳)에 송림사 시왕상 조성을 마쳤으며, 이 불사에 참여한 화원은 승일(勝一), 성조(性照), 정륜(淨倫), 지수(智秀), 삼응(三應), 처영(處英), 보열(寶悅), 행정(行淨), 일훈(一熏), 처경(處瓊), 상명(尙明), 자규(自圭), 용이(龍伊) 모두 13명이다. 시왕상 조성관련 발원문이지만 명부전 불상 모두는 승일 불상의 양식적 특징과 관련된다.

승일은 17세기 후반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한 현진 계보의 조각승으로 알려져 있다. 승일의 첫 이름은 현진을 수화승으로 하는 서울 지장암(원 자수인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22) 조성에 21명의 화승 중 15번째로 기재되어 있다. 서울·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현진이 주도하는 창녕 관룡사 상(1629),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 상(1629), 영남대 소장(원 성주 명적암) 상(1637) 조성에 참여했다. 그 외에도 현진 계보인 청헌의 하동 쌍계사 상(1637)조성과 원오·각민계 무염의 영광 불갑사 상(1637)조성에도 차화승으로 참여했다. 승일은 1622년의 활동을 상한으로 164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스승인 현진을 비롯해 현진과 관련된 선배 조각승과도 함께하며 수련 기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수화승으로서 구례 천은사 수도암 상(1646)을 시작으로 강진 정수사 상(1648), 서울 봉은사 상(1651), 무주 북고사 상(1657), 서울 청룡사(원 동학산 용밀사) 상(1660), 칠곡 송림사 상(1665), 김천 직지사 상(1668), 김천 고방사 상(1670)을 조성했다. 이 중 서울 청룡사 상(1660)과 김천 직지사 상(1668)은 불석제의 석조상이며, 나머지 상은 모두 목조상이다. 송림사 명부전 목조불상과 비교해 본다면 가름한 얼굴에 가는 작은 눈과 얇은 작은 입술 등으로 표현한 얼굴은 승일이 조성한 1646년 구례 천은사 수도암

73) 김정희, 「송림사 명부전 삼장보살상과 시왕상 연구」, 『강좌미술사』 27, p.58 <표3> 참조.

상 이후에 제작된 목조상의 얼굴과 닮았다. 그러나 시왕상의 경우 상반신은 왜소하며 다리가 길고 무릎 이하를 크게 만드는 소조 불상의 특징을 갖고 있어 조각승 승일의 흠을 다루는 솜씨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승일이 직접적으로 소조불상 조성에 참여한 예를 찾기 어렵지만 그의 스승인 현진의 장성 백양사 상(1605)이나 보은 법주사 상(1629), 청현의 완주 송광사 상(1641), 무염의 고창 선운사 상(1633) 등 나무와 흠을 활용한 제작기법은 직·간접적으로 습득했을 가능성이 있고 서울·경기의 왕실 관련 불상조성이 첫 등장인 점을 보면 다양한 재료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승일은 불석상에서도 그의 조각적 역량을 짐작할 수 있다. 1665년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상의 제작보다 앞서 제작된 1660년 서울 청룡사(원 동학산 용밀사) 석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일괄은 송림사 상과는 다른 특징이 엿보인다. 청룡사 상은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고, 아래로 처진 어깨에 긴 상반신과 넓은 다리 너비로 안정감 있는 신체비례와 큼직한 얼굴에 가는 작은 눈, 콧날이 오뎅한 코, 입술 양끝에 힘을 주어 다문 입술, 얼굴 측면에 얇게 밀착된 귀 모양 등으로 표현되었다. 1651년 조성된 승일의 봉은사 목조아미타와 약사여래상을 닮았으며, 오른쪽 어깨에 비스듬히 내려오는 대의자락과 다리 앞으로 큰 두 개의 옷주름이 겹쳐 내려오는 모양도 유사하다. 즉 청룡사 석조상은 승일의 목조불상의 조형적인 특징을 닮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상은 허리는 짧아지고 측면의 두께가 두꺼워졌으며, 하반신의 다리 너비는 좁아지고 무릎은 높아졌다. 얼굴은 편평한 콧등에 오뎅한 코를 제외하고 이목구비는 전체적으로 얇게 조각되어 있으며, 귀는 일정한 높이로 두껍게 조각한다거나 큼지막한 손에 손가락은 굵게 조각했다. 또 청룡사 명부전 석조불상은 큰 머리에 짧은 목, 이와 이어지는 몸통으로 돌의 무게감은 물론 신체적 안정감이 덜하다. 즉 청룡사 명부전 석조불상은 목조상의 부분적 특징과 함께 숙련되기 이전 불석제 불상의 조형적인 특징이 드러나 있다. 1665년 송림사 명부전 석조삼장보살상의 조형적 변화는 1660년 청룡사 명부전 석조불상 이후 승일의 불석 재질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있었음을 엿보게 한다. 또 1668년 김천 직지사의 아담한 3구 석조상을 보면 좀 더 섬세해진 인체의 굴곡, 선정인과 지권인 등의 다양한 손 표현, 눈꼬리가 올라간 눈, 편평한 콧등에 작은 코 등 새로운 요소로 표현되어 목조상과는 달리 석조상은 비교적 개인적인 전형성에서 벗어난 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면 승일은 스승 현진과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불상 제작의 재료인 나무, 돌, 흠 모두를 잘 다루는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기술적 역량 외에도 수록재에 청하는 삼장보살을 상으로 조성한 유일한 조각승으로 불교에 대한 이해도 역시 상당히 깊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 문헌자료

<천장보살 중수발원문(天藏菩薩 重修發願文)>

天藏菩薩重修發願文

像主與施主重修 天藏菩薩尊像

誓心發願願以此功德一生災害不復

侵壽福增長所願成抑願上世

先亾父母祖妣祖妣師翁弟子列名

靈駕與一切冤親受苦衆生咸脫苦

趣直往極樂之願

<시왕조성시주목록기(十王造成施主目錄記)>

康熙四年歲次乙巳七月廿九日八公山松林寺十王造成畢造時施主

目錄記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發願文

願我生生處處 常於般若不退轉 如彼本師勇猛志

如彼舍那大覺果 如彼文殊大智慧 如彼普賢廣德行

如彼地莊無過身 如彼觀音三十應十方世界諸師檀越與

緣化比丘碩淡等 上報四重恩 下濟三途苦 若有見聞者

悉發菩提心 盡此一報身 同生極樂國 云何得長壽

金剛不壞身 腹以何因緣 究竟到彼岸 願我同會龍華會中

同成無上道

念十方三世一切諸天諸菩薩摩訶薩摩訶般若波羅密

判事 坦湖

判事 天詳

判事 學明

判事 敏淳

山中大德祖熙

十王造成大施主通政大夫兼嘉善大夫金應守兩位保体

供養布施兼大施主張聖哲兩主

布施大施主法淨比丘

布施大施潤化兩主

布施大施主陳山伊兩主
黃金大施主連臺兩主
黃金大施主圓印比丘
腹藏大施主學淨比丘
供養大施主比丘卓融保体
供養大施主朴春男灵駕
布施大施主張守兩主
布施大施主具勝文兩主
食鼎大施主金貴男兩主
布施大施主李宗日兩主
布施大施主南占孫兩主
供養大施主通政大夫朴山伊兩主
供養大施主孫今补兩主
腹藏大施主金信承兩主
黃密大施主禹後先兩主
布施大施主申右立兩主
供養施主金起男兩主
布施施主春月兩主
布施施主黃守吉兩主
布施施主定春兩主
布施施主李召吏兩主
布施施主金奉詳兩主
布施施主尹壁孝兩主
布施施主比丘普觀保体
布施施主安大云兩主
布施施主金洪日兩主
布施施主李聖元兩主
布施施主朴勝云兩主
布施施主朴士龍兩主
布施施主朴道男兩主
布施施主吳金伊兩主
布施施主方貴男兩主
布施施主比丘克性保体
布施施主徐彦宗兩主
布施施主崔士男兩主

布施施主李歲云兩主
布施施主郭日金兩主
布施施主朴己成兩主
布施施主覺明比丘
布施施主徐彥宗兩主
布施施主崔士男兩主
布施施主李士元兩主
布施施主張洪吉兩主
布施施主徐是男兩主
布施施主池莫男兩主
布施施主金千龍兩主
布施施主金今補兩主
布施施主徐定泉兩主
布施施主崔玉立兩主
布施施主苟男兩主
布施施主金難金兩主
布施施主金春上兩主
布施施主尹壁孝兩主
布施施主吳彥立兩主
布施施主比丘玉倫保体
布施施主李之敬兩主
布施施主白雲龍兩主
布施施主林勝立兩主
布施施主白今伊兩主
布施施主李戒奉兩主
布施施主李夢承兩主
布施施主崔莫男兩主
布施施主安大云兩主
布施施主車忞万兩主
布施施主崔永男兩主
布施施主陳難英兩主
布施施主金命立兩主
布施施主郭礼男兩主
布施施主進弘兩主
布施施主金忞龍兩主

布施施主奉日兩主
布施施主金莫男兩主
布施孫僅哲兩主
布施施主河同兩主
布施施主李奉生兩主
布施施主鄭立伊兩主
布施施主姜貴日兩主
布施施主趙定生兩主
布施施主黃永信兩主
腹藏施主貴仁介兩主保体
布施施主姜补兩主
布施施主金愛立兩主
布施施主申男兩主
布施施主河允山兩主
布施施主韓弘善兩主
布施施主金利文兩主
布施施主朴之惡兩主
布施施主李勝日兩主
布施施主崔日命兩主
布施施主比丘文哲保体
布施施主李千守兩主
布施施主金芑伊兩主
布施施主金己生兩主
布施施主鄭芑男兩主
布施施主徐乙男兩主
布施施主徐忞立兩主
布施施主曹一當兩主
布施施主裴男兩主
布施施主車三龍兩主
布施施主金大堯兩主
布施施主吳命良兩主
布施施主申太日兩主
布施施主李永詳兩主
布施施主金命生兩主
布施施主金莫生兩主

布施施主裴立兩主
布施施主吳生立兩主
布施施主梁愛云兩主
布施施主宋是哲兩主
布施施主沈世伊兩主
布施施主比丘英瓚保体
布施施主李政發兩主
布施施主比丘戒珪保体
布施施主李愛奉兩主
布施施主比丘双熏保体
布施施主曹定补兩主
布施施主 金任金兩主
布施施主金雷生兩主
布施施主裴命龍兩主
布施施主李芑連兩主
布施施主高成發兩主
 布施施主孫之男兩主
布施施主全介兩主
布施施主金礼信兩主
布施施主許勝男兩主
布施施主金得男兩主
布施施主成貴日兩主
布施施主李舜日兩主
布施施主朴芑伊兩主
布施施主金取生兩主
布施施主玄鶴兩主
布施施主柳生兩主
布施施主比丘卓明保体
布施施主比丘大洽保体
布施施主梁山补兩主
布施施主崔秋日兩主
布施施主金恣明兩主
布施施主白萬世兩主
布施施主比丘宏圓保体
布施施主崔出生兩主

布施施主朴春英兩主
布施施主梁命云兩主
布施施主鄭命云兩主
布施施主比丘太己保体
布施施主比丘戒修保体
布施施主比丘雪行保体
布施施主比丘文侃保体
布施施主比丘智應保体
布施施主比丘取淨保体
布施施主比丘國平保体
布施施主比丘坦元保体
布施施主比丘圓哲保体
布施施主比丘秀宗保体
布施施主比丘印天保体
供養大施主李業仁兩主
布施施主朴貞文兩主
供養施主梁玉兩主
供養燈燭兼大施主徐大日兩主
供養大施主劉俊生兩主
布施施主金得只兩主
布施施主李應泉兩主
布施施主具士里兩主
布施施主申秋堅兩主
供養施主豁眞兩主
布施施主金成立兩主
供養施主尹德龜保体
布施施主忞德只兩主
布施施主覺連比丘
供養大施主李英立兩主
腹藏施主性連比丘
腹藏施主楚印比丘
腹藏施主信機比丘
腹藏施主双悅比丘

<시왕조성발원문(十王造成發願文)>

發願文

願我生生處處 常於般若不退轉 如彼本師勇猛志
如彼舍那大覺果 如彼文殊大智惠 如彼普賢廣大行
如彼地莊無過身 如彼觀音三十應 十方世界諸師諸檀越
與緣化比丘碩淡等上報四重恩 下濟三途苦 若有見聞者
悉發菩提心 盡此一報身 同生極樂國 云何得長壽
金剛不壞身腹以何因緣究竟到彼岸願我同會龍華

會中同成無上道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康熙四年歲次乙巳七月二十九日十王造成畢造時八公山松林寺目

錄記

時揚攝性旭

揚攝 天機

前判事坦湖

前判事德明

前判事天詳

前判事法印

前判事敏淳

前判事學明

時和尚卓蠲

前判事海安

山中太德祖熙

唯律 双淳 天主 法岑 信堅 雪澄 在安 尙元 大一 普揖 元湖 僅詳 秀英
應岑 竹律 廣洽 雪草 三遠雪敬 雪湜 雪梅 麗安 天敏 一澗 熙淡 默淡
眞淑 法清 尙均 雪允 杜岑 大振 寶悅 尙義 尙云 灵默 自信 道修 杜衍
自福 天己 智堅 灵祐 双悅 楚益 法贅 禪印 性學

在謙 雪軒 雪峯 太卍 尙運 覺淳 默談 眞淑 法清 尙均 三己 雪允 性岑
信淨 海根 信揮 禪俊 在憐

雪洽 雪雲 太悟 尙允 尙湜 尙澤 玉晶 學明 天詳 學律 碩海 道衍 杜天
太雄 尙哲 學能 德明 三宗

一行 義閑 海根 而靖 卓圭 禪益 杜瓊 尙彦 坦玄 戒熏 端屹 幸悅 尙揮 雪淳 雪淳

敬環

會忍 雪義 杜雲 雪玉 雪海 杜彥 思惠 妙信 楚鑑 信己 建遠 惠云 玉倫 在白 寶眞
尙倫 覺明 楚印 太云 一摠 性天 信元 卓倫 玉熏 一閑 一閑 雪學
秀湖 法宗 寶文 雪環

緣化秩 畫圓 勝一 性照 淨倫 智秀 三應 處英 寶悅 行淨 一熏 處瓊 尙明
自主 龍伊 證明文熙

持殿端屹 見童萬吉 山伊

萬伊 石哲 守英 命伊 太江 龍安 命哲 貴生 戒生 英白 德立 順發 哲信
僅發 處先 好善 順必 是一僅信 白雲 興發 松柏 貴尙 表哲 戒宗 克信
勝業

別座尙倫 供養主雪軒 雪莊 雪義 尙獻 興發 幹善道人碩談

○ 참고문헌

- 이분희, 「조각승 승일과 불상조각 연구」, 『강좌미술사』 26, 2006.
- 김정희, 「송림사 명부전 삼장보살상과 시왕상 연구」, 『강좌미술사』 27, 2006.
- 이강근, 「송림사의 재건과 대웅전 건축의 역사」, 『강좌미술사』 27, 2006.
- 송은석, 「조각승 승일과 승일파의 조상 활동」, 『선문화연구』 8, 2010.
- 탁현규, 『조선시대 삼장탱화연구』, 신구문화사, 2011.
- 김광희, 「조선시대 소조불상의 제작기법과 조각승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11. 사천 백천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泗川 白泉寺 木造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가. 검토사항

‘사천 백천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천 백천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 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11.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8.28./'23.10.1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2020.5.21. 지정)
- 명 칭 : 사천 백천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泗川 白泉寺 木造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관음회조계종 백천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길 326-2, 백천사성보유물전시관
- 수 량 : 보살상 1구, 복장유물 일괄(표 참조)
- 규 격 : ① 보 살 상 : 높이 67.0cm, 어깨 폭 30.3cm, 무릎 폭 45.8cm
② 복장유물 : 표 참조
- 재 질 : ① 보 살 상 : 목조
② 복장유물 : 표 참조
- 형 식 : 천의식 보살좌상
- 조성연대 : 1502년(조선 연산군 8) 조성, 1706년(조선 숙종 32) 중수
- 제작자 : 조상(造像) 도유(道裕), 부화(副畵) 의웅(義雄)·신매(信梅)



<사천 백천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복장유물 목록>

	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비고	사진
1	조성발원문	한지묵서	1	각장크기 : 275×400 포장묶음지 : 376×263	홍치 15년 (1605년)	
	증수발원문	한지묵서	1	420×590(?)	강희45년 (1706년)	
2	한지	종이	4	380×490		
2-1	中方銘 한지	한지묵서	1	360×490		
	檀香木	나무	1	길이 38		
	홍색운문이색단			41×94		
	주황색사저교직포		1	55×303		
	주황색사저교직포		1	경 150		
	황색생주		1	83×67		
	황색생주		1	153×93		

2-2	中方銘 한지	한지목서	1	365×605	
	황동		2	길이 52	
	황녹색생주		1	80×310	
	녹색보상화문단		1	73×87	
	녹색생주		1	96×85	
	녹색연화만초문 이색단		1	86×100	
	대마포		1	130×55	
	자색면주		1	122×118	
	남보라색주		1	80×270	

	저마포		1	352×82		
	청색면주		1	138×290		
	두록색운문이색단		1	173×105		
2-3	人蔘銘 한지	한지묵서	1	365×490	파손되어 있음	
	인삼		1			
2-4	인삼		1		방사성 탄소연대측정결과 1060AD(±80BP) 역년변환연대(95.4%) 770AD~1160AD	
	한지	종이	1	340×360		
2-5	東方銘 한지	한지묵서	1	420×550 주머니 153×133	주머니 명문 白檀香, 黃木綿, 三寶社主戒岡	











	청녹색생주		1	190×76	
	청녹색생주		1	191×74	
	청녹색생주		1	191×74	
	청녹색생주		1	192×71	
3	五色網銘 한지	종이	1	410×600	
3-1	홍색주		1	225×63	
3-2	청녹색면포		1	250×56	
3-3	홍색주		1	78×260	
3-4	청녹색면포		1	30×310	
3-5	홍색주		1	155×112	
3-6	홍색주		1	250×56	
3-7	황색주		1	242×56	
3-8	지마포		1	47×267	

3-9	청녹색면포		1	248×70		
3-10	소색주		1	33×227		
3-11	홍색주		1	43×325		
3-12	홍색주		1	43×102		
3-13	저마포		1	50×500		
3-14	저마포		1	63×315		
3-15	청녹색면포		1	45×304		
3-16	녹황색소화조보 문단		1	90×86		
4	水淸銘 한지	한지묵서	1	342×470	水淸, 非但	
	침향목		1	길이 60		
	오색사 잔편		다수			
4-1	두록색운문이색단		1	42×300		
4-2	홍색주		1	176×126		





4-3	적색무문단		1	115×70		
5	靑介子銘 한지	한지목서	1	330×375		
	유기물		다수			
6	黃銅製 八葉盒	황동	1	뚜껑75×75 ×30 통67×70×29		
	실에 묶인 청색, 백색옥		3			
	금판	금	1	9×6		

	수정		7	31×35 37×33 29×27 25×27 27×23 30×25 7×12		
	유리		총67점 옥색31점 청색25점 밤색11점	청색대20×8 청색중12×5 밤색소6×5.5		
6-1	한지	종이	1	340×465	팔엽통을 둘러싸고 있던 가장 바깥 종이	
6-2	琉璃銘 한지	종이	1	382×513		
6-3	한지	종이	1	430×306	팔엽통을 묶는데 사용, 목서가 있으나 확인 불가	
7	한지	종이	2	400×510		
7-1	麻子銘 한지	한지목서	1	355×460		

	대마씨		다수			
7-2	한지	종이	1	320×367		
	콩		다수			
7-3	豆銘 한지	한지목서	1	345×460		
	볍씨, 콩		다수			
7-4	稻穀銘 한지	한지목서	1	355×465		
	볍씨		다수			
8-1	寶篋印陀羅尼銘 한지	한지목서	1	670×565	반대편 명문 白紙	
8-2	寶篋印陀羅尼銘 한지	한지목서	1	630×545	반대편 명문 紅紙	

8-3	寶德印陀羅尼銘 한지	한지목서	1	360×457	
	주홍색사저교 직포		1	365×320	
	주홍색사저교 직포		1	313×320	
	주홍색사저교 직포		1	205×80	
	주홍색사저교 직포		1	205×80	
	주홍색사저교 직포		1	210×168	
	대마포		1	335×38	
	대마포		1	335×40	
	홍색주		1	278×150	
	대마포		1	78×150	

9	眞珠銘 한지	한지목서	1	326×435	추가명문 封	
	유리		총46점 옥색17 청색9 밤색18 동근청색1 동근옥색1	동근청색1.1 ×0.8 청색대1.9 청색소0.5		
10	충진지	종이	1	350×520		
11	稻穀銘 한지	한지목서	1	355×460		
	범씨		다량			
	사리		2	0.4		
	대마		1	0.3		

12	충전지	종이	2	370×510	
13	충전지	종이	2	370×560	
14	충전지	종이	2	370×520	
15	충전지	종이	3	375×510	
16	충전지	종이	4	315×330 330×360 375×525(2)	
17	충전지	종이	2	365×513	
18	충전지	종이	2	435×545	
19	충전지	종이	3	375×515 395×600(2)	
20	충전지	종이	3	360×510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보류)

- 사천 백천사 목조보살좌상은 평안도 천성산 관음사에서 1364년 조성하여 봉안한 금동아미타삼존불 중의 좌우 보처보살이 도난당하자 1502년에 승려 도유 등이 참여하여 새로 목조로 조성한 관음·세지보살상의 한 구이다.
-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관음·세지보살을 조성하고 세지보살에게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상은 원래 세지보살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이 상은 비록 1502년에 조성되었지만, 고려 말기의 조각상인 관음사 아미타불좌상 옆에 봉안될 것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양식적으로 조화가 되도록 만든 불상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이유로 동시기 작품들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금동불로 추정되는 본존 옆에 목조로 금동보살상을 변안하여 만들어 삼존을 구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특히 관음보살의 복식이 동시대에 유행하기 시작한 가사형 착의가 아니라, 팔과 상체가 많이 노출되는 보살 천의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며, 보살상의 뒷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조각했음을 알 수 있다.
- 백천사 불상 복장에서 출토된 다양한 복장품들도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불상이 원래 봉안되어 있던 지역인 평안도는 인삼 재배로 유명한 곳이어서 조선 왕실에 공물로 납부하기도 하였고, 조선에서는 명나라에 조공하기도 한 중요한 물품이었다. 이에 아마도 평안도에서 재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삼이 확인되어 그 실물을 볼 수 있게 되었다.
- 소라껍데기처럼 둥글게 말린 유리제품이나 금붙이, 곡물 등 당시의 사회경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복장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불복장 납입 의식 등 불교문화의례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같은 문화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 보살상이 어떤 경로로 발견되어 백천사에 소장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를 명확히 밝힌 후에 지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보류)

이 보살상은 1502년 평안도 천성산 관음사의 아미타여래삼존상의 협시로 조성된 보살상으로 조성시기(1502년), 봉안사찰(天聖山 觀音寺), 조성작가(道裕, 義雄, 信梅 등), 발원자, 시주자 등 조성주체가 모두 밝혀져 있어 조선 전기 불교조각사 연구는 물론, 발원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동향 연구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특히 이 보살상은 불교 탄압이 극심했던 燕山君代에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뿐만 아니라, 이 보살상의 봉안 지역이 평안도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6세기 우리나라 이북 지역의 불사동향과 불상 연구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자료라고 평가된다. 더불어 16세기 초반 기년명 불상과 조각승 자료가 지극히 부족한 현실에서 조선 전기 無紀年 불상의 편년 설정과 조각승의 계보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수발원문에 등장하는 善行은 <천성사관음사비명>에도 등장하는 인물로, 18세기 관음사 중창 당시의 승려들의 불사 동향을 이해하는 데도 유익하다.

이 불상은 절제된 양감 속에 탄탄하고 균형 잡힌 신체비례를 보여준다. 선묘는 간결하고 탄력적이며 세련되었다. 얼굴표현과 주름, 살이 빠진 늘씬한 조형미는 15·16세기 명대 티벳불상의 영향으로 제작된 瘦身形 불상 계통을 따르고 있어 조성발원문의 연대(1502년)와 양식적 연대도 꼭 일치한다.

불상의 복장에서는 조성발원문, 중수발원문, 후령통, 오보병, 오곡, 각양각색의 직물 편 등 다양한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흔히 불복장 의식의 교본인 『造像經(최고본 용천사판, 1575년 간행)』 정립 이후 제작된 불상에서 보이는 정형화된 복장양상과 달리 안립 절차가 완전히 자리 잡기 이전의 과도기적 복장 양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상 복장의식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다.

현재, 근래에 격조 없이 현대 기법으로 실시된 개금이 예술적, 종교적 감성을 반감시키지만, 두텁게 칠해진 개금 이면에는 세련되고 간결한 선묘, 균살 없는 균형 잡힌 비례와 단아한 미적 감각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 상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두루 갖추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만, 이 보살상은 부산광역시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신청('11.07.19.)된 바 있고 그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의 조사('11.10.06.)와 검토('11.10.13.)가 있었다. 검토 결과 소장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 제출 사유로 부결('13.02.14.)된 바 있다. 이 보살상이 조성·봉안되었던 평안도 은산현(순천군) 관음사는 해방 직전까지 폐사되지 않고 사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1909년에 간행된 『사찰고』에는 이 보살상으로 추정되는 보살상의 존재가 확인된다. 2013년 위원회에서도 평안도 천성산 관음사에서 언제, 누구에 의해 부산 원광사로 移安되었는지에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된 바 있으므로, 금번 위원회에서도 경상남도 신청자료에서 소명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증언과 내용이, 2013년도 위원회에서 의결한 부결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본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

○ (보류)

사천 백천사 목조보살좌상은 복장 발원문을 통해 조성 연대와 원래의 봉안처가 명확히 밝혀진 흔치 않은 조선 전기의 보살상으로서 가치가 있다. 1502년에 조성된 이 보살좌상은 16세기 초 불상의 시대적인 양식과 평안도 지역의 불상양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본래 북한 평안남도 천성산 관음사에 봉안되었던 목조보살좌상이 어떻게 분단 이후 부산광역시에서 출현하게 되었는지 현재의 자료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사천 백천사에서 이 상을 소장하기 이전, 부산 원광사에 이 목조보살좌상을 소장되게 되었던 내력과 경위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종합하면, 사천 백천사 목조보살상은 소장 경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정을 보류하고자 한다.

○ (복장, 보류)

백천사의 복장 섬유류 유물은 오색사 1점과 직물 47점이다. 직물은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납입되었을 당시의 색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바느질 흔적이 남아있는 직물편도 있다.

직물의 종류는 삼베, 모시, 무명, 사저교직, 주, 면주, 무문단, 그리고 문단으로 다양하다. 이 가운데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직물은 문단 6점인데 무늬는 모두 조선 초기까지 나타났던 무늬이다. 그리고 문직물은 모두 5매수자직으로 직조되었다.

이상의 특징을 고려해보면 백천사의 복장직물은 목조보살좌상이 조성되던 1502년에 납입된 직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대성 있는 복장유물이기 때문에 보살상과 일괄 유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불상 검토결과를 따라 일괄로 보존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보류 : 소장경위 소명 필요.

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사천 백천사 목조보살좌상>

이 목조보살좌상은 원래 평안도 은산현 천성산 관음사에 소장되어 있었던 상이다. 관음사는 사세가 매우 컸고, 동명성왕의 설화와도 연관이 있는 유서 깊은 사찰이었다. 원래 이 관음사에는 1364년(공민왕 13)에 조성된 아마도 금동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미타삼존불이 있었는데, 기미년에 좌우보처, 즉 관음과 세지보살상을 도난당했다고 한다. 불상이 조성된 1364년 이후 기미년은 1379년(우왕 5), 1439년(세종 21), 1499년(연산군 5)이 해당되는데, 기존 조사보고서에서는 우왕 연간인 1379년에 왜구들이 약탈해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러나 조성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약탈된 불상을 130년이 지나서 다시 조성한다는 것에 다소 의문이 들고, 왜구가 약탈을 해갔다면 왜 본존불상은 두고 두 보살상만 가지고 갔는지도 의문이 든다. 더구나 왜구의 약탈이었다면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적(賊)이라고 한 것은 소규모의 도적단이었고 은밀히 가져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협시보살 두 구만 훔쳐간 것으로 보아야하지 않을까 추측된다. 더불어 “지정24년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로 시작되는 조성발원문을 보면 1379년

설은 더욱 의구심이 든다. 반면 1499년은 실제 도적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년 뒤인 연산군 6년(1500)에 흉년이 들어 그 대책을 논의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주목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1499년에 이미 민중들 사이에서는 흉년으로 인한 어려움이 체감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 무렵을 즈음하여 홍길동과 같은 도적의 활동도 기록되어 있으니,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 평안도 지방에서 활동하던 도둑떼에게 불상을 도둑맞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백천사 목조보살좌상 얼굴 세부(정면, 반측면, 우측면)>

현재 이 보살상은 보관과 상투가 유실된 상태이다. 그런데 정수리 부분에는 상투를 꽂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구멍 같은 것이 없는데, 아마도 다소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상투만 정수리에 꽂는 것이 아니라 정수리의 둥근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 붙이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본다. 또한 보관이 없혀졌을 보발 위의 단도 매우 좁아서 금속제 보관이 없혀져 있지 않았을까 추정케 한다.

더불어 보살이 걸치는 영락장엄들도 모두 보이지 않는데 보관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착의법은 조선시대의 보살상들이 대체로 가사 형식의 옷을 입고 있는 것에 반해, 이 상은 팔뚝이 드러나고 상체도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옆구리로 비스듬한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천의자락을 제외하고는 노출이 심하여 고려시대 이전의 보살상 착의법을 연상케 된다. 아마도 이 보살상은 비록 1509년에 제작되었지만, 1364년에 제작된 본존 아미타불과의 조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 고식을 답습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살상의 안면처리를 보면 턱이 두툼하고, 눈가와 입술에는 미소를 머금은 것을 자연스럽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귀 옆으로는 보발이 양 어깨로 늘어져 있는데, 전체적인 균형에서 볼 때 다소 두껍고 경직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 보살상은 원래 늘어진 보발이 없이 머리카락이 귀 인근을 돌아 도로 상투에 매듭지어

지는 형식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다.



<백천사 목조보살좌상 측면 및 뒷면>

뒤에서 보면 양어깨를 덮은 천의 자락과 함께 비스듬히 등을 가로지르는 천의, 그리고 이 천의를 한 바퀴 감싸고 왼쪽 어깨에서 내려오는 옷자락 등의 표현은 통일신라~고려시대 보살상에 보이는 매우 고풍스런 형식을 답습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도 이러한 천의를 걸친 관음보살상이 조성되기는 하였으나 주로 원통전(관음전)의 주존불로서의 관음보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많았다. 양어깨에서 내려온 천의 자락은 옆구리를 지나 뒤쪽으로 펼쳐이듯이 더 이어졌을 것 같지만, 현재는 중간에 잘려나간 흔적만 남아 있다.



<분리되는 손과 손이 결구되는 팔뚝의 구조>

양손은 손목 부근에서 분리가 가능하며, 손 뒤에 둥근 축을 달았고, 팔뚝에는 이에 상응하는 구멍을 뚫어 서로 결구될 수 있도록 했다. 보통 옷자락이 팔뚝을 덮은 상황에서 소매 안에 구멍을 내어 별도로 제작한 손을 꽂는 경우는 있지만, 이처럼 가느다란 팔뚝에 구멍을 뚫어 손목 부분을 결구하는 예는 흔치 않은 사례로 생각된다. 수인의 모습은 중품중생인에 가까우며, 오른손을 높이, 왼손을 아래로 내린 자세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언뜻 협시보살로서 왼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좌협시에 해당하고, 아미타불의 좌협시는 관음보살이므로 이 보살상도 관음보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중수발원문에 의하면 대세지보살에게 기원하는 부분이 있어 이 상이 대세지보살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1333년 조성된 금동 아미타삼존불의 경우는 좌우 보살상이 모두 오른손을 들고 왼손은 내린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조선시대에 좌우 협시보살이 서로 대칭되게 바깥쪽 손을 들고 있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백천사 보살상도 어느 쪽 손을 들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보처를 판별할 수 있는 조선 후기 보살상과 달리 조선 전기에는 존명을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일단 관음·세지보살상을 새로 조정하면서 대세지보살만을 특정하여 기원하는 것은 이 상이 대세지보살상이기 때문일 것이며, 사라진 맞은편 보살상의 경우에는 발원문의 내용이 유사하나 다만 관음보살에게 기원하는 문장이 쓰여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



<백천사 목조보살좌상 하체 세부>

하체는 무릎이 높고, 앞으로 많이 돌출된 편이다. 하체를 감싼 옷자락의 처리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며, 대신 균의자락에 감긴 종아리의 양감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려고 공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 역시 두꺼운 계단식 옷주름으로 하체를 덮은 균의를 표현하는 조선 후기 불상조각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결가부좌한 자세를 보면 오른쪽 발이 위에 있어서 오른쪽 발바닥이 위에 노출되어 있고, 왼발 발바닥은 오른발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눌러 있는 모습이다.

이와 비교적 유사한 시기에 제작된 상인 강진 무위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의 경우, 1478년 조성되었으며, 조선 전기의 불상이라는 점에서 백천사상과 유사한 점이 보이는데, 특히 얼굴 등의 양감이나 신체비례 면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요소가 많다. 그러나 착의법 등에서 무위사상은 분명히 조선 전기의 특징을 많이 지니고 있는 반면, 백천사상은 고려시대 보살상의 성격을 다분히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 목조보살좌상의 양식비교>

좌: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삼존불 중 좌협시 관음보살, 1478년

우: 제주도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1534년

이보다 25년 가량 후에 조성된 현재 제주도 모슬포 서산사 목조보살좌상도 비교가 된다. 나주에서 1534년에 조성된 이 보살상은 시기적으로는 백천사 보살상과 비슷하지만, 양식적으로는 더욱 조선시대 불상양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천사 보살상의 특수성이 더욱 주목된다 하겠다.



<백천사 목조보살입상 복장 출토 유물 중 일부>

한편 복장물에서는 고려시대로 편년되는 인삼이 출토되어 더욱 주목된다. 이 보살상이 조성된 평안도는 강계 인삼을 필두로 인삼제배가 유명했고, 조선시대에는 공물로 바치던 인삼을 생산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복장에 인삼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소라껍질처럼 말려있는 유리제품과 곡물씨앗, 금 조각, 수정구슬 등이 한지로 싸 유기함 안에 넣어져 복장에 봉안된 사례 등이 시기 복장물 봉안방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사례로 판단된다.



○ 내용 및 특징

이 보살상은 2008년 한국전통문화연수원에서 불상을 보수하기 전 미리 실시한 복장유물조사에서 조성발원문과 함께 八葉蓋, 五穀, 五藥, 五寶 등 각종 복장의식물들이 발견되어 주목을 받았다. 여러 장의 한지를 연결하여 작성한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이 보살상은 至正 24년(1364) 天聖山 觀音寺의 阿彌陀如來三尊像으로 鑄成된 것인데, 조성 이후 己未年(1379, 1439, 1499년 중 하나)에 보처불이 도적에 의해 흠을 입어 弘治 15년(1502) 前 興教寺 住持 道裕를 초청하여 觀音과 大勢至菩薩像을 다시 만들었다고 한다. 발원문을 의지한다면, 이 보살상은 1502년에 만든 좌우 보처불 중 하나로 판단된다. 조성 이후 1708년에 한 차례 중수가 이루어졌으며, 중수는 省希, 楚眼, 釋珪 등의 조각승이 맡았다. 현재 표면 개금분석결과 현대적 재료와 기법으로 개금된 것이 확인되어, 근래에 개금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나 그와 관련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보살상의 원래 봉안 장소는 天聖山 觀音寺인데, 『新增東國輿地勝覽』 등 옛 문헌 기록을 통해 山名과 寺名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평안도 殷山縣 天聖山 觀音寺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5 평안도 은산현 山川條에 “현의 동북쪽 30리에 있다. 觀音 三峯이 있고 中峯 바위 위에는 말 발자국이 있으니 속담에 東明王의 麟馬의 자국이라 전한다”⁷⁴⁾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시 佛宇條에 “천성사·관음사 모두 천성산에 있다”⁷⁵⁾라고 기록되어 있다. 관음사는 여러 기록에서 꾸준히 확인된다. 18세기에 편찬된 『여지도서』에도 “관음사는 은산현의 동쪽 40리 천성산에 있는데, 관음사의 남쪽에는 南庵이 있고, 동쪽에는 윤필암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1872년에 제작된 평안도 은산현 지방지도에서도 천성산 관음사의 존재가 확인된다. 특히 法宗(1670~1733)이 찬한 『虛靜集』(1732년 묘향산 보현사 개간)에는 <天聖山觀音寺碑銘>이 수록되어 있어 자세한 내력을 살필 수 있다.⁷⁶⁾ 관음사비명에는 동명성왕과 얽혀있는 천성산 관련 전설과 더불어 이곳에 처음 불교가 들어오게 된 배경, 정확한 시기는 모르나 신라시대 관음사가 창건된 사실, 1634년 백하대사의 중창과 화재, 이후 제응대사가 문도들을 모아 극락전, 동상실 등 여러 요사를 갖춘 사실, 善行에 의해 중창된 사실 등 사찰 연혁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특히 善行은 관음사 보살상의 중수발원문에도 확인된다. 이후 20세기 초 관음사에서 의병활동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고,⁷⁷⁾ 1909년 10월에 작성된 『寺刹

7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5 平安道 殷山縣 山川, 天聖山. 在縣東北三十里. 有觀音三峯, 中峯巖上有馬跡, 諺傳東明王麟馬跡.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DB(<https://db.itkc.or.kr>).

7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5 平安道 殷山縣 佛宇, 天聖寺, 觀音寺. 俱在天聖山.

76) 원문은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참조.

77) 1909년(융희 3) 3월 평안남도 일대 신원불명의 의병들의 활동이 시작되자 은산주재소의 일본경찰은 한인 순사 2명을

考』에도 평안남도 경천면 천성리 소재의 관음사가 임제종 소속의 사찰이었으며, 본존불명으로 아미타불,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달마조사가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존상명은 1706년 중수발원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불상과 일치하여 이 때 중수된 불상이 이때까지 유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에 의해 시행된 사찰령에 따라 관음사는 평양 영명사의 말사였지만, 총독부에 보고한 사원재산목록에는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1930년 11월 1일자 일 본판 조선신문의 기사에는 영명사의 말사로 등장하고 있다.⁷⁸⁾ 1916년 측량되어 제작된 근대지도에서도 확인되며, 총독부관보에도 관음사 주지임면과 관련된 기사가 1911년 13월 23일자(오보현 주지 임명)와 1940년(11월1일자) 金海大生の 주지 취임인가부터 1944년(2월 26일자) 임기만료까지 보이며, 1945년 6월 4일자에는 사유림 별채허가(출원인 金海大生)건이 실려 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관음사에 대한 연혁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해방 직전까지 사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천 백천사에 봉안된 이 보살상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부산 원광사(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77-54)에 봉안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까지 평안도 은산 관음사에 봉안되어 있다가 그 이후 어느 시점에 부산 동래구 원광사로 이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안과 봉안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70년대부터 원광사에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음보살상은 원광사의 창건주인 ○○스님께서 그의 제자 ○○스님(1990년대)을 거쳐 추○○(2008년 9월 경)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추○○는 다시 2019년 4월 10일 사천 백천사에 이 보살상을 기증하게 된다. 경상남도에서 신청한 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인 불상의 소장경위는 아래와 같다.

평안남도 순천군 은산면 천성산 관음사에 있던 목조보살좌상은 해방 후 부산 엄궁 출생의 ○○스님(원○○)이 소장하게 되었다. 스님은 1906년생으로 부산 엄궁동 출생이다. ○○스님은 어려서 출가하여 부산과 울산 등지의 사찰에 기거하다, 1954년부터 원광사가 위치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77-○번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원광사는 정식 사찰이 아닌 민가에 불상을 안치한 인법당이였다. 원광사는 1978년 즈음 정식 사찰로 창건되었고(태고종) 소유권도 현재의 주지인 ○○스님에게 이전되었다.

○○스님(강○○,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112○-○ 대천암)의 증언에 의하면 1953년생인 스님이 18세 되던 1971년 즈음 지금의 ○○스님을 뵈었고 그 때 형겁으로 싸인 불상을 보았다고 한다. 보살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57년생, 부산 사상구 주례동 거주)의 증언에서 확인된다. 전○○은 1975년 사찰의 규모를 갖추지 못한 원광사에서 ○○스님과 보살상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당시 ○○스님은 전○○에게 보살상을 봉안한지 30년 가량 되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30년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를 근거하면 1970년대 이전 오래전부터 ○○

변장시켜 관음사로 보내 정찰했다. 정찰은 큰 성과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隆熙三年三月十五日 평안남도경찰부장이 경무국장에게 보낸 暴徒來襲續報(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78) 『조선신문』 1930. 11. 15. 3면 7단.

스님이 보살상을 봉안하고 있었음은 확인된다. (중략) 백천사 소장 목조보살좌상의 경우, X선 회절분석을 통하여 백색층의 결정형을 분석하였을 때 루틸형 이산화티타늄(Rutile)이 동정되었다. 루틸형 이산화티타늄은 1970년대부터 사용된 것이라는 연구를 고려하면 이 보살상은 1970년대 이후 한 차례 보수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평안남도 순천군 천성사 관음사에 봉안되어 있던 목조보살좌상은 해방 이후 부산으로 유입되었고, 이것을 ○○스님이 원광사에 봉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스님은 주로 부산지역에서 활동했으며 불상을 구입할 정도의 재력을 갖추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보살상을 구입했다기 보다는 인연에 의해 소장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제자이자 현재의 주지스님인 ○○스님으로 이전되었으며 현재는 사천 백천사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보살상은 5판의 나무를 접목조하여 제작한 것이다. 얼굴과 몸체는 앞뒤 2매의 목판을 접합했으며, 두 팔과 양 무릎은 따로 만들어 축과 못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몸체는 적송이며 두 팔은 은행나무로 제작되었다. 밑판은 못으로 고정하였고, 원래 못이 4군데 남아 있다.

현재 보관과 보게는 결실되었다. 보게는 별도로 제작하여 꽂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지금은 인위적으로 잘라낸 흔적이 역력하다. 보관으로 가려지는 지발부는 머리카락을 표현하지 않았고 보관의 턱을 이루는 보발은 좌우대칭으로 가지런히 빗질하듯 매력적으로 처리하였다. 특히 뒷머리가 인상적인데, 가르마 탄 뒷머리를 U자형 어깨까지 길게 드리운 것이 이 보살상의 가장 특징적인 머리스타일이다. 이러한 머리 모습은 세부에서 조금 차이는 있으나 1351년에 제작된 해인사 금동관음보살상과 조선 전기 작으로 추정되는 영천 은해사 운부암 금동관음보살좌상도 이와 같은 머리 모습을 하고 있다. 깃불을 가로지른 보발자락은 뒤쪽에서 흘러내린 제작한 보발과 연결시켜 여러 번 엮어 타원형 고리를 만든 뒤 어깨 위로 드리웠는데, 서울 보타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머리표현과 상통한다. 몇 개의 둥근 고리를 이루며 드리워진 고려 후기 보살상의 어깨 위 보발 처리와는 완전히 다른 표현방식이다. 귀 뒤쪽 별도로 제작한 보발은 현대식 못으로 고정하여 후보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상단부에 원래의 못 흔적이 있어 원래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면>



<우측면>



<좌측면>



<배면>

두텁게 칠해진 假金으로 인하여 품격 높은 얼굴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계

란형으로 양감이 절제된 길고 가름한 얼굴형을 가지고 있으며, 넓은 이마에는 백호를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눈썹은 활처럼 휘어져 오뚝한 콧날로 자연스레 연결시켰으며, 눈웃음치듯 연출한 반개한 눈매가 매력적이다. 작은 코는 길고 오뚝하며, 얇은 입술에는 열은 미소가 흘러 전반적으로 세련된 기품이 흐른다. 귀는 세장한 편이며, y자형 삼각와와 이공이 뚜렷하고 사실적으로 조각되어 조선 전기의 특히 16세기 불상의 시대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상호 표현에 있어서 여말선초 작품인 해남 대흥사 금동관음보살좌상과 같은 양식계보에 있는 것으로 조선 초기의 보물 문경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15세기 말~16세기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보타사 금동관음보살좌상, 그리고 1501년에 제작된 기림사 건칠보살좌상 등과는 시대양식을 공유하고 있다.

목에는 삼도의 표현이 뚜렷하며, 어깨에는 천의를 불신에는 조백을 걸쳤다. 우선 상반신에 대각으로 조백을 먼저 걸친 다음, 양 어깨를 천의로 솔처럼 걸친 형식이다.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걸친 조백은 정면과 후면의 끝자락은 고불고불 뭉치 있게 주름을 잡았고, 가슴 중앙에서 T자형으로 교차시켰다. 어깨를 걸치고 불신으로 흘러내린 천의의 끝자락은 결실되었다. 이러한 천의형식의 전통은 統一新羅시대의 天衣式 보살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나, 솔처럼 양어깨를 완전히 덮어 내린 것과 양어깨 위에 긴 삼각형의 주름은 조선 전기적 요소이다.

섬려하게 조각한 두 손은 別造하여 축 이음으로 팔목과 결합하였으며, 오른손은 손바닥을 위로하여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손등을 비스듬히 보인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다. 설법인을 결한 두 손 중 한 손이 아직까지 무릎 위까지 내려오지 않고, 복부 근처에 둔 것도 이 보살상이 조선 전기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살상이 삼존불의 협시보살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 보살상은 익산 심곡사 석탑에서 발견된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나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의 좌우협시상(1472년 경)에서 볼 수 있듯이 반대편에 봉안된 보살의 수인은 이와 반대로 조성하였을 것이며, 그렇게 본다면 이 보살상은 좌협시 보살, 즉 관음보살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손은 가슴부근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지 않고 비껴 지은 수인이 특징적이다. 하체는 균의를 입었으며, 오른발은 노출시키고 균의로 감싼 왼발은 그 부분을 볼록하게 처리하여 여운만을 나타내었다. 결가부좌한 오른쪽 발목 아래로 지그재그로 흘러내린 띠 주름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는 몇 가닥의 짧고 간결한 호선주름으로 마무리하였다. 무릎 앞쪽에는 좌우대칭을 이룬 부채살 주름으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주름은 1458년에 제작된 국보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나 1466~1474년 사이에 제작된 보물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466년에 제작된 천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15세기 후반의 불상들과 비교된다. 그러나 한층 짧고 간결해진 호선의 주름이라든지 무릎 위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듯 처리한

인상적인 귀솟음 주름이 생략된 점은 시기적 차이에서 오는 변화로 생각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탈락된 개금층에 대한 P-XRF 조사 결과 개금 성분은 구리(Cu)80~81%, 아연(Zn) 12~13%의 성분비가 검출되어 황동박으로 개금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개금층 하부의 백색 물질은 티탄(Ti)dl 주성분을 이루며 칼슘(Ca)와 황(S)dl 작은 피크와 성분비로 검출되었다. 이는 산화지당 또는 산화티탄(TiO_2)가 사용되었으며 충전재 또는 첨가재로 탄산칼슘($CaCO_3$) 또는 석고($CaSO_4$)가 첨가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화티탄(TiO_2)의 경우 1790년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1908년 아나타제(Anatase)형 이산화티탄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후 황산 공정을 이용하여 1937년에 루틸(Rutile)형 이산화티타늄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1959년에는 염소화공정을 통하여 루틸(Rutile)형 이산화티타늄이 개발되었다.⁷⁹⁾ 국내의 근현대 유화작품의 시기별 백색안료에 대한 분석 연구에서 1940년대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탄이 사용되었고 1970년대부터 루틸형 이산화티탄이 사용되었다. 백천사 불상의 개금층을 구성하는 백색층에 대한 X선회절분석을 통하여 결정형을 분석했을 때 루틸형 이산화티타늄(Rutile)이 동정되었기 때문에 백천사 개금층에 사용된 백색층의 경우 1970년대 이후에 실시된 개금층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보살상에서 채취한 마섬유에 대한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도 이루어졌다. 방사성 탄소 연대분석은 Beta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일반 방사성탄소연대의 경우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330 \pm 30BP$ 가 나타났으며, 각각의 신뢰도 94.4%와 68.2% 확률에서의 “가능성(likelihood)” 연대 범위는, 95.4% 구간 1477~1642 AD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68.2% 구간에서는 (37.4%) 1540~1601 AD와 (19.0%) 1495~1530 AD, (11.8%) 1616~1634 AD의 연대범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복장유물>

보살상의 복장에서는 조성발원문(1502년), 중수원문(1706년), 보협인다라니경, 황동제 팔엽통, 다양한 형태의 직물편이 47점, 종이, 유리 등 五寶, 법씨 등 五穀, 인삼 등 五藥 등이 발견되었다. 팔엽통은 뚜껑과 몸통을 八葉의 모양으로 제작한 합모양인데, 그 속에 오곡, 오약, 오보 등을 납입하고 황초폭자 대신 종으로 감쌌다. 인삼은 방사성 연대측정 결과 12세기 고려 인삼으로 밝혀져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1502년에 작성된 조성발원문에는 불상을 조성한 이유와 시기, 제작자, 시주자, 발원자 등을 낱낱이 기록하여 불상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708년에 작성된 중수원문에도 불상을 중수하게 된 이유, 작자, 시주자, 발원자 등이 기록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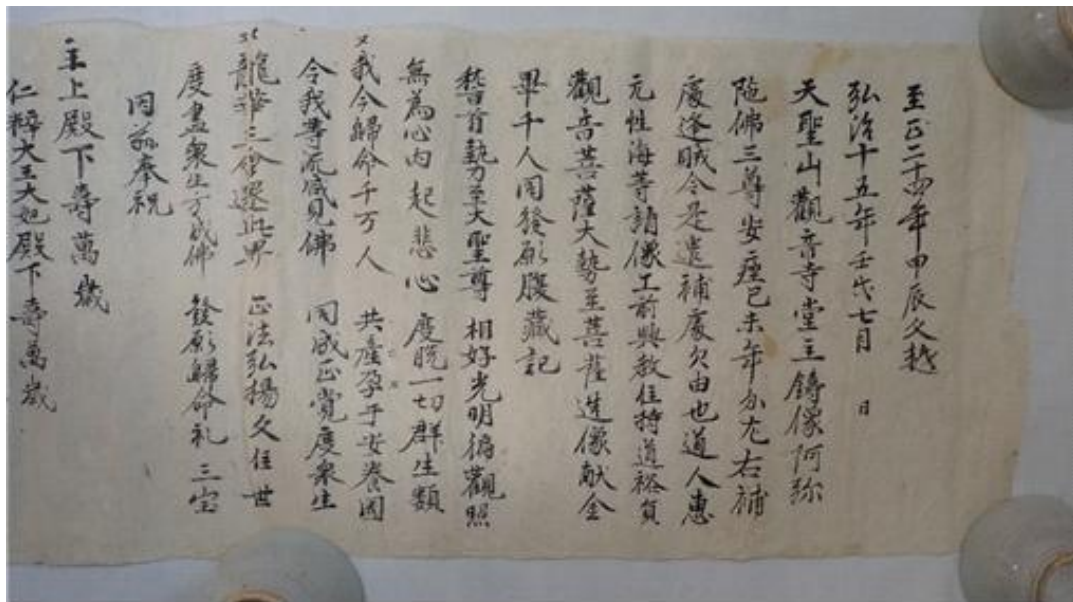
79) De Keijzer, Matthijs, “The history of modern synthetic inorganic and organic artists pigment”, Contributions to conservation : research in conservation at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Cultural Heritage(INC Instituut Collectie Nederland), 2002. pp.42~54.

어 있어 불상의 중수 과정을 중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有, 無紋의 직물 47점이 납입되었는데, 그 중 견직물이 28점, 면직물이 4점, 마직물이 8점, 교직은 7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색깔은 적색, 청색, 짙은 감색(혹은 흑색), 황색, 백색 등 오방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형태는 삼각, 직사각, 정사각, 부정형 등 의도적으로 재단한 것처럼 보여 아마도 五輪種子 내지 五方五色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외 4개의 수술이 달린 형태의 오방색 직물은 五綵幡를 의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직물의 시대는 불상의 조성과 함께 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원색에서 변색이 거의 없어 당시 직물사 연구에 더없이 좋은 자료이다.

○ 문헌자료

<조성발원문>



<조성발원문, 1502년, 종이, 각 장 크기 27×40cm(10장을 이어 붙임)>

至正二十四年甲辰^{久(終)}越」弘治十五年壬戌七月 日」天聖山觀音寺堂主鑄像阿彌」
 陀佛三尊安座己未年忽尤右補」處逢賊令是遣補處欠由也道人惠」元性海等請像工前
 興教住持道裕負」觀音菩薩大勢至菩薩造像獻金」畢千人同發願腹藏記」稽首勢至大
 聖尊 相好光明徧觀照」無爲心內起悲心 度脫一切群生類」又我今歸命千万人 共孕產
 于安養國」令我等流咸見佛 同成正覺度衆生」又龍華三會還此界 正法弘揚終住世」
 度盡衆生方成佛 發願歸命禮三宝」
 因茲奉祝」
 主上殿下壽萬歲」

仁粹大妃殿下壽萬歲」

王大妃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元子保体壽命長」

國泰民安法輪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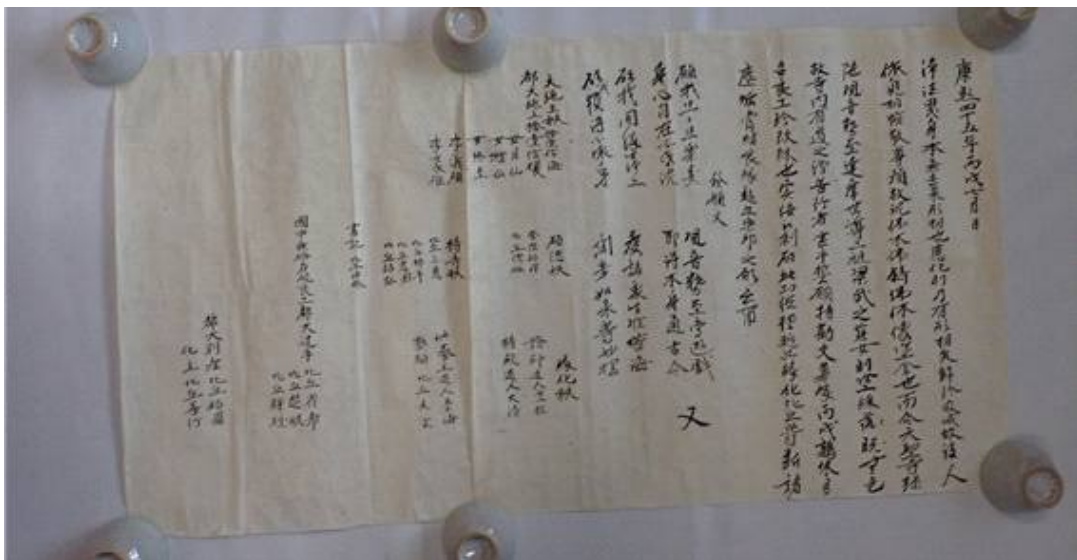
施主」

大施主李兼兩主」大施主金氏玉時」大施主朴今山兩主」大施主竹空比丘」大施主楊仁孫兩主」大施主李裴孫兩主」上將朴枝興兩主」李守枝兩主」吳末孫兩主」金水淵兩主」申莫山兩主」李日孫兩主」宋連兩主」李中連兩主」李斐孫兩主」金重斐兩主」南末同兩主」申永孫兩主」趙繼善兩主」李成春兩主」金山兩主」仍邑台」軍伊兩主」女莫台」金界同兩主」李孝孫兩主」梁水林兩主」女富伊」韓終枝兩主」金繼揚兩主」洪石孫兩主」金善宝兩主」朴毛知里兩主」金氏莫加伊」德非」朴淳生兩主」女末同伊」加毛里兩主」田补敬」安懿同兩主」金乙山兩主」朴个應斤伊兩主」李實兩主」金芻伊兩主」朴芻石兩主」金末乙山兩主」女孟今兩主」女丁今兩主」朴自牙兩主」金孝根兩主」孝台」竺只」省愬」志瓊」克連」惠田」日森」處浩」性淳」智仁」學眞」定峯」智明」雪(?)云」日旭」性賢」六行」令休」克念」智元」信愬」義惠」義正」祖文」性淡」雪(?)墨」性寬」道衍」性根」雪(?)贊」智岑」性空」僅澄」性文」釋熙」智會」德澄」覺觀」

寺內秩」

智元」

<중수발원문>



<중수발원문, 1706년, 42×59cm>

康熙四十五年丙戌七月日」

淨法界身本無去來形相也應化則乃有形相矣歸於寂滅故後人」

依見相瞻敬尊顏故泥佛木佛鑄佛体像塗金也而今天聖寺弥」

陀觀音勢至達摩世尊二祖梁武之慈女則塗彩落脫無色」

故寺內有道之僧善行者垂乎誓願持勸文募緣丙戌鶉朱(未)月」

召良工於改綵(彩)也實倍初制願此功德檀越與緣化比丘等斷諸」

塵垢當結良緣超生極樂邦之願云爾」

發願文」

願我生 〃 生樂處 觀音勢至常遊戲」

身心自在不昏沈 卽得本身通古今」

又

願我同緣生淨土 度諸衆生離苦海」

願我獲得不壞身 闊步如來等妙理」

상

大施主秩 捨堂信海」

都大施主 捨堂信瓊」

女月仙」

女禮仙」

女終至」

李義碩」

李豪雄」

중

碩德秩」

登階 智淳」

比丘 德裕」

持寺秩」

比丘 三應」

比丘 柳平」

比丘 惠圓」

比丘 智弘」

書記 比丘淨眼」

하

緣化秩」

證師 道人靈桂」

持殿 大清」

供養主 道人曇海」

熟頭 比丘大雲」

國中無倫名現良工都大過手 比丘省希」

比丘楚眼」

比丘釋珪」

都大別座 比丘智圓」

化主 比丘善行」

강희45년 병술 7월 일

정법계의 몸은 본래 가고 오는 형상이 없으니 응화하면 곧 형상이 있으니, 형상은 적멸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후인들은 형상에 의존하여 부처를 우러러 봅니다. 그래서 소조불, 목조불, 주조불의 몸체에 금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성사 미타, 관음, 세지, 달마세존의 제자이자 양무제의 慈女는 즉 칠한 채색이 탈락하여 색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까닭에 절 내의 도력있는 승려인 **선행**이 서원을 내려 권선문을 차고 후원자들을 모으니 병술년(1706, 숙종 32) 5월 채색에 능한 **좋은 장인을 불러 모으니** 진실로 처음 만들었던 것보다 배나 되었습니다. 이 공덕의 단월과 연화비구 등은 모든 번뇌를 끊고 마땅히 좋은 인연을 모아 극락에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발원문

바라건대 우리들이 나고 나서 극락에 태어나면 관음과 대세지보살이 항상 노닐고 있으리니 신심은 스스로 어두운 곳에 빠지지 않아 바로 본신을 얻어 고금에 통달할 것이다. 또 바라건대 우리 동연들이 정토에 태어나서 여러 중생들이 고해를 벗어나도록 이끌려 하니 바라건대 우리들이 부서지지 않는 몸을 얻어 여래 등의 묘리를 확보하게 하소서(이하 인명 생략)

○ 참고문헌

- 『천성산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사보고서』,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2010.
- 정은우, 「1502년명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연구」, 『석당논총』 48,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0.



○ 현 상

- 사천 백천사 목조보살좌상은 현재 백천사성보유물전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보살상은 과거 부산 원광사(元光寺)의 ○○스님이 소장하던 상이다. 2008년 경 당시 상의 소유자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하 전통문화연수원 문화재 수리복원 전문인 양성과정에 보관 및 대좌 제작을 의뢰하였다고 한다. 이 때 봉합 목 없이 노출된 복장공을 통해 상 내부의 복장유물이 확인됨에 따라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⁸⁰⁾ 이 결과가 공개되면서 불상과 불상과 복장유물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⁸¹⁾
- 현재 사천 백천사 목조보살좌상은 제작 당시의 상태에서 다소 변형되었으며, 도금의 색깔과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상당히 이질적인 느낌을 준다. 우선 머리 윗부분의 보계가 잘려 나갔고, 보관도 없어진 상태이다. 별도의 대좌는 없다.
- 보살의 상호는 전체적으로 방형으로, 이마는 좁고 반듯하며 중앙에 백호가 표현되어 있다. 뺨에 통통하게 살이 오른 듯한 모습이나 전반적으로 평면적인 인상을 준다. 눈썹은 궁형을 이루며, 눈매는 거의 직선에 가깝다. 반듯이 내려온 콧날과 콧망울은 다소 좁은 편이다. 입술은 현재 붉게 칠해져 있으며, 인중과 턱에는 초록색으로 수염을 그렸다. 이마 위에는 머리카락을 연속으로 돌린 듯이 표현하였다. 그 위에 보관을 씌우기 위한 턱이 남아있으며, 머리의 윗부분은 민자로 남겨두었다. 보발은 귀의 2/3 지점에서 귀 뒤로 넘어가는데, 직선으로 흘러내린 보발은 두 개의 원이 겹쳐진 형상을 이루며 다시 다섯 가닥으로 나뉘어 어깨 위로 늘어졌다. 보발은 어깨에 못으로 고정하였다.



<백천사 목조보살좌상 정면> <백천사 목조보살좌상 배면> <백천사 목조보살좌상 바닥면>

80) 『사천 백천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사천 백천사, 2020, pp.72~74.

81) 전통문화연수원 편, 『천성산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사보고서』, 정일사, 2010.
정은우, 「1502년명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연구」, 『석당논총』 48, 2010 참조.

- 보살상의 신체는 직선적이고 길쭉하며, 허리를 곧게 핀 자세이다. 가슴은 볼륨감이 없고 편평하다. 어깨는 넓은 데 반해 무릎 폭은 다소 좁고, 다리의 상하 폭은 길다. 이같은 신체 비례는 조선 전기 불보살상에서 흔히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 전기 왕실발원 불상인 1458년 조성의 흑석사 아미타여래좌상이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482년명 천주사 목조여래좌상 등과 신체의 비례감에서 상통한다.



<백천사 목조보살좌상, 1502년> <흑석사 아미타여래좌상, 1458년> <천주사 목조여래좌상, 1482년>

- 보살의 어깨에는 천의를 솔과 같은 형태로 걸쳤는데, 윗면의 거의 반을 가릴 정도로 넓게 들렀다. 천의는 팔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접혀지면서 밑으로 흘러 내리는 형상이다. 천의를 걸친 조선 전기의 보살상으로는 1466년에 조성된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과 1501년명 기림사 건칠보살좌상이 있다.
- 보살은 귀걸이나 목걸이, 영락 등 일체의 장신구를 걸치지 않았다. 이 점은 같은 시기 보살상과 비교할 때 특이하다.



<백천사 목조보살좌상, 1502년> <상원사 문수동자좌상, 1466년> <기림사 건칠보살좌상, 1501년>

- 보살상의 복장에서는 모두 2점의 발원문이 확인되었다.⁸²⁾ 첫 번째는 1502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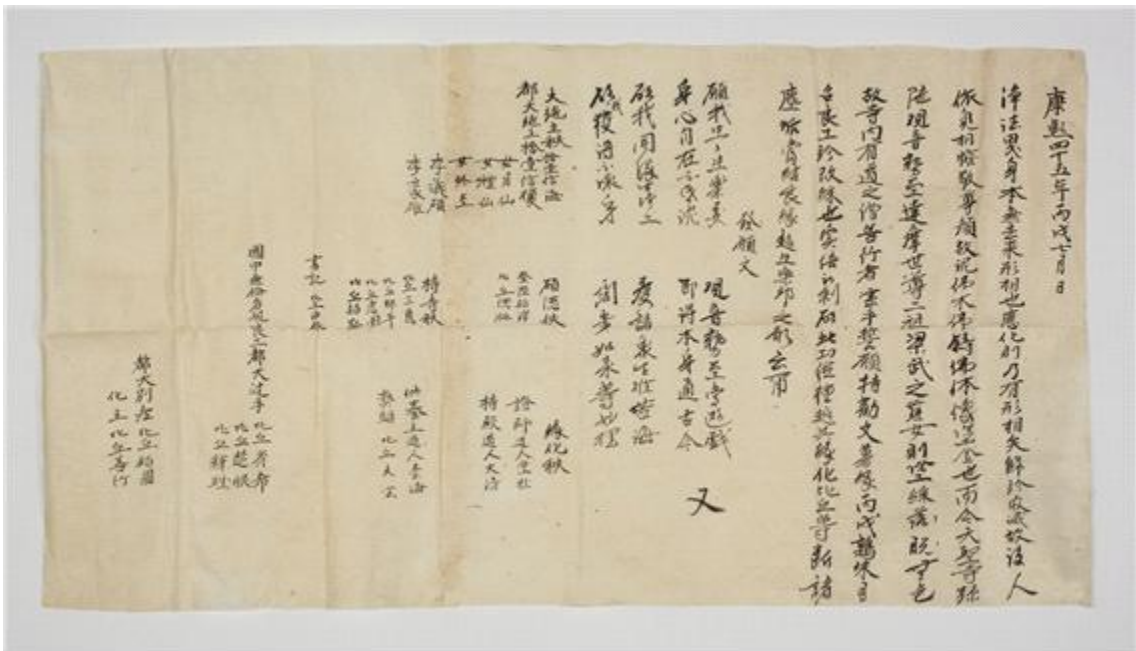
82) 발원문의 내용은 전통문화연구원 편, 『천성산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사보고서』, 정일사, 2010, pp.47~54에 실린

연대가 있는 발원문으로 이 보살상이 만들어진 시기, 본래 봉안되었던 사찰의 이름과 상을 제작하게 되었던 배경, 그리고 상을 만든 장인을 비롯해 불사에 참여한 시주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에 의하면 천성산(天聖山) 관음사(觀音寺)에는 1364년(지정 24)에 봉안된 동조아미타삼존불상이 있었는데, 그 협시보살상이 도적에 의해 손상되어 1502년(홍치 15)에 관음과 대세지보살상을 다시 만들었다고 한다. 발원문 중 연화질 부분에는 ‘대화주 성해(性海)’, ‘대화주 혜원(惠元)’이라고 적혀 있어서 승려가 주축이 된 불사였다고 생각된다. 불상을 만든 장인은 흥교사(興敎寺)의 주지를 역임했던 도유(道裕)이다.

- 두 번째는 1706년(강희 45)에 아미타삼존불상을 개금, 채색한 것을 기록한 중수발원문이다. 여기에서는 삼존상이 ‘천성사(天聖寺)’에 있었다고 하며, 이 절의 승려인 선행(善行)이 모연하여 불사를 벌였다고 한다. 두 발원문에 나오는 천성산은 현재의 평안남도 순천군에 해당하는 평안도 은산현의 천성산으로 판단된다. 『동국여지승람』에 천성산에는 천성사와 관음사가 있다고 기록된 것을 고려할 때, 관음사의 불상의 어느 때인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천성사로 이운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502년명 목조보살좌상 발원문>



<1706년명 목조보살좌상 중수 발원문>

- 조사 당시 보살상 내부는 다수의 복장물로 채워져 있었다고 한다. 1706년명

김방울 번역본 참조.

중수 발원문이 복장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조사된 복장은 1502년 봉안 당시의 원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사 당시 가장 아래쪽에는 발원문을 비롯한 지류가 들어있었다고 하며, 그 위쪽으로 뚜껑을 갖춘 팔엽형상의 합이 안치되어 있었다.

-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 합은 두 겹의 한지로 포장한 후 종이 끈을 만들어 묶어 놓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합 안에는 한지에 싸서 봉한 각종 곡식류, 약재, 약간의 보석류가 안치되어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 이와 같은 합의 형상은 고려시대 불복장에서 발견되는 뚜껑과 몸체로 이뤄진 합형의 ‘팔엽통(八葉筒)’과 친연성이 있으며, 조선시대 불복장의 중심이 되는 원통형에 긴 후혈이 있는 ‘후령통(喉鈴筒)’과는 차이가 크다. 이같은 형상은 15세기에 후령통이 새롭게 등장한 이후에도 고려시대의 선례에 따라 복장에 팔엽통을 안립하는 전통이 조선 전기에 일정 기간 지속되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합 안에 유리, 금 등 약간의 보석류가 안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합에는 본래 오보병이 안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백천사 목조보살좌상 복장
황동 팔엽합과 내용물>



<황동 팔엽합 내 안치 금판>



<황동 팔엽합 내 안치 유리편>

○ 참고문헌

- 『사천 백천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사천 백천사, 2020.
- 심연옥, 「1502년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복장 직물 연구」, 『복식』 69-2, 2019, pp.74~89.
- 정은우, 「1502년명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연구」, 『석당논총』 48, 2010, pp.53~87.
- 전통문화연수원 편, 『천성산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사보고서』, 정일사, 2010.



○ 현 상

불복장직물은 장시간이 흘러도 함께 복장된 오향과 밀봉된 상태 등의 환경에 의해 대부분 복장 당시의 색상이 남아있으며, 대체로 보존상태가 좋아 직물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그런데 한 불상마다 조성과 개금 등으로 인해 복장을 해체할 때마다 새로운 복장물을 추가로 납입하여 여러 시대의 복장물이 함께 발견되는 예도 많다. 따라서 직물의 납입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직물의 편년을 판단하는 근거로는 직물의 조직, 무늬 등의 특징이 있다.

백천사의 불장직물은 모두 색상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상태도 양호하다. 그러나 불장직물이 해체되어 있고 오보병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오채번(五綵幡)과 오종자(五種子)의 일부가 남아있어 직물의 정확한 납입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납입 시기 구분을 위한 불장직물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조관음보살의 불장유물 가운데 섬유류는 직물 47점과 오색사 1점이다. 직물의 종류별로 구분하면 마직물과 면직물, 교직물, 그리고 견직물이 있다. 마직물은 모시와 삼베가 각 4점씩이며, 면직물인 무명[木棉]은 4점, 교직물인 사저교직(絲苧交織) 7점이며, 견직물로는 주(紬)가 19점, 면주(綿紬) 2점, 무문단(無紋緞) 1점, 그리고 문단(紋緞) 6점이다.

이 가운데 마직물과 주(紬), 그리고 면주는 고대부터 사용하였다는 문헌기록과 함께 기원전의 유물부터 현전하고 있다.⁸³⁾ 면주는 실켜기를 할 수 없는 불량고치나 실켜기 공정에서 얻어지는 부잠사(副蠶絲)를 원료로 하여 방적공정을 거쳐 만든 실로 짠 직물이다. 사저교직은 견사(絹絲)와 모시실[苧絲]을 함께 사용하여 직조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현전하는 실물 유물은 고려시대의 것부터 전해지고 있다. ‘단(緞)’은 수자직으로 직조한 직물로 무늬가 없는 것은 무문단, 무늬가 있는 직물은 문단(紋緞)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자직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장 오래된 유물은 요(遼) 시대의 것⁸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단직물은 청양 장곡사의 금동약사여래좌 복장에서 발견된 5매수자직의 무문단⁸⁵⁾이다.

이러한 직물의 기본 특징을 감안하면 목조관음보살의 불장직물 가운데 시대를 판단할 수 있는 직물은 6점의 문단이다. 문단은 운문(雲紋), 보상화문(寶相華紋),

83) 박윤미, 『國立慶州博物館 所藏 鏡鑑의 수작직물에 관한 고찰』, 『國立慶州博物館 所藏 鏡鑑』, 국립경주박물관, 2007, p.242.

84) 黃能馥·陳娟娟, 이희영 역, 『중국의 비단역사 칠천 년』, 한국학술정보, 2016, p.157.

85) 심연옥,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복장유물의 직물 분석과 제작의미』, 『미술사연구』 24, 2015, p.100.

연화만초문(蓮花蔓草紋), 화조보문(花鳥寶紋)의 무늬가 표현되어 있다. 문단은 모두 5매수자직으로 직조되었는데 수자직은 초기에는 5매로 직조되다 8매가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8매수자직은 조선 중기⁸⁶⁾부터 보이고 있다.

문직물 가운데 운문단은 3점[도1~3]으로 모두 구름만 표현된 단독운문인데 직물편이 작아 단위무늬는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두록색운문단[도3]의 단위무늬 크기는 16.2cm 이상×11cm 이상이며 세로 방향은 알 수 없으나 가로 방향은 14.2cm로 무늬가 큰 편이다. 또한 구름머리[雲頭]는 사합여의 형태이며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비슷한 마름모 형태이다. 구름꼬리는 긴자이며 구름머리에 비해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구름무늬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꼬리가 길어지고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운문의 직물은 단위무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한계는 있으나 대체로 조선 전기의 양식이라고 여겨진다.

연화만초문단[도4]은 연꽃이 넝쿨에 의해 이어지는 무늬이며 넝쿨은 연꽃을 등글게 감싸고 있는 형태이다. 단위무늬는 5×5.5cm이다. 녹황색소화조보문단[도5]은 작은 꽃과 새, 그리고 금정(金錠), 은정(銀錠), 여의(如意), 서각(犀角) 등의 보문(寶紋)이 배치되어 있으며, 단위무늬의 크기는 가로 4.7cm, 세로 9.2cm 이상이다. 연화만초문단과 녹황색소화조보문단은 작은 무늬의 직물로 이런 작은 무늬는 고려부터 조선 전기의 것이 전해지고 있다.



<도1. 홍색운문단>



<도2. 두록색운문단>



<도3. 두록색운문단>



<도4. 연화만초문단>



<도5. 녹황색소화조보문단>

○ 참고문헌

- 경기도박물관,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2001.
- 박윤미, 「國立慶州博物館 所藏 鏡鑑의 수착직물에 관한 고찰」, 『國立慶州博物

86) 경기도박물관,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2001, p.164.

館 所藏 鏡鑑』, 국립경주박물관, 2007.

- 심연옥,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복장유물의 직물 분석과 제작의미」, 『미술사연구』 24, 2015.
- 黃能馥·陳娟娟, 이희영 역, 『중국의 비단역사 칠천 년』, 한국학술정보, 2016.

○ 기 타

백천사 목조보살좌상은 현재 백천사성보유물전시관에 있으며, 불상의 내부에서 확인된 복장발원문을 통해 1502년 평안도 천성산 관음사에서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후 1708년 한차례 중수되었으며 일제강점기까지 관음사에 봉안되어 있다가 해방 후부터 부산 원광사 ○○스님이 소장한 후 현재의 백천사로 이안되었다. 백천사 보살상 개금층 분석 결과 1970년대 한차례 개금불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백천사 목조보살좌상의 복장에서는 황동제 팔엽통과 복장발원문, 각종 직물류, 인삼 등이 확인되었다.

12. ‘천수원’명 청동북 (‘薦壽院’銘 金鼓)

가. 검토사항

“천수원’명 청동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천수원’명 청동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2.1.1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8.1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2010.7.30. 지정)
- 명 칭 : ‘천수원’명 청동북(‘薦壽院’銘 金鼓)
- 소유자(관리자) : (재)구정문화재단(온양민속박물관)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123, 온양민속박물관
- 수 량 : 1구
- 규 격 : 지름 35.3cm, 측면 폭 10.0cm
- 재 질 : 청동
- 형 식 : 금구형 청동북
- 조성연대 : 1162년(고려 의종 16)



<‘천수원’명 청동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 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음.
- ‘천수원’명 청동북은 국내에서 유례가 많지 않은 고려시대 청동북으로, 제작 연유를 담은 선각 명문으로 보아 1162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면과 후면에 유려한 문양이 시문되어 있어 고려시대 금속공예 연구에서 기준작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 청동북의 측면에 새겨진 명문에는 제작 연월, 사원의 명칭 및 소재지, 청동북 제작에 쓰인 재료의 무게(양), 불사를 주관한 승려의 이름이 나와 있다. 이러한 명문은 장차 12세기 고려 불교문화 연구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에 해당한다.
- 유물기증서에는 촌로가 아무런 보상 없이 자신의 토지에서 발견한 2점의 청동북을 온양민속박물관에 기증하였다고 하는데, 그 문서를 신뢰한다면 발견 장소 일대가 명문에 등장하는 천수원 터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고고학적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 청동북은 잃어버린 고려시대 사원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고려시대 제작된 청동북 중 출토지가 분명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특히 측면부에 정풍 7년 임오 십일월 아주(아산) 천수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13근 8량의 무게를 들어 제작된 禁口이며, 일을 주관한 승려는 연여임을 알 수 있다(正豐七年壬午

十日月 牙州地 薦壽院禁口一座 重拾參斤捌兩造納 棟梁道人 練如 謹記). 특히 정종 연호에서 피휘대자를 사용한 점이나, 禁口라는 청동북의 용례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과 청동북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즉 금구는 부처님의 법어인 金口에서 파생된 말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원이 변하는 과정을 이 청동북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중요하다. 형태적으로 뒷면의 공명구가 좁거나 앞·뒷면이 막혀있고 측면 아래쪽에 공명구를 연 청동북에서 주로 禁口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과 일치하여 금구에 대한 용도와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더불어 통일신라 865년 <함통6년명 청동북>에 다음으로 禁口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작품으로 금구 용어를 통한 용도와 기능의 변천 과정을 더듬는 데도 의미가 크다.

고려시대 제작된 기년명 청동북의 대다수가 출토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전세품인 것에 반해 이 작품은 봉안처 부근에서 발견된 작품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인정된다.

이 작품은 11세기의 경암사명 청동북(1073년), 12세기의 중립사 청동북을 잇는 12세기 중엽 경에 제작된 작품으로 우리나라 청동북 연구에 있어서 기준 작이 된다. 특히 여섯 개의 연씨를 육능형의 꽃무늬로 에워싼 모습이라든가 외구와 뒷면 전에까지 둘러진 넝쿨문은 시대적 특징과 미적 감성을 잘 잘 드러내고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천수원’명 청동북>(薦壽院銘 金鼓)은 ‘대정9년’명 청동북과 함께 고려 시대 금구형 청동북 가운데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작품이다. 이 청동북에 새겨져 있는 명문을 통해 1162년 임오년 11월에 아주 지역의 천수원에서 사용코자 제작된 소형 청동북임을 알 수 있다.

<‘천수원’명 청동북>은 이전 시기와 달리 당좌구가 축소되는 시기의 초기 형태로 고면(鼓面)의 용기 동심원이 세 줄로 되어 있고, 당좌구를 장식하던 연판문을 생략하고 6개로 이루어진 꽃술들을 삼각형태로 쌓아 삼각형과 역삼각형 형태로 교대로 반복시켜 청동북의 당좌구를 독창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온양민속박물관의 청동북 2구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다.

이 청동북은 고려 전기에 제작된 청동북 중에서 출토지가 확실하고 명문을 통한 제작연대와 중량, 사찰명, 시주자까지 잘 기록된 고려 12세기 중엽의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고면과 후면의 문양이 섬세하고 독창적인 문양 표현 등을 통해 12세기 중엽 주종장인의 솜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통일신라 금고 명칭인 금구(禁口)로 표기된 가장 이른 고려 청동북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되어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현 상

- 전체 형태를 비교적 온전히 갖추고 있으나 전면에 청동 녹이 피어 있고 군데 군데 철 부식 화합물이 잔존하며, 일부 구멍이 뚫려 있다.
- 2016년 보존처리를 실시하여 녹이 안정되었으며 그 이후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도1. '천수원'명 청동북 전면과 후면>

<명문 해석>

측면을 따라가면서 제작 연유를 담은 36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명문은 주조 후 조금(彫金) 기법으로 새겨졌다. 여타 명문 청동북에 비하여 글자 숫자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끊어 읽기와 번역에 문제가 많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명문 : 正豐七年壬午十一月日, 牙州地薦壽院禁口一座, 重拾三斤捌兩, 造納. 棟梁道

人練如 謹記.

번역 : 정풍 7년(1162)인 임오년 11월 일, 아주 땅 천수원의 청동북 하나를 13근 8냥 무게로 만들어서 들였다. 동량도인 연여가 삼가 기록한다.

명문에 따르면 이 청동북은 고려 의종 16년인 1162년에 제작되었고 현재의 아산 지역에 있던 천수원에서 쓸 요량으로 만든 것이다. 이 청동북의 무게는 13근 8냥이고 외부 공방에서 만들어져 절로 납품된 것이다. 그리고 이 불사를 주관한 동량도인 연여가 자초지종을 글로 남긴 것이다.

<제작 시기>

정풍은 본디 금나라 연호 정룡(正隆)인데, 고려에서는 태조 왕건의 아버지 왕룡(王隆)의 ‘룡’자를 피하러 그리 쓴 것이다. 정룡은 금나라 폐제(廢帝) 해릉양왕(海陵煬王)의 세 번째 연호로 그가 시해되면서 6년까지 밖에 없지만 고려 지방사회에서는 그 이듬해인 의종 16년까지 그대로 이어서 쓰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 해의 간지가 임오년이며 날짜는 특정되어 있지 않고 ‘11월 일’로 기록되어 있다.



<도2. '천수원'명 청동북 문양 세부와 명문 일부>

<발주처(사용처)>

아주는 현재의 아산이다. 고려 태조 때 지명이 인주(仁州)였는데, 현종 때인 1018년에 아주로 바뀌었고 조선 태종 때인 1413년 전국 군현을 개편할 때 아산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그곳에 있던 천수원 혹은 그 상위 사찰에서 발주한 것이며, 실제로 천수원에서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청동북이 발견된 음봉면 삼거리 290-6번지 일대가 천수원 터일 가능성이 높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금고의 명칭>

기왕에 알려진 명문 판독문에는 ‘金口’로 되어 있고 웹으로 서비스 중인 각종 사전류, 지정문화재 설명문에도 그리되어 있다. 그렇지만 실물을 확인한 결과 ‘禁口’가 맞다. 물론 양자는 통용되는 표현이지만, 설명문이 아닌 원문을 제시할 때는 유물에 새겨진 글자를 그대로 써줄 필요가 있다.

<제작자와 무게>

다른 청동북이나 종의 명문에서는 주조 장인의 이름이 기록된 사례가 있지만, 이 청동북에서는 제작자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다. 다만 무게에 대하여 13근 8냥이라고 기록했는데, 다른 청동북에서는 무게 ‘중’자 앞에 입(入)자를 추가하여 제작에 사용된 소재의 양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조납’이라는 표현>

기왕에 알려진 여러 판독문에서는 ‘重拾三斤捌兩造 / 納棟梁道人練如’로 끊어 읽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조납’은 붙여서 앞의 글자들 모두와 관련지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고려 때 제작된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완주 화엄사지 향완에도 ‘조납’이란 표현이 있다. 즉, ‘庚戌二月日亡父崇巾愿仏前排香院一造納女子嚴加’라는 명문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경술년 2월 일. 돌아가신 아버지 승건을 위해 발원하면서 부처님 앞에 향완 하나를 바친다. 딸 엄가’로 해석하는데, 조납은 앞부분과 연결하여 ‘만들어 바친다’로 해석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참고할 수 있다.

<동량도인 연여>

천수원에서 청동북을 새로이 만드는 일을 주관한 인물이 동량도인 연여이다. 연여라는 법명을 가진 승려는 다른 문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려와 조선의 불사주관자로 동량도인과 도인, 주지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그 가운데 동량도인은 대체로 도인이나 주지, 장인에 앞서서 표기되며 전체 문맥으로 보면 승려로서 해당 불사를 주관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따라서 ‘천수원’명 청동북의 동량도인을 ‘시주자’로 해석하고 있는 일부 견해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으며, 여타 자료의 용례로 보아 해당 불사의 주관자 혹은 그 표현을 그대로 살려 동량도인으로 번역 및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특징>

청동북 앞면은 내구(內區), 중구, 외구로 구분하여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내구에는 지방을 갖춘 6엽 연화문이, 중구에는 원문의 가장자리를 아주 작은 연주문으

로 둘러싼 단위 문양이 삼각형 혹은 역삼각형으로 조합되어 있다. 외구에는 양각의 가느다란 당초문이 시문되어 있다. 청동북 뒷면에도 외구에 당초문이 주출되어 있다.

○ 지정사례

- 고려시대 청동북 중 보물로 지정된 사례는 5건임.
- 한글 명칭에서는 쇠북 / 청동북, 한문 명칭에서는 청동금고 / 금고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음.

명칭	지정일	소장처	비고
봉업사명 청동북 (奉業寺銘 靑銅金鼓)	1973.12.31.	연세대학교	1217년
예천 한천사 금동자물쇠 및 쇠북 (醴泉 寒天寺 金銅鎖金 및 金鼓)	1992.7.28.	직지사	
양산 내원사 청동북 (梁山 內院寺 靑銅金鼓)	2011.12.23.	내원사	1091년
황리현명 청동북 (黃利縣銘 靑銅金鼓)	2013.11.13.	동아대학교	
경선사명 청동북 (景禪寺銘 金鼓)	2018.11.27.	국립중앙박물관	12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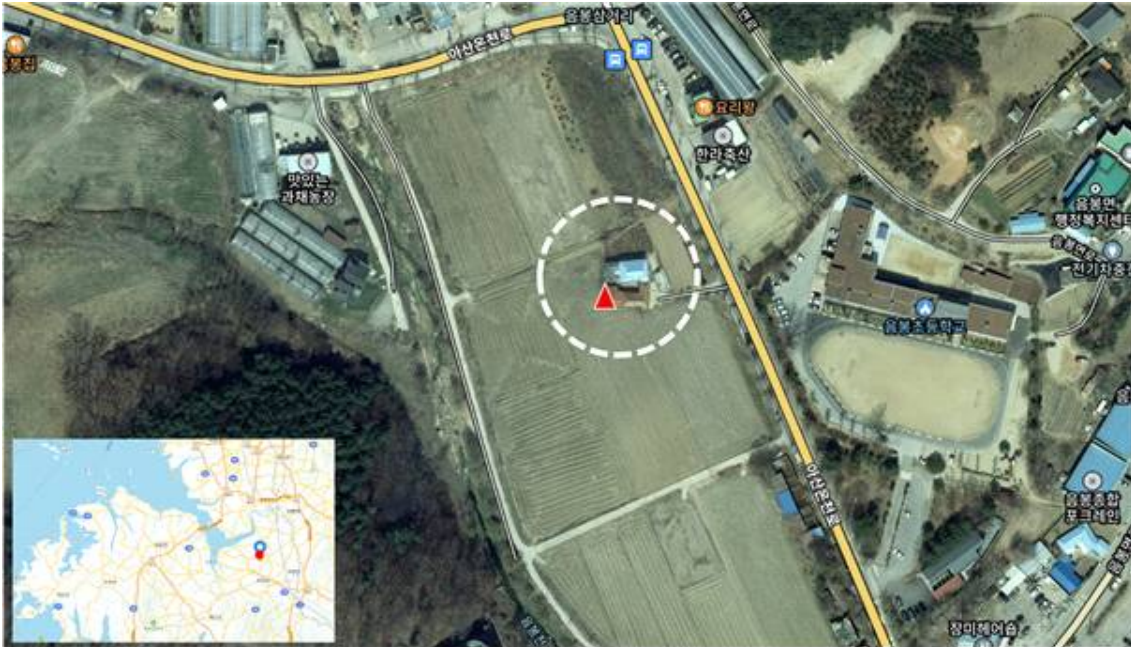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최웅천, 「고려시대 청동금고의 연구-특히 구조방법과 명문분석을 중심으로」, 『불교미술』 9, 동국대학교박물관.
- 여송은, 「여송은의 뮤지엄톡톡: 오래된 할아버지 수첩 속 이야기, 천수원명금고」, 『The HERITAGE TRIBUNE』, 2019.6.6.
- 여송은, 「여송은의 뮤지엄톡톡: 청동북 천수원명금고」, 『The HERITAGE TRIBUNE』, 2020.6.11.

○ 기 타

- 1978. 7. 19, 충남 아산군 음봉면 삼거리 290-○번지 거주 한○○ 씨(작고)가 온양민속박물관에 기증하였으며, 당시의 기증서에는 ‘바라 2점’으로 표기되어 있음.
- 한 씨에 따르면 이 청동북은 1978년 5월, 충남 아산군 음봉면 삼거리 290-6번지 소재 자신의 토지에서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파다가 채집하였다고 함.
- 한 씨가 청동북을 채집하였다고 하는 장소는 과거의 경관이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 서편으로 야트막한 야산이 있고 한 씨가 살았던 집 주변은 경작지로 남아 있다.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유적의 존재 여부를 조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3. ‘천수원’명 청동북 출토 위치(▲ 지점)>

□

○ 내용 및 특징

2점의 청동북 중 한 점의 청동북 측면에는 명문이 남아 있다. 명문에는 “正豐七年 壬午十一月日 牙州地 薦壽院禁口一座 重拾三斤捌兩造 納棟梁道人 練如謹記”라고 되어 있다. 이곳에 등장하는 正豐 壬午年은 원래 正隆 壬午年으로, 태조 왕건의 아버지인 王隆의 ‘隆’字를 避諱 代字한 것이다. 정용 연간(1156~1160)은 중국 金나라 帝亮의 연호로 5년간 사용되었으나 이곳에는 7년으로 표기되어 있다. 연호 표기의 오차는 고대 사회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며, 정용 7년은 1162년 고려 의종 16년에 해당한다. 청동북의 명문에는 이 ‘禁口’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천수원’명 청동북보다 이른 시기에 ‘禁口’라는 명칭이 사용된 예로는 <함통육년(865년)명 청동북>이 있으며, 이외 <팔공산 동화사 청동북>(842년)에서도 ‘禁口’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전한다. ‘천수원’명 청동북은 금구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세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지명으로는 牙州가 등장한다. 아주는 아산의 옛이름으로, 청동북이 제작되던 고려시대 아산은 天安府의 영현이었던 溫

水郡·牙州·新昌縣 등이 있었던 지역이다. 천안부의 영현이었던 溫水郡(현재의 아산)은 신라의 탕정군을 고려 초에 온수군으로 고쳤다. 1018년(현종 9)에 천안부에 內屬하였고, 1172년(명종 2)에 監務를 두고 현감을 임명하였다. 牙州(지금의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는 신라의 음봉현을 고려 초에 仁州로 고쳤다. 995년(성종 14)에 刺史를 두었다가 폐지하였다. 1018년(현종 9)에 천안부에 예속시켰다가 뒤에 牙州로 고치면서 監務를 두었으며, 別號를 寧仁이라 하였다.⁸⁷⁾ 아주는 1413년(태종 13) 전국의 군현 개편 때 인구수가 적은 곳에 山이나 川을 붙이게 됨에 따라 아주를 아산으로 고쳤다.⁸⁸⁾ 조선시대 아산지역에는 溫水縣, 新昌縣, 牙山縣이 있었다. 따라서 아주는 고려 현종 9년(1018)부터 조선 태종 13년(1413)까지 존속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제작된 청동북에서는 禁口라는 명칭 이외, 우리가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金鼓를 비롯하여, ‘禁鼓’, ‘盤子’, ‘飯子’, ‘飯子’ 등 다양한 명칭이 혼용되고 있다. 청동북의 형태와 그곳에 기록된 명칭의 용례를 따라 청동북의 형태를 분류해 보면, 대체로 뒷면의 공명구가 넓고 상대적으로 짧은 전을 가진 청동북은 ‘盤子’, ‘半子’, ‘飯子’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 후면의 공명구가 작고 상대적으로 넓은 전을 가지거나, 공명구의 위치가 뒷면이 아니라 측면 하단부에 마련된 청동북은 ‘金口’, ‘禁口’, ‘禁鼓’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수원’명 청동북은 정종 7년에 아주 땅 천수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청동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명문에는 이 청동북의 명칭으로 禁口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금구 대개 金口, 禁口, 禁鼓 등 다양한 同音異字로 등장하지만, 대체로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라고 생각된다. 특히 ‘禁口’는 『五州衍文長箋散稿』에서 금고를 ‘密奢兒’라고 하고 있는데, 밀사야는 범어로 Cintya의 음역인데 이는 진언이라는 뜻으로 곧 부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을 뜻하는 金口가 글자를 옮기면서 禁口, 金鼓 등으로 변형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⁸⁹⁾ 따라서 사람의 입처럼 뒷면이건 측면이건 작은 공명구를 마련한 것은 부처님의 法口를 상

87) 『高麗史』 권56, 志, 권제10, 地理1, 楊廣道, 天安府, 牙州條.

88) 『太宗實錄』 권26, 태종 13년 10월 15일 辛酉. 따라서 아주의 1018년부터 시작하여 조선 태종 13년 아산으로 개편될 때까지 존속되었던 지명이다.

89) 최응천, 「高麗時代 靑銅金鼓의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pp.26~27.

징하며, 따라서 청동북에서 나는 소리는 法音を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청동북은 여러 경전에서 설하고 있듯이, 그 형상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시각화한 것이며, 그 기능은 소리를 울려 대중을 모으거나 그 소리를 통해 인간의 貪嗔癡 三毒心を 깨뜨리고, 또 지은 잘못을 뉘우치게 하여 중국에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용도로 제작되었다. 경전에 설해진 청동북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중국 梁 僧旻과 寶唱이 516년에 편찬한 『經律異相』 卷第三 地部에는 “...사위국에 18억인 있었다. 이 때에 그 나라 법으로 북을 쳐서 대중을 모았는데, 동북(銅鼓)을 치면 7억 인이 모였고, 銀鼓를 치면 14억인 모였고, 金鼓를 치면 모두가 다 모였다.”⁹⁰⁾라고 있으며, 『대당서역기』 권4에는 “금고를 한번 울리면 네 사람이 일어서서 적을 생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불교적으로 금고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경전은 中國 唐나라 義淨이 한역한 『金光明最勝王經』이다. 『金光明最勝王經』 第2卷 夢見金鼓懺悔品에는 “그때 묘당보살은 부처님 앞에서 묘한 법을 친히 듣고 나서 떨 듯이 기뻐하며, 한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꿈속에서 큰 금북(金鼓)을 보았는데, 광명이 환하게 빛나기가 마치 해와 같았다. 이 광명 가운데서 지방세계의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께서 보배로 된 나무 아래 수정으로 만든 평상에 앉으시어 한량없는 백천 대중에게 둘러 싸여, 그들을 위해 법문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곧 부처님 앞에서 계송을 말씀드렸다. 제가 간밤 꿈속에서, 큰 금북을 보았는데, 그 모양 너무도 훌륭하고 둘레엔 금빛이 찬란하였네. 마치 찬란한 태양처럼 광명이 널리 비치어 지방세계 여러 곳에 밝은 빛이 가득 찼었네. 모든 부처님들께서 보배나무 아래 수정 평상에서 한량없는 백천 대중에게 에워싸여 공경 받는 것 보았네. 바라문 한 사람이 북채로 금북치니 그 금북 소리 속에서 이런 묘한 노래 들려왔네. 금광명의 북에서 울리는 소리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퍼져, 3악도의 지극히 무거운 죄와 인간의 모든 고액 없애준다네.인간·천상·아귀·방생(畜生) 등 현재 모든 고통 받고 있는 이 금북에서 나오는 묘한 소리 들으면, 괴로움 여의고 해탈 얻으리.....”⁹¹⁾라고 하여 금고의 형태가 부처님의 광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3악도의 무거운 죄를 없애주고 해탈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범음구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같은 경 卷5 蓮華喻讚品 蓮華喻讚品第 7에서도 확인된다. 이외 여러 경전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

90) 번역은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참조(<https://kabc.dongguk.edu>).

91) 『金光明最勝王經』 卷第2 夢見金鼓懺悔品, “爾時, 妙幢菩薩親於佛前聞妙法已, 歡喜踊躍, 一心思惟, 還至本處。於夜夢中見大金鼓, 光明晃耀猶如日輪, 於此光中得見十方無量諸佛, 於寶樹下坐琉璃座, 無量百千大衆圍遶而爲說法。 卽於佛前, 而說頌曰, 我於昨夜中, 夢見大金鼓, 其形極殊妙, 周遍有金光。 猶如盛日輪, 光明皆普耀, 充滿十方界。 咸見於諸佛, 在於寶樹下, 各處琉璃座, 無量百千衆, 恭敬而圍遶。 有一婆羅門, 以桴擊金鼓, 於其鼓聲內, 說此妙伽他。 金光明鼓出妙聲。 遍至三千大千界, 能滅三塗極重罪, 及以人中諸苦厄。人天餓鬼傍生中。 所有現受諸苦難, 得聞金鼓發妙響, 皆蒙離苦得解脫。

번역과 원문은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참조(<https://kabc.dongguk.edu>).

‘천수원’명 금고에 등장하는 천수원은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조선시대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역사서에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도 고려시대 교통의 요충지에 운영되었던 驛院 중 하나로 그 기능이 다하여 폐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천수원’명 금고의 고면은 편평한 편으로, 중심에서부터 당좌구→내구→외구 등 3구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구역은 굽고 가는 3개 선을 사용하였다. 중간에는 굽은 선을 두고, 좌우에는 가는 결 선을 돌렸다. 이와 같이 굽고 가는 3개의 선으로 면을 구획하는 방식은 통일신라시대 청동북인 ‘함통 6년명 청동북’을 비롯하여 고려~조선시대 청동북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금고의 표면에 사용된 굽고 가는 동심원 선들은 단순한 구획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선이라기보다는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부처님의 범음, 즉 부처님의 자비 광명의 확산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원대한 원을 담고 있다.



<‘천수원’명 청동북>



<뒷면>



<측면>



<당좌구와 내구의 문양배치>

상단부 좌우측에 귀처럼 2개의 타원형의 고리를 달았다. 당좌구에는 가운데 1개의 연씨를 두고 그 주변을 6개의 연자가 둘러싼 모습이다. 당좌구의 연씨 주변은 다시 육능형 꽃모양으로 테두리를 돌렸다. 당좌구의 연자를 6~8능형으로 돌려 선을 두르는 것은 1217년 봉업사명 청동북, 1218년 경선사명 청동북, 1252년 고성 옥천사 청동북, 1222년 내소사 동종, 1233년 탑산사명 동종 등 13세기대에 제작된 청동북과 동종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는 표현방식이다.

내구에는 원점문 6개를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려 順逆으로 방향을 바꿔가며 배치하였다. 6개의 작은 원점문은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이 금고의 소리를 듣고 윤회로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을 것이다.

외구에는 구름이 흘러가듯 S자 모양으로 펼쳐진 넝쿨문을 배치하였다. ‘S’자형의 이어진 主 줄기 사이에서 다시 작은 줄기가 피어나는 모습이다. 이와 유사한 넝쿨문은, 청동북 중에서는 1190년에 제작된 미륵원명 청동북에서 이보다 앞선 사례를 찾을 수 있고, <‘천수원’명 청동북>보다 늦은 1252년에 제작된 고성 옥천사 청동북에는 主 줄기를 두 겹으로 사용하여 좀 더 복잡해진 경향을 보인다.

측면도 굽고 가는 선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고, 앞 부분에 명문을 선각하였다. 측면이 두터워 통통한 형태미를 보인다. 좌우측 측면 2곳에 귀처럼 반구형의 고리를 달았다.

청동북의 뒷면은 전과 공명구로 이루어져 있다. 공명구는 좁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전이 넓게 형성되었다. 넓게 형성된 전에는 고면과 마찬가지로 넓은 띠와 가

선 음각선을 사용하여 두 부분으로 구획하고, 바깥 면에는 고면에 시문된 것과 같은 똑같은 넝쿨문을 양각하였다. 뒤의 처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대정 9년(1169)명 금고와 유사하여, 동시기 양식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면의 붉게 물든 철 녹은 제작과정에서 사용된 형지(틀잡이)에 인한 것으로, 이 녹은 확산(diffusion) 현상에 의해 청동 표면으로 깊이 침투되어 제거하기는 어렵다. 형광 x-선 정성분석 결과, 구리(Cu), 주석(Sn), 납(Pb) 3원 합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까지 기년명을 정확히 남기고 있는 고려시대 청동북은 37점 정도이며, 간지명을 남기고 있는 청동북은 19점이다. 이외 무명금고는 28점으로 파악되고 있다.⁹²⁾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천수원’명 청동북은 고려시대 제작된 청동북의 순서상 10위에 해당하며, 크기도 이 시기에 제작된 청동북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규모이다.

92) 李河沈, 「高麗時代 干支銘 金鼓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pp.42~46.

<표1. 청동북 보물 지정 현황>

연번	명칭	조성연대	크기(cm)	비고
1	함동6년명 청동북	865년	지름 31.5 측면 10.5	고리 3개 (반타원형)
2	인각사 청동북	통일신라~고려 초	지름 40.0 측폭 15.2	고리 2개 (주먹 모양) 공양구와 일괄
3	예천 한천사 청동북	고려 전기	지름 39.0	고리 3개 (주먹 모양) 자물쇠와 일괄
4	황리현명 청동북	1085년	지름 32.9 측면 폭 8.3	고리 2개 (규형)
5	양산 내원사 청동북	1091년	지름 40.5 측면 폭 10.7	고리 2개 (반타원형)
6	‘미륵원’명 청동북	1190년	지름 53.2 측면 폭 10.5	고리 3개 (반타원형) 전에 명문을 새김
7	봉업사명 청동북	1217년	지름 61.0 측면 폭 12.9	고리 3개 (사다리꼴)
8	경선사명 청동북	1218년	지름 38.3 측면 폭 10.0	고리 3개 (운두형 고리)
9	고성 옥천사 청동북	1252년	지름 55.0 측면폭 14	고리 3개 (운두형)
10	영천 은혜사 청동북 및 북걸이	1646년	지름 72.0 측폭 12.0	고리 3개 (반타원형)
11	부산 북청사 청동북	1666년	지름 66.0 측면 폭 14.9	

<표2. 고려시대 기년명 청동북 현황>

연번	명칭	조성연대	크기(cm)	소장처	비고
1	경암사명 청동북	1073년	지름 60.0	국립중앙박물관	咸雍九年 瓊巖寺 盤子
2	법해사명 청동북	1084년	지름 41.0	미상	大康十年 京北山法海寺 鉸子
3	황리현명 청동북	1085년	지름 32.9	동아대학교박물관 (보물)	大安元年 黃利縣 半子
4	양산 내원사 청동북	1091년	지름 40.5	통도사 정보박물관 (보물)	大定七年 金仁寺 鉸子
5	중흥사명 청동북	1103년	지름 35.7	호암미술관	三角山重興寺 鉸子 乾統三年
6	중림사명 청동북	1109년	지름 36.2	국립경주박물관	乾統九年 重林寺 半子
7	덕산사명 청동북	1143년	지름 28.0	국립대구박물관	皇統三年 德山寺

연번	명칭	조성연대	크기(cm)	소장처	비고
8	문수사명 청동북	1157년	지름 32.4	개인 소장	正豐二年 文殊寺
9	양등사명 청동북	1160년	지름 35.8	미상	正豐五年 楊等寺 半子
10	천수원명 청동북	1162년	지름 35.3	은양민속박물관	正豐七年 薦壽院 禁口
11	대정9년명 청동북	1169년	지름 40.6	국립중앙박물관	大定九年
12	대정19년명 청동북	1179년	지름 42.5	국립중앙박물관	飯子 大定十九年
13	굴석사명 청동북	1183년	지름 33.6	국립중앙박물관	大定二十三年 東京北山屈石寺 大匠義成
14	선의림사명 청동북	1190년	지름 45.0	국립중앙박물관	忠州牧禪義林寺 大定三十年
15	미륵원명 청동북	1191년	지름 52.1	함안 등구사 (보물)	明昌三年 公州 彌勒院 鉢子
16	경선사명 청동북	1201년	지름 39.0	개인 소장	景禪寺 承安六年
17	태화20년명 청동북	1202년	지름 33.0	한국미술박물관	泰和貳年 半子
18	포계사명 청동북	1204년	지름 34.0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泰和二年 浦溪寺 盤子
19	관음사명 청동북	1204년	지름 32.5	국립중앙박물관	泰和四年 觀音寺
20	덕주사명 청동북	1206년	지름 51.5	개인 소장	泰和六年 德周寺 禁口
21	자복사명 청동북	1207년	지름 31.2	경희대학교박물관	資福寺 飯子 泰和七年
22	고령사명 청동북	1213년	지름 38.5	동경국립박물관	崇慶二年 飯子 高嶺寺 仲叙
23	정우4년명 청동북	1216년	지름 33.0	동국대학교박물관	貞祐四年 大匠辰亡
24	봉업사명 청동북	1217년	지름 61.0	연세대학교박물관 (보물)	貞祐五年 竹州奉業寺 上大匠夫 金
25	북선원사명 청동북	1218년	지름 35.0	호암미술관	貞祐陸年 飯子 大興郡北禪院寺
26	정혜사명 청동북	1218년	지름 39.3	호림박물관	貞祐六年 長城地 定惠寺
27	경선사명 청동북	1218년	지름 38.3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貞祐二年 金+禁口 景禪寺
28	취암사명 청동북	1222년	지름 52.0	국립중앙박물관	翠嶺寺 飯子 貞祐十年
29	이의사명 청동북	1224년	지름 33.5	국립청주박물관	貞祐十二年甲申 利嚴寺 大匠仁 天
30	안양사명 청동북	1252년	지름 55.0	고성 옥천사 (보물)	高麗二十三王環甲之年壬子四月 二十日 安養社飯子
31	청운사명 청동북	1301년	지름 38.0	국립중앙박물관	大德五年辛丑四月日 靑雲寺飯 子
32	대덕구년명 청동북	1305년	지름 36.0	국립경주박물관	大德九年七月十六日造 造茲判 子二座
33	약사명 청동북	1322년	지름 49.2	단후향토자료관	至治二年壬戌十月十六日 藥師 寺禁口
34	적조사명 청동북	1327년	지름 35.5	국립중앙박물관	泰定四年丁卯五月十三日 寂照 寺飯子
35	선현사명 청동북	1344년	지름 32.5	미상	至正四年四月初八日 善現寺
36	도솔산명 청동북	1346년	지름 30.3	미상	至正六年丙戌二月日 兜率山鑄 成飯子
37	감은사명 청동북	1351년	지름 32.2	국립대구박물관	至正十一年辛卯十二月初三日

연번	명칭	조성연대	크기(cm)	소장처	비고
					感恩寺飯子小鐘禁口等乙造成

○ 기 타

온양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2점의 고려시대 청동북(金鼓)은 1977년 무렵 민가에서 발견된 것이다. 1977년 아산 충무공 묘소 가는 길 쪽에 사는 주민 한○○씨가 집을 짓던 중 부엌 부지에서 출토된 것을 개울에 버렸는데, ‘사라호’ 태풍에 의해 청동북이 드러나자 주민 오○○씨가 아산군청에 신고하였고, 마침 구정재단에서 온양민속박물관을 건립할 시점이어서 기증, 소장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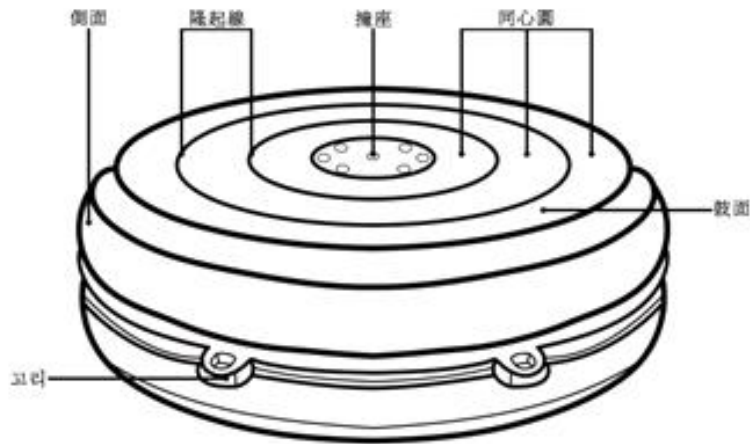


○ 현 상

현재 구정문화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천수원’명 청동북(‘薦壽院’銘 金鼓)은 2010년 7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 청동북의 측면에는 주조 후 한 줄로 명문을 새겨 제작연도와 소장처, 중량, 시주자를 기록하였다. 명문은 ‘正豐七年 壬午十一月日」 牙州地 薦壽院禁口一座」 重拾三斤捌兩造」 納棟梁道人」 練如謹記」의 36자를 음각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풍7년인 1162년 임오년 11월 일에 아주(牙州) 지역의 천수원(薦壽院) 금고 한 점을 3근 8량의 중량을 들여 만들었다. 동량도인 연여가 삼가 기록한다.’ 라고 새겨져 있다.

<‘천수원’ 청동북>은 고면(鼓面)의 용기 동심원이 세줄로 되어 있고, 당좌구는 이전 시기의 작품보다 축소되어 작게 표현되었다. 외구에 표현된 고사리형 운문은 선각으로 얇게 시문하였다. 이와 같은 문양표현은 청동북을 제작할 때 모래로 만든 틀에 선각으로 자유롭게 문양을 그려낸 것으로 사형주조기법으로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북은 전체적으로 매우 얇게 주조되어 전면과 후면에 형지 자국의 부식이 그대로 표면에 나타나 있다. 이 외에도 전면에 2개, 후면에 2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도1. 고려시대 금고의 각부 명칭>

조사 시 타종을 해본 결과 다음과 원음에서 매우 둔탁한 소리를 냈고 여운음도 짧았다. 현재 4개의 구멍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북소리는 청동 합금 비율과 관계가 있어 좋은 합금비율로 제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양식적으로 <‘천수원’명 청동북>은 12세기 청동북에서 대체적으로 보이는 3단으로 문양대를 구획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세부 문양 표현에서 당 좌구에 6개의 꽃씨를 표현하고 외구에 당초문을 배치하는 방식 등이 동시기 작품들과 비슷한 양식을 취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려 금구형(禁口形) 금고의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천수원’명 청동북 앞면>



<‘천수원’명 청동북 뒷면>

○ 내용 및 특징

청동북 즉, 금고(金鼓)는 글자 그대로 금속제 북을 의미하지만 본래 고대에는 금속제 타악기를 통칭하는 광의적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명칭의 사용은 금고가 고대의 대표적인 신호를 알리기 위한 금속제 타악기였음을 말한다. 청동기시대부터 숭배의 대상인 태양을 상징하는 의례용 악기로, 군용 신호기로 다양한 용도

로 널리 성행하던 금고는 여러 형태로 조형되었다. 그 가운데 징과 같은 일정한 형태로 규범화된 형식의 금고가 불교에 수용되었다. 불교에 수용된 금고는 각종 의례나 법회 등에 대중을 규합하는 용도의 법구(法具)로서 널리 사용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金光明最勝王經』을 비롯한 다양한 경전에 언급된 금고에 대한 묘사이다. 이들을 통해 금고의 형태가 태양과 같은 부처의 광명을 따랐으며, 그 울림소리는 진리의 법음(法音)이라 설하고 있어, 금고가 가지는 상징성과 이에 따른 중요성을 살필 수 있다.

불교의 중요 의식 법구로 인식된 금고는 청동으로 제작되었으며, 기록에는 금고가 불교 법음구로서 삼국 시대에 널리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지만, 현존하는 유물은 통일신라시대 작품부터 존재한다. 이후 고려시대는 금고의 전성기라 할 정도로 청동북(금고) 제작이 성행하였다.

청동북은 다양한 이름으로 표기되었는데 금고(金鼓, 禁鼓), 금구(禁口, 金口), 반자(飯子, 鉞子, 半字, 飯子, 般子), 판자(飯子, 判子)이다. ‘천수원’명 청동북 측면에는 ‘禁口’로 표기되었다.

고려시대의 청동북은 후면의 형태 즉, 공명구의 모양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로는 공명구가 넓게 뚫려 있고 전이 좁은 것으로 <함흥9년경암사명 청동북(반자)>(1073년)와 같은 형식이다. 두 번째로는 앞뒤 면이 모두 막히고 옆면에 길게 찢은 공명구가 뚫린 것으로 <정우2년경선사명 청동북(금고)>(1214년)와 같은 형식이다. 세 번째로는 <‘천수원’명 청동북(금고)>(1162년)처럼 뒷면의 공명구가 좁게 뚫려 있는 형식이다.

<‘천수원’명 청동북>의 앞면은 당좌구, 중구, 외구의 3부분으로 구획되어 있다. 지름 35.3cm, 두께는 약 10cm로 고려시대 금고 중 작은 크기에 속한다. 후면 중앙에는 12cm 크기의 공명구가 뚫려있다. 측면에는 특별한 문양이 없는 2cm 높이의 고리가 두 개 있다.

<‘천수원’명 청동북>은 통일신라시대 금고의 양식을 계승하는 11세기 중반부터 12세기 후반의 작품과 달리 당좌구가 축소되었다. 이러한 당좌구가 축소되는 모습은 <대정구년명 청동북(금고)>(1169년), <대정십구년명 청동북(반자)>(1179년) 등에서도 알 수 있다.



<‘천수원’명 청동북>
(正豐七年銘 禁口)
구경 34.7cm

1162년, 온양민속박물관



<대정9년명 청동북>
(大定九年銘 金鼓)
구경 40.6cm

1169년, 국립중앙박물관



<대정19년명 청동북>
(大定十九年銘 飯子)
구경 42cm

1179년, 국립중앙박물관

당좌의 표현은 한 개의 연과를 중심으로 6개의 연과를 화문의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그 주위를 연주문대로 돌리고 빗살무늬로 원형띠를 둘러쌌다. 중구에는 6개로 이루어진 꽃술들을 삼각 형태로 쌓아 삼각형과 역삼각형 형태로 교대로 반복시켜 청동북의 당좌구를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이는 고려시대 청동북에 처음 보이는 표현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문양을 8개로 조각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주조 결함으로 4개만 표현되었다. 문양이 시문되지 않은 쪽에서 주형틀이 어긋나며 단이 생겼는데 쇳물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주형틀 안에 새겨진 문양이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외구에는 고사리형 운문을 물결치듯 빼곡이 시문하였는데 <황통3년 덕산사명 청동북(금고)>(1143년)의 운문 표현의 진전된 표현으로 보인다.



<황통3년 덕산사명 청동북(금고)>
(皇統三年 德山寺銘 金鼓)
구경 28cm

1143년, 국립대구박물관



<‘천수원’명 청동북>
(正豐七年銘 禁口)
구경 34.7cm

1162년, 온양민속박물관

○ 문헌자료

<명문>

(側面) 正豊七年 壬午十一月日」 牙州地 薦壽院禁口一座」 重拾三斤捌兩造」 納棟梁道人」 練如謹記」

정풍 7년인 1162년 임오년 11월 일에 아주(牙州) 지역의 천수원(薦壽院) 금고 한 점을 3근 8량의 중량을 들어 만들었다. 동량도인 연여가 삼가 기록한다.

○ 지정사례

<표. 청동북 문화재 지정 현황(2023.12월 현재)>

순번	지정	명칭	제작연도	크기 (지름/너비, cm)	지정일	소장처
1	보물	고성 옥천사 청동북 (한중서 作)	1252년	55/14	1968.12	고성 옥천사
2	보물	봉업사명 청동북	1217년	61/12.9	1973.12	연세대학교
3	보물	영천 은혜사 청동북 및 북걸이	1646년	77.2/12.7	2009.02	영천 은혜사
4	보물	부산 국청사 청동북	1666년	40.5 /	2011.12	부산 범어사
5	보물	양산 내원사 청동북	1091년	39.5 / 11	2011.12	양산 통도사
6	보물	황리현명 청동북	1085년	32.9 / 8.3	2013.11	동아대학교
7	보물	함통6년명 청동북	865년	32.8 /	2016.09	국립중앙박물관
8	보물	‘미륵원’명 청동북	1190년	-	2021.01	함양 등구사
9	부산 유형문화재	청동북	고려 후기	-	2014.03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10	부산 유형문화재	청동북	고려	-	2016.03	부산박물관
11	부산 문화재자료	범어사 대웅전 청동북	1862년	90 / 15	1999.09	부산 범어사
12	부산 문화재자료	선암사 청동북	조선 후기	-	2006.11	부산 선암사
13	경남 문화재자료	고성 옥천사 자방루 청동북	1872년 (추정)	-	2021.10	고성 옥천사

○ 참고문헌

- 김연수·최응천, 『금속공예』, 솔, 2003.
- 최응천, 「고려시대 금고의 특성과 명문고찰」, 『보조사상』 49, 보조사상연구원, 2017.

○ 기 타

<‘천수원’명 청동북>은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에서 처음 발견되어 현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옆면에 음각된 명문을 통해 고려시대 1162년에 제작되어 천수원(薦壽院)에 봉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주(牙州)는 조선시대 아산현의 고려시대 명칭으로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을 중심으로 염치읍·인주면·음봉면·둔포면을 아우르는 지역이다. 아산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 및 옛 절터 현황에서도 ‘천수원’이라는 절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으며 조선시대 지리지 등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고려시대에 형성된 역원 기능을 겸비한 사찰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천수원이라는 명칭은 확인되지 않는다.

13. 청동북

(金鼓)

가. 검토사항

‘청동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청동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2.1.1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8.1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2010.7.30. 지정)
- 명 칭 : 청동북(金鼓)
- 소유자(관리자) : (재)구정문화재단(온양민속박물관)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123, 온양민속박물관
- 수 량 : 1구
- 규 격 : 지름 36.8cm, 측면 폭 9.4cm
- 재 질 : 청동
- 형 식 : 반자형 금고
- 조성연대 : 고려시대



<청동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 보물로서의 지정 가치가 부족함.
- 이 청동북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이지만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당대의 유려한 문양이 시문되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1162년이라는 제작 연도가 명확한 ‘천수원’명 청동북과 함께 출토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 그렇지만 이 청동북은 그 자체로만 보면 명문이 새겨져 있지 않아 ‘천수원’명 청동북에 비하여 학술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보물로 지정하기보다는 현재처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지정 가치 미흡)

보존 상태와 고면에 표현된 문양과 구성, 형태 등에서 우수한 면을 보인다. 일부 내구에 표현된 원점문을 피라미드형으로 구성한 점은 ‘천수원’명 청동북과 같은 표현으로, 이 청동북 역시 ‘천수원’명 청동북(1162)와 비슷하거나 조금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려시대 제작된 청동북은 대부분 제작시기와 봉안장소, 중량, 주관자, 또는 장인 등 청동북 연구에 필요한 중요 기록을 남기고 금고의 측면 내지 뒷면에 새겨두고 있다. 이 청동북은 이러한 기록을 전혀 남기고

있지 않아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현재 구정문화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청동북은 2010년 7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 청동북은 <‘천수원’명 청동북>(1162년)과 함께 1977년 아산 충무공 묘소 가는 길 쪽에 사는 주민 한○○이 집을 짓던 중 부엌 부지에서 출토된 것을 개울에 버렸다고 한다. 이후 태풍 사라호에 의해 모습이 드러나자 주민 오○○이 아산군청에 신고하였고, 마침 온양민속박물관을 건립할 때여서 구정재단이 소장하게 되었다. 이 청동북은 상태가 양호하고 출토지가 분명한 점 등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관리 되었으며, 2016년에 금속문화재 보존처리까지 마쳤다.

온양민속박물관 청동북은 고면의 문양표현 등을 살펴보았을 때 12세기 중반 이후부터 13세기 초반에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향후에 명문이 있는 다른 유물들을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이 청동북에 대한 정확한 시대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청동북은 당좌구에서 사용 흔적이 확인되며, 맑고 청아하며 여운이 있는 음색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문양 표현뿐 아니라 주조 솜씨도 좋은 장인이 제작한 작품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천수원’명 청동북>(1162년)과 같이 출토되었다고는 하지만 구술기록 외에 정확한 자료가 없고, 명문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는 시대추정을 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확한 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 비교유물들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의 지정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유로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을 보류하고자 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 전체 형태를 비교적 온전히 갖추고 있으나 전면에 청동 녹이 피어 있고 일부 균열이 있다. 2016년 보존처리를 실시하여 녹이 안정되었으며 그 이후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현재는 나무로 만든 틀에 매달아 놓았다.

○ 내용 및 특징

- 함께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천수원’명 청동북에 비하여 크기는 조금 크지만 측면 폭이 조금 더 좁다. 앞면에만 무늬가 주출되어 있다. 내구(內區), 중구, 외구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무늬가 배치되어 있다. 내구에는 자방을 갖춘 큼지막한 연화문이 배치되어 있다. 중구의 문양은 원문 가장자리를 따라가면서 작은 점을 연주상으로 돌린 단위 문양을 삼각형으로 쌓은 듯한 모양이다. 이는 ‘천수원’명 청동북에서도 확인된다. 외구에는 운문이 배치되어 있는데 선이 가늘다.



<도1. 청동북 앞면과 뒷면>

- 문양의 형태나 종류에서 ‘천수원’명 청동북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제작의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도가 인정된다. 두 청동북이 함께 출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이 청동북의 제작 시점도 1162년 제작된 ‘천

수원'명 청동북과 큰 시차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도2. 청동북(좌)과 '천수원'명 청동북(우) 세부 문양 비교>

○ 지정사례

- 고려시대 금고 중 보물로 지정된 사례는 5건임.
- 한글 명칭에서는 쇠북 / 청동북, 한문 명칭에서는 청동금고 / 금고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음.

명칭	지정일	소장처	비고
봉업사명 청동북 (奉業寺銘 靑銅金鼓)	1973.12.31.	연세대학교	1217년
예천 한천사 금동자물쇠 및 쇠북 (醴泉 寒天寺 金銅鎖金 및 金鼓)	1992.7.28.	직지사	
양산 내원사 청동북 (梁山 內院寺 靑銅金鼓)	2011.12.23.	내원사	1091년
황리현명 청동북 (黃利縣銘 靑銅金鼓)	2013.11.13.	동아대학교	
경선사명 청동북 (景禪寺銘 金鼓)	2018.11.27.	국립중앙박물관	1218년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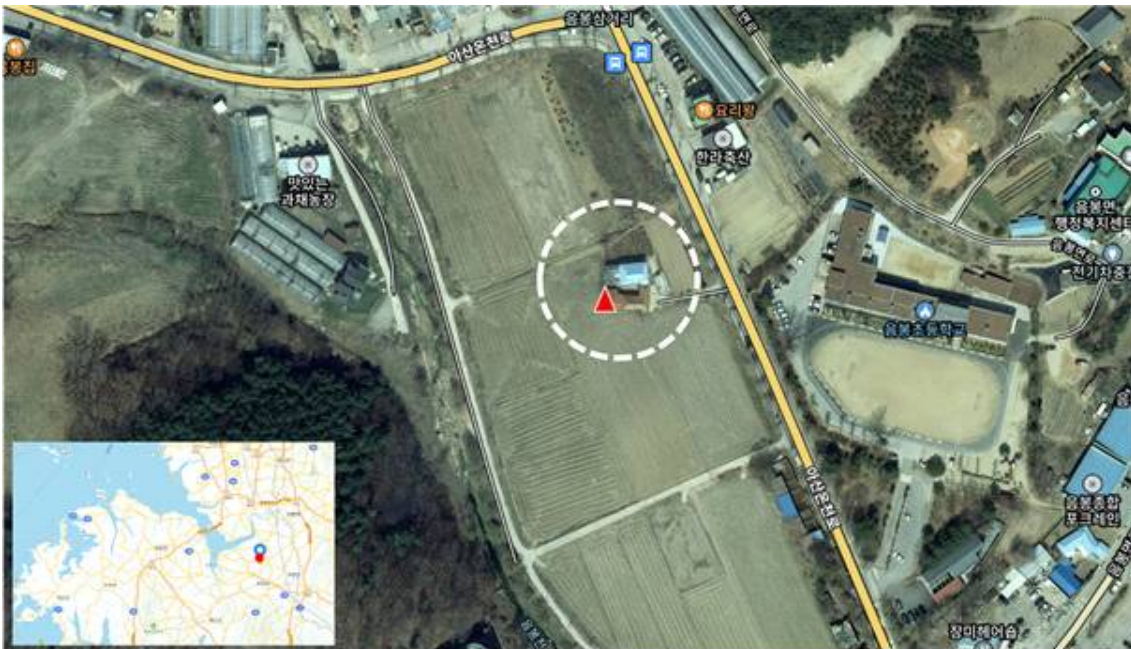
- 최응천, 「고려시대 청동금고의 연구-특히 주조방법과 명문분석을 중심으로」, 『불교미술』 9, 동국대학교박물관.
- 여송은, 「여송은의 뮤지엄톡톡: 오래된 할아버지 수첩 속 이야기, 천수원명금

고], 『The HERITAGE TRIBUNE』, 2019.6.6.

- 여송은, 「여송은의 뮤지엄톡톡: 청동북 천수원명금고」, 『The HERITAGE TRIBUNE』, 2020.6.11.

○ 기 타

- 1978. 7. 19, 충남 아산군 음봉면 삼거리 200-0번지 거주 한○○ 씨(작고)가 온양민속박물관에 기증하였으며, 당시의 기증서에는 ‘바라 2점’으로 표기되어 있음.
- 한 씨에 따르면 이 청동북과 ‘천수원’명 청동북을 1978년 5월, 충남 아산군 음봉면 삼거리 290-6번지 소재 자신의 토지에서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파다가 채집하였다고 함.
- 한 씨가 청동북을 채집하였다고 하는 장소는 과거의 경관이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 서편으로 야트막한 야산이 있고 한 씨가 살았던 집 주변은 경작지로 남아 있다.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유적의 존재 여부를 조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3. 청동북 출토 위치(▲ 지점)>



○ 내용 및 특징

청동북의 크기는 36.7×9.2cm이다. 고면의 구성은 당좌구, 중구, 외구로 구성되어 있고, 3조의 굽고 가는 선으로 구획하였다. 당좌구는 7개의 연씨(1개의 연씨를 6개의 연씨가 에워싼 모양)와 연꽃으로 구성하였고, 중구에는 <‘천수원’명 청동북>과 같이 작은 꽃무늬 6개를 피라미드처럼 쌓아올려 4곳에 배치하였다. 외구에는 천공을 흘러가는 구름무늬를 4곳에 배치하였다. 구름은 여의두 형태의 머리와 긴 꼬리로 표현되어 멋스럽게 표현되었는데, 보물 <청자 양각갈대기리기문 정병> 環帶 상면에 시문된 구름무늬와도 비교된다. 고면의 몇 군데에 걸쳐 사각형의 틀잡이 자국이 남아 있으며, 함께 발견된 <‘천수원’명 청동북>에 비해 형지의 수가 현저히 줄어 든 모양이어서 기술적으로 진전된 양상을 보인다.

측면에도 3개의 굽고 가는 용기선으로 양분하고, 상단 좌우측 2곳에 반구형의 고리를 달았다. 뒷면에는 전이 짧고 공명구가 크게 열려 있어 반자형 청동북임을 알 수 있다.

당좌구부터 외구까지 4부분으로 구획하고, 연씨와 연꽃, 그리고 피라미드형의 원점문, 구름문 등으로 배치한 문양의 구성은 1162년에 제작된 ‘천수원’명에 비해 훨씬 정돈된 느낌이다. 이러한 문양의 구성과 배치는 1179년에 제작된 청동북(국립중앙박물관), 1190년에 제작된 선의림사명 청동북(국립청주박물관)이나 1207년의 자복사명 청동북(경희대학교 박물관), 1213년의 고령사명 청동북(동경국립박물관) 등 12~13세기 청동북과 비교된다.



<청동북 정면, 고려시대>



<청동북 뒷면>



<측면>

이 청동북 역시 ‘천수원’명 청동북과 함께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 청동북 역시 천수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청동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천수원 청동북이 1162년에 제작된 공명구가 작은 금구형 청동북임을 감안할 때 이 청동북은 공명구가 넓게 열린 반자형 청동북이다. 형태가 다른 두 개의 금고가 다른 용도로 함께 제작되었는지 아직까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추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2016년 3월 14일부터 2016년 8월 10일까지 (주)서진문화유산에서 보존처리를 진

행하였다. 형광 x-선 정성분석 결과, 구리(Cu), 주석(Sn), 납(Pb) 3원 합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기 타

온양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2점의 고려시대 청동북(金鼓)은 1977년 무렵 민가에서 발견된 것이다. 1977년 아산 충무공 묘소 가는 길 쪽에 사는 주민 한○○씨가 집을 짓던 중 부엌 부지에서 출토된 것을 개울에 버렸는데, ‘사라호’ 태풍에 의해 청동북이 드러나자 주민 오○○씨가 아산군청에 신고하였고, 마침 구정재단에서 온양민속박물관을 건립할 시점이어서 기증, 소장하게 된 것이다.



○ 현 상

현재 구정문화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청동북은 2010년 7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 청동북은 <‘천수원’명 청동북>(1162년)과 함께 1977년 아산 충무공 묘소 가는 길 쪽에 사는 주민 한○○이 집을 짓던 중 부엌 부지에서 출토된 것을 개울에 버렸다고 한다. 이후 태풍 사라호에 의해 모습이 드러나자 주민 오○○이 아산군청에 신고하였고, 마침 온양민속박물관을 건립할 때여서 구정재단이 소장하게 되었다. 이 청동북은 상태가 양호하고 출토지가 분명한 점 등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관리 되었으며, 2016년에 금속문화재 보존처리까지 마쳤다.⁹³⁾



<청동북(金鼓) 앞면>



<청동북(金鼓) 뒷면>



<청동북(金鼓)
문양이 일부 시문되지 않은
고면 상단부 부분>

이 청동북은 전체적으로 검푸른 녹이 슬었고, 형지 자국으로 보이는 철녹이 고면에서 당좌구를 둘러싼 연판문대에서 4개, 외연부에서 7개, 후면의 외연부에서 7개 정도가 확인되었다. 측면에는 특별한 장식이 없는 현수(懸垂)용 고리 2개가 달려있다. 고리와 고리 중간 부분의 고면에서 씻물 주입시 압력에 의해 틀이 무너지

93) 2020년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금고 문화재 지정 조사 보고서 내용 참조.

면서 생기는 단이 생겼다. 따라서 그 부분의 삼각형 화문만 문양이 흐릿하게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좌구에는 타종의 흔적이 남아있다. 조사 당시 타종을 해본 결과 다음과 원음이 청아한 소리를 냈고 여운음도 길어 두께는 얇지만 적절한 청동합금비율로 만들어진 작품인 것을 알 수 있었다.

○ 내용 및 특징

청동북 즉 금고(金鼓)는 글자 그대로 금속제 북을 의미하지만 본래 고대에는 금속제 타악기를 통칭하는 광의적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명칭의 사용은 금고가 고대의 대표적인 신호를 알리기 위한 금속제 타악기였음을 말한다. 청동기시대부터 송배의 대상인 태양을 상징하는 의례용 악기로, 군용 신호기로 다양한 용도로 널리 성행하던 금고는 여러 형태로 조형되었다. 그 가운데 징과 같은 일정한 형태로 규범화된 형식의 금고가 불교에 수용되었다. 불교에 수용된 금고는 각종 의례나 법회 등에 대중을 규합하는 용도의 법구(法具)로서 널리 사용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金光明最勝王經』을 비롯한 다양한 경전에 언급된 금고에 대한 묘사이다. 이들을 통해 금고의 형태가 태양과 같은 부처의 광명을 따랐으며, 그 울림소리는 진리의 법음(法音)이라 설하고 있어, 금고가 가지는 상징성과 이에 따른 중요성을 살필 수 있다.

불교의 중요 의식 법구로 인식된 금고는 청동으로 제작되었으며, 기록에는 금고가 불교 법음구로서 삼국시대에 널리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지만, 현존하는 유물은 통일신라시대 작품부터 존재한다. 이후 고려시대는 청동북(金鼓)의 전성기라 할 정도로 청동북 제작이 성행하였다.

청동북은 다양한 이름으로 표기되었는데 금고(金鼓, 禁鼓), 금구(禁口, 金口), 반자(飯子, 鉸子, 半字, 飯子, 般子), 판자(飯子, 判子)이다. ‘천수원’명 청동북 측면에는 ‘禁口’로 표기되었다.

고려시대의 청동북은 후면의 형태 즉, 공명구의 모양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로는 공명구가 넓게 뚫려 있고 전이 좁은 것으로 <함흥9년경암사명 청동북(반자)>(1073년)와 같은 형식이다. 두 번째로는 앞뒤 면이 모두 막히고 옆면에 길게 찢은 공명구가 뚫린 것으로 <정우2년경선사명 청동북(금고)>(1214년)와 같은 형식이다. 세 번째로는 <‘천수원’명 청동북(금고)>(1162년)처럼 뒷면의 공명구가 좁게 뚫려 있는 형식이다. 이 청동북은 첫 번째 형식으로 반자(盤子) 형식을 갖춘 청동북으로 생각된다.

청동북의 규격은 지름 36.8cm, 측면 폭 9.4cm으로 고면은 세 줄로 이루어진 윗기 동심원으로 구획해 나누었다. 당좌구는 지름 8cm로 11세기 제작 청동북보다 축소된 형태이다. 당좌구에는 하나의 연과를 중심으로 한 줄의 원권문을 두른 후 6개의 돌출된 연과를 둥글게 배치하여 표현하였다. 당좌구를 둘러싼 연판문은 13엽의 연판문으로 표현하였으며, 연판문 중앙 자리에는 이중으로 잎을 표현하던 11

세기 작품들과 달리 꽃술을 세선으로 시문하였다. 이러한 당좌구의 모습은 1085년 <대안원년명 청동북(반자)>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구에는 <‘천수원’명 청동북(금고)>과 같이 6개의 화문을 삼각 형태로 만들어 네 곳에 시문하였다. 외구에는 운문을 네 곳에 시문하였는데 사실감 있는 문양 표현이 돋보인다.

12세기 중반부터 13세기 후반이 되면 고면의 용기 동심원이 세 줄로 늘어나며, 구획의 간격이 균일해지는 모습이 포착된다. 또한, 12세기 중반에는 당좌구의 크기가 축소되며, 13세기에는 당좌구 주변이 화려해지며 정형화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 이 청동북과 가장 비슷한 양식을 가진 작품으로는 1202년에 제작된 <태화2년 포계사명 청동북(반자)>이다. 따라서 온양민속박물관 청동북은 12세기 중반 이후부터 13세기 초반에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향후에 명문이 있는 다른 유물들을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이 청동북에 대한 정확한 시대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안원년명 청동북(반자)>
(大安元年銘半子)
1085年, 徑36.0cm
동아대박물관



<청동북>
고려시대, 徑36.8cm
온양민속박물관



<태화2년 포계사명 청동북(반자)>
(泰和二年 浦溪寺銘 盤子)
1202年, 直徑34.0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 참고문헌

- 김연수·최응천, 『금속공예』, 솔, 2003.
- 최응천, 「고려시대 금고의 특성과 명문고찰」, 『보조사상』 49, 보조사상연구원, 2017.

○ 기 타

온양민속박물관 청동북은 ‘천수원’명 청동북(1162년)과 함께 1977년 아산 충무공 묘소 가는 길 쪽에 사는 주민 한○○이 집을 짓던 중 부엌 부지에서 출토된 것을 개울에 버렸었는데, 태풍 사라호에 의해 드러나자 주민 오○○이 아산군청에 신고하였고, 마침 온양민속박물관을 건립할 때여서 구정 재단이 소장하게 되었다.

14.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가. 검토사항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0.12.9.)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6.2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 소유자(관리자) : 재단법인 선학원 수능엄사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754-16, 수능엄사
- 수 량 : 2권 1책
- 규 격 : 30.2×17.2cm(匡高 22.8cm)
- 재 질 : 지(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改裝)
- 조성연대 : 1373년(고려 공민왕 22) 판각, 후인



<금강만야경소론찬요조현록>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指定 價値>

지정조사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恭愍王 22년(1373)에 隱峯 慧寧 선사의 주도하에 比丘 定西의 同願發願 및 功德主 裴吉萬과 幹事比丘 覺圭의 시주로 比丘 淳覺의 연판과 心正·圓暹·禪默 등의 板刻하여 인출된 판본이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禡王 4년(1378, 宣光 8)에 개판된 판본 2종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1종은 恭愍王 22년(1373, 洪武 6)에 개판된 지정조사본 보다도 개판의 시기가 늦은 판본들이다. 지정조사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기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판본보다도 앞선 시기에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인출 및 보존의 상태도 기지정본들보다 양호하며, 특히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유일본으로서의 자료적 희소성과 가치도 확보하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根據 基準>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禡王 4년(1378, 宣光 8)에 개판된 판본 2종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1종은 恭愍王 22년(1373, 洪武 6)에 개판된 지정조사본 보다도 개판의 시기가 늦은 판본들이다. 지정조사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기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판본보다도 앞선 시기에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인출 및 보존의 상태도 기지정본들 보

다 양호하며, 특히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유일본으로서의 자료적 희소성과 가치도 확보하고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指定 價値>

지정신청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恭愍王 22년(1373)에 隱峯 慧寧 선사의 주도하에 比丘 定西의 同願發願 및 功德主 裴吉萬과 幹事比丘 覺圭의 시주로 比丘 淳覺의 연판과 心正·圓暹·禪默 등의 板刻에 의하여 조성된 판본이다.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은 恭愍王 22년(1373, 洪武 6)에 개관된 지정신청본 보다도 개관의 시기가 늦은 禡王 4년(1378, 宣光 8)에 개관된 판본 2종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신청본은 기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판본보다도 앞선 시기에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인출 및 보존의 상태도 양호하며, 특히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유일본으로서의 자료적 희소성과 가치도 확보되고 있다.

따라서 지정신청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根據 基準>

恭愍王 22년(1373)에 간행된 지정신청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과 동일한 版本의 他藏處와 지정사례는 없으나, 지정신청본 보다도 간행의 시기가 늦은 禡王 4년(1378)에 충주 청룡사에서 간행된 판본이 2종(동국대학교 소장본과 청주대학교 소장본)이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되어 있다. <[표1] 참간>

○ (지정 가치 있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신청한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2권 1책은 1373년(공민왕 22) 음력 5월 승려 은봉(隱峯)이 주도하여 조성한 목판으로 14세기 후기부터 15세기 전기 사이로 찍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표지는 개장되고 본문의 일부는 오염이 확인되지만 인출·보존상태가 양호하다.

고려의 공민왕 시기의 불교사상과 인쇄기술, 종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일목판을 찍어 만든 불교기록유산이 현재까지 확인되는 유일본으로 자료적인 희소가치도 높다. 따라서 신청대상의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2권 1책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현 상

<書誌 記述>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 鳩摩羅什(344~413, 姚秦朝) 奉詔譯 ; 宗密(780~841, 唐朝) 疏論 ; 慧定(1115~1182, 南宋朝) 述. 木版本. [刊行地 不明] : [刊行處 不明], [恭愍王 22(1373)].

上·下卷1冊(50張) : 上下單邊, 匡高 22.8cm, 無界, 全葉 25行(5折), 經文 大字單行 17字, 疏論文 中字單行20字, 助顯文 小字雙行20字, 無口, 無魚尾 ; 30.2×17.2cm. 韓紙. 線裝(五針眼訂, 改裝).

題簽題: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卷(并序) [印出題簽+墨書]

卷首題: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卷上)

版 題: 金

卷尾題: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卷上),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卷下)

樣 式: 권말에 題簽題의 樣式 그대로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卷’이 수록되어 있다.

板 數: 卷軸裝의 形식을 유지한 상하단변만 있는 50板으로 연결

內 容: 序文(西方丈), 經意, 疏意, 例顯發信解, 例顯明行證,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 卷上, 發願文(慧定), 辨字, [黜雜], 應驗,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卷下, 跋(韓性), 跋(安震), 跋(宏演), 刊行記錄, 題簽題樣式.

墨 書: 頭註, 口訣.

避諱字: 간행기록에 명 태조 洪武帝의 연호인 ‘洪武’의 ‘武’자가 고려 惠宗의 諱字와 같아 ‘𠄎’자로 缺劃되어 있다.

序 文: 金剛妙喻般若雄詮破二執而顯三空安四 …… 纂要并助顯釋後章別敍淳熙戊戌(1178, 순희 5, 고려 명종 8)季春 既望葢山西方丈序.

發願文: 紹興府戒珠省院住持臣僧慧定謹述此錄助顯 …… 婁豐四民咸樂臣僧慧定謹言.

跋 文: 金剛經以文字顯空義一點一畫水 …… 此定師別峯師之意安」陽韓性書.

跋 文: 本經盡禪那妙旨註釋者既多未若是 …… 勅授將仕郎重大匡安山君安震跋.

跋 文: 隱峯寧禪師得疏論纂要助顯合錄一卷以授東院老 諡公募緣鋟梓於至正壬辰(1352, 恭愍王 元)八月日也而是板因於辛丑(1361, 恭愍王 10). 寇盜之際而失之故隱峯又重修於洪武癸丑(1373, 공민왕 22)使人人因. 疏生鮮以助明性嘉其用心若此以其年月而識之是. 季四月佛生前二日無說宏演書後.

刊 記: 洪武六年(1373, 恭愍王 22)五月 日. 功德主 裴吉萬, 幹事 比丘覺圭. 同願比丘定西. 鍊板 比丘淳覺. 刊手 心正 圓暹 禪默.

<現狀>

지정조사본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의 전체적인 印出의 상태와 보존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앞뒤 표지는 후대에 개장한 것으로 보이며, 본문의 내지는 오염의 흔적이 심하다. 문화재의 보존과 수명의 연장을 위한 보존 처리가 요망된다.

○ 유 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고 대표적인 불경인 「金剛般若波羅密經」은 姚秦시대 구마라집이 翻譯한 불경으로 보통 「金剛般若經」, 「金剛經」으로 약칭한다.

唐에 와서 宗密이 자신의 論疏를 붙여, 金剛般若經疏論纂要라 하였고, 여기에 다시 南宋의 慧定이 纂要의 要旨를 알기 쉽게 助顯·註解하여 1178년(淳熙 戊戌)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을 저술하였다.

「金剛般若波羅密經」은 우리나라에 삼국시대의 불교가 전래와 함께 전해져서 고려 중기부터 널리 유통되었으며,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1178년 이후 고려에 전래되어 3차례 각판하여 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352년(恭愍王 元年)>

지정조사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卷下의 末尾에 수록된 安震의 「跋文」에 따르면 1352년(恭愍王 元年) 希滄의 주선으로 資院政使 高龍卜이 私財를 喜捨하여 工匠을 모아 목판으로 刊行한 사실이 있다. 이 경판은 신축년(1361, 공민왕 10)에 왜구들의 노략질로 유실되고 말았다고 宏演의 「跋文」에 쓰여져 있다. 또한 이 간본의 전래본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1373년(洪武 癸丑, 공민왕 22)>

지정조사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으로 1373년(洪武 癸丑, 공민왕 22) 隱峯 慧寧 선사의 주도하에 比丘 定西의 同願發願 및 功德主 裴吉萬과 幹事比丘 覺圭의 시주로 比丘 淳覺의 연판과 心正·圓暹·禪默 등의 板刻에 의하여 배길만의 도

움으로 隱峰이 重修하여 重刊한 板本이다.

지정조사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卷下의 末尾에는 다음과 같은 宏演의 「跋文」과 刊行記錄을 수록하고 있다.

○ 宏演의 「跋文」

隱峰의 [慧寧] 선사께서 「疏論纂要」와 「助顯錄」이 1권으로 合錄된 것을 東院으로 傳授하시자, 老師 [希]諡 公께서 시주의 인연을 모아 판각을 한 것이 지정 임진년(1352, 공민왕 원) 8월의 모 일이었다. 그러나 이 판각은 신축년(1361, 공민왕 10)에 왜구들의 노략질로 유실되고 말았으므로 隱峯 [慧寧] 선사께서 또다시 1373년(洪武 癸丑, 공민왕 22)에 重修하셨다. 모든 이들이 저마다 疏文의 산뜻한 해석에 따라 본성을 밝히는데 이바지될 수 있도록 애쓴 공로가 이와 같으므로, 여기에 그 내력의 始末을 기록하는 바이다.

癸丑(1373, 공민왕 22)年 4월 6일에 無說 宏演이 後書하다.

隱峯[慧寧]禪師 得疏論纂要助顯 合錄一卷 以授東院 老[希]諡公募緣鉸梓 於至正壬辰(1352, 恭愍王 元)八月日也 而是板 因於辛丑(1361, 恭愍王 10) 寇盜之際而失之 故隱峯又重修 於洪武癸丑 使人人 因疏生解 以助明性 嘉其用心若此 以其年月而識之 是」季四月佛生前二日 無說宏演書後.

○ 刊行記錄

洪武 6년(1373, 恭愍王 22) 5월 모일.

功德主는 裴吉萬이고,
幹事는 比丘 覺圭이며,
同願者는 比丘 定西이고,
鍊板은 比丘 淳覺이며,
刊手는 心正 圓暹 禪默이다.

洪武六(1373, 恭愍王 22)年五月 日

功德主 裴吉萬
幹事 比丘覺圭
同願 比丘定西
鍊板 比丘淳覺
刊手 心正 圓暹 禪默.

<1378년(禩王 4, 宣光 8)>

충주 천룡사에서 上下卷 1책으로 刊行한 板本으로 현재 寶物(東國大, 淸州大)과 全北有形(圓光大)으로 지정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고 대표적인 불경인 『金剛般若波羅密經』은 姚秦시대 구마라집이 翻譯한 불경으로 보통 『金剛般若經』, 『金剛經』으로 약칭한다.

唐에 와서 宗密이 자신의 論疏를 붙여, 金剛般若經疏論纂要라 하였고, 여기에 다시 南宋의 慧定이 纂要의 要旨를 알기 쉽게 助顯·註解하여 1178년(淳熙 戊戌)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을 저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판각하여 간행한 『金剛般若波羅密經』 판본 중에 현재까지 전해지는 가장 이른 판본은 고려 고종 원년(1214)에 群生寺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唐의 승려 宗密(780~841)이 般若部の 불교 경전인 鳩摩羅什(344~413)이 漢譯한 『金剛般若波羅密經』에 자신의 論疏를 붙여 撰述한 『金剛般若經疏論纂要』를 바탕으로 하여, 남송조의 승려 지식인 慧定(1115~1182)이 더욱 쉽게 助顯·註解한 경전이다.

지정조사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恭愍王 22년(1373)에 권축장의 형태를 유지하여 판각된 상·하 2권 1책의 목판본으로 題簽題와 卷首題는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이며, 卷尾題는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또는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이고 版題는 ‘金’이다.

지정조사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版式의 邊欄은 上下單邊이고 匡郭의 匡高 22.8cm이며 계선은 없다. 본문의 行자 수는 全葉 25行(5折)에 經文은 大字單行의 17자이고 疏論文은 中字單行의 20字이며 助顯文은 小字雙行의 20字이다. 판구와 어미는 없으며, 규격은 세로 30.2cm, 가로 17.2cm이다. 지질은 韓紙이며 裝訂은 卷軸裝 형식의 印出本이 五針眼訂法의 線裝으로 개장되어 있다.

지정조사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에 수록된 內容은 「序文(西方丈)」, 「經意」, 「疏意」, 「例顯發信解」, 「例顯明行證」,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卷上」, 「發願文(慧定)」, 「辨字」, 「黜雜」, 「應驗」,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卷下」, 「跋(韓性)」, 「跋(安震)」, 「後序(宏演)」, 「刊行記錄」, 「題簽題樣式」 등이다. 그러나 禍王 4년(1378)에 忠州 靑龍寺의 宴誨菴에서 간행된 판본의 수록 내용은 「序文(西方丈)」, 「經意」, 「疏意」, 「例顯發信解」, 「例顯明行證」,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卷上」, 「發願文(慧定)」, 「辨字」, 「黜雜」, 「應驗」,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卷下」, 「跋(王璩)」, 「跋(韓性)」, 「跋(大同)」, 「跋(韓性)」, 「跋(幻庵)」, 「刊行記錄」, 「題簽題樣式」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정조사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에는 거의 모든 張마다 頭註와 口訣이 墨書되어 있으며, 「간행기록」에는 명 태조 洪武帝의 연호인 ‘洪武’의 ‘武’자가 고려 惠宗의 諱字와 같아 ‘𠄎’자로 避諱되어 있으며 題簽題의 樣式 그대로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卷’도 수록되어 있다.



<도1. 題簽題의 樣式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卷’과 표지>



<도2. 刊行記錄>

지정조사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상권 권두에는 1178년(순희 5년 무술, 고려 명종 8) 3월 16일에 西方丈이 지은 다음의 서문을 수록하고 있다.

金剛妙喻般若雄詮破二執而顯三空安四，心而修六度頭頭離相更有何疑法法忘情，了無是住任功高於四句從報勝於二嚴遣，色聲而絕見聞其誰不佛引堅利而方體用，何物非真是謂無下無高無別無斷故經云，如來者即諸法如義雖理超言外而跡在象，問翫月色而生文犀諧密感觸電光而見道，人不冥行由疏以通經因經而了性不亦然，乎經通則疏可忘矣性了則經可捨矣古德，云度河須用筏到岸不須般說斯之謂歟其，纂要并助顯釋後章別敘淳熙戊戌季春，既望戴山西方丈序。

지정조사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하권의 권두에는 다음의 慧定의 「發願文」이 수록되어 있다.

紹興府戒珠省院住持臣僧慧定謹述此錄助顯」金剛般若經與義廣利群生恭用仰祝」二宮益隆」萬壽鳳曆長新於中夏狼煙永息於邊陲百穀」婁豐四民咸樂臣僧慧定謹言。

지정조사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하권의 末에 수록된 韓性的 「跋文」은 다음과 같다.

金剛經以文字顯空義一點一畫水。酒不著何由二大士有爾許咨請何」爲觀史天中有爾許酬答定法師助。顯何以重加註脚及觀其篇首大旨要。使人人皆有入處以文字顯空義空。生之間世尊之答如是如是別峯師。更爲入梓使之流通助顯實相義。蓋。無注不在也見者聞者發心舉筆或。以法施或以財施贊成就此助顯者。音知是人所得智慧所得福德無量無。邊此能仁氏之意此慈氏之意此空生。二大士之意。此定師別峯師之意安。陽韓性書。

지정조사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하권의 末에 수록된 安震의 「跋文」은 다음과 같다.

本經盡禪那妙旨 註釋者既多 未若是疏 究其淵源 俾覽之者 開卷豁然也 沙門慧寧 初得是疏 歎未曾有 以圖傳遠 授之東院老宿希諗公 公言於資政院使高公龍卜 高公捨其私財 募工鋟梓 廣施無窮 同發誓言 凡此經中 見聞隨喜 皆生極樂國土 蒙佛記別 龍華會上 親觀空生請益 與無著天親 遊於薩婆若海 金剛可壞 我願不渝 余聞此言 深喜龜木相遇 勉書始末云。勅授將仕郎重大匡安山君安震跋。

지정조사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卷下の 末尾에 수록된 宏演의 「跋文」은 다음과 같다.

隱峯[慧]寧禪師 得疏論纂要助顯 合錄一卷 以授東院 老[希]諗公募緣鋟梓 於至正壬辰(1352, 恭愍王 元)八月日也 而是板 因於辛丑(1361, 恭愍王 10) 寇盜之際而失之 故隱峯又重修 於洪武癸丑 使人人 因疏生解 以助明性 嘉其用心若此 以其年月而識之 是」季四月佛生前二日 無說宏演書後。

지정조사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卷下の 末尾에 수록된 「刊行記錄」은 다음과 같다.

洪武六(1373, 恭愍王 22)年五月 日 功德主 裴吉萬 幹事 比丘覺圭 同願 比丘定西 鍊板 比丘淳覺 刊手 心正 圓暹 禪默。

이상의 여러 기록에서 지정조사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恭愍王 22년(1373)에 隱峯 慧寧의 주도하에 比丘 定西의 同願發願 및 功德主 裴吉萬과 幹事 比丘 覺圭의 시주로 比丘 淳覺의 연판과 心正·圓暹·禪默 등의 板刻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정조사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발견되지 않다가 근래에 발견된 판본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 다만 이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1378년(우왕 4)에 간행한 忠州 靑龍寺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2건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건이 각각 지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1378년(禡王 4, 宣光 8)에 개판된 판본 2건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1건은 1373년(恭愍王 22, 洪武 6)에 개판된 지정조사본 보다도 개판의 시기가 5년 정도 늦은 판본들이다. 지정조사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기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판본보다도 앞선 시기에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인출 및 보존의 상태도 기지정본보다 양호하며, 특히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유일본으로의 자료적 희소성과 가치도 확보되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사례

1373년(恭愍王 22)에 간행된 지정조사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과 동일한 판본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다만, 지정조사본 보다도 5년 늦은 1378년에 충주 청룡사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동국대학교 소장본과 청주대학교 소장본 2건이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되어 있다.



<도3. 동국대학교 소장본>



<도4. 청주대학교 소장본>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鳩摩羅什 奉詔譯, 宗密 疏論, 慧定 述,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木版本. [刊行地 不明] : [刊行處 不明], [恭愍王 22(1373)]. 首楞嚴寺 所藏本.
- 鳩摩羅什 奉詔譯, 宗密 疏論, 慧定 述,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木版本. [忠州] : [靑龍寺], [禩王 4(1378)]. 淸州大學校博物館 所藏本.
- 부산광역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 및 검토의견서, 부산광역시, 2020.
-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조사보고서(송정숙·최영호·우정임)」 및 문화재위원회 유형분과위원회 심의의결서, 부산광역시, 2020.
- 尹炳泰 編, 『韓國古書整理法研究』, 서울특별시, 利久出版社, 1983.
-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특별시, 汎友社, 1990.
- 朴文烈 譯註, 『譯註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대학교 박물관, 2008.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동국대학교도서관: <http://lib.dongguk.edu>
- 동국역경원: <http://www.tripitaka.or.kr>
- 원각사정보박물관: <http://www.wongaksa.or.kr/sungbo>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기 타

신청서에 첨부된 소장 경위서의 내용에 따르면, 지정조사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수능엄사 신도회에서 寺格을 높이고자 하는 뜻으로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00의 李○○이 소장하던 『金剛般若波羅蜜經』과 『大方廣佛華嚴經疏』 권51·74 및 『佛祖三經』 등과 함께 신도회의 결의와 기증자의 정당한 기증 절차에 따라 소장하게 되었다고 함.

□

○ 현 상

지정신청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書誌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書誌 記述>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 鳩摩羅什(344~413, 姚秦朝) 奉詔譯 ; 宗密(780~841, 唐朝) 疏論 ; 慧定(1115~1182, 南宋朝) 述. -- 木版本. -- [刊行地 不明] : [刊行處 不明], [恭愍王 22(1373)].

上·下卷1冊(50張) : 上下單邊, 匡高 22.8cm, 無界, 全葉 25行(5折), 經文 大字單行 17字, 疏論文 中字單行20字, 助顯文 小字雙行20字, 無口, 無魚尾 ; 30.2×17.2cm. 韓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題簽題: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卷(并序)’ (印出題簽+墨書)

卷首題: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 (卷上)

版 題: 金.

卷尾題: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卷上),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卷下).

樣 式: 題簽題의 樣式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卷’이 板刻되어 있다. (卷末)

板 數: 卷軸裝의 형식으로 板刻된 50板.

內 容: 序文(西方丈), 經意, 疏意, 例顯發信解, 例顯明行證,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 卷上, 發願文(慧定), 辨字, [黜雜], 應驗,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卷下, 跋(韓性, 金), 跋(安震), 跋(宏演), 刊行記錄, 題簽題樣式.

[比較]: 序文(西方丈), 經意, 疏意, 例顯發信解, 例顯明行證,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 卷上, 發願文(慧定), 辨字, [黜雜], 應驗,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卷下, [跋(王璩)], 跋(韓性, 世), [跋(大同)], [跋(韓性, 金)], 跋(幻庵), 刊行記錄, 題簽題樣式. (禩王 4년(1378) 靑龍寺 版本)

墨 書: 頭註, 口訣.

避諱字: 간행기록에 명 태조 洪武帝의 연호인 '洪武'의 '武'자가 고려 惠宗의 諱字와 같아 '武'자로 缺劃避諱되어 있다.

序 文: 金剛妙喻般若雄詮破二執而顯三空安四, 心而修六度頭頭離相更有何疑法法忘情, 了無是住任功高於四句從報勝於二嚴遣, 色聲而絕見聞其誰不佛引堅利而方體用, 何物非真是謂無下無高無別無斷故經云, 如來者即諸法如義雖理超言外而跡在象, 間翫月色而生文犀諧密感觸電光而見道, 人不冥行由疏以通經因經而了性不亦然, 乎經通則疏可忘矣性了則經可捨矣古德, 云度河須用筏到岸不須般誡斯之謂歟其, 纂要并助顯釋後章別敘淳熙戊戌(1178, 순희 5, 고려 명종 8)季春, 既望葢山西方丈序. (卷上 卷頭)

發願文: 紹興府戒珠省院住持臣僧慧定謹述此錄助顯, 金剛般若經與義廣利群生恭用仰祝, 二宮益隆, 萬壽鳳曆長新於中夏狼煙永息於邊陲百穀, 婁豐四民咸樂臣僧慧定謹言. (卷下 卷頭)

跋 文: 金剛經以文字顯空義一點一畫水, 酒不著何由二大士有爾許咨請何, 爲觀史天中有爾許酬答定法師助, 顯何以重加註脚及觀其篇首大旨要, 使人人皆有入處以文字顯空義空, 生之問世尊之答如是如是別峯師, 更爲入梓使之流通助顯實相義, 蓋, 無注不在也見者聞者發心舉筆或, 以法施或以財施贊成就此助顯者, 音知是人所得智慧所得福德無量無, 邊此能仁氏之意此慈氏之意此空生, 二大士之意 此定師別峯師之意安, 陽韓性書. (卷下 末尾)

跋 文: 本經盡禪那妙旨註釋者既多未若是, 疏究其淵源俾覽之者開卷豁然也沙, 門慧寧初得是疏歎未曾有以圖傳遠, 授之東院老宿希諗公公言於資政院, 使高公龍卜高公捨其私財募工鋟梓, 廣施無窮同發誓言凡此經中見聞隨, 喜皆生極樂國土蒙佛記別龍華會上, 親覩空生請益與無著天親遊於薩婆, 若海金剛可壞我願不渝余聞此言深, 喜龜木相遇勉書始末云, 勅授將仕郎重大匡安山君安震跋. (卷下 末尾)

跋 文: 隱峯寧禪師得疏論纂要助顯合錄一卷以授東院老, 諗公募緣鋟梓於至正壬辰(1352, 恭愍王 元)八月日也而是板因於辛丑(1361, 恭愍王 10), 寇盜之際而失之故隱峯又重修於洪武癸丑(1373, 공민왕 22)使人人因, 疏生解以助明性嘉其用心若此以其年月而識之是, 季四月佛生前二日無說宏演書後. (卷下 末尾)

刊 記: 洪武六(1373, 恭愍王 22)年五月 日, 功德主 裴吉萬, 幹事 比丘覺圭, 同願比丘定西, 鍊板 比丘淳覺, 刊手 心正 圓暹 禪默. (卷下 末尾)

現 狀: 전체적인 印出의 상태와 보존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전후 表紙는 후대에 改裝된 듯하며 본문의 내지는 복장물인 듯 오염의 흔적이 심하다.

所藏歷: 수능엄사 신도회에서 寺格을 높이고자 하는 뜻으로 경북 포항시 북구 새

천년대로 1200의 李○○이 소장하던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大方廣佛華嚴經疏』 권51·74, 『佛祖三經』 등을 신도회의 결의와 기증자의 정당한 기증 절차에 따라 소장하게 되었다고 함. (소장경위서 참간)

他藏處: 恭愍王 22년(1373)에 간행된 지정신청본과 동일한 版本의 他藏處는 없다.

既定指定: 지정신청본 보다도 늦은 우왕 4년(1378)의 청룡사 판본이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되어 있다.

<現狀>

지정신청본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의 전체적인 印出의 상태와 보존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전후 表紙는 후대에 改裝된 듯하며 본문의 내지는 복장물인 듯 오염의 흔적이 심하다. 차후에 문화재의 보존과 수명의 연장을 위한 지류문화재 보존 처리가 요망된다.

○ 내용 및 특징

『金剛般若波羅蜜經』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고 신봉되는 대표적인 불경으로 ‘『金剛般若經』·『金剛經』’으로 略稱되기도 한다.

『金剛般若波羅蜜經』의 漢譯本은 姚秦의 鳩摩羅什(344~413)이 번역한 것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중국의 禪宗 계열에서는 제5조인 弘忍(601~674) 이래로 특히 중시되고 제6조 慧能(638~713)은 『金剛般若波羅蜜經』의 경문을 듣고 發心하여 출가하였던 바로 그 경전이다.

『金剛般若波羅蜜經』은 空慧를 근본으로 ‘一切法無我’의 이치를 요지로 삼고 있다. 經文 중에 ‘空’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는 것이 특징이며, 大乘과 小乘이라는 두 관념의 대립이 성립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과도기적인 經典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金剛般若波羅蜜經』은 經文의 解釋과 理解를 돕기 위하여 印度의 無着(?~?)에 의하여 18住位로 分科되고 天親(?~?)에 의하여 37斷疑로 分段되었다. 중국 梁朝의 昭明太子(501~531)에 의하여 32品으로 分品된 바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昭明太子의 32分品の 體制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의 불교가 유입된 초기에 전해져서 고려 중기에 知訥(1158~1210)이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立法을 위해서 반드시 본 경전을 읽도록 한 뒤부터 널리 유통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金剛般若波羅蜜經』의 판본 중에 가장 이른 판본은 고려 고종 원년(1214)에 群生寺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당조의 승려 宗密(780~841)이 般若部의 불교 경전인 鳩摩羅什(344~413)이 漢譯한 『金剛般若波羅蜜經』에 자신의 論疏를 붙여 撰述한 『金剛般若經疏論纂要』를 바탕으로 하여, 남송조의 승려 지식인 慧定(111

5~1182)이 더욱 쉽게 助顯·註解한 불교 기록유산이다.

지정신청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恭愍王 22년(1373)에 권축장의 형태를 염두로 판각된 상·하 2권 1책의 목판본으로 題簽題와 卷首題는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이며, 卷尾題는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또는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이고 版題는 ‘金’이다.

지정신청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版式의 邊欄은 上下單邊이고 광곽의 匡高 22.8cm이며 계선은 없다. 본문의 行자수는 全葉 25行(5折)에 經文은 大字單行의 17자이고 疏論文은 中字單行의 20字이며 助顯文은 小字雙行의 20字이다. 판구와 어미는 없으며, 규격은 세로 30.2cm, 가로 17.2cm이다. 지질은 韓紙이며 裝訂은 卷軸裝 형식의 印出本이 五針眼訂法의 線裝으로 개장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에 수록된 內容은 「序文(西方丈)」, 「經意」, 「疏意」, 「例顯發信解」, 「例顯明行證」,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卷上」, 「發願文(慧定)」, 「辨字」, 「黜雜」, 「應驗」,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卷下」, 「跋(韓性)」, 「跋(安震)」, 「後序(宏演)」, 「刊行記錄」, 「題簽題樣式」 등이다. 그러나 禡王 4년(1378)에 忠州 靑龍寺의 宴誨菴에서 간행된 판본의 수록 내용은 「序文(西方丈)」, 「經意」, 「疏意」, 「例顯發信解」, 「例顯明行證」,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卷上」, 「發願文(慧定)」, 「辨字」, 「黜雜」, 「應驗」,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卷下」, 「跋(王璩)」, 「跋(韓性)」, 「跋(大同)」, 「跋(韓性)」, 「跋(幻庵)」, 「刊行記錄」, 「題簽題樣式」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정신청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에는 거의 모든 張마다 頭註와 口訣이 墨書되어 있으며, 「간행기록」에는 명 태조 洪武帝의 연호인 ‘洪武’의 ‘武’자가 고려 惠宗의 諱字와 같아 ‘武’자로 缺割避諱되어 있고 題簽題의 樣式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卷’도 板刻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권두에 수록된 西方丈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

金剛의 미묘한 깨우침과 般若의 웅장한 도리가 [我執과 法執의] 二執을 깨뜨려 [人空·法空·俱空의] 三空을 드러냄이여! 四心에 편안하게 머물러 六度を 닦아서 저마다 相을 여의게 되면 다시금 무슨 의심이 있을 것이겠는가. 法마다 情을 잊고 머무름이 없음을 了達하여 공덕을 세우는 것은 四句의 偈頌보다도 높고 보답을 따르는 것이 福德으로 莊嚴하는 보다 더 뛰어날 것이니, 色聲을 버리고 견문을 단제하면 그 누가 부처님이 아닐 것이겠는가. 堅利를 끝어다가 바야흐로 體用으로 삼는다면 그 어떤 물건이 진실하지 않겠는가. 이것들을 ‘아래가 없고 높음이 없으며, 차별이 없고 단절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여래는 곧 모든 법이 뜻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비록 그 이치가 言外로 초월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취는 형상들 사이에 있는 것이며, 달빛을 완상하더라도 文犀(얼룩소)는 생기듯이 조화롭고 은밀한 감촉으로도 전광석화와 같은 사이에 佛道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무지하여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疏文으로 經文을 이해하려 하며, 경문으로 性品을 요해하고자 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經文에 능통하면 疏文은 잊어야 하는 것이며, 성품을 요해하면 경전도 버려야 하는 것이다. 古德께서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뗏목을 타도 될 것이나, 彼岸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배를 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한 것은 진실로 이를 두고 한 말씀이신 저! 「纂要」와 「助顯」의 題名에 대한 해석은 뒤에서 별도로 서술하고자 하는 바이다.

순희 무술(1178, 순희 5, 고려 명종 8)년 3월 16일에 叢山の 西方丈은 서문을 쓰는 바이다.⁹⁴⁾

지정신청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卷下の 권두에 수록된 慧定の 「發願文」은 다음과 같다.

紹興府 戒珠省院의 주지인 신 승려 慧定은 삼가 본 「助顯錄」을 저술하여 『金剛般若經』의 깊은 뜻을 조현함으로써 많은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삼가 이용하고자 하며 二宮께서 더욱 융성하심과 萬壽와 鳳曆이 仲夏처럼 증장하여 새로워지시며 戰爭이 영원토록 邊境에서 휴식하며 백곡이 풍족하게 거두어져 四民이 모두 안락하기를 앙축하는 바입니다!

신 승려 慧定은 삼가 축원하는 바입니다.⁹⁵⁾

지정신청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卷下の 末尾에 수록된 韓性的 「跋文」은 다음과 같다.

『금강경』은 문자로써 空義를 나타낸 것이라 일점일획이 물을 뿌려도 젖지 않을 것이니, 어찌 [聲聞과 菩薩의] 두 大士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咨請을 허락함이 있었던 것이겠으며, 어찌 도사와 天中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응답을 허락함이 있었던 것이겠는가. 혜정 법사의 『조현록』은 어찌하여 각주를 덧붙였던 것이겠는가. 편장의 첫머리의 큰 요지는 사람들에게 저마다 깨달아 들어갈 곳이 있도록 문자로 공의를 드러낸 것이니, 수보리가 질문하자 세존이 이러하고 이러하다고 대답한 것이다. 별봉 선사가 다시금 목판으로 간행하고 유통시켜서 실상의 뜻을 조현하고자 하였으니 대개 註釋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다.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마음을 내고 붓을 들어서 혹은 법으로 보시하고 혹은 재물로 보시하여 찬탄하며 성취한 것이다. 이 『조현록』은 내가 아는 이 사람이 얻은 지혜와 복덕이 무량무변한 것이니, 이는 能人氏(釋尊)의 뜻이자 慈氏(미륵보살)의 뜻이며, 공생과 두 대사의 뜻이자 혜정 선사와 별봉 선사의 뜻이기도 한 것이다.

안양 한성은 쓰다.⁹⁶⁾

94) 金剛妙喻般若雄詮破二執而顯三空安四，心而修六度頭頭離相更有何疑法法忘情，了無是住任功高於四句從報勝於二嚴遣，色聲而絕見聞其誰不佛引堅利而方體用，何物非真是謂無下無高無別無斷故經云，如來者即諸法如義雖理超言外而跡在象，間翫月色而生文犀諸密感觸電光而見道，人不冥行由疏以通經因經而了性不亦然，乎經通則疏可忘矣性了則經可捨矣古德，云度河須用筏到岸不須般說斯之謂歟其，纂要并助顯釋後章別敘淳熙戊戌(1178, 순희 5, 고려 명종 8)季春，既望叢山西方丈序(卷上 卷頭).

95) 紹興府戒珠省院住持臣僧慧定謹述此錄助顯，金剛般若經與義廣利群生恭用仰祝，二宮益隆，萬壽鳳曆長新於中夏狼煙永息於邊陲百穀，婁豐四民咸樂臣僧慧定謹言(卷下 卷頭).

96) 金剛經以文字顯空義一點一畫水，酒不著何由二大士有爾許咨請何，爲觀史天中有爾許酬答定法師助，顯何以重加註脚及觀其篇首大旨要，使人人皆有入處以文字顯空義空，生之問世尊之答如是如是別峯師，更爲入梓使之流通助顯實相義，蓋無注不在也見者聞者發心舉筆或，以法施或以財施贊成就此助顯者，音知是人所得智慧所得福德無量無，邊此能仁氏之意此慈氏之意此空生，二大士之意 此定師別峯師之意安，陽韓性書(卷下 末尾).

지정신청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卷下의 末尾에 수록된 安震의 「跋文」은 다음과 같다.

본 『金剛經』은 禪의 미묘한 뜻이 극진하여 註釋한 이들도 이미 많다. 본 『金剛經疏』야 말로 그 연원을 궁구하여, 열람하는 이들도 책을 펼치자마자 활연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 것이겠는가. 사문 慧寧 선사께서 처음으로 이 『金剛經疏』를 얻고 나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감탄하면서, 먼 후대에까지 전하여질 수 있을 것을 부탁하며 東院의 老宿인 希諗 公께 전하셨다. [希諗] 공께서 資政院使 高龍卜 公에게 이러한 뜻을 전하자, 高[龍卜] 公은 자신의 私財를 喜捨하여 工匠을 모아 목판으로 새겨 널리 유포하여 무궁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함께 발원하여 맹세하면서 ‘무릇 본 경전을 통하여 보고 듣고 따라서 기뻐하여 모두가 極樂의 佛國土에 태어나 부처님의 記別을 받아서 [부처님이 성불하신 후의 법회인] 龍華會上에서 친히 空生[수보리]을 만나 가르침을 청하여 無著[보살]과 天親[보살]과 더불어 [지혜가 넓고 깊은] 사바야 바다(薩婆若海)에 노닐 것이며, 금강이 破壞된다고 하더라도 나의 誓願만은 풀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는 이러한 말을 듣고 만나기 어려운 인연⁹⁷⁾이 서로 만난 듯 기쁘기 이를 데 없어, 鼓舞되어 그 始末을 쓰는 바이다. 운운.

勅命으로 將仕郎 重大臣에 제수된 安山君 安震⁹⁸⁾이 발문을 쓰다.⁹⁹⁾

지정신청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卷下의 末尾에 수록된 宏演의 「跋文」은 다음과 같다.

隱峰의 [慧寧 선사¹⁰⁰⁾께서 「疏論纂要」와 「助顯錄」이 1권으로 合錄된 것을 東院으로 傳授하시자, 老師 [希諗 公¹⁰¹⁾께서 시주의 인연을 모아 判각을 한 것이 지정 임진년(1352, 공민왕 원) 8월의 모 일이었다. 그러나 이 判각은 신축년(1361, 공민왕 10)에 왜구들의 노략질¹⁰²⁾로 유실되고 말았으므로 隱峯 [慧寧] 선사께서 또다시 洪武 癸丑(1373, 공민왕 22)년에 重修하셨다. 모든 이들이 저마다 疏文의 산뜻한 해석에 따라 본성을 밝히는데 이바지될 수 있도록 애쓴 공

97) 龜木: ‘盲龜遇木’의 약칭이다. 『涅槃經』에 의하면 눈먼 거북이 바다에서 백 년마다 한 번씩 물 위에 나오는데 우연히 구멍 뚫린 나무로 머리가 나온다는 것으로 만나기 어려움을 비유하는 말이다.

98) 安震(?~1360): 고려 후기에 밀직부사, 서연관, 정당문학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호는 ‘常軒’이다. 충숙왕 즉위년(1313)에 급제하여 1317년에 藝文檢閱에 오르고, 1318년에는 원조의 制科에 응시하여 급제한 뒤, 고려로 돌아와 藝文應教에 임명되었다. 충목왕 즉위년(1344)에 密直副使로서 書筵官이 되고 安山君으로 봉해졌으며, 1346년에는 李齊賢 등과 더불어 忠烈王·忠宣王·忠肅王 3朝의 實錄을 撰修하였다. 恭愍王 즉위 후 원조에서 왕을 잘 보좌한 공으로 일등공신이 된 趙日新이 정권을 장악하자, 그의 일과가 되어 政堂文學이 되었다. 1353년 조일신이 제거되자 그 일과가 모두 처형되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곤장을 면하고 대신 銅을 바치게 하였다. 뒤에 정당문학으로 임명되었다.

99) 本經盡禪那妙旨 註釋者既多 未若是疏 究其淵源 俾覽之者 開卷豁然也 沙門慧寧 初得是疏 歎未曾有 以圖傳遠 授之東院 老宿希諗公 公言於資政院使高公龍卜 高公捨其私財 募工鋟梓 廣施無窮 同發誓言 凡此經中 見聞隨喜 皆生極樂國土 蒙佛記別 龍華會上 親觀空生請益 與無著天親 遊於薩婆若海 金剛可壞 我願不渝 余聞此言 深喜龜木相遇 勉書始末云, 勅授將仕郎重大臣安山君安震跋(卷下 末尾).

100) 慧寧(?~?): 李穡과 權鑄가 지은 「高麗國平壤道延山府妙香山安心寺石鐘之碑」 <王師大曹溪宗師禪教都摠攝勤修本智重興祖風福國祐世普濟尊者諡禪覺懶翁和尚門生名目>의 ‘比丘’條에는 ‘前法華寺住持 慧寧’으로 기록되어 있다.

幻菴混脩(1320~1392): ‘無窮都大禪師正遍智智雄尊者’로 기록되어 있다. 懶翁의 제자로 호는 幻菴이고 자는 無作이며 속성은 趙氏이다. 太古普愚의 首弟子인 동시에 懶翁惠勤의 上足으로 우왕 때 國師에 책봉되었으며 시호는 普覺國師이다.

101) 希諗(?~?): 「京山府副使禮部員外郎白公(賁華)墓誌銘」과 『白雲和尚語錄』의 「示希諗社主書」에 나타나는 僧侶로 저서로는 『南陽先生詩集』이 있다.

102) 왜구는 충정왕 2년(1350), 공민왕 원년(1352), 공민왕 10년(1362)에 강화도에서 재물을 약탈한 바 있다.

로가 이와 같으므로, 여기에 그 내력의 始末을 기록하는 바이다.

癸丑(1373, 공민왕 22)年 4월 6일에 無說 宏演¹⁰³⁾이 後書하다.¹⁰⁴⁾

지정신청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卷下의 末尾에 수록된 「刊行記錄」은 다음과 같다.

洪武 6년(1373, 恭愍王 22) 5월 모일.

功德主는 裴吉萬이고 幹事는 比丘 覺圭이며, 同願者는 比丘 定西이고 鍊板은 比丘 淳覺이며, 刊手는 心正 圓暹 禪默이다.¹⁰⁵⁾

이상의 각종 記文을 통하여, 지정신청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恭愍王 22년(1373)에 隱峯 慧寧 선사의 주도하에 比丘 定西의 同願發願 및 功德主 裴吉萬과 幹事比丘 覺圭의 시주로 比丘 淳覺의 연판과 心正·圓暹·禪默 등의 板刻에 의하여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정신청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기왕에 발견되지 않다가 지금에야 발견된 판본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없으나, 이 판본을 저본으로 우왕 4년(1378)에 간행된 忠州 靑龍寺版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高麗版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판본과 指定文化財 현황을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高麗版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版本과 指定文化財 現況>

內 容	初刊本	重刊本	三刊本
指 定	非指定 (傳來本 無)	指定申請本 (傳來本 初出)	寶物(東國大, 淸州大) 全北有形(圓光大)
書 名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著 者	鳩摩羅什 漢譯, 宗密 疏論, 慧定 述	鳩摩羅什 漢譯, 宗密 疏論, 慧定 述	鳩摩羅什 漢譯, 宗密 疏論, 慧定 述
題簽題	[不明]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卷	[無]

103) 宏演(?~?): 고려 후기의 승려·시인으로 호는 竹磻이고 자는 無說이다. 懶翁 惠勤의 제자이며 강화도 禪源寺의 5대 주지를 지냈다. 원조에 들어가 학사 歐陽玄·危素 등과 교류하고 圓明國師의 비문을 위소에게 부탁하여 짓게 하였다. 『高麗國師道誥傳』을 저술하고 원조인 可遂가 지은 『藏乘法數』의 고려 간행본에 서문을 지었다. 磽隱은 당시 詩僧으로 활동하여 『동문선』에 시 10수가 수록되어 있고 『大東詩選』에는 2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1수는 새로운 것이다. 牧隱 李穡과 긴밀하게 교류하며 시를 주고받은 자취가 이색의 『牧隱詩藁』에 다수 실려 있으며, 목은은 磽隱의 시문을 높이 “무열산인은 스님들 중의 문장가(無說山人釋翰林)”라고 일컬었다. 磽隱의 시 「자정궁을 노닐며(遊紫淸宮)」는 『大東詩選』 뿐 아니라 淸조의 錢謙益이 편찬한 『列朝詩集』에도 수록되었다. 시집 『竹磻集』 1권이 있었으나 전하지 않고, 구양현과 위소가 쓴 서문만이 『해동문헌총목』에 수록되어 있어 시인으로서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 밖에 남은 흔적으로는 정도전의 『三峯集』에 「無說山人克復樓記後說」 등이 전한다.

104) 隱峯[慧寧禪師] 得疏論纂要助顯 合錄一卷 以授東院 老[希]諡公募緣鋸梓 於至正壬辰(1352, 恭愍王 元)八月日也 而是板 因於辛丑(1361, 恭愍王 10) 寇盜之際而失之 故隱峯又重修 於洪武癸丑 使人人 因疏生解 以助明性 嘉其用心若此 以其 年月而識之 是 季四月佛生前二日 無說宏演書後(卷下 末尾).

105) 洪武六(1373, 恭愍王 22)年五月 日, 功德主 裴吉萬, 幹事 比丘覺圭, 同願 比丘定西, 鍊板 比丘淳覺, 刊手 心正 圓暹 禪默(卷下 末尾).

內 容	初刊本	重刊本	三刊本
		(并序)	
卷首題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版 題	[金]	金	金
卷尾題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版 本	木版本	木版本	木版本
板 數	[不明]	50板	52板
刊行地	[不明]	[不明]	忠清道 忠州
刊行處	[不明]	[不明]	青龍寺 宴誨菴
刊行年	恭愍王 1(1352, 至正 12)	恭愍王 22(1373, 洪武 6)	禡王 4(1378, 宣光 8)
傳 來	1361年예 倭寇로 流失 (恭愍王 10, 至正 21)	傳來	傳來
卷 數	上下卷	上下卷 1冊	上下卷 1冊
邊 欄	上下單邊	上下單邊	上下單邊
匡 高	[不明]cm	22.8cm	21.2cm
界 線	[無界]	無界	無界
行字數	[不明]	全葉 25行(5折), 經文 大字單 行17字, 疏論文 中字單行20字, 助顯文 小字雙行20字	全葉 25行(5折), 經文 大字單 行17字, 疏論文 中字單行20字, 助顯文 小字雙行20字
版 口	[無]	無	無
魚 尾	[無]	無	無
紙 質	[韓紙]	韓紙	韓紙
裝 訂	[卷軸裝] 或 [折帖裝]	線裝	線裝
墨 色	[不明]	鮮明	鮮明
收 錄 內 容	[不明]	序文(西方丈)-經意-疏意-例顯 發信解-例顯明行證-金剛經疏 論纂要助顯錄卷上-發願文(慧 定)-辨字-[黜雜]-應驗-金剛經 疏論纂要助顯錄卷下-跋(韓性)- 跋(安震)-跋(宏演)-刊行記錄- 題簽題樣式	序文(西方丈)-經意-疏意-例顯 發信解-例顯明行證-金剛經疏 論纂要助顯錄卷上-發願文(慧 定)-辨字-黜雜-應驗-金剛經疏 論纂要助顯錄卷下-跋(王璩)-跋 (韓性)-跋(大同)-跋(韓性)金- 跋(幻庵)-刊行記錄-題簽題樣式
墨 書	[不明]	頭註, 口訣	頭註, 口訣
序 文	[西方丈序(1178)]	西方丈序(1178)	西方丈序(1178)
發願文	[臣僧慧定謹言]	臣僧慧定謹言[1178]	臣僧慧定謹言[1178]
跋 文	[王璩謹跋(1179)]	-	王璩謹跋(1179)
跋 文	[不明]	-	安陽韓性書(1339)
跋 文	[不明]	-	比丘大同謹題(1339)
跋 文	[不明]	安陽韓性書[1339]	安陽韓性書[1339]

內 容	初刊本	重刊本	三刊本
跋 文	-	安山君安震跋[1373]	-
跋 文	-	無說宏演書後(1373)	-
跋 文	-	-	幻庵比丘無作書(1378)
刊行記 [不明]		洪武六(1373)年五月日 功德主 裴吉萬 幹 事 比丘覺圭 同 願 比丘定西 鍊 板 比丘淳覺 刊 手 心正 圓暹 禪默	募緣 万恢 尙偉 志中 天密 辦善 奉善大夫典醫副正高息機 海州郡夫人崔氏 省緣 同願 比丘尼戒完 承奉郎漢陽判官 趙云介 板留忠州青龍寺
題簽式 [不明]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卷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卷

이상의 [표1]에서 보듯이,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은 恭愍王 22년(1373, 洪武 6)에 개관된 지정신청본 보다도 개관의 시기가 늦은 禡王 4년(1378, 宣光 8)에 개관된 판본 2종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일한 1종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의 근거가 자료적 가치와 희귀본 등에 있음을 고려할 때, 지정신청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기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판본보다도 앞선 시기에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인출 및 보존의 상태도 양호하며, 특히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유일본으로의 자료적 희소성과 가치도 확보되고 있다.

따라서 지정신청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恭愍王 22년(1373)에 간행된 지정신청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과 동일한 版本의 他藏處와 지정사례는 없다. 다만, 지정신청본 보다도 늦은 禡王 4년(1378)에 충주 청룡사에서 간행된 판본 중의 동국대학교 소장본과 청주대학교 소장본 2건이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되어 있다. <[표1] 참간>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鳩摩羅什 奉詔譯, 宗密 疏論, 慧定 述,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木版本. [刊行地 不明] : [刊行處 不明], [恭愍王 22(1373)]. 首楞嚴寺 所藏本.
- 鳩摩羅什 奉詔譯, 宗密 疏論, 慧定 述,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木版本. [忠州] : [青龍寺], [禡王 4(1378)]. 淸州大學校博物館 所藏本.
- 부산광역시청,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 및 검토의견서, 부산광역시, 2020.
-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조사보고서(송정숙·최영호·우정임)」 및 문화재위원회 유형분과위원회 심의의결서, 부산광역시, 2020.

- 尹炳泰 編, 『韓國古書整理法研究』, 서울특별시, 利久出版社, 1983.
-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특별시, 汎友社, 1990.
- 朴文烈 譯註, 『譯註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대학교 박물관, 2008.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동국대학교도서관: <http://lib.dongguk.edu>
- 동국역경원: <http://www.tripitaka.or.kr>
- 원각사정보박물관: <http://www.wongaksa.or.kr/sungbo>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기 타

지정신청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수능업사 신도회에서 寺格을 높이고자 하는 뜻으로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00의 李○○이 소장하던 『金剛般若波羅蜜經』과 『大方廣佛華嚴經疏』 권51·74 및 『佛祖三經』 등과 함께 신도회의 결의와 기증자의 정당한 기증 절차에 따라 소장하게 되었다고 함(소장경위서 참간).



○ 현 상

본서는 1373년(공민왕 22) 음력 5월 승려 은봉(隱峯)이 주도하여 조성한 목판을 후대 찍어 만든 인출본이다. 원래의 제책은 오침안정법의 선장본으로, 오침 흔적이 남아있으나 철사가 탈락되어 있다. 표지는 개장되었으면서 제침은 권하 제50장 해당 장에 양각되어 있는 표제를 인출하여 붙였다. 그리고 권상 제16장 등 일부의 인위적인 훼손현상도 보인다. 본서의 인출정보가 없어 정확한 인출시기를 알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는 인출상태가 선명하며, 현재의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당나라 종밀(宗密)이 반야부의 불교경전 『금강반야경』에다가 논소를 붙여 찬술한 『금강반야경소론찬요』

를 승려지식인 혜정(慧定)이 더 쉽게 주해한 불교경전이다.

<서지사항>

선장본(線裝本)/ 상하단변(사주단변 혼적)/ 광고 22.8cm/ 무게(無界)/ 1면 25행17
자(1면을 2장으로 나누어 인출)/ 주소자쌍행(註小字雙行)/ 전체 50면

제 침 :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卷(인출) 并序(목서)

권 수 제 :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并序/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

한역정보 : 山陰苾芻 慧定 述

판 심 제 : 金二

권 미 제 :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上/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구성체계 : 권수제-저술정보-서문내용(淳熙戊戌季春既望葺山西方丈序)-경의(經意)
-소의(疏意)-열현발신해(例顯發信解)-열현명행증(例顯明行證)-본문내
용-권미제(권상)-혜정근언(慧定謹言)-변자(辨字)-[출잡(黜雜)]-응험(應
驗)-권수제(권하)-저술정보-본문내용-권미제-서문(安陽韓性書)-발문
(安山君安震跋)-간행정보(無說宏演書後-간행조직)-표제

간행정보 :

隱峯寧(=慧寧)禪師得疏論纂要助顯合錄一卷以授東院老

諡公(=希諡)募緣鋟梓於至正壬辰(1352년 : 공민왕 원년)八月日也而是板因於辛丑(1361년)

寇盜之際而失之故隱峯又重修於洪武癸丑使人()因

疏生解以助明性嘉其用心若此以其年月而識之是

季四月佛生前二日無說宏演書後

洪武六年(1373년 : 공민왕 22)五月 日

功德主 裴 吉萬

幹事 比丘 覺圭

同願 比丘 定西

鍊板比丘 淳覺

刊手 心正 圓暹 禪默

형태는 상하단변(사주단변의 혼적도 존재)·무계이다. 제침은 사주쌍변 형태의 안
에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권(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卷)이라는 내용이 인출
되어 활용되었으며, 사주쌍변 형태의 아래에 병서(并序)가 목서되어 있다. 전체적
인 구성체계는 권수제-저술정보-서문내용(淳熙戊戌季春既望葺山西方丈序)-경의
(經意)-소의(疏意)-열현발신해(例顯發信解)-열현명행증(例顯明行證)-본문내용-권
미제(권상)-혜정근언(慧定謹言)-변자(辨字)-[출잡(黜雜)]-응험(應驗)-권수제(권하)-
저술정보-본문내용-권미제-서문(安陽韓性書)-발문(安山君安震跋)-간행정보(無說
宏演書後-간행조직)-표제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권수제는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병서(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并序: 권상) 및 금강경소론찬요조현록(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 권하)과 같이 경전이름+병서 또는 줄인 경전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권미제는 금강경소론찬요조현록상(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上)·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권하)처럼 양각되어 있다. 한역정보는 산음필추 혜정술(山陰苾芻慧定述)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판심제는 특정 행의 공란 부분이나 행과 행 사이에 금이(金二)와 같이 줄인 경전이름+장차의 순서로 음각·양각되어 있고, 본문의 공란이 없는 제4장 등이 누락되어 있으며, 권상과 권하의 장차가 합쳐 연결되어 있다. 권하 제50장에 해당하는 장에는 승려지식인 무설(無說) 광연(宏演)이 지은 서후(書後)에 간행정보가 새겨져 있다. 해당 간행정보에는 승려 은봉(隱峯)이 신청대상의 인출본을 찍은 목판의 조성불사를 주도하여 1373년 음력 5월 경 마무리하였으며, 배길만(裴吉萬)이 공덕주를, 승려 각규(覺圭)가 간사를, 승려 정서(定西)가 동원을, 승려 순각(淳覺)이 연판을, 심정(心正)·원섬(圓暹)·선묵(禪默)이 각수를 각각 분담하였다고 새겨져 있다. 그리고 간행정보에는 명나라 태조 홍무제의 연호 홍무(洪武) 가운데 무(武)자가 고려 혜종의 이름(諱) 글자이므로, 피휘결획(避諱缺劃)의 ㅍ자를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2권 1책은 1373년(공민왕 22) 음력 5월 조성한 목판본을 찍은 것으로 현재까지 해당 목판과 함께 해당 목판으로 찍어 만든 인출본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서는 현재까지 유일본이며 희귀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 판본을 모본으로 하여 1378년(우왕 4) 음력 2월 상순 경 조성되어 충주(忠州) 청룡사(靑龍寺)에 보존되었던 목판으로 찍은 인본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¹⁰⁶⁾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부산광역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 및 검토의견서, 부산광역시, 2020.
-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조사보고서」 및 문화재위원회 유형분과위원회 심의의결서, 부산광역시, 2020.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106) 보물(제720-1호)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1981년 07월 지정: 선장본, 동국대학교도서관), 보물(제720-2호)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2012년 04월 지정: 선장본, 청주대학교박물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4호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1998년 11월 지정: 선장본, 원광대학교).

- 동국대학교도서관: <http://lib.dongguk.edu>
- 동국역경원: <http://www.tripitaka.or.kr>
- 원각사성보박물관: <http://www.wongaksa.or.kr/sungbo>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기 타

신도회에서 구입하여 기증.

15. 불조삼경 (佛祖三經)

가. 검토사항

‘불조삼경’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불조삼경’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5.1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6.2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불조삼경(佛祖三經)
- 소유자(관리자) : 재단법인 선학원 수능엄사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754-16, 수능엄사
- 수 량 : 1책
- 규 격 : 27.6×17.6cm(半郭 19.4×14.8cm)
- 재 질 : 지(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改裝)
- 조성연대 : 1479년(조선 성종 10) 판각, 후인



<불조삼경>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指定 價値>

‘불조삼경’은 중국 원나라 고승인 몽산(蒙山) 덕이(德異, 1231~1308)가 석가(釋迦)와 조사(祖師)가 설법(說法)한 3가지의 경전을 결집한 불서(佛書)이다. 석가가 성도(成道)한 뒤에 처음으로 설법한 내용인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 석가가 열반에 들기 전 남긴 마지막 설법 내용인 『불유교경(佛遺教經)』, 위양종의 창시자인 당나라 고승 위산(瀉山) 영우(靈祐, 771~853) 조사의 어록인 『위산경책(瀉山警策)』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교의 교훈적 가르침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불교 경전을 처음 접하는 초학자에게 크게 도움을 주는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지정조사본 『佛祖三經』 3부 1冊은 성종 10년(1479, 성화 15) 4월에 全羅道 光陽의 白雲山 屏風菴에서 開板되고 畱板된 목판본 3부 1冊(44장)으로 불교학과 서지학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성종 10년(1479)에 조성된 屏風菴版 『佛祖三經』 3부 1冊은 물론 이보다 앞선 조선 판본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佛祖三經』은 주로 고려시대의 판본이며, 고려시대 판본 중에서도 아직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판본들이 다수 있다.

따라서, 지정조사본 『佛祖三經』은 지방유형문화재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와

수준의 판본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根據 基準>

성종 10년(1479)에 조성된 屏風菴版 『佛祖三經』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없으며,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佛祖三經』은 주로 고려시대의 판본이며, 고려시대 판본 중에서도 아직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판본들이 다수 있다[표1 참조].

<표1. 『佛祖三經』의 指定文化財 판본별 지정현황>

號	版本	간행시대	指定	所藏處	備考
1	正覺社版	忠惠 復2(1341)	非指定	성암고서박물관	
2	圓嶠寺版	恭愍 10(1361)	寶物	리움, 운흥사, 국립중앙도서관, 부친 석왕사	
			全南有形	보림사	
			非指定	고려대학교	
3	禡10年版	禡王 10[1384]	寶物	리움, 한솔제지, 범어사, 동학사, 국립중앙도서관	
			京畿有形	원각사	
			忠北有形	구인사, 석종사, 개인	
4	檜岩寺版	世宗 31(1449)	非指定	동국대학교, 성암고서박물관	
5	屏風菴版	成宗 10(1479)	非指定	수능엄사	신청본
			非指定	동국대학교	
6	玉泉寺	燕山 02(1496)	非指定	개인	
7	身安寺版	中宗 36(1541)	서울有形	동국대학교	
8	平壤府版	明宗 05(1550)	非指定	동국대학교	
9	石水庵版	宣祖 01(1568)	非指定	동국대학교	
10	法住寺版	宣祖 02(1569)	釜山有形	고불사	
			忠北有形	청주고인쇄박물관	
			非指定	동국대학교	
11	安心寺版	宣祖 03(1570)	非指定	동국대학교	
12	雙溪寺版	宣祖 04(1571)	非指定	동국대학교	

○ (지정 가치 미흡)

<指定 價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 3部 1冊은 성종 10년(1479, 성화 15) 4월에 全羅道 光陽의 白雲山 屏風菴에서 開板되고 畱板된 목판본 3部 1冊(44장)으로 불교학과 서지학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성종 10년(1479)에 조성된 屏風菴版 『佛祖三經』 3部 1冊은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 현재 『佛祖三經』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판본은 주로 고려시대의 판본이며, 그나마 고려시대 판본이 아직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소장본도 적지 않다.

따라서,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지방유형문화재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와 수준의 판본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根據 基準>

지정신청의 성종 10년(1479)에 조성된 屏風菴版 『佛祖三經』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

○ (지정 가치 미흡)

『불조삼경』 3권 1책은 인출정보가 없어 인쇄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인쇄상태는 매우 선명하고 좋아 간행 이후부터 16세기 초에는 인쇄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이 목판본은 지금까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없는 새로운 판본이지만 표지, 내지 등이 개장되어 원형을 가늠할 수 없고 이보다 앞서 조성된 인출본도 현재 비지정 상태로 보존되어 있거나 일부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판본의 희소성이 있으나 지방문화재로 우선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을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書誌 記述>

佛祖三經 / 迦葉摩騰(後漢), 法蘭(後漢) 同譯 ; 守遂(宋) 註. -- 木版本. -- 光陽 : 白雲山 屏風菴, 成宗 10(1479).

3部1冊(44張) : 四周單邊, 半郭 19.4×14.8cm 內外, 無界, 9行15字 內外,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 27.6×17.6cm. 韓紙. 線裝(改裝).

標 目: 『佛說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이 3部1冊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書誌記述法에 따라 종합書名인 ‘佛祖三經’으로 標目함.

表 題: 三經遺軌. 四十二章, 遺教經, 滄山警(墨書).

종합서명: 佛祖三經.

卷 首 題: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教經, 滄山警策.

版 心 題: 三經序, 四十, 遺教, 滄山.

卷 尾 題: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教經, 滄山警策.

譯 註 者: 佛說四十二章經(後漢迦葉摩騰竺法蘭同譯 ; 郟郊鳳山蘭若嗣祖沙門守遂註), 佛遺教經(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詔譯 ; 郟郊鳳山蘭若嗣祖沙門守遂註), 滄山警策(左朝奉大夫新廣南東路轉運判官張鐵 撰 ; 大洪嗣祖沙門守遂註).

構 成: -[佛說四十二章經]; 叙(德異, 2張), 佛說四十二章經·施主秩(14張). -[佛遺教經]; 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1張), 佛遺教經(13張). -[滄山警策]; 注滄山警策序(1張), 滄山警策·刊行秩(13張).

墨 書: 四十二章, 遺教經, 滄山警, 寶月(表紙). 頭註, 懸吐(本文).

序文 1: [佛說四十二章經序]; 道無今古人有悟迷是故釋迦老人承 …… 爲將來亦可成器其或循行數墨辜負. 佛祖多矣至元丙戌(1286)燈節絕牧叟德異 叙【牧叟】 【蒙山】(『佛說四十二章經經』 앞부분).

序文 2: 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 夫道非遠人教本無類雖蠢動之形各異而 …… 昧以難精幸覃研而克就仍俾鏤於方板所. 期貽厥庶邦凡在羣倫勉同歸向云爾(『佛遺教經』 앞부분).

序文 3: 注滄山警策序; 左朝奉大夫新廣南東路轉運判官張銖撰 …… 鏤板以廣其傳余嘉其志輒爲之序而冠于. 篇首紹興九年(1139)十二月旦日謹序.(『滄山警策

』 앞부분).

施主 帙: 法崇 司直仇敬止, 善行 戒浩 趙仁妻內口伊, 了澄 學了 沈明德 金永奇, 三悟 默順 趙順同妻守非, 崇印 玉修 欣今 族德, 潤根 司正玉昆敏兩主, 文昭 覺云 金挨山 仇實夢, 三乳 義修 余順京妻明伊(『佛說四十二章經』 마지막 장).

刊行 秩: 成化十五年(1479, 成宗 10)四月日 開板, 畱板光陽白雲山屏風菴(『滄山警策』 마지막 장).

<現狀>

지정조사본 『佛祖三經』은 일부분 배접과 보수를 거친 듯하며, 본문 전체에 걸쳐 閱讀者가 묵서한 口訣이 있다. 표지는 후대에 개장된 듯하다.



<표지>



<묵서한 口訣>

○ 유 래

『불조삼경(佛祖三經)』은 부처님과 조사가 남긴 세 가지의 경전으로, 중국으로 전래되어 처음 한역된 불경으로 불교의 교훈적 가르침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불교 경전을 처음 접하는 초학자에게 크게 도움을 주는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수록 내용은 석가가 성도(成道)한 뒤에 처음으로 설법한 내용인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 석가가 열반에 들기 전 남긴 마지막 설법 내용인 『불유교경(佛遺教經)』, 그리고 선종 가운데 위양종(滄仰宗)의 위양종의 창시자인 당나라 고승 위산 영우(滄山 靈祐, 771~853) 조사의 어록인 『위산경책(滄山警策)』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나라 때 조동종(曹洞宗)의 승려 대홍 수수(大洪 遂守)가 주석을 붙인 것을 원나라의 승려 몽산 덕이(蒙山 德異, 1231~1308)가 결집하여 서문을 쓰고 편찬하였다. 이 『불조삼경(佛祖三經)』이 고려시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조선시대까지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佛祖三經』의 고려시대의 판본들은 宋·元板을 저본으로 간행된 것으로, 충혜왕 복위 2년(1341)의 正覺社版과 공민왕 10년(1361)의 圓嶽寺版 및 우왕 10년(1384)의 판본 등이 있다. 조선시대의 판본들은 고려의 판본을 저본으로 간행된 것으로, 세종 31년(1449)의 檜岩寺版, 성종 10년(1479)의 屏風菴版, 중종 36년(1541)의 身安寺版, 명종 5년(1550)의 平壤府(歸進寺)版, 선조 1년(1568)의 石水庵版, 선조 2년(1569)의 法住寺版, 선조 3년(1570)의 安心寺版, 선조 4년(1571)의 雙溪寺版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지정조사본은 성종 10년(1479, 성화 15) 4월에 全羅道 光陽의 白雲山 屏風菴에서 開板되고 畱板된 목판본 3部 1冊(44장)이다.

○ 내용 및 특징

<내용>

『불조삼경(佛祖三經)』에 수록되어 있는 『佛說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는 불교의 많은 가르침이 간명하게 설명되어 있어 불교의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었으며, 불교의 경전을 처음 접하는 자에게도 불교의 교훈적인 가르침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불교를 널리 전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을 주는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佛說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의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佛說四十二章經』

『佛說四十二章經』은 석가가 成道한 뒤에 처음으로 설법한 내용으로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가장 먼저 번역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교를 알고자 하는 이들과 불교에 입문하여 체계적으로 교리를 학습하고자 하는 이들이 먼저 읽어야 하는 경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설사십이장경』의 42章 전체의 내용은 ①出家證果, ②斷欲絕求, ③割愛去貪, ④善惡並明, ⑤轉重令輕, ⑥忍惡無瞋, ⑦惡還本身, ⑧塵唾自汚, ⑨返本會道, ⑩喜施獲福, ⑪施飯轉勝, ⑫舉難勸修, ⑬問道宿命, ⑭請問善大, ⑮請問力明, ⑯捨愛得道, ⑰明來暗謝, ⑱念等本空, ⑲假眞並觀, ⑳推我本空, ㉑名聲喪本, ㉒財色招苦, ㉓妻子甚獄, ㉔色欲障道, ㉕欲火燒身, ㉖天魔燒佛, ㉗無著得道, ㉘意馬莫縱, ㉙正觀敵色, ㉚欲火遠離, ㉛心寂欲除, ㉜我空怖滅, ㉝智明破魔, ㉞處中得道, ㉟垢淨明存, ㊱輾轉獲勝, ㊲念戒近道, ㊳生卽有滅, ㊴教誨無差, ㊵行道在心, ㊶直心出欲, ㊷達世如幻 등이다.

2. 『佛遺教經』

『佛遺教經』은 ‘가르침을 남기는 경전’이라는 의미로 釋迦가 成道한지 40여 년 동안의 교화를 마치고 拘尸那城 밖의 娑羅雙樹 사이에서 涅槃에 들러 할 때 제자들

을 위하여 남긴 최후의 警戒이자 마지막 說法이다. 『佛垂般涅槃教誡經』·『佛垂涅槃略誡經』·『佛臨涅槃略誡經』이라고도 하며, 鳩摩羅什(344~413)이 漢譯하였다. 내용은 釋迦가 娑羅雙樹 아래에서 入滅할 것임을 밝히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하였다. 우선 불교에서 수행자가 지켜야 할 戒律의 모든 조항을 모은 戒本인 波羅提木叉를 스승으로 삼아서 戒를 지키고 色欲·聲欲·香欲·味欲·觸欲 등 五欲을 삼가며, 靜寂을 구하고 定을 닦아 깨달음의 지혜를 얻을 것을 당부하면서 최후의 가르침으로 해탈을 얻어 무명의 암흑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쳤다. 이 경전은 釋迦의 入滅이라는 극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하여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3. 『滄山警策』

『滄山警策』은 중국 唐朝의 高僧이자 僞仰宗의 開創祖로 알려진 滄山 靈祐(779~853) 祖師의 語錄으로 『滄山大圓禪師警策』이라고도 하며, 당시 학인들이 점차 나태해지고 헛된 시간을 보내며 계율을 지키지 않는 등의 행태가 심해지자 이를 警策하여 수행의 正道를 갈 수 있게 설법한 것이다. 설법은 산문[長行]과 운문[重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결하면서도 간결하여 요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주석서로는 宋朝 守遂의 『滄山警策註』 1권을 비롯하여 明朝 道霈의 『滄山警策指南』 3권 및 開訶의 『滄山警策句釋記』 2권 등이 있다. 『滄山警策』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간명하게 설명하고 아울러 警策하고 있다.

<구성 및 특징>

지정조사본 『佛祖三經』은 성종 10년(1479, 성화 15) 4월에 全羅道 光陽의 白雲山 屏風菴에서 開板되고 畱板된 목판본 3部 1冊(44장)이다.

지정조사본 『佛祖三經』은 앞 표지에 종합서명으로 『三經遺軌』와 部名으로 ‘佛說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이 묵서되어 있으나, 書誌記述法에 따라 통일서명인 ‘佛祖三經’을 標目하였다.

지정조사본에 수록된 『佛說四十二章經』은 後漢朝의 迦葉摩騰과 竺法蘭이 漢譯한 것이고 『佛遺教經』은 姚秦朝의 鳩摩羅什의 漢譯한 것이며 『滄山警策』은 滄山 靈祐(779~853)의 語錄이다. 이들 3部는 모두 宋朝의 守遂가 註釋하였으며 이를 원나라의 승려 몽산(蒙山) 덕이(德異)가 결집하여 서문을 쓰고 편찬한 것이다.

지정조사본 『佛祖三經』의 체제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佛說四十二章經』은 至元 丙戌年(1286)의 蒙山和尚 德異의 「叙」(2장)과 『佛說四十二章經』 및 施主秩(14장)로 구성되어 있고 『佛遺教經』은 「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1장)과 『佛遺教經」(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滄山警策』은 「注滄山警策序」(1장)과 『滄山警策』 및 「刊行秩」(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정조사본 『佛祖三經』의 앞표지 왼쪽 상단에는 ‘三經遺軌’의 表題가 묵서되어 있고, 오른쪽 상단에는 ‘四十二章’·‘遺教經’·‘滄山警’이라 部名이 묵서되어 있으며, 오른쪽 하단에 ‘寶月’ 墨書되어 있다. 卷首題와 卷尾題는 각각 ‘佛說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이며, 版心題는 ‘三經序’·‘四十’·‘遺教’·‘滄山’이다.

지정조사본 『佛祖三經』의 版式의 변란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은 세로 19.0cm 가로 14.8cm 내외이며 無界이다. 半葉 本文의 行字數는 9行15字 註雙行이다. 版心の 版口는 白口이고 魚尾는 上內向黑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27.6cm 가로 17.6cm이다. 地質은 韓紙이고 장정형태는 五針眼訂法의 線裝이며 表紙는 改裝되었다.

지정조사본 『佛祖三經』 중, 첫 번째 部인 『佛說四十二章經』은 앞부분에 「佛說四十二章經序」 “道無今古人有悟迷是故釋迦老人承，願力示現自鹿野苑至跋提河三百餘…중략… 徹玄微挽回眞風大興末運若也見義勇，爲將來亦可成器其或循行數墨辜負。佛祖多矣至元丙戌(1286)燈節絕牧叟德異叙”가 있고, 끝부분 수록된 「施主秩」에는 “法崇 司直仇敬止，善行 戒浩 趙仁妻內口伊，了澄 學了 沈明德 金永奇，크悟 默順 趙順同妻守非，崇印 玉修 欣今 族德，潤根 司正玉昆敏兩主，文昭 覺云 金挨山 仇實 夢，크乳 義修 余順京妻明伊”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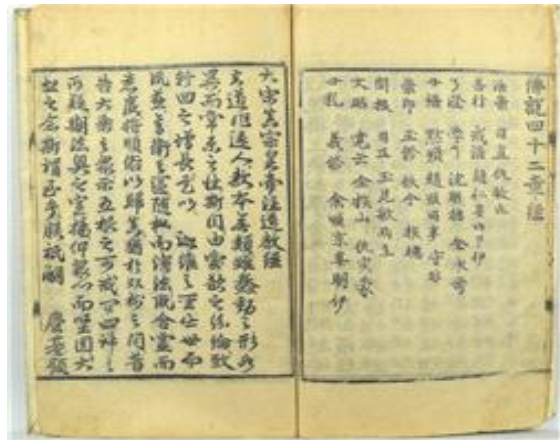


<표지>

<佛說四十二章經序>



<佛說四十二章經 部頭와 部末>



<佛說四十二章經 施主秩>

두 번째 部인 『佛遺教經』의 앞부분에 “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夫道非遠人教本無類雖蠢動之形各異而 …중략… 昧以難精幸覃研而克就仍俾鏤於方板所，期貽厥庶邦凡在羣倫勉同歸向云爾”가 있다.



<佛遺教經 序>



<佛遺教經 部頭와 部末>



세 번째 部 『滄山警策』은 앞부분에 “左朝奉大夫新廣南東路轉運判官張銖撰，自六祖而下有五派滄仰居其一惜乎其後 …중략… 傳無窮而施罔極固不趨歟門人史德賢欲鏤板以廣其傳余嘉其志輒爲之序而冠于. 篇首紹興九年(1139)十二月旦日謹序”의 「注滄山警策序」가 있다. 끝부분에는 “成化十五年(1479, 성종 10)四月日 開板」畱板光陽白雲山屏風菴”라고 「刊行記」가 있다.



<滬山警策 序>



<滬山警策 部頭와 部末>



지정조사본 『佛祖三經』은 『佛說四十二章經』의 「施主秩」과 『滬山警策』의 「刊行秩」의 기록으로 성종 10년(1479) 4월에 全羅道 光陽의 白雲山 屏風菴에서 法崇 등 여러 승려와 沈明德 등 여러 사람의 施主에 의하여 開板되고 留板되었음을 알 수 있다.

『佛祖三經』의 고려시대 판본으로 현재 충혜왕 복위 2년(1341)의 正覺社 판본은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으로 비지정이며 공개되지 않고 있어 비교 불가능하다.

공민왕 10년(1361)에 전주 圓嶺寺에서 간행된 판본 중 리움 소장본 등 보물로 지정된 것과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보림사 소장본, 그리고 비지정본으로 고려대학교에 소장본 등이 있다.

우왕 10년(1384)에 간행된 판본 또한 리움 등 國家文化財로 지정된 판본과 경기도 및 충청북도의 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된 판본이 있다.

<표1. 『佛祖三經』의 指定文化財 판본별 現況(2023년 12월 현재)>

號	版本	간행시대	刊行記錄	指定	所藏處	備考
1	正覺社版	忠惠 復2 (1341)	辛巳(1341)正月日小白山正覺社開板	非指定	성암고서박물관	
2	圓嶺寺版	恭愍 10 (1361)	至正辛丑(1361)六月六日重刊 留全州 圓嶺寺流益永祀者	寶物	리움	
				寶物	운흥사	
				寶物	국립중앙도서관	
				寶物	부천 석왕사	
				全南有形	보림사	
	非指定	고려대학교				
3	禡王10年版	禡王 10 [1384]	靑龍甲子(1384)十月日… 大匡韓山府院君李穡跋	寶物	리움	
				寶物	한솔제지	
				寶物	범어사	
				寶物	동학사	

號	版本	간행시대	刊行記錄	指定	所藏處	備考
				寶物	국립중앙박물관	
				京畿有形	원각사	
				忠北有形	구인사	
				忠北有形	석종사	
				忠北有形	개인	
4	檜岩寺版	世宗 31 (1449)	正統十四年己巳(1449)十月日改刊于天寶山檜岩寺永世廣布云	非指定	동국대학교	
				非指定	성암고서박물관	
5	屏風菴版	成宗 10 (1479)	成化十五年(1479)四月日開板 留板光陽白雲山屏風菴	非指定	수능업사	신청본
				非指定	동국대학교	
6	玉泉寺	燕山 02 (1496)	弘治九年(1496) 慶尙道居昌土玉泉寺開板	非指定	개인	
7	身安寺版	中宗 36 (1541)	嘉靖二十年辛丑(1541)六月日神陰山身安寺開板	서울有形	동국대학교	
8	平壤府版	明宗 05 (1550)	嘉靖二十九年(1550)夏孟月日黃海道瑞興地啟進寺留板 平安道平壤府開刊	非指定	동국대학교	
9	石水庵版	宣祖 01 (1568)	隆慶二年戊辰(1568)六月日平安道祥原地大靑山石水庵開板 / 冊末: 隆慶二年戊辰(1568)五月日平安道祥原地大靑山石水庵開板	非指定	동국대학교	
10	法住寺版	宣祖 02 (1569)	隆慶三年己巳(1569)六月日 忠淸道報恩之俗離山大法住寺開板	釜山有形	고불사	
				忠北有形	청주고인쇄박물관	
				非指定	동국대학교	
11	安心寺版	宣祖 03 (1570)	隆慶四年庚午(1570)之春 無等山安心寺開板	非指定	동국대학교	
12	雙溪寺版	宣祖 04 (1571)	隆慶五年辛未(1571)六月日全羅道益山地豆叱材豆永貞家開刻移傳忠淸道恩津地佛明山雙溪寺在置	非指定	동국대학교	

조선시대 판본으로 지정조사본 『佛祖三經』보다 앞선 시기인 세종 31년(1449)에 檜岩寺에서 간행된 판본도 있으나 현재 비지정 상태이다. 지정조사본 『佛祖三經』 3部 1冊은 성종 10년(1479, 성화 15) 4월에 全羅道 光陽의 白雲山 屏風菴에서 開板되고 畱板된 목판본 3部 1冊(44장)으로 불교학과 서지학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성종 10년(1479)에 조성된 屏風菴版 『佛祖三經』 3部 1冊은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 현재 『佛祖三經』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판본은 주로 고려시대의 판본이며, 그나마 고려시대 판본이 아직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않은 소장본도 적지 않다.

따라서, 지정조사본 『佛祖三經』은 지방유형문화재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와

수준의 판본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迦葉摩騰·法蘭 同譯, 守遂 註, 『佛祖三經』. 木版本. [全羅道 光陽] : [白雲山 屏風菴], 成宗 10(1479). 首楞嚴寺 所藏本.
- 迦葉摩騰·法蘭 同譯, 守遂 註, 『佛祖三經』. 木版本. [高麗] : [全州 圓嶺寺], 恭愍王 10(1361). 釋王寺 所藏本.
- 迦葉摩騰·法蘭 同譯, 守遂 註, 『佛祖三經』. 木版本. [高麗] : [全州 圓嶺寺], 恭愍王 10(1361). 리움 所藏本.
- 迦葉摩騰·法蘭 同譯, 守遂 註, 『佛祖三經』. 木版本. [高麗] : [全州 圓嶺寺], 恭愍王 10(1361). 雲興寺 所藏本.
- 迦葉摩騰·法蘭 同譯, 守遂 註, 『佛祖三經』. 木版本. [高麗] : [不明], [禩王 10年 (1384), 李穡 跋]. 梵魚寺 所藏本.
- 부산광역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 및 검토의견서, 부산광역시, 2021.
-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자료」 및 「심의의결서」 및 「검토의견서」, 부산광역시, 2021.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동국대학교도서관: <http://lib.dongguk.edu>
- 동국역경원: <http://www.tripitaka.or.kr>
- 원각사성보박물관: <http://www.wongaksa.or.kr/sungbo>
- 人名規範檢索: <https://authority.dila.edu.tw/person>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기 타

首楞嚴寺 신도회에서 寺格을 높이고자 하는 뜻으로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00의 李○○이 소장하던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大方廣佛華嚴經疏』 권 51·74, 『佛祖三經』 등을 신도회의 결의와 기증자의 정당한 기증 절차에 따라 소장하게 되었다고 함(소장경위서 첨부).

□

○ 현 상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의 書誌 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書誌 記述>

佛祖三經 / 迦葉摩騰(後漢), 法蘭(後漢) 同譯 ; 守遂(宋) 註. -- 木版本. -- [全羅道 光陽] : [白雲山 屏風菴], 成宗 10(1479).

3部1冊(44張) : 四周單邊, 半郭 19.4×14.8cm 內外, 無界, 9行15字 內外,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 27.6×17.6cm. 韓紙. 線裝(改裝).

標 目: 지정신청본은 ‘『佛說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書誌記述法에 따라 統一書名인 ‘佛祖三經’으로 標目함.

表 題: 三經遺軌(墨書).

卷首題: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教經, 滄山警策.

版心題: 三經序, 四十, 遺教, 滄山.

卷尾題: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教經, 滄山警策.

譯註者: 佛說四十二章經(後漢迦葉摩騰竺法蘭同譯 ; 鄖郊鳳山蘭若嗣祖沙門守遂註), 佛遺教經(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詔譯 ; 鄖郊鳳山蘭若嗣祖沙門守遂註), 滄山警策(大洪嗣祖沙門守遂註).

內 容: -[佛說四十二章經]; 叙(德異, 2張), 佛說四十二章經·施主秩(14張). -[佛遺教經]; 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1張), 佛遺教經(13張). -[滄山警策]; 注滄山警策序(1張), 滄山警策·刊行秩(13張).

墨 書: 四十二章, 遺教經, 滄山警, 寶月(以上 表紙). 頭註, 懸吐(以上 本文).

序 文: [佛說四十二章經序]; 道無今古人有悟迷是故釋迦老人承」願力示現自鹿野苑至跋提河三百餘」會言無言言開示人天令各悟入佛之知」見惟四十二章經遺教經者是始終教誡」法寶也後漢永平間迦葉摩騰竺法蘭持」前一經東來焚驗有靈立教興宗梁大通」問又得西天二十八世祖遠磨大師傳佛心印」前來直指與經符契是我此土人有大乘」根器而有幸也可大師者立雪斷臂求」問妙道言下有悟執侍數載三拜得髓」授受衣盂七傳而至百丈百丈得靈藥運」公滄山祐公大振玄風增輝佛日滄山因」見學者少有放逸遂述法語警其未悟」策其未到文簡語直義博意深叢林中」以四十二章經遺教經滄山警策謂之佛」祖三經能一覽而直前者不歷多生便」可成佛作祖宣和間又得遂禪師直註深」義初學易通妙矣哉自此有志於道者」省力甚多不壞香而見佛祖不動步而登」覺場今靜山慧大師抽衣資鉸梓于吳中」休休庵以廣其傳奇哉以財鉸梓名財施」以經傳法名法施財法二施名大施佛云能行」大施者決澄菩提靜山將來種智圓明十」

號俱彰因此勝緣也覽斯經者却宜淨心」如虛空向未開卷以前着眼掀翻窠臼洞」徹玄微挽回眞風大興末運若也見義勇」爲將來亦可成器其或循行數墨辜負」佛祖多矣至元丙戌(1286)燈節絕牧叟德異 叙【牧叟】 【蒙山】(『佛說四十二章經』頭部).

序 文: 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 夫道非遠人教本無類雖蠢動之形各異而」常樂之性斯同由愛欲之紛綸致輪迴之增」長是以迦維之聖出世而流慈舍衛之區」隨機而演法既含靈而悉度將順俗以歸眞」猶於雙樹之間普告大乘之衆示五根之可」戒問四諦之所疑期法奧之宣揚俾衆心而」堅固大悲之念斯謂至乎朕祇嗣慶基顧」慚涼德常遵先訓庶導秘詮因覽此經每」懷欽奉冀流通而有益因注解以斯形雖寡」昧以難精幸覃研而克就仍俾鏤於方板所」期貽厥庶邦凡在羣倫勉同歸向云爾(『佛遺教經』頭部).

序 文: 注滄山警策序; 左朝奉大夫新廣南東路轉運判官張銖撰」自六祖而下有五派滄山仰居其一惜乎其後」不得其傳然其法則傳萬世而無弊不以人」爲存亡滄山之警策是以夫警策之行於世」尚矣學者每患其辭雖顯而其義則難窮字」有舛錯而久未能辯不有宗師大匠安能發」揚其義而校正其舛錯乎大洪淨嚴禪師禪」學冠世每因暇日游戲筆硯已未安居因學」者請益遂爲之註解其義坦然明白字之舛」錯者又從而校正之晚學後進有所矜式俾」滄山二百年湮沒之迹一旦光輝著見因以」傳無窮而施罔極固不踴歟門人史德賢欲」鏤板以廣其傳余嘉其志輒爲之序而冠于」篇首紹興九年(1139)十二月旦日謹序(『滄山警策』頭部).

施主帙: 法崇 司直仇敬止」善行 戒浩 趙仁妻內口伊」了澄 學了 沈明德 金永奇」 三 悟 默順 趙順同妻守非」崇印 玉修 欣今 族德」潤根 司正玉昆敏兩主」文昭覺云 金挨山 仇實夢」 三乳 義修 余順京妻明伊(『佛說四十二章經』末尾).

刊行秩: 成化十五年(1479, 成宗 10)四月日 開板」畱板光陽白雲山屏風菴(『滄山警策』末尾).

現 狀: 전반적인 印出과 保存의 상태는 양호하며, 本文 전체에 걸쳐 閱讀者가 묵서한 口訣이 있다. 表紙는 後代의 改裝이다,

所藏歷: 首楞嚴寺 신도회에서 寺格을 높이고자 하는 뜻으로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00의 李○○이 소장하던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大方廣佛華嚴經疏』 권51·74, 『佛祖三經』 등을 신도회의 결의와 기증자의 정당한 기증 절차에 따라 소장하게 되었다고 함(소장경위서 참간).

既指定: <[표1] 『佛祖三經』의 指定文化財 現況(2023년 08월 현재)> 參看

<現狀>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일부분 배접과 보수를 거친 듯하며, 본문 전체에 걸쳐 閱讀者가 묵서한 口訣이 있다. 표지는 후대에 개장된 듯하다.

○ 내용 및 특징

『佛祖三經』은 중국 元朝의 高僧인 蒙山 德異(1231~1308) 禪師가 釋迦와 祖師가 說法한 3가지의 경전을 결집한 佛書이다.

『佛說四十二章經』은 석가가 成道한 뒤에 처음으로 설법한 내용으로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가장 먼저 번역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교를 알고자 하는 이들과 불교에 입문하여 체계적으로 교리를 학습하고자 하는 이들이 먼저 읽어야 하는 경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설사십이장경』의 42章 전체의 내용은 (01)出家證果, (02)斷欲絕求, (03)割愛去貪, (04)善惡並明, (05)轉重令輕, (06)忍惡無瞋, (07)惡還本身, (08)塵唾自汚, (09)返本會道, (10)喜施獲福, (11)施飯轉勝, (12)舉難勸修, (13)問道宿命, (14)請問善大, (15)請問力明, (16)捨愛得道, (17)明來暗謝, (18)念等本空, (19)假眞並觀, (20)推我本空, (21)名聲喪本, (22)財色招苦, (23)妻子甚獄, (24)色欲障道, (25)欲火燒身, (26)天魔嬈佛, (27)無著得道, (28)意馬莫縱, (29)正觀敵色, (30)欲火遠離, (31)心寂欲除, (32)我空怖滅, (33)智明破魔, (34)處中得道, (35)垢淨明存, (36)輾轉獲勝, (37)念戒近道, (38)生卽有滅, (39)教誨無差, (40)行道在心, (41)直心出欲, (42)達世如幻 등이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간명하게 설명하여 예로부터 널리 읽혀 주석서나 연구서도 비교적 많은 편이며, 禪宗에서는 『佛祖三經』의 하나로 여겨 왔다.

『佛遺教經』은 ‘가르침을 남기는 경전’이라는 의미로 釋迦가 成道한지 40여 년 동안의 교화를 마치고 拘尸那城 밖의 娑羅雙樹 사이에서 涅槃에 들러 할 때 제자들을 위하여 남긴 최후의 警戒이자 마지막 說法이다. ‘『佛垂般涅槃教誡經』’, ‘『佛垂涅槃略誡經』’, ‘『佛臨涅槃略誡經』’이라고도 하며, 鳩摩羅什(344~413)이 한역하였다. 내용은 釋迦가 娑羅雙樹 아래에서 入滅할 것임을 밝히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하였다. 우선 불교에서 수행자가 지켜야 할 戒律의 모든 조항을 모은 戒本인 波羅提木叉를 스승으로 삼아서 戒를 지키고 色欲·聲欲·香欲·味欲·觸欲 등 五欲을 삼가며, 靜寂을 구하고 定을 닦아 깨달음의 지혜를 얻을 것을 당부하면서 최후의 가르침으로 해탈을 얻어 무명의 암흑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쳤다. 이 경전은 釋迦의 入滅이라는 극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하여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간명하게 설명하여 예로부터 널리 읽혀 주석서나 연구서도 비교적 많은 편이며, 禪宗에서는 『佛祖三經』의 하나로 여겨왔다.

『滄山警策』은 중국 唐朝의 高僧이자 僞仰宗의 開創祖로 알려진 滄山 靈祐(779~853) 祖師의 語錄으로 ‘『滄山大圓禪師警策』’이라고도 하며, 당시 학인들이 점차 나태해지고 헛된 시간을 보내며 威儀를 지키지 않는 등의 弊風이 심해지자 이를 警策하여 수행의 正道를 갈 수 있게 설법한 것이다. 설법은 산문[長行]과 운문[重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결하면서도 간절하여 요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주석서로는 宋朝 守遂의 『滄山警策註』 1권을 비롯하여 明朝 道霈의 『滄山警策指南』 3

권 및 開詞의 『滄山警策句釋記』 2권 등이 있다. 『滄山警策』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간명하게 설명하고 아울러 警策함으로써 禪宗에서는 『佛祖三經』의 하나로 여겨 왔다.

『佛說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의 『佛祖三經』에는 불교의浩瀚한 내용이 간명하게 설명되어 있어 불교의 指針書로 널리 활용되었으며, 불교의 경전을 처음 접하는 初學者에게도 불교의 교훈적인 가르침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불교를 널리 전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을 주는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佛祖三經』의 우리나라 판본은 고려시대의 판본들은 宋·元板을 저본으로 간행된 것으로, 충혜왕 복위 2년(1341)의 正覺社版과 공민왕 10년(1361)의 圓嶠寺版 및 우왕 10년(1384)의 판본 등이 있다. 조선시대의 판본들은 고려의 판본을 저본으로 간행된 것으로, 세종 31년(1449)의 檜岩寺版, 성종 10년(1479)의 屏風菴版, 중종 36년(1541)의 身安寺版, 명종 5년(1550)의 平壤府(歸進寺)版, 선조 1년(1568)의 石水庵版, 선조 2년(1569)의 法住寺版, 선조 3년(1570)의 安心寺版, 선조 4년(1571)의 雙溪寺版 등이 있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성종 10년(1479, 성화 15) 4월에 全羅道 光陽의 白雲山 屏風菴에서 開板되고 畱板된 목판본 3部 1冊(44장)이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佛說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의 3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書誌記述法에 따라 統一書名인 ‘佛祖三經’으로 標目하였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佛說四十二章經』의 경우 後漢朝의 迦葉摩騰과 竺法蘭이 漢譯한 것이고 『佛遺教經』은 姚秦朝의 鳩摩羅什의 漢譯한 것이며 『滄山警策』은 滄山 靈祐(779~853)의 語錄이다. 이들 3部는 모두 宋朝의 守遂가 註釋한 것이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의 구성은 『佛說四十二章經』은 至元 丙戌年(1286)의 蒙山和尚 德異의 「叙」(2장)과 『佛說四十二章經』 및 施主秩(14장)로 구성되어 있고 『佛遺教經』은 「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1장)과 『佛遺教經」(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滄山警策』은 「注滄山警策序」(1장)과 『滄山警策』 및 「刊行秩」(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의 前表紙에는 ‘四十二章’·‘遺教經’·‘滄山警’·‘寶月’ 등의 墨書와 함께 ‘三經遺軌’의 表題가 墨書되어 있다. 卷首題와 卷尾題는 각각 ‘佛說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이며, 版心題는 ‘三經序’·‘四十’·‘遺教’·‘滄山’이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의 版式의 變란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은 세로 19.0cm 가로 14.8cm 내외이며 계선은 없다. 每半葉의 本文의 行字數는 9行15字이고 註文은 雙行이다. 版心の 版口는 白口이고 魚尾는 上內向黑魚尾이다. 책의 규격은 세로 27cm 가로 17.6cm이다. 紙質은 韓紙이고 裝訂은 五針眼訂法의 線裝이며 表紙는 改裝된 듯하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의 『佛說四十二章經』의 頭部에는 “道無今古人有悟迷是故釋迦老人承」 願力示現自鹿野苑至跋提河三百餘」 會言無言言開示人天令各悟入佛之知」 見惟四十二章經遺教經者是始終教誡」 法寶也後漢永平間迦葉摩騰竺法蘭持」 前一經東來焚驗有靈立教興宗梁大通」 間又得西天二十八世祖達磨大師傳佛心印」 前來直指與經符契是我此土人有大乘」 根器而有幸也可大師者立雪斷臂求」 問妙道言下有悟執侍數載三拜得髓」 授受衣盂七傳而至百丈百丈得靈藥運」 公滄山祐公大振玄風增輝佛日滄山因」 見學者少有放逸遂述法語警其未悟」 策其未到文簡語直義博意深叢林中」 以四十二章經遺教經滄山警策謂之佛」 祖三經能一覽而直前者不歷多生便」 可成佛作祖宣和間又得遂禪師直註深」 義初學易通妙矣哉自此有志於道者」 省力甚多不壞香而見佛祖不動步而登」 覺場今靜山慧大師抽衣資鉞梓于吳中」 休休庵以廣其傳奇哉以財鉞梓名財施」 以經傳法名法施財法二施名大施佛云能行」 大施者決澄菩提靜山將來種智圓明十」 號俱彰因此勝緣也覽斯經者却宜淨心」 如虛空向未開卷以前着眼掀翻窠臼洞」 徹玄微挽回真風大興末運若也見義勇」 爲將來亦可成器其或循行數墨辜負」 佛祖多矣至元丙戌(1286)燈節絕牧叟德異叙”의 「佛說四十二章經序」가 있고 『佛遺教經』의 頭部에는 “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 夫道非遠人教本無類雖蠢動之形各異而」 常樂之性斯同由愛欲之紛綸致輪迴之增」 長是以迦維之聖出世而流慈舍衛之區」 隨機而演法既含靈而悉度將順俗以歸眞」 猶於雙樹之間普告大乘之衆示五根之可」 戒問四諦之所疑期法奧之宣揚俾衆心而」 堅固大悲之念斯謂至乎朕祇嗣慶基顧」 慚涼德常遵先訓庶導秘詮因覽此經每」 懷欽奉冀流通而有益因注解以斯形雖寡」 昧以難精幸覃研而克就仍俾鏤於方板所」 期貽厥庶邦凡在羣倫勉同歸向云爾”가 있으며, 『滄山警策』의 頭部에는 “左朝奉大夫新廣南東路轉運判官張銖撰」 自六祖而下有五派滄仰居其一惜乎其後」 不得其傳然其法則傳萬世而無弊不以人」 爲存亡滄山之警策是以夫警策之行於世」 尚矣學者每患其辭雖顯而其義則難窮字」 有舛錯而久未能辯不有宗師大匠安能發」 揚其義而校正其舛錯乎大洪淨嚴禪師禪」 學冠世每因暇日游戲筆硯己未安居因學」 者請益遂爲之註解其義坦然明白字之舛」 錯者又從而校正之晚學後進有所矜式俾」 滄山二百年湮沒之迹一旦光輝著見因以」 傳無窮而施罔極固不踴歎門人史德賢欲」 鏤板以廣其傳余嘉其志輒爲之序而冠于」 篇首紹興九年(1139)十二月旦日謹序”의 「注滄山警策序」가 있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의 『佛說四十二章經』의 말미에는 “法崇 司直仇敬止」 善行 戒浩 趙仁妻內口伊」 了澄 學了 沈明德 金永奇」 크悟 默順 趙順同妻守非」 崇印 玉修 欣今 族德」 潤根 司正玉昆敏兩主」 文昭 覺云 金挨山 仇實夢」 크乳 義修 余順京妻明伊”의 「施主秩」이 수록되어 있으며, 『滄山警策』의 말미에는 “成化十五年(1479, 성종 10)四月日 開板」 畱板光陽白雲山屏風菴”의 「刊行秩」이 수록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佛說四十二章經』 말미의 「施主秩」과 『滄山警策』 말미의 「刊行秩」을 통하여, 法崇을 비롯한 여러 승려와 沈明德을 비롯한 여러 사람

의 施主에 의하여 성종 10년(1479) 4월에 全羅道 光陽의 白雲山 屏風菴에서 開板되고 留板되었음을 알 수 있다.

『佛祖三經』의 고려시대 판본으로 현재 충혜왕 복위 2년(1341)의 正覺社 판본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공민왕 10년(1361)에 전주 圓嶠寺에서 간행된 판본 및 우왕 10년(1384)에 간행된 판본은 國家文化財 또는 地方의 有形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다. 고려시대 간행의 공민왕 10년(1361)의 圓嶠寺 판과 우왕 10년(1384)의 판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版式의 界線과 권말에 수록된 「跋文」의 有無에서 차이가 있다.

『佛祖三經』의 圓嶠寺版에는 版式에 界線이 없고 권말에 益大의 「跋文」이 없으나, 우왕 10년(1384)의 판본에는 版式에 界線이 있고 권말에 益大의 「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표1. 『佛祖三經』의 指定文化財 現況(2023년 08월 현재)>

號	版本	간행시대	刊行記錄	指定	所藏處	備考
1	正覺社版	忠惠 復2 (1341)	辛巳(1341)正月日小白山正覺社開板	非指定	성암고서박물관	
2	圓嶠寺版	恭愍 10 (1361)	至正辛丑(1361)六月六日重刊 留全 州圓嶠寺流益永祀者	寶物	리움	
				寶物	운흥사	
				全南有形	보림사	
				非指定	국립중앙도서관	
3	禍王 10 [1384]	靑龍甲子(1384)十月日… 大匡韓山府院君李穡跋	寶物	리움		
			寶物	한솔제지		
			寶物	범어사		
			寶物	동학사		
			京畿有形	원각사		
			忠北有形	구인사		
			忠北有形	석종사		
4	檜岩寺版	世宗 31 (1449)	正統十四年己巳(1449)十月日改刊于 天寶山檜岩寺永世廣布云	非指定	동국대학교	
				非指定	성암고서박물관	
5	屏風菴版	成宗 10 (1479)	成化十五年(1479)四月日開板 留板 光陽白雲山屏風菴	非指定	수능엄사	신청본
				非指定	동국대학교	
6	玉泉寺	燕山 02 (1496)	弘治九年(1496) 慶尙道居昌土玉泉 寺開板	非指定	개인	
7	身安寺版	中宗 36 (1541)	嘉靖二十年辛丑(1541)六月日神陰山 身安寺開板	서울有形	동국대학교	
8	平壤府版	明宗 05	嘉靖二十九年(1550)夏孟月日黃海道	非指定	동국대학교	

號	版本	간행시대	刊行記錄	指定	所藏處	備考
		(1550)	瑞興地故進寺留板 平安道平壤府開刊			
9	石水庵版	宣祖 01 (1568)	隆慶二年戊辰(1568)六月日平安道祥原地大青山石水庵開板 / 冊末: 隆慶二年戊辰(1568)五月日平安道祥原地大青山石水庵開板	非指定	동국대학교	
10	法住寺版	宣祖 02 (1569)	隆慶三年己巳(1569)六月日 忠清道 報恩之俗離山大法住寺開板	釜山有形	고불사	
				忠北有形	청주고인쇄박물관	
				非指定	동국대학교	
11	安心寺版	宣祖 03 (1570)	隆慶四年庚午(1570)之春 無等山安心寺開板	非指定	동국대학교	
12	雙溪寺版	宣祖 04 (1571)	隆慶五年辛未(1571)六月日全羅道益山地豆叱材豆永貞家開刻移傳忠清道恩津地佛明山雙溪寺在置	非指定	동국대학교	

지정신청본 『佛祖三經』 3部 1冊은 성종 10년(1479, 정화 15) 4월에 全羅道 光陽의 白雲山 屏風菴에서 開板되고 畱板된 목판본 3部 1冊(44장)으로 불교학과 서지학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성종 10년(1479)에 조성된 屏風菴版 『佛祖三經』 3部 1冊은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 현재 『佛祖三經』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판본은 주로 고려시대의 판본이며, 그나마 고려시대 판본이 아직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않은 소장본도 적지 않다.

따라서,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지방유형문화재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와 수준의 판본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迦葉摩騰·法蘭 同譯, 守遂 註, 『佛祖三經』. 木版本. [全羅道 光陽]: [白雲山 屏風菴], 成宗 10(1479). 首楞嚴寺 所藏本.
- 迦葉摩騰·法蘭 同譯, 守遂 註, 『佛祖三經』. 木版本. [高麗]: [全州 圓嶺寺], 恭愍王 10(1361). 釋王寺 所藏本.
- 迦葉摩騰·法蘭 同譯, 守遂 註, 『佛祖三經』. 木版本. [高麗]: [全州 圓嶺寺], 恭愍王 10(1361). 리움 所藏本.
- 迦葉摩騰·法蘭 同譯, 守遂 註, 『佛祖三經』. 木版本. [高麗]: [全州 圓嶺寺], 恭愍王 10(1361). 雲興寺 所藏本.
- 迦葉摩騰·法蘭 同譯, 守遂 註, 『佛祖三經』. 木版本. [高麗]: [不明], [禩王 10(1384)年, 李穡 跋]. 梵魚寺 所藏本.
- 부산광역시청,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 및 검토의견서,

- 부산광역시, 2021.
-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자료」 및 「심의의결서」 및 「검토의견서」, 부산광역시, 2021.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동국대학교도서관: <http://lib.dongguk.edu>
 - 동국역경원: <http://www.tripitaka.or.kr>
 - 원각사정보박물관: <http://www.wongaksa.or.kr/sungbo>
 - 人名規範檢索: <https://authority.dila.edu.tw/person>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기 타

지정신청본 『佛祖三經』 3部 1冊은 수능엄사 신도회에서 寺格을 높이고자 하는 뜻으로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00의 李〇〇이 소장하던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大方廣佛華嚴經疏』 권51·74과 함께 신도회의 결의와 기증자의 정당한 기증 절차에 따라 소장하게 되었다고 함(소장경위서 참간).



○ 현 상

『불조삼경』 3권 1책은 전체 44장이 오침안정법의 선장본으로 장정되어 있다. 외형적 형태는 사주단변·무계이고, 반곽의 행자수가 9행15자이며, 판심이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백구이다. 주는 소자쌍행(小字雙行)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반곽의 규격은 19.4×14.8cm이다. 전체적으로는 앞표지-서문(德異叙)-권수제(불설사십이장경)-한역·주석정보-본문내용-권미제-시주질-서문(宋眞宗)-권수제(불유교경)-한역·주석정보-본문내용-권미제(불유교경)-서문(張鐵撰)-권수제(위산경책)-주석정보-본문내용-권미제(위산경책)-간행정보-뒷표지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앞표지는 왼쪽 상단에 삼경유괘단(三經遺軌單)이라는 표지 제목과 함께 오른쪽 위에 사십이장경(四十二章)/ 유교경(遺教經)/ 위산경(滙山警)의 경전 이름,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월(寶月)이라는 소장정보가 각각 묵서되어 있다.

권수제는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권미제는 불유교경종(佛遺教經終)·위산경책종(滙山警策終)과 같이 경전이름+종(終)으로 새

겨져 있다. 권수제의 다음 행에는 후한가엽마등축법란 동역(後漢迦葉摩騰竺法蘭同譯) 및 운교봉산난야사조사문 수수주(郟郊鳳山蘭若嗣祖沙門 守遂註)처럼 한역·찬술정보와 함께 주석정보도 나타내고 있다. 판심제는 서문의 삼경서 일(三經序一)과 함께 사십 일(四十一), 유교 이(遺教 二), 위산 이(滙山 二)와 같이 줄인 경전이름+장차의 순서로 배치하면서도 개별 경전에 따라 줄인 경전이름을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판심제 가운데는 『불유교경』 서문(宋眞宗)과 제1장이 경전이름 십(十), 『위산경책』의 제1장이 장차 일(一)로 각각 표기되어 있으며, 『위산경책』의 서문(張鐵撰) 경우에는 판심제가 생략되어 있기도 하다.

『불설사십이장경』 제14장에는 법숭(法崇)과 사직(司直) 구경지(仇敬止) 등 26명의 승속(僧俗)이 시주질로 배열되어 있다. 『위산경책』 제13장에는 성종 10년(1479) 음력 4월 어느 날 『불조삼경』의 경판을 새겨 광양 백운산의 병풍암에 보존하였다(成化十五年四月日 開板/ 畱留板光陽白雲山屏風菴)라는 간행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불조삼경(佛祖三經)』은 부처님(佛)과 조사(祖)가 남긴 세 가지의 경전으로, 중국으로 전래되어 처음 한역된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불유교경(佛遺教經)』, 그리고 선종 가운데 위양종(滙仰宗)의 개조 위산(滙山) 영우(靈祐)가 남긴 『위산경책(滙山警策)』으로 편집·구성되어 있다.

<서지사항>

선장본(線裝本) 오침안정범/ 사주단변/ 무계(無界)/ 반곽 19.4×14.8cm/ 반곽 9행15자/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백구/ 주소자쌍행(註小字雙行)/ 27.8×17.6cm/ 전체 44장(삼경서 2장, 불설사십이장경 14장, 송진종주유교경주 1장, 불유교경 13장, 장철찬서문 1장, 위산경책 13장)

표 제 : 三經遺軌單(목서)

권 수 제 : 佛說四十二章經/ 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 佛遺教經 一名佛入涅槃略說教誡經/ 注滙山警策序/ 滙山警策

한역·저술정보 : 後漢迦葉摩騰竺法蘭 同譯/ 郟郊鳳山蘭若嗣祖沙門 守遂註(사십이장경),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 郟郊鳳山蘭若嗣祖沙門 守遂 註(불유교경), 左朝奉大夫新廣南東路轉運判官張鐵 撰/ 大洪嗣祖沙門 守遂 註(위산경책)

판 심 제 : 三經序 一/ 四十一/ 遺教 二/ 滙山 二

권 미 제 :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教經終/ 滙山警策終

구성체계 : 서문(德異叙)-권수제(불설사십이장경)-한역·주석정보-본문내용-권미제

-시주질-서문(宋眞宗)-권수제(불유교경)-한역·주석정보-본문내용-권미제(불유교경)-서문(張鐵撰)-권수제(위산경책)-주석정보-본문내용-권미제(위산경책)-간행정보

서문정보 : 至元丙戌燈節絕牧叟德異 叙(서문 제2장)
紹興九年十二月旦日謹序(『위산경책』 제1장의 앞장)

시 주 질 : 法崇 司直仇敬止

.....

丑乳 義修 余順京妻明伊(『불설사십이장경』 제14장)

간행정보 : 成化十五年(1479년 : 성종 10)四月日 開板
畱板光陽白雲山屏風菴(『위산경책』 제13장)

『불조삼경』은 송나라 때 조동종(曹洞宗)의 승려지식인 대홍(大洪) 수수(遂守)가 주석을 붙였으며, 원나라의 승려지식인 몽산(蒙山) 덕이(德異)가 서문을 쓰고 편찬하였다. 몽산 덕이가 편찬한 판본계통이 고려시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조선시대까지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고려 후기~15세기까지 조성된 목판은 1341년(충혜왕 2) 정각사(正覺社), 1361년(공민왕 10) 원암사(圓嶺寺), 1384년(우왕 10) 목판, 1449년(세종 31) 회암사(檜岩寺 : 원암사 계통판본), 1479년(성종 10) 병풍암(屏風菴) 목판 등이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다.

수능암사의 『불조삼경』 3권 1책보다 앞선 판본은 현재까지 13종류가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 6종류 및 지방문화재 2종류 등 전체 8종류가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5종류는 비지정 상태에 있다. 특히 1341년·1361년 조성목판의 인출본은 3종류가 비지정 상태이다. 본서는 앞서 조성된 판본과는 다른 새로운 판본 계열이고, 인출·보존상태도 양호하며, 특히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되는 유일본으로서의 자료적 희소성도 있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부산광역시청,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 및 검토의견서, 부산광역시, 2021.
-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회 유형분과위원회 심의 자료·심의 의결서·검토의견서」, 부산광역시, 2021.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동국대학교도서관: <http://lib.dongguk.edu>
- 동국역경원: <http://www.tripitaka.or.kr>

- 원각사성보박물관: <http://www.wongaksa.or.kr/sungbo>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기 타

지정신청본인 『불조삼경』 3권 1책은 민족문화출판사 김○○ 대표가 소장하다가 수능업사의 신도회가 구입하여 수능업사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 금강반야바라밀경 (金剛般若波羅密經)

가. 검토사항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 ‘금강반야바라밀경’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0.12.9.)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6.2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 소유자(관리자) : 재단법인 선학원 수능엄사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754-16, 수능엄사
- 수 량 : 1권 1축
- 규 격 : 匡高 5.0cm, 세로 7.0cm, 가로 530.0cm 내외
- 재 질 : 지(紙)
- 판 종 : 목판본(影印本)
- 형 식 : 권축장(卷軸裝, 改裝)
- 조성연대 : 현대(추정)



<금강반야바라밀경>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指定 價値>

수능엄사 소장 지정신청본 『금강반야바라밀경』 단권 1축은 충선왕 3년(1311) 5월에 승려 覺圓이 비구 達玄·永興·懷英·千備·希印·行全·宗信과 信士 李琦·田大同 등과 함께 고려의 승려 洪准이 필사한 소자본을 저본으로 판각하여 조성한 목판에서 印出한 자료를 원천 자료로 하였다.

지정신청본 『금강반야바라밀경』은 匡高·裝訂·紙質·板刻狀態·印出記錄·印出狀態 등에서 이미 國家指定文化財로 지정된 罽○○ 소장본 및 봉림사 소장본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수능엄사 소장 지정신청본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根據 基準>

상기의 <指定 價値> 참간.

○ (지정 가치 미흡)

조사본 『금강반야바라밀경』 (1축)은 1311년(충선왕 3)에 승려 각원(覺圓)이 뜻을 같이 하는 발원자들과 함께 고려의 승려 홍준(洪准)이 필사한 소자본을 저본으로 조성한 목판 인출본을 원천자료로 하고 있다.

크기는 세로 7.0cm, 가로 530.0cm 내외의 권축장 형태로, 권수체는 ‘金剛般若波羅蜜經’이다. 수록된 내용은 「神衆圖」, 「說法圖」, 「金剛經啓請」, 「淨口業眞言」, 「請八金剛(八金剛圖)」, 「請四菩薩(四菩薩圖)」, 「發願文」, 「云何梵」 및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본문, 그리고 ‘至大四年(1311년)’의 조성 기록과 범문으로 기록된 다라니와 도형화된 부적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본은 동일 판본으로 지정된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확인된다. 기지정본에서 확인되는 인출 기록과 간행 연대가 확인되지 않고, 보존 상태도 열악하다. 또한 지질과 묵색 등에서 후대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사본은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지정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수진본(袖珍本)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으로 권수(卷首)에 신중상(神衆像)과 설법상(說法像), 금강경계청(金剛經啓請),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팔금강상(八金剛像)과 사보살상(四菩薩像), 발원문(發願文), 운하범(云何梵)이 본문 앞에 실려 있다. 그리고 권말에 지기(誌記)가 있고 이어서 범자(梵字)로 된 불정심다라니(佛頂心陀羅尼) 등 6개의 짤막한 다라니(陀羅尼)와 여의인(如意印) 등 10개의 부(符)가 있다. 동일한 판본으로 찍어 기지정된 2종류의 수진본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에는 마지막에 강금강(姜金剛)의 인출기(印出記)가 붙어 있으나 본 지정신청본에는 없다.

본 신청대상품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보물(제775호, 제1095호)로 지정된 세소자 『금강반야바라밀경』와 내용상 같은 판본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종이는 얇고 성글며 유분을 더하여 고졸한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염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이에선 전통의 닥종이가 아닌 다량의 불순물이 포함된 것을 확인된다. 또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은 흔적 등 전통적인 제작방식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여 근래에 제작된 경전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대에 봉림사에서 세소자 『금강반야바라밀경』으로 50권을 특별히 제작하여 배포하였다고 전하는데 지금도 간혹 동종의 경전이 고미술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된다.

본 작품은 열람 상황에 따라 충분히 기지정 『금강반야바라밀경』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전통의 제작방식과 재료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지정신청본 『金剛般若波羅蜜經』의 書誌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書誌 記述>

金剛般若波羅蜜經 / 鳩摩羅什(344~413, 姚秦朝) 奉詔譯. -- 木版本(影印本). --
[刊行地 不明]: [刊行處 不明], [高麗 忠宣王 3(1311) 造成(?)].

單卷 1軸: 變相圖, 上下單邊, 匡高 5.0cm, 無界, 全葉 74~85行10字, 無口, 無魚尾;
7.0×530.0cm 內外. 卷軸裝.

卷首題: 金剛般若波羅蜜經.

卷尾題: 金剛般若波羅蜜經.

內 容: ‘御史臺街東程刊’, ‘神衆像’, ‘說法圖’, ‘金剛經啓請’, ‘淨口業眞言’, ‘請八
金剛剛(八金剛像)’, ‘請四菩薩(四菩薩像)’, ‘發願文’, ‘云何梵’, 『金剛般若
波羅蜜經』本文, ‘造成記錄(至大四年)’, ‘佛頂心陀羅尼(漢字+悉曇字)’, ‘小
寶樓閣呪(漢字+悉曇字)’, ‘悉怛多波怛羅呪(漢字+悉曇字)’, ‘消災吉祥陀羅
尼(漢字+悉曇字)’, ‘大寶樓閣呪(漢字+悉曇字)’, ‘大准提陀羅尼(漢字+悉曇
字)’, ‘六字呪(漢字+悉曇字)’, ‘辟除(漢字+悉曇字)’, ‘切天魔神呪(漢字+悉
曇字)’, ‘符籙(如意印·生淨土印·厭諸鬼符·避熱符·退溫符·滅罪成佛果·避口
舌符·消三災符·能產印說之胎衣卽出·救產難符)’.

發願文: 稽首三鬼尊 歸命十方佛 我今發弘願 持此金剛經 上報四重恩 下濟三淪苦
若有見聞者 悉發菩提心 盡此一報身 同生極樂國 云何得長壽 金剛不壞身.
(‘請四菩薩(四菩薩像)’ 下.)

造成記: 覺圓洎同願比丘 達 玄 永 吳 懷英千備 希印 行全 宗信信 士 李琦 田大同
在 古燕偶見 奉國僧洪准 所書金剛經一 字小 体具使人可觀因 疾難 遭
慶幸之心重法輕財 命工刊板以廣其傳先 將此功德廻向 佛菩提 〔一〕人恒
有慶兆姓 捻无憂 佛日鎮長明法輪常永 轉願我先父母及一切 衆生藉此金
剛因早明 般若智盡此一報身俱 生極樂國親觀 无量光同受 菩提記 時
至大四(1311, 충선왕 3)年五月日誌.

印 文: ‘覺圓發願開板’. (卷末)

所藏歷: 수능엄사 신도회에서 寺格을 높이고자 하는 뜻으로 경북 포항시 북구 새

천년대로 1200의 李○○이 소장하던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大方廣佛華嚴經疏』 권51·74, 『佛祖三經』 등을 신도회의 결의와 기증자의 정당한 기증 절차에 따라 소장하게 되었다고 함. (소장경위서 참간)

[他本]: [金剛般若波羅蜜經. 1帖 : 上下單邊, 匡高 6.0~6.2cm, 1折7行10字 ; 6.7×5.0cm. 折帖裝. 보물(1984.05.30., 염○○ 소장본)]

[印記]: [重大匡晉城君金剛, 伏爲, 皇帝万万歲, 皇后齊年, 太子千秋, 諸王宗室各保遐, 岭文武官僚祿位, 常居天下太平國, 秦民安, 佛日增輝法輪常, 轉兼及已身無諸, 病厄不逢災難生, 生世世得大自在, 行菩薩道助揚, 佛事無有疲厭四, 生九類同登竟岸, 印成金剛般若經, 十方奉請施經進, 伏願持經善人一, 覽便悟本性之, 弥陀同登惟心之, 淨土者, 至元五(1339, 충숙왕 복위 8)年二月日誌, 施主晉成君姜金剛, 印文(判讀不可). (염○○ 所藏本(1984.05.30.)과 鳳林寺 所藏本(1991.09.30.)의 卷末]

既指定: 지정신청본과 유사한 版本인 염○○ 소장본(1984.05.30.) 및 봉림사 소장본(1991.09.30.)의 2건이 國家指定文化財 보물로 指定된 사례는 있다.

<現狀>

지정신청본 『金剛般若波羅蜜經』은 전반적인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表紙는 缺落되고 本文의 頭部는 이탈되었으며, 훼손·오염 등이 있다. 紙質은 古拙한 듯 보이나 塗油로 인한 듯하며, 정확히 판정할 수 없으나 펄프재가 섞인 韓紙가 아닌 가 한다.

○ 내용 및 특징

『金剛般若波羅蜜經』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고 신봉되는 대표적인 불경으로 ‘『金剛般若經』’, ‘『金剛經』’으로 略稱되기도 한다. 漢譯本은 姚秦朝의 鳩摩羅什(344~413)이 번역한 것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중국 禪宗의 제5조인 弘忍(601~674) 이래로 특히 중시되고 제6조 慧能(638~713)이 경문을 듣고 發心하여 출가하게 하였던 경전이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불교유입의 초기에 유입된 이래로, 고려 중기에 知訥(1158~1210)이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立法을 위하여 반드시 본 경전을 읽도록 한 뒤부터 널리 유통되었다.

지정신청본 『金剛般若波羅蜜經』의 卷首題와 卷尾題는 ‘金剛般若波羅蜜經’이며 卷首와 卷尾의 여러 곳에 여러 면의 變相圖가 있다. 版式의 邊欄은 上下單邊이고 匡郭의 匡高는 5.0cm이며, 本文의 字數는 每行 10字이고 규격은 세로 7.0cm, 가로 53.0cm 內外이다. 장정은 卷軸裝이다.

지정신청본 『金剛般若波羅蜜經』에 수록된 內容은 ‘御史臺街東程刊’을 시작으로 「神衆像」, 「說法圖」, 「金剛經啓請」, 「淨口業眞言」, 「請八金剛剛(八金剛像)」, 「請四

菩薩(四菩薩像)』, 「發願文」, 「云何梵」, 『金剛般若波羅蜜經』本文, 「造成記錄(至大四年)」, 「佛頂心陀羅尼(漢字+悉曇字)」, 「小寶樓閣呪(漢字+悉曇字)」, 「悉怛多波怛羅呪(漢字+悉曇字)」, 「消災吉祥陀羅尼(漢字+悉曇字)」, 「大寶樓閣呪(漢字+悉曇字)」, 「大准提陀羅尼(漢字+悉曇字)」, 「六字呪(漢字+悉曇字)」, 「辟除(漢字+悉曇字)」, 「切天魔神呪(漢字+悉曇字)」, 「符籙(如意印·生淨土印·厭諸鬼符·避熱符·退溫符·滅罪成佛果·避口舌符·消三災符·能產印說之胎衣卽出·救產難符)」 등이며, 「發願文」의 내용은 “稽首三鬼尊 歸命十方佛 我今發弘願 持此金剛經 上報四重恩 下濟三淪苦 若有見聞者 悉發菩提心 盡此一報身 同生極樂國 云何得長壽 金剛不壞身”로 기록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金剛般若波羅蜜經』에는 경문이 끝난 다음에 곧이어 충선왕 3년(1311) 5월 모일의 「造成記錄」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覺圓은 비구 達玄·永興·懷英·千備·希印·行全·宗信과 信士 李琦·田大同 등을 격려하여 함께 발원하는 바이다. 예전에 燕朝에 머물고 있을 때 우연히 고려의 승려 洪准이 필사한 『金剛經』 1본을 보니 小字本에다 體式이 잘 갖추어져 있어, 다른 사람들도 불만한 것이었다. 인하여 그나마도 쉬이 만나기 어려운 경사스러운 인연이라는 마음이 들어 佛法을 존중하고 재물을 경시하면서 工匠들에게 木板으로 새기도록 명하여 그 유포를 넓힐 것이며, 이 공덕을 앞세워 부처님의 보리로 회향하여 국왕께는 항상 慶事만 있고 백성들 각각에게는 근심이 없도록 할 것이며, 부처님의 광명이 날로 더욱 길고 밝으며 법륜이 항상 영원토록 구르게 되리이다. 나의 먼저 가신 부모와 일체중생이 이 『금강경』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 먼저 반야의 지혜를 밝혀 이 하나의 報身을 다하여 모두 極樂國에 태어나 친히 無量光을 목도하고 함께 菩提記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지대 4년(1311, 충선왕 3) 5월 모일에 쓰다.¹⁰⁷⁾

이를 통하여 볼 때, 지정신청의 『금강반야바라밀경』 단권 1축은 충선왕 3년(1311) 5월에 승려 覺圓이 비구 達玄·永興·懷英·千備·希印·行全·宗信과 信士 李琦·田大同 등과 함께 고려의 승려 洪准이 필사한 소자본을 저본으로 판각하여 조성한 목판에서 印出한 자료를 원천 자료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卷軸과 表紙가 결락된 것은 물론 보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葉〇〇 소장본¹⁰⁸⁾이나 봉림사 소장본¹⁰⁹⁾에서 나타나는 “重大匡晉城君金剛 伏爲 皇帝万万歲 皇后齊年 太子千秋 諸王宗室各保遐 齡文武官僚祿位 常居天下太平國 秦民安 佛日增輝法輪常 轉兼及己身無諸 病厄不逢災難生 生世世得大自在 行菩

107) 覺圓洎同願 比丘達玄·永興·懷英·千備·希印·行全·宗信·信士李琦·田大同 在古燕 偶見本國僧洪准 所書金剛經一帙 字小 体具 使人可觀 因洪難遭 慶幸之心 重法輕財 命工刊板 以廣其傳 先將此功德 廻向佛菩提 一人恒有慶兆 姓捨无憂 佛日 鎮長明 法輪常永轉 願我先父母 及一切衆生 藉此金剛 因早明般若智 盡此一報身 俱生極樂國 親觀无量光 同受菩提記 時至大四年五月日誌. <首楞嚴寺 指定申請本과 葉〇〇 所藏本 및 鳳林寺 所藏本の 卷末>

108) 『金剛般若波羅蜜經』<보물, 葉〇〇 소장본(1984.05.30.)>.

109) 華城 鳳林寺 木造阿彌陀佛坐像 腹藏典籍 一括<보물, 봉림사 소장본(1991.09.30.)>.

薩道助揚」佛事無有疲厭四」生九類同登竟岸」印成金剛般若經」十方奉請施經進」伏願持經善人一」覽便悟本性之」弥陀同登惟心之」淨土者」至元五(1339, 충숙왕 복위 8)年二月日誌」施主晉成君姜金剛”의 「인출기록」도 결락되고 없다.

지정신청본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전반적인 인출의 현상은 충숙왕 복위 8년(1339)에 晉城君 姜金剛이 시주와 발원자로 기록된 봉림사 소장본보다는 선명하지 않으나, 같은 인출기록이 있는 염○○ 소장본과는 마멸 및 훼손의 정도가 유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지정사례

高麗 忠宣王 3년(1311)에 造成된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목판에서 충숙왕 복위 8년(1339)에 인출된 수진본은 현재 2종류 정도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 근거는 양호한 인쇄상태와 보존상태 등이다. 기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2건은 모두가 折帖裝으로 裝訂되어 있으나 지정신청본의 경우 卷軸裝으로 裝訂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정신청본 『금강반야바라밀경』 단권 1축과 동일한 목판에서 인출되어 國家指定文化財로 지정된 염○○ 소장본과 봉림사 소장본의 각종 서지사항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표1. 『金剛般若波羅蜜經』의 國家指定文化財 指定 現況과 書誌事項 對比>

內容	염○○ 所藏本	鳳林寺 所藏本	首楞嚴寺 所藏本	備考
指定	寶物 (1984.05.30.)	寶物 (1991.09.30.)	非指定 (指定申請本)	
書名	金剛般若波羅蜜經	金剛般若波羅蜜經	金剛般若波羅蜜經	
卷數	單卷	單卷	單卷	
版本	木版袖珍本	木版袖珍本	木版(影印本)	
匡高	6.0~6.2cm	?	5.0cm	
裝訂	折帖裝	折帖裝	卷軸裝	
造成	忠宣王 3(1311)	忠宣王 3(1311)	현대 추정	
紙質	韓紙	韓紙	펄프지 추정	
墨色	鮮明	鮮明	鮮明	
板刻狀態	初刻	初刻	影印	
印出記錄	姜金剛印出記錄 (1339, 충숙왕 복위 8)	姜金剛印出記錄 (1339, 충숙왕 복위 8)	無	
印出狀態	鮮明	鮮明	不鮮明(번짐)	

지정신청본 『금강반야바라밀경』은 匡高·裝訂·紙質·板刻狀態·印出記錄·印出狀態 등에서 이미 國家指定文化財로 지정된 염○○ 소장본 및 봉림사 소장본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國家指定文化財로 지정된 엮○○ 소장본에서 나타나는 板刻術과 印出狀態를 對比하면 다음과 같다.

<표2. 『金剛般若波羅蜜經』의 板刻術 및 印出狀態의 對比>



<지정신청본>



<엮○○ 소장본(1339)>

念我當有所說法莫作是
念何以故若人言如來有
所說法則為謗佛不能解
我所說故須菩提說決有
無法可說是名說法
余時慧命須菩提白佛言
世尊願有衆生於未來世

<지정신청본>

念我當有所說法莫作是
念何以故若人言如來有
所說法則為謗佛不能解
我所說故須菩提說決有
無法可說是名說法
余時慧命須菩提白佛言
世尊願有衆生於未來世

<엮○○ 소장본(1339)>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鳩摩羅什 奉詔譯. 『金剛般若波羅蜜經』. 木版本(袖珍本). [刊行地 不明] : [刊行處 不明], [高麗 忠宣王 3(1311) 造成(?)]. 首楞嚴寺 所藏本.
- 鳩摩羅什 奉詔譯. 『金剛般若波羅蜜經』. 木版本(袖珍本). [刊行地 不明] : [刊行處 不明], [高麗 忠宣王 3(1311) 造成].
- 鳩摩羅什 奉詔譯. 『金剛般若波羅蜜經』. 木版本(袖珍本). [刊行地 不明] : [刊行處 不明], [高麗 忠宣王 3(1311) 造成, 忠肅王 復位 8(1339) 後印].
- 부산광역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 및 검토의견서, 부산광역시, 2020.
-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금강반야바라밀경』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검토>, 부산광역시, 2020.
- 尹炳泰 編, 『韓國古書整理法研究』, 서울특별시, 利久出版社, 1983.
-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특별시, 汎友社, 1990.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동국대학교도서관: <http://lib.dongguk.edu>
- 동국역경원: <http://www.tripitaka.or.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기 타

수능엄사 소장 지정신청본 『金剛般若波羅蜜經』은 수능엄사 신도회에서 寺格을 높이고자 하는 뜻으로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00의 李○○이 소장하던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大方廣佛華嚴經疏』 권51·74, 『佛祖三經』 등을 신도회의 결의와 기증자의 정당한 기증 절차에 따라 소장하게 되었다고 함(소장경위서 참간).

□

○ 현 상

조사본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수능엄사 신도회에서 원 소장자 이○○(李○○)이 소장하였던 다른 책과 함께 기증받아 소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물의 표지와 본문의 앞부분은 결실되었고, 본문 전체적으로 종이의 열화에 따른 탈락과 손상이 확인된다.



<書誌 記述>

金剛般若波羅蜜經 / 鳩摩羅什(344~413, 姚秦朝) 奉詔譯. -- 木版本(影印本). --
 [刊行地 不明] : [刊行處 不明], [高麗 忠宣王 3(1311) 造成(?)].

單卷 1軸 : 變相圖, 上下單邊, 匡高 5.0cm, 無界, 全葉 74~85行10字, 無口, 無魚尾;
 7.0×530.0cm 內外. 卷軸裝(改裝).

卷首題: 金剛般若波羅蜜經.

卷尾題: 金剛般若波羅蜜經.

印 文: 覺圓「發願」開板(卷末).

刊 記: 至大四(1311, 충선왕 3)年五月日誌.

○ 내용 및 특징

『金剛般若波羅蜜經(金剛般若波羅蜜經)』은 삼국시대 이래 널리 유통되었던 경전으로 『금강경』으로 약칭되고 있다. 이 경전은 공혜(空慧)를 근본으로 ‘일체법무아(一切法無我)’의 이치를 요지로 삼고 있다. 경문 중에 ‘空’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는 것이 특징이며, 대승과 소승이라는 두 관념의 대립이 성립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과도기적인 경전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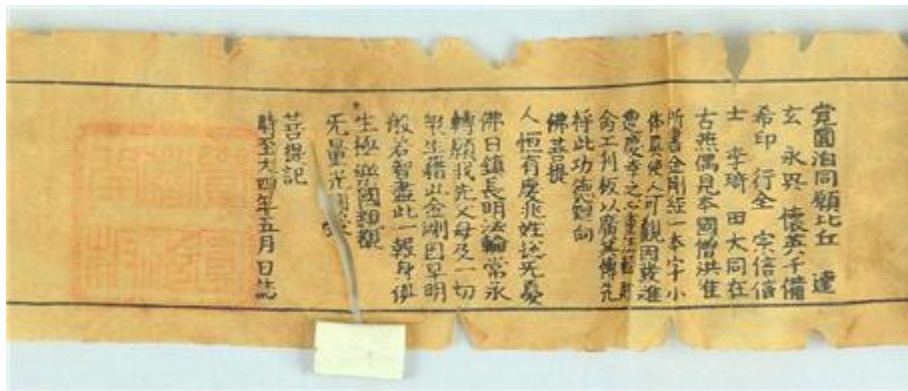
『금강경』은 경문의 해석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도의 무착(無着, ?~?)에 의하여 18住位로 분과(分科)되기도 하였고, 천친(天親, ?~?)에 의하여 37斷疑로 분단(分段)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의 한역본이 널리 유

통되었고, 중국 양(梁)의 소명태자(昭明太子, 501~531)에 의하여 32품으로 분품(分品)된 체제를 따르고 있다. 고려 중기에 지눌(知訥, 1158~1210)이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법을 위해서 반드시 본 경전을 읽도록 한 뒤부터 널리 유통되었다.

조사본은 세로 7.0cm, 가로 530.0cm 내외의 권축장 형태로 수진본이다. 광곽(匡郭)은 상하단변으로 광고(匡高)는 5.0cm이며, 본문의 자수는 매행 10자이다.

권수제는 '金剛般若波羅蜜經'이며 수록된 내용은 '御史臺街東程刊'을 시작으로 「神衆圖」, 「說法圖」, 「金剛經啓請」, 「淨口業眞言」, 「請八金剛(八金剛像)」, 「請四菩薩(四菩薩圖)」, 「發願文」, 「云何梵」를 두고 그 뒤에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본문을 두었다.

본문을 이어 '至大四年(1311년)'의 조성 기록과 '覺圓」發願」開板'이라는 방형주인(方形朱印)의 인문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문)

覺圓泊同願 比丘達玄·永興·懷英·千備·希印·行全·宗信·信士李琦·田大同 在古燕 偶見本國僧洪准 所書金剛經一卒 字小体具 使人可觀 因羨難遭 慶幸之心 重法輕財 命工刊板 以廣其傳 先將此功德 廻向佛菩提 一人恒有慶兆 姓捨无憂 佛日鎮長明 法輪常永轉 願我先父母 及一切衆生 藉此金剛 因早明般若智 盡此一報身 俱生極樂國 親觀无量光 同受菩提記 時至大四年五月日誌.(印文)

(번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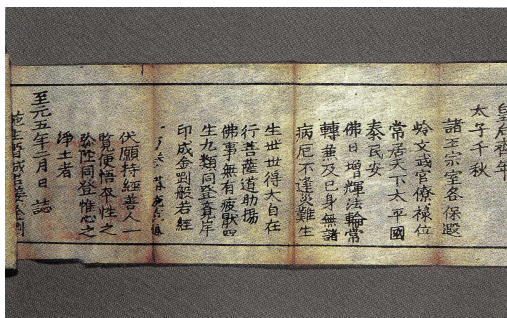
覺圓은 비구 達玄·永興·懷英·千備·希印·行全·宗信과 信士 李琦·田大同 등을 격려하여 함께 발원하는 바이다. 예전에 燕朝에 머물고 있을 때 우연히 고려의 승려 洪准이 필사한 『金剛經』 1본을 보니 小字本에다 體式이 잘 갖추어져 있어, 다른 사람들도 볼만한 것이었다. 인하여 그나마도 쉬이 만나기 어려운 경사스러운 인연이라는 마음이 들어 佛法을 존중하고 재물을 경시하면서 工匠들에게 木板으로 새기도록 명하여 그 유포를 넓힐 것이며, 이 공덕을 앞세워 부처님의 보리로 회향하

여 국왕께서는 항상 慶事만 있고 백성들 각각에게는 근심이 없도록 할 것이며, 부처님의 광명이 날로 더욱 길고 밝으며 법륜이 항상 영원토록 구르게 되리이다. 나의 먼저 가신 부모와 일체중생이 이 『금강경』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 먼저 반야의 지혜를 밝혀 이 하나의 報身을 다하여 모두 極樂國에 태어나 친히 無量光을 목도하고 함께 菩提記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지대 4년(1311, 충선왕 3) 5월 모일에 쓰다.

또한 각원(覺圓) 스님의 조성 기록에 이어 범문으로 기록된 「佛頂心陀羅尼」, 「小寶樓閣呪」, 「悉怛多波怛羅呪」, 「消災吉祥陀羅尼」, 「大寶樓閣呪」, 「大准提陀羅尼」, 「六字呪」, 「辟除一切天魔神呪」의 8종 다라니와 「如意印」·「生淨土印」·「厭諸鬼符」·「避熱符」·「退溫符」·「滅罪成佛果」·「避口舌符」·「消三災符」·「能產印說之胎衣卽出」·「救產難符」 등의 부적을 배치하였다.

이같은 사실을 통하여 조사본 『금강반야바라밀경』은 1311년(충선왕 3년) 5월에 승려 覺圓이 비구 達玄·永興·懷英·千備·希印·行全·宗信과 信士 李琦·田大同 등과 함께 고려의 승려 洪准이 필사한 소자본을 저본으로 판각하여 조성한 목판에서 印出한 자료를 원천 자료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이미 지정된 유물이 있다. 그런데 기지정된 보물 『금강반야바라밀경』(1984)은 조사본과 동일한 내용 외에 마지막 부분에 1339년(至元五年, 충숙왕 복위 8)에 진성군(晉城君) 강금강(姜金剛)이 작성한 인출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원문)

重大匡晉城君金剛」伏爲」皇帝万万歲」皇后齊年」太子千秋」諸王宗室各保遐」岭文武官僚祿位」常居天下太平國」秦民安」佛日增輝法輪常」轉兼及已身無諸」病厄不逢災難生」生世世得大自在」行菩薩道助揚」佛事無有疲狀四」生九類同登菴岸」印成金剛般若經」十方奉請施經進」伏願持經善人一」覽便悟本性之」彌陀同登惟心之」淨土者」至元五年二月日誌」施主晉成君姜金剛

따라서 조사본은 1311년(충선왕 3)에 승려 각원(覺圓)이 뜻을 같이 하는 발원자들과 함께 고려의 승려 홍준(洪准)이 필사한 소자본을 저본으로 조성한 목판 인출본을 원천자료로 하고 있으나, 이미 지정된 동일 판본에서 보이는 인출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조성 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 할 수 있다.

○ 지정사례

- 『金剛般若波羅蜜經』(개인소장본/1984.05.30.지정/절첩장).
- 華城 鳳林寺 木造阿彌陀佛坐像 腹藏典籍 一括(화성 봉림사 소장/1991.09.30.지정/절첩장).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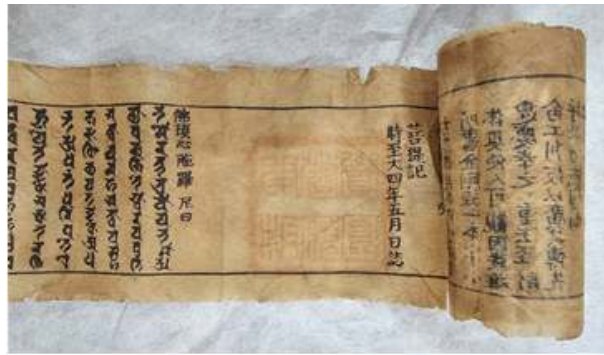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장,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 및 검토의견서, 부산광역시, 2020.
-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금강반야바라밀경』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검토>, 부산광역시, 2020.
- 尹炳泰 編, 『韓國古書整理法研究』, 서울특별시, 利久出版社, 1983.
-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특별시, 汎友社, 1990.

□

○ 현 상

『금강반야바라밀경』 1권 1축은 권자본의 두루마리 형태로, 1311년(충선왕) 음력 5월 승려 각원(覺圓) 등이 주도하여 호신용·독송용의 소자 수진본(袖珍本)으로 조성한 목판을 후대 찍어 만든 인출본으로 부산문화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국가지정신청을 하였다.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듯 보이지만, 표지는 결락되어 있고 본문은 분리되었으며, 훼손과 오염이 있다. 특히 바스러지는 지질은 고졸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유분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수한 닥종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섬유찌꺼기 및 불순물 등이 다수 혼합되어 있어 고려시대의 종이인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도1. 표지가 결락되고 훼손이 보이는 신청대상본>



<도2. 섬유 찌꺼기가 다량 함유된 종이>



<도3. 접착제를 사용한 접합 흔적>

위에 제시된 표의 사진을 통해 보면 전통의 고서에서 볼 수 있는 닥종이가 아니라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종이에서 보이는 찌꺼기가 다량 함유되어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또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종이를 붙여 변색되고 접착 면이 갈라지는 등의 현상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된 종이는 유분침가 및 염색, 접착제 사용 등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현재 경전의 상태가 열화현상으로 인한 부스러짐 및 훼손이 빠르게 진행되는 원인의 하나로 예상할 수 있다.

내용 중에 있어서도 보물로 기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염○○ 소장본 『金剛般若波羅蜜經』(보물 제778호)이나 華城 鳳林寺 木造阿彌陀佛坐像 腹藏典籍 一括의 『金剛般若波羅蜜經』에서 나타나는 강금강의 인출기록¹¹⁰⁾도 찾아볼 수 없다.

○ 내용 및 특징

『금강반야바라밀다경(金剛般若波羅蜜多經)』은 반야부 불교 경전 가운데 한 종류로, 지혜의 정체(正諦)를 금강의 견실한 것에 비유·해설한 불교경전이다. 신청본과 유사한 형태의 수진본은 현재까지 2종류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¹¹¹⁾

110) “重大匡晉城君金剛，伏爲，皇帝万万歲，皇后齊年，太子千秋，諸王宗室各保遐，岭文武官僚祿位，常居天下太平國，秦民安，佛日增輝法輪常，轉兼及己身無諸，病厄不逢災難生，生世得大自在，行菩薩道助揚，佛事無有疲厭四，生九類同登竟岸，印成金剛般若經，十方奉請施經進，伏願持經善人一，覽便悟本性之，彌陀同登惟心之，淨土者，至元五(1339, 충숙왕 복위 8)年二月日誌，施主晉成君姜金剛”.

111) 보물(제1095호)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복장전적일괄 중 『수진본금강반야바라밀경』(1991년 09월 지정 : 절첩본, 1339년 02월 진성군 강금강의 시주·인출정보 존재)과 보물(제775호) 『금강반야바라밀경』(1984년 05월 지정 :

그러나 절첩본인 엽○○ 소장본과는 달리 권축장으로 보전되고 있으며, 표지와 권축이 결실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金剛般若波羅蜜經』의 卷首題와 卷尾題는 ‘金剛般若波羅蜜經’이다. 여러 면의 변상도가 배치되어 있으며, 版式은 上下單邊이고 匡郭의 匡高는 5.0cm이다. 본문은 각행 10자이다. 전체크기는 세로 7.0cm, 가로 530.0cm에 이른다.

지정신청본의 내용은 호법선신변상(護法善神變相), 제법상(諸法相), 금강경계청(金剛經啓請),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청팔금강(請八金剛) 사보살상(四菩薩相)과 발원문(發願文)¹¹²⁾, 『金剛般若波羅蜜經』의 본문이 나오고 本文에 이어서 「造成記錄(至大四年)」이 나온다. 조성기록은 시지대사년(時至大四年)(1311)오월일지(五月日誌)의 간행기록이 있고, 불정심다라니(佛頂心陀羅尼)13행(行), 신향다과항라니(悉恒多波恒羅尼)6행(行), 소재길상타라니(消災吉祥陀羅尼)14행(行), 준제다라니(準提陀羅尼)7행(行), 피제일체천마신주(避除一切天魔神呪)3행(行), 여의인(如意印), 생정토인(生淨土印), 염제귀부(厭諸鬼符), 피열부(避熱符), 퇴온부(退溫符), 멸죄성불과(滅罪成佛果), 피구설부(避口舌符), 소삼재부(消三災符), 능산인탄지태의즉출구산난부(能產印吞之胎衣卽出救產難符)가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기지정본에서 확인되는 1339년에 다시 인출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지정된 高麗 忠宣王 3년(1311)에 造成된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목판에서 충숙왕 복위 8년(1339)에 인출된 수진본의 지정 근거는 권수말(卷首末)의 특수한 판식(板式)과 세소자(細小字) 판각(板刻)의 정교(精巧)함, 그리고 보존상태가 좋은 점 등을 근거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신청본의 경우 기지정본과 다른 권축장이며, 1339년의 인출기록이 없다는 점, 양지로 보이는 지질과 접착제 사용 등 내용상으로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재질면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점, 전체적인 크기나 구성, 서체 등이 기지정본과 유사하지만 판본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점 등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지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부산광역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 및 검토의견서, 부산광역시, 2020.
-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금강반야바라밀경』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검토>, 부산광역시, 2020.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절첩본, 1339년 02월 진성군 강금강의 시주·인출정보 존재).

112) “稽首三鬼尊 歸命十方佛 我今發弘願 持此金剛經 上報四重恩 下濟三淪苦 若有見聞者 悉發菩提心 盡此一報身 同生極樂國”云何得長壽 金剛不壞身”.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동국대학교도서관: <http://lib.dongguk.edu>
- 동국역경원: <http://www.tripitaka.or.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기 타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신도회에서 사격을 높이고자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00의 李○○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구입하여 수능엄사로 기증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17.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禮念彌陀道場懺法 卷六~十)

가. 검토사항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2.3.3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8.3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禮念彌陀道場懺法 卷六~十)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법화종 선광사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번길 42-123, 선광사
- 수 량 : 5권 1책
- 규 격 : 35.9×23.1cm(半郭 25.2×18.4cm)
- 재 질 : 지(紙)
- 판 종 : 목판본(본문),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 권미 발문)
- 형 식 : 선장(線裝, 改裝)
- 조성연대 : 1474년(조선 성종 5) 판각, 1483년(조선 성종 14) 인출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指定 價値>

『禮念彌陀道場懺法』은 阿彌陀佛께 지극한 마음으로 禮拜하고 모든 罪業을 참회하며 菩提心을 내어 極樂往生을 기원하는 信者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빌며 참회하고 염불할 때 사용되는 說法文·懺悔文·念佛文·祈願文 등에 해당하는 「歸依西方三寶」·「決疑生信」·「引教比證」·「往生傳錄」·「極樂莊嚴」·「禮懺罪障」·「發菩提心」·「發願往生」·「求生行門」·「總爲禮佛」·「自慶」·「普皆迴向」·「囑累流通」 등 13편의 의례 절차가 수록된 10卷本の 불교 의식집이다.

仙光寺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은 成宗 14년(1483) 3월에 貞熹大王大妃가 승하하자, 仁粹王大妃가 貞熹大王大妃의 천도를 위하여 「法華經」·「大彌陀懺」·「六經」·「地藏」 등의 경전을 각 33부씩 간행할 때, 이미 성종 5년(1474)에 貞熹大王大妃의 발원으로 刊經都監에서 조성되었던 王室版의 목판에서 印出해낸 後刷本 중의 하나이다.

仙光寺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은 王室 發願版인 동시에 후일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간행되는 『禮念彌陀道場懺法』의 母本の 자료라는 점을 비롯하여 刊經都監版의 版本 양상과 조선조 전기의 印刷出版文化 연구에는 물론 佛敎學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이 비록 10권 2책 중 권6~10의 1책에 지나지 않으나 이미 同一 版本의 完本 혹은 缺本の 5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심지어 연산군 9년(1503)에 海印寺에서 翻刻된 판본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5권 1책, 김천 직지사 소장)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仙光寺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根據 基準>

仙光寺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과 동일한 판본이 현재 ①국립중앙 박물관(보물, 10권 2책, 완질, 1988), ②목아불교박물관(보물, 권6~10 1책, 1992), ③김○○(보물, 권3·4·7·8 1책, 1993). ④불갑사(보물, 권6~10 1책, 2006), ⑤고불사(보물, 권1~5 1책, 20210.)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5권 1책)은 조선조 성종 5년(1474)에 세조의 비인 정희대왕대비의 발원으로 간경도감에서 조성된 조선왕실판을 바탕으로 成宗 14년(1483) 3월에 다시 한 번 인출한 책이다.

조사본의 역사적 가치는 권말에 보이는 成宗 14년(1483, 成化 19)에 初鑄甲寅字로 인출된 燈谷 學祖의 「跋文」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곧 貞熹大王大妃가 승하하자, 仁粹王大妃가 貞熹大王大妃의 천도를 위하여 「法華經」·「大彌陀懺」·「六經」·「地藏」 등의 경전을 각 33부씩 간행할 때에 함께 간행하였다는 사실이다.

조사본은 전체 10권 2책 중 권6~10의 1책에 지나지 않으나 왕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적인 사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조선 전기 가장 완성도가 높은 금속활자인 초주갑인자 인출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조사본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지정신청본인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1책은 1474년(성종 5) 음력 8월 경 조성된 해당 목판을 1483년(성종 14) 음력 4월 찍어 만든 30질의 인출본 가운데 1종류이다. 비록 권1~5가 탈락된 영본이지만, 권6~10은 성종 때의 역사와 불교인쇄 문화 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며 특히, 해당 인출본은 1483년 음력 4월에 찍었다는 인출정보를 초주갑인자로 찍어 현재까지 확인되는 유일한 자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를 금속활자로 찍어 당시의 금속활자의 활용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현존하고 있는 동일판본들이 상당수가 국가지정문화재나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서의 자료적, 기록적인 희소성을 감안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현 상

大韓佛敎法華宗 仙光寺 소장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 卷6~10의 書誌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書誌記述>

禮念彌陀道場懺法, 卷6~10 / 王子成(?~?, 金末元初朝) 集. -- 木版本. -- [漢城] : [刊經都監], [成宗 5(1474) 刊經都監 造成, 成宗 14(1483) 後刷 推定].

5卷1冊(109張) : 四周雙邊, 半郭 25.2×18.4cm, 有界, 半葉 9行15字 小字雙行22字, 上下大黑口, 上下下向黑魚尾, 35.9×23.1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 改裝).

表題: 大彌陀懺經(墨書).

卷頭題: 禮念彌陀道場懺法.

[讚題]: [彌陀懺].

[序題]: [彌陀懺].

版心題: 彌陀懺.

卷尾題: 禮念彌陀道場懺法.

[插圖]: [第1張A面; 南無過去毗婆尸佛, 南無尸棄佛, 南無毗舍浮佛. 第1張B面; 南無拘留孫佛, 南無拘那含牟尼佛, 南無迦葉佛. 第2張A面; 南無教主釋迦牟尼佛, 南無西方阿彌陀佛, 南無當來彌勒尊佛. 第2張B面; 空白](以上 卷1 卷頭).

張數: 109張; 卷6(25), 卷7(24), 卷8(15), 卷9(22張), 卷10(21), 跋文(2).

[贊文]: 彌陀懺讚; 極樂居士王慶之集淨土因緣爲懺文 … 奉政大夫翰林修撰同知制誥趙秉文(1159~1232)撰(以上 卷1 卷頭).

[序文]: 彌陀懺序; 天地之中凡有血氣皆有鬪心 … 崇慶二年(1213)中春望日序 儒林郎應奉翰林文字同知制誥兼夔王府文學記室參軍武騎尉賜緋魚袋李純甫(1177~1223)撰(以上 卷1 卷頭).

墨書: 音讀口訣(全體面).

內 容：-卷6；禮懺罪章第六，發善提心第七，音義，-卷7；發願往生第八，-卷8；求生行門第九，音義，-卷9；求生行門之餘，總為禮佛第十，音義，-卷10；自慶第十一，普皆迴向第十二，囑累流通第十三，音義，-卷尾；跋文(學祖)。

跋 文：維成化十九年(1483, 癸卯, 成宗 14)春二月我」大行大王大妃殿下身纏宿恙數載」不豫靈藥無效諸醫拱手不獲已而乃」行溫陽溫泉疾彌留越三月晦日」奄棄宮壺于」行殿我」仁粹王大妃侍側慟悼哀傷凡追悼之」方靡所不舉於是損私財願成法華經」大彌陀懺六經地藏等經各三十三部」又畫成靈山會圖西方會圖藥師會圖」千手觀音地藏十王幀於五六七之間」點眼披讀於彌智山龍門寺而薦拔」冥遊恭惟我」大行大王大妃殿下」聖知天縱拔」聖主於襁褓之中拯蒼生於危疑之際中外」又安人樂太平」德加於人」公著於國」歸政以來退處深宮禮念自娛而竟日閑」閑為善為樂而」率下慈仁及其」昇遐之日雖飯婦樵夫如喪考妣功德之盛」雖三代聖后無以加焉至於」臨終禮念之力既專淨土之業已成安然」陟遐如入禪之如是而較不費追修已登樂」邦然我」仁粹王大妃殿下」念莫極哀痛何窮幽明路隔苦樂安知耳」目不接難遣猶疑所以敷演一乘展開」禮懺仗諸佛之提携承地藏之救苦仰」薦」仙遊以報」劬勞莫大之恩嗚呼至哉成化十九年癸」卯四月日山人臣學祖謹跋(初鑄甲寅字)。

[原跋]: [成化十年(1474, 甲午, 成宗 5)秋八月有日我」大王大妃殿下懿旨于臣若曰惟我」祖宗列聖之靈昭明于天陰翊後人克至」今休其在予苟不事事曷所以報我」前寧王我」前寧王其肯曰我有後人弼我不丕基嗚」呼我」世宗莊憲大王」昭憲王后則予婦事之」世祖惠莊大王則予配事之」懿敬大王」睿宗大王則予子育之曷敢忘于懷今」恭惠王后韓氏新赴玄宮此予所以仰追」先世俯念于今罔或須臾之暫捨間惟慈」悲三昧懺與夫彌陀懺實昔開土依」佛遺教撰輯成書行之當時顯有明徵其」板牽之行于世者字母已剝模子不」端命知中樞府事成任更楷鏤梓傳」布中外庶幾因茲勝締仰答」先王先后罔極於萬一今已告訖爾其跋」之臣聞釋氏之有懺法猶吾儒之有」改過盖人不能以無過過而能悔悔」而能改則善矣經曰衆生除舊嘗即」入諸佛位此之謂也今我」大王大妃殿下欲薦」先王先后冥祐首刊是懺將與微塵刹土」衆生捨邪歸正改惡從善盖不以無」過為貴以改過為重此即」大菩薩慈悲廣大四弘願之至德也」先王先后所以登極樂而證涅槃者此其」徑之敷純誠佐理功臣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永山府院君臣金守」溫奉教謹跋]<보물 제949호 및 보물 제1144호 卷10 末尾>。

[原施]: [主上殿下 貞懿公主 懿淑公主 明淑公主」仁粹王妃韓氏 崇壽公主 貴人朴氏 淑儀權氏」仁惠王大妃韓氏 淑儀愼氏 淑儀崔氏 淑儀李氏」淑儀尹氏 淑儀尹氏 淑儀尹氏 永嘉府夫人」申氏 帶方府夫人宋氏 祥原府夫人朴氏 林」川郡夫人金氏 德陽郡夫人盧氏 金堤郡夫人」崔氏 吉安縣主李氏 奉保夫人金氏 奉保夫」人白氏 貞夫人許氏 尙儀曹氏 尙服崔氏」尙宮金氏 尙工方氏 宮正

洪氏 宮正尹氏」/ 宮正趙氏 宮正金氏 尙工河氏 典藥梁氏」典飾李氏 金氏斤非 朴氏寶臺 周氏重德」金氏萬德 金氏頓田 崔氏葵花 高氏大平」崔氏丹之 朴氏玉今 朴氏從智 洪氏儉德」玄氏岔同 金氏梨花 尹氏貴非 李氏惠宜」洪氏智牛 金氏寶背 趙氏丕今 金氏延生」金氏芷芝 吳氏曹籠 姜氏大耳 朴氏波獨」張氏莫非 趙氏小今 車氏微塵 鄭氏丁香」金氏今伊 金氏水德 鄭氏銀金 朴氏內隱非」李氏若今 韓氏六月 慧覺尊者信眉 學悅」學祖 月山大君婷 齊安大君瑜 德源君曙」昌原君晟 南川君疇 清安君嶸 澮原君崢」河城府院君鄭顯祖 崇德大夫儀賓洪常 西平」君韓繼禧 中樞具壽永 洪加伊 具椿壽」監役內需司別坐扈從實 掖庭署司案白守和」/ 內需司典貨朴揚春 唱准別監金終萬 畫員白」終麟 李長孫 刻字權頓一 張莫同 李永山」全祿同 高末終 崔得山 金貴孫 李長孫」禹仁守 洪寶千 木手劉山石 金貴山 鍊板」金尹生 崔末中 冶匠山守 注匠石山 豆伊」金 刀子匠周金萬 印出匠俞實仇知 漆匠高」未羅 金無其只」<보물 제949호 및 보물 제1144호 卷10 末尾>.

所藏歷: 1998년 7월 경에 대구광역시 소재의 성심사 이○○(법호 일월, 1999년 3월 경 입적)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번 길○○-123(덕포동 2102번길) 소재의 仙光寺 주지 高○○(高○○)에게 기증된 유물이라 함<소장 경위서 참간>.

現 狀: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良好한 편이나, 전후의 표지와 내지 및 철사는 후대의 수리·개장을 거친 듯하며 본문 일부에는 습기·얼룩의 흔적과 함께 훼손·마멸된 곳이 없지 않다.

既指定: 同一版: ①국립중앙박물관(보물, 10권 2책, 완질, 1988), ②목아불교박물관(보물, 권6~10 1책, 1992), ③김○○(보물, 권3·4·7·8 1책, 1993), ④불갑사(보물, 권6~10 1책, 2006), ⑤고불사(보물, 권1~5 1책, 2021).

翻刻版: 직지사(보물, 권6~10 1책).

高麗版: 계명대학교도서관(1376년판, 보물, 권7~10 1책).

<現狀>

釜山廣域市 仙光寺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의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良好한 편이나, 전후의 표지와 내지 및 철사는 후대의 수리·개장을 거친 듯하며 본문 일부에는 습기·얼룩의 흔적과 함께 훼손·마멸된 곳이 없지 않다.

○ 내용 및 특징

懺法은 讀經을 통해서 罪를 懺悔하는 佛敎 儀式이며, 西方 極樂淨土의 阿彌陀佛을 대상으로 삼는 彌陀懺法이다. 불교를 신앙하는 자라면 누구나 서방 극락정토로의 왕생을 기원하는 바라 일찍부터 이를 신앙하는 자들이 많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크게 성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禮念彌陀道場懺法』은 阿彌陀佛께 지극한 마음으로 禮拜하고 모든 罪業을 참회하며 菩提心을 내어 極樂往生을 기원하는 信者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빌며 참회하고 염불할 때 사용되는 說法文·懺悔文·念佛文·祈願文 등에 해당하는 「歸依西方三寶」·「決疑生信」·「引教比證」·「往生傳錄」·「極樂莊嚴」·「禮懺罪障」·「發菩提心」·「發願往生」·「求生行門」·「總爲禮佛」·「自慶」·「普皆迴向」·「囑累流通」 등 13편의 의례 절차가 수록된 10卷本の 불교 의식집이다. 『禮念彌陀道場懺法』은 ‘『彌陀懺』’으로 약칭되기도 하며, ‘『淨土文』’이라 불리기도 한다.

『禮念彌陀道場懺法』의 集錄子인 王子成(?~?)은 ‘王慶之’라고도 하고 號는 ‘極樂居士’이며, 그의 生沒年과 行蹟은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바 없다. 다만 그는 金·元朝의 인물로 당시를 末法의 시대로 규정하고 淨土往生을 發願하면서 念佛과 懺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禮念彌陀道場懺法』이 우리나라로 전래된 뒤 가장 일찍 開刊된 版本은 고려 우왕 2년(1376)에 고려의 승려 慧朗(?~?) 등이 간행한 판본이며, 이 판본의 4권 1책(권7~10)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碧梧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禮念彌陀道場懺法』의 朝鮮朝 版本은 성종 5년(1474)의 刊經都監版, 연산군 9년(1503)의 海印寺版, 중종 37년(1542)의 石頭寺版, 선조 5년(1572)의 毗盧寺版, 선조 9년(1576)의 甲寺版 등이 있다.

大韓佛敎法華宗 仙光寺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5권 1책)은 朝鮮朝 성종 5년(1474)에 世祖의 妃인 貞熹大王大妃의 발원으로 刊經都監에서 조성된 全 10卷 2冊의 王室版의 목판에서 成宗 14년(1483)에 印出된 後刷本인 듯하다.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의 表題는 ‘大彌陀懺經’(墨書)이고 卷頭題와 卷尾題는 ‘禮念彌陀道場懺法’이다.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의 版式의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郭은 세로 25.2cm 가로 18.4cm이며 界線이 있다. 每半葉의 行字數는 大字는 9行15字이고 小字는 雙行22字이다. 板口는 上下大黑口이며 版心의 魚尾는 上下下向黑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6.9cm 가로 23.1cm이고 紙質은 韓紙(楮紙)이며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後代에 改裝된 듯하다.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에는 卷6에는 「禮懺罪章第六」·「發善提心第七」·「音義」 등이 수록되어 있고 卷7에는 「發願往生第八」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8에는 「求生行門第九」·「音義」 등이 수록되어 있고 卷9에는 「求生行門之餘」·「總爲禮佛第十」·「音義」 등이 수록되어 있다. 卷10에는 「自慶第十一」·「普皆迴向第十二」·「囑累流通第十三」·「音義」·「跋文(學祖)」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의 내용 전반에는 墨書된 音讀口訣이 있다.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 권10의 末尾에는 成宗 14년(1483, 成化 19)에

初鑄甲寅字로 인출된 燈谷 學祖의 「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燈谷 學祖의 「跋文」은 다음과 같다.

성화 19년(1483, 성종 14) 봄 2월에 우리 大行大王大妃¹¹³⁾ 전하께서 여러 해 동안 宿患으로 옥체가 편안하시지 않아 靈藥을 써도 효과가 없고 醫官들도 손을 놓아 어쩔 도리가 없게 되자 마침내 濶陽濶泉으로 幸行하셨으나, 병환이 더욱 심해져서 3월 그믐일(30)을 지나면서는 行殿¹¹⁴⁾에서 갑자기 御酒¹¹⁵⁾까지도 끊으셨다. 우리 仁粹王大妃¹¹⁶⁾께서 곁에서 시중을 드시면서 애통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무릇 追悼¹¹⁷⁾할 만한 방도를 찾으셨으나 거행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이에 私財를 희사하여 「法華經」·「大彌陁懺」·「六經」·「地藏」 등의 경전을 각 33부씩 완성할 것을 서원하셨으며, 또한 「靈山會圖」·「西方會圖」·「藥師會圖」·「千手」·「觀音」·「地藏」·「十王」 등의 幀畫를 닷새·엿새·이레 동안에 완성하여 점안하시고 彌智山 龍門寺에서 경전을 독송하시면서 떠도는 영혼¹¹⁸⁾들을 천도¹¹⁹⁾하셨다.

공경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大行大王大妃 殿下의 성스러운 지혜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재질이며 聖主¹²⁰⁾의 기질은 襁褓에 싸여있을 때부터 빼어나셨던 분이래 蒼生들을 시름과 궁핍으로부터 구제하시고 중외¹²¹⁾를 평안하게 다스려¹²²⁾ 백성들이 태평을 즐기도록 하셨으며, 백성들에

113) 大行大王大妃: 世祖妃 貞熹王后(1418~1483)를 지칭한다. 본관은 坡平이며 판중추부사 증 영의정 尹璠의 따님이다. 태종 18년(1418)에 洪州郡衙에서 태어나 세종 10년(1428)에 가례를 행하였다. 처음에 三韓國夫人에 수봉되었다가 후에 樂浪府夫人에 수봉되었다. 단종 즉위년(1452)에 首陽大君이 金宗瑞 등을 제거하는 거사 때 모의가 새어나가 孫碩孫 등이 만류하였으나, 수양대군이 증문에 이르자 정희왕후가 갑옷을 들어 입혀서 用兵을 결행하게 하였다. 세조 원년(1455)에 왕비에 책봉되고 세조 3년(1457)에 존호를 '慈聖'이라 하였으나, 예종 원년(1469)에는 '欽仁景德宣烈明順徽懿'의 존호가 더해지고 성종 2년(1471)에는 '元淑徽慎惠懿神憲'가 가상되었다. 세조가 薨去하자 예종이 19세의 나이로 등극하였는데, 재위 1년 2개월 만에 薨去하였다. 세조의 맏아들인 德宗(예종의 형)의 둘째 아들 잘산군(堧山君, 성종)이 예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그런데 성종의 즉위는 예종이 죽은 바로 그날 이루어졌다. 이는 祖宗朝에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예종의 아들 齊安大君이 어렸고 또 성종에게 형 月山大君이 있었는데도 바로 그날 즉위한 것은 정희왕후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 성종이 즉위할 때의 나이가 13세였으므로 정희왕후가 7년 동안이나 섭정하였다. 성종 14년(1483) 3월 30일에 온양의 행궁에서 薨去하니 수가 66세였다. 덕종·예종과 懿淑公主 등 2남 1녀를 두었다. 시호는 '慈聖欽仁景德宣烈明順元淑徽神惠懿神憲貞熹王后'이다. 능호는 光陵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 있다.

114) 行殿: 임금이 궁을 떠나 멀리 나들이할 때 머무르던 곳인 行宮을 의미하는 것이다.

115) 宮壺: 임금이 하사하는 御酒를 의미하는 것이다.

116) 仁粹王大妃: 德宗妃 昭惠王后(1437~1504)를 지칭한다. 세조의 장남인 덕종의 부인이자 성종의 생모이다. 세종 19년(1437)에 서원부원군 韓確의 막내딸로 출생하였다. 두 고모가 명조 황제의 후궁인 '麗妃'와 '恭愍夫人'이 되고 부친이 명조와 조선에서 매우 높은 지위와 부를 누리던 전성기에 성장하였다. 문종 즉위년(1450)에 수양대군(후의 세조)의 맏아들 桃源君 暉과 혼인하여 月山大君과 성종 및 明淑公主 등 2남 1녀를 두었다. 소혜왕후가 혼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르자 남편 도원군은 의경세자로 책봉되고 자신은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어 粹嬪이 되었다. 세조는 항상 '孝婦'라 칭찬하였으며, 효부라는 인장까지도 하사하였다. 그러나 세조 3년(1457)에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자 세자 자리는 시동생 海陽大君(예종)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예종이 즉위하고 14개월 만에 요절하자 아들 성종이 즉위하였다. 왕실의 제일 어른인 세조 비 정희왕후가 예종이 죽던 날 한명회의 사위이자 소혜왕후의 둘째 아들인 13살 잘산군(堧山君, 성종)을 차기의 왕으로 지명하였기 때문이다. 성종은 즉위 후 친아버지 의경세자를 '회간왕'·'의경왕'·'덕종'으로 추존하여 종묘에 모셨다. 따라서 소혜왕후도 '회간왕비'·'의경왕비'·'덕종비'·'인수왕대비'·'인수대비' 등으로 불렸다. 소혜왕후는 당시 부녀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서적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중국의 『열녀』·『소학』·『女教』·『明鑑』 등의 4가지 서적에서 부녀자들의 훈육에 요긴한 대목을 뽑아서 3권 4책으로 엮어 『내훈』을 편찬하였다. 『내훈』은 조선시대 여성상을 정립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내명부 및 양반 여성들을 훈육하는 기본 윤리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또 불교에도 관심이 깊어 혼인 직후 세조를 도와 불경 간행에 참여하였다. 寫經事業·寺刹重修·佛像造成·佛書刊行·木活字制作 등을 지원하고 度牒制의 폐지를 반대하였다.

117) 追悼: 亡者를 생각하여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18) 冥遊: 영혼이 떠돌아다니거나 저승에서 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19) 薦拔: 亡者의 넋을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 주어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120) 聖主: 聖君·聖人을 의미하는 것이다.

121) 中外: 나라의 안과 바깥, 곧 朝廷과 民間을 의미하는 것이다.

게 德을 베풀어 온 나라에 공평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셨다. 歸政¹²³⁾하신 후로는 깊숙한 궁전으로 물러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염불하는 것¹²⁴⁾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종일토록 여유작작하셨으며, 선한 일과 즐거운 일만 하시면서 아랫사람들을 자애롭고 인자하게 거느리셨다. 승하하신 날에는 비록 밥 짓는 아낙네나 나무꾼들까지도 부모님의 상을 치르듯 슬퍼하여 그 功德의 풍성함이 三代의 聖后라 하더라도 더할 나위가 없을 정도였다. 임종에 이르러서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염불하신 공력으로 淨土業¹²⁵⁾이 온전하여 벌써 멀고 높이 오르신 듯 평온하시며 禪定에 드신 듯하여, 이로 견주어 볼 때 굳이 追修¹²⁶⁾를 거행하지 않아도 이미 극락방토¹²⁷⁾에 오르신 듯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수왕대비 전하께서는 더없이 애통해하시며 어찌해야 苦樂을 여인 幽明路¹²⁸⁾를 궁구할 수 있는지, 어찌해야 이목을 끌지 않고도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지를 아시는 듯하셨다. 더욱이 의심스러운 것은 부연 설명하시듯 성불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¹²⁹⁾은 禮懺¹³⁰⁾을 열어 펼쳐 여러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 지장보살께서 고통을 구원하는 것을 계승하여 신선들이 노니는 곳으로 천도되어 부모님의 크나큰 은덕에도 보답할 수 있기를 우러러 기원하셨으니, 오호라! 지극하고 지극하신 배려가 아닐 수 없으심이어!

성화 19년(계묘, 1483, 성종 14) 4월 모일에 山人 臣 學祖¹³¹⁾는 삼가 발문을 씁니다.¹³²⁾

이상의 燈谷 學祖의 「발문」을 통하여 볼 때,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은

-
- 122) 父安: 평안하게 다스려진 太平을 의미하는 것이다.
 123) 歸政: 垂簾聽政을 하다가 임금에게 정권을 되돌려주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124) 禮念: 부처 앞에 예배하고 염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25) 淨土業: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청정한 修行業을 의미하는 것이다.
 126) 追修: 亡者의 닢의 괴로움을 덜고 명복을 축원하려고 善根福德을 닦아 그 공덕을 회향하는 것으로, 보통 49일까지는 매 7일마다 그 뒤에는 백일과 기일에 불사를 베푼다.
 127) 樂邦: 서방의 극락세계·정토세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128) 幽明路: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이승과 죽어서 가는 저승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129) 一乘: 成佛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130) 禮懺: 부처님이나 보살에게 예배하고 죄를 참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31) 學祖(?~?): 俗姓은 金氏이고 본관은 安東이며, 호는 燈谷·黃岳山人 등이고 부친은 金係權이다. 信眉·學悅 등과 함께 禪宗의 승려로서 세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여러 고승과 함께 많은 佛經을 정음으로 번역·간행하였다. 학덕이 뛰어난 당대의 명승이었으며 雄文巨筆의 문호로 칭송되었다. 왕실의 귀의를 받아 세조 이후 중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불사를 일으켰다. 세조 10년(1464)에 俗離山 福泉寺에서 임금을 모시고 信眉·瘡熱 등과 함께 大法會를 열었다. 세조 13년(1467)에 왕명으로 금강산 楡岾寺를 중창하고 성종 19년(1488)에 仁粹大妃의 명으로 海印寺 중수 및 大藏經板堂을 중창하였다. 연산군 6년(1500)에 왕비의 명으로 해인사의 대장경 3부를 刊印하고 그 跋文을 지었으며, 중종 15년(1520)에 왕명으로 다시 해인사 대장경 1부를 刊印하였다. 그가 정음으로 번역한 佛典으로는 『地藏經諺解』가 초기에 것으로 추정되며, 수양대군에 의하여 완성된 『金剛經三家解諺解』를 慈聖大妃의 명에 따라 교정하고 印出하였다. 한편, 성종 7년(1476)에는 『千手經』을 번역하고 교정하였으며, 성종 13년(1482)에는 세종조부터 시작되었다가 중단된 『證道歌南明繼頌』을 자성대비의 명으로 번역하여 완성하였다. 그 밖에도 인수대비의 명에 의하여 번역되고 그의 발문이 함께 첨부되어 인출된 『五大眞言』·『佛頂心陀羅尼』·『眞言勸供』 등도 그의 번역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32) 王子成 集錄, 『禮念彌陀道場懺法』. 木版本. [漢城]: [刊經都監], [成宗 5(1474) 造成, 成宗 14(1483) 後刷本]. 卷10. 末尾.
 維成化十九年春二月 我大行大王大妃殿下 身纏宿恙數載不豫 靈藥無效諸醫拱手 不獲已而 乃行溫陽溫泉 疾彌留越三月 晦日 奄棄宮壺于行殿 我仁粹王大妃 侍側慟悼哀傷 凡追悼之方 靡所不舉 於是損私財 願成法華經·大彌陀懺·六經·地藏等經 各三十三部 又畫成靈山會圖·西方會圖·藥師會圖·千手·觀音·地藏·十王幀 於五六七之間點眼 披讀於彌智山龍門寺 而薦拔冥遊遊 恭惟我大行大王大妃殿下 聖知天縱 拔聖主於襁褓之中 拯蒼生於危疑之際 中外又安人樂太平 德加於人公著於國 歸政以來退處深宮 禮念自娛而竟日閑閑 爲善爲樂而率下慈仁 及其昇遐之日 雖飯糲樵夫如喪考妣 功德之盛 雖三代聖后無以加焉 至於臨終禮念之力 既專淨土之業 已成安然陟遐 如入禪之 如是而較 不費追修已登樂邦 然我仁粹王大妃殿下 念莫極哀痛 何窮幽明路隔苦樂 安知耳目不接難遣 猶疑所以敷演 一乘展開禮懺 仗諸佛之提携 承地藏之救苦 仰薦仙遊 以報劬勞 莫大之恩 嗚呼至哉. 成化十九年癸卯四月日 山人臣學祖 謹跋.

成宗 14년(1483) 3월에 貞熹大王大妃가 승하하자, 仁粹王大妃가 貞熹大王大妃의 천도를 위하여 「法華經」·「大彌陀懺」·「六經」·「地藏」 등의 경전을 각 33부씩 간행할 때, 이미 성종 5년(1474)에 貞熹大王大妃의 발원으로 刊經都監에서 조성되었던 王室版의 목판에서 印出해낸 後刷本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성종 5년(1474)에 貞熹大王大妃의 발원으로 刊經都監에서 조성된 王室版의 권10 말미에는 乖崖 金守溫의 「발문」과 「시주질」이 수록되어 있다.

乖崖 金守溫의 「발문」은 다음과 같다.

성화 10년(1474, 성종 5) 가을 8월 어느 날, 우리 대왕대비¹³³⁾ 전하께서 臣에게 聖旨를 내리시어, ‘생각건대, 우리 祖宗 列聖의 靈駕들께서는 하늘을 밝게 비추고 蔭德으로 후인을 도우심이 지극하셨건만 지금 계시지를 앎으니 내가 어떻게 섬길 수가 없구나. 圖像이라도 섬겨 그렇게나마 우리 前代의 寧王¹³⁴⁾들께 보답한다면 우리 전대의 寧王들께서도 옳다고 여겨 우리에게 후손이 있다고 하시며 국가의 기반을 튼튼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嗚呼라! 우리 世宗 莊憲大王과 昭憲王后는 내가 며느리로서 섬긴 분들이고, 世祖 惠莊大王은 내가 배필로서 섬긴 분이며, 懿敬大王과 睿宗大王은 내가 기른 아드님들이니, 어찌 감히 가슴 속에서 잊을 수 있겠는가. 이제 恭惠王后 韓氏¹³⁵⁾가 새로이 玄宮¹³⁶⁾으로 부임함에 이 일로 내가 새삼 지금도 굽어 살피며 잠시도 마음을 놓지 앎으시는 先祖들을 우러르고 추모하게 되는구나.

생각건대, 『慈悲三昧懺』¹³⁷⁾과 『彌陀懺』¹³⁸⁾은 진실로 옛날에 開士¹³⁹⁾들이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에 의하여 撰集한 책으로 그것을 刊行하였던 당시에 분명한 징험이 드러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세간에 떠도는 板本은 글자(字母)가 이미 닳고 字體도 단정하지 못하니, 知中樞府事 成任¹⁴⁰⁾에게 명하여 다시 板下本을 서사하게 하고 板木에 새겨 中外에 널리 유포하도록 하라.

133) 大王大妃는 世祖妃 貞熹王后(1418~1483)를 지칭한다. 세조가 薨去하고 睿宗이 19세의 나이로 왕위에 등극하자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을 하였으며, 예종이 재위 1년 2개월 만에 薨去하자 어린 손자 成宗을 즉위시켜 成年이 되기까지 섭정하였다.

134) 寧王은 천하를 편안하게 잘 다스린 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135) 恭惠王后 韓氏(1456~1474)는 권신 한명회의 딸로 성종의 正妃로서 1469년에 왕비로 책봉되었으나 책봉된 지 5년 만에 슬하에 자식 없이 19살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136) 玄宮은 저승의 궁궐이며, ‘현궁으로 부임하였다’는 것은 승하를 의미하는 것이다.

137) 『慈悲三昧懺』은 『慈悲道場懺法』을 지칭하는 것이다.

138) 『彌陀懺』은 『禮念彌陀道場懺法』을 지칭하는 것이다.

139) 開士는 正道를 열어 중생을 인도하는 士夫를 의미하며, 高僧의 칭호로도 사용된다.

140) 成任(1421~1484)은 조선조 전기의 문신으로 本貫은 昌寧이고 자는 重卿이며 호는 逸齋·阿齋 등이고 諡號는 文安이다. 증조부는 成石因이고 조부는 成揜이고 부친은 成念祖이다. 세조 20년(1438)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세조 29년(1447)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에 제수되었다. 곧이어 승정원 주서로 특진되었으며, 단종 원년(1453) 계유정란 때 세조를 도와 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그 뒤 예문관직제학을 거쳐 判軍器監事·判司宰監事를 역임하면서 『國朝寶鑑』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세조 3년(1457)에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하고 이듬해(1458) 첨지중추원사로서 당상관에 올랐다. 세조 5년(1459)에 병조참의로 옮겼다가 곧 승정원으로 옮겨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면서 동부승지에서 도승지에 올랐다. 세조 7년(1461) 세조의 특별한 신임으로 이조참판에 제수되어 인사행정과 함께 樂學都監提調를 겸하여 음률의 정비에 힘썼다. 回奏使 부사로 명조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듬해 공조참판으로 옮겼다가 중추원부사를 역임하였다. 세조 10년(1464) 전라도 관찰사로 나가서 민정과 군정을 다스리며 사냥을 즐기다가 의금부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내직으로 옮겨 형조참판·仁順府尹을 역임하며 『經國大典』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세조 12년(1466) 拔英試에 을과로 급제하여 형조판서에 올라 지중추부사·지의금부사를 겸하고 사법행정에 힘썼다. 곧 이조판서로 옮겨 인사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인사행정에 기여하였으나, 인사 부정이 있다고 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예종 원년(1469) 親喪으로 사임하였다가 성종 2년(1471)에 공조판서로 다시 부임하여 이듬해 明朝 황태자 冊封使로서 연경에 다녀왔다. 그 뒤 申叔舟의 추천으로 성균관에서 후진 양성에 이바지하였다. 이어 지중추부사·개성부유수를 역임하고 성종 13년(1482)에 좌참찬에 올랐으나 병으로 사임하고 지중추부사로 재직

이런 훌륭한 인연을 맺어 우리러 先代의 왕과 왕후들의 끝없는 은혜에 萬分之一이나마 보답하기를 기대하니, 지금 한 말들을 바탕으로 跋文으로 쓰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臣은 불교에 懺法이 있는 것은 우리 儒家에 허물을 고침이 있는 것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대개 사람이란 허물이 없을 수 없으니,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뉘우칠 수 있고 뉘우치고서 고칠 수 있다면 훌륭한 것입니다. 經典에서 ‘중생이 옛 허물을 없애면 곧바로 모든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간다.’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대왕대비 전하께서 幽冥界에서 도우시는 선대의 왕과 왕후들을 천도하시고자 가장 먼저 이 懺法을 간행하여 장차 작은 먼지처럼 수없는 國土의 衆生들과 더불어 샅됨을 버리고 바름으로 돌아가고 악을 고쳐 선을 따르고자 하시는 것은 아마도 허물이 없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허물을 고치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까닭일 것이니, 이것이 곧 大菩薩의 자비요 넓고 큰 四弘誓願의 지극한 덕입니다. 선대의 왕과 왕후들께서 극락세계로 올라가 涅槃을 證得하시는 데에는 이것이 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순성좌리공신 보국승록대부 영중추부사 영산부원군 臣 金守溫¹⁴¹)은 敎勅을 받들어 삼가 발문을 씁니다.¹⁴²⁾

이상의 金守溫의 「跋文」을 통하여 볼 때, 성종 비인 恭惠王后 韓氏가 승하하자 명복을 빌고 아울러 먼저 薨去한 世宗, 昭憲王后, 世祖, 懿敬王, 睿宗 등 先世의 왕과 왕비에 대한 추앙의 정을 잊을 수 없어 陰德을 기리고 명복을 빌기 위하여,

중 병사하였다. 성품이 활달하고 식견이 풍부하며 글씨와 시문이 뛰어났다. 松雪體의 대가로 해서·행서를 특히 잘 썼으며, 글씨로는 「圓覺寺碑」·「韓繼美墓碑」·「崔恒神道碑」 등이 있고 경복궁 殿門의 편액과 왕실의 寫經 등 국가적 書寫를 많이 하였다. 시문에도 능하여 율시에 일가를 이루었다. 일찍이 중국의 『太平廣記』를 모방하여 고급의 異聞을 수집하여 『太平通載』를 간행하였다. 문집으로 『安齋集』이 있다.

141) 金守溫(1410~1481)은 조선조 전기의 문신으로 本貫은 永同이고 字는 文良이며, 號는 乖崖·拭疣 등이고 諡號는 文平이다. 부친은 金訓이다. 李穡의 제자인 柳方善에게 학문을 배웠다. 세종 20년(1438)에 진사과에 급제하고 세종 23년(1441)에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正字가 되었으나 곧 세종의 특명으로 集賢殿學士가 되었다. 세종 28년(1446)에 副司直이 되고 이어서 訓練院主簿·承文院郊理·兵曹正郎 등을 거쳐 문종 1년(1451)에 典農司少尹을 역임하고 이듬해(1452) 知榮川郡事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세조 3년(1457)에 司藝로서 文科重試에 2등으로 급제하여 僉知中樞府事가 되고 이듬해(1458) 同知中樞府事에 올라 正朝副使로 명조에 다녀왔다. 세조 5년(1459)에 漢城府尹을 역임하고 이듬해 尙州牧使를 역임하였으며, 세조 10년(1464)에 知中樞府事·工曹判書를 역임하였다. 세조 12년(1466)에 拔英試와 登俊試에 모두 장원하여 判中樞府事에 오르고 쌀 20석이 하사되었는데, 文武科의 장원에게 쌀을 하사하는 것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이어서 호조판서를 거쳐 성종 즉위년(1469)에 輔國崇祿大夫에 오르고 성종 2년(1471)에 佐理功臣 4등에 책록되어 永山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성종 5년(1474)에 領中樞府事를 역임하였다. 세종과 세조의 신임을 받은 승려이자 만형인 信眉의 영향으로 佛敎에 깊은 지식을 가졌으며, 成三問·申叔舟 등과 한글편찬과 翻譯事業에도 공헌하고 佛經에 통달하고 諸子百家·六經에 해박하여 뒤에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특히, 詩文에 뛰어나 明朝使臣으로 왔던 한림 陳鑑과 「喜晴賦」로써 화답한 내용은 明朝에까지 알려졌다. 그리고 成三問·申叔舟·李石亨 등 당대의 석학들과 교류하며 文名을 다투었다. 『治平要覽』·『醫方類聚』 등의 편찬과 『釋迦譜』의 增修 및 『明皇誠鑑』·『金剛經』 등의 번역과 四書五經의 口訣에 참여하였으며, 「福泉寺記」·「道成庵記」·「上元寺重創記」·「如來現相記」·「圓覺寺碑銘」 등 佛家와 관련된 글을 많이 남김으로써 성종조에는 儒臣들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拭疣集』이 있다.

142) 王子成 集錄, 『禮念彌陀道場懺法』. 木版本. [漢城]: [刊經都監], [成宗 5(1474) 造成, 後刷本]. 卷10. 末尾.
成化十年(1474, 성종 5) 秋八月有日 我大王大妃殿下 懿旨于臣 若曰 惟我祖宗列聖之靈 昭明于天 陰翊後人克至 今休其在 予苟不事 事曷所以報 我前寧王 我前寧王 其肯曰 我有後人 弼我丕丕基 嗚呼 我世宗莊憲大王 昭憲王后 則予婦事之 世祖惠莊大王 則予配事之 懿敬大王 睿宗大王 則予子育之 曷敢忘于懷 今恭惠王后韓氏 新赴玄宮 此予所以 仰追先世 俯念于今 罔或須臾之暫捨間 惟慈悲三昧懺 與夫彌陀懺 實昔開土 依佛遺教 撰輯成書 行之當時 顯有明徵 其板卒之行于 世者 字母已剝 模子不端 命知中樞府事成任 更楷鏤梓 傳布中外 庶幾因茲勝締 仰荅先王先后罔極於萬一 今已告訖 爾其跋之 臣聞 釋氏之有懺法 猶吾儒之有改過 蓋人不能以無過 過而能悔 悔而能改 則善矣 經曰 衆生除舊善 卽入諸佛位 此之謂也 今我大王大妃殿下 欲薦先王先后冥祐 首刊是懺 將與微塵刹土衆生 捨邪歸正 改惡從善 蓋不以無過爲貴 以改過爲重 此卽大菩薩慈悲 廣大四弘願之至德也 先王先后 所以登極樂 而證涅槃者 此其徑之歟 純誠佐理功臣 輔國崇祿大夫 領中樞府事 永山府院君臣金守溫 奉教謹跋.

당시 知中樞府事 成任(1421~1484)에게 명하여 『慈悲道場懺法』과 『禮念彌陀道場懺法』의 板下本(登梓本)을 다시 쓰게 하여 板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권10 末尾의 「施主秩」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주상전하, 정의공주, 의숙공주, 명숙공주, 인수왕비한씨, 승수공주, 귀인박씨, 숙의권씨, 인혜왕대비한씨, 숙의신씨, 숙의최씨, 숙의이씨, 숙의윤씨, 숙의윤씨, 숙의윤씨, 영가부부인신씨, 대방부부인송씨, 상원부부인박씨, 임천군부인김씨, 덕양군부인노씨, 김제군부인최씨, 길안현주이씨, 봉보부인김씨, 봉보부인백씨, 정부인허씨, 상의조씨, 상복최씨, 상궁김씨, 상궁방씨, 궁정홍씨, 궁정윤씨, 궁정조씨, 궁정김씨, 상공하씨, 전약양씨, 전식이씨, 김씨근비, 박씨보대, 주씨중덕, 김씨만덕, 김씨돈진, 최씨규화, 고씨대평, 최씨단지, 박씨옥금, 박씨종지, 홍씨검덕, 현씨갯동, 김씨이화, 윤씨귀비, 이씨혜의, 홍씨지우, 김씨보배 조씨돌금, 김씨연생, 김씨지지, 오씨조룡, 강씨대이, 박씨과득, 장씨막비, 조씨소금, 차씨미진, 정씨정향, 김씨금이, 김씨수덕, 정씨은금, 박씨내은비, 이씨약금, 한씨유월, 해각존자신미, 학열, 학조, 월산대군정, 제안대군현, 덕원군서, 창원군성, 남천군쟁, 청안군영, 회원군쟁, 하성부원군정현조, 송덕대부의빈홍상, 서평군한계희, 중추구수영, 홍가이, 구춘수, 감역내수사별좌화중실, 액정서사안백수화, 내수사전화박양춘, 창준별감김종만, 畫員 백종린, 이장손, 刻字 권돈일, 장막동, 이영산, 전록동, 고말중, 최득산, 김귀손, 이장손, 우인수, 홍보천, 木手 유산석, 김귀산, 鍊板 김윤생, 최말중, 冶匠 산수, 注匠 석산, 두이금, 刀子匠 주금만, 印出匠 유실구지, 漆匠 고미라, 김무기지.¹⁴³⁾

이상의 「施主秩」을 통하여 볼 때, 왕실의 仁粹大妃·仁惠大妃를 비롯하여 公主·淑儀·尙宮 등 內命婦와 月山大君·齊安大君 등의 종친들과 信眉·學悅·學祖 등 당시 고승들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어서 刊行秩에는 監役·畫員·刻字·木手·鍊板·冶匠·注匠·刀子·印出匠·漆匠 등 판각과 印出에 종사한 장인들의 이름이 모두 나열되어 있어 왕실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치밀하게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卷頭의 과거·현재·미래 三世佛의 圖像은 화원 白終麟과 李長孫이 그린 작품으로 연대와 작가가 확실한 조선조 초기의 판화작품이며, 刻字에 참여한 權頓一·張莫同·李永山 등은 당시의 일류 刻手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成宗 14년(1483)에 간행된 선광사 소장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은 성종 5년(1474)에 刊經都監에서 조성된 王室版의 원래 목판에서 권말에 있었던

143) 王子成 集錄, 『禮念彌陀道場懺法』. 木版本. [漢城]: [刊經都監], [成宗 5(1474) 造成, 後刷本]. 卷10. 末尾.
 主上殿下 貞懿公主 懿淑公主 明淑公主 仁粹王妃韓氏 崇壽公主 貴人朴氏 淑儀權氏 仁惠王大妃韓氏 淑儀愼氏 淑儀崔氏 淑儀李氏 淑儀尹氏 淑儀尹氏 淑儀尹氏 永嘉府夫人申氏 帶方府夫人宋氏 祥原府夫人朴氏 林川郡夫人金氏 德陽郡夫人盧氏 金堤郡夫人崔氏 吉安縣主李氏 奉保夫人金氏 奉保夫人白氏 貞夫人許氏 尙儀曹氏 尙服崔氏 尙宮金氏 尙工方氏 宮正洪氏 宮正尹氏 宮正趙氏 宮正金氏 尙工河氏 典樂梁氏 典飾李氏 金氏斤非 朴氏寶臺 周氏重德 金氏萬德 金氏頓田 崔氏葵花 高氏大平 崔氏丹之 朴氏玉今 朴氏從智 洪氏儉德 玄氏龔同 金氏梨花 尹氏貴非 李氏惠宜 洪氏智牛 金氏寶背 趙氏丕今 金氏延生 金氏芷芝 吳氏曹籠 姜氏大耳 朴氏波獨 張氏莫非 趙氏小今 車氏微塵 鄭氏丁香 金氏今伊 金氏水德 鄭氏銀金 朴氏內隱非 李氏若今 韓氏六月 慧覺尊者信眉 學悅 學祖 月山大君婷 齊安大君瑁 德源君曙 昌原君晟 南川君峭 淸安君嶸 滄原君崢 河城府院君鄭顯祖 崇德大夫儀賓洪常 西平君韓繼禧 中樞具壽永 洪加伊 具椿壽 監役內需司別坐扈從實 掖庭署司案白守和 內需司典貨朴揚春 唱准別監金終萬 畫員 白終麟 李長孫 刻字 權頓一 張莫同 李永山 全祿同 高末終 崔得山 金貴孫 李長孫 禹仁守 洪寶千 木手 劉山石 金貴山 鍊板 金尹生 崔末中 冶匠 山守 注匠 石山 豆伊 金 刀子匠 周金萬 印出匠 俞實仇知 漆匠 高末羅 金無其只.

과에 김수온의 「발문」과 「시주질」이 초주갑인자로 인출된 학조의 「발문」으로 대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禮念彌陀道場懺法』의 판본은 우왕 2년(1376)의 高麗版을 비롯하여 성종 5년(1474)의 刊經都監版, 연산군 9년(1503)의 海印寺版, 중종 37년(1542)의 石頭寺版, 선조 5년(1572)의 毗盧寺版, 선조 9년(1576)의 甲寺版 등이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임진왜란 이전의 『禮念彌陀道場懺法』의 版種과 文化財 指定 現況은 [표1]과 같다.

<표1. 『禮念彌陀道場懺法』의 版種과 文化財 指定 現況>

番號	版種	所藏處	卷冊數	文化財 指定	備考
1	高麗版 (1376) (우왕 2)	계명대학교도서관	4권 1책(권7~10)	보물	跋文: 朴免妥 施主: 韓仲禮 等
2	刊經都監版 (1474) (성종 5)	국립중앙박물관	10권 2책(완질)	보물	跋文: 金守溫
		목아불교박물관	5권 1책(권6~10)	보물	
		대전 김○○	4권 2책(권3·4/7·8)	보물	
		영광 불갑사	5권 1책(권6~10)	보물	
		고려대학교도서관	10권 2책(완질)	비지정(晩松 貴394A)	
		기장 고불사	5권 1책(권1~5)	보물	
		부산 선광사	5권 1책(권6~10)	指定申請本	
3	海印寺版 (1503) (연산 9)	김천 직지사	5권 1책(권6~10)	보물	刊經都監版(1474) 重刊版. ·跋文: 弘治十六年癸亥暮春 上澣直指寺老衲燈谷學祖七 十二歲書于東廂.
		서울 정암사	10권 2책(완질)	서울유형	
		양주 육지장사	10권 2책(완질)	경기유형	
		청주고인쇄박물관	5권 1책(권1~5)	충북유형	
		교양 원각사	10권 2책(완질)	비지정	
		동국대학교도서관	5권 1책(권1~5)	비지정	
		부산 청량사	5권 1책(권6~10)	부산문자	
4	石頭寺版 (1542) (중종 37)	고려대학교도서관	5권 1책(권6~10)	비지정(晩松 貴394)	跋: 信玄敬跋. 刊字秩: 學宗. 刊記: 嘉靖二十一年閏五月 日黃海道兎山地鶴峰山石頭 寺開板.
5	毗盧寺版 (1572) (선조 5)	하남 성某(개인)	10권 2책(완질)	경기문자	刊記: 隆慶六年壬申慶尙道 豐基地小白山毗盧寺開板.
		동국대학교도서관	5권 1책(권1~5)	비지정	
6	甲寺版 (1576) (선조 9)	창원 성덕암	1책	경남유형	跋文: 萬曆四年蒼龍丙子孟 秋丙申壬辰日龍城沙門默齋 謹跋. 刊記: 萬曆四年丙子五月日 忠淸道公州地鷄龍山甲士寺 開刊.
		양산 불광사	6권 1책(권5~10)	경남유형	
		원주고관화박물관	5권 1책(권1~5)	강원문자	
		고려대학교도서관	1책	비지정(六堂 貴106)	

『禮念彌陀道場懺法』의 가장 이른 개판본은 고려 우왕 2년(1376)에 慧朗 등이 간행한 판본으로 이 판본의 4권 1책(권7~10)이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碧梧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高麗版을 이어 開板된 朝鮮의 版本은 成宗 5년(1474)의 刊經都監版이 처음이며, 이는 王室의 주도하에 開板되어 일반 寺刹에는 널리 퍼지지 않았던 듯하다. 그 결과 連山君 9년(1503)에 海印寺에서는 刊經都監版을 底本으로 翻刻·重刊하였는데 이 經板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국보)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에 포함되어 있다.

선광사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은 成宗 5년(1474)에 造成된 刊經都監版의 목판에서 成宗 14년(1483)에 印出한 後刷本으로, 원래의 金守濫의 「跋文」과 「施主秩」은 成宗 14년(1483) 인출 당시의 초주갑인자로 인출된 학조의 「발문」으로 대체되어 있다. 그러나 刊經都監版은 王室發願版인 동시에 후일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간행되는 『禮念彌陀道場懺法』의 母本의 자료라는 점을 비롯하여 刊經都監版의 版本 양상과 조선조 전기의 印刷出版文化 연구에는 물론 佛敎學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이 비록 10권 2책 중 권6~10의 1책에 지나지 않으나 이미 同一 版本의 完本 혹은 缺本의 5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심지어 連山君 9년(1503)에 海印寺에서 翻刻된 판본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5권 1책, 김천 직지사 소장)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仙光寺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王子成 集錄, 『禮念彌陀道場懺法』. 木版本. [漢城] : [刊經都監], [成宗 5(1474) 造成, 成宗 14(1483) 後刷本]. 卷6~10. 仙光寺 所藏本.
- 王子成 集錄, 『禮念彌陀道場懺法』. 木版本. [漢城] : [刊經都監], [成宗 5(1474) 推定]. 卷1~5. 古佛寺 所藏本.
- 王子成 集錄, 『禮念彌陀道場懺法』. 木版本. [漢城] : [刊經都監], [成宗 5(1474) 造成, 後刷本]. 卷6~10. 總明寺 所藏本.
- 李仁榮 著, 『淸芬室書目』. 影印本. 서울특별시 : 寶庫社, 1993.
- 부산광역시장,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 부산광역시, 2022.
-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조사보고서」, 부산광역시, 2022.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동국대학교도서관: <http://lib.dongguk.edu>

-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https://east.skku.edu/#>
- 人名規範檢索: <https://authority.dila.edu.tw/person>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기 타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은 1998년 7월 경에 대구광역시 소재의 성심사 이○○(법호 ○○, 1999년 3월 경 입적)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번 길○○-123(덕포동 2102번길) 소재의 仙光寺 주지 고○○(高○○)에게 기증된 유물이라 한다<소장 경위서 참간>.

□

○ 현 상

<書誌事項>

禮念彌陀道場懺法, 卷6~10 / 王子成(?~?, 金·元朝) 集. -- 木版本. -- [漢城] : [刊經都監], [成宗 5(1474) 板刻], [成宗 14(1483) 印出].

5卷1冊 : 四周雙邊, 半郭 25.2×18.4cm, 有界, 半葉 9行15字 小字雙行22字, 上下大黑口, 上下下向黑魚尾, 35.9×23.1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表題: 大彌陀懺經(墨書).

卷頭題: 禮念彌陀道場懺法.

卷尾題: 禮念彌陀道場懺法.

版心題: 彌陀懺.

跋文: 維成化十九(1483, 癸卯, 成宗 14)年春二月 (중략) 成化十九年癸卯四月日山人臣學祖謹跋(初鑄甲寅字).

<현상>

조사본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는 1998년 7월 경 대구광역시 소재의 성심사 이○○(법호 ○○, 1999년 3월경 입적)에 의하여 仙光寺 주지 고○○(高○○)에게 기증된 유물이라 전한다. 조사본의 표지는 오래전 개장되어 고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물리적 손상이 있고 오염이 심하나 결락장은 없이 완전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예념미타도량참법(禮念彌陀道場懺法)』은 아미타불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모든 죄업을 참회하며 보리심(菩提心)을 내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집이다. 그 내용을 보면 책의 앞부분에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불(三世佛)이 명호(名號)와 함께 도상(圖像)이 묘사되었고, 미타참찬(彌陀懺讚), 미타참서(彌陀懺序)에 이어 본문에 해당하는 「귀의서방삼보(歸依西方三寶)」·「결의생신(決疑生信)」·「인교비증(引教比證)」·「왕생전록(往生傳錄)」·「극락장엄(極樂莊嚴)」·「예참죄장(禮懺罪障)」·「발보리심(發菩提心)」·「발원왕생(發願往生)」·「구생행문(求生行門)」·「총위예불(總爲禮佛)」·「자경(自慶)」·「보개회향(普皆迴向)」·「촉루유통(囑累流通)」 등 13편의 의례 절차가 수록되었다. 이 책은 『미타참(彌陀懺)』으로 약칭되기도 하며, 『정토문(淨土文)』이라 불리기도 한다.

『예념미타도량참법』을 결집한 왕자성(王子成, ?~?)은 왕경지(王慶之)라고도 하며 호는 극락거사(極樂居士)이다. 그의 생몰년과 행적은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바 없으나 당시를 말법의 시대로 규정하고 정토왕생을 발원하면서 염불(念佛)과 참법(懺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인물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가장 오랜 판본은 고려 우왕 2년(1376)에 고려의 승려 혜랑(慧朗) 등이 간행한 책이 전하는데, 권7~권10의 4권 1책본이다(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碧梧文庫 소장). 조선시대에는 성종 5년(1474)의 刊經都監版, 연산군 9년(1503)의 海印寺版, 중종 37년(1542)의 石頭寺版, 선조 5년(1572)의 毗盧寺版, 선조 9년(1576)의 甲寺版 등이 전해진다.

조사본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의 表題는 ‘大彌陀懺經’(墨書)이다. 卷頭題와 卷尾題는 ‘禮念彌陀道場懺法’이다.

책의 판식을 보면 邊欄은 四周雙邊으로 半郭은 세로 25.2cm 가로 18.4cm이며 界線이 있다. 每半葉의 行字數는 大字는 9行15字이고 小字는 雙行22字이다. 板口는 上下大黑口이며 版心の 魚尾는 上下下向黑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5.9cm 가로 23.1cm이고 紙質은 韓紙(楮紙)이며 裝訂은 五針眼訂法の 線裝이다.

책의 내용은 卷6에 「禮懺罪障」, 卷7에 「發菩提心」, 卷8에 「發願往生」, 卷9에 「求生行門」, 卷10에 「總爲禮佛」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 전체에 墨書된 口訣을 기록하였다.

조사본은 책의 권말에 보이는 成宗 14년(1483, 成化 19)에 初鑄甲寅字로 인출된 燈谷 學祖의 「跋文」을 통하여 간행 목적과 인출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화 19년(1483, 성종 14) 봄 2월에 우리 大行大王大妃¹⁴⁴⁾ 전하께서 여러 해 동안 宿患으로 옥체가 편안하지 않아 靈藥을 써도 효과가 없고 醫官들도 손을 놓아 어쩔 도리가 없게 되자 마침내 溫陽溫泉으로 幸行하셨으나, 병환이 더욱 심해져서 3월 그믐일(30)을 지나면서는 行殿에서 갑자기 御酒까지도 끊으셨다. 우리 仁粹王大妃¹⁴⁵⁾께서 곁에서 시중을 드시면서 애통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무릇 追悼할 만한 방도를 찾으셨으나 거행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이에 私財를 회사하여 「法華經」·「大彌陀懺」·「六經」·「地藏」 등의 경전을 각 33부씩 완성할 것을 서원하셨으며, 또한 「靈山會圖」·「西方會圖」·「藥師會圖」·「千手」·「觀音」·「地藏」·「十王」

144) 大行大王大妃: 世祖妃 貞熹王后(1418~1483)를 지칭한다. 본관은 坡平이며 관중주부사 증 영의정 尹璠의 따님이다. 태종 18년(1418)에 洪州郡衙에서 태어나 세종 10년(1428)에 가례를 행하였다. 처음에 三韓國夫人에 수봉되었다가 후에 樂浪府夫人에 수봉되었다. 단종 즉위년(1452)에 首陽大君이 金宗瑞 등을 제거하는 거사 때 모의가 새어나가 孫碩孫 등이 만류하였으나, 수양대군이 증문에 이르자 正희왕후가 갑옷을 들어 입혀서 用兵을 결행하게 하였다. 세조 원년(1455)에 왕비에 책봉되고 세조 3년(1457)에 존호를 '慈聖'이라 하였으나, 예종 원년(1469)에는 '欽仁景德宣烈明順徽懿'의 존호가 더해지고 성종 2년(1471)에는 '元淑徽愼惠懿神憲'가 가상되었다. 세조가 薨去하자 예종이 19세의 나이로 등극하였는데, 재위 1년 2개월 만에 薨去하였다. 세조의 맏아들인 德宗(예종의 형)의 둘째 아들 貞山君(貞山君, 성종)이 예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그런데 성종의 즉위는 예종이 죽은 바로 그날 이루어졌다. 이는 祖宗朝에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예종의 아들 齊安大君이 어렸고 또 성종에게 형 月山大君이 있었는데도 바로 그날 즉위한 것은 正희왕후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 성종이 즉위할 때의 나이가 13세였으므로 正희왕후가 7년 동안이나 섭정하였다. 성종 14년(1483) 3월 30일에 온양의 행궁에서 薨去하니 수가 66세였다. 덕종·예종과 懿淑公主 등 2남 1녀를 두었다. 시호는 '慈聖欽仁景德宣烈明順元淑徽神惠懿神憲貞熹王后'이다. 능호는 光陵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 있다.

145) 仁粹王大妃: 德宗妃 昭惠王后(1437~1504)를 지칭한다. 세조의 장남인 덕종의 부인이자 성종의 생모이다. 세종 19년(1437)에 서원부원군 韓確의 막내딸로 출생하였다. 두 고모가 명조 황제의 후궁인 '麗妃'와 '恭愼夫人'이 되고 부친이 명조와 조선에서 매우 높은 지위와 부를 누리던 전성기에 성장하였다. 문종 즉위년(1450)에 수양대군(후의 세조)의 맏아들 桃源君 暉과 혼인하여 月山大君과 성종 및 明淑公主 등 2남 1녀를 두었다. 소혜왕후가 혼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르자 남편 도원군은 의경세자로 책봉되고 자신은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어 粹嬪이 되었다. 세조는 항상 '孝婦'라 칭찬하였으며, 효부라는 인장까지도 하사하였다. 그러나 세조 3년(1457)에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자 세자 자리는 시동생 海陽大君(예종)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예종이 즉위하고 14개월 만에 요절하자 아들 성종이 즉위하였다. 왕실의 제일 어른인 세조 비 正희왕후가 예종이 죽던 날 한명회의 사위이자 소혜왕후의 둘째 아들인 13살 貞山君(貞山君, 성종)을 차기의 왕으로 지명하였기 때문이다. 성종은 즉위 후 친아버지 의경세자를 '회간왕'·'의경왕'·'덕종'으로 추존하여 종묘에 모셨다. 따라서 소혜왕후도 '회간왕비'·'의경왕비'·'덕종비'·'인수왕대비'·'인수대비' 등으로 불렸다. 소혜왕후는 당시 부녀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서적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중국의 『열녀』·『소학』·『女教』·『明鑑』 등의 4가지 서적에서 부녀자들의 훈육에 요긴한 대목을 뽑아서 3권 4책으로 엮어 『內訓』을 편찬하였다. 『내훈』은 조선시대 여성상을 정립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내명부 및 양반 여성들을 훈육하는 기본 윤리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또 불교에도 관심이 깊어 혼인 직후 세조를 도와 불경 간행에 참여하였다. 寫經事業·寺刹重修·佛像造成·佛書刊行·木活字制作 등을 지원하고 度牒制의 폐지를 반대하였다.

등의 幀畫를 닷새·엿새·이레 동안에 완성하여 점안하시고 彌智山 龍門寺에서 경전을 독송하시면서 떠도는 영혼들을 천도하셨다.

공경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大行大王大妃 殿下의 성스러운 지혜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재질이며 聖主¹⁴⁶⁾의 기질은 襁褓에 싸여있을 때부터 빼어나셨던 분이래 蒼生들을 시름과 궁핍으로부터 구제하시고 중외를 평안하게 다스려 백성들이 태평을 즐기도록 하셨으며, 백성들에게 德을 베풀어 온 나라에 공평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셨다. 歸政하신 후로는 깊숙한 궁전으로 물러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염불하는 것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종일토록 여유작작하셨으며, 선한 일과 즐거운 일만 하시면서 아랫사람들을 자애롭고 인자하게 거느리셨다. 승하하신 날에는 비록 밥 짓는 아낙네나 나무꾼들까지도 부모님의 상을 치르듯 슬퍼하여 그 功德의 풍성함이 三代의 聖后라 하더라도 더할 나위가 없을 정도였다. 임중에 이르러서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염불하신 공력으로 淨土業이 온전하여 벌써 멀고 높이 오르신 듯 평온하시며 禪定에 드신 듯하여, 이로 건주어 볼 때 굳이 追修를 거행하지 않아도 이미 극락방토에 오르신 듯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수왕대비 전하께서는 더없이 애통해하시며 어찌해야 苦樂을 여윈 幽明路를 궁구할 수 있는지, 어찌해야 이목을 끌지 않고도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지를 아시는 듯 하셨다. 더욱이 의심스러운 것은 부연 설명하시듯 성불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禮懺을 열어 펼쳐 여러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 지장보살께서 고통을 구원하는 것을 계승하여 신선들이 노니는 곳으로 천도되어 부모님의 크나큰 은덕에도 보답할 수 있기를 우러러 기원하셨으니, 오호라! 지극하고 지극하신 배려가 아닐 수 없으심이어!

성화 19년(계묘, 1483, 성종 14) 4월 모일에 山人 臣 學祖¹⁴⁷⁾는 삼가 발문을 씁니다.

(維成化十九年春二月 我大行大王大妃殿下 身纏宿恙數載不豫 靈藥無效諸醫拱手 不獲已而 乃行溫陽溫泉 疾彌留越三月晦日 奄棄宮壺于行殿 我仁粹王大妃 侍側慟悼哀傷 凡追悼之方 靡所不舉 於是損私財 願成法華經·大彌陀懺·六經·地藏等經 各三十三部 又畫成靈山會圖·西方會圖·藥師會圖·千手·觀音·地藏·十王幀 於五六七之間點眼 披讀於彌智山龍門寺 而薦拔冥遊遊 恭惟我大行大王大妃殿下 聖知天縱 拔聖主於襁褓之中 拯蒼生於危疑之際 中外又安人樂太平 德加於人公著於國 歸政以來退處深宮 禮念自娛而竟日閑閑 爲善爲樂而率下慈仁 及其昇遐之日 雖飯婦樵夫如喪考妣 功德之盛 雖三代聖后無以加焉 至於臨終禮念之力 既專淨玉之業 已成安然陟遐 如入禪芝 如是而較 不費追修已登樂邦 然我仁粹王大妃殿下 念莫極哀痛 何窮幽明路隔苦樂 安知耳目不接難遣 猶疑所以敷演 一乘展開禮懺 仗諸佛之提携 承地藏之救苦 仰薦仙遊 以報劬勞 莫大之思 嗚呼至哉 成化十九年癸卯四月日 山人臣學祖 謹跋。)

146) 聖主: 聖君·聖人을 의미하는 것이다.

147) 學祖(?~?): 俗姓은 金氏이고 본관은 安東이며, 호는 燈谷·黃岳山人 등이고 부친은 金係權이다. 信眉·學悅 등과 함께 禪宗의 승려로서 세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여러 고승과 함께 많은 佛經을 정음으로 번역·간행하였다. 학덕이 뛰어난 당대의 명승이었으며 雄文巨筆의 문호로 칭송되었다. 왕실의 귀의를 받아 세조 이후 중중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불사를 일으켰다. 세조 10년(1464)에 俗離山 福泉寺에서 임금을 모시고 信眉·瘡熱 등과 함께 大法會를 열었다. 세조 13년(1467)에 왕명으로 금강산 楡岾寺를 중창하고 성종 19년(1488)에 仁粹大妃의 명으로 海印寺 중수 및 大藏經板堂을 중창하였다. 연산군 6년(1500)에 왕비의 명으로 해인사의 대장경 3부를 刊印하고 그 跋文을 지었으며, 중종 15년(1520)에 왕명으로 다시 해인사 대장경 1부를 刊印하였다. 그가 정음으로 번역한 佛典으로는 『地藏經諺解』가 초기에 것으로 추정되며, 수양대군에 의하여 완성된 『金剛經三家解諺解』를 慈聖大妃의 명에 따라 교정하고 印出하였다. 한편, 성종 7년(1476)에는 『千手經』을 번역하고 교정하였으며, 성종 13년(1482)에는 세종조부터 시작되었다가 중단된 『證道歌南明繼頌』을 자성대비의 명으로 번역하여 완성하였다. 그 밖에도 인수대비의 명에 의하여 번역되고 그의 발문이 함께 첨부되어 인출된 『五大眞言』·『佛頂心陀羅尼』·『眞言勸供』 등도 그의 번역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學祖 跋文 / 成化十九年癸卯四月日 / 1483년 / 성종 14년>

곧 조사본 『예념미타도장참법』 권6-10은 成宗 14년(1483) 3월에 貞熹大王大妃가 승하하자, 仁粹王大妃가 貞熹大王大妃의 천도를 위하여 「法華經」·「大彌陀懺」·「六經」·「地藏」 등의 경전을 각 33부씩 간행할 때, 이미 성종 5년(1474)에 貞熹大王大妃의 발원으로 刊經都監에서 조성되었던 王室版의 목판에서 인출해낸 책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 지정사례

- 보물(1988.06.16.) / 『禮念彌陀道場懺法』 권1~10 / 성종 5년(1474) 판각 / 연산군 9년(1503) 간본 / 국립중앙박물관.
- 보물(1992.12.11.) /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 / 성종 5년(1474) 간본 / 목아불교박물관.
- 보물(1993.06.15.) / 『禮念彌陀道場懺法』 권 3~4, 7~8 / 성종 5년(1474) 간본 / 대전 김○○.
- 보물(2021.08.24.) / 『禮念彌陀道場懺法』 권1~5 / 성종 5년(1474) 판각, 인출 / 부산 고불사.
- 보물(1996.04.04.) /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 / 연산군 9년(1503) 간본 / 직지사.
- 보물(2001.08.03.) / 『禮念彌陀道場懺法』 권7~10 / 우왕 2년(1376) 간본 / 계명대학교.
- 보물(2006.04.28.) /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 / 성종 5년(1474) 판각 / 연산군 9년(1503) 간본 / 영광 불갑사.

□

○ 내용 및 특징

『禮念彌陀道場懺法』은 서방정토의 아미타불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참회하여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범회의 절차를 수록한 책으로 『미타참』, 『정토문』, 『참법』 등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전체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설법문과 참회문, 염불문, 기원문 등 모두 1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원(元)의 극락서사 왕자성(極樂居士 王子成)이 편찬하였다.

현존하고 있는 『禮念彌陀道場懺法』의 판본은 우왕 2년(1376)의 高麗版을 비롯하여 성종 5년(1474)의 刊經都監版, 연산군 9년(1503)의 海印寺版, 중종 37년(1542)의 石頭寺版, 선조 5년(1572)의 毗盧寺版, 선조 9년(1576)의 甲寺版 등이 있다.

본서는 성종 5년(1474)에 조성된 간경도감판으로 성종 14년(1483)에 인출한 후쇄본으로 보인다. 『예념미타도량참법』 간경도감 판본은 성종 비인 공혜왕후 한씨가 19세의 나이로 승하하자 그녀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먼저 승하한 세종, 소헌왕후, 세조, 덕종, 예종 등 선대의 국왕, 왕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세조 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가 당시 지중추부사 성임(成任)에게 명하여 목판으로 판각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본서의 제10권 말미에 있는 初鑄甲寅字로 인출된 燈谷 學祖의 「跋文」에 수록되어 있다.

維成化十九年春二月我
大行大王大妃殿下身纏宿恙數載
不豫靈藥無效諸醫拱手不獲已而乃
行溫陽溫泉疾彌留越三月晦日
奄棄宮壺于
行殿我
仁粹王大妃侍側慟悼哀傷凡追悼之
方靡所不舉於是損私財願成法華經
大彌陁懺六經地藏等經各三十三部
又畫成靈山會圖西方會圖藥師會圖
千手觀音地藏十王幀於五六七之間
點眼披讀於彌智山龍門寺而薦拔
冥遊恭惟我
大行大王大妃殿下
聖知天縱拔
聖主於襁褓之中拯蒼生於危疑之際中外

又安人樂太平
 德加於人
 公著於國
 歸政以來退處深宮禮念自娛而竟日閑
 閑爲善爲樂而
 率下慈仁及其
 昇遐之日雖飯婦樵夫如喪考妣功德之盛
 雖三代聖后無以加焉至於
 臨終禮念之力既專淨土之業已成安然
 陟遐如入禪芝如是而較不費追修己登樂
 邦然我
 仁粹王大妃殿下
 思念莫極哀痛何窮幽明路隔苦樂安知耳
 目不接難遣猶疑所以敷演一乘展開
 禮懺仗諸佛之提携承地藏之救苦仰
 薦
 仙遊以報
 劬勞莫大之恩嗚呼至哉成化十九年癸
 卯四月日山人臣學祖謹跋

學祖의 「발문」에는 본서가 成宗 14년(1483) 3월에 貞熹大王大妃가 승하하자, 仁粹王大妃가 貞熹大王大妃의 천도를 위해 「法華經」·「大彌陀懺」·「六經」·「地藏」 등의 경전을 각 33부씩 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종 5년(1474)에 貞熹大王大妃의 발원으로 刊經都監에서 조성되었던 목판의 후쇄본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종대의 왕실 불교서적의 간행상황과 초주갑인자로 인쇄된 인출정보 등은 금속활자 활용을 알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출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자료적인 희소가치가 있는 것이 인정된다.

현재 현존하고 있는 지정신청본과 동일판본들이 국가지정 또는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예념미타도량참법 간경도감판본 목록>

연번	서명	소장처	권책수	지정현황	비고
1	예념미타도량참법	국립중앙박물관	10권 2책(완질)	보물	跋文: 金守溫
2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목아불교박물관	5권 1책(권6~10)	보물	
3	예념미타도량참법 권3~4, 7~8	개인 소장	4권 2책(권3·4/7·8)	보물	
4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영광 불갑사	5권 1책(권6~10)	보물	
5	예념미타도량참법	고려대학교도서관	10권 2책(완질)	비지정	
6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	기장 고불사	5권 1책(권1~5)	보물	
7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거제 총명사	5권 1책(권6~10)	경남유형	
8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부산 선광사	5권 1책(권6~10)	비지정	

해당 목판의 인출본 가운데 일괄 지정을 포함하여 5종류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1종류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 가운데는 영본이 4종류이며, 1종류가 완질본이다. 그러나 이들 인출본은 인출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이다. 이에 비해 신청대상의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1책은 현재까지 확인된 8종류의 동일판본과 달리 인출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인출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현재까지 신청대상의 인출본에서 유일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자료적인 희소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정신청본인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은 전체적으로는 보존상태도 양호하고 인쇄상태도 매우 좋다. 표지와 내지, 철사 부분 등이 후대에 수리된 상태로 보이고 본문은 습기와 얼룩 등이 있고 마멸되고 훼손된 부분도 일부 확인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책의 상태가 원형의 훼손이 최소화된 것으로 보이고 인쇄상태도 매우 좋은 점이 주목된다.

○ 전자자료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한국고전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동국대학교도서관: <http://lib.dongguk.edu>

○ 기 타

본서의 소장 경위는 대한불교법화종 선광사의 주지 성문(고○○)이 1998년 대구 성심사의 ○○(이○○) 스님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 밝혔다. 기증 후 이듬해인 1999년 3월 경에 기증자가 사망하였다는 간략한 소장경위서를 제출하였다.

18.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禮念彌陀道場懺法 卷六~十)

가. 검토사항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3.5.22.)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9.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2015.10.29. 지정)
- 명 칭 :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禮念彌陀道場懺法 卷六~十)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총명사
- 소재지 : 경상남도 거제시 신부로4길 40, 총명사
- 수 량 : 5권 1책
- 규 격 : 35.0×23.7cm(半郭 24.2×18.5cm)
- 재 질 : 지(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改裝)
- 조성연대 : 1474년(조선 성종 5) 판각, 후인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指定 價値>

『禮念彌陀道場懺法』은 阿彌陀佛께 지극한 마음으로 禮拜하고 모든 罪業을 참회하며 菩提心을 내어 極樂往生을 기원하는 信者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빌며 참회하고 염불할 때 사용되는 說法文·懺悔文·念佛文·祈願文 등에 해당하는 「歸依西方三寶」·「決疑生信」·「引教比證」·「往生傳錄」·「極樂莊嚴」·「禮懺罪障」·「發菩提心」·「發願往生」·「求生行門」·「總爲禮佛」·「自慶」·「普皆迴向」·「囑累流通」 등 13편의 의례 절차가 수록된 10卷本の 불교 의식집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명사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5권 1책)은 조선조 성종 5년(1474)에 世祖의 妃인 貞熹大王大妃의 발원으로 刊經都監에서 造成된 朝鮮王室版의 後刷本이다.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의 「施主秩」은 刊經都監版의 「시주질」에 수정을 가하여 인출되어 있으나, 刊經都監版이 王室의 發願版인 동시에 후일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간행되는 『禮念彌陀道場懺法』의 母本의 자료라는 점을 비롯하여 刊經都監版의 版本 양상과 조선조 전기의 印刷出版文化 연구에는 물론 佛敎學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이 비록 10권 2책 중 권6~10의 1책에 지나지 않으나 이미 同一 版本의 完本 혹은 缺本의 5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심지어 연산군 9년(1503)에 海印寺에서 翻刻된 판본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5권 1책, 김천 직지사 소장)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總明寺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은 국가지정문화

재 보물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根據 基準>

대한불교조계종 총명사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과 동일한 판본이 현재 ①국립중앙박물관(보물, 10권 2책, 완질, 1988), ②목아불교박물관(보물, 권 6~10 1책, 1992), ③김○○(보물, 권3·4·7·8 1책, 1993), ④불갑사(보물, 권6~10 1책, 2006), ⑤고불사(보물, 권1~5 1책, 2021.)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5권 1책)은 조선조 성종 5년(1474)에 세조의 비인 정희대왕대비의 발원으로 간경도감에서 조성된 조선왕실판의 후쇄본이다.

조사본의 역사적 가치는 「施主秩」을 통하여 왕실의 仁粹大妃·仁惠大妃를 비롯하여 公主·淑儀·尙宮 등 內命婦와 月山大君·齊安大君 등의 종친들과 信眉·學悅·學祖 등 당시 고승들이 참여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고, 「刊行秩」을 통해서는 監役·畫員·刻字·木手·鍊板·冶匠·注匠·刀子·印出匠·漆匠 등 판각과 印出에 종사한 장인들의 이름이 모두 나열되어 있어 왕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적인 사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사본은 간경도감판의 「시주질」에 수정을 가하여 인출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같은 점은 刊經都監版의 版本 양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조사본이 전체 10권 2책 중 권6~10의 1책에 지나지 않으나 이미 동일 판본의 완본 혹은 결본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사본 보다도 후대로 판단되는 연산군 9년(1503)에 海印寺에서 翻刻된 판본(5권 1책, 김천 직지사 소장)도 이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사본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총명사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은 성종 5년(1474)에 작성된 김수온의 발문이 있어 1474년 造成된 刊經都監版으로 인경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施主秩」에 수정을 더하여 후대에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刊經都監版 『禮念彌陀道場懺法』은 이후 전국 각지에서 간행되는 『禮念彌陀道場懺法』의 母本이 되므로 刊經都監版이 가지고 있는 조선 전기의 인쇄사, 불교사, 서지학 등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현재 총명사의 지정신청본과 같은 동일판본의 『禮念彌陀道場懺法』이 완질본 및 영본을 합하여 5종이 보물로 기지정되어 있다. 비록 표지는 개장하였으나 인쇄상태 및 보존상태가 매우 뛰어나고, 제침면과 같은 좋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판본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발문 등이 잘 남아 있어 거제 總明寺 소장의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 및 관리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현 상

大韓佛教曹溪宗 總明寺 소장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 卷6~10의 書誌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書誌記述>

禮念彌陀道場懺法, 卷6~10 / 王子成(?~?, 金末元初朝) 集. -- 木版本. -- [漢城] : [刊經都監], [成宗 5(1474) 造成, 後刷 推定].

5卷1冊(110張) : 四周雙邊, 半郭 24.2×18.5cm, 有界, 半葉 9行15字 小字雙行22字, 上下大黑口, 上下下向黑魚尾, 35.0×23.7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

表 題: 彌陀懺法(墨書題簽).

卷頭題: 禮念彌陀道場懺法.

[讚題]: [彌陀懺].

[序題]: [彌陀懺].

版心題: 彌陀懺.

卷尾題: 禮念彌陀道場懺法.

[插圖]: 第1張A面; 南無過去毗婆尸佛, 南無尸棄佛, 南無毗舍浮佛. 第1張B面; 南無拘留孫佛, 南無拘那含牟尼佛, 南無迦葉佛. 第2張A面; 南無教主釋迦牟尼佛, 南無西方阿彌陀佛, 南無當來彌勒尊佛. 第2張B面; 空白(以上 卷1 卷頭).

張數：110張；卷6(25)，卷7(24)，卷8(15)，卷9(22張)，卷10(21)，跋文(3)。

[贊文]：[彌陀懺讚；極樂居士王慶之集淨土因緣爲懺文 … 奉政大夫翰林修撰同知制誥趙秉文(1159~1232)撰](國立中央博物館 吳 古佛寺 所藏本 卷1 卷頭)。

[序文]：[彌陀懺序；天地之中凡有血氣皆有鬪心 … 崇慶二年(1213)中春望日序 儒林郎應奉翰林文字同知制誥兼夔王府文學記室參軍武騎尉賜緋魚袋李純甫(1177~1223)撰](國立中央博物館 吳 古佛寺 所藏本 卷1 卷頭)。

墨書：音讀口訣(全體面)。

內容：-卷6；禮懺罪障第六，發菩提心第七，音義。-卷7；發願往生第八。-卷8；求生行門第九，音義。-卷9；求生行門之餘，總爲禮佛第十，音義。-卷10；自慶第十一，普皆迴向第十二，囑累流通第十三。題簽樣式(禮念彌陀道場懺法一之五，禮念彌陀道場懺法六之十)。-卷尾；跋文(成化十年秋八月有日…金守溫奉教謹拔)，施主秩。

跋文：成化十年(1474，甲午，成宗 5)秋八月有日我」大王大妃殿下懿旨于臣若曰惟我」祖宗列聖之靈昭明于天陰翊後人克至」今休其在予苟不事事曷所以報我」前寧王我」前寧王其肯曰我有後人弼我不丕基鳴」呼我」世宗莊憲大王」昭憲王后則予婦事之」世祖惠莊大王則予配事之」/ 懿敬大王」睿宗大王則予子育之曷敢忘于懷今」恭惠王后韓氏新赴玄宮此予所以仰追」先世俯念于今罔或須臾之暫捨間惟慈」悲三昧懺與夫彌陀懺實昔開土依」佛遺教撰輯成書行之當時顯有明徵其」板牽之行于世者字母已剝模子不」端命知中樞府事成任更楷鏤梓傳」布中外庶幾因茲勝締仰荅」先王先后罔極於萬一今已告訖爾其跋」/ 之臣聞釋氏之有懺法猶吾儒之有」改過盖人不能以無過過而能悔悔」而能改則善矣經曰衆生除舊皆卽」入諸佛位此之謂也今我」大王大妃殿下欲薦」先王先后冥祐首刊是懺將與微塵刹土」衆生捨邪歸正改惡從善盖不以無」過爲貴以改過爲重此卽」大菩薩慈悲廣大四弘願之至德也」先王先后所以登極樂而證涅槃者此其」/ 徑之歟純誠佐理功臣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永山府院君臣金守」溫奉教謹跋](卷10 末尾)。

施主秩：主上殿下 貞懿公主 懿淑公主 明淑公主」仁粹王妃韓氏 崇壽公主 貴人朴氏 淑儀權氏」仁惠王大妃韓氏 淑儀愼氏 淑儀崔氏 淑儀李氏」淑儀尹氏 淑儀尹氏 永嘉府夫人」申氏 帶方府夫人宋氏 祥原府夫人朴氏 林」川郡夫人金氏 德陽郡夫人盧氏 金堤郡夫人」崔氏 吉安縣主李氏 奉保夫人金氏 奉保夫」人白氏 貞夫人許氏 尙儀曹氏 尙服崔氏」尙宮金氏 尙工方氏 宮正洪氏 宮正尹氏」/ 宮正趙氏 宮正金氏 尙工河氏 典藥梁氏」典飾李氏 金氏斤非 朴氏寶臺 周氏重德」金氏萬德 金氏頓田 崔氏葵花 高氏大平」崔氏丹之 朴氏玉今 朴氏從智 洪氏儉德」玄氏岔同 金氏梨花 尹氏貴非 李氏惠宜」洪氏智牛 金氏寶背 趙氏芘今 金氏延生」金氏芷芝 吳氏曹籠 姜氏大耳

朴氏波獨」張氏莫非 趙氏小今 車氏微塵 鄭氏丁香」金氏今伊 金氏水德 鄭氏銀金 朴氏內隱非」李氏若今 韓氏六月 慧覺尊者信眉 學悅」學祖 月山大君 齊安大君 瑜 德源君曙」昌原君晟 南川君晴 清安君嶸 澮原君崢」河城府院君鄭顯祖 崇德大夫儀賓洪常 西平」君韓繼禧 中樞具壽永 洪加伊 具椿壽」監役內需司別坐扈從實 掖庭署司案白守和」/ 內需司典貨朴揚春 唱准別監金終萬 畫員白」終麟 李長孫 刻字權頓一 張莫同 李永山」全祿同 高末終 崔得山 金貴孫 李長孫」禹仁守 洪寶千 木手劉山石 金貴山 鍊板」金尹生 崔末中 冶匠山守 注匠石山 豆伊」金 刀子匠周金萬 印出匠俞實仇知 漆匠高」未羅 金無其只」漢明妻心方 朴仍邑同 蛭介 朴敬 三珎伊」明修 順八金 同伊 成致和 辺永奇 升德」梁元 文正 白田生 崔莫同 姜元万 曹末乙生」莫德 鄭介金妻加阿之(卷10 末尾).

(원래의 「施主秩」에서의 — 一部分의 施主者는 刪削되고 ___ 一部分의 施主者는 원래의 「시주질」과는 다른 筆體로 追刻되어 印出된 것으로 판단된다.)

[原施]: 主上殿下 貞懿公主 懿淑公主 明淑公主」仁粹王妃韓氏 崇壽公主 貴人朴氏 淑儀權氏」仁惠王大妃韓氏 淑儀愼氏 淑儀崔氏 淑儀李氏」淑儀尹氏 淑儀尹氏 淑儀尹氏 永嘉府夫人」申氏 帶方府夫人宋氏 祥原府夫人朴氏 林」川郡夫人金氏 德陽郡夫人盧氏 金堤郡夫人」崔氏 吉安縣主李氏 奉保夫人金氏 奉保夫」人白氏 貞夫人許氏 尙儀曹氏 尙服崔氏」尙宮金氏 尙工方氏 宮正洪氏 宮正尹氏」/ 宮正趙氏 宮正金氏 尙工河氏 典藥梁氏」典節李氏 金氏斤非 朴氏寶臺 周氏重德」金氏萬德 金氏頓田 崔氏葵花 高氏大平」崔氏丹之 朴氏玉今 朴氏從智 洪氏儉德」玄氏岔同 金氏梨花 尹氏貴非 李氏惠宜」洪氏智牛 金氏寶背 趙氏芴今 金氏延生」金氏芷芝 吳氏曹籠 姜氏大耳 朴氏波獨」張氏莫非 趙氏小今 車氏微塵 鄭氏丁香」金氏今伊 金氏水德 鄭氏銀金 朴氏內隱非」李氏若今 韓氏六月 慧覺尊者信眉 學悅」學祖 月山大君 齊安大君 瑜 德源君曙」昌原君晟 南川君晴 清安君嶸 澮原君崢」河城府院君鄭顯祖 崇德大夫儀賓洪常 西平」君韓繼禧 中樞具壽永 洪加伊 具椿壽」監役內需司別坐扈從實 掖庭署司案白守和」/ 內需司典貨朴揚春 唱准別監金終萬 畫員白」終麟 李長孫 刻字權頓一 張莫同 李永山」全祿同 高末終 崔得山 金貴孫 李長孫」禹仁守 洪寶千 木手劉山石 金貴山 鍊板」金尹生 崔末中 冶匠山守 注匠石山 豆伊」金 刀子匠周金萬 印出匠俞實仇知 漆匠高」未羅 金無其只」漢明妻心方 朴仍邑同 蛭介 朴敬 三珎伊」明修 順八金 同伊 成致和 辺永奇 升德」梁元 文正 白田生 崔莫同 姜元万 曹末乙生」莫德 鄭介金妻加阿之(卷10 末尾).

所藏歷: 현 총명사 주지인 釋 浩釋(申浩釋)의 법계는 釋 법회-성하-명오-浩釋으로 이어지며, 지정신청본은 석 법회 이후로 법맥에 따라 전수된 성보라 함

<유물소장 경위서 참간>.

現 狀: 내지의 일부에 얼룩의 흔적이 있으나 전반적인 보존의 상태는 良好하며, 表紙는 後代에 改裝된 듯하다.

既指定: 同一版: ①국립중앙박물관(보물, 10권 2책, 완질, 1988), ②목아불교박물관(보물, 권6~10 1책, 1992), ③김○○(보물, 권3·4·7·8 1책, 1993), ④불갑사(보물, 권6~10 1책, 2006), ⑤고불사(보물, 권1~5 1책, 2021).

翻刻版: 직지사(보물, 권6~10 1책).

高麗版: 계명대학교도서관(1376년판, 보물, 권7~10 1책).

<現狀>

巨濟 總明寺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의 보존상태는 내지의 일부에 얼룩의 흔적이 있으나 전반적인 보존의 상태는 良好하며, 表紙는 後代에 改裝된 듯하다.

○ 내용 및 특징

懺法은 讀經을 통해서 罪를 懺悔하는 佛教 儀式이며, 西方 極樂淨土의 阿彌陀佛을 대상으로 삼는 彌陀懺法이다. 불교를 신앙하는 자라면 누구나 서방 극락정토로의 왕생을 기원하는 바라 일찍부터 이를 신앙하는 자들이 많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크게 성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禮念彌陀道場懺法』은 阿彌陀佛께 지극한 마음으로 禮拜하고 모든 罪業을 참회하며 菩提心을 내어 極樂往生을 기원하는 信者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빌며 참회하고 염불할 때 사용되는 說法文·懺悔文·念佛文·祈願文 등에 해당하는 「歸依西方三寶」·「決疑生信」·「引教比證」·「往生傳錄」·「極樂莊嚴」·「禮懺罪障」·「發菩提心」·「發願往生」·「求生行門」·「總爲禮佛」·「自慶」·「普皆迴向」·「囑累流通」 등 13편의 의례 절차가 수록된 10卷本の 불교 의식집이다. 『禮念彌陀道場懺法』은 ‘『彌陀懺』’으로 약칭되기도 하며, ‘『淨土文』’이라 불리기도 한다.

『禮念彌陀道場懺法』의 集錄子인 王子成(?~?)은 ‘王慶之’라고도 하고 號는 ‘極樂居士’이며, 그의 生沒年과 行蹟은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바 없다. 다만 그는 金·元朝의 인물로 당시를 末法의 시대로 규정하고 淨土往生을 發願하면서 念佛과 懺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禮念彌陀道場懺法』이 우리나라로 전래된 뒤 가장 일찍 開刊된 版本은 고려 우왕 2년(1376)에 고려의 승려 慧朗(?~?) 등이 간행한 판본이며, 이 판본의 4권 1책(권7~10)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碧梧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禮念彌陀道場懺法』의 朝鮮朝 版本은 성종 5년(1474)의 刊經都監版, 연산군 9년(1503)의 海印寺版, 중종 37년(1542)의 石頭寺版, 선조 5년

(1572)의 毗盧寺版, 선조 9년(1576)의 甲寺版 등이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總明寺 소장의 지정신청본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5권 1책)은 조선조 성종 5년(1474)에 世祖의 妃인 貞熹大王大妃 등 王室의 발원으로 刊經都監에서 조성된 全 10卷 2冊의 목판에서 印出된 後刷本이다.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의 表題는 ‘彌陀懺法’(墨書)이고 卷頭題와 卷尾題는 ‘禮念彌陀道場懺法’이며 版心題는 ‘彌陀懺’이다.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의 版式의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郭은 세로 24.2cm 가로 18.5cm이며 界線이 있다. 每半葉의 行字數는 大字는 9行15字이고 小字는 雙行22字이다. 板口는 上下大黑口이며 版心의 魚尾는 上下下向黑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5.0cm 가로 23.7cm이고 紙質은 韓紙(楮紙)이며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後代에 改裝된 듯하다.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에는 卷6에는 「禮懺罪章第六」·「發善提心第七」·「音義」 등이 수록되어 있고 卷7에는 「發願往生第八」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8에는 「求生行門第九」·「音義」 등이 수록되어 있고 卷9에는 「求生行門之餘」·「總爲禮佛第十」·「音義」 등이 수록되어 있다. 卷10에는 「自慶第十一」·「普皆迴向第十二」·「囑累流通第十三」·「音義」·「跋文(金守溫)」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의 내용 전반에는 墨書된 音讀口訣이 있다.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 卷10의 末尾에는 乖崖 金守溫의 「跋文」과 「施主秩」이 수록되어 있다.

乖崖 金守溫(1410~1481)의 「跋文」은 다음과 같다.

성화 10년(1474, 성종 5) 가을 8월 어느 날, 우리 대왕대비¹⁴⁸⁾ 전하께서 臣에게 聖旨를 내리시어, ‘생각건대, 우리 祖宗 列聖의 靈駕들께서는 하늘을 밝게 비추고 蔭德으로 후인을 도우심이 지극하셨건만 지금 계시지를 앎으니 내가 어떻게 섬길 수가 없구나. 圖像이라도 섬겨 그렇게나마 우리 前代의 寧王¹⁴⁹⁾들께 보답한다면 우리 전대의 寧王들께서도 옳다고 여겨 우리에게 후손이 있다고 하시며 국가의 기반을 튼튼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嗚呼라! 우리 世宗 莊憲大王과 昭憲王后는 내가 며느리로서 섬긴 분들이고, 世祖 惠莊大王은 내가 배필로서 섬긴

148) 大王大妃: 世祖妃 貞熹王后(1418~1483)를 지칭한다. 본관은 坡平이며 관중추부사 증 영의정 尹璠의 따님이다. 태종 18년(1418)에 洪州郡衙에서 태어나 세종 10년(1428)에 가례를 행하였다. 처음에 三韓國大夫人에 수봉되었다가 후에 樂浪府大夫人에 수봉되었다. 단종 즉위년(1452)에 首陽大君이 金宗瑞 등을 제거하는 거사 때 모의가 새어나가 孫碩孫 등이 만류하였으나, 수양대군이 중문에 이르자 정희왕후가 갑옷을 들어 입혀서 用兵을 결행하게 하였다. 세조 원년(1455)에 왕비에 책봉되고 세조 3년(1457)에 존호를 ‘慈聖’이라 하였으나, 예종 원년(1469)에는 ‘欽仁景德宣烈明順徽懿’의 존호가 더해지고 성종 2년(1471)에는 ‘元淑徽愼惠懿神憲’가 가상되었다. 세조가 薨去하자 예종이 19세의 나이로 등극하였는데, 재위 1년 2개월 만에 薨去하였다. 세조의 맏아들인 德宗(예종의 형)의 둘째 아들 貞山君(貞山君, 성종)이 예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그런데 성종의 즉위는 예종이 죽은 바로 그날 이루어졌다. 이는 祖宗朝에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예종의 아들 齊安大君이 어렸고 또 성종에게 형 月山大君이 있었는데도 바로 그날 즉위한 것은 정희왕후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 성종이 즉위할 때의 나이가 13세였으므로 정희왕후가 7년 동안이나 섭정하였다. 성종 14년(1483) 3월 30일에 온양의 행궁에서 薨去하니 수가 66세였다. 덕종·예종과 懿淑公主 등 2남 1녀를 두었다. 시호는 ‘慈聖欽仁景德宣烈明順元淑徽神惠懿神憲貞熹王后’이다. 능호는 光陵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 있다.

149) 寧王은 천하를 편안하게 잘 다스린 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이며, 懿敬大王과 睿宗大王은 내가 기른 아드님들이니, 어찌 감히 가슴 속에서 잊을 수 있겠는가. 이제 恭惠王后 韓氏¹⁵⁰가 새로이 玄宮¹⁵¹으로 부임함에 이 일로 내가 새삼 지금도 곱어 살피며 잠시도 마음을 놓지 않으시는 先祖들을 우러르고 추모하게 되는구나.

생각건대, 『慈悲三昧懺』¹⁵²과 『彌陀懺』¹⁵³은 진실로 옛날에 開士¹⁵⁴들이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에 의하여 撰集한 책으로 그것을 刊行하였던 당시에 분명한 징험이 드러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세간에 떠도는 板本은 글자(字母)가 이미 닳고 字體도 단정하지 못하니, 知中樞府事成任¹⁵⁵에게 명하여 다시 板下本을 서사하게 하고 板木에 새겨 中外에 널리 유포하도록 하라. 이런 훌륭한 인연을 맺어 우러러 先代의 왕과 왕후들의 끝없는 은혜에 萬分之一이나마 보답하기를 기대하니, 지금 한 말들을 바탕으로 跋文으로 쓰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臣은 불교에 懺法이 있는 것은 우리 儒家에 허물을 고침이 있는 것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대개 사람이란 허물이 없을 수 없으니,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뉘우칠 수 있고 뉘우치고서 고칠 수 있다면 훌륭한 것입니다. 經典에서 ‘중생이 옛 허물을 없애면 곧바로 모든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간다.’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대왕대비 전하께서 幽冥界에서 도우시는 선대의 왕과 왕후들을 천도하시고자 가장 먼저 이 懺法을 간행하여 장차 작은 먼지처럼 수없는 國土의 衆生들과 더불어 사됨을 버리고 바름으로 돌아가고 악을 고쳐 선을 따르고자 하시는 것은 아마도 허물이 없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허물을 고치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까닭일 것이니, 이것이 곧 大菩薩의 자비요 넓고 큰 四弘誓願의 지극한 덕입니다. 선대의 왕과 왕후들께서 극락세계로 올라가 涅槃을 證得하시는 데에는 이것이 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순성좌리공신 보국승록대부 영중추부사 영산부원군 臣 金守濫¹⁵⁶은 敎勅을 받들어 삼가 받

150) 恭惠王后 韓氏(1456~1474)는 권신 한명회의 딸로 성종의 正妃로서 1469년에 왕비로 책봉되었으나 책봉된 지 5년 만에 슬하에 자식 없이 19살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151) 玄宮은 저승의 궁궐이며, ‘현궁으로 부임하였다’는 것은 승하를 의미하는 것이다.

152) 『慈悲三昧懺』은 『慈悲道場懺法』을 지칭하는 것이다.

153) 『彌陀懺』은 『禮念彌陀道場懺法』을 지칭하는 것이다.

154) 開士는 正道를 열어 중생을 인도하는 士夫를 의미하며, 高僧의 칭호로도 사용된다.

155) 成任(1421~1484)은 조선조 전기의 문신으로 本貫은 昌寧이고 자는 重卿이며 호는 逸齋·安齋 등이고 諡號는 文安이다. 中宗부는 成石因이고 조부는 成揜이고 부친은 成念祖이다. 세종 20년(1438)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세종 29년(1447)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에 제수되었다. 곧이어 승정원 주서로 특진되었으며, 단종 원년(1453) 계유정란 때 세조를 도와 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그 뒤 예문관직제학을 거쳐 判軍器監事·判司宰監事를 역임하면서 『國朝寶鑑』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세조 3년(1457)에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하고 이듬해(1458) 첨지중추원사로서 당상관에 올랐다. 세조 5년(1459)에 병조참의로 옮겼다가 곧 승정원으로 옮겨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면서 동부승지에서 도승지에 올랐다. 세조 7년(1461) 세조의 특별한 신임으로 이조참판에 제수되어 인사행정과 함께 樂學都監提調를 겸하여 음률의 정비에 힘썼다. 回奏使 부사로 명조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듬해 공조참판으로 옮겼다가 중추원부사를 역임하였다. 세조 10년(1464) 전라도 관찰사로 나가서 민정과 군정을 다스리며 사냥을 즐기다가 의금부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내직으로 옮겨 형조참판·仁順府尹을 역임하며 『經國大典』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세조 12년(1466) 拔英試에 을과로 급제하여 형조판서에 올라 지중추부사·지의금부사를 겸하고 사법 행정에 힘썼다. 곧 이조판서로 옮겨 인사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인사행정에 기여하였으나, 인사 부정이 있다고 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예종 원년(1469) 親喪으로 사임하였다가 성종 2년(1471)에 공조판서로 다시 부임하여 이듬해 明朝 황태자 冊封使로서 연경에 다녀왔다. 그 뒤 申叔舟의 추천으로 성균관에서 후진 양성에 이바지하였다. 이어 지중추부사·개성부유수를 역임하고 성종 13년(1482)에 좌참찬에 올랐으나 병으로 사임하고 지중추부사로 재직 중 병사하였다. 성품이 활달하고 식견이 풍부하며 글씨와 시문이 뛰어났다. 松雪體의 대가로 해서·행서를 특히 잘 썼으며, 글씨로는 『圓覺寺碑』·『韓繼美墓碑』·『崔恒神道碑』 등이 있고 경복궁 殿門의 편액과 왕실의 寫經 등 국가적 書寫를 많이 하였다. 시문에도 능하여 읍시에 일가를 이루었다. 일찍이 중국의 『太平廣記』를 모방하여 고급의 異聞을 수집하여 『太平通載』를 간행하였다. 문집으로 『安齋集』이 있다.

156) 金守濫(1410~1481)은 조선조 전기의 문신으로 本貫은 永同이고 자는 文良이며, 號는 乖崖·拭疣 등이고 諡號는 文平이다. 부친은 金訓이다. 李穡의 제자인 柳方善에게 학문을 배웠다. 세종 20년(1438)에 진사과에 급제하고 세종 23년(1441)에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正字가 되었으나 곧 세종의 특명으로 集賢殿學士가 되었다. 세종 28년(1446)에 副司直이 되고 이어서 訓練院主簿·承文院郊理·兵曹正郎 등을 거쳐 문종 1년(1451)에 典農司少尹을 역임하고 이

문을 씁니다.¹⁵⁷⁾

이상의 金守溫의 「跋文」을 통하여 볼 때, 성종의 비인 恭惠王后 韓氏가 승하하자 명복을 빌고 아울러 먼저 薨去한 世宗, 昭憲王后, 世祖, 懿敬王, 睿宗 등 先世의 왕과 왕비에 대한 추앙의 정을 잊을 수 없어 陰德을 기리고 명복을 빌기 위하여, 당시 知中樞府事 成任(1421~1484)에게 명하여 『慈悲道場懺法』과 『禮念彌陀道場懺法』의 板下本(登梓本)을 다시 쓰게 하여 板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 卷10 末尾의 乖崖 金守溫의 「跋文」에 이어 「施主秩」이 수록되어 있다. 이 「施主秩」은 원래의 「시주질」과는 달리 “主上殿下, 貞懿公主, 懿淑公主, 明淑公主, 仁粹王妃韓氏, 崇壽公主, 貴人朴氏, 淑儀權氏, 仁惠王大妃韓氏, 淑儀愼氏, 淑儀崔氏, 淑儀李氏, 淑儀尹氏, 淑儀尹氏, 淑儀尹氏, 永嘉府夫人申氏, 帶方府夫人宋氏, 祥原府夫人朴氏, 林川郡夫人金氏, 德陽郡夫人盧氏, 金堤郡夫人崔氏, 吉安縣主李氏, 奉保夫人金氏, 奉保夫人白氏, 貞夫人許氏, 尙儀曹氏, 尙服崔氏, 尙宮金氏, 尙工方氏, 宮正洪氏, 宮正尹氏, 宮正趙氏, 宮正金氏, 尙工河氏, 典藥梁氏, 典飾李氏, 金氏斤非, 朴氏寶臺, 周氏重德, 金氏萬德, 金氏頓田, 崔氏葵花, 高氏大平, 崔氏丹之, 朴氏玉今, 朴氏從智, 洪氏儉德, 玄氏岔同, 金氏梨花, 尹氏貴非, 李氏惠宜, 洪氏智牛, 金氏寶背, 趙氏丕今, 金氏延生, 金氏芷芝, 吳氏曹籠, 姜氏大耳, 朴氏波獨, 張氏莫非, 趙氏小今, 車氏微塵, 鄭氏丁香, 金氏今伊, 金氏水德, 鄭氏銀金, 朴氏內隱非, 李氏若今, 韓氏六月, 慧覺尊者信眉, 學悅, 學祖, 月山大君婷, 齊安大君瑜, 德源君曙, 昌原君晟, 南川君嵒, 淸安君嶸, 澮原君崢, 河城府院君鄭顯祖,

듬해(1452) 知榮川郡事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세조 3년(1457)에 司藝로서 文科重試에 2등으로 급제하여 僉知中樞府事가 되고 이듬해(1458) 同知中樞府事에 올라 正朝副使로 명조에 다녀왔다. 세조 5년(1459)에 漢城府尹을 역임하고 이듬해 尙州牧使를 역임하였으며, 세조 10년(1464)에 知中樞府事·工曹判書를 역임하였다. 세조 12년(1466)에 拔英試와 登俊試에 모두 장원하여 判中樞府事에 오르고 쌀 20석이 하사되었는데, 文武科의 장원에게 쌀을 하사하는 것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이어서 호조판서를 거쳐 성종 즉위년(1469)에 輔國崇祿大夫에 오르고 성종 2년(1471)에 佐理功臣 4등에 책록되어 永山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성종 5년(1474)에 領中樞府事를 역임하였다. 세종과 세조의 신임을 받은 승려이자 만형인 信眉의 영향으로 佛敎에 깊은 지식을 가졌으며, 成三問·申叔舟 등과 한글편찬과 翻譯事業에도 공헌하고 佛經에 통달하고 諸子百家·六經에 해박하여 뒤에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특히, 詩文에 뛰어나 明朝使臣으로 왔던 한림 陳鑑과 「喜晴賦」로써 화답한 내용은 明朝에까지 알려졌다. 그리고 成三問·申叔舟·李石亨 등 당대의 석학들과 교류하며 文名을 다투었다. 『治平要覽』, 『醫方類聚』 등의 편찬과 『釋迦譜』의 增修 및 『明皇誠鑑』, 『金剛經』 등의 번역과 四書五經의 口訣에 참여하였으며, 「福泉寺記」, 「道成庵記」, 「上元寺重創記」, 「如來現相記」, 「圓覺寺碑銘」 등 佛家와 관련된 글을 많이 남김으로써 성종조에는 儒臣들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拭疣集』이 있다.

157) 王子成 集錄, 『禮念彌陀道場懺法』. 木版本. [漢城]: [刊經都監], [成宗 5(1474) 造成, 後刷本]. 卷10. 末尾.
成化十年(1474, 成宗 5) 秋八月有日 我大王大妃殿下 懿旨于臣 若曰 惟我祖宗列聖之靈 昭明于天 陰翊後人克至 今休其在 予苟不事 事當所以報 我前寧王 我前寧王 其肯曰 我有後人 弼我不丕基 嗚呼 我世宗莊憲大王 昭憲王后 則子婦事之 世祖惠莊大王 則予配事之 懿敬大王 睿宗大王 則予子育之 曷敢忘于懷 今恭惠王后韓氏 新赴玄宮 此予所以 仰追先世 俯念于今 罔或須臾之暫捨間 惟慈悲三昧懺 與夫彌陀懺 實昔開土 依佛遺教 撰輯成書 行之當時 顯有明徵 其板本之行于 世者 字母已剝 模子不端 命知中樞府事成任 更楷鏤梓 傳布中外 庶幾因茲勝締 仰答先王先后罔極於萬一 今已告訖 爾其跋之 臣聞 釋氏之有懺法 猶吾儒之有改過 蓋人不能以無過 過而能悔 悔而能改 則善矣 經曰 衆生除舊善 卽入諸佛位 此之謂也 今我大王大妃殿下 欲薦先王先后冥祐 首刊是懺 將與微塵刹土衆生 捨邪歸正 改惡從善 蓋不以無過爲貴 以改過爲重 此卽大菩薩慈悲 廣大四弘願之至德也 先王先后 所以登極樂 而證涅槃者 此其徑之歟 純誠佐理功臣 輔國崇祿大夫 領中樞府事 永山府院君金守溫 奉教謹跋.

崇德大夫儀賓洪常, 西平君韓繼禧, 中樞具壽永, 洪加伊, 具椿壽, 監役內需司別坐扈從實掖庭署司案白守和, 內需司典貨朴揚春, 唱准別監金終萬, 畫員白終麟, 李長孫, 刻字權頓一, 張莫同, 李永山, 全祿同, 高末終, 崔得山, 金貴孫, 李長孫, 禹仁守, 洪寶千, 木手劉山石, 金貴山, 鍊板金尹生, 崔末中, 冶匠山守 注匠石山, 豆伊金, 刀子匠周金萬 印出匠俞實仇知 漆匠高, 未羅, 金無其只, 漢明妻心方, 朴仍邑同, 蛭介, 朴敬, 三玢伊, 明修, 順八金, 同伊, 成致和, 辺永奇, 升德, 梁元, 文正, 白田生, 崔莫同, 姜元万, 曹末乙生, 莫德, 鄭介金妻加阿之.”¹⁵⁸⁾로 기록되어 있다. 이 「시주질」은 원래의 「시주질」에서 ‘刻字權頓一’·‘木手劉山石’·‘冶匠山守’·‘注匠石山’·‘刀子匠周金萬’·‘印出匠俞實仇知’·‘漆匠高’ 등의 施主者들은 刪削되었으며, ‘漢明妻心方’·‘朴仍邑同’·‘蛭介’·‘朴敬’·‘三玢伊’·‘明修’·‘順八金’·‘同伊’·‘成致和’·‘辺永奇’·‘升德’·‘梁元’·‘文正’·‘白田生’·‘崔莫同’·‘姜元万’·‘曹末乙生’·‘莫德’·‘鄭介金妻加阿之’ 등의 施主者들은 원래의 「시주질」과는 다른 筆體로 追刻되어 인출·수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施主秩」을 통하여 볼 때, 왕실의 仁粹大妃·仁惠大妃를 비롯하여 公主·淑儀·尙宮 등 內命婦와 月山大君·齊安大君 등의 종친들과 信眉·學悅·學祖 등 당시 고승들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刊行에 관여한 監役·畫員·鍊板 등의 인물이 나열되어 있으나, 원래 「시주질」의 ‘刻字權頓一’·‘木手劉山石’·‘冶匠山守’·‘注匠石山’·‘刀子匠周金萬’·‘印出匠俞實仇知’·‘漆匠高’ 등 각종 장인의 이름이 刪削되고 대신에 ‘漢明妻心方’·‘朴仍邑同’·‘蛭介’·‘朴敬’·‘三玢伊’·‘明修’·‘順八金’·‘同伊’·‘成致和’·‘辺永奇’·‘升德’·‘梁元’·‘文正’·‘白田生’·‘崔莫同’·‘姜元万’·‘曹末乙生’·‘莫德’·‘鄭介金妻加阿之’ 등의 施主者들은 원래의 「시주질」과는 다른 筆體의 追刻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은 성종 5년(1474)에 王室의 발원으로 刊經都監에서 조성된 목판이 印經用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왕실의 사업으로 치밀하게 새로운 檀越의 시주를 얻어 「시주질」을 수정·판각한 뒤에 다시금 印出한 後刷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판

158) 王子成 集錄, 『禮念彌陀道場懺法』. 木版本. [漢城]: [刊經都監], [成宗 5(1474) 造成, 後刷本]. 卷10. 末尾.

主上殿下 貞懿公主 懿淑公主 明淑公主, 仁粹王妃韓氏 崇壽公主 貴人朴氏 淑儀權氏, 仁惠王妃韓氏 淑儀慎氏 淑儀崔氏 淑儀李氏, 淑儀尹氏 淑儀尹氏 淑儀尹氏 淑儀尹氏 永嘉府夫人, 申氏 帶方府夫人宋氏 祥原府夫人朴氏 林, 川郡夫人金氏 德陽郡夫人盧氏 金堤郡夫人, 崔氏 吉安縣主李氏 奉保夫人金氏 奉保夫, 人白氏 貞夫人許氏 尙儀曹氏 尙服崔氏, 尙宮金氏 尙工方氏 宮正洪氏 宮正尹氏, / 宮正趙氏 宮正金氏 尙工河氏 典藥梁氏, 典飾李氏 金氏斤非 朴氏寶臺 周氏重德, 金氏萬德 金氏頓田 崔氏葵花 高氏大平, 崔氏丹之 朴氏玉今 朴氏從智 洪氏儉德, 玄氏允同 金氏梨花 尹氏貴非 李氏惠宜, 洪氏智牛 金氏寶背 趙氏芑今 金氏延生, 金氏芷芝 吳氏曹籠 姜氏大耳 朴氏波獨, 張氏莫非 趙氏小今 車氏微塵 鄭氏丁香, 金氏今伊 金氏水德 鄭氏銀金 朴氏內隱非, 李氏若今 韓氏六月 慧覺尊者信眉 學悅, 學祖 月山大君婷 齊安大君瑋 德源君曙, 昌原君晟 南川君疇 清安君嶸 滄原君崢, 河城府院君鄭顯祖 崇德大夫儀賓洪常 西平, 君韓繼禧 中樞具壽永 洪加伊 具椿壽, 監役內需司別坐扈從實 掖庭署司案白守和, / 內需司典貨朴揚春 唱准別監金終萬 畫員白, 終麟 李長孫 刻字權頓一 張莫同 李永山, 全祿同 高末終 崔得山 金貴孫 李長孫, 禹仁守 洪寶千 木手劉山石 金貴山 鍊板, 金尹生 崔末中 冶匠山守 注匠石山 豆伊, 金 刀子匠周金萬 印出匠俞實仇知 漆匠高, 未羅 金無其只, 漢明妻心方 朴仍邑同 蛭介 朴敬 三玢伊, 明修 順八金 同伊 成致和 辺永奇 升德, 梁元 文正 白田生 崔莫同 姜元万 曹末乙生, 莫德 鄭介金妻加阿之(卷10 末尾).

(원래의 「施主秩」에서의 ‘一’ 부분의 施主者는 刪削되고 ‘_’ 부분의 施主者는 원래의 「시주질」과는 다른 筆體로 追刻되어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의 卷1의 卷頭に 수록된 과거·현재·미래 三世佛의 圖像은 화원 白終麟과 李長孫이 그린 작품으로 연대와 작가가 확실한 조선조 초기의 판화작품이며, 刻字에 참여한 權頓一·張莫同·李永山 등은 당시의 일류 刻手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禮念彌陀道場懺法』의 판본은 우왕 2년(1376)의 高麗版을 비롯하여 성종 5년(1474)의 刊經都監版, 연산군 9년(1503)의 海印寺版, 중종 37년(1542)의 石頭寺版, 선조 5년(1572)의 毗盧寺版, 선조 9년(1576)의 甲寺版 등이 있다.

『禮念彌陀道場懺法』의 가장 이른 개판본은 고려 우왕 2년(1376)에 慧朗(?~?) 등이 간행한 판본으로 이 판본의 4권 1책(권7~10)이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碧梧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高麗版을 이어 開板된 朝鮮의 版本은 성종 5년(1474)의 刊經都監版이 처음이며, 이는 王室의 주도하에 開板되어 일반 寺刹에는 널리 퍼지지 않았던 듯하다. 그 결과 연산군 9년(1503)에 海印寺에서는 刊經都監版을 底本으로 翻刻·重刊하였는데 이 經板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국보)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임진왜란 이전의 『禮念彌陀道場懺法』의 版種과 文化財 指定 現況은 [표1]과 같다.

<표1. 『禮念彌陀道場懺法』의 版種과 文化財 指定 現況>

番號	版種	所藏處	卷冊數	文化財 指定	備考
1	高麗版 (1376) (우왕 2)	계명대학교	4권 1책(권7~10)	보물	跋文: 朴免妥 施主: 韓仲禮 等
2	刊經都監版 (1474) (성종 5)	국립중앙박물관	10권 2책(완질)	보물	跋文: 金守溫
		목아불교박물관	5권 1책(권6~10)	보물	
		대전 김○○	4권 2책(권3·4/7·8)	보물	
		영광 불갑사	5권 1책(권6~10)	보물	
		고려대학교도서관	10권 2책(완질)	비지정(晚松 貴394A)	
		기장 고불사	5권 1책(권1~5)	보물	
		거제 총명사	5권 1책(권6~10)	指定申請本	
3	海印寺版 (1503) (연산 9)	김천 직지사	5권 1책(권6~10)	보물	刊經都監版(1474) 重刊版. ·跋文: 弘治十六年癸亥暮春 上澣直指寺老衲燈谷學祖七 十二歲書于東廂.
		서울 정암사	10권 2책(완질)	서울유형	
		양주 육지장사	10권 2책(완질)	경기유형	
		청주고인쇄박물관	5권 1책(권1~5)	충북유형	
		고양 원각사	10권 2책(완질)	비지정	
		동국대학교	5권 1책(권1~5)	비지정	
		부산 청량사	5권 1책(권6~10)	부산문자	
4	石頭寺版 (1542) (중종 37)	고려대학교	5권 1책(권6~10)	비지정(晚松 貴394)	跋: 信玄敬跋. 刊字秩: 學宗. 刊記: 嘉靖二十一年閏五月

番號	版種	所藏處	卷冊數	文化財 指定	備考
					日黃海道兎山地鶴峰山石頭寺開板.
5	毗盧寺版 (1572) (선조 5)	하남 성某(개인)	10권 2책(완질)	경기문자	刊記: 隆慶六年壬申慶尙道豐基地小白山毗盧寺開板.
		동국대학교	5권 1책(권1~5)	비지정	
6	甲寺版 (1576) (선조 9)	창원 성덕암	1책	경남유형	跋文: 萬曆四年蒼龍丙子孟秋丙申壬辰日龍城沙門默齋謹跋. 刊記: 萬曆四年丙子五月日忠淸道公州地鷄龍山甲士寺開刊.
		양산 불광사	6권 1책(권5~10)	경남유형	
		원주고관화박물관	5권 1책(권1~5)	강원문자	
		고려대학교	1책	비지정(六堂 貴106)	

총명사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은 성종 5년(1474)에 造成된 刊經都監版의 後刷本인 듯, 「施主秩」이 刊經都監版의 「시주질」에 수정을 가하여 인출되어 있다. 그러나 刊經都監版은 王室發願版인 동시에 후일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간행되는 『禮念彌陀道場懺法』의 母本의 자료라는 점을 비롯하여 刊經都監版의 版本 양상과 조선조 전기의 印刷出版文化 연구에는 물론 佛敎學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이 비록 10권 2책 중 권6~10의 1책에 지나지 않으나 이미 同一 版本의 完本 혹은 缺本의 5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심지어 연산군 9년(1503)에 海印寺에서 翻刻된 판본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5권 1책, 김천 직지사 소장)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거제 總明寺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王子成 集錄, 『禮念彌陀道場懺法』. 木版本. [漢城]: [刊經都監], [成宗 5(1474) 造成, 後刷本]. 卷6~10. 總明寺 所藏本.
- 王子成 集錄, 『禮念彌陀道場懺法』. 木版本. [漢城]: [刊經都監], [成宗 5(1474) 造成]. 卷6~10. 古佛寺 所藏本.
- 王子成 集錄, 『禮念彌陀道場懺法』. 木版本. [漢城]: [刊經都監], [成宗 5(1474) 造成, 成宗 14(1483) 後刷本]. 卷6~10. 仙光寺 所藏本.
- 李仁榮 著, 『淸芬室書目』. 影印本. 서울특별시: 寶庫社, 1993.
- 총명사, 「전문가 의견서(송일기·이종수)」, 거제시, 2021.
- 경상남도 거제시장, 「검토의견서」, 거제시, 2022.
- 경상남도지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 보고서」, 경상남도 창원시, 2023.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심의의결서」 및 「조사보

- 고서(김광철·신은제·안순형)], 경상남도 창원시, 2023.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동국대학교도서관: <http://lib.dongguk.edu>
 -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https://east.skku.edu/#>
 - 人名規範檢索: <https://authority.dila.edu.tw/person>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기 타

거제 總明寺의 주지인 釋 浩釋(申浩釋)의 법계는 釋 법회-성하-명오-浩釋으로 이어지며,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은 釋 법회 이후로 法脈에 따라 전수된 聖寶라 함(유물소장 경위서 참간).



○ 현 상

<書誌事項>

禮念彌陀道場懺法, 卷6~10 / 王子成(?~?, 金·元朝) 集. -- 木版本. -- [漢城] : [刊經都監], [成宗 5(1474) 板刻, 後刷 推定].

5卷1冊 : 圖, 四周雙邊, 半郭 24.2×18.5cm, 有界, 半葉 9行15字 小字雙行22字, 上下大黑口, 上下下向黑魚尾, 35.0×23.7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表 題: 彌陀懺經(墨書).

卷頭題: 禮念彌陀道場懺法.

卷尾題: 禮念彌陀道場懺法.

版心題: 彌陀懺.

跋 文: 成化十年(1474, 甲午, 成宗 5)秋八月 (중략) 純誠佐理功臣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永山府院君臣金守」溫奉教謹跋.

<현상>

조사본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는 현 주지 湖釋(申湖釋) 스님이 은사인 명오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았다고 한다. 수덕사 문중 법회스님으로부터 성하-명오-호석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따라 전승되었던 자료로 전해진다. 조사본은 표지가 후대에 개장되었으나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예념미타도량참법(禮念彌陀道場懺法)』은 아미타불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모든 죄업을 참회하며 보리심(菩提心)을 내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집이다. 그 내용을 보면 책의 앞부분에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불(三世佛)이 명호(名號)와 함께 도상(圖像)이 묘사되었고, 미타참찬(彌陀懺讚), 미타참서(彌陀懺序)에 이어 본문에 해당하는 「귀의서방삼보(歸依西方三寶)」·「결의생신(決疑生信)」·「인교비증(引敎比證)」·「왕생전록(往生傳錄)」·「극락장엄(極樂莊嚴)」·「예참죄장(禮懺罪障)」·「발보리심(發菩提心)」·「발원왕생(發願往生)」·「구생행문(求生行門)」·「총위예불(總爲禮佛)」·「자경(自慶)」·「보개회향(普皆迴向)」·「촉루유통(囑累流通)」 등 13편의 의례 절차가 수록되었다. 이 책은 『미타참(彌陀懺)』으로 약칭되기도 하며, 『정토문(淨土文)』이라 불리기도 한다.

『예념미타도량참법』을 결집한 왕자성(王子成, ?~?)은 왕경지(王慶之)라고도 하며 호는 극락거사(極樂居士)이다. 그의 생몰년과 행적은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바 없으나 당시를 말법의 시대로 규정하고 정토왕생을 발원하면서 염불(念佛)과 참법(懺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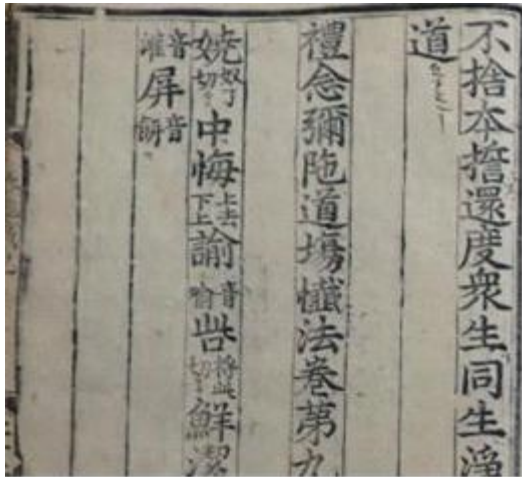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가장 오랜 판본은 고려 우왕 2년(1376)에 고려의 승려 혜랑(慧朗) 등이 간행한 책이 전하는데, 권7~권10의 4권 1책본이다(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碧梧文庫 소장). 조선시대에는 성종 5년(1474)의 刊經都監版, 연산군 9년(1503)의 海印寺版, 중종 37년(1542)의 石頭寺版, 선조 5년(1572)의 毗盧寺版, 선조 9년(1576)의 甲寺版 등이 전해진다.

조사본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의 表題는 ‘彌陀懺法’(題簽)이다. 卷頭題와 卷尾題는 ‘禮念彌陀道場懺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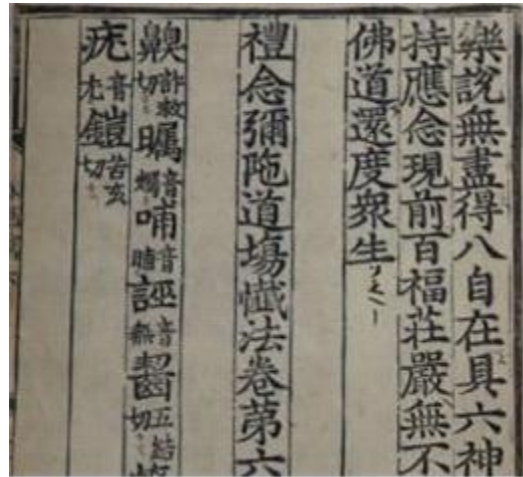
책의 판식을 보면 邊欄은 四周雙邊으로 半郭은 세로 24.2cm 가로 18.5cm이며

界線이 있다. 每半葉의 行字數는 大字는 9行15字이고 小字는 雙行22字이다. 板口는 上下大黑口이며 版心の 魚尾는 上下下向黑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5.0cm 가로 23.7cm이고 紙質은 韓紙(楮紙)이며 裝訂은 五針眼訂法의 線裝이다.

책의 내용은 卷6에 「禮懺罪障」, 卷7에 「發菩提心」, 卷8에 「發願往生」, 卷9에 「求生行門」, 卷10에 「總爲禮佛」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 전체에 墨書된 口訣을 기록하였고, 특히 권말의 音義에는 한글로 음을 달아 놓아 국어사 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권9 音義 한글음 표기>



<권6 音義 한글음 표기>

조사본은 판식과 인출상태를 통하여 성종 5년(1474)에 판각된 간경도감판으로 판단된다. 이 책은 제10권 마지막에 보이는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의 「跋文」을 통하여 간행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화 10년(1474, 성종 5) 가을 8월 어느 날, 우리 대왕대비 전하께서 臣에게 聖旨를 내리시어, ‘생각건대, 우리 祖宗 列聖의 靈駕들께서는 하늘을 맑게 비추고 蔭德으로 후인을 도우심이 지극하셨건만 지금 계시지를 앎으니 내가 어떻게 섬길 수가 없구나. 圖像이라도 섬겨 그렇게나마 우리 前代의 寧王들께 보답한다면 우리 전대의 寧王들께서도 옳다고 여겨 우리에게는 후손이 있다고 하시며 국가의 기반을 튼튼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오호라! 우리 世宗 莊憲大王과 昭憲王后는 내가 며느리로서 섬긴 분들이고, 世祖 惠莊大王은 내가 배필로서 섬긴 분이며, 懿敬大王과 睿宗大王은 내가 기른 아드님들이니, 어찌 감히 가슴 속에서 잊을 수 있겠는가. 이제 恭惠王后 韓氏가 새로이 玄宮으로 부임함에 이 일로 내가 새삼 지금도 굶어살피며 잠시도 마음을 놓지 않으시는 선조들을 우러르고 추모하게 되는구나. 생각건대, 『慈悲三昧懺』과 『彌陀懺』은 진실로 옛날에 開士들이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에 의하여 撰集한 책으로 그것을 간행하였던 당시에 분명한 징험이 드러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세간에 떠도는 板本은 글자(字母)가 이미 닳고 字體도 단정하지 못하니, 知中樞府事 成任에게 명하여 다시 板下本을 서사하게 하고 板木에 새겨 中外에 널리 유포하도록 하라. 이런 훌륭한 인연을 맺어 우리러 先代의 왕과 왕후들의 끝없는 은혜에 萬分之一이나마 보답하기를 기대하니, 지금 한 말들을 바탕으로 跋文으로 쓰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불교에 懺法이 있는 것은 우리 儒家에 허물을 고침이 있는 것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대

개 사람이란 허물이 없을 수 없으니,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뉘우칠 수 있고 뉘우치고서 고칠 수 있다면 훌륭한 것입니다. 경전에서 ‘중생이 옛 허물을 없애면 곧바로 모든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간다.’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대왕대비 전하께서 幽冥界에서 도우시는 선대의 왕과 왕후들을 천도하시고자 가장 먼저 이 懺法을 간행하여 장차 작은 먼지처럼 수없는 국토의 중생들과 더불어 샅됨을 버리고 바름으로 돌아가고 惡을 고쳐 善을 따르고자 하시는 것은 아마도 허물이 없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허물을 고치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까닭일 것이니, 이것이 곧 大菩薩의 자비요 넓고 큰 四弘誓願의 지극한 덕입니다. 선대의 왕과 왕후들께서 극락세계로 올라가 涅槃을 證得하시는 데에는 이것이 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순성좌리공신 보국승록대부 영중추부사 영산부원군 臣 金守溫은 敎勅을 받들어 삼가 발문을 씁니다.

(成化十年 秋八月有日 我大王大妃殿下 懿旨于臣 若曰 惟我祖宗列聖之靈 昭明于天 陰翊後人 克至 今休其在 予苟不事 事曷所以報 我前寧王 我前寧王 其肯曰 我有後人 彌我丕丕基 嗚呼 我世宗莊憲大王 昭憲王后 則予婦事之 世祖惠莊大王 則予配事之 懿敬大王 睿宗大王 則予子育之 曷敢忘于懷 今恭惠王后韓氏 新赴玄宮 此予所以 仰追先世 俯念于今 罔或須臾之暫捨間 惟慈悲三昧懺 與夫彌陀懺 實昔開土 依佛遺教 撰輯成書 行之當時 顯有明徵 其板本之行于世者 字母已剝 模子不端 命知中樞府事成任 更楷鏤梓 傳布中外 庶幾因茲勝緒 仰答先王先后罔極於萬一 今已告訖 爾其跋之 臣聞 釋氏之有懺法 猶吾儒之有改過 盖人不能以無過 過而能悔 悔而能改 則善矣 經曰 衆生除舊習 卽入諸佛位 此之謂也 今我大王大妃殿下 欲薦先王先后冥祐 首刊是懺 將與微塵刹土衆生 捨邪歸正 改惡從善 盖不以無過爲貴 以改過爲重 此卽大菩薩慈悲 廣大四弘願之至德也 先王先后 所以登極樂 而證涅槃者 此其徑之歟 純誠佐理功臣 輔國崇祿大夫 領中樞府事 永山府院君 臣金守溫 奉教謹跋.)



<金守溫 跋文 / 施主秩>



<金守溫 跋文 / 表紙題>

곧 간경도감관은 성종 비인 恭惠王后 韓氏가 승하하자 명복을 빌고 아울러 먼저 薨去한 世宗, 昭憲王后, 世祖, 懿敬王, 睿宗 등 先世의 왕과 왕비에 대한 추앙의 정을 잊을 수 없어 陰德을 기리고 명복을 빌기 위하여, 당시 知中樞府事 成任 (1421~1484)에게 명하여 『慈悲道場懺法』과 『禮念彌陀道場懺法』의 板下本(登梓本)을 다시 쓰게 하여 板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책의 권말에 기록된 시주질 가운데 ‘跋 第3張’의 後葉의 기록된 상태는

본래 1474년판본의 시주질과 비교된다. 곧 후엽의 제2행~제11행에 기록된 시주질의 인명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글씨체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조사본 시주질>



보물(목아불교박물관본) 시주질

조사본의 시주질과 이미 지정된 보물 목아불교박물관 소장본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권10의 시주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행	내용	
	조사본	보물 목아불교박물관본
1행	內需司典貨朴揚春 唱准別監金終萬 畫員白	內需司典貨朴揚春 唱准別監金終萬 畫員白
2행	終麟 李長孫 張莫同 李永山	終麟 李長孫 刻字權頓一 張莫同 李永山
3행	全祿同 高末終 崔得山 金貴孫 李長孫	全祿同 高末終 崔得山 金貴孫 李長孫
4행	禹仁守 洪寶千 金貴山 鍊板	禹仁守 洪寶千 木手劉山石 金貴山 鍊板
5행	金尹生 崔末中 豆伊	金尹生 崔末中 冶匠山守 注匠石山 豆伊
6행	金	金 刀子匠周金萬 印出匠俞實仇知 漆匠高
7행	未羅 金無其只	未羅 金無其只
8행		漢明妻心方 朴仍邑同 虱介 朴敬 三珍伊
9행		明修 順八金 同伊 成致和 辺永奇 升德
10행		梁元 文正 白田生 崔莫同 姜元万 曹末乙生
11행		莫德 鄭介金妻加阿之
12행		

이같은 차이는 판각 이후의 서로 다른 인출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더 이상의 사정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본은 판각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인

출되었던 후쇄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출 시기는 판각 시기로부터 오래 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조사본의 8행에서 11행 사이에 보이는 인명 가운데 최막동(崔莫同)은 1497년 전라도 진안(鎭安) 현암(懸庵)에서 간행되었던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의 시주질에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 지정사례

- 보물(1988.06.16.) / 『禮念彌陀道場懺法』 권1~10 / 성종 5년(1474) 판각 / 연산군 9년(1503) 간본 / 국립중앙박물관.
- 보물(1992.12.11.) /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 / 성종 5년(1474) 간본 / 목아불교박물관.
- 보물(1993.06.15.) / 『禮念彌陀道場懺法』 권 3~4, 7~8 / 성종 5년(1474) 간본 / 대전 김○○.
- 보물(2021.08.24.) / 『禮念彌陀道場懺法』 권1~5 / 성종 5년(1474) 판각, 인출 / 부산 고불사.
- 보물(1996.04.04.) /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 / 연산군 9년(1503) 간본 / 직지사.
- 보물(2001.08.03.) / 『禮念彌陀道場懺法』 권7~10 / 우왕 2년(1376) 간본 / 계명대학교.
- 보물(2006.04.28.) /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 / 성종 5년(1474) 판각 / 연산군 9년(1503) 간본 / 영광 불갑사.

□

○ 현 상

거제 총명사 소장본의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의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다만 표지는 근래에 개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지에는 다른 구멍이 있어 다른 책의 표지를 재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새로 만들어진 제침에는 「彌陀懺法」이라 적혀 있으며, 권수제는 ‘禮念彌陀道場懺法’, 판심제는 彌陀懺이다. 권말에는 김수온의 발문이 있어 1474년(성종 5)판이라는 것과 간행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발문 다음에는 축수문과 시주질, 연화질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연화질에는 監役·畫員·刻字·木手·鍊板·冶匠·刀子·印出匠·漆匠 등의 간행 참여자들의 직책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

○ 내용 및 특징

『禮念彌陀道場懺法』은 서방정토의 아미타불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참회하여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회의 절차를 수록한 책으로 『미타참』, 『정토문』, 『참법』 등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전체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설법문과 참회문, 염불문, 기원문 등 모두 1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원(元)의 극락서사 왕자성(極樂居士 王子成)이 편찬하였다.

전체 10권 중 권1에는 서문에 이어 「啓請三寶」와 13편의 의식 중 첫 번째인 귀의서방삼보(歸依西方三寶)가 실려 있고, 권2는 결의생신(決疑生信), 권3은 인교비증(引敎比證), 권4는 왕생전록(往生傳錄), 권5는 극락장엄(極樂莊嚴), 권6은 예참죄장(禮懺罪障)과 발보리심(發菩提心), 권7은 발원왕생(發願往生), 권8은 구생행문(求生行門), 권9는 구생행문의 나머지와 총위예불(總爲禮佛), 권10은 자경(自慶)과 보개회향(普皆迴向), 축루유통(囑累流通)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존하고 있는 『禮念彌陀道場懺法』의 가장 오래된 판본은 우왕 2년(1376)의 高麗版이 있다. 이후 성종 5년(1474)의 刊經都監版, 연산군 9년(1503)의 海印寺版, 중종 37년(1542)의 石頭寺版, 선조 5년(1572)의 毗盧寺版, 선조 9년(1576)의 甲寺版 등이 있다.

본서는 성종 5년(1474)에 조성된 간경도감판으로 성종 14년(1483)에 인출한 후쇄본으로 보인다. 『예념미타도량참법』 간경도감 판본은 성종 비인 공혜왕후 한씨가 19세의 나이로 승하하자 그녀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먼저 승하한 세종, 소헌왕후, 세조, 덕종, 예종 등 선대의 국왕, 왕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세조 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가 당시 지중추부사 성임(成任)에게 명하여 목판으로 판각한 것이다. 또한 본서의 인쇄상태는 초쇄로 보일 정도로 매우 좋고 동일판본 중에서도 유일하게 제첨면이 있는 것이 주목되는 특징이다. 오히려 다른 책의 표지를 사용하여 표지를 개장하고 제첨도 후대에 다시 붙인 것이 아쉬운 점이다.

현재 현존하고 있는 지정신청본과 동일판본들이 국가지정 또는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예념미타도량참법 간경도감판본 목록>

연번	서명	소장처	권책수	지정현황	비고
1	예념미타도량참법	국립중앙박물관	10권 2책(완질)	보물	跋文: 金守溫
2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목아불교박물관	5권 1책(권6~10)	보물	
3	예념미타도량참법 권3~4, 7~8	개인 소장	4권 2책(권3·4/7·8)	보물	
4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영광 불갑사	5권 1책(권6~10)	보물	
5	예념미타도량참법	고려대학교도서관	10권 2책(완질)	비지정	
6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	기장 고불사	5권 1책(권1~5)	보물	
7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거제 총명사	5권 1책(권6~10)	경남유형	
8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부산 선광사	5권 1책(권6~10)	비지정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총명사, 「전문가 의견서(송일기·이종수)」, 거제시, 2021.
- 경상남도 거제시장, 「검토의견서」, 거제시, 2022.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김광철·신은제·안순형)」, 경상남도 창원시, 2023.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심의의결서」, 경상남도 창원시, 2023.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동국대학교도서관: <http://lib.dongguk.edu>
-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https://east.skku.edu/#>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기 타

제출한 유물소장경위서에는 현 총명사 주지인 ○○스님의 범맥을 따라 본서가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수덕사의 ○○스님이 양산 내원사에 주석하면서 제자인 ○○스님에게 본서를 사사하였고, ○○스님의 제자인 ○○스님을 거쳐 ○○스님에게 전수된 것으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19. 여지도서 (輿地圖書)

가. 검토사항

‘여지도서’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여지도서’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3.8.)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9.8.)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여지도서(輿地圖書)
- 소유자(관리자) : (재)한국교회사연구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30 평화빌딩 4층, 한국교회사연구소
- 수 량 : 55책
- 규 격 : 31.0cm×20.5cm
- 재 질 : 종이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757년(조선 영조 33)~1765년(조선 영조 41)



<여지도서>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여지도서』는 조선 후기의 유일한 관찬 전국 지리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가지며, 그 내용을 통해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도 갖는다.

『승정원일기』 등을 통해 제작 목적 및 시기의 추론이 가능하며, 제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757~1765년에 편찬되어 제작된 지 250년을 넘겼는데 편찬 당시의 55책의 장책 상태가 비교적 온전히 유지되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여지도서』는 295개의 군현 邑誌, 17개의 營誌(監營誌, 兵營誌, 水營誌, 統營誌 등), 1개의 鎭誌를 수록한 지리지이다. 이들 읍지의 작성 시기는 대체적으로 1760년대 전후로 추정된다. 또한 各邑誌의 戶口·田結·賦稅關係의 帳籍은 거의 『己卯帳籍』(1759)을 基準으로 하고 있다.

전체 55책 구성으로 京畿道(冊1~5)·忠淸道(冊6~13)·江原道(冊14~17)·黃海道(冊18~21)·平安道(冊22~30)·咸鏡道(冊31~35)·慶尙道(冊36~49)·全羅道(冊50~55)의 順으로 되어 있다.

각 읍의 첫머리에 각 군현의 채색지도를 부착하였고, 이어서 각 읍지마다 거리와 방위 등이 정확한 읍지도가 첨부되어 지도와 읍지가 밀접하게 결합된 지리지의 형식을 갖고 있다.

조사본 『여지도서』는 ‘輿地圖’와 ‘書’의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보듯이 각 읍의 건치 연혁 등 역사와 문화 관련 자료 그리고 지역의 공간을 그린 지도를 수록한 자료로서 조선 후기 사회의 지방 지배와 향촌 내용 뿐만 아니라 고을의 역사지리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서 학술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여지도서』의 사료적 가치의 중요성은 일찍부터 학계에 알려져 왔다. 전국 대부분을 아우르는 읍지의 내용은 역사학과 지리학계에서는 조선 후기 지방 사회사 뿐만 아니라 고을의 역사지리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지도는 조선 지방 사회의 모습과 함께 지방민이 인식한 공간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19세기 읍지 편찬과 1872년 지방지도 제작의 바탕이 되었다.

1973년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해 영인되고, 2000년대에는 한글로 번역된 이후 한국 학계에서는 무게감 있는 사료로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도의 경우 채색 원도가 소개되어 있지 않아 이의 해석은 책의 중요성에 버금가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여지도서』는 한국 지방사 연구 뿐 아니라 고지도 발달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일부 군현의 읍지가 결절되어 있으나 이는 당시의 편찬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지 형태와 지도 채색은 원형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자료이다.

마.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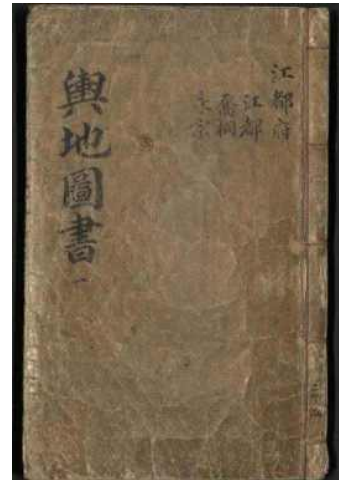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여지도서』는 조선 후기에 편찬된 전국 지리지로서 총 55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편이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데, 1책의 경우 표지를 포함한 지도와 본문 부분을 포함하는 몇 쪽에 불뚝이 떨어져 작은 구멍이 나 있다. 그러나 훼손된 부분이 작아서 내용 파악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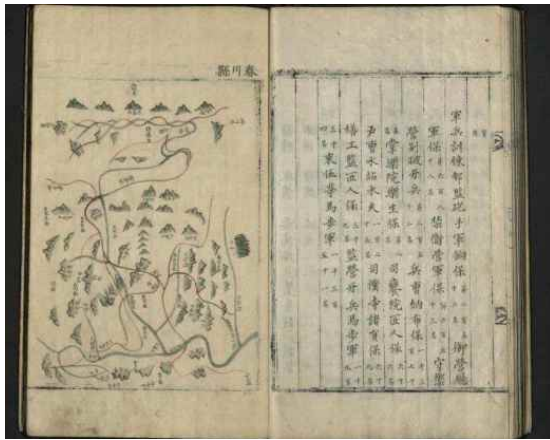


○ 내용 및 특징

<내용>

『여지도서』는 조선 영조 재위 기간인 1757~1765년에 편찬된 지리지이다. 조선 전기에 편찬되었던 『신증 동국여지승람』을 계승하는 조선 후기의 유일한 관찬 전국 지리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여지도서』에는 개별 군현의 개성이 반영된 채색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명칭에 ‘도(圖)’와 ‘서(書)’가 병칭된 점에서 지도에 큰 비중이 두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호구와 전결, 부세, 군병 등 통치에 필요한 경제, 군사 관련 조항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역 사이의 거리와 도로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성씨’ 조항에서 지역에 따라 성관(姓貫)의 개변 현상이 확인되어 역사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징>

『여지도서』는 중앙 정부의 효율적인 지방 통치를 위한 기본 자료로 편찬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과 지방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여지도서』는 이후 편찬되는 지리지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편찬되었던 조선 전기의 관찬 지리지와는 달리 각 도별로 항목이나 내용의 구성에 차이가 있다. 또한 경기, 충청, 전라도의 일부 읍과 진영의 지리지도 누락되어 있다.



○ 문헌자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참고문헌

- 최영희, 「여지도서해설」, 『여지도서』, 국사편찬위원회, 1973.
- 배우성,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998.
- 변주승, 「여지도서의 성격과 도별 특성」, 『한국사학보』 25, 2006.
- 이상식, 「여지도서를 통해 본 지방행정 체계의 구성 및 운영원리」, 『한국사학보』 25, 2006.
- 문용식, 「여지도서를 통해 본 18세기 조선의 환곡 운영 실태」, 『한국사학보』 25, 2006.
- 이철성, 「여지도서에 나타난 전결세 항목의 텍스트적 이해」, 『한국사학보』 25, 2006.
- 서종태, 「여지도서의 물산 조항 연구」, 『한국사학보』 25, 2006.
- 김우철, 「여지도서 ‘성씨’조의 검토」, 『한국사학보』 25, 2006.



○ 현 상

<書誌 記述>

輿地圖書 / 洪良漢(改名 良浩), 金應淳, 李激, 徐命膺 編纂

-- 筆寫本 -- [刊行地 不明] : [刊行處 不明], [朝鮮 英祖代(1757~1765)].

55冊 : 彩色圖, 31.0×20.5cm

表紙題: 輿地圖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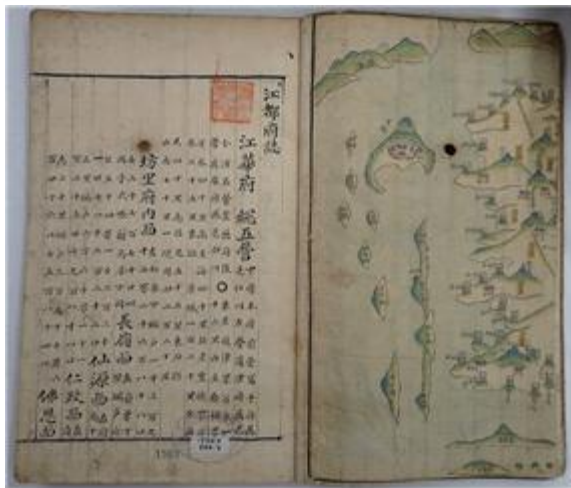
印 文: 顯揚會圖書館所藏印(方形朱印)/卷首,

한국교회사연구소장서(타원형스탬프인)/卷首/卷尾

<現狀>

조사본 『輿地圖書』는 天主教 朝鮮教區長이었던 뮈텔(Gustave-Charles-Marie Mutel/閔德孝 아우구스티노) 주교의 蒐集文獻中の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책의 권수에 방형주인의 ‘顯揚會圖書館所藏印’이 찍혀 있어 韓國天主教殉教者顯揚會에 소장되었던 자료임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전체 55책으로 표지 및 내지에서 오명과 충식 등 지류 유물에서 보이는 일반적 인 오염이 확인되고 있다. 1970년대 영인본 제작을 위해 해체되었다고 전하는데, 책사 외에 원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내용 및 특징

조사본 『여지도서』는 영조대에 각 도의 邑誌를 收聚, 改修하여 成冊한 자료이다. ‘輿地圖書’의 의미에는 ‘輿地圖(各邑地圖)’와 ‘書(各邑邑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조선시대 지리적 정보는 국가 경영의 중요한 기초자료였다. 따라서 각 지역의 정보가 수록된 지지와 지도의 제작사업은 일찍부터 국가 기관의 관장하에 이루어졌다. 중국의 경우에 고대에서부터 職方氏라는 관직을 두어 천하의 지도를 관장하게 하였으나, 조선 왕조의 경우에는 지도 제작을 전담하는 관서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조선 왕조에서 제작되었던 지도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성종실록』에 보이는 양성지(梁誠之, 1415~1482)의 상소를 통하여 확인된다.

㉔ 신이 그옥이 생각하건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은 문한(文翰)의 요긴한 서적입니다. 산천의 형승(形勝)과 주군(州郡)의 연혁들을 이로 인하여 알 수 있으며, 풍속의 좋고 나쁨과 인재의 훌륭한 것과 훌륭한 것이 못한 것도 이 서적으로 인하여 상고하게 되며, 심지어 시(詩)로써 물상(物像)을 읊조린 것과 문(文)으로써 사실을 기록한 것들도 모두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니다. 그러니 인쇄하여 반포하도록 명령하시면 사문(斯文)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㉔ 신이 그옥이 생각하건대 지리지(地理誌)는 국가의 도적(圖籍)으로서 역대에 모두 있었습니까. 송나라에는 『九域誌』가 있었고, 명나라에는 『一統誌』가 있었습니다. 신이 세종대왕 때에 『高麗史』·『地理誌』를 찬수하였었고, 세조대왕 때에도 지도(地圖)와 지지(地誌)의 일을 명령받았는데, 예종대왕이 즉위하여서는 편찬을 빨리 마치라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무자년 겨울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무술년 1월에 서책이 완성되어 진상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이를 인쇄하여서 관부(官府)에 수장(收藏)하여 주시면 군국(軍國)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㉕ 신이 그옥이 생각하건대 지도(地圖)는 관부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또 민간에 흩어져 있게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에는 고려의 중엽 이전에는 「오도양계도(五道兩界圖)」가 있었고, 아조(我朝)의 처음에는 이회(李薺)의 「팔도도(八道圖)」가 있었으며, 세종조에는 정척(鄭陟)의 「팔도도(八道圖)」와 양계(兩界)의 「대도(大圖)」·「소도(小圖)」 등이 있었고, 세조조에는 신(臣)이 만들어서 진상한 「팔도도(八道圖)」와 여연(閔延)·무창(茂昌)·우예(虞芮)의 「삼읍도(三邑圖)」가 있으며, 그리고 지금 신이 만들어서 진상하는 「연변성자도(沿邊城子圖)」·「양계연변방수도(兩界沿邊防戍圖)」·「제주 삼읍도(濟州三邑圖)」와 안철손(安哲孫)이 만든 「연해조운도(沿海漕運圖)」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유소(魚有沼)가 만든 「영안도 연변도(永安道沿邊圖)」와 이순숙(李淳叔)이 만든 「평안도 연변도(平安道沿邊圖)」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삼도(下三道)의 감사영(監司營)에도 각기 도(圖)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倭) 승(僧) 도안(道安)이 만든 「일본·유구국도(日本琉球國圖)」와 「대명 천하도(大明天下圖)」도 비단과 종이로 만든 족자(簇子)가 각기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이 만든 지리지 안에는 팔도 주군도(八道州郡圖)·팔도 산천도(八道山川圖)·팔도 각일 양계도(八道各一兩界圖)·요동도(遼東圖)·일본도(日本圖)·대명도(大明圖)가 있습니다. 위의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두 관에서 거두어 홍문관에 비장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도 한결같이 관에서 거두어 의정부에 보관하게 하면 군국(軍國)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성종실록』 권138, 성종 13년 2월 13일 임자 / 1482년)

양성지의 상소에 보이듯 조선 전기에는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하여 「팔도도」와 「양계도(兩界圖)」, 「읍도(邑圖)」와 「연변성자도(沿邊城子圖)」·「양계연변방수도(兩界沿邊防戍圖)」·「연해 조운도(沿海漕運圖)」 등과 같이 군사적 중요성을 지니는 지도들이 상당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작 이후에는 주로 弘文館에 비장되었고, 필요에 따라 印刊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기록은 참고가 된다.

① 홍문관에서 《천하여지도(天下輿地圖)》를 바쳤다.

(『중종실록』 권14, 중종 6년 8월 12일 기축, 1511년)

② 홍문관에 《여지도(輿地圖)》를 인간하여 올리라 명하고, 각도(各道)의 읍지(邑誌)가 있는 것을 모두 모아서 올리라고 명하였다.

(『영조실록』 권106, 영조 41년 12월 8일 기유, 1765년)

조선 후기에도 국가가 주도하는 지도 제작이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최고의 정책결정기관으로 부상한 備邊司를 중심으로 국방과 관련된 군사지도를 비롯하여 많은 지도들이 제작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 목적으로 제작되는 경우는 지역의 형세, 인구, 재정 등과 관련된 내용을 지도를 통해 파악하려는 용도였고, 군사적 목적인 경우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대비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민간 주도의 지도 제작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민간에서의 지도 제작은 각종의 지리적 정보에 접근이 용이했던 관료 출신의 사대부나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김수홍(金壽弘, 1601~1681)과 윤두서(尹斗緒, 1668~1715)를 들 수 있다. 김수홍은 1666년 「천하고금대총편람도(天下古今大總便覽圖)」라는 세계지도를 제작했고, 1673년에는 「조선팔도고금총람도(朝鮮八道古今總覽圖)」라는 조선 전도를 목판 인쇄본으로 제작했다. 또한 윤두서는 「동국여지지도(東國輿地之圖)」와 「일본여도(日本輿圖)」를 제작하였다.

조사본 『여지도서(輿地圖書)』는 전체 55책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권의 구성은 京畿道(冊1~5)·忠淸道(冊6~13)·江原道(冊14~17)·黃海道(冊18~21)·平安道(冊22~30)·咸鏡道(冊31~35)·慶尙道(冊36~49)·全羅道(冊50~55)의 順으로 되어 있다. 수록된 감영과 읍지는 다음의 표와 같다.

책	도	수록 고을·영(營)
제1책 ~ 제5책	경기도	강화(江華), 교동(喬桐), 수영(水營), 영종(永宗), 양주(楊州) 영평(永平), 포천(抱川), 교하(交河), 가평(加平), 장단(長湍) 풍덕(豐德), 과천(果川), 부평(富平), 남양(南陽), 인천(仁川) 안산(安山), 진위(振威), 용인(龍仁), 금천(衿川), 양성(陽城) 통진(通津), 삭녕(朔寧), 마전(麻田), 연천(漣川), 광주(廣州) 여주(驪州), 이천(利川), 양근(楊根), 지평(砥平), 죽산(竹山) 음죽(陰竹), 양지(陽智)
제6책 ~ 제13책	충청도	감영(監營), 병영(兵營), 수영(水營), 공주(公州), 임천(林川) 한산(韓山), 전의(全義), 은진(恩津), 청주(淸州), 천안(天安) 옥천(沃川), 문의(文義), 직산(稷山), 충원(忠原), 청풍(淸風) 단양(丹陽), 괴산(槐山), 연풍(延豐), 음성(陰城), 영춘(永春) 제천(堤川), 홍주(洪州), 서천(舒川), 서산(瑞山), 태안(泰安) 면천(沔川), 목천(木川), 회인(懷仁), 진천(鎭川), 보은(報恩) 영동(永同), 황간(黃澗), 청산(靑山), 남포(藍浦), 결성(結城) 보령(保寧), 아산(牙山), 신창(新昌), 예산(禮山), 해미(海美) 당진(唐津), 평택(平澤), 홍산(鴻山), 덕산(德山), 청양(靑陽) 대흥(大興), 비인(庇仁), 회덕(懷德), 진잠(鎭岑), 연산(連山) 이산(尼山), 부여(扶餘), 석성(石城), 연기(燕岐)
제14책 ~ 제17책	강원도	감영(監營), 원주(原州), 춘천(春川), 정선(旌善), 영월(寧越) 평창(平昌), 삼척(三陟), 양양(襄陽), 평해(平海), 간성(杆城) 고성(高城), 통천(通川), 울진(蔚珍), 흙곡(歙谷), 김화(金化) 이천(伊川), 안협(安峽), 평강(平康), 강릉(江陵), 횡성(橫城)

책	도	수록 고을·영(營)
		홍천(洪川), 인제(麟蹄), 회양(淮陽), 철원(鐵原), 양구(楊口) 낭천(狼川), 금성(金城)
제18책 ~ 제21책	황해도	감영(監營), 병영(兵營), 수영(水營), 해주(海州), 연안(延安) 황주(黃州), 평산(平山), 곡산(谷山), 봉산(鳳山), 재령(載寧) 수안(遂安), 안악(安岳), 신천(信川), 신계(新溪), 토산(兔山) 서흥(瑞興), 문화(文化), 장련(長連), 풍천(豐川), 장연(長淵) 배천(白川), 금천(金川), 송화(松禾), 은율(殷栗), 강령(康翎) 옹진(瓮津)
제22책 ~ 제30책	평안도	감영(監營), 병영(兵營), 평양(平壤), 중화(中和), 용강(龍岡) 의주(義州), 철산(鐵山), 용천(龍川), 영변(寧邊), 운산(雲山) 희천(熙川), 박천(博川), 태천(泰川), 강계(江界), 위원(渭原) 이산(理山), 벽동(碧潼), 영원(寧遠), 삼화(三和), 강서(江西) 증산(甌山), 순안(順安), 함중(咸從), 성천(成川), 덕천(德川) 개천(价川), 순천(順川), 자산(慈山), 창성(昌城), 삭주(朔州) 구성(龜城), 선천(宣川), 광산(郭山), 상원(祥原), 삼등(三登) 양덕(陽德), 맹산(孟山), 강동(江東), 은산(愍山), 안주(安州) 정주(定州), 숙천(肅川), 가산(嘉山), 영유(永柔)
제31책 ~ 제35책	함경도	감영(監營), 남병영(南兵營), 북병영(北兵營), 함흥(咸興), 영흥(永興) 경성(鏡城), 길주(吉州), 명천(明川), 회령(會寧), 정평(定平) 고원(高原), 안변(安邊), 덕원(德源), 문천(文川), 북청(北靑) 단천(端川), 이성(利城), 홍원(洪原), 갑산(甲山), 삼수(三水) 종성(鍾城), 온성(穩城), 경원(慶源), 경흥(慶興), 부령(富寧) 무산(茂山)
제36책 ~ 제49책	경상도	감영(監營), 통영(統營), 좌병영(左兵營), 우병영(右兵營), 좌수영(左水營) 대구(大丘), 경주(慶州), 진주(晋州), 합천(陝川), 청송(靑松) 예천(醴泉), 영천(榮川), 풍기(豊基), 의성(義城), 영양(英陽) 영덕(盈德), 상주(尙州), 성주(星州), 선산(善山), 금산(金山) 동래(東萊), 청하(淸河), 영일(迎日), 장기(長坵), 기장(機張) 언양(彦陽), 칠곡(漆谷), 밀양(密陽), 청도(淸道), 경산(慶山) 자인(慈仁), 안동(安東), 순흥(順興), 영해(寧海), 김해(金海) 창원(昌原), 함안(咸安), 거제(巨濟), 고성(固城), 칠원(漆原) 진해(鎭海), 웅천(熊川), 신녕(新寧), 하양(河陽), 인동(仁同) 현풍(玄風), 의흥(義興), 영산(靈山), 창녕(昌寧), 초계(草溪) 함양(咸陽), 곤양(昆陽), 남해(南海), 거창(居昌), 개령(開寧) 지례(知禮), 고령(高靈), 문경(聞慶), 함창(咸昌), 봉화(奉化) 진보(眞寶), 군위(軍威), 비안(比安), 예안(禮安), 용궁(龍宮)
제50책 ~ 제55책	전라도	광주(光州), 장성(長城), 영암(靈巖), 영광(靈光), 함평(咸平) 고창(高敞), 능주(綾州), 광양(光陽), 구례(求禮), 흥양(興陽) 동복(同福), 화순(和順), 순창(淳昌), 용담(龍潭), 창평(昌平) 임실(任實), 무주(茂朱), 곡성(谷城), 옥과(玉果), 흥덕(興德) 부안(扶安), 옥구(沃溝), 용안(龍安), 함열(咸悅), 고산(高山) 태인(泰仁), 나주(羅州), 무장(茂長), 남평(南平), 무안(務安) 장흥(長興), 진도(珍島), 강진(康津), 해남(海南), 운봉(雲峯) 진안(鎭安), 장수(長水), 순천(順川), 낙안(樂安), 보성(寶城)
계		313곳(고을: 295, 영지: 18)

각 권의 내용을 보면 첫머리에는 彩色된 全圖를 시작으로 都總論과 建治沿革을 수록하였고 이어서 40여 항의 편목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 순서는 대부분 동일하다. 편목의 내용은 疆域·坊里(戶口포함)·道路·建置年革·郡名·形勝·城池·官職·山川·姓氏·風俗·陵寢(墓)·壇廟·公廡·堤堰·倉庫·物産·橋梁·驛院·牧場·關陜·烽燧·樓亭·寺刹·古跡·鎭堡·人物·旱田·進貢·糶糴·田稅·大同·俸廩·軍兵(軍備) 등이다.

또한 各論에 해당하는 각 郡邑에 대한 기록은 監營을 필두로 鎭營別로 분류하였다. 郡邑에 있어서도 첫머리에는 채색된 지도를 수록하고 이어서 邑誌를 기록하였다.

조사본 『여지도서』의 형태와 수록된 내용은 앞서 간행되었던 지리지와 비교할 때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내용상 가장 상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당시의 歷史·地理·政治·社會·軍事·軍備·財政·經濟·交通 등을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사본 『여지도서』는 전체 55책으로 구성상 缺冊이 없다. 그러나 당시의 행정구획과 대비해 보면, 江原·黃海·咸鏡·平安道 邑誌는 完帙이나, 京畿道の 9個邑과 2個의 營誌, 忠淸道の 3個邑, 慶尙道の 11個邑, 全羅道の 16邑과 4個營誌에 대한 기록은 없다. 또한 八道の 全圖와 總論, 京畿道の 全圖와 總論, 全羅道の 全圖와 總論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책	도	결결 고을·영(營)
제1책 ~ 제5책	경기도	한성(漢城), 개성(開城), 과주(坡州), 고양(高陽), 적성(積城) 수원(水原), 안성(安城), 양천(陽川), 김포(金浦), 감영(監營) 병영(兵營)
제6책 ~ 제13책	충청도	정산(定山), 온양(溫陽), 청안(淸安)
제14책 ~ 제17책	강원도	-
제18책 ~ 제21책	황해도	-
제22책 ~ 제30책	평안도	-
제31책 ~ 제35책	함경도	-
제36책 ~ 제49책	경상도	울산(蔚山), 양산(梁山), 영천(永川), 흥해(興海), 사천(泗川) 삼가(三嘉), 의령(宜寧), 하동(河東), 산음(山陰), 안음(安陰) 단성(丹城)
제50책 ~ 제55책	전라도	남원(南原), 담양(潭陽), 제주(濟州), 대정(大靜), 정의(旌義) 만경(萬頃), 임피(臨陂), 정읍(井邑), 전주(全州), 익산(益山) 김제(金堤), 금산(錦山), 고부(古阜), 진산(珍山), 금구(金溝) 여산(礪山) 감영(監營), 병영(兵營), 좌수영(左水營), 우수영(右水營)
계		45곳(고을: 39, 영지: 6)

이같이 조사본 『여지도서』는 전55책의 완질 형태를 갖추었으나 내용상으로는 결락된 읍지가 많다는 점에서 완성된 지리지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조사본에 보이는 附箋이나 各邑誌에 붙은 여러 작은 附箋 또는 修正의 傍點 등의 내용을 통하여 어느 정도 그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6책에 보이는 附箋紙의 내용이다.



<溫陽·定山·清安三邑邑誌不來 更詳之>

조사본 『여지도서』 제6권의 앞표지 이면에는 “溫陽·定山·清安三邑邑誌不來 更詳之”이라고 기록된 부전지가 부착되어 있다. 곧 “온양, 정산, 정안의 3개읍의 읍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다시 살펴야 한다.”는 내용을 통하여 55책본은 각 읍에서 上送한 읍지의 완성본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책의 전래 과정에 대해서도 『승정원일기』에 보이는 다음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乙酉十二月初八日二更, 上御思賢閣 副提學入侍時, 副提學徐命膺, 右副承旨李瀾, 假注書趙貞相, 記事官安聖彬·鄭來謙, 以次進伏訖 …(중략)… 命膺曰, 最初洪良漢, 爲玉堂時陳達, 八道邑誌, 修正以上, 此則有印本有寫本矣 其後金應淳, 爲玉堂時, 陳達改修正, 而李激, 爲玉堂時, 行關於八道, 故臣於其時, 添刪國錄, 定爲凡例, 下送於行關時, 本館古例, 發關儒臣, 每以一件分兒, 故其輿地圖書二本上來, 一本內入, 一本分兒於李激, 故臣得之矣 上曰, 輿地圖書, 卿所名乎 命膺曰, 然矣 上命注書出問于弘文館, 輿地圖書一件在本館與否知入 臣貞相奉命, 出問于弘文館, 則只有邑誌, 而輿地圖書, 則不在本館之由仰奏訖 仍以次退出

(『承政院日記』 영조 41년 12월 8일(기유))

乙酉 十二月初八日 二更에 임금께서 思賢閣에 계셨다. 副提學 徐命膺, 右副承旨 李瀾, 假注書 趙貞相, 記事官 安聖彬과 鄭來謙 등이 차례로 나아가 앉드렸다. (중략)… 서명옹이 말하기를 “최초에 洪良漢이 玉堂에 있을 때에 진달할 때에 八道邑誌를 수정하여 올렸으니 곧 印本과 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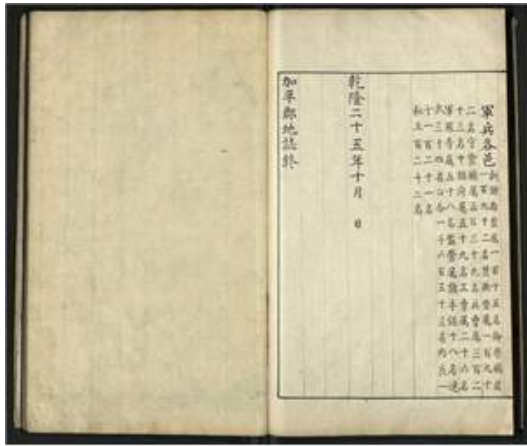
본이 있었습니다. 그 후 金應淳이 옥당에 있으면서 진달할 때에 다시 수정하였고, 李澱이 玉堂에 있으면서 八道에 行關할 때에 신은 그 때에 圖錄을 添刪하고 凡例를 정하여 행관하였습니다. 본관(弘文館)의 古例로서 發關儒臣은 每 1件을 分兒하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輿地圖書 2本이 上來하였을 때 1本은 內入하고, 1本은 行關儒臣인 李澱에게 分兒하였고 그러기에 신이 얻은 것입니다.”하였다. 임금께서 말하기를 “輿地圖書는 경이 이름지은 것인가” 물으시니 명응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께서 주서에게 명하여 홍문관에 나아가 輿地圖書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라 하셨다. 주서 貞相이 명을 받들고 홍문관에 나아가 묻고, 다만 邑誌는 있으나 輿地圖書는 홍문관에 없음을 아뢰었다. 인하여 모두 물러갔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통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본래 洪良漢에 의하여 팔도읍지를 제작하여 당시는 印本과 寫本이 있었고, 이후 金應淳과 李澱에 의해서 개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홍문관에 내입하였던 1본과 李澱에게 分兒되어 徐命膺이 얻었던 또다른 1본이 있었으나, 영조 41년(1765) 당시에는 홍문관에는 전해지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조사본 『여지도서』에 대해서는 영조대의 2본 가운데 徐命膺이 소장하였던 본이라는 검토도 있으나, 그에 대한 연구는 진행중이다.

조사본 『여지도서』에는 295개의 군현 邑誌, 17개의 營誌(監營誌, 兵營誌, 水營誌, 統營誌 등), 1개의 鎭誌를 수록하고 있다. 이들 읍지의 작성 시기는 대체적으로 1760년대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읍지 일부에 보이는 연대 기록을 통하여 확인된다. 또한 各邑誌의 戶口·田結·賦稅關係의 帳籍은 거의 『己卯帳籍』을 基準으로 하고 있다. 式年으로서의 己卯年은 英祖 35年(1759)에 해당한다.



<乾隆 二十五年 十月日(英祖 36年, 1760)>

조사본 『여지도서』는 조선 전기의 대표적 관찬 지리서로 평가되는 『동국여지승람』(총 50권)과 비교된다.

『동국여지승람』은 성종이 노사신(盧思愼)·양성지(梁誠之)·강희맹(姜希孟) 등에게 명의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와 조선에서 제작했던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를 참고하여 새로운 지리서를 편찬하도록 지시하였다. 『동국여지승람』

은 처음에 모두 50권으로 제작되었고, 이후 성종대와 연산군대에 수정 작업을 거쳐 1530년(중종 25) 이행(李荇)·윤은보(尹殷輔)·신공제(申公濟)·홍언필(洪彦弼)·이사균(李思鈞) 등이 증보해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간행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모두 55권 25책으로 권1~2 경도(京都), 권3 한성부, 권4~5 개성부, 권6~13 경기도, 권14~20 충청도, 권21~32 경상도, 권33~40 전라도, 권41~43 황해도, 권44~47 강원도, 권48~50 함경도, 권51~55 평안도로 구성되었다. 내용을 보면 각 지역의 앞부분에 지도가 수록되어 있고, 도의 연혁·풍속·묘사(廟社)·능침(陵能)·궁궐·관부(官府)·학교·토산(土産)·효자·열녀·성곽·산천·누정(樓亭)·사사(寺社)·역원(驛院)·교량(橋梁) 등이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조사본 『여지도서』는 전체 55책 구성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으나, 수록된 내용의 편제에서 차이가 보인다.

곧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서울인 京都 漢城府, 開城府를 앞에 두고, 이어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의 순으로 道別 위치를 두었다. 그런데 조사본 『여지도서』는 京畿道(冊1~5)·忠淸道(冊6~13)·江原道(冊14~17)·黃海道(冊18~21)·平安道(冊22~30)·咸鏡道(冊31~35)·慶尙道(冊36~49)·全羅道(冊50~55)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구성은 책의 간행 주체가 국가인가 민간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조사본 『여지도서』는 각 읍의 첫머리에 각 군현의 채색지도를 부착하였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각 읍지마다 거리와 방위 등이 정확한 읍지도가 첨부되어 지도와 읍지가 밀접하게 결합된 지리지의 양식을 확립했다. 다만, 각 읍에서 작성한 읍지를 각도 監營을 통해 수취하여 합책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 내용은 통일되지 않고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지도의 定置 방향을 보면 대부분 북쪽을 위로 하여 그려져 있으나 다른 방위를 위로 배치한 경우도 상당수 확인된다.



<경기도 楊州牧(北)>



<경기도 豐德府誌(東)>

조사본 『여지도서』는 ‘輿地圖’와 ‘書’의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보듯이 각 읍의 건치 연혁 등 역사와 문화 관련 자료 그리고 지역의 공간을 그린 지도를 수록한 자료이다. 조선 후기 사회의 지방 지배와 향촌 내용 뿐만 아니라 고을의 역사지리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서 학술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오상학, 「조선시대 지도 제작의 문화적 특성」, 『국사관논총』 107, 2005.
- 노희방, 「『여지도서』에 게재된 색지도에 관한 연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10-1, pp.1~17, 1980.
- 양윤정, 「『여지도서』 편찬과 군현지도의 발달」, 『규장각』 43, pp.1~29, 2013.
- 정대영, 「영조연간 전국지리지 『여지도서』의 서지학 연구」, 『서지학연구』 68, pp.377~413, 2016.
- 국사편찬위원회, 「해설」, 『여지도서』 상·하(영인본), 1973.

□

○ 현 상

1. 소장 경위 및 서지 형태



<도1. 『여지도서』 평안도편, 55책 중 제22~30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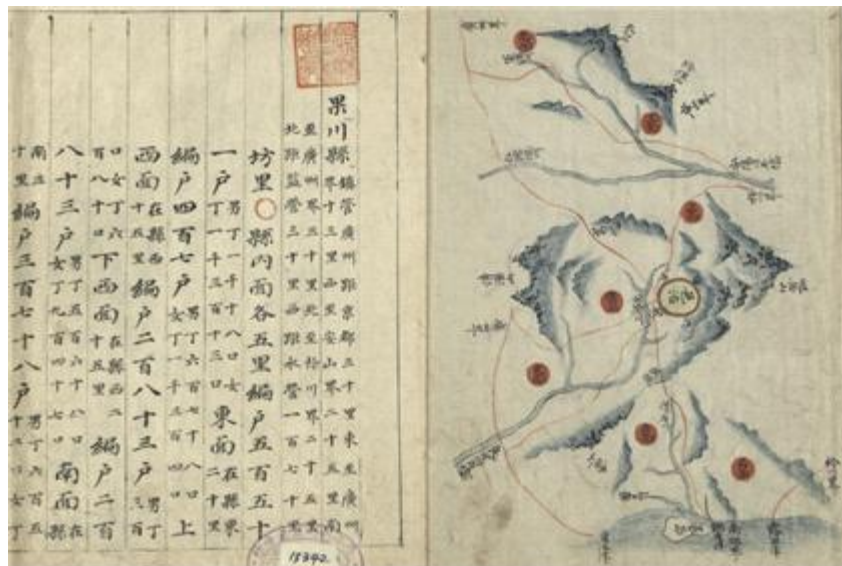
<소장기관 직인>

『여지도서』는 18세기 1757~1765년(영조 33~41)에 전국의 읍지를 모아 편찬한 지리서이다[도1]. 한국교회사연구소(이하 ‘교회사본’)에 소장되어 있으며, 19세기 말 천주교 한국교구장 뮈텔(A. Mutel)이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랑(M. Courant)의 『한국서지』에 수록되어 않은 것으로 보아 1896년 이후에 소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영인본, 「해설」, 1973).

책에는 ‘顯揚會圖書館印’이 방형 주인(朱印) 형태로 찍혀 있다[도2]. 현양회는 가

톨릭 순교자를 기리기 위해 1946년 설립된 단체이다. 교회사연구소가 1964년에 설립된 것으로 볼 때, 19세기 말 수집된 『여지도서』는 현양회를 거쳐 연구소로 이관되어 소장되었음을 보여준다.

1973년 『경향신문』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바 있으며, 같은 해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본을 만들어 보급하였다. 이를 위해 해체된 적이 있으며, 원상은 회복되어 있다. 일부 지면에서 충식(蟲蝕)과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도3. 제3책 경기도 과천현 지리지와 지도>

책의 크기는 31.8×20.3cm 내외로, 총 55책, 3,652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질은 저지(楮紙)이며, 표지는 두꺼운 장지(壯紙)의 능화문으로 장황되어 있다. 표지에는 책제인 ‘輿地圖書’와 함께 우측에 수록 군현이 쓰여 있다. 우측 하단에 쓰여진 ‘五十五’는 전체 구성 권수를 나타낸다. 표지의 군현 지명은 편찬 당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평안도 리산(理山)에는 1776년(정조 1) 피휘로 개명한 ‘楚山’ 지명이 가필되어 있다.

읍지는 지리지와 군현 지도로 구성되어 있다[도3]. 지리지의 본문은 10줄의 계선 위에 쓰여 있으며, 일부 도의 경우 적색 계선이 그어져 있다. 판심제는 쓰여 있지 않다. 지도는 채색필사본으로 1면 혹은 2면에 걸쳐 회화식으로 그려져 있다.

지도는 각 읍지의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1면 혹은 2면을 이용하여 묵색 혹은 적색의 광곽안에 채색 필사로 그려져 있다. 당시 『해동지도』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고을 지도가 중앙에서 만들어졌으나, 『여지도서』는 당시 지방 화원들이 그린 것이다.

2. 편찬 배경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지역사회는 전면적인 변동을 겪었고, 국가 경영

을 위한 지리지와 지도 편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숙종조때에는 『동국여지승람』의 개정 작업이 시도되었으나 완성되지 못하였다. 한편 17세기 후반에 반계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동국여지지』를 편찬하였으나 사찬 읍지로 전국지리지 가 갖추어야 할 종합적인 성격은 결여되어 있었다.

『여지도서』 편찬은 이전 관찬 지리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홍양한(洪良漢, 1724~1802)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지도 지식에 능하였으며 정상기(鄭尙驥)의 『동국지도』를 영조에게 소개한 인물이다. 『동국여지승람』 이후 지리지와 지도 제작이 없었음을 논하고 영조에게 홍문관 주관으로 지도가 포함된 팔도의 읍지를 편찬할 것을 청하여 허락받았다.

1757년(영조 33)에 군현지도가 첨부된 읍지[戊寅本]가 ‘輿地圖書’ 이름으로 올려졌다. 그러나 홍문관에서는 1760년에 항목과 작성 지침을 수정하여 읍지를 다시 편찬에 올리라는 관문(關文)을 내렸고, 이에 의해 각 군현에서는 어람용, 감영보관용, 홍문관용 3종류의 읍지를 작성하였다. 1765년 홍문관에서는 이중 어람용을 ‘여지도서’ 이름으로 영조에게 올렸다. 책제는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이 명명한 것이다(『승정원일기』, 영조 41년 12월 8일).

교회사본은 이 중 1760년본(영조 36)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읍지의 호구수가 ‘己卯年’(영조 35)식인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교회사본에 여러 군현의 읍지가 결집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1765년 영조에게 올린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교회사본에는 여러 곳에서 작은 부전(附箋)과 수정 방점이 있다. 특히 제6권 충청도의 표지 이면에 ‘溫陽·定山·淸安三邑邑誌不來 更詳之’ 내용이 쓰인 부전지가 있다[도4]. ‘온양, 정산, 정안 3개읍의 읍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다시 살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도4. 제6권 부전지>

또한 책의 도별 순서를 보면 경기도-충청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경

상도-전라도 순으로 편책되어 있어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이전 관찬지리의 순서와는 차이가 있다. 책의 표지에 1~55의 일련번호가 모두 쓰여 있어, 최종본이 완성되기 전에 중간 단계의 완성본임을 추정하게 한다.

○ 내용 및 특징

1. 읍지

『여지도서』의 내용 구성은 [표1]과 같다. 전국 296곳의 고을 읍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시 334군현 중 39곳은 결질되어 있다. 누락 군현은 경기도에 9곳, 충청도 3곳, 경상도 11곳, 전라도에 16곳이 있다.

읍지 외에 감영, 병영, 수영 중 13곳의 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병영의 경우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경상도의 소재 병영, 수영은 충청도, 황해도, 경상도의 소재 수영을 다루었다. 경기도 감영·병영, 전라도 감영·병영·좌수영·우수영의 6곳은 누락되어 있다.

<표1. 『여지도서』 체제와 구성(※수록 고을은 표3. 수록 지도 참조)>

책 구성	도	전체 고을수	(수록)영지	(수록)읍지	(결질) 고을·영(營)
제1~5책	경기도	한성(1) 경기 (39고을)	영종진	31	한성(漢城), 개성(開城), 파주(坡州), 고양(高陽), 적성(積城), 수원(水原), 안성(安城), 양천(陽川), 김포(金浦)(9곳), 감영(監營), 병영(兵營)(2곳)
제6~13책	충청도	54	관찰영, 병영, 상당산성, 수영	51	정산(定山), 온양(溫陽), 청안(淸安)(3곳)
제14~17책	강원도	26	감영	26	-
제18~21책	황해도	23	감영, 병영, 수영	23	-
제22~30책	평안도	42	관찰영 병영	42	-
제31~35책	함경도	23	관찰영 남병영, 관찰영 북병영	23	-
제36~49책	경상도	70	관찰영, 통제영, 좌병영, 우병영, 좌수영	60	울산(蔚山), 양산(梁山), 영천(永川), 흥해(興海), 사천(泗川), 삼가(三嘉), 의령(宜寧), 하동(河東), 산음(山陰), 안음(安陰), 단성(丹城) (11곳)
제50~55책	전라도	56	-	40	남원(南原), 담양(潭陽), 제주(濟州), 대정(大靜), 정의(旌義), 만경(萬頃), 임피(臨陂), 정읍(井邑), 전주(全州), 익산(益山), 김제(金堤), 금산(鎭山), 고부(古阜), 진산(珍山), 금구(金溝), 여산(礪山) (16곳), 감영(監營), 병영(兵營), 좌수영(左水營), 우수영(右水營)(4곳)
계	8	334	19	296	45곳(고을: 39, 영지: 6)

[표2]는 『여지도서』 수록 항목을 『신증동국여지승람』(이하 ‘승람’)과 비교한 것이다. 『승람』은 약 2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군현의 지리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고을의 연혁과 산천, 봉수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 중 제영(題詠)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산천 항목에서는 읍치로부터의 방위와 거리가 수록되어 이전의 『세종실록지리지』와 차이를 보인다.

『여지도서』는 3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승람』보다 훨씬 늘어났다. 또한 제영 항목이 삭제되고, 호구수와 도로, 제언[저수지], 목장, 한전[밭]과 수전[논]의 결부면적 등 사회경제적인 내용의 항목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이 중 호구수는 대부분 기묘년(己卯年, 1759) 통계를 따르고 있다.

읍지가 편찬되는 18세기는 이양법(移秧法)에서 비롯된 이모작(二毛作)이 지리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이며 이는 저수지 축조로 이어졌다. 『여지도서』의 한전과 수전, 제언 항목은 당시 지방에서 나타난 농업 지역의 변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김기혁, 1991; 정치영, 2008). 이외에 방면(坊面) 지명과 호구수가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산천조에 수록된 지명은 조선 전기의 지리지에 비해 훨씬 자세하여 완성도가 매우 높다.

<표2. 『여지도서』 읍지 구성 항목(붉은색은 새롭게 수록된 항목임)>

지리지	수록 항목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55권 25책)	연혁(沿革)·관원(官員)·군명(郡名)·성씨(姓氏)·풍속(風俗)·형승(形勝)·산천(山川)·토산(土産)·성곽(城郭)·관방(關防)·봉수(烽燧)·누정(樓亭)·학교(學校)·역원(驛院)·교량(橋梁)·불우(佛宇)·묘사(廟祠)·능묘(陵墓)·고적(古蹟)·명환(名宦)·인물(人物)·제영(題詠)
『여지도서』 (1757~1765년, 55책)	강역(疆域)· 방리(坊里) · 호구(戶口) ·도로(道路)·연혁(沿革)·군명(郡名)·형승(形勝)·성지(城池)·관직(官職)·산천(山川)·성씨(姓氏)·풍속(風俗)·능침(陵寢)·단묘(壇廟)·공해(公廩)· 제언(堤堰) ·창고(倉庫)·물산(物産)·교량(橋梁)·역원(驛院)·목장(牧場)·관애(關陬)·봉수(烽燧)·누정(樓亭)·사찰(寺刹)·고적(古蹟)·총묘(塚墓)·진보(鎭堡)·명환(名宦)·인물(人物)· 한전(旱田) · 수전(水田) ·진공(進貢)·조적(糶糶)·전세(田稅)·대동(大同)·봉름(俸廩)·군병(軍兵)

2. 지도

2-1) 지도 구성

『여지도서』에 수록된 지도는 [표3]과 같다. 도별도, 영지도(營地圖), 군현지도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 중 도별도는 감영 단위의 지리지에 첨부한 지도이다. 8개도 중 경기도와 전라도를 제외한 6개도의 앞부분에 첨부되어 있다. 강원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4개도는 2면에 걸쳐 그려져 있다. 지도 구도는 대부분 북쪽을 위로 향하여 그려져 있다. 함경도 지도의 경우 아래쪽으로 정치되어 있으며 지도제도 ‘關北地圖’로 쓰여 있다.

<표3. 수록 군현 지도(※괄호 안 숫자는 그려진 면수, 붉은색은 이 중 1면에 그려진 군현 표시임)>

도	수록 지도	감영(도별도)		영지도 (면)	고을 지도(순서 및 배치 면)
		지도제	정치		
경기도	32	-	-	[제1책] 영종진(1)	《31매》 [1책]강화(2)-교동(1)-[영종] [2책]양주(1)-영평(1)-포천(1)-교하(1)-가평(1)-장단(1)-풍덕(1) [3책]과천(1)-부평(1)-남양(1)-인천(1)-안산(1)-진위(1)-용인(1)-금천(1)-양성(1)-통진(1) [4책]삭령(1)-마전(2)-연천(1)-광주(2)-여주(1) [5책]이천(1)-양근(1)-지평(1)-죽산(2)-음죽(2)-양지(1)
충청도	55	「忠淸道」(2)	북	[제6책] 병영(1), 상당산성(1), 수영(2)	《51매》 [6책]공주(2)-임천(2)-한산(2)-전의(2)-은진(2) [7책]청주(2)-천안(2)-옥천(2)-문의(2)-직산(2) [8책]중원현(2)-청풍(2)-단양(2)-괴산군(2)-연풍현(2)-음성(2)-영춘(2)-제천(2) [9책]홍주(2)-서천(2)-서산(2)-태안(2)-면천(2) [10책]목천(2)-회인(2)-진천(2)-보은(2)-영동(2)-황간(2)-청산(2) [11책]남포(2)-결성(2)-보령(2)-아산(2)-신창(2)-예산(2)-해미(2)-당진(2) [12책]평택(2)-홍산(2)-덕산(2)-청양(2)-대흥(2)-비인(2) [13책]회덕(2)-진잠(2)-연산(2)-니산(2)-부여(2)-석성(2)-연기(2)
강원도	27	미기재(1)	북	-	《26매》 [14책]원주(1)-춘천(1)-정선(1)-영월(1)-평창(1) [15책]삼척(1)-양양(1)-평해(1)-간성(1)-고성(1)-통천(1)-울진(1)-홍곡(1) [16책]금화(1)-이천(1)-안협(1)-평강(1)-강릉(1) [17책]횡성(1)-홍천(1)-인제(1)-화양(1)-철원(1)-양구(1)-낭천(1)-금성(1)
황해도	26	「黃海道」(2)	북	[제18책] 병영(2), 수영(2)	《23매》 [18책]해주(2)-연안(2) [19책]황주(2)-평산(2)-곡산(2)-봉산(2)-재령(2)-수안(2) [20책]안악(2)-신천(2)-신계(2)-토산(2)-서흥(2)-문화(2)-장련(2) [21책]풍천(1)-장연(2)-백천(2)-금천(2)-송화(2)-은율(2)-강령(2)-용진(2)
평안도	43	미기재(2)	북	-	《42매》 [22책]평양(2)-중화(2)-용강(2) [23책]의주(2)-철산(2)-용천(2) [24책]영변(2)-운산(2)-회천(2)-박천(2)-태천(2) [25책]강계(2)-위원(2)-리산(2)-초산(2)-가필(2)-벽동(2)-영원(2) [26책]삼화(2)-강서(2)-증산(2)-순안(2)-함흥(2) [27책]성천(2)-덕천(2)-개천(2)-순천(2)-자산(2) [28책]창성(2)-삭주(2)-구성(2)-선천(2)-곽산(2) [29책]상원(2)-삼등(2)-양덕(2)-맹산(2)-강동(2)-은산(2) [30책]안주(2)-정주(2)-숙천(2)-가산(2)-영유(2)
함경도	26	「關北地圖」(1)	남	[제31책] 남병영(2), 북병영(2)	《23매》 [31책]함흥(2)-영흥(1) [32책]경성(2)-길주(2)-명천(2)-회령(1) [33책]정평(2)-고원(1)-안변(2)-덕원(1)-문천(2) [34책]북청(2)-단천(2)-리성(1)-홍원(1)-갑산(2)-삼수(2) [35책]중성(2)-온성(1)-경원(1)-경흥(2)-부령(2)-무산(2)
경상도	65	「慶尙監營地圖」(2)	북	[제36책] 통제영(2), 좌병영(2), 우병영(2), 좌수영(2)	《60매》 [36책]대구(2) [37책]경주(2) [38책]진주(2)-합천(2) [39책]청송(2)-예천(醴川)(2)-영천(榮川)(2)-풍기(2)-의성(2)-영양(2)-영덕(2) [40책]상주(2)-성주(2)-선산(2)-김산(2) [41책]동래(2)-청하(2)-영일(2)-장기(2)-기장(2)-언양(2) [42책]칠곡(2)-밀양(2)-청도(2)-경산(2)-자인(2) [43책]안동(2)-순흥(2)-영해(2) [44책]김해(2)-창원(2) [45책]함안(2)-거제(2)-고성(2)-칠원(2)-진해(2)-웅천(2) [46책]신령(2)-하양(2)-인동(2)-현풍(2)-의흥(2)-영산(2)-창녕(2) [47책]초계(2)-함양(2)-곤양(2)-남해(2)-거창(2) [48책]개령(2)-지례(2)-고령(2)-문경(2)-함창(2) [49책]봉화(2)-진보(2)-군위(2)-비안(2)-예안(2)-용궁(2)
전라도	40	×	-	-	《40매》 [50책]광주(2)-장성(2)-영암(2)-영광(2)-함평(2)-고창(2) [51책]능주(2)-광양(2)-구례(2)-홍양(2)-동복(2)-화순(2) [52책]순창(1)-용담(2)-장평(2)-임실(2)-무주(2)-곡성(2)-옥파(2) [53책]홍덕(2)-부안(2)-우곡(2)-용안(2)-함열(2)-고산(2)-태인(2)-나주(2) [54책]무장(2)-남평(2)-무안(2)-장흥(2)-진도(2)-강진(2)-해남(2) [55책]운봉(2)-진안(2)-장수(2)-순천(2)-낙안(2)-보성(2)
	314매	6매		12매	296매

영·진지도는 12매가 수록되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영종진 지도 1매가 수록되어 있다. 충청도의 경우 병영과 산당산성, 수영지도 3매가 있으며, 황해도는 병영과 수영, 함경도는 남병영과 북병영, 경상도의 경우 통제영을 비롯한 4매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경기도 영종진, 충청 병영, 산당산성을 제외한 지도는 2면에 걸쳐 그려져 있다.

고을 지도는 296매가 수록되어 있다. 1고을 1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도가 누락된 군현은 없다. 지도 크기는 대부분 도에서 2면에 걸쳐 그려져 있는데 반해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1면에 그려져 있다. 함경도에는 23개 고을 중 7곳의 지도가 1면에 그려져 있다. 지도의 세로 길이와 광곽 형태는 본문의 형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변형된 경우가 나타난다. 경기도 강화부의 경우 전체 면을 이용하여 지도를 그렸다. 경상도의 경우 모든 고을에 지도제가 동일한 형식으로 쓰여 있다. 이와 같은 도별로 고을 지도의 형태는 책의 편찬에서 감영의 역할 범위를 엿보게 한다.

2-2) 지도 형태

<지도 정치(正置)>

지도가 그려진 형식은 군현마다 다르다. [표4]는 지도의 정치 내용과 사용된 방위표시를 정리한 것이다. 정치 방향을 보면 대부분 북쪽을 위로 하여 그려져 있으나 다른 방위를 위로 배치한 경우도 81곳의 고을로 적지 않다.

방위 표시는 지도에 쓰여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인접 고을 혹은 지도에 묘사된 건물 등을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195곳으로 가장 많다. 4방위를 사용한 고을은 89곳, 12간지를 이용한 군현은 12곳이다.

<표4. 지도 정치별 군현>

도	지도 숫자	지도 정치(위쪽 방위)					방위 표시			
		동	서	남	북	기타	東西南北	‘子午卯酉’	인접 고을	건물 등
경기도	31	5	1	3	21	1	9	5	15	2
충청도	51	7	10	1	32	1	32	-	19	-
강원도	26	2	9	-	15	-	2	-	23	1
황해도	23	-	1	1	20	1	10	2	11	-
평안도	42	5	-	5	31	1	6	-	36	-
함경도	23	2	7	6	6	2	8	1	13	1
경상도	60	1	3	5	51	-	22	4	28	6
전라도	40	-	1	-	39	-	-	-	40	-
전체	296	22	32	21	215	6	89	12	185	10

출처) 노희방(1980)을 바탕으로 정리, 수정한 내용임

<지도 채색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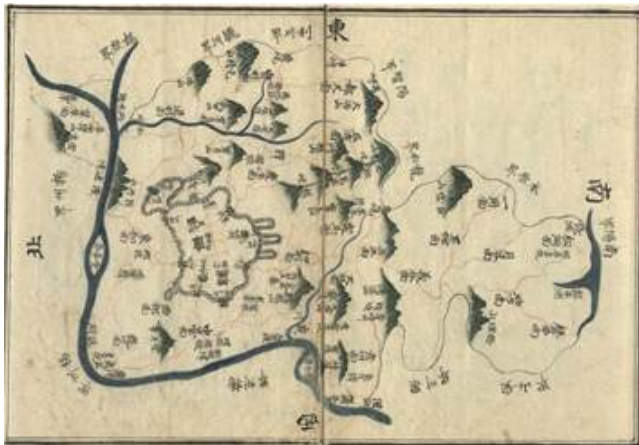
[도5]는 경기도의 강화부를 비롯한 4곳 군현에 첨부된 지도로 채색과 구성 방법에서 고을마다 다른 모습을 보인다. 강화부의 경우 2면에 걸쳐 그려져 있으며 광각 없이 전면에 걸쳐 그리고 있다. 지도 위쪽으로 북쪽으로 정치하고 있다. 섬의 동쪽에 한강이 서해로 유입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동쪽에는 염하가 묘사되어 있다. 남쪽에 영종진, 서쪽에 교동부가 그려져 있다. 산지는 청녹색을, 하천은 연한 회색 물감을 이용하였다. 산지는 이은 꺾쇠를 이용하여 줄기를 나타냈다. 섬의 중앙에 강화부 읍치가 배치되어 있으며 동쪽에 문수산성이 묘사되어 있다.



강화부



교하군



광주부



양주목

<도5. 지도 형태와 채색(경기도 4개 군현 사례)>

교하군의 경우 지도 아래쪽에 풍덕군과 통진을, 위쪽에 '南金海'를 기재하여 아래쪽을 북쪽으로 정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도의 오른쪽에 그려진 하천은 한강 하류에 해당된다. 지도는 주로 산과 하천 정보 중심으로 묘사하였다. 산지는 묵색 실선을 이용하여 줄기를 표현하였으며, 그 사이로 회색으로 채색된 하천이 흘러

한강으로 유입한다.

광주부 지도는 2면에 걸쳐 그려져 있으며, 좌측을 북쪽으로 정치하였다. 산지는 검청색 물감으로 독산(獨山)으로 묘사하였다. 이들 산지에서 하천이 발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지도에서 검청색으로 채색된 한강 유로가 좌측에서 아래쪽으로 흐른다. 하류 쪽에 '漢江' 지명이 쓰여 있다. 중앙에 성곽과 함께 읍치가 묘사되어 있는데, 지금의 남한산성에 해당한다. 방면 경계가 적색 실선으로 묘사되어 있다.

양주목 지도는 지금의 양주시, 남양주군, 의정부시 일대를 그린 것이다. 산지는 청녹색 물감을 이용하여 묘사되어 있으며 하천 유로는 연회색으로 채색하였다. 고을의 중앙 산지가 한강과 임진강 유역의 분수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고을 읍치는 지도 중앙에서 배치하고 황색 물감을 이용하였다. 이곳에서 각 방면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묘사되어 있다.

각 지방의 지도 형태가 이와 같이 고을별로 체계적이지 않은 것은 지도 제작의 환경이 원만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군현마다 화원들이 배속되어 있지 않았으며, 감영 혹은 수영에 간혹 배치되어 있었을 뿐이다. 홍문관에서 내린 지도 제작 관련 지시에는 형식이나 양식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대부분 회화식으로 그렸고, 이전에 그려 놓은 지도를 베끼기도 하였다(배우성, 1998). 지방의 지도 제작 능력이 반영되면서 오히려 고을의 다양성이 유지된 것이다.

2-3) 조선 후기 지도 발달에서 위치

『여지도서』가 이전 지리지와의 가장 차별적인 점은 읍지 앞에 지도를 첨부하였다는 점이다. '輿地圖書' 이름도 이에 비롯되었다. 전기의 『승람』에도 지도가 첨부되어 있었으나 「동람도」와 「도별도」뿐이었다. 『여지도서』에 지도를 배치한 것은 읍지와 군현 지도가 결합된 최초의 사례이며, 이는 이후의 읍지 편찬과 지방지도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도6]은 경상도 경주부를 사례로 『여지도서』를 동일한 시기인 18세기에 그려진 다른 유형의 지도와 비교한 것이다. 지도에는 고을의 중앙을 형강(지금의 형산강)이 북쪽으로 흘러 당시 영일현(지금의 포항시) 일대에서 동해로 유입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고을의 구도는 실제에 비해 남북 길이가 축소되어 있어 실제와 차이가 안다. 이는 광곽 크기에 맞추기 위한 것에 비롯된다.

이와 같은 지도 내용은 회화식 지도인 『해동지도』와 20리 방안지도인 『조선지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다른 지도의 경우 중앙에서 편집하여 통일된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반해 『여지도서』의 경우 지방에서 그려진 지도가 편집 없이 수록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을의 공간 인식 내용이 여과 없이 담길 수 있었다.

19세기의 편찬된 『읍지』에도 대부분 이 형태의 지도가 삽입되어 있다([도6]. 『경

상도읍지』(1832) 참조). 신미양요를 겪은 1871년에 편찬된 읍지에도 동일한 형태의 지도가 삽입되었다. 또한 이듬해인 1872년에는 지방에 지도를 올리라는 지시를 내려 군현과 관방진 지도 461매가 완성되었는데, 이들 중 『여지도서』를 바탕으로 한 지도가 적지 않다.



『해동지도』 경주부(규장각, 18C)



『여지도서』 경주부



『조선지도』 경주부(규장각, 18C)



『경상도읍지』(1832) 경주부(규장각)

<도6. 18세기 이후 군현지도(경상도 경주부 사례)>

『여지도서』는 18세기 지방 고을에서 그린 지도가 집대성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특히 중앙의 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양한 형식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고을민들의 공간 인식 내용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도 발달 뿐만 아니라 고을의 지리과 관련하여 여러 질문과 상상력을 유발하는 지도이다. 또한 이 지도는 1770년 체계적인 좌표 체계를 구축하여 조선 강역을 아우르는 20리 방안지도 제작의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해설」, 『여지도서』 상·하(영인본), 1973.
- 김기혁, 「조선시대 농업지대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26-2, 1991, pp.109~125.
- 정치영, 「『여지도서』를 이용한 조선후기 제언의 지역적 특성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3-4, 2008, pp.620~637.
- 노희방, 「『여지도서』에 게재된 색지도에 관한 연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10-1, pp.1~17, 1980.
- 배우성,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998.
- 양윤정, 「『여지도서』 편찬과 군현지도의 발달」, 『규장각』 43, pp.1~29, 2013.
- 정대영, 「영조연간 전국지리지 『여지도서』의 서지학 연구」, 『서지학연구』 68, pp.377~413, 2016.

20.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2 (紺紙金泥 妙法蓮華經 卷二)

가. 검토사항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2’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로부터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2’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12.1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5.2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2(紺紙金泥 妙法蓮華經 卷二)
- 소유자(관리자) : 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도서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 수 량 : 1권 1축
- 규 격 : 25.9×990.9cm(匡高 19.0cm)
- 재 질 : 감지(紺紙), 금니(金泥)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권축장(卷軸裝)
- 조성연대 : 고려시대 추정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2>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조사 대상의 동국대학교 소장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1권 1축은 고려시대 사경된 불교기록유산으로, 필사상태와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그리고 고려시대 사경불사의 실체와 함께 불교사상적 경향, 당대 사경에 사용된 종이의 종류 등과 함께 저본의 종류 및 사용 이체자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도 담고 있다. 아울러 고려시대 사경된 『묘법연화경』의 새로운 종류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의 사경은 원형의 제침·표지가 마모·훼손되어 있으며, 변상도·조성정보 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료적인 완전성과 역사·문화적인 가치에서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체 7권 가운데 권2의 영본이며, 제3장 제27행부터 제4장 제13행까지 전체 311자 18행의 이시사부중비구비구니(尚時四部衆比丘比丘尼)……진회향불도(盡廻向佛道)라는 본문 내용이 탈락되어 있으므로, 자료적인 완전성도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기존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의 사경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선본으로서의 가치도 제한되어 있다.

때문에 조사 대상의 동국대학교 소장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1권 1축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는 듯하다.

○ (지정 가치 미흡)

조사 대상본은 『묘법연화경』을 감지(紺紙)에 금니(金泥)로 사성(寫成)한 권2의 1축으로 고려 사경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물 자체에 제작의 상황을 확인할 만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고 표지와 내용의 결락, 훼손 상태 등의 제한점이 있어 기지정 동종 문화재에 비하여 선본으로 판단하기는 어려

운 상황이다.

○ (지정 가치 미흡)

조사본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2 1축은 전체 7권 가운데 권2를 금니로 사경한 다음, 두루마리 형태로 장정한 권축장이다.

조사본은 사경의 형식에서도 일반적인 14세기 고려 사경과는 다른 구성을 갖고 있으며, 본문의 글자 가운데 수·당나라 때 사경에서 보이는 무(無)·정(正)·역(亦)·정(定)·인(因)·족(足)의 이체자가 확인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조사본은 원형의 제첩·표지가 마모·훼손되어 있으며, 변상도·조성 정보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조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한 자료로서 연구성과의 축적 이후에 지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조사 대상의 감지금니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1권 1축은 후진(後秦)·구자국(龜茲國) 출신의 삼장법사(三藏法師)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한 전체 7권 가운데 권2의 사경으로, 동국대학교에서 학장을 역임한 김○○(金○○) 교수에게 1965년 12월 기증받아 현재 동국대학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사 대상의 사경은 본문의 필사상태와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그러나 첩제 부분이 훼손·탈락되어 있으며, 본문의 일부 글자도 마모·훼손되어 있다. 특히 전체 7권 가운데 권2의 영본(零本)이고, 전체 20장 가운데 제3장 제27행부터 제4장 제13행까지 311자 18행이 탈락되어 있으며, 필사·조성정보도 확인되지 않는 등 자료의 완전성과 역사·문화적인 가치에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변상도

의 유무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서지사항>

필사본(筆寫本 : [고려시대])

두루마리본(1권 1축)/ 상하단변/ 광고 19.0cm/ 유계(有界)/ 전곽 31행 17자(제1장 29행, 제20장 30행)/ 25.9×990.9cm/ 전체 20장(제3장 제27행부터 제4장 제13행까지 전체 311자 18행의 尙時四部衆比丘比丘尼……盡廻向佛道 내용이 탈락)

첨 제 : [훼손·탈락]

권 수 제 : 妙法蓮華經譬喻品第三 二

한역정보 : 생략

권 미 제 : 妙法蓮華經第二

구성체계 : [변상도]-권수제(경명·분과품제목·권차)-본문내용-권미제

특이사항 : 제1장 제3행 제17자의 득(得), 제1장 제7행 제6자의 매(每) 등이 마모·훼손. 제7장 제7행 제5~6자의 여(與)·자(子) 사이에 제(諸)자의 첨자. 제16장 제22행 제14~15자의 기(其)·견(見) 사이에 부(父)자의 첨자. 제17장 제7행 제13~14자의 유(有)·은(銀) 사이에 금(金)자의 첨자. 뒷면에는 붉은색의 무(無)와 함께 금자(金字)의 궁(窮)·천만(千萬)·국(國)·여시인연(如是因緣)·의(醫)·래(來) 등이 필사

소장정보 : 동국대학교에서 학장을 역임한 김○○(金○○)교수에게 1965년 12월 기증받아 현재까지 동국대학교도서관에서 소장

○ 내용 및 특징

『법화경』이라고도 하는 『묘법연화경』은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된 불교경전이다.

조사 대상의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1권 1축은 전체 7권 가운데 권2를 금니로 사경한 다음, 두루마리 형태로 장정한 권축장이다. 광곽은 은니사란(銀泥絲欄) 형태의 상하단변이며, 광곽의 높이가 19.0cm이다. 본문과 본문 사이에는 은니 계선의 유계(有界) 형태이다. 전곽의 행자수는 31행 17자이며, 제1·20장의 행자수는 각각 29·30행 17자로 배열되어 있다. 권2 전체의 장수는 20장이며, 제3장 제27행부터 제4장 제13행까지 전체 311자 18행 가운데 이시사부중비구비구니(尙時四部衆比丘比丘尼)……진회향불도(盡廻向佛道)라는 본문 내용이 탈락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첨제 부분이 훼손·탈락되어 있으며, 권수제(경명·분과품제목·권차)-본문내용-권미제의 순서로 구성·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권수제의 앞부분에는 원래 변상도의 존재 유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권수제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라는 경전 이름의 아래 부분에 비유품제삼 이(譬喻品第三 二)와 같이 분과품제

목·제(弟)·분과순서·권차의 순서로 연이어 필사되어 있다. 권수제의 다음 행에는 한역정보가 생략되어 있으며, 해당 분과의 본문 내용이 사경되어 있다. 권미제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며, 그 아래에는 제이(第二)처럼 제(第)·권차가 연결되어 있다.

한편, 조사 대상 사경의 본문 내용 가운데는 일부 글자의 마모·훼손과 함께 첨자도 보이고 있다. 특히 본문의 글자 가운데는 수·당나라 때 사경에서 보이는 무(無)·정(正)·역(亦)·정(定)·인(因)·족(足)의 이체자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사 대상의 사경은 수·당나라 때 필사본을 저본으로 필사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 대상의 사경에는 필사·조성정보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성주체·시기·공간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조사 대상본 국보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2
 <조사 대상 사경 탈락 부분 및 본문 족(足)·무(無)·역(亦)자의 이체자 사례>

○ 지정사례

조사 대상의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1권 1축은 고려시대 필사된 사경으로 짐작되고 있는 불교기록유산으로, 동일 권차의 사경이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고려시대 조성된 사경 가운데는 국보 상지은니 묘법연화경(1976년 04월 지정, 국립중앙도서관), 국보 백지묵서 묘법연화경(1984년 5월 지정, 성보문화재단), 국보 감지은니 묘법연화경(1986년 11월 지정,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1(1963년 01월 지정, 마곡사), 보물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6(1963년 01월 지정, 마곡사), 보물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3~4(1963년 01월 지정, 광흥사), 보물 백지묵서 묘법연화경 권1·3(1963년 01월 지정, 광흥사), 보물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7(1963년 01월 지정,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보물 상지은니 묘법연화경 권5~6(1988년 12월 지정,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7(1992년 07월 지정,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기록유산은 대체로 조성정보가 남아 있으며, 표지 등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조사 대상의 사경은 고려시대 사경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필사본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선본(善本)으로서의 가치가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조사 대상의 사경은 원형의 제침·표지가 마모·훼손되어 있으며, 변상도·조성정보 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료적인 완전성과 역사·문화적인 가치에서도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 전자자료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



○ 현 상

<서지사항>

紺紙金泥妙法蓮華經. 卷2 / [鳩摩羅什 譯].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筆寫處不明], [高麗].

1卷 1軸 ; 25.9×990.9cm

○ 내용 및 특징

‘화엄경’, ‘금강경’과 더불어 불교의 대표적 대승경전으로 널리 알려진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일반적으로 ‘법화경(法華經)’으로 약칭하여 불리고 있다. 여러 한역본(漢譯本) 가운데 후진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홍시(弘始) 8년인 406년에 번역한 한문 불경이 가장 많이 유포되어 있다. 역자 구마라집은 서기 350년에 중앙아시아의 구차(庫車)에서 태어나 409년에 중국의 장안에서 열반하였다. 그의 부친은 인도 사람인 구마라염(鳩摩羅炎)으로 명문 집안의 출신이었으나 출가 후 구차에 와서 왕의 누이와 결혼하여 구마라집을 낳았다고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鳩摩羅(夫)+什(母)’이라 이름하였으며 이를 약칭하여 ‘나집(羅什)’이라 하고 중국명으로는 ‘동수(童壽)’로 칭하기도 한다. 그는 7세 되던 해에 어머니와 함께 출가한 이후 스무 살에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比丘)가 되었다. 그 후 전진(前秦)을 이은 후진(後秦)의 요흥(姚興)이 구마라집을 초빙하여 홍시 3년인 401년에 구차를 떠나 이후 10여 년만에 중국 장안에 당도하였다. 이에 요흥은 구마라집을 국사로 예우하였으며 장안의 서명각(西明閣)과 소요원(逍遙園)에 머물면서 불교 경전을 번역하여 모두 35부 294권을 완역했다. 특히 구마라집이 번역한 법화경은 모두 28품으로 구성되었으며 현

재 유통되는 본은 대체로 7권본이다. 그 권차에 따른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卷1 「序分」序品 第1, 「正宗分」方便品 第2

卷2 「正宗分」譬喻品 第3, 信解品 第4

卷3 「正宗分」藥草喻品 第5, 授記品 第6, 化城喻品 第7

卷4 「正宗分」五百弟子授記品 第8, 授學無學人記品 第9, 法師品 第10, 見寶塔 第11, 提婆達名品 第12, 勸持品 第13

卷5 「正宗分」安樂行品 第14, 從地涌出品 第15, 如來壽量品 第16, 分別功德品 第17

卷6 「流通分」隨喜功德品 第18, 法師功德品 第19, 常不輕菩薩品 第20, 如來神力 品 第21, 囑累品 第22, 藥王菩薩本事品 第23

卷7 「流通分」妙音菩薩品 第24, 觀世音菩薩普門品 第25, 妙莊嚴王本事品 第27, 普賢菩薩勸發品 第28

조사 대상본 『묘법연화경』은 감지(紺紙)에 금니(金泥)로 사성(寫成)한 권2로 전체 28품 중 ‘譬喻品 第3’ ‘信解品 第4’가 모두 2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제1행에 “妙法蓮華經譬喻品第三”과 그 아래로 “二”가 한 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제1행 “妙法蓮華經”의 경제(經題), 제2행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詔譯’의 역자 표시, 제3행 28품의 품제(品題)가 기재되는 형식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제1장은 29행, 제19장은 30장, 제20장은 10행이며 나머지는 31행으로 한 행에는 16~18자씩 배자하여 사경하였다. 특히 제3장은 26행, 제4장은 18행으로 제3장의 27행부터 제4장의 13행까지의 내용이 결락되어 있다. 또한 일부 필획의 마모와 훼손이 보이며 금자경문 자체(字體) 중 ‘無’, ‘正’, ‘亦’, ‘定’, ‘因’, ‘足’자 등 이체자(異體字)도 확인되어 수당대(隋唐代) 사경을 저본으로 하여 필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권말의 축봉(軸棒)은 후대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표지가 결락되고 권수제 부분의 훼손으로 변상도의 존재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관 상태>



<권수제면>



<자료 상태>

○ 지정사례

현재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3~4(1963.1.21. 지정, 광흥사),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6(1963.1.21. 지정, 마곡사),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7(1992.7.28. 지정, 국립중앙 박물관) 등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

○ 현 상

<書誌事項>

上下銀泥單邊, 銀泥絲欄, 欄高 19.0cm, 卷軸裝(전체 20장), 1장 31행 17자(제1장 29행, 제20장 30행).

첨 제 : [훼손·탈락].

권 수 제 : 妙法蓮華經譬喻品第三 二.

권 미 제 : 妙法蓮華經第二.

<현상>

조사본은 동국대학교에서 학장을 역임한 김○○(金○○) 교수에게 1965년 12월 기증받아 현재까지 동국대학교도서관에서 소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본은 본문의 필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첨제 부분이 훼손·탈락되었고, 사경 일부의 물리적 손상 등이 상당 부분 확인된다.



○ 내용 및 특징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일반적으로 『화엄경』·『금강경』과 더불어 불교의 대표적 대승경전으로 널리 알려진 『묘법연화경』은 범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이를 흔히 ‘법화경(法華經)’으로 약칭하여 불리고 있다. 이 경전의 원서명은 “saddharma-pundarika-sutra”로서 그 의미는 ‘백련꽃과 같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경전’으로 풀이한다.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묘법연화경』의 대부분은 요진(姚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한 역본에 송(宋)의 계환(戒環, ?~?)이 1126년(고려 인종 4, 靖康1)에 주해(註解)한 7권본이다. 계환의 주해본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통된 것은 문장이 간결하여 비교적 이해하기 쉬웠던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조사본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2 1축은 전체 7권 가운데 권2를 금니로 사경한 다음, 두루마리 형태로 장정한 권축장이다. 변란은 은니로 상하단변 형식으로, 행간의 계선 역시 은니로 구성하였다. 변란의 높이는 19.0cm이다. 전체 2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의 행자수는 31행 17자 구성으로 판단된다. 제1·20장의 행자수는 각각 29·30행 17자로 배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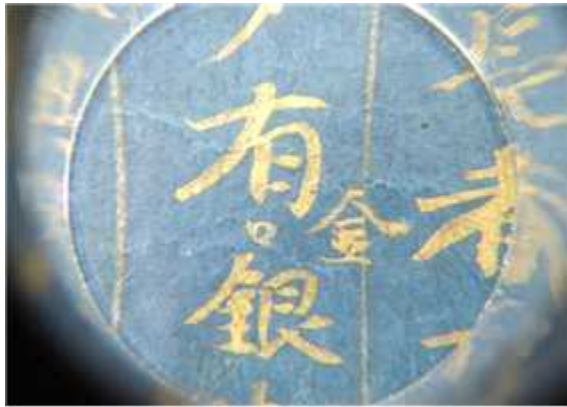
조사본의 내용은 「비유품(臂喩品)」과 「신해품(信解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3장 제27행부터 제4장 제13행까지 전체 311자 18행 가운데 이시사부중비구비구니(爾時四部衆比丘比丘尼)……진회향불도(盡廻向佛道)라는 본문 내용이 탈락되어 있다.



조사본은 권수제(경명·분과품제목·권차)-본문내용-권미제의 순서로 구성·배열되어 있다. 권수제의 앞부분에는 현재 변상도가 확인되지 않는데 본래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권수제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라는 경전 이름의 아래 부분에 비유품제삼 이(譬喻品第三 二)와 같이 분과품제목·제(第)·분과순서·권차의 순서로 연이어 필사되어 있다. 권수제의 다음 행에는 한역정보가 생략되어 있으며, 해당 분과의 본문 내용이 사경되어 있다. 권미제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며, 그 아래에는 제이(第二)처럼 제(第)·권차가 연결되어 있다.

한편, 조사본의 본문 가운데 일부 글자의 마모·훼손과 함께 침자도 보이고 있다. 특히 본문의 글자 가운데는 수·당나라 때 사경에서 보이는 무(無)·정(正)·역(亦)·정(定)·인(因)·족(足)의 이체자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사 대상의 사경은

수·당나라 때 필사본을 저본으로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첨자>



<첨자/이체자>

○ 지정사례

고려시대에 조성된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사경은 보물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6 (1963년 01월 지정, 마곡사), 보물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3~4(1963년 01월 지정, 광흥사), 보물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7(1992년 07월 지정,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로 있으나 동일 시기 및 형식의 사경이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